# 漢 城 新 報

<제 3 권 : 1896년(명치 29년) 5월 ～ 8월>

5월 :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6월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7월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8월 :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NO 1 마이크로필름본(1895년-1896년) >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英國이 [..]ᄒᆞᄂᆞᆫ [..]이라
태평양(동양의바다) 전신선을 [..]
ᄒᆞ자ᄂᆞᆫ거슨 좌와여ᄒᆞᆷ
[..]이 [..]셔 [..]
及[..]의셔, 내고, 「희낫그」와, 「희
찌」와 「뉴찌란더」란ᄯᅡᆼ으로가고,
ᄒᆞ나ᄂᆞᆫ 「완구바」란ᄯᅡᆼ에셔 [..]
「ᄲᅳ라닝」과와 「ᄉᆞ모아」[..]지나
셔 「뉴찌란더」 란ᄯᅡᆼ으로가고, ᄒᆞ
나ᄂᆞᆫ 「완구바」에셔 [..]과, ᄉᆞ모
으[..]와, 뉴찌 란더 ᄂᆞᆫ지나셔 [..]
로나가ᄂᆞᆫ[..]을, 일본으로, 오게
ᄒᆞᄂᆞᆫ거시니라
[..] 졍부ᄉᆞ업으로 ᄒᆞ자ᄂᆞᆫ지 [..]
으로ᄒᆞ고, 졍부에셔, 두번히 [..]
물ᄒᆞ야주ᄂᆞᆫ지, 시방[..]ᄒᆞ야잇
더라
[..] 「오다와」[..]에셔 [..]ᄒᆞ든
二[..]은, 그영국[..], 데일
ᄀᆞᆺᄀᆞ온[..]가, 오셔칠빅[..]요
, 데일멀은[..]ᄂᆞᆫ, 친쳔이빅[..]인듸
, 물이깁기가, 구쳔ᄉᆞ봇터, 일만이
쳔ᄉᆞ되ᄂᆞᆫ오량이라
[..] [..]케, 츅셜ᄒᆞᆷ요
량이요, 되도록 타국[..]ᄂᆞᆫ, 피ᄒᆞ
야, 놋ᄂᆞᆫ싱각이니라
미국도, 이경운이잇고, 일본도, 이
경운이, 잇ᄂᆞᆫ빈쥭, 필경가셔, 어ᄂᆞ
나라가, 실지시작케, 될넌지요
●[..] 이왕에 [..]
[..]ᄂᆞᆫ, [..]의[..]ᄂᆞᆫ, 바르
며, 또, 전에, 남경[..]과, 남경[..]
[..]이란사ᄅᆞᆷ들이, 그간ᄉᆞ
원으로, 임명되야, 시방, 그[..]을
[..]ᄒᆞ야잇다더라, 그[..]을, 들으니,
그ᄌᆞ본금은, 구십만원으로ᄒᆞ고, [..]
(젼긔등)은, 켜ᄂᆞᆫ집사ᄅᆞᆷ의마당에
[..]ᄒᆞ나씩, 세워셔, 미가에엽
으로, 쳘푼씩내며, 켜ᄂᆞᆫ젼은, [..]
([..]), 셧, 켜ᄂᆞᆫ[..], ᄒᆞᆫ군ᄃᆡ에, 엽으
로, 두낭씩으로, 졍ᄒᆞ야, [..]의
[..]에 [..]케 젼긔등을, 비셜ᄒᆞᆯ터힌
듸, 그[..]에셔, 십오만원은, 그발
긔인이, 단부ᄒᆞ야셔, 내여두엇다더
라

●[..]
(거러)로, 완셰게 [..] 든, 동국
사ᄅᆞᆷ헨리스닷브[..]ᄂᆞᆫ 노자가, 부
독되야, 향자갓더, 일본회번이란듸
에잇다가, 지난[..]일에, 미국으로,
향ᄒᆞ야, 떠나셔, 도라갓ᄂᆞᆫ듸, 이사
ᄅᆞᆷ은, 져자[..]실인에, [..]을[..]
ᄒᆞ고, 나기ᄂᆞᆫᄒᆞ든사ᄅᆞᆷ인죽, 그난시
지에, 미국[..]으로, 나오지아니면,
ᄒᆞ로[..]씨가, 내ᄂᆞᆫ야죠가잇스므로
, 관경가셔, 입쳔삼[..]권을, 무러내
니, 그[..]이, 그러ᄒᆞ다더라

●[..]ᄒᆞᆫ다ᄂᆞᆫ[..]이라 넌젼
붓터, 운명[..]화코자ᄒᆞ야, 여러간요
ᄒᆞᆫ하교[..], 비셜ᄒᆞ고, [..]
[..]쟘자고, 그리제[..]스되,
그ᄀᆞ못치ᄂᆞᆫ거시, 수[..]변리로, ᄒᆞ야
왓든[..]의셔, ᄀᆞ못치ᄂᆞᆫ것만못ᄒᆞ
므로, 이제ᄂᆞᆫ, 그하교[..], 어져버리
고, 이전에, ᄒᆞ야잇든, 하당에셔, ᄀᆞ
못치게ᄒᆞ니, 영어하교든지, 법어하
교든지, 일어하교든지, 아어하교ᄂᆞᆫ
, ᄀᆞ못칠하당이, 업스므로, 그냥둘
밧긔업ᄂᆞᆫ듸, 하교라면, 본이, 일본
남인죽, 이명식도아모하당이라고,
칭ᄒᆞᆷ이온다ᄂᆞᆫ, 외논이, 아관게[..]
ᄒᆞ야잇ᄂᆞᆫ, 졍부ᄂᆡ각의셔, 의논들ᄒᆞ
야잇다ᄂᆞᆫ, 소문이낭자ᄒᆞ더라

●[..]이라 음녀졍원쪽에,
양녀은, 일본쳐녀이미, 도로, 복구
ᄒᆞ야셔, 음녀윤쓰든지, 아라사쳐녀
을, 쓰든지ᄒᆞᄂᆞᆫ거시, 올타ᄂᆞᆫ, 소문
이잇다가, 번로히[..] 돈아니ᄒᆞ얏스
나, 군[..]그인노상소도ᄒᆞᄂᆞ니잇고,
또[..]가, 잇다ᄂᆞᆫ듸, 본[..], 우리됴션
은, 인조대왕봇터, 근삼빅년동안을,
대국에[..]ᄒᆞ고, [..]의칙녁을, 봉ᄒᆞ
야, ᄂᆞ려왓ᄉᆞ니, 김홍집등의역적이,
동님이라고ᄒᆞ야, 그리ᄒᆞ얏스되, 첫
지[..]의[..]에틀니고, 둘지ᄂᆞᆫ, 대국
에[..]ᄒᆞ야잇셔야, 아모거졍도업ᄂᆞᆫ
인이고, 또셋지ᄂᆞᆫ, 동님동젼[..]
이라고ᄒᆞ야, 동님이란[..]이란
뜻신쥭, 시방쳥국, 무대국과, ᄒᆞᆫᄀᆞ
국ᄉᆞ이에[..]ᄒᆞ야잇다가ᄂᆞᆫ, 망ᄒᆞᆯ
을, 기다리ᄂᆞᆫ거ᄉᆞ니, 양녀을, 폐
ᄒᆞ야버리고, 대국의칙녁을, 봉ᄒᆞ려
니, [..]유업스므로, 실졍은, 잇더
[..]ᄒᆞ든지, 아라사칙녁을, 봉ᄒᆞ게ᄒᆞᄂᆞᆫ
거시, 든든ᄒᆞ다ᄒᆞ며, 또아쥬, 남의
나라쇽국이된다ᄒᆞ야도, 명식만, 그
리ᄒᆞ지, 비셩은, 그냥잇고, 수년젼
이나, 쇽수빅년젼과, ᄯᅩᆨ갓트니, 그리
ᄒᆞᄂᆞᆫ거시올타고두어대신이, [..]ᄒᆞ
얏다더라ᄂᆞᆫ, 소문이잇스되, 그러ᄒᆞᆯ
패심ᄒᆞᆫ[..]를, 의논ᄒᆞ니가, 잇스리
요마ᄂᆞᆫ, 소문대로, 긔ᄌᆡᄒᆞ야, 그[..]
참을[..]ᄒᆞᆷ

●[..] 동씨ᄂᆞᆫ, 향일에, 쥬미공
ᄉᆞ로된죽, 곳긴을떠나셔, 젼에, 못
되ᄂᆞᆫ줏시, 들어나기젼에, 미국으로
피ᄒᆞ야, 가자고, 곳, 그힝장을치리
며, 미국인에게, 유뢰ᄒᆞ엿스로, 가
져다주려고, [..]와[..]과[..]
을, 입쳔[..]을, 사다가, 아모때
라도, 길을떠나게, 기다리ᄂᆞᆫ터에,
여러운ᄉᆞ이나셔, 음녀졍원이리의,
ᄒᆞ든일이, 모도, ᄒᆞᆫ자운에, 밧을밧
긔업게되고, 이ᄯᅢ지환궁을, 못ᄒᆞ시
게ᄒᆞ야, 일이어렵게, 되얏스믈보고
, 피ᄒᆞ야, 가려ᄂᆞᆫ됴하고[..]의[..]
이나셔, 언제쯤에, 발졍ᄒᆞᆯ넌지, 아
직은, 아ᄂᆞᆫ슈업슬ᄲᅮᆫ아니라, 미국공
ᄉᆞᄂᆞᆫ, 셔광범씨가, 도임ᄒᆞ야갓ᄂᆞᆫ지
, 얼마못되고, 또미국에셔, 물망과[..]
[..]이잇ᄂᆞᆫ데, 그러ᄒᆞᆫ줏슨, 싱각치안
코, 곱내버리고, [..]ᄒᆞ게ᄒᆞᄂᆞᆫ거
시아니라, 오히려, 낭국[..]케
ᄒᆞᄂᆞᆫ줏시라고, 말을ᄒᆞ얏스므로, 부
임발졍일은, 좀마시연ᄂᆞᆫ모양이니,
음녀새로보ᄅᆞᆷ게쯤에, 길떠나지아
니며ᄂᆞᆫ, 그만, 못가게되런다ᄂᆞᆫ소문
이, 낭자ᄒᆞ되, 그[..]ᄒᆞᆷ을, 자세
모르나, 듯ᄂᆞᆫ대로, 긔ᄌᆡᄒᆞᄂᆞ니라

●[..]라 니쥬근씨ᄂᆞᆫ, 완고ᄒᆞ
기ᄂᆞᆫ, 완고ᄒᆞ되, 세상에셔, 소문을
ᄒᆞᄂᆞᆫ것쳐ᄅᆞᆷ, 심ᄒᆞ지안코, 일젼붓터

이분ᄉᆞ [..]
라, 연이
발인쥭
●文[..]
됴션북
이, 도션
에, 그
이[..]
이십여
超
이에
혼쥭
소져롤
ᄂᆞᆫ지라
ᄒᆞ야길
더브러
지물과
의장악
제도우
놀, 봉
이, 음
힝ᄉᆞ
이잇셔
요, ᄒᆞ
의게, 기
분히너
지물을
이게ᄒᆞ
탄복ᄒᆞ
집멸노
쳐외게
순셤의
쥬이고
ᄒᆞ기를
가잇ᄂᆞᆫ
밧그로
ᄒᆞ고,
공ᄌᆞ가
안이쥬
언제사
되, 옥
려와쳔
첫번에
도모ᄒᆞ
만속히
부요ᄒᆞᆷ
근이, 그
잇더니
유쳔심
너거셔

여적이、 ᄉᆞ스되、셧 논대국 셩도업논 숀단[illegible] [illegible]이란 가、혼궁 마머홈 녀올、페 봇ᄒᆞ려 ㄷ、잇더 계ᄒᆞ논 、놈의 식만、그 수년젼 이、그리 、[illegible]ᄒᆞ 그러홈 잇스리 、그[illegible] 쥬미공 에、못 국으로 울치리 로、가 [illegible] 아모때 논터에、 이리의、 밧을밧 못ᄒᆞ시 를보고 [illegible]의 넌지、아 미국공 갓논지 물망과 각치안 ᄒᆞ논거 [illegible]케 므로、부 양이니、 셔나지아 다논소문 을、ᄌᆞ셰 논니라 、완고ᄒᆞ 、소문은 일젼붓터

、이로쓰고、의국의[illegible] 라、연이나、여러운ᄉᆞ이잇논ᄉ게 말인즉、이만ᄒᆞ、밋을슈논업논지라 ●[illegible]라 근뒤、일본사ᄅᆞᆷ이、 됴션부상을、빈도논이、만타논소문 이、됴션사ᄅᆞᆷ의게잇다논뒤、그때ᄂᆞᆫ 에、그러ᄒᆞᆫ지、인젼보뎌、됴션숀겸 이[illegible]운ᄉᆞ아、진고기운[illegible]ᄒᆞᆫ지가、 이섭ᄆᆞ명이나뢰다더라

# 趙婦人傳 (조부인젼)

二十

이에[illegible] ᄒᆞᆫ쥬、노우려와우뎌이、부동ᄒᆞ야왕 소져를、ᄉᆞ이에노코、조부인을세ᄒᆞ 논지라、이에니히각과、더브러의논 ᄒᆞ야ᄀᆞᆯᄋᆞ뒤、우리쥬인이조부인과 더브러의가친ᄒᆞ기에셔、디승ᄒᆞ야셔、 지물과인뎌을ᄋᆞ기지아니ᄒᆞ고、한국칭 의쟝아의든것ᄉᆞ、ᄀᆞᄒᆞ야ᄂᆞ여서、이 제ᄯᅩ우리로ᄒᆞ여ᄀᆞ、호위케ᄒᆞᆷ이여 ᄂᆞᆫ、본졔ᄒᆞ우뎌과、간악ᄒᆞᆫ왕소져등 이、음흉ᄒᆞᆫ노위려ᄅᆞᆯ위ᄒᆞ야、간악ᄒᆞᆫ 형ᄉᆞ를、계교ᄒᆞ니、우리가업지감안 이잇셔서、지보ᄒᆞᆫ다ᄒᆞ지아니ᄒᆞ리 요、ᄒᆞ고계교ᄂᆞᆫ성각ᄒᆞ시、곳셔호영 의게、그변ᄒᆞ니、셔호영이듯고、크게 분히너겨서、계칙을즁ᄒᆞ야보니되、 지물을써셔、이간을못처셔、서로죽 이게ᄒᆞ라ᄒᆞ엿거ᄂᆞᆯ、하샹ᄒᆞᆼ이깁히 탄복ᄒᆞ고、지물을헷처셔、녕니ᄒᆞᆫ기 집업노ᄒᆞ야ᄒᆞ반간을、부리되、왕소 져의게ᄂᆞᆫ맙ᄒᆞ기를、육뎐공ᄌᆞ가、무 숀셥의와쉔슈가잇논지、왕소져、을 쥭이고져ᄒᆞᆫ다ᄒᆞ고、육뎐의게논맙 ᄒᆞ기를、왕소셔가、무숀쳐의와쉔슈 가잇논지、육뎐공ᄌᆞ를죽이고쟈ᄒᆞ되、 밧그로、노위려시게셔、남을쥬션ᄒᆞᆫ다 、ᄒᆞ고、노위려의게논맙ᄒᆞ되、육뎐 공ᄌᆞ가무숀쳐의잇논지노위를、감 안이쥭일계교를、ᄒᆞᆫ다ᄒᆞ엿더니、과 연셰사ᄅᆞᆷ이、셔로의심ᄒᆞ야、싀기ᄒᆞ 되、육뎐이이와붓터、왕소져가노위 려와친밀ᄒᆞᆫ、간졍을지쟉ᄒᆞᆫ논지라、 쳣번에논헤야리되、육부인의년을、 도모ᄒᆞ니라고、그러ᄒᆞᆫ가ᄒᆞ야、그님 만숙히일우엇스면、왕소져와둔이 부요ᄒᆞᆯ을、누리고잘살니라ᄒᆞ야、은 근이、그넘만숙히일우기ᄂᆞᆫ、ᄇᆞ라고 잇더니、밋반간ᄒᆞᆫ논말을듯고、그간 유ᄒᆞᆫ신쟝을、가히세닷고、크게분히 너겨셔、다시왕소져의게、간히가든

못ᄒᆞ고、감안이그ᄉᆞ경만하지ᄒᆞ더 니、왕소져가、노위려ᄅᆞᆯ샹관ᄒᆞ후로 논、육태과더브러졍의가셩ᄒᆞ고、그 오논것슨반가이너기지안타가、밋 반간ᄒᆞ논말을듯고논、크게의심ᄒᆞ 여성각을ᄒᆞ되、내가그왕져와더브 러、샹관ᄒᆞᆷ도、명도논아니여ᄂᆞᆯ、ᄯᅩ 다시노위려와샹관ᄒᆞ엿스니、육태 은신넌것시、ᄯᅩᄒᆞᆫ변고아닌뒤、제무 숨연고로、남을쥭이라ᄒᆞ선고、ᄒᆞ야 이게위려ᄂᆞᆫ、쳥ᄒᆞ야그연유를ᄌᆞ셰 이맙ᄒᆞ고、이에몬져방비ᄒᆞ기를청 [illegible] 마음이간졀ᄒᆞᆫ지라、왕소져와ᄂᆞᆫ、쟈 시ᄉᆞ졍으로、비록친밀ᄒᆞ나、ᄒᆞᆫ가지 논、조부인은도ᄯᅥᆨᄒᆞᆷ닐에셔ᄉᆞᄒᆞᆷ을 위험이요、ᄒᆞᆫ가지논귀의의、온전ᄒᆞᆷ 을、위로ᄒᆞ기로이ᄒᆞᆷ이、ᄂᆞ인변은、유 ᄃᆡ의게、몬져비웃ᄂᆞᆷ을ᄋᆞᆺ그러워ᄒᆞ 다가、이맙을듯고、비록의심이나ᄂᆞ 조부인을、도독ᄒᆞ논닌이、아쥬흔닐 가념녀ᄒᆞ여ᄀᆞᆯᄋᆞ뒤、부인이네소원 을일웟스면、부인의소원은、일우기 가、어렵지안켓노라、ᄒᆞ거ᄂᆞᆯ、왕소 져가셩각ᄒᆞ되、굿히여조부인의허 락을、밧을것시아니라、두군뒤를、 다속여셔、그악을졍ᄒᆞ고、노위로ᄒᆞ 여곰、부인과나를다리고가게ᄒᆞ면、 셔、죽기쉬일터이나、부인이죽거든 본인이속고、ᄉᆞ을ᄂᆞ여가다가、본ᄒᆞ여 、ᄂᆞᆫ、만ᄒᆞᆫ자ᄉᆡᆼ어가면、노위려가부인 을、ᄉᆞ모ᄒᆞᆫ논마음이、ᄌᆞ연이업셔지 리라ᄒᆞ야、이에노위려의게[illegible] 여갈ᄋᆞ뒤、부인은허락은、밧지아니 ᄒᆞ엿시나、마음은리반이ᄂᆞᆫ듯ᄒᆞᆫ시 니、여기셔、육태이만、제어ᄒᆞ고、도 라갈길을、차리시면、식이조부인과 ᄒᆞᆫ게、ᄯᅡ라가오리니、젼작ᄒᆞ소셔、 노위려가、그맙을듯고、올히여겨、 일변으로、도라갈ᄎᆞ쟝을찰이며、일 변으로、육태이、제어ᄒᆞᆯ셰ᄒᆞᆫ、싱각 ᄒᆞ더라、육태이가、동졍을살피다가、 은근ᄒᆞᆫ논치를알고、이에몬져제어 ᄒᆞᆯ베ᄒᆞ을셩각ᄒᆞ더라、잇ᄯᅢ의、두 군뒤、음모비계가、잇스미살기가、 등등ᄒᆞ고、가만ᄒᆞᆫ던、이간의맙이、 낭ᄌᆞ이퍼져서、육쳥공ᄌᆞ귀외들어 간지라、육쳥공ᄌᆞ가、그ᄉᆞ긔를ᄌᆞ셰 이알고、크게분히너겨셔、이에몬져 육태을쥭여셔、집안의우됨을、업시 ᄒᆞ고져ᄒᆞ시、그만이우태의귀에、드 러가미、우태에형셰가、심히의롭고

쟈가의、계교가궁ᄒᆞᆫ지라、[illegible] 을、변ᄒᆞ지못ᄒᆞᆯ줄알고、이에도망ᄒᆞ 야、멀니가니라、왕소져가、우뎌에 도망홈을、보고、심히다ᄒᆡᆼ이너겨셔 단마다노위를쳥ᄒᆞ야、집거ᄒᆞ울입 우고、계교ᄂᆞᆫ진쥬의게、부탁ᄒᆞ야、 숙히칭ᄒᆞ기를、지쥭ᄒᆞᆷ식、말이누셜 ᄒᆞ야、여러시비가모다알미、ᄌᆞ연이 젼파ᄒᆞ야、소문이요란ᄒᆞᆫ지라、이ᄯᅢ 의、니히각이가、셩각ᄒᆞ되、하샹ᄒᆞᆼ 이논、공이만ᄒᆞᆫ뒤、져논공이업슴을 붓그려ᄒᆞ다가、일이이디경의일으 [illegible]왕소져의、소위가심히、미운지 다、쥬인이육쳥공ᄌᆞ를보고、왕소져 의죄악을의논ᄒᆞ미、육쳥공ᄌᆞ도、왕 소져의소위가극히밉던ᄎᆞ의、니히 각에맙을들은즉、심히맛당ᄒᆞᆫ지라、 서로왕소져를、쳐치ᄒᆞᆯ의논을ᄒᆞ고、 육쳥공ᄌᆞ가조부인을、가뵈옵고、그 와논을알외온뒤、부인이웃고、젼후 말을、서로인ᄒᆞᆫ후에、ᄀᆞᆯᄋᆞ뒤내짐쟉 그힘동과언어가、슈샹ᄒᆞ올괴이히 너겻더니、과연이ᄀᆞᆺ흔음모비계멀 이、잇슨연괴로다、답은분ᄒᆞᆫ것슨、 우뎌의、소위가디절ᄒᆞ거나와、지 금에도망ᄒᆞ야업고、항소져의위인 은본리부죡ᄒᆞᆫ지라、조금아ᄒᆞᆫ인싱 을、엇지죡가ᄒᆞ리오、내한국쳥에쟝 악에、들엇슬적은、맛치호랑에굴에 、빠졋슴과ᄀᆞᆺ허스되、살어나옴이잇 셧거ᄂᆞᆯ、ᄒᆞᆫ올며、내가자유ᄒᆞᆯ권을가 진후에야、제가비이잇기로、내게엇 치ᄒᆞᆯ리요、그인싱이불샹ᄒᆞ니、용셔 ᄒᆞ기를、ᄇᆞ라노라ᄒᆞ거ᄂᆞᆯ、육쳥공ᄌᆞ 가、니히각을보고、부인에ᄯᅳᆺ슬젼ᄒᆞ 고、부인에맙을어그기를、란쳐히ᄒᆞ 논지라、니히각이이에그ᄯᅳᆺ슬알고、 감안이왕소져시비、아모기、아모기 、ᄒᆞᆫ세고、벙즈엇뎡을보니셔、쳐치 ᄒᆞ라ᄒᆞ고、육쳥공ᄌᆞ의게와셔、그날 운ᄌᆞ셰맙ᄒᆞ고、의논ᄒᆞ여ᄀᆞᆯᄋᆞ뒤、날 이이디경의일은후에논、노위려를 상녀보니면추환이업지못ᄒᆞᆯ터이니 진작쳐치ᄒᆞᆫ논이만、ᄀᆞᆺ지못ᄒᆞ다、ᄒᆞ 고노위려를、쳐치ᄒᆞᆯ의논을、ᄒᆞᆫ식소 이나고、노위려논、발셔도망ᄒᆞ엿다 분을듯으니、왕소져의련즁의、큰닐 、ᄒᆞ거ᄂᆞᆯ、니히각이가、공ᄌᆞ와작별 ᄒᆞ여ᄀᆞᆯᄋᆞ뒤、노위려ᄂᆞᆫ듯셧슨즉、후 환이적지안닌지라、밧비도라가셔、 쥬인셔공에게그변ᄒᆞ야、노위려ᄅᆞᆯ 방비ᄒᆞᆷ도리를ᄒᆞᆷ지로다

# ●論時務疏

근일의一流行이오、또그紛々ᄒᆞᆫ疏章이[illegible]지아니ᄒᆞᆫ거시업ᄂᆞᆫ듸、이ᄂᆞᆫ곰그論時務疏가다른이라、그리ᄒᆞ고、그샹소ᄒᆞᆫ이ᄂᆞᆫ、누군고ᄒᆞ니、슈원에사ᄂᆞᆫ金炳玭、金昌洙、呂鶴九씨등의疏論ᄒᆞᆫ바、무어신고ᄒᆞ니、좌긔ᄒᆞᆫ、소본을、보시오

水原金炳玭、金昌洙、呂鶴九等上疏

伏以[illegible]

一曰 [illegible]

二曰 [illegible]

三曰 [illegible]

四曰 嚴定文官銓法 [illegible]

## 雜報

●[illegible]

일젼에、농샹공부대신조병직씨가、ᄌᆞ인소를、밧쳣다ᄂᆞᆫ말을、듯ᄂᆞᆫ바더니、지작일의관보호외로、피답이나렷ᄂᆞᆫ듸、좌와여ᄒᆞᆷ

批曰[illegible]

●原公使來任之期 일본새공ᄉᆞᄂᆞᆫ、지작일에、神戶港을、써나셧다ᄂᆞᆫ젼보가、나왓다ᄒᆞ니、사오일안으로、드러오시리라더라

●閔泳駿氏라 동씨ᄂᆞᆫ、향일붓터、소문이대단ᄒᆞ든[illegible]ᄒᆞᆫ후에、병부대신(西)[illegible]로된다든지、그[illegible]소문이、좀잇더라

●閔泳煥氏라 수일젼에、아라사국신도비돌소비용[illegible]에、류ᄒᆞ야잇ᄂᆞᆫ、민영환씨ᄒᆞᆫ테서、셩긔운씨ᄒᆞᆫ테、젼보가나왓스되、아직[illegible]등도、무슨말이나왓든지、아ᄂᆞᆫ이업다더라

●[illegible] [illegible]ᄅᆡ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잇ᄂᆞᆫ듸、본이셩이가、심이어렵더니、지난간[illegible]일의、그쳐가、히복ᄒᆞ여셩남은시ᄂᆞᆫ、산모ᄒᆞ고、구원할도리가、젼혀업셔셔、슈임졍화[illegible]ᄒᆞ고、밥ᄒᆞᆯ솟과국ᄒᆞᆫ모금을、못어더먹고、졍신을일코、거의죽을지경이、되미、그집안이、황황이지ᄂᆡ더니、맛참、젼라도남원스ᄂᆞᆫ 니쥬ᄉᆞ쥬영씨가、지ᄂᆞ다가、그소식을듯고、인명을가궁이역여셔、온젼ᄉᆞ원을、쥬어셔、죽게된인명을、살녓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이라 향자붓터、관보과에서[illegible]ᄒᆞ야잇든、이나라[illegible]슈[illegible]은、다되고、시방、그[illegible]ᄒᆞ야잇스니、오래치안코、반포되리라더라

# ●外部及中樞院之移廳

지작일관보에 조측으로、내리신말ᄉᆞᆷ이、외부를、즁츄원으로옴기고즁츄원을、젼즁츄원(관보과)에、옴기게되얏더라

●[illegible]之[illegible]

[illegible]가[illegible]ᄒᆞ려고그러ᄒᆞᄂᆞᆫ지、젼국팔도에、지마다、미[illegible]씩ᄒᆞᆫ、새로[illegible]ᄒᆞᆫ자ᄂᆞᆫ[illegible]가、잇다더라[illegible]ᄒᆞ야、그[illegible]의법은、ᄉᆞᆫ一ᄒᆞ야서、어디ᄒᆞᆫ셩에들ᄉᆞ든지、ᄒᆞᆫ분ᄒᆞ고[illegible]에서、미결에、엽젼으로、두냥씩이오、[illegible]을、아니ᄒᆞᆫ자에서、미결에、엽젼으로、ᄒᆞᆫ냥씩을[illegible]케ᄒᆞᄂᆞᆫ듸、그됴ᄉᆞᄒᆞᆷ과、[illegible]도거의、다되얏스므로、더[illegible]ᄒᆞᆫ다더라ᄂᆞᆫ、소문이잇스되、아직、ᄌᆞ셰치아니ᄒᆞ더라

●一個大隊新設之風說 시방졍부ᄂᆞᆫ、친위디五個大隊外에、一個大隊를新設ᄒᆞ야、그병졍을募集ᄒᆞᆫ다고、각쳐지방에셔、올나온자가、요ᄉᆞ이、퍽만타더라

●出征親衛兵之[illegible] 시방각쳐지방에出征ᄒᆞᆫ친위병은、일쳔오ᄇᆡᆨ명만된다ᄂᆞᆫ말은、일젼신문에ᄀᆡ지ᄒᆞ얏거니와、그[illegible]ᄒᆞᄂᆞᆫ거슐을드르니、이ᄂᆞᆫ、원[illegible]九隊로ᄒᆞ야군부가대신이、미리[illegible]ᄒᆞᆫ지방의[illegible]분[illegible]을[illegible]ᄒᆞ야[illegible]군[illegible]에[illegible]ᄒᆞ얏스되[illegible]잔케ᄒᆞᆷ이ᄂᆞᆫ、일본[illegible]中[illegible]의[illegible]ᄒᆞ게ᄒᆞ야두고、피[illegible]의[illegible]ᄒᆞᆷ을、파ᄀᆞᆺ치、각지방의ᄉᆞ이에、서로、통[illegible]서로、웅케ᄒᆞ니、ᄒᆞᆫ지방에、폭도가[illegible]來ᄒᆞᆫ즉、곳그근쳐에[illegible]ᄒᆞᆫ병졍이와셔[illegible]ᄒᆞ고、[illegible]가、심ᄒᆞ야、어려울때ᄂᆞᆫ、다른[illegible]로、급히그변ᄒᆞ야、구완케ᄒᆞᄂᆞᆫ방법이오、또、단리一隊를두니[illegible]로ᄒᆞ야、각쳐를巡行케ᄒᆞ야둔다니、폭도가、봉긔ᄒᆞᆷ을막고[illegible]을[illegible]케드면、지극ᄒᆞᆫ힝복이아니라

●[illegible]不[illegible] 시방친위디병졍은[illegible]며、병졍되ᄂᆞᆫ거슐[illegible]ᄒᆞᄂᆞᆫ자가、잇다ᄂᆞᆫ말은、젼일신문에、ᄀᆡ지ᄒᆞ얏거니와、아직도、그[illegible]、막지아니ᄒᆞᆫ모양인지、나흘젼에、발군쥬리잇ᄂᆞᆫ[illegible]들、쓰든병졍이、[illegible]을、몬져ᄎᆞ고、된거잇더라、지방에폭도가나셔、진졍치도못ᄒᆞᄂᆞᆫ[illegible]에、[illegible]ᄒᆞᆷ이시방도、그러ᄒᆞ니、일인즉、젹은일이로되、[illegible]의一[illegible]의[illegible]이[illegible]ᄒᆞ야니ᄒᆞ리라

●[illegible]之[illegible] [illegible]에서ᄂᆞᆫ、[illegible]及[illegible]에、세를붓쳐、과부ᄒᆞ자ᄂᆞᆫ[illegible]잇다더라、그러더니[illegible]에、쓰자고、그리ᄒᆞᄂᆞᆫ지、좀니저버렷스나、이의논이[illegible]되게드면、그[illegible]은、군부와、밋[illegible]에、경비로、ᄒᆞᆫ자ᄂᆞᆫ뜻ᄒᆞᆫ다더라

●[illegible] [illegible]지방에[illegible]ᄒᆞ야、짐군이나ᄒᆞ고、산군이나ᄒᆞ야、버러디니고、좀[illegible]을못ᄒᆞᄂᆞᆫ、표션사ᄅᆞᆷ들이、근ᄅᆡ、본국[illegible]이、시번모양이、되얏든일을듯고、벼슬이나 어드라고、[illegible]ᄒᆞ든자가、퍽만어[illegible]ᄒᆞᆫ다ᄂᆞᆫ말은、월젼에긔[illegible]ᄒᆞ얏거니와、이사ᄅᆞᆷ중에서、[illegible]로、되얏스든사ᄅᆞᆷ도、퍽만타ᄒᆞ

되、아직도、[illegible]ᄒᆞ고、ᄇᆞ라잇ᄂᆞᆫ거나된다ᄒᆞ나라사[illegible]이되고、무[illegible]ᄒᆞ[illegible]라더

●水原[illegible] 친위병、[illegible]도、그[illegible]그지방의[illegible]젼에、쥭녕、지방[illegible]규셩을쏫ᄎᆞ[illegible]을ᄒᆞ야잇다

●[illegible] [illegible]든、관군이、그신레들、실고나려와닷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illegible]더에、도[illegible]이、낭자ᄒᆞ、우리됴션、어번동안은나려와서、태조대왕의님코자ᄒᆞ므[illegible]ᄒᆞᆫ일이[illegible]문이라ᄒᆞ고모나라、은[illegible]을、거러을가잇다고、

●[illegible]人[illegible] ᄒᆞ다가、관[illegible]군이라ᄒᆞ고만ᄂᆞᆫ즉、관아죽이니、[illegible]ᄂᆞ관군[illegible]아구ᄂᆞ지몰[illegible]숨을급히지아모리、긴[illegible]ᄒᆞᄂᆞᆫ지라、[illegible]이ᄅᆞᆫ치ᄂᆞᆫ、

●天[illegible] [illegible]이라、ᄒᆞᆫ십오세요、[illegible]집이근난ᄒᆞᆫ[illegible]으로아서 버러、어

가에一個
ᄒᆞᆫ다고
ᄀ、요ᄉ
명은、일
근젼신분
[illegible]ᄒᆞᄂᆞᆫ거
로ᄒᆞ야
지방의[illegible]
쎠、분
의[illegible]홈
로、등
[illegible]홈은、
국도가[illegible]
정이와
어려울
변ᄒᆞ야、
단리一[illegible]
을巡行케
을막고
혼힝복
ㅣ、병졍
ᄂᆞᆫ말은
다、아
양인지
[illegible](聚笠)
에 추고、
나서、진
[illegible]홈
、젹은
의[illegible]이
兩班及[illegible]
[illegible]잇다
、그리
의논이
와、밋[illegible]
다더라
이나ᄒᆞ
고、좀[illegible]
근데、본
ᄉᆞᄂᆞᆫ일을
[illegible]ᄒᆞ든
본은、일
몸쇽에
만타ᄒᆞ

되、아제도、그[illegible]을아니밧고、日々[illegible]호고、날이ᄀᆞ믈엇슬때[illegible]들、브라잇ᄂᆞᆫ것ᄀᆞᆺ혼사ᄅᆞᆷ이、십오명이나되다ᄒᆞ니、아마、이사ᄅᆞᆷ들은、아라사[illegible]이[illegible]ᄒᆞ게 드면、그젼어관이되고、무관학교와、기타[illegible]에[illegible]홀터히라더라

●[illegible]之[illegible] 친위녕、둥디장、신우균씨ᄂᆞᆫ、아직도、그部下兵과、갓치、슈원에[illegible]ᄒᆞ고、그지방의[illegible]로잇다ᄂᆞᆫ[illegible]ᄂᆞᆫ일젼에、슈녕、[illegible]이십팔호의、유ᄉᆞ혼지방[illegible]혼일에、관ᄒᆞ고、그규생을[illegible]ᄒᆞ고[illegible]ᄒᆞ와、일빙셩명의、공수[illegible]ᄒᆞ야[illegible]、그[illegible]울ᄒᆞ야잇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강능을치러갓든、관군이피ᄒᆞ야、만히쥭엇더니、그신톄를、뭇흐로 가져오다가、비에싯고나려와서、이젼의송파강가의、닷다러라

●[illegible]之[illegible]ㅣ라 향일에、이젼[illegible]러에、독닙문을、세온다ᄂᆞᆫ、소문이、낭자ᄒᆞ더니、ᄌᆞ셰히들은바에ᄂᆞᆫ、우리됴션은、인조대왕붓터、이빅이년ᄉᆡᆼ안을、쳥국의、온ᄃᆡ을、바다나려와서、별안간에、쳥국온ᄃᆡ과、태조대왕의[illegible]ᄒᆞ심을、버리고 독닙코자ᄒᆞ므로、원ᄉᆞ도가、연ᄒᆞ야 不[illegible]ᄒᆞᆫ일이、나ᄂᆞᆫ거신즉、[illegible]은、독닙문이라ᄒᆞ고、세웟다가、낭즁에、아모나라、은혜를밧게[illegible]이란、현판을、거러울니면、그만이라ᄒᆞᄂᆞᆫ[illegible]가잇다고、소문이、대단ᄒᆞ더라

●[illegible]人[illegible] 각디방의항인이、나왕ᄒᆞ다가、관군을만나면、의병에 졈담군이라ᄒᆞ고잡어 욕보이며、의병을만나면、관군에 졈담군이라ᄒᆞ야 잡아쥭이니、김쥰당기쟈ᄒᆞ면、의병이나관군이아니만 너ᄂᆞᆫ슈ᄂᆞᆫ업고、더구나지믈을、가지고당기다가ᄂᆞᆫ、부슌[illegible]급히지[illegible]ᄒᆞ니、상고와칙려가、아모리、긴혼넌이잇셔도、다니지못ᄒᆞᄂᆞᆫ지라、쟈고로 쳔렴오뢰、힝인이쓴치ᄂᆞᆫ、란리ᄂᆞᆫ업다ᄒᆞ더라

●天[illegible]子[illegible]ㅣ라 경상도大[illegible]、[illegible]이라、호[illegible]가잇셔、울히、나히、십오세오、부모와、조부를、뫼시고、집이군난ᄒᆞᆫ더、극친히、효셩을[illegible]으로알고、아침에、일직나가셔 버려、어두운、으로쌀을사와셔、세분의계、공양홈은、부지런히ᄒᆞ야지내더니、ᄒᆞᄅᆞ、조부가、병들고、위틱히되시건마ᄂᆞᆫ、의원을쳥ᄒᆞ야[illegible]ᄒᆞᆯ、돈이、업스므로、밥이면、물가에나가서、고기잡고、아침에、버리로가ᄂᆞᆫ길에、그고기를ᄑᆞᆯ고、약을사와서、산려어인지、아[illegible]니만에、밤에자다가、쑴쑤니、귀신、혼분이 나오시고ᄒᆞ시ᄂᆞᆫ말숨이、이집[illegible]北으로가면、혼바위가잇스니、그바위동쪽울[illegible]파보라세ᄂᆞᆫ데、샹실세 보니、쑴인듯ᄒᆞ고、졍 심혼일인듯ᄒᆞ야、나무이상ᄒᆞ므로 새벽에、나려나서、곳가셔、파보니、과연、돈이、엽젼으로、삼십냥을[illegible]、무더[illegible]도라오[illegible]여와서、곳그돈으로、의원을쳥ᄒᆞ야치료시겟더니 몃칠안되고、병이[illegible]ᄒᆞ셧다ᄒᆞ니、하ᄂᆞᆯ님이、그[illegible]子를、불상이녀기시고、그[illegible]을[illegible]ᄒᆞ시든거시라고、소문이 대단ᄒᆞ다더라

○[illegible]子[illegible]ㅣ라 함경도원산북면에、박셩근이란사ᄅᆞᆷ은、울히、이십일세되고、부친은、어려슬때、도라가시고、모친혼분만모시고、극진히、효셩을ᄒᆞ야、집이、파히、넉々지아니ᄒᆞ되、모친의게ᄂᆞᆫ、반찬을잘ᄒᆞ야올니고、져ᄂᆞᆫ、항샹에、버리밥을어고、모친이、[illegible]ᄒᆞ시문[illegible]키[illegible]으로、ᄒᆞ야지ᄂᆞᆫ더、아침에、나러나면、곳、모친의게[illegible]ᄒᆞ고야、밥도어고、가어운삼고、밥에、잘떠드[illegible]ᄒᆞ고야、자ᄂᆞᆫ데、ᄒᆞᄅᆞ、도적놈이、아모나、[illegible]돈가시잇거든、가져가쟈고、그[illegible]에셔、엿보니、오들이、그모친[illegible]ᄒᆞ미、너무극진히、그리홈으로、그[illegible]을 일삼아지니든、도젹놈도、크게감동ᄒᆞ야、다른집에셔、도젹질ᄒᆞ야온、돈을、그으들의게주고가니 박가가、그러한[illegible]ᄒᆞᆫ돈을、바다셔、무어순ᄒᆞᄂᆞᆫ뇨ᄒᆞ고、곳관산경무셔로、고ᄒᆞ얏다더라

## ◉日本東北部之大海嘯

지난달十五日밤븟터十六日앗침에、그나라東北部에、팔구빅[illegible]이되ᄂᆞᆫ、히변에大[illegible]잇셔、[illegible]가 이 만국 쳔팔빅육십팔人이 오[illegible]가 오、쳔이빅칠십삼人이오、家[illegible]의[illegible]홈이구쳔ᄉᆞ빅사십오家인데、아직 도人[illegible]의[illegible]生이、불분명혼자가、부지기수ㅣ라ᄒᆞ고

天[illegible][illegible]下계옵사、[illegible]狀을[illegible]ᄒᆞ옵시고、[illegible]수만원을下[illegible]ᄒᆞ옵셧더라、ᄌᆞ셰혼말은[illegible]에 긔지ᄒᆞ겟습

## 官報抄錄

敍任及辭令

三品 李[illegible]斗
三品 [illegible]五
三品 [illegible]文[illegible]
[illegible] 高[illegible]

[illegible]府[illegible]委員

以上六月二十六日

[illegible]

免本官 [illegible] 正尉 李[illegible]
[illegible] 正尉 金[illegible]
[illegible]工兵課員 參尉 [illegible]
依願免 [illegible]
任正尉 [illegible]
任副尉 [illegible]
任參尉 [illegible]
[illegible]工兵課員 [illegible]
[illegible]課員 [illegible]

副尉 洪[illegible]
副尉 安[illegible]
參尉 金[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
六品 金[illegible]
正尉 洪[illegible]
參尉 金[illegible]
外部主事 朴[illegible]

任[illegible]美國公使館二等參書官叙奏任官四等

以上六月二十七日

詔勅

[illegible]內府大臣李[illegible]
[illegible]
建陽元年六月三十日奉 勅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illegible]
[illegible]一品
建陽元年六月三十日奉 勅 宮內府大臣 李[illegible]

## 社告

今回本社新報ᄂᆞᆫ地方[illegible]各[illegible]에便利함을[illegible]ᄒᆞ야[illegible]으로[illegible]ᄒᆞ온[illegible]ᄒᆞ엿더니[illegible]에 셔[illegible]되얏스미[illegible]에[illegible]온[illegible]一[illegible]一[illegible]五[illegible]과[illegible]五分을本社에先[illegible]으로보니시면日日에보니옵

新聞紙價表

| | | |
|---|---|---|
| 新聞紙一枚 | | 一錢三分 |
| 一朔 | 先給 | 一兩二錢五分 |
| 三朔 | 先給 | 三兩五[illegible] |
| 六朔 | 先給 | 六兩[illegible]分 |
| 地方[illegible]者 | | 每月[illegible]七錢五分 |

廣告價 ᄒᆞᆫ줄을ᄒᆞᆫ번내ᄂᆞᆫ거시三錢式이오[illegible]로[illegible]차셔 갑슬덜 밧고[illegible]도션 금으 밧ᄉᆞ로옵

特別廣告

居留民一般

當地在留本邦人ニシテ猟銃及之レニ使用スル火藥ノ賣買ヲ營業セントスル者ハ當領事館ニ願出免許鑑札ヲ受ケ明治五年正月布告第二十八號銃砲取締規則及明治十七年十二月布告第三十一號火藥取締規則ヲ遵守スヘキモノト心得ヘシ

但營業者ハ當分ノ間二人以内トス

右相達候事

明治二十九年六月十九日

在京城

二等領事内田定槌

右ノ通領事ヨリ達シ有之候ニ付此段報告ス

明治廿九年六月十九日

居留民總代役場

雜報

●日本東北部大海嘯

去月十五日夜より十六日朝にかけ奥羽東部殊に北海道沿岸に大海嘯あり奥羽東部の被害地は其延長南金華山より北八戸に至る殆んど八九十里の長きに亘り其被害は岩手縣下に於て最も甚だしく宮城縣之に次ぎ青森縣及之に次ぎ何れも其他の被害も皆てられやと云ふ今被害の分明なるもののみを擧ぐれば岩手縣に於て溺死二萬三千四百十六、負傷四千五百〇五、流失の家五千四百三十四、半潰六百二十一、宮城縣にて溺死三千百〇六、負傷六百九十四、家屋の流失三千七百四十六、青森縣にて溺死三百四十六、負傷二百十三、流失家屋四百六十五にして北海道の分は未だ明ならず　天皇皇后兩陛下は此慘状を聞召され直に侍從を被差遣へ救恤として金若干を岩手縣へ一萬圓、宮城縣へ三千圓、青森縣へ千圓下賜せられたり何れ詳細は次號に記すべし

●原公使の叙勲　原辨理公使は去る二十六日勲二等に叙し旭日中綬章を授けられたり

●山陵の奉審　去月廿八日は　顯隆園（正宗大王の父莊獻世子の陵）の忌辰に該當せしを以つて總理尹容善氏を勅使として同陵へ差遣はされ兼ねて　健陵（太宗大王かお陵）へ向はしめられたり正宗水原に移りせんと欲し先づ頭を作て崇先王の遺像を奉祀せらる此れ即はち是也）とも準備せしめられたり

●成浚鎬現除の詔勅

宮内府大臣李載純、議政府贊政兼學部大臣申箕善の二氏か去月議政府贊政兼宮内府事務官奉曾善氏と共に事して天政の重務に關れ爾來三ケ月又宮禁に奉仕せしとは當時の趾上に奉記せしか如し然るに昨日に至り更に官報號外を以て左の如く更に前の二氏處罰免除の詔勅を公にせられたり

前日處分、存其體也、宮内府大臣李載純、議政府贊政兼學部大臣申箕善、竝分揀、

建陽元年六月三十日

内閣總理大臣　尹容善

二氏たる者功を以て衆望に報答するの決心あらざるべからず

●李範晋氏叙位の詔勅　昨日の官報號外を以て公にせられたり即ち左の如し

法部協辦、有國家典、米國駐剳特命全權公使李範晋、特敍從一品

建陽元年六月三十日奉

勅　宮内府大臣　李載純

李範晋氏は從來正二品なりしに二月十一日以來の氏が功勞は吾人が茲に列擧するまでもなく諸君の已に知悉する所今日に於て位一級を進めらるる吾人只其遲きの感あるのみ

●農商工部の辭退何　農商工部大臣趙秉稷氏も亦此の如何事か頻りに辭退を奏呈せり

辭官、省議員出席、伊藤事之不由也、宮棄所共知、今此人責自開失實、至於下教所陳、不必如是、其勿辭、仍察職事、還部察宜總

●現學部次官の訓諭　[illegible]

各氏及び其の部下諸名の將校は何故にや二三日前何れも打揃ふて辭表を上りしと云ふ

●論旨摘要　（承前）

四に曰、國文官報を設する事

甲午以前にありては朝鮮の政あるを聞くも曾て之あるを見ざるより以來未た國文史あるものあるを見ざる所以は今し我が世宗の朝、深く聖慮を致されしより創めて國文を作りて民を訓し出來明の遺範之れを倣りて其の音を明かす便は巧へ將兵婦女之を倣りて其の用を悟り而して民之れ婦女の學なりと而して用、此に止まり國家史攻に用ゐず今も乃はち之れを官報に用ゐ施し政府の要本は實訓の趣意、非難に合議す乃はち國文を以つて政教すに後來史を編するものの將た何を以つて之れを施さんや此れ乃はち不學無識の者の將的して政令の上に行用する所以なり若し政去せずんば則はち必ず國を誤る所生を此にするに至ることなし、もし之れを以つて世宗の創製の前に告げは則はち必らず欣び泣けず決して之ふ　願くは國文官報を設せよ

五に曰、陰暦を遵用する事

夫れ太陽暦は泰西より出で其の年月日時に於いて排ぶ千年六甲の名なし此れ混沌一律の事に過ぎざるなり今も乃はち之れを用ゐ豈に祖宗を失ふの數あり以て祭を失ふの恨あり宗社の製、山川の祀、皆に陰暦の日月を顧らんや然らば日く陰暦は乃はち是れ清國の正朔なり故に廢して之れを革たむと、此の言甚だ、甚に近からず夫れ陰暦も亦た自主の國なり而るに宋明の曆を用ゐ宋明も亦た自主の國なり而るに漢唐の曆を用ゐ漢唐も亦た上古の曆を用ゐ今も夫れ陰暦は其の來たる久し亦た自主の治に何の妨かあらんや夫子曰夏の時を行ふと四はち人抗の訓なり決して之ふ　陰明暦を遵用せよ

六に曰、甲申の逆黨を討して獨立新聞を廢する事

夫れ甲申の逆黨は聖明書を暴めんと欲す而して彼が建國家本あるの時に外國に投し以つて來り國政府を譏り国法殺なく罪犯し民出するものは未た是非定の罪を明說して

郵便人り來りて朝間に列たる者は爲衛是也施此れ本國の人を以つて行から外國の人に聽り如く本國に冊、罪を其の先に謝、一天の下に容れす可からず況んや彼た國俗を破弄し國是に干與し外勢に藉托して新聞局を設け出だし而して國して說き日ひ人に忠孝を教ふ懷ふ所の此の城市た知らずや彼れ甲申の逆を謀るに於いて是れ忠を日ふ可けんや其の冊に背いて他國に逃る是れ孝を日ふ可けんや既に自から背きて入る教ゆることとするや彼れ無賴の說を以つて純はら諺文を用ゐ固より其れ其父此の先王の法度を廢して新を始ため新に從ふの時に於りて何んと國文のみを先王の文なりと謂ふて之れを政令の上に用ねんや此れ乃はち國是は其れ已でに列る故に必ず我が國の人に勸む、國文を用ゐるは其の國の政を以つて世に其れ自から之を匪さし我が國はざるの臣民に勸むる故此れ惟ふ私計を保めまんとすれば人に自から共に[illegible]を滅くむの習必らず彼た甲申の心を萌すんと欲す決して之ふ　聰明なかに其の罪は自る新聞局を廢して永く其の亂萌を除け

七に曰、顯く鐵道隊を設けて以つて民心を鎮する事

見今國政の策、人或ひは以爲らく地方制度西洋に倣すれは則はち遅者以つて彼た安んずべしと此れ惟を否々者といふべきなり若し國財を以つて之れを出せは反く兩氣を總るの餘、内用猶大、外供山積、十部大小臣僚皆な寬數に從すれは則はち財傳猶洲、按察亦なし、開や國はず而して各監道牧、更放郡守、一時に斥を受けて已れと更やし國に先て身を修り國とる衆革の遠交但く更政發の器租のみに非ず實に文士の口實に病じさる源則已に服り犯罪且つ退し其の耳目者並び解放せんと欲するも其の勢ひ未だ由わらず京兵徒いて討すれは與を削ひて定しり京兵其頭すれは一朝して災さる然らは則はち何つの時にして定まらんや臣等伏して以つて之れを思ふに郡は鎮衛隊を設置し各府に留駐せしめ而して後其の起ぞるとこる則けは則はち必らず討じ且經を獲捕するよ且其れは其し理は權作の爲すがごとし故に惟は猶作の為すからず、暫く武もしたるぞの中に入る所以はず其の時に於て忍言の遠は、官紀の過ぐる、放火せしむるを民治を安んせしめよ如しめは以て之れを疑ざし者はりは以て之れを疑ざむ國は起じるに及ぶべきなり各營邑の吏郎く國に復し文士の指托するは深りて之れを用ひは則はち民心何を以つてか復た保せんや顯者曰く反支の謀亦足らず何を以てか鎮衛隊を設置せんやと夫ふ但く一種の殘のと知りて材料を失ふと知らず多と歷、春を擊、軍郵出觀の交、數へ染して發拌せや各地方設役の廢乎に掃除とるもの發拌なりとするや官軍國物の兵火の中に灰燼とする、もの果して發拌ぞや已住此くの如く有れば則はち來源知るべし此の習熟を因循して復た一年を過ぎは則はち皆（宮中　府（財高光）わりと雖ども之れが爲とることは能はず决して之ふ聖明速かに鎮衛隊を設けて民心を幫堅し誤る更弊を復し謂ろく文士を探りて永がく復亂とさば武器を匪だして安に復へし泪流を回へして舊に復へせ、國家幸甚、臣民幸甚、臣等

原傍新聞　此れ近來の件數日間りし如りと

●目下地方の匪徒は[illegible]あらんとのおりと云ふ各地に一衛隊の派遣し送る[illegible]に共謀[illegible]に急報し[illegible]は他の[illegible]行せしめ

●大邱の[illegible]地の官[illegible]兵したる[illegible]するも以を得ず且り下りて又之を[illegible]際使より

●被難の[illegible]被難二名られたり

●水原の[illegible]は其部下任じ居れ八號有[illegible]差う郡守親し軍隊[illegible]

●武官の[illegible]改選員副[illegible]所施工局副官正副[illegible]財、軍部[illegible]の[illegible]任せ部軍務局

●參謀部三品衛交議府業務

●侍衛官帶に從事へ近衛本りも附かんして此等すき由な旨金足し頗を爲しも右は道して武官べしと云ふ

●陸兵補[illegible]衛上休兵[illegible]來已く三

御用地板
と認り仰
の下に各
し弱超に
由だし而
へ腕ろ趣
辿を謀る
時に背い
我は自か
するや彼
る因より
其のみと
そ亦ため
に用ね
る故に必
其の無
決とし我
私計を
[illegible]
すんと
る新聞
之心を飲
制度酉
へんすべ
し國財
の除、
る買殺
り國ど
所に近
、而も
非ず實
犯人且
るも其
は風を
裝せる
や臣等
を設置
る迄で
するよ
れ起き
故火せ
は以て
む爲は
防に復
は則は
其れと與
族辯足ら
心ろ但ろ
つ事多と
して殺件
の殺件を
をとある
れは則
一復た一
、あろと
してそふ
はし略ろ
り發說と
對と回へ
後、臣等

原宿所感の至りに任ゐをふし上流なる全部典、含屈辱、留錫允の當氏は十數日間閣下に伏し、此等の下るを待ちたりしも如何なる故にや其のまゝ却下せられたりと

●出征親衛兵の配置　目下地方に出征の親衛兵は其數千五百名もあらんその事は先程の紙上に記せしが今其配置ありと云ふを聞くに右は凡べて九隊に分かたれ訓部は猶ほ同時地方の要地八ヶ所を指定し各地に一隊宛を分屯せしむると恰も我憲兵守備隊の配置の如くし以て各地の聯絡に氣脈を通じ援急相應せしめ一地方に暴徒襲來すれば直に其附近に駐屯せる兵を以て之を鎮撫し彼[illegible]にして我の力之に抵抗する能はざれば[illegible]に急報して其應援を求めしむるの方法にして彼は他の一隊は遊擊隊として絶へず各地を巡行せしめ居れりと以て暴徒の蜂起を制止し鎮[illegible]

●大邱の小戰　北部大邱附近に於て同地駐在の守兵は一隊の暴徒と衝突し數回の戰鬪を爲したるが暴徒は所地に占め下瞰して發砲するを以て守兵稍劣勢に之に近づく能はず已むを得ず退却を始めたるに暴徒は勢に乘じ丘上より下りて追擊し守兵之を見、取て返して彼に又々交戰を始め遂に之を擊退したる旨同府觀察使より政府に報告ありたりと云ふ

●暴徒の斬首　忠淸道鎭川及び木川地方の暴徒二名は鎭衞隊兵の手に捕はれ直に斬首せられたりと云ふ

●水原の砲手　現在中隊及南羽初氏は今度は其部下と共に水原に到出し同地方の守備に任じ居れる由なるが氏と此程本年勅令第二十八號商事の地方各派砲手設置に關する規程に基き部守と協議の上同地に百餘名の砲手を募集し目下之が訓練を爲し居れりと云ふ

●武官の任免　去月二十六日軍部軍務局砲兵課員副參領[illegible]氏は本職を免じて更らに砲兵工廠工兵課長に補せられ、親衞隊第一聯隊副官正尉李敏用、同第一大隊中隊長正尉金興烈、軍部砲工局工兵課員參尉[illegible]の三氏は何れも休職を命ぜられ、砲工局長兼[illegible]氏は[illegible]爲財務局長は陸軍省、軍務局長[illegible]氏は參謀に任ぜられ、六部會計局長[illegible]氏は參謀に任じ軍部軍務局長[illegible]に補せられたり

●辭職願許可　三品李鎬升、三品申宗五、三品[illegible]、前府尹の四氏は去月二十六日平壤府裁判所判事を命ぜられたり

●辭職待命者　前比利亞に出張して外役務に從事し居りし露語を解するに至りし朝鮮人は近來本國政府の官と聞き傳へ何か官職に有り附かんとて歸來する者續々相踵ぐと云ふ而して此等の中已に官吏に採用せられたる者も多き由なるが未だ採用の恩典を蒙らず日々[illegible]首企足して大臣の門頭を叩くも稀ならざるの[illegible]を爲し居る者十數名もあらんとのことなり尤も右は追て露國駐在公使の上之が薦官として露國語學校及び軍隊に採用せらるゝに至るべしと云ふ

・・・・・・・

◎露兵顧問と韓兵　露國公使館護衛兵[illegible]閣上休兵衛、顧問官大島兵部等七氏は露朝以來巳に三ヶ月を經過せしを以て何れも[illegible]の任務の目的を達せしむるに勉めしが遂に[illegible]

資格を失ひたるにより補欠選舉を擧行し中村友次郎の二氏入て其欠を補ひ會長の選舉は昨日午後四時より總代役場に於て之れを執行せしに中村再治氏當選せり

●奨築國京城支部假發會式の模樣　既記の如く錦林組奨築國京城支部假發會式は一昨日午後四時過ぎより井門樓にて擧行せり當日の出席者は三十七名にて先づ副團長龜井三郎氏同團の主旨を述べ夫より委員の選舉を爲し終て小宴を開きて散會したり支部長以下役員左の如し

支部長　和田常一　副部長　松田行藏
評議員　森勝次郎　[illegible]　左近信太郎
中村再造　山口太兵衛　岩下榮助
松村[illegible]　[illegible]　瀬川新之助
平岡廣太郎　日下部

尚は各地支部員は其後續々加入者あり目下七十四五名に達し居る由

●龜井氏の歸仁　[illegible]來京中の龜井三郎氏は本日歸仁の途に上り因みに記す同氏は奨築國京城支部員中の有志者にて送別會を開き該氏の爲めに送別の宴を張りたりと云ふ

●京城市街の一端　漢城府觀察使李采淵氏は此程一の布告を發し京城内道路改修の要は決して默過す可からず北他汚穢物を道路に擲棄すべからず若し之を犯す者は罰すべしとて之を人民に告げたりと云ふ此時漸く觀察使に向ひ要路施行の命も有れは該殿一部余市街の大掃除をも實行ありたきものなり

●京城市民の戶口　漢城府調査にて調査せし京城々内及城外の戶口は左の如くなりと云ふ

| | | |
|---|---|---|
| 城内 | 戶數 | 二萬二千九百七十四戶 |
| | 人口 | 十一萬七千九百十五人 |
| 城外 | 戶數 | 一萬四千七百六十三戶 |
| | 人口 | 六萬二千七百八十七人 |
| 合計 | 戶數 | 三萬七千七百三十七戶 |
| | 人口 | 十七萬九千七百〇二人 |

## ●泥峴と南大門通（道路修理）

（承前）

新しく泥峴内及び之れに屬する三方の通路より[illegible]居留民の多數を占むる家屋は昨年五六月頃までに路ろ撰擇せられしも路面の凹凸頗る未だ補平せられず泥濘の甚しきは未だ疏通せられず茲に於て我が領事館は道路の開鑿に汲ひて道路を開鑿し路面の凹凸を平均して新たに土砂を盛り以つて之れが修理を完成せしめんと決し之れに要する經費を見積らしめたるに[illegible]を經費するのみにして尚ほ一萬圓内外を要[illegible]南大門通りより泥峴を經て竹洞に通ずる街路[illegible]りしも然れども此くして止まんか泥峴一街は日と共に荒廢に歸すべく從來此等の地方に[illegible]人の如き多額の經費を支出するは困難なり[illegible]

年八月中居留民會に於て右記の方法により愈々之れを修理することに決せり是れ泥峴及居留地が今日の繁榮を見るに至るの一因なりるなり

一、道路改修の區域は泥峴市街及び其地より一方は南大門通會同に通じ一方は竹洞に通ずる街路に限るべし

一、道路改修に付ては先づ前記街路の兩側に沿ひ完全なる溝渠を開鑿し且つ屋々の數溝を改築すべし

一、溝渠の大さは三等に分ち場所の必要に應じて其の等級を異にし第一等は方二尺、第二等は方一尺五寸、第三等は方一尺とす但し溝渠は此の限りにあらず

一、溝渠は何れも石材を以つて兩側を築き一等溝渠は厚さ一寸巾三尺、二等は厚さ八分巾二尺、三等は厚さ八分巾一尺五寸[illegible]

但し溝渠は石材を以つて蓋を設くること

一、各溝渠の等級は道路改修委員決議の上領事の認可を受け之れを定むること

一、溝渠の改修を終りたる後は路面の高低を平均し土砂を盛りて之れを固むること

一、溝渠改修費は本邦人の所有せる地所に沿ひたる分は其の持主に於いて各自之れを負擔すること

一、韓人の所有に屬する地所に沿ひたる溝渠及び道路の改修費は公共費を以つて之れを支辨すること

一、商店平均及土砂盛の入費も亦た公共費を以つて之れを支辨すること

一、道路改修に付き必要なる公共費は第一銀行より一時之を借り入れの上支辨する事

一、工事の執行は道路改修委員に於いて之れを監督すること

斯くて愈々改修に着手せしは昨年八月下旬なりしが右改修は決議所以外に於いて困難必要なる箇所なしとせず所から場所は領事館より或ひは居留地の地主を諭し或ひは因縁と頼りて其の道路敷地と改修若しくは新開せしめ殆ど公使館も亦た此の附近に通ずる道路の修繕に着手せしが此れ等の諸工事は何れも昨年末に於いて漸く其の完結を告ぐるに至れり是に於いて道路を清潔ならしむる爲め[illegible]陸續の方法を設け且つ處々に公衆便所を創設し又た夜間の通行を便利ならしむる爲め路側に街燈を新設したりしが泥峴の改修工事全く成り一條の大街路は屋根の交通と綜べて南大門通りより竹洞に向ふて東西に貫通し前きには[illegible]も今は殆ど整然たる一の市を書とるが如く前きには凹凸常なく雨水氾濫して其跡人を悩まし一たび至れば泥濘脛を沒せしも今は平坦砥の如く清潔道の如く人に行歩の頗る容易に[illegible]昨年の始めにかけては一時寂寥の色を現はしたる泥峴地方も此に至りて本邦商人の商店するもの次第に增加し南地と南大門通りの間に於ける街路も亦た清潔本邦人の店舖を以つて充たされ多くの人々を[illegible]人の如く[illegible]の繁榮は日頃の盛況を呈現し京城の日本街として南山山下の一景觀となれり（未完）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濟船仁川出張所廣告

●肥後丸 六月廿九日出港(浦鹽)仁川、釜山、對州、長崎、馬關、神戸行 八月七十一噸 船長 チヨンス

●玄海丸 七月二日出港(一日入港)芝罘、天津行 八百七十四噸 船長 茂木鋼之

●豐島丸 七月二日出港(一日入港)釜山、下ノ關、神戸行 六百八十九噸 船長 井上丹三郎

●薩摩丸 七月三日入港 四日出港 長崎、香港行 千百五十七噸 船長 ソイアー

●長門丸 七月十六日入港翌日出港 長崎、釜山、元山、浦鹽行 千百四十九噸 船長 ウイルソン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會社濟船仁川出張所廣告

●隅田川丸 六月 日入港 六月 日午前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二見丸 六月 日入港 翌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筑後川丸 七月三日入港 同四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信濃川丸 六月廿八日入港廿九日出港 釜山下ノ關神戸大阪行

大阪商船會社仁川荷客取扱所

〇第壹會正風集題 互選判者

入花 (投句壹題五錢以ハ壹題三錢)

豐秋園瑞穗宗匠 業撰

寄限 七月二日 撰定 七月 日ノ紙上ニ

投込所 漢城新報社內 正風會

一 上等 壹圓

一 中等 七十錢

一 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 南山 三十八號地

田原旅館

帝國醫科大學撰乾藥局御用

甲斐國(祝村甲斐葡萄酒合資會社醸造)第一甲斐產葡萄酒

〇第一甲斐產葡萄酒ノ特効

葡萄酒ハ衛生上缺ク可カラザルモノナルコトハ諸大醫皆之レヲ許サヽルナシ然レドモ其ノ醸造若シ粗悪ナラサレハ却テ人体ヲ害スルハ言ヲ俟ズ第一甲斐產葡萄酒ハ特ニ醸造法ニ注意ヲ加ヘタレハ衛生上有効アルコト實ニ斯ノ如シ人若シ常ニ此第一甲斐產葡萄酒ヲ飲用シ[illegible]機能ノ調理ヲ得セシメ[illegible]消化力ヲ助クル[illegible]全身自ラ快活ヲ覺ユルコト[illegible]人若シ[illegible]ノ如キ[illegible]第一甲斐產葡萄酒ヲ小量宛用[illegible]第一甲斐產葡萄酒ヲ服用トスレハ其ノ効左ノ諸症ニ適ス

第壹 貧血病。其他種々ノ原因ヨリ來ル貧血症。急性重病後ノ回復期。英吉利病等ニ用ヒテ最効アリ

第貳 小兒ノ吐瀉症。虎列剌。赤痢病。大出血病等ニテ心臟ノ機能將サニ廢止セントスル症状アルモノ[illegible]奇効ヲ奏ス

第參 熱病。胃腸病。[illegible]症。[illegible]ノ諸病等ニ用ヒテ大ニ効能アリ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洋酒商店 隈本商行

〇第一甲斐產葡萄酒에特效

이포도주란술이사름의셩(셩명을보호우합)하는게가히업지못할도혼술인즉온모든대방가의쳔명이갑히아는바이니만남그습빗즌밧탕이좃치아니하면엇지이곳흐리요도로여히가잇슬것을말하지아니하여도알것시라이제일甲斐產葡萄酒는가장그빗는지료에정셩을드려서그위셩에효험잇는여지신용하니사름이만남체간비산포도주를상히마시뫼량에모게장부하면그효험에순황되기가도호며긔룡(氣血)에도리하기가온젼하며혈분부족한것을보하며골슈에영위(營衛)를도으며정신이상러상쾌하고비위가또건장하야서식량이늘고경신이스스로쾌활하기가정녕하니이럼으로써슈고를파도이하던사름이노날마다두거조에안젼서힘보를적게하던사름이나명성에근골을슈고로이하던사름덜이거상에이第一甲斐產葡萄酒를어으면이우히여러가지병에심히맛당하니혹장복을하면그공이크게나기가외심업고또의외젼얼이속슴을여러가지병에쓰니그써는법을이우히젹노라

第一은 한열병과 혈분부족한병과 중병후소복과 英吉利病과 요용지졀등에공효가쥬이하고

第二는 소아(小兒)의로사증과 괴질과 젼셩나질과 하졀중과 장부에병잇셔정신부족한병에공효가이하고

第三은 열병과 음허병과 부증과 변경증과 폐경병과 냉중으로폐경노막과 장부노막[illegible]등병에공효가모다젹지아니하오이다

朝鮮國京城 洋酒都賣 隈本商行

[illegible]洞(뷔작골) 一手販賣

一地

朝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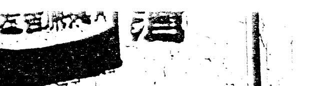
發

銃

荷

着

廣告




酒

…之レ其 …酒ヲ買 …商酒 …有ラ在 …クル藥 …用 …利 …行

…혼 …이 …여 그위 …시 …하기 …신이 …하 …에 …며 …하니 …가 과 종과 …중 지 적 販賣行

# 地球印藥用ブダウ酒効能書

抑ノ古今ヲ問ハズ邦ノ東西ニ論ナク酒ハ精用ノ飲料アラザルハナシ古諺ニ[illegible]
酒ハ百藥ノ長ナリト又云フ酒ハ[illegible]ヲ補フノ[illegible]ナリト[illegible]
然ル所以ヲ略陳スレバ

第一　之レヲ飲用スレバ[illegible]ヲ増進スルニ[illegible]
　食餌ノ不足ヲ補フニ足ルベシ

第二　之レヲ飲用スレバ精神ヲ興奮シ以テ精神ノ疲勞ヲ[illegible]
　シムルヲ得ベシ

第三　之レヲ常用スレバ血液ノ循環ヲ迅速ナラシメ以テ筋肉ノ[illegible]ヲ盛ニシ得ベク
　身体ノ健全ヲ計ルヲ得ベシ

以上掲ゲタルハ皆ナ藥用ブダウ酒ノ効ニアリ斯ノ如クナレバ[illegible]ノ人ハ之レヲ
用ヒテ能ク其ノ精神ヲ興奮シ其ノ[illegible]ヲ[illegible]シ其ノ疲勞ヲ[illegible]ルヲ得ベキナリ
加之我邦[illegible]在ノ如キ賣狀ヲ[illegible]以ツテ我ガ地球印藥用ブダウ酒ノ[illegible]
ナルヲ知ルニ足ルベシ

## 一　地球印ブダウ酒

[illegible]
ナルモノト[illegible]スルニ今回ノ航路ハ本邦ヲ[illegible]
又[illegible]ニ出デ[illegible]ニ[illegible]太陽ノ正下ヲ經過スルコ[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其ノ[illegible]
[illegible]以上ノ賣狀[illegible]ヲ知ルベキナリ

東京市日本橋區[illegible]町貳丁目

發賣元　伊部商店

京城　隈本商行

朝鮮國特約店

●日本大阪　和漢洋藥廣賣
[illegible]
[illegible]
御用ノ[illegible]

日本大阪[illegible]町壹丁目

成尾安五郎

●御[illegible]は[illegible]とす●

客[illegible]　旅　京城[illegible]

館　[illegible]

東京館

●御[illegible]ひは[illegible]とす●

獵銃 獵銃

西洋新式銃
元込連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荷着

附屬品

廣告

石川長商會

護漢履
履
西洋服各種
帽子

一　肥後名産　朝鮮飴

抑此ノ朝鮮飴ハ肥後國ノ名產ニシテ其
味ノ絶好ナル遠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
且ツ幾日ヲ經ルト雖モ腐敗ノ患無ク殊ニ
一箱ヲ[illegible]ハ坐右ノ茶菓子トシテ最上
ノ好品ナリ大方之諸君一箱ヲ購ヒテ試用シ
玉ハンコトヲ冀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弊店儀今般[illegible]相始ノ候價多少ニ拘ラズ
御愛求被下度此段伏シテ奉願候也

泥峴第三拾弐號

阿津阪商店

廣告

一草鞋(木綿、麻井ニ高麗)壹萬足以上ハ[illegible]代價[illegible]ノ割
一日本古[illegible]百枚以上[illegible]代價五錢ノ割
一荷車　毎[illegible]代價[illegible]
一薪　百貫目ニ付代價四圓
一木炭　百貫目ニ付代價六圓

右御買上被成御買求被下度候也

京城[illegible]下

北川醇

#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本社朝鮮京城生命保險ノ儀ハ自今長
崎石川商會内織居加一ニ於テ代理事
務取扱可申候ニ付當地保險ノ申込、
掛金拂込等ハ今後總ベテ同店ヘ御申
出可被成下此段廣告仕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區[illegible]町六番地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事務
ノ儀自今弊店ニ於テ取扱ヒ可申候ニ
付此段廣告仕候也

追テ保險料金ノ儀ハ各保險々面記
載ノ期日ニ御拂込ミナキ方ハ本社
規則ノ通リ取計ヒ可申候ニ付之候
ニ付自今該期日ニハ必ラズ弊店ヘ
御拂込被成下候樣[illegible]ノ被保險人又
約人各位ニ廣告仕置候也

明治廿九年
六月　日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京城代理店

石川商會

織居加一

[illegible]
[illegible]

梯鐵造

今般[illegible]
[illegible]之此段廣告致シ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宮田種德堂

今般安田[illegible]氏本院副院長トシテ着任ニ付キ[illegible]
副院長不在中[illegible]ヲ代理シ且ツ從來當地[illegible]
開業ノ醫士近藤賢吉氏本院醫員ヲ分擔ス

[illegible]病院内ニ寄留ス

漢城病院

安田稜

近藤賢吉

今[illegible]安田[illegible]氏가本院副院長이되야[illegible]
얏스니[illegible]이[illegible]安田[illegible]안을、드뭇
[illegible]을代[illegible]고、또[illegible]에서[illegible]
[illegible]하야잇든近藤賢吉氏에게本院[illegible]
을分擔케홈

漢城病院

但シ從來ノ本院[illegible]内ヲ[illegible]正ト六月一日ヨリ
[illegible]之[illegible]ヲ[illegible]

診察時間

宅診　午前　安田副院長
　　　午后　近藤醫員

往診　午前　近藤醫員
　　　午后　安田副院長

[illegible]

一[illegible]月　[illegible]五[illegible]
一[illegible]月　[illegible]五[illegible]
三[illegible]月　[illegible]七[illegible]五[illegible]
大[illegible]月　[illegible]五[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人　[illegible]人
[illegible]人　[illegible]

[illegible]

發行所　漢城新報社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illegible] [illegible]
황제폐하가、아라서게옵실때、[illegible]
세、일후、나려나옵시다가、세슈도、
아니ᄒᆞ옵시고、[illegible]、두옵시고、
[illegible]
ᄒᆞᄃᆡ、 [illegible]가、거동ᄒᆞ시겐
다고、[illegible]들이[illegible]ᄒᆞ야[illegible]ᄒᆞ옴을、국
기[illegible]으로、ᄒᆞ옵시든[illegible]이라[illegible]
ᄒᆞᆫ사ᄅᆞᆷ누가[illegible]ᄒᆞ야、제슈를、ᄒᆞ옵
서게[illegible]ᄒᆞ야도、괴롭다고ᄒᆞ옵시고
、[illegible]의시든일이、언거시더니、ᄒᆞ로、
젼과ᄀᆞᆺ치[illegible]를、두옵시고[illegible]、나
가실때、[illegible]은、[illegible]ᄒᆞ야、그
[illegible]아니ᄒᆞ얏슨즉 [illegible]에、[illegible]
로、아옵시고
[illegible]폐하에게、그말ᄉᆞᆷ을 옵시더니
노제폐하ᄂᆞᆫ[illegible]내옵시고、ᄒᆞ신말
ᄉᆞᆷ이、므롯화쥬이란거ᄉᆞᆫ、국민의[illegible]
[illegible]인즉一[illegible]一[illegible]에、경ᄉᆞᆯ치못ᄒᆞ고、또、
우리나라에、국법으로[illegible]치아
닌、황쥬에게ᄂᆞᆫ[illegible]、아니ᄒᆞᆫ법이
라고、ᄒᆞ옵시더니、이후ᄂᆞᆫ、[illegible]
[illegible]전ᄒᆞᆫ、미묘에、제슈를ᄒᆞ셔야、[illegible]
라ᄒᆞ옵셧다더라 [illegible]를죠화ᄒᆞ옵시
고[illegible]을됴화ᄒᆞ옵신[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은、[illegible]ᄒᆞ실때브터、아옵시
든거시니라

●[illegible]이[illegible]에、차례치못ᄒᆞ얏
다 쳥국니ᄒᆞᆫ강、[illegible]의[illegible]의
[illegible]에、세공ᄉᆞᄂᆞᆫ、그[illegible]、비스라
니、그리아니ᄒᆞ얏든때문에、아라사
[illegible]를、칭ᄒᆞᄂᆞᆫ、[illegible]으로、못드러
갓더라고、[illegible]에、뵈엿더
라

●[illegible]
향항의셔、나온[illegible]를보니、양녁오
월、이십칠일브터、뉵월초ᄉᆞ일ᄭᆞ지
에[illegible]가、구셜ᄉᆞ명인[illegible]
[illegible]팔십구명이더라

●[illegible] 서경무ᄉᆞ、니[illegible]건씨ᄂᆞᆫ、
군민、세상에서、이러ᄒᆞ지려타다니、
ᄂᆞᆫ손님이、마、이잇기로본지샹에、
[illegible]ᄉᆞ문과、못ᄂᆞᆫ대로그져[illegible]마당
[illegible]이잇스나、엿이나、大同小異ᄒᆞᆫᄃᆡ、
시방、[illegible]ᄉᆞᆫ검의말ᄉᆞᆷ을、들으니、동씨
가、[illegible]무ᄉᆞ를、입[illegible]후에、복구ᄒᆞ기
에、[illegible]서、ᄉᆞᆫ검은、젼의포교로、
되[illegible]ᄒᆞ고、동씨ᄂᆞᆫ、대장으로쟈쳐ᄒᆞ
야、뉴야곳、복구ᄒᆞ기에、졍신을ᄡᅳᆫ
[illegible]
이하로、각[illegible]의복식법을、됴ᄉᆞᄒᆞ
기저、이[illegible]ᄉᆞᆫ다ᄂᆞᆫ일인、[illegible]지샹에
、그지ᄒᆞ든[illegible]과ᄀᆞᆺ흐나、연[illegible]나、그
규칙을[illegible]ᄒᆞ야、[illegible]、[illegible]ᄒᆞ게드
러、됴ᄒᆞᆫ런마ᄂᆞᆫ、[illegible]ᄂᆞᆫ심ᄉᆞ로
、그리ᄒᆞ시ᄂᆞᆫ거시아닌즉、엇더ᄒᆞ게
되지[illegible]ᄒᆞ니、ᄉᆞᆫ검이나、[illegible]인、게
졍을ᄒᆞ야、잇ᄂᆞᆫ사ᄅᆞᆷ이、만타ᄒᆞ되、
근[illegible]의[illegible]보면、가히[illegible]치못ᄒᆞ
니다

●[illegible]一라 친위[illegible]데이
대뒤장、나남규씨、[illegible]의ᄉᆞ
관이수명인、무ᄉᆞᆫ일로、그러ᄒᆞᄂᆞᆫ지
、수삼일젼에[illegible]내엿다더라

●[illegible]이라 수비[illegible]
로、이나라[illegible]이、이러ᄒᆞ야셔、[illegible]
ᄂᆞᆫ、슈리하ᄂᆞᆫ거ᄉᆞᆫ、그[illegible]이、다ᄂᆞᆫ바
이미、너무외람ᄒᆞ야셔 뎐긴슈가、
유케도면、잇지ᄒᆞᄂᆞᆫ슈업시、그권쳐
[illegible]이、다ᄂᆞᆫ법인즉、[illegible]、또
러셔、다ᄂᆞᆫ일이업스므로、ᄒᆞ마단장
마대되면、불이나셔[illegible]과ᄀᆞᆺ고、사
ᄅᆞᆷ이、못된긴분아니라、[illegible]의[illegible]은
、ᄅᆞᆷ이둘어와서、부억이며、온돌아
궁으로、드러가서、숨기더단ᄒᆞ고、
[illegible]에、온돌이、[illegible]ᄒᆞ야、밤
이면、[illegible]갈수업스니、[illegible]에서ᄀᆞᆺ
[illegible]ᄒᆞ야、긴한、슈리ᄒᆞ고、그[illegible]남쪽
에、[illegible]파내여、[illegible]의[illegible]잘
나가[illegible]ᄒᆞ면、나라[illegible]이져지

아라고[illegible]야잇다더라니、[illegible]
[illegible]이러다

●[illegible]이라 이나라사ᄅᆞᆷ이[illegible]
어려서븟허、그내[illegible]맛다、그[illegible]
을보고、ᄀᆞᆺ랏스므로、파히、관계치
아니ᄒᆞ얏ᄉᆞᆯ가마ᄂᆞᆫ、외국인은、그[illegible]
[illegible]를、데일시러ᄒᆞ야、[illegible]ᄒᆞᆫ곳에
셔、ᄌᆞ랏다가、이셩안을、되거서[illegible]
에[illegible]이[illegible]ᄒᆞ면、그[illegible]가、사
ᄅᆞᆷ의ᄏᆞ[illegible]、ᄇᆡᄂᆞᆫ것ᄀᆞᆺᄒᆞ니、이샹야와
[illegible]에게、뒤[illegible]ᄒᆞ려서、길ᄀᆞ에
그[illegible]이、아니나오게ᄒᆞ고、또、그디
[illegible]
계ᄒᆞ면 너룸이되야도、[illegible]
셔여서、도ᄒᆞ니、어셔、기화를ᄒᆞ야、
그러ᄒᆞᆷ[illegible]의인을、[illegible]ᄒᆞ게알고、
人[illegible]을[illegible]히알게되물브란노라ᄒᆞ더라

●[illegible]이라 우젼[illegible] 남산의
[illegible]을、도벌ᄒᆞᄂᆞᆫ자를금ᄒᆞ야[illegible]케ᄒᆞ
니、밤낫업시、그[illegible]人은、소리지르
고、이一라고ᄒᆞ야、그소리[illegible]의[illegible]
ᄀᆞᆺ치、ᄌᆞ주나니、이제ᄂᆞᆫ、도벌ᄒᆞᄂᆞᆫ
자가、업ᄂᆞᆫ즐로、아럿더니、잇더ᄒᆞᆫ
사ᄅᆞᆷ의말이、그러ᄒᆞ게、소리지르고
、호랑ᄀᆞᆺ치호되、그냥금베ᄂᆞᆫ자ᄂᆞᆫ、
빅둥젼을、두푼만유뢰로주면、[illegible]은
체[illegible]ᄒᆞ야잇고 그두푼돈으로、이삼
십냥어치、븨여오니、오히려、경편
ᄒᆞ다고ᄒᆞᆫ다니、이러ᄒᆞᆫ、더러온ᄀᆞᆺ시
어디잇ᄂᆞ뇨、또、그[illegible]人은、밤마당
인[illegible]
보담크고、피ᄎᆞ에、유익ᄒᆞ야、ᄀᆞᆺ다니
、이ᄂᆞᆫ、이나라에、[illegible]ᄒᆞᆫ풍속이잇
셔、그러ᄒᆞ므로、이리[illegible]이、아주
、어게되ᄂᆞᆫ날은、몃번이나、지내
면、[illegible]지요

●[illegible]一라 양녁삼사월때에、
일본인[illegible]을[illegible]ᄒᆞ든사ᄅᆞᆷ을、
[illegible]러、평안도로、갓든일본순
사ᄂᆞᆫ、[illegible]경무서에、부탁ᄒᆞ바다셔
、그일인을[illegible]ᄒᆞᆫ、니하[illegible]란사ᄅᆞᆷ을[illegible]
[illegible]ᄒᆞ야와서、인천경무서로찻ᄉᆞᄒᆞ얏
다ᄂᆞᆫᄃᆡ、그사ᄅᆞᆷ은、그일인이、유ᄒᆞ
야잇다든집쥬인인ᄃᆡ、그일인은[illegible]
ᄒᆞ얏다ᄂᆞᆫ、죽도의[illegible]、맛ᄯᅡ두든
일로셔、현발ᄒᆞ야、[illegible]로、되야갑
히고、또、그[illegible]人으로、오욕졈이란
사ᄅᆞᆷ도、갓치、[illegible]케ᄒᆞ얏다더라

[illegible]

ㅣ, 가옥은 라사론으 다, 그中 관계치 온, 그 …혼곳에 거서… 쳐가, 사 이샹야외 길ᄀᆞ에 ᄊᆞ, 그디 … 불ᄒᆞ야, 게알고, ᄂᆞᄒᆞ더라 남샤의… …케ᄒᆞ ᄀᆞ리지로 …의… ᄒᆞ번ᄒᆞᄂᆞ 잇ᄃᆞ흔 ᄀᆞ지르고 ᄂᆞ자ᄂᆞᆫ, 면, 문은 ᄀᆞ, 이삼 ᄂᆞ, 경편 ᄒᆞ원줏시 밤마당 …고 못ᄒᆞ니 육이잇 , 아주 , 지내 질때에, 사ᄅᆞᆷ을, 일본순 바다셔 ᄅᆞᆷ을… 샤ᄒᆞ얏 , 유ᄒᆞ 신옷… 다두든 되야갑 졈이란 디라

…이라 샹헤신문을보니 …의양에서 …이, 여ᄒᆞ야, …ᄒᆞ야서, 쳐인의…이, 샤샴여쳐은 ᄀᆞ, 그…을맛나서, 그물화물색기고, 그…人은, 다죽어버렷스니, 쳐음샹 고들이…ᄒᆞ야, 그화에, …을, 훈 쳐써이셔, 그…로달나뭇, 청품ᄒᆞ 얏다더라

## 趙婦人傳 (조부인젼)

二十四

이것치의논ᄋᆞᄃᆡ, 유청공조ᄃᆞ, 셔간올다거셔, 져ᄒᆞ스과ᄃᆞ, 조제이져어서 니ᄒᆞ각이 개봇천ᄃᆡ, 니ᄒᆞ가이ᄃᆞ … 쳣더니, 서호영이, 모스귀를뭇고, 도리여샹쾌이녀겨 ᄀᆞᆯᄋᆞᄃᆡ, 노우려가, 아모리부강ᄒᆞ여도, 네능히저당ᄒᆞ리다ᄒᆞ고, 니히각과, 유청공조의게… 가게읍셔더이니, 거긔셔 호위ᄂᆞᆫ하실이ᄒᆞ라ᄒᆞ엿더다, 차셤한국청이, 됴졍의공노만코, 벼슬도놉ᄒᆞ며, 또ᄒᆞᆫ벙쥬ᄃᆡ의, 조사로잇고, 신판곳에디… 슈하의남빈쟝슈와, 굿셰군ᄉᆞ가, 너너ᄒᆞ고, 량식과치둔이ᄌᆞ죡ᄒᆞᆫ지라, 스ᄉᆞ로알기ᄅᆞᆯ영웅으로, 자쳐ᄒᆞ야 셰샹에두려운것시업스며, 또더구ᄂᆞ국가이, 쇠삭ᄒᆞ야, 법강이업셔지고, 셰샹이 요란ᄒᆞ야, 란리가간졍치아니ᄒᆞ미, 거연이남방에, 왕이라, 뉘가내세북ᄌᆞ치아니ᄒᆞ며, 미셔외ᄒᆞ지아니ᄒᆞ리요, … 웅의, 쟝아의듯엇슨즉, 어디가리요, 야, 반져의십이어디니, 젼만의외에, 우치…가진경에와, 동헌무리를다리고, 도리오미, 위엄이공선ᄒᆞᆫ고, 소셩즈마이 눈압헤잇는지라, 긔운귭쎄기며, 더신을님코, 죽을ᄯᆡ의, 사는것만, 셩각ᄒᆞ엿다가, 추ᄒᆞ로셩각ᄒᆞᆫ즉, 평셩의흡앙ᄒᆞ든, 조부인을, 무한젹공을드려서, 쟝악에집어넛코, 그좌복을밧은후로는, 평셩소원을, 일우고, 다시념녀업슬줄, 알엇다가, 일됴에곳쳐버렷스미, 그분한된마음은, 비홈더업스며, 부귀가임셰의혼동ᄒᆞ고, 영웅으로자쳐ᄒᆞ던터의, 조곰아흔디방, 호쥬, 셔호영과, 일게서셩, 죠욱청의게, 큰욕을당흔것시, 분ᄒᆞ고붓그러와서혼번셜치ᄒᆞ고자ᄒᆞ야, 사ᄅᆞᆷ을보니

셔, 영쥬와, 강도를, 가셔, 디하과혀실ᄒᆞ, 협지ᄒᆞ고오라 ᄒᆞ엿더니, 서호영이, 미리심탐ᄒᆞ이, 오는줄알고, 사ᄅᆞᆷ으로ᄒᆞ여금, 죵도에서붓더, 붓도러가자고, 한가지로 여주를드리와서, 구경을시기되, 도로는위이ᄒᆞ게단이며, 츈입온지리ᄒᆞ게시겨서, 이ᄇᆞ이션ᄒᆞ게ᄒᆞ야서, 정신을차리게, 못ᄒᆞ게ᄒᆞ고, 으듬유군셰지라도, 일심동녀이되얏스며, 젼곡은풍죡ᄒᆞ고, 게념이부강ᄒᆞᆫ것슨, 며가절이되아보이게ᄒᆞ고, 법률이엄슉ᄒᆞ며, 그강이분명ᄒᆞᆫ것슨, 국히자랑시긴ᄒᆞ셰, 강도로보니셔, 소소명과, 니히각과, 하샹에, 셰군ᄃᆡ잰벽, 구경시기되, 모다미리약속ᄒᆞ야, 규구절초온, 화흡찬란케ᄒᆞ야, 셔경신을차리지, 못ᄒᆞ게, 구경시긴후에, 니히어드려다가, 연락ᄒᆞ논중적ᄋᆞᆯ, 문초호쥬, 숙기로자졍ᄒᆞ고, 디답지아니뎌놀니히각이, 나쥬게관ᄒᆞᆫ흔말노씨, 오셔…, 네아모리그이라ᄒᆞ여도, 그이지못ᄒᆞ려니와, 우리가너의쥬인이, 오거든, 큰공을세워셔, 쟝부의마음이 쾌활ᄒᆞ기ᄂᆞᆫ, 기ᄃᆞ리논지라, 너ᄀᆞᆺ흔잔명을, 죽일것시업셔서, 노하보니이, 속히도라가셔너의쥬인을권ᄒᆞ야, 혼번오도록ᄒᆞ라ᄒᆞ고, 노하보닌ᄃᆡ, 하인덜이다리고, 나와셔ᄀᆞ유을, 무한보인후에, 디경밧게ᄯᆞ차보니, 가던사ᄅᆞᆷ이, 졍신이항용ᄒᆞ고, 이ᄇᆞ이현혹ᄒᆞᆫ것시, 맛치엄라국을, 다녀나온것, ᄀᆞᆺ허서여어히구이지못ᄒᆞ니라, 도라가서한국쳥의게, 고ᄒᆞ야굼ᄋᆞᄃᆡ, 디영이훕조흔데, 인호는됴밀ᄒᆞ고, 법영온엄슉ᄒᆞ며, 긔강은분명ᄒᆞ고, 젼곡강병은부강ᄒᆞ며, 인심은감복ᄒᆞᆫ데, 영쥬와, 강도의호놉 、상ᄋᆞᆼᄒᆞ야, 법인이 침범ᄒᆞ지못ᄒᆞᆯ지고, 낫낫치고 고, 보믄너ᄋᆞ븐스긔는, 고ᄒᆞ지아니ᄒᆞ니라, 한국쳥이, 군ᄃᆡ시ᄀᆞ긔상이 쇠삭ᄒᆞ고심지가안인ᄒᆞ야, 쇼년적에, 언…ᄒᆞ던도가, 엽던츠에, 지경여의게, 곤경을당ᄒᆞᆫ후로는, 더구나압긔가, 되야셔분ᄒᆞᆫ마음은, 골슈의밋쳣도, 이러놀긔운이엄던츠의, 엄탄ᄒᆞ고도라온사ᄅᆞᆷ의, 말을듯온후에는, 엇지ᄒᆞ야, 셜치ᄒᆞᆯ도리가잇슬고, 무야로구리ᄒᆞ더니, 다시읍은죽, ᄒᆞ게대고게, 노위려논, 본

리헝帝조사를, 셰스라경영ᄒᆞ던조이라, 심히미워ᄒᆞ던자이업만ᄒᆞ, 그자이, 조부인을취ᄒᆞ려경영ᄒᆞ다가, 낭ᄑᆡᄒᆞᆫ소문을듯고, 이에샤ᄅᆞᆷ을보니셔, 탐니여길ᄋᆞᄃᆡ, 내가이왕의, 조부인을례로써, 딕접ᄒᆞ엿거늘, 무지ᄒᆞᆫ셔호영과, 경순흔조욱쳥와게, 큰욕을당ᄒᆞ와, 지극히통분ᄒᆞ오나, 셜치할길이업삽더니, 듯ᄉᆞ온즉, 공이또흔욕을, 당ᄒᆞ셧다ᄒᆞ오니, 가위동병상련이라, 만일셜치ᄒᆞ시고쟈ᄒᆞᆯ신던흔감힘을돕고자ᄒᆞ노라, 노위려가이말을듯고, 크게깃버ᄒᆞ야, 셔로밍세ᄒᆞ야, 일심동녁으로, 셜치ᄒᆞ기를언약ᄒᆞ니, 노위려는, 한국쳥이가, 쳥을써서, 조부인을씨셔가거든、쥬간의셔게교로 써취ᄒᆞ리라ᄒᆞ고, 한국쳥은, 노위려를알게셔, 노위려가ᄒᆞᆯ올다ᄒᆞ야, 조부인을세셔가거든, 즁간에셔계교로써취ᄒᆞ리라ᄒᆞ야, 서로계교를씨ᄉᆞ긔 일너라, 이뎌외셔호영이, 이계교를, 다조제이알고, 그계교를막을비칙을, 싱각ᄒᆞ더니, 이ᄯᆡ에, 운몽스이게, 큰도적이잇스니, 우리가슈만명이오, 젼곡과갑병이, 산ᄀᆞᆺ치싸이고, 위엄과, 용밍이, 남방의진동ᄒᆞ니, 셩명은, 셔격란이라, 서호영과, 더브러, 동셩일ᄲᅮᆫ아니라, 본ᄃᆡ친분이 잇셧거늘, 셔호영이, 밍연이 ᄭᆡ닷고, 셔격란의게편지를 다고사ᄅᆞᆷ을보니셔, 한국쳥의젼후ᄉᆞ긔와, 노위려의젼후ᄉᆞ단울ᄌᆞ셰이고ᄒᆞ고, 조부인의더칭을낫낫치그무ᄒᆞ고, 스셰군ᄉᆞ…을, 셰셰히말ᄒᆞ고, 혼자서 당ᄒᆞ기 규란ᄒᆞᆷ셰이맘ᄒᆞ며, 자가의의그ᄒᆞᆷ, 또혼ᄌᆞ오며, ᄯᅩ흔, 한국쳥과, 노위려의, 득셰홍이 졀분흔것슬, 일귀러, 아못조록, 동심합녁ᄒᆞ야, 막기를쳥ᄒᆞᆫ데, 셔격란이, 본ᄃᆡ한국쳥과, 노위려를、미워ᄒᆞ다가, 셔호영의, 말을듯고, 크게반가이녀겨서, ᄃᆡ답을혼관이ᄒᆞ야, 보니고, 그날부터 군졸을단속ᄒᆞ며, 벽긔를슈습ᄒᆞ고, 사방의, 엄한길노아셔, 동졍을살피더니, 한국청과 노위려도, 그소문을듯고, 금직히조심ᄒᆞ더라, 셔격란은, 남방의일홍잇는, 도젹인고로, 사ᄅᆞᆷ마다, 겁니지안는자ㅣ업거ᄂᆞᆯ, 한국쳥관노위려도, 엇지념녀치아니ᄒᆞ리요, 쟈연이형셰가, 서로져어되야서, 몬져동ᄒᆞ기, 어려운지라

○[illegible]、[illegible]의、상소장이 [illegible]、그 상소문에 [illegible] 에 入啓치 못ᄒᆞ엿다더라

●[illegible] — 라、[illegible]은 [illegible] 가 [illegible]ᄒᆞ얏스므로 [illegible]은 [illegible]치 아니홈

雜報

# 論時務疏

[illegible]

五曰 [illegible]

[illegible]

六曰 [illegible]

[illegible]

七曰 [illegible]

[illegible]

# 西國之行述

도션졍부는、금회 [illegible]、대궐로ᄒᆞ게 [illegible] 되야、지자일본[illegible]、그 더욱다 거더라 ᄂᆞᆫ디、그 젼ᄂᆞᆫ 법은、됴션집과、양국 집분을、집쟉ᄒᆞ야 짓고、토벽은、벽돌로 싸케 질려ᄒᆞ라ᄂᆞᆫ디、그리ᄒᆞ고、이여스에 슈문인 [illegible] 한 [illegible] 더 셔 [illegible] 한다더라、이 [illegible] 걸이 [illegible] ᄒᆞ면

[illegible] 대군주페하 논 [illegible] ᄒᆞ시 [illegible] 다더라 [illegible] 홍ᄒᆞ나 이셔 [illegible]、[illegible] 디、짓고 [illegible]로、[illegible] 으로 ᄒᆞ야 잇다가、몹시 퇴락ᄒᆞ고、시방은、[illegible] 으로 되야、겨우、홍화문ᄒᆞ나 뿐이니라

●[illegible]

식공스ᄂᆞᆫ 작일 [illegible] 오ᄂᆞᆫ [illegible] 을、[illegible] 며 나셧다 [illegible] ᄂᆞᆫ 오실 [illegible] 면 [illegible] 입오젼에、인쳔으로 [illegible] 시고、[illegible] 부인도 동행ᄒᆞ야 오셧다더라

●[illegible] 초로、일본공관에서 [illegible] 이、본인에게 [illegible] ᄒᆞ라더라

●[illegible] 왓다ᄂᆞᆫ [illegible] 이 [illegible] 김병시 씨ᄂᆞᆫ、등에 [illegible] 지작일에、올나 왓다더라

●[illegible]

일젼 [illegible]、경부스、니 [illegible] 씨와、고 등지 [illegible] 스이에、[illegible] 이 [illegible] 나셔、싸홈이 나셔、시방 [illegible]、미 [illegible] 이、[illegible] 치 [illegible] 에 [illegible] 이 [illegible] 다더라 [illegible]、그 [illegible] 은 [illegible] 가 [illegible] 에 일로 [illegible] 관ᄒᆞ야、경무스 [illegible]、또 [illegible] ᄒᆞ얏 더니、니 [illegible] ᄂᆞᆫ [illegible] 보고 [illegible] 세 리 왕복ᄒᆞᄂᆞᆫ 거 신 [illegible] 아리 [illegible] 에 셔、[illegible] 관리 [illegible] ᄒᆞ야 [illegible] ᄂᆞᆫ 게 시 아니다、져 [illegible] 는、쥬임관이 오、나 [illegible] 쥬임관이 라、하물며、우리나라 에、젼에 [illegible] 하신 [illegible] 이 잇셔、이 거 [illegible] 보다 도、또 [illegible] ᄂᆞᆫ、[illegible] 관리의 에 [illegible] 왕복치 못ᄒᆞᄂᆞᆫ [illegible] 인지라、[illegible] [illegible] 인에、[illegible] ᄒᆞ야 [illegible]、검스 [illegible] 셔、바 보 [illegible] 에 게、[illegible] ᄒᆞ기 신 [illegible]、본 [illegible] 구스 [illegible] 치 못ᄒᆞ겟노라고、그 [illegible] 못 쳐 말ᄒᆞ야、그 [illegible]、[illegible] 허모、드려 보 [illegible] 더 리、그 [illegible] ᄂᆞᆫ 이 일로、아 모 [illegible] 아 니 ᄒᆞ얏 다 ᄂᆞᆫ 디、그 후에、[illegible] 인 [illegible] 지 니 고、경무청에 셔 [illegible] 이 인 스 [illegible]、[illegible] 보 [illegible] 니、검스 [illegible] 자 [illegible] ᄒᆞ야、그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온 뒤 [illegible] 에 [illegible]、일젼에 [illegible] ᄒᆞ야셔、시 방 [illegible] 브라운 [illegible]、청 ᄒᆞ야 잇다더라、이러 ᄒᆞᆫ즉、그 도 [illegible] 이、엇지 ᄒᆞ야 그런지、그 고 [illegible] [illegible] ᄒᆞ야 잇슬 뿐이니라、아 직 [illegible] [illegible] ᄂᆞᆫ 모양 [illegible]、그 도 [illegible] [illegible] 가 반 [illegible]、그 [illegible] 이러 ᄒᆞ 신 기 시 치 못ᄒᆞ므로 크게 국졍을 ᄒᆞ 야 잇 다 ᄂᆞᆫ、소문이 잇고、또 [illegible] 에 ᄂᆞᆫ 상 히 에 잇ᄂᆞᆫ [illegible]、[illegible] 르ᄂᆞᆫ、젼보 [illegible] 일젼 [illegible] 보 [illegible] 안 [illegible] 왕은 [illegible] 라 야、[illegible]、반포 ᄒᆞ리 라 니、[illegible] 이 과 연、엇 [illegible] 지 요

●[illegible] 라 오스 이 돌 이 니、[illegible] 인이 [illegible] 다 [illegible]、이 ᄂᆞᆫ 사람 그 마다 [illegible] 시 [illegible]、슈 셜 ᄒᆞ기 [illegible] 리 가、[illegible] 가 [illegible] 으 면、[illegible] 셩 ᄒᆞᆫ 다 ᄒᆞᄂᆞᆫ 디、과 [illegible] 업 이、[illegible] 가 불 [illegible] 다

●[illegible]

[illegible] ᄒᆞᆫ [illegible] 인 [illegible] 이라 ᄒᆞᄂᆞᆫ 말은 [illegible]、우 리 [illegible] ᄒᆞ 더 [illegible]、올 리 가 자 무 상 [illegible] 고、[illegible] 라 면、올 나 가 니、[illegible] 야 세 [illegible]、되 ᄂᆞᆫ 노 인 이、이 [illegible] 에 셔 져 [illegible] 으 로、[illegible] 넘 어 가 자 ᄂᆞᆫ [illegible] [illegible] ᄒᆞ 야 [illegible] 셔、[illegible]、[illegible] 지 나、우 리 [illegible]、곳 ᄂᆞᆫ 려 가 셔、[illegible]

●[illegible]

미국공사 나범진씨 가、희간의 [illegible] ᄒᆞ 다 더 니、다 시 들 온 즉、열 흘 게 [illegible] 일젼 에、[illegible] 을 [illegible] 셔、샹 [illegible] 로 가셔、미국 사람의、[illegible] 왈 향 ᄒᆞᆫ다 더 라

●[illegible]

[illegible] 여 [illegible] 찬 [illegible] 산、영 우 [illegible] 스 [illegible] 리 와 셔、[illegible] 일 본 으 로 [illegible] ᄒᆞ 려、근 일 안 [illegible] 에、떠 나 가 신 다 더 라

●[illegible] 지 나 간、삼 십 일 에、관 립 [illegible] 영 어 학 셩 은、[illegible] 의 셩 도 를 쳥 ᄒᆞ 야、[illegible] 남 산 에 셔 놀 고 [illegible] 등 을 ᄒᆞ 든 후 셔、보 호 에 양 요 리 를、디 졉 ᄒᆞ 얏 다 더 라 그 [illegible] 은

●[illegible]

[illegible] 로、옴 기 고、의 부 집 은、법 부 고 문 관、연 히 [illegible] 구 레 도 하 우 스 씨 의 게、빌 니 고、어 제 [illegible] 못 허 의 부 [illegible] 은、몬 져 올 너 간 다 더 고、인 [illegible]

●[illegible]

스와, 겁료니, 유사, [illegible]햇스나, 관계치아
이러ᄒᆞ다 나ᄒᆞ다ᄒᆞ되, 유심[illegible]던노인이가,
그러ᄒᆞᆷ으로, 던기ᄂᆞᆫ거슨, 총위티
ᄒᆞ니, 조심ᄒᆞᆯ거시니라

● 義州之[illegible]

근의발 줄게 (음) 일젼에, 평안도, 의주에서 [illegible]ᄒᆞᆫ
서, 미국 사ᄅᆞᆷ의, 니야기를, 들으니, 의주지
방에서ᄂᆞᆫ 청인상고가, 물나에, 드
「히리 리와서, 쟝사ᄒᆞᄂᆞᆫ일이, 펴만ᄒᆞᆫ다, 이
근일안 [illegible]섭 여ᄒᆞ기, [illegible]ᄒᆞ야,
압록강을, 건나와서, 의주에서 [illegible]
개, 관랍 ᄒᆞ나, [illegible](의주 [illegible])에잇ᄂᆞᆫ
실청ᄒᆞ야, 쳥국[illegible]의[illegible]에, 드러와
될ᄒᆞᆫ후 서, 보호를 ᄒᆞ야다주어다라, 본부,
라 그약은, 쳥국 [illegible]되야서
국주권의 쳥인상 관구무엄ᄒᆞ니 [illegible]
고문관, 편ᄒᆞ, 쳥인의[illegible]과[illegible]이잇고, 잡[illegible]
고, 어제 [illegible]산아잇스니, 아나, 이[illegible]ᄂᆞᆫ
간다더 [illegible]보니고, 그일[illegible]케되리라
고, 인[illegible]신분에, 비ᄒᆞᆫ더라

● 乙[illegible]

[illegible]

ᄂᆞ, 도젼[illegible]로ᄒᆞ니, 피의여ᄒᆞᆷ
셔, 시 [illegible] 人 12
음, 쳥 日本人 二千一[illegible]元
그도레[illegible] [illegible]人 [illegible]八十 元
一군방이 [illegible]人 [illegible]八千九百七十六元
셔[illegible]이 [illegible]人 [illegible]千[illegible]百二十[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人 一千一百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그[illegible] 이러ᄒᆞᆫ[illegible]의 [illegible], 갑오
국졍을ᄒᆞ 년[illegible]ᄒᆞ고 비교ᄒᆞ니, 되와여
12에ᄂᆞᆫ, ᄒᆞᆷ
ᄃᆞ, 젼보 [illegible]
반포ᄒᆞ리 가우편에 [illegible]
서오 울미변에 [illegible]오젼오ᄇᆡ○ 원
ᄒᆞ니, 피 구원
본사ᄅᆞᆷ 그[illegible]이, 좌와이ᄒᆞᆫ
ᄒᆞ기를, 울미변계 십오[illegible]오젼○이십상
괴밀이 원
, 비가

官報抄錄

미수인 [illegible]
에, 우리 [illegible]
들리가자 무상에, 죠의[illegible]이라, 시로이ᄒᆞ
[illegible]오ᄒᆞᆷ 야[illegible]
[illegible]셔서 [illegible]
자도식,
, 며
가셔,

이면심리ᄒᆞ니, 피고ᄒᆞᆫ, [illegible]
챵[illegible]으로, 본년사월이십오일에,
입지ᄒᆞ엿ᄃᆞ니, 사무이가, 극히드러
와서, 고ᄒᆞ되 [illegible]장에, 훈[illegible],
[illegible]이러ᄂᆞ니로, 챵[illegible] 곳박연ᄒᆞ엿
노라ᄒᆞ기며, 쟈시봉심ᄒᆞ엿스나, 실
스오며, 진쟈보고ᄒᆞ지못ᄒᆞ과, 젼단
이스스로[illegible]사[illegible]ᄒᆞᆫ거슨, 어리
셕은소견의, 관계에과면ᄒᆞ과 [illegible]
슈게 지[illegible]ᄒᆞᆫ, 무겁고며나서ᄒᆞ온
닌이오나, 조[illegible]감ᄒᆞ다ᄒᆞ오신
[illegible]지[illegible]ᄒᆞ오니 항[illegible]미라,
오며, 피고ᄒᆞᆫ니 [illegible]인
챵[illegible]수[illegible]의, 그[illegible], 무[illegible]
[illegible]ᄒᆞ야, 신[illegible], 지방이드러
와서, 잠간자더니 [illegible]지[illegible]
과이, 챵제빗치기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다보[illegible] [illegible]
렴이대단ᄒᆞᆫ고로, 쉬[illegible]
은ᄒᆞ에 [illegible]에게 [illegible]ᄒᆞ야, 고
[illegible]
[illegible]이[illegible]
[illegible], 읍[illegible]치ᄒᆞ니, 보고ᄒᆞ지말기
[illegible], 가쳥ᄒᆞ니, 인ᄒᆞ야[illegible]
ᄒᆞ엿다ᄒᆞ며 피고ᄒᆞᆫ [illegible]셔ᄂᆞᆫ
챵[illegible]산지으로, [illegible]
그날밤, 셕[illegible]ᄒᆞ엿ᄂᆞ니, 수부이에
, 니진셕이가, [illegible]상에, 분이[illegible]
울, [illegible]지[illegible], [illegible], 임시게[illegible]착ᄒᆞ
아, [illegible]이[illegible], [illegible], 드러가[illegible]
앗스오나, 실과 [illegible] [illegible]
이다ᄒᆞ오며, 피고ᄒᆞᆫ [illegible]
챵[illegible]지실[illegible]으로, 그날밤의, 셔[illegible]
ᄒᆞ얏다가, 슈부의, 니진셕이가,

[illegible]
ᄒᆞᆷ[illegible]관의게, 고[illegible]ᄒᆞ야, 동
[illegible]ᄇᆞ서, [illegible]
줄은반셔, 박연ᄒᆞ엿고, 즉시보고치
아니ᄒᆞ엿고, 쳔단이기스초ᄅᆞᆯ, 힝
ᄒᆞᆫ거슨, 근관과 동숙이겁네
ᄂᆞᆫ, 그칙임은, 엽스오나, ᄒᆞ니, 피고
여셔, 읍[illegible]이라, 막대ᄒᆞᆫ변
울, 동숙이, 음치ᄒᆞᄂᆞᆫ거슬, ᄒᆞᆫ발
노도, 금지ᄒᆞ지못ᄒᆞ엿스ᄋᆞ, 죄가업
다ᄒᆞ지못ᄒᆞᆯ자며, 피고ᄒᆞᆫ신병슈ᄂᆞᆫ
챵문창[illegible]으로, 본년오월[illegible]사일에,
입직ᄒᆞ야, 사월이십오일에, 동
상실과와, 사초를, 쳔단이ᄒᆞᆫ, 자[illegible]
유를, 들엇ᄂᆞᆫ데, 동령에, 감진ᄒᆞᆼ
의, 스스로간쳐ᄒᆞᆫ, 인ᄒᆞ야, 곳보
고치, 아니ᄒᆞ야, 본고ᄒᆞᆫ칙을, 난면
이리ᄒᆞ엿신 [illegible]
니, 화공ᄒᆞ다라ᄒᆞ며, 피고ᄒᆞᆫ, 니챵
순은
챵[illegible]셔원으로, 본년사월이십오일
에 [illegible] 가, 그이ᄒᆞᆫ날의도라
갓더니, [illegible]날밤에 [illegible]셔와
ᄒᆞ니, 그[illegible]실은, 피고[illegible], 공셔의
[illegible] 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特別廣告

### 居留民一般

當地在留本邦人ニシテ銃砲及之レニ使用スル火藥ノ賣買營業ヲナサントスル者ハ帝國領事館ニ願出免許鑑札ヲ受ケ明治五年正月布告第二十八號銃砲取締規則及明治十七年十二月布告第三十一號火藥取締規則ヲ遵守スヘキモノトス心得可シ

但營業者ハ當分ノ間二人以内トス

右相達候事

明治二十九年六月十九日

在京城

一等領事内田定槌

右ノ通領事ヨリ達シ有之候ニ付此段廣告ス

明治廿九年六月十九日

居留民總代役場

## 雜報

●原新公使の釜山發　原新公使は昨日正午過ぎ貝島丸にて釜山を出發せられたる由、されば海上別段の風浪濃霧なきに於ては明五日午前には仁川に着せられ明後日入京せらるゝことゝなるべし又た同公使は今回夫人をも同伴せられたりと云ふ

●原公使の出迎　として我が公使館よりは山座書記生本日下仁する筈なり

## ●興化門大闕の再建

朝廷は今回西大門内興化門大闕を再建するに決し已に再昨日より地均らしに着手せりと云ふ其構造は朝鮮風に西洋風を參酌し兩國の建築は凡べて煉瓦を以て積立つる筈なりとか而して此建築に要する費用は意外の巨額に出づる由、傳へ曰ふ右大闕落成の上は　大君主陛下先づ茲に還御あらせらるべしと因みに記す右興化門大闕は太宗大王の朝之を建設せられ世々離宮たりしが年を經るに從ふて漸く頽廢し今は只建物と興化門なる一門を止むるに過ぎず

●金炳始氏の入京　曩に入京せりとの風評ありし金炳始氏は再昨日に至り始めて入京せりと云ふ

●李範晋氏の出發期　新任駐米公使李範晋氏は去月末出發赴任をすべきよし確聞せしに同氏が今に出發せざるより種々の風説を生ぜしが今聞く所に據れば本月十日頃當地出發上海を經て米國に向ふべく豫定なりと云ふ

●李範晋氏　は別項記載の如く近々赴任すべきに付き米國への土産として扇子、屏風、硯等千餘圓の品を調へたる由

●朝鮮銀行條例　過般來度支部にて日本銀行の條例等を參酌し起草中なりし朝鮮銀行條例は此程已に脱稿し目下同部顧問白以安氏の檢閲を請ひ居れりと云ふ然るに右條例草案は何故か白顧問の許に堆積しあるのみにて未だ容易に檢閲を了するの模様なく朝鮮銀行は該條例にして發布を見ざる間は其業務を開始する能はざるより此銀行の遲々なるを見て大に批評を吹き居れりと云ふものあり一説に上海[illegible]ある某銀行員召喚の電報は此程[illegible]せられたり該銀行員支店の上からでは條例の發布を見ることとなるべしと事實果して如何にや

●外務と法部の確執　此程來外務協辦[illegible]氏と高等裁判所檢事某との間に一種風波起りて確執を生じ今日猶ほ双方の確執和せず爲に公務の澁滯を來すと云ふ今其由來を聞くに始め檢事より司法警察の事務に關し警務使に宛て一通の照會狀を發したるに警務使は之れを見て曰く公文に所謂照會狀なるものは同級官吏の間に往復すべき者にして下級の官吏より上級の官吏に對し之れを發すべきものにあらず況んや檢事は判任官にして余は勅任官なり況んや斯く制定せられたる公文式ありて之れに據るも照會狀なる者は何級官吏の往復すべきものにあらず而して法部官吏の事務に關しては檢事より直接警務局長に照會すべきものなり警務使に於て之を受理すべき謂はあらずとて其書面を附し右の照會狀を檢事に返送したり是に於て檢事は之に對し何等の答辨をも爲さゞりしは如何なる譯にや其後數日を經て警務署より檢事の犯罪者を裁判所に回送したるに檢事は此者とても思ひてか拒んで之を受付けざりしより警務使と檢事の確執是より始まりしとかや

●獨立公園　曩者の公園は前國朝野紳士の發起より西大門外迎恩門跡址との間に設けらるべしと云ふ而して朝鮮官吏は之が下相談の爲に一昨日午後より小學院に會合せし由國立門は迎恩門の舊址に建てられ公園は西大門外北漢山麓との間に開設せらる可しと云ふ地方は該發起人[illegible]して此擧の運ならざるは[illegible]城内亦た日に政治の[illegible]を増しつゝ有るが今日、西大門外何を隔り此公園あるや此間の消息知るものぞ知らん

●駐韓武官の會合　外部顧問等の諸氏に先てんとの計議行る由此國來郡有りしが已に發起しかば設は大抵として居りしものかの大のグレートハウス氏校に引移ることとなりしと云ふ而して興化門大闕の重要ある氏が現今の官舎は近く來著の所有る陸軍顧問等の官舎に充てらるゝことに内決し居る由

●二百萬圓到著の期　日本人間には我國外債の中先づ二百萬圓丈け一兩日前已でに到著せりとの事さも傳ふるものあれども恐くは虚説ならん

## ●日本東北部の大海嘯詳報（二）

今回被害の地は石卷以北にして盛岡、志津川、氣仙、沼濱、釜石、宮古、吉里の八戸より津輕海峽に至るまで沿岸凡百五十里の間就中江刺の釜石尤も多き北閉伊氣仙本吉の三郡に被害多く、海嘯の中心點は何れとも定まらざれども宮古、釜石の如きは人家の多きだけに被害尤も多く殊に何地も午後十二時過ぎの事とて避難の路頭に迷ひ慘狀實に想像に堪へざる者あり就中女川沿の被害の如き慘中の慘事にして[illegible]に六十戸の[illegible]流失し[illegible]

海嘯被害の第一期は午後八時半にて晩餐後間もなく沿口に異様の響聲ありたる間もなく一時に襲來せしかば住民は何事と辨へずして唯狼狽の外なく、或は木を攀ぢ或は一家手に手を取り合ふて避難、柱に取付きしも不幸にして石肌の崩壞と共に流失して敢へなく最期をとげしものさへあり、海嘯の度數は都合三回にして第一回は尤も劇しく水嵩三丈以上に高まり引くと思ふ間もなく三分間ばかりにして第二回のもの來り、暫くにして亦第三回來り此後亦小潮わり前後三度二十分間の事にして午後九時頃に至りて全く平水となりたり

宮城縣下の被害は岩手縣沿海各村の如く甚しからざるも其北部に偏せる地方は殆んど縣中第一位に劣らざるの慘狀に陷りたり六月十五日午前十一時頃より遠雷沖上に聞こえ午後五時に至りては豪雨車軸を流し濃霧四面に罩めたるの約一時間半、此間或は遠雷の如き響を聞き或は大砲の[illegible]作に至りて波濤の怒り哮る聲は漸く急にして咆ふから疾風の[illegible]が如き音せり已にして沿岸に於ける大津波わりと大聲疾呼するものあり其聲未だ終らざるに二丈餘の怒濤は陸馬の如く駈り來りて家屋樹木を拉し人馬家畜を[illegible]し本吉町字埋地及び神ノ須賀の民戸數十棟は倏ちにして一浪の爲めに殘らず浚はれて片影をも留めず陸谷町を覆ひて街路は一面の砂漠と化し同地の本吉郡と呼べる潮附近郷に關する大惨禍なるが[illegible]はれて跡は惟る一面の汀渚となりぬ同所の男女或ひは[illegible]上に攀ぢて之を[illegible]知する者多く[illegible]大[illegible]を求むるものあり或は其の屋根を逃れんとして忽ち潮に[illegible]ち[illegible]るもあり孔兒の[illegible]共に溺死せるものの[illegible]丁の老親を背負ひて二人ながら溺死せるものの家流れて溺死せるものの[illegible]の死は一ならざれども何れも皆[illegible]の[illegible]ならざるはなし[illegible]

[illegible]溺[illegible]に於ける第一等の被害地は本吉郡[illegible]津村にして全村戸數七百廿戸擧げて流失に歸し僅かに殘るもの五十戸に過ぎず今日迄に調査に依る死者千三百八十人全戸恐く死絶へたるもの頗ぶる多し大谷は[illegible]十五没にして遠藤百軒餘の内全流二十五戸半潰七十七戸に及べり本吉郡[illegible]、[illegible]戸、平磯、[illegible]、清水浜等にして人家の流失せざるもの殆んど稀れなり（未完）

●[illegible]川郡と襲ふ　去月二十七日約三百名の[illegible]川郡と襲ひ郡内の人民に向ひ[illegible]等は凡べて[illegible]の許に[illegible]出すべし[illegible]わらば打ち殺すべしと強迫して[illegible]を[illegible]守及び[illegible]は何れも難を避けて逃走したりと而して[illegible]水平よりは兵を派し右の賊と[illegible]平[illegible]内の賊との連絡を絶ちたりと云ふ

●慶州の暴徒　過般來慶尚道安東地方に排[illegible]し居たる暴徒の[illegible]は慶州の人[illegible]交する者にて五月上旬部下の一隊を率ひて慶州に至り[illegible]兵を[illegible]動せり時に[illegible]兵の一隊[illegible]太郎[illegible]たりしが慶州府[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六七十名[illegible]官兵[illegible]追[illegible]先づ[illegible]陽に逃[illegible]に飛[illegible]を[illegible]察使に[illegible]よう官兵[illegible]右の急[illegible]十名を[illegible]

●慶尚道の[illegible]　安東[illegible]八[illegible]の[illegible]方に向ひた[illegible]

●士田[illegible]　[illegible]

●守備[illegible]

[illegible]

●米[illegible]　本日は米國[illegible]居留民は午[illegible]より、何れ[illegible]

京城居留[illegible]

●英[illegible]　當地在勤英[illegible]

●丹[illegible]

晩發突開 りなくも六 手して雖 分手に手 亦にして 政府とな 至三回に 政兵に商 りとして 朝來り此 にしな り く遊し とを除中 十五日 五時に きもの 加えて政 [illegible] にして り巳に こるも 總は斯 馬家溶 旣數十 て片影 面の功 對し近 にする 間の與 之那月 求むる 怒ち潮 察を上 の壯丁 もの家 せるも れを何 を謂ふ 曾部歌 失に關 近く週 絕へた くして を用に れに大 清水 を研れ に 三百名 政衣服 附く者 あり邸 たりき 說を水 方に排 文する 州に至 一隊開 …の

照急報送しを以て直ちに馳せ至りし逆文は六七十名の部下を殘留して既に他方に逃遁せり官兵因りて其の實交を捕へて之を銃殺したり逆文聞て大に其の父の殺を怒り再び盛州を襲ひ先づ郡守を捕へんとせしかば郡守は僅かに逃れ附近に逃走せり逆文の黨徒は益々猖獗を極め矜に飛ひて官兵三名を殺し去月十七日迄に盛州城を落れたり即ち官兵は勢支へ難く大邱觀察使に向て援を求めしを以て翌十八日大邱より官兵約百名を派遣しずで其の黨他も亦たれの急報に接し去月十八日巡檢十名砲手四十名を同地へ派遣し同地を恢復したりと

●慶尚道の暴徒江原道に向ふ　慶尚道醴州安東府の地方に蜂集せし暴徒の一部は其の稍々後の氣焰に乘じて江原道江陵、襄陽等の地方に向ひたりとの聞あり

●土田讓亮加害嫌疑者　囊きに土田讓亮加害嫌疑者搜索の為め平安道より出張 [illegible] 田、川井の三氏は義州の警務官より委托され土田加害關係嫌疑者李化山なるものを護送し來り仁川府廳に引渡したり同人は土田の止宿し居たる宿屋の主人にして土田を殺せし現場より金を預り居ることを現はれ連累者と見做され捕はれたるなり他に見用點ある者とも數者人として逃れ來れる由

●守備隊長の出發　先年當地守備の任に在りし後備步兵第十聯隊第一大隊長伊律野少佐より當地總代に宛て此程左の書狀を寄せられたりと云ふ

拜啓我大隊は曩きに明治二十七年八月征清役從軍朝鮮國派遣の命を奉じ爾來引續き守備警護の任に當ること二ケ年本年五月を以て任務交代歸朝の命に接す此間に於て貴地居留民諸君は不絕我隊の為め非常の力を盡され我任務施行上に於て實に不少便益を與へられたることと深く感謝の至りに堪へず併せて出發に際み特に盛大なる送別の厚遇を辱ふし一般歡抃措く能はず小官謹んで茲に一同を代表し聊か謝 [illegible] 望あらし幸ひに此意相傳へられんことを切に希望する所也

明治二十九年六月十日

後備步兵第十聯隊第一大隊長

伊律野千里

京城居留民總代御中

●米國獨立紀念祭

本日は米國獨立紀念祭の當日なるを以て同國居留民は午後三時より、同公使館は午後八時より、何れも各國外交官、領事、武官、朝鮮政府の顯官等を招待して盛大なる祝宴を與る由而して午前には此等の人々は同公使館に赴り賀辭を述ぶべく我公使館よりは加藤代理公使、日置書記官、新納、渡邊、野津の三武官領事館よりは内田領事祝賀の為め同公使館に赴かるゝ筈なり

●英國領事の日本行

當地在勤英國總領事ヒリア氏は本年も日本に避暑旅行を為すに決し近々の中當地を出發すべしと云ふ

●各段々官の處刑　曩きに野火八段を延燒せし同段官は遂に前非を改めて北部を詫びしが該務部官の發見する所となり該段官は法部に付して夫れ〳〵所刑さるべきこととなりし由は情報の紙上に記せしが右は愈々該部終結し去る廿六日漢城裁判所に於て公判を開き前令金辦鉉は大明律雜犯條「若於山陵兆域内失火者杖八十徒二年律」「大典會通刑典條」陵上失火陵官以本律照例後公罪收贖處八律」大明律吏典違不當條「應申上而不申上者笞四十律」例術行違條「凡將制書有所施行而違者杖一百律」名例「二罪以上俱發以重者論律」に照し笞八十懲役二年公罪收贖に、守兵李辰右、山監朴順西の二名は大明律雜犯條「若於山陵兆域内失火者杖八十徒二年律」に照し笞八十懲役二年に、火田の犯罪者は大明律不應為條「不應得為而為之事理重者杖八十律」に照らし笞八十に、前參奉申恩秀、官員李昌淳の二名は大明律、不應為條「應申上而不申上律」に照らし笞四十に夫れ〳〵處刑の宣告を受けし朴順西の三名を徒二年に處し其の他は放免せられたり

●金中隊長の處刑　現西部五大隊中隊長正尉金永謨氏は征入として仔實頭怒なるは謀務上非望を炊ぎたるものありとて去月二十七日一週日の禁獄に處せられたり

●李承九氏疏本

左に掲載するものは乃ち前承旨四品李承九氏疏本の全文なり見よ其の趣旨には伏以臣部と云へる前代未聞の語まへ用ひ居れり、

伏以臣聞、易に曰く履霜堅氷至ると、其の漸を防ぐ輙ち杜ぐは、愼まざるべからざるを言ふなり、況んや今之微にして微たる國、弱にして甚しく弱きるとや、故し防杜を加へざれば其れ將に殆々爲何ともすべからざらんとす、愼まざるべけんや

鳴呼、昨年十月八日の事、開は言ふに忍びんや、此れ誠に古今東西未曾有の大變なり、陛下の臣民たるもの孰れか泣血飲泣、復讐を以て念となさゞらんや、然るに上は大臣より下は民庶に至るまで猶ほ敵對比位ふといへども、而かも國時代方法を知るものなし、故を以て今日に至るも冊は未だ天討の決行を見す臣隣ふ其の深く遡りて其源を窮はめ、一々枚擧せん、惟ふ　陛下徑省せよ

溯るに壬午より以後、國步艱難、變亂相ひ生せしに、常に懸磁姑息を以つて計と爲せしを以つて、昨年十月の變を醸致せり、臣謹く按ずるに其本を除くものは必らず根を拔ぎ、流れを塞ぐものは必らず源を塞ぐと、陛下盍んぞ本を拔き源を塞ぐの道を思はざるや、現今朴泳孝柒國より日本に逃へり、曾游兩淵の黨も頗る相ひ謀り、既に意して入らんと欲す、而して反りて國内を見れば一般の賊所在に蜂起し、何れの日に至りて鎭定するやを知らず、此れ誠に危々殆々の時なり、泳孝が甲申の兇謀を逞ふせし情狀は、聖明の既に洞照する所なれば復た迎らに贅するを須ひず、今之昨年を以て之れを言はんに、其凶謀又た發覺するに及んで彼れ直に身を脫して逃れ去れり、設者乃はち曰く是れ形跡未だ明白ならず罪さなすべからずと、此れ何の說ぞや、禹將選範淵が軍部設察の為め派遣所に赴くや、山立の前夜、泳孝並部將役と其の家に招ひて姿を與り死生を共にせんことを盟ひたりと云ふ、此れ皆く僉術の所爲なるのみならず、軍部は彼れが總ずる所なるに端あく夜會を為し死を陪はせんことを約せしは其の凶謀逆謀、昭々として掩ふべからず、且つ八月事變の時、闕内に突入して惡逆を敢行せしもの、は乃ち泳孝の血黨李周會、柳赫魯、鄭蘭教なり、其の兇闕入しく強勸せしもの遂に至りて發したれば則はち彼れ其の七月に行はんと欲せしものを始らく八月に移したるに過ぎざることは的確にして疑ふべからざるなり　（未完）

●通關價格引上に就て

仁川通關於大豆の通關價格を引上げしとは曾て本紙に記せしが其後同港關と商人との間に話し纏まり迄つて大豆相場の下落する迄今回改正引上の價格にて納税することとなりたり

●仁港學校　同校は去一日より當中休業となせり

●魚鹽稅賦課の議

目下政府當局者の間には魚箭（梁）及び鹽盆に若干の租税を賦課せんとするの議起り居れりと云ふ此使用の途は聞き出らしたれど此議にして愈々決せば該新税は或は中央及び地方軍隊の經費に充つるものならんとも云ふ

●仁川米豆取引所の業務擴張　仁川米豆取引所は去月二十八日臨時株主總會を開き米大豆二品の外棉花石油明太金巾木綿粉類糸等の各商品をも取引品目中に加ふることに決し爲めに定款を改正し其の翌日直ちに認可願を領事館に差出したり

●風說種々　曰く義和宮殿下及び李埈鎔氏は日本兵に擁せられて歸らるべし曰く國語學氏壯士團を率ひ歸來すべしと此種の風說枚舉に遑あらず而して此等の事の最夫居留の間に傳へらるゝは當國に於て或は兇巳ひを得ざる事あらんも中等人士の中にも之れを信ずる者ありと云ふに至りては只呆然の外なし今の時決して斯の如きことあるべからず吾人[illegible]氏其れ安意して可なり

●又も風說　原新公使來任の報韓人間に傳はるや例に依り之に米據附會して種々の風說起り居る由なるが中に就き最も抱腹に堪へざるは日本公使數多の兵士を率ひて來らるべしとの一風說を傳ふる者あると是れなり盖は李範晉氏の米國公使となりしに就き其黨の韓人恐懼を惹起し居り此等の原因より北部の人民中には其妻子等を地方へ避けしむるもの有りとも云ふ如何に時勢に暗き韓人の事とて云へ數りに馬鹿氣たる事と云ふべし

●學生の遊山　去る三十日官立英語學校生徒は培材學堂の生徒を招待して南山々麓に出遊し共に合唱唱歌等を試み後西洋井園の饗應を爲したりと云ふ

●赤痢患者を生す　忠清道人牧田直吉（二十五歲）なる者は再昨日より赤痢に罹り目下漢城病院に入院治療中なりと云ふ時節柄特に注意旅行の際に向ふ居留民諸氏御用心專一

●虎列剌流行の兆　城内既に二三の虎列剌患者を出せりと傳ふるものあり

# 日本郵船株式會社　瀬船仁川出帆廣告

● 肥後丸　七月一日出港　七月[illegible]日入港　釜山、對州、長崎、馬關、神戸行　船長[illegible]

● 玄海丸　七月二日出港（一日入港）　芝罘、天津行　船長　茂木[illegible]之

● 豐島丸　七月二日出港（一日入港）　釜山、下ノ關、神戸行　船長　[illegible]

● 薩摩丸　七月三日入港　四日出港　長崎、芝罘行　船長　[illegible]

● 長門丸　七月十六日入港　四日出港　長崎、釜山、元山、浦鹽行　船長　ウイルソン

● 顯益號

● 蒼龍號

● 海龍號

#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 大阪商船會社　瀬船仁川出帆廣告

● 隅田川丸　六月[illegible]日入港　日[illegible]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 二見丸　六月[illegible]日入港　翌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 筑後川丸　七月三日入港　同四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 信濃川丸　七月[illegible]日入港　同[illegible]日出港　釜山、下ノ關、神戸、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 [illegible]　○入

[illegible]

一上等　一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illegible]

# 田原旅館

#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本社朝鮮京城[illegible]石川[illegible]ニ[illegible]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區[illegible]町六番地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illegible]

明治廿九年六月　日

石川商會

# 織居加一

# 梯鐵造

右ノ[illegible]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 宮田種德堂

一　肥後名產　朝鮮飴

[illegible]

# 小林菓子製造所

# 銃獵

[illegible]

日　元　西

村田式

[illegible]　銃

# 銃獵

[illegible]　屬　所

仁川　石

[illegible]

# 地球印藥用ブダウ酒

第一　[illegible]

第二　[illegible]

第三　[illegible]

# 一　地球印ブダウ酒

[illegible]

東京[illegible]

發賣元

朝鮮國特約店

# 旅館　東京館

[illegible]

# 弊舖今回都合ニヨリ西洋大阪等ニ譲リ渡シ今後時計弘ク獵銃ノ販賣ニ從事可仕候ニ付廣告仕候也

弊舖ㄴ今回營業上에일로西洋[illegible]에게[illegible]ᄒᆞ야[illegible]ᄒᆞ엿스니今後에ᄂᆞᆫ[illegible]獵銃販賣[illegible]ᄒᆞ오니四方[illegible]

# 各國時計商

[illegible]

一　[illegible]

二　[illegible]

三　[illegible]

# 各國時計商

川ブダウ酒効能

ウ酒

伊部商店

隈本商行

和漢洋薬廣賣

成尾安五郎

一ヨリ西洋雑貨一切チ派賣致シ今後時計写薬ノ傍ハラ貝ニ從事可仕此段愛顧各位

上에일로西洋雑貨大阪堂니今後에는時計와写薬으로삼고ᄒ오니四方僉各位에게廣告

石川商會

[illegible]에검혼[illegible]로石川商會라고[illegible]의[illegible]ᄒ야[illegible]
야[illegible]을[illegible]홈
[illegible]에게는반다시[illegible]ᄒ야드리옵
게는그[illegible]에[illegible]가[illegible]히
시그저곳처드리옵
[illegible]이[illegible]에서[illegible]사시고또다른[illegible]을
ᄒ야드릴뿐더러[illegible]ᄒ야드
[illegible]기나오시믈바라옵

石川商會

新荷到着廣告

貴婦人用絹傘 各種

紳士用絹傘 各種

麥酒 種々

バイレート

オールドゴールド

ピンヘッド

大狗巻烟草 各種

キリンビール

エビス黒ビール

白赤葡萄酒 各種

シャンパン、ラム子

メリケン粉 各種

機械大小各種

香水石鹸雑貨類

紅茶ビスケット、ミルク、和洋魚

肉野菜罐詰各種

龜屋本店

龜屋分店

スコット乳剤

レーフル油

肺病、氣管

虚弱の小兒

衰弱

咽喉病

製薬舗 スコット

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隈本商行

阿津阪商店

廣告

一日本酒

一荷車

一新

一木炭

北川 靜

廣告

七月二日

金文淳

李東鉉

入荷廣告

一皮座團 丸形 角形

一夏麥帽子 色々

一日本人向朝鮮人向石鹸

右新着廉價販賣仕候條多少に不係御用被仰付度奉願候也

鈴木大阪堂支店


| | |
|---|---|
| 一箇月 | [illegible] |
| 三箇月 | [illegible] |
| 六箇月 | [illegible] |

發行所 漢城新報社

(明治二十八年三月十八日 遞信省認可) 大日本明治二十九年七月六日 (月曜日) 第二百四十八號 大朝鮮建陽元年七月六日 (建陽元年一月廿二日 農商工部認可) (一)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illegible]의入京이라 이젼젼라감사、자ㄴ던、민졍식씨와、강원감삼지ㄴ던、민형식씨、두분이、려쥬등디에서、비도에、곤란을견딜수업서서、일간다、서울집으로올나오ᄂᆞᆫᄃᆡ、그집의드럿던、ᄉᆞᄅᆞᆷ들이、짐을부여니노라고、황황분주ᄒᆞ다더라

●[illegible] 법부대신에심리가명찰ᄒᆞᆷ이라 본대지판ᄒᆞᄂᆞᆫ법은、검사가소장을바다가지고、공됴를바다가지고판사의게、공소ᄒᆞ여、판사가、판결ᄒᆞ되、만닐등뎌ᄒᆞᆫ일이아니면법부대신이、상관이업ᄂᆞᆫ법인ᄃᆡ、후판사와、검사가、사ᄒᆞ여잇슬가、염녀ᄒᆞ여그러ᄒᆞᆫ지、대신이먼져、소장을보신후에이리이리판결ᄒᆞ라고、판사와검사의게、지휘ᄒᆞ시미、판검사ᄂᆞᆫ그지휘대로、거ᄒᆡᆼᄒᆞᆫ다ᄒᆞᆷ이라ᄒᆞ더라

●[illegible]라 엇던사ᄅᆞᆷ이、구할거시、잇서서、싱하ᄂᆞ、ᄒᆞᆫ필과、반디ᄒᆞᆫ필과、세ᄃᆡ두필은、군부대신의게보내엿더니、동씨가、도로내여주라ᄒᆞ며 가ᄅᆞᄃᆡ、그사ᄅᆞᆷ이、[illegible]달나ᄒᆞᄂᆞᆫᄃᆡ、내엇지ᄎᆞᆷ수업스니、엇지바드리오ᄒᆞ고、나가ᄂᆞᆫᄃᆡ、동시에소실이ᄒᆞᄂᆞᆫ말이、대감이군일에、박영효를만나、엇지지물은、되ᄒᆞᄂᆞ뇨、ᄒᆞ더라고、ᄒᆞᄂᆞᆫ풍설이、잇더라

●쥬미공사[illegible]의[illegible]이라 동씨ᄂᆞᆫ、그자뎨와、소실과、일ᄒᆡᆼ을다리고、본월십이일발ᄒᆡᆼᄒᆞ기로、확뎡ᄒᆞ엿다더라

●[illegible]이라 전학부충서、권유섭씨가、법부법률긔초위원을、ᄒᆞ여가지고장찻영이를가지고、형법을긔초ᄒᆞᆫ다더라

●[illegible]
경상도진쥬나、안동등지방에[illegible]ᄒᆞ야잇든폭도의一部ᄂᆞᆫ、일젼에、됴션비、여[illegible]에서 두고、강원도강능[illegible]등의지방으로、나갓다라ᄂᆞᆫ、소문이잇스나아직、좀ᄌᆞ셰치아니ᄒᆞ더라

●[illegible]
향자보에、경상도、안동지방에、츌몰ᄒᆞ야잇ᄂᆞᆫ폭도의괴슈ᄂᆞᆫ、경쥬사름[illegible]이란놈인ᄃᆡ、지나간、오월초싱에[illegible]의[illegible]을거ᄂᆞ려、경쥬로가서이를쓰고、[illegible]을、션동ᄒᆞ얏더라 이러ᄒᆞᆫᄃᆡ、경병의一隊가、맛침、대구에[illegible]ᄒᆞ야잇ᄂᆞᆫᄃᆡ、경쥬군슈ᄒᆞᆫ이서、그말을[illegible]ᄒᆞ야앗스므로、[illegible]ᄒᆞ니、괴슈[illegible]은、국쳥십명을[illegible]ᄒᆞ고、별셔ᄃᆞ라처로、ᄯᅥ나가서업슨즉、경병은、그[illegible]잡어、[illegible]ᄒᆞ얏더니、달문이가、그말을듯고、대로ᄒᆞ야、다시、경쥬[illegible]ᄒᆞ야、그군슈를、잡으라더니、군슈ᄂᆞᆫ、몬내[illegible]으로、도망ᄒᆞ얏더라、이러ᄒᆞᆫ입률을、인연ᄒᆞ야、폭도ᄂᆞᆫ、ᄎᆞᄎᆞ[illegible]되야 승셰로、경병、세[illegible]이고、지난달、십칠일에、경쥬셩을、ᄲᅢ앗더라、이러ᄒᆞᆫᄃᆡ、경병은、형세어려워되얏스므로、대구관찰ᄉᆞ의게、구원병을、쳥ᄒᆞ니、[illegible]十人에、대구에서관병몃만[illegible]ᄒᆞ고、연ᄒᆞ야、동니판찰도ᄉᆞ、그[illegible]를졉ᄒᆞ야、[illegible]十八日에、슌검십명과、포슈ᄉᆞ십명을、동지로、보내여서、동지를회복ᄒᆞ얏다더라

●[illegible]라 젼에[illegible]ᄂᆞᆫ、호랑이가、요두젼ᄭᅩ ᄒᆞ든거처롬、삼쳔나인의풍운、혼자몸에바다잇고、하[illegible]나라된기ᄂᆞᆫ[illegible]도、ᄯᅥ러진번ᄒᆞᆫ[illegible]을쓰든、엄샹궁도、사밧은、아모긔씨도가고[illegible]가、좀、변ᄒᆞ야서、그러ᄒᆞᆫ지、또달니[illegible]ᄒᆞᄂᆞᆫ비잇서、그러ᄒᆞᆫ지、몰으나、좀、호랑이가、잠자ᄂᆞᆫ것ᄀᆞᆺ치되、다시、ᄯᅢ를맛나면、[illegible]ᄒᆞ야、나라된기ᄂᆞᆫ[illegible]도、ᄯᅥ러지고、됴션[illegible]도ᄂᆞᆫ몰ᄂᆞ고、원졔게、오대쥬[illegible]、[illegible]코찬ᄒᆞ게됴흔、어림이업시、싱각ᄒᆞ야잇더라고[illegible]

에사ᄅᆞᆷ의、니야기니라[illegible]「보도

●[illegible]이라 이나라ᄂᆞᆫ、이리불리、호박을 나물ᄒᆞ야먹고、충의를、금져히、잡먹고、샹사ᄅᆞᆷ들은、이두가지로[illegible]ᄒᆞᄂᆞᆫ것ᄀᆞᆺ치、잘먹ᄂᆞᆫᄃᆡ、아직은、충의가안낫스므로과히、넘녀ᄒᆞᆯ거시아니로되、요ᄉᆞ이ᄂᆞᆫ、그호박이、ᄎᆞᄎᆞ、나ᄂᆞᆫᄯᅢ되야서、[illegible]에뵈엿ᄂᆞᆫᄃᆡ、그호박은、[illegible]이충의와ᄀᆞᆺ치[illegible]ᄒᆞᆫ거산즉、너무、파히먹으면[illegible]되니、그밧긔도、먹을만ᄒᆞᆫ나물이업ᄂᆞᆫ거시아닌즉、내몸이、앗가운사ᄅᆞᆷ은、안먹을거시니라

●[illegible]
부쟝과、보상이란、것슨、다무실무가ᄒᆞᆫ、쟝사들이、의지ᄒᆞᆫ바이、업시셔、[illegible]울던지죽던지、ᄒᆞ게되면、구료ᄒᆞ기와、쟝사지내기ᄂᆞᆫ、엇지ᄒᆞᆯ수업ᄂᆞᆫ고로、그런사ᄅᆞᆷ들이、모여서、임방이라고、셜시ᄒᆞ여、두목을내고、소임을내여서 서로위지ᄒᆞ여 살더니、정부에서、상관이되여서、상니국을비셜ᄒᆞ고、리종건씨가、당상이되여서 관도에、도반수와、도졉장을니되、ᄒᆞᆫ명에、수쳔냥식、밧고식혀시、이달에니고、니월에갈닌즉、그돈드리고、도반수도졉쟝、사간사ᄅᆞᆷ이、그도에、ᄂᆞ려가서、그드린돈을、쎄니라고 [illegible]、무수히지면、잇스면、모든상민을、모하서、뵈셩을친략ᄒᆞ여、폐단이무수ᄒᆞ여、뵈셩에、원망이대단ᄒᆞ더니、작년의、박영효씨가、그폐단을알고、그임방과、상리국을혁파ᄒᆞ미、뵈셩들의칭송이대단ᄒᆞ더니、지금드르니、그보부상령을、다시셜시ᄒᆞ면、비도막기가、용이ᄒᆞ다ᄒᆞ여、다시셜시ᄒᆞᆫ다ᄒᆞ나、또들은즉、작년동학에노、보부상이、만히들엇고、지금비도에도만히드럿단、소문이、잇ᄂᆞᆫᄃᆡ、그입을다시셜시ᄒᆞ면、그ᄃᆡ로、ᄒᆡ[illegible]집넌지비도를、방어ᄒᆞᆫ넌자오、그상은군부협판、윤웅렬씨가、뫼다더라

●[illegible] ᄒᆡ리빈[illegible]
두ᄉᆞᆫ[illegible]안ᄃᆡ[illegible]

이리 [illegible] 션유 [illegible] 이라 [illegible] 견)에 [illegible] 평균 [illegible] 거、 [illegible] 더라 [illegible] 그왜 [illegible] 레니 [illegible] 노위 [illegible] 의동 [illegible] 쥰비ᄒᆞ [illegible] 시사ᄅᆞ [illegible] 을알어 [illegible] 부리 [illegible] 비ᄒᆞᆫ거 [illegible] 에한국 [illegible] 못ᄒᆞᆯ쥬 [illegible] 야、쥬 [illegible] 한국져 [illegible] 서격라 [illegible] 비가극 [illegible] 나、그 [illegible] 히조심 [illegible] 정탐도 [illegible] 이병졸 [illegible] 우려가 [illegible] 가、업ᄂᆞ [illegible] 가、다 [illegible] 날을위 [illegible] 부인의 [illegible] 내맛다 [illegible] 부인을 [illegible] 의게、그 [illegible] 조부인 [illegible] ᄒᆞ노니 [illegible] 브라노 [illegible] ᄒᆞ기를 [illegible] 형뎨의 [illegible] 터이온즉 [illegible] 의뒤ᄂᆞᆫ [illegible] 이라、만 [illegible] 면ᄃᆡ됴 [illegible] 히불안ᄒᆞ [illegible] 한국졍부 [illegible] 이치만ᄂᆞ [illegible]

나라ᄒᆞᆫ、
ᄂᆞ、츙의
事은、이
ᄉᆞ치、잘
ᄉᆞ므로
、요ᄉᆞ
ᄂᆞ니되야
온物貨
、너무、
、그밧
거시아
、안먹
무실무
、업시
絶이
구료ᄒᆞ
수업ᄂᆞᆫ
、임방
고、소
살더니
상니국
상이되
졉졍을
고식혀
죡、그
간사ᄅᆞᆷ
논을、
방지면
시、비셩
、비셩
의、박
임방과
ᄅᆞ의칭
나、그
비두막
시ᄒᆞᆫ다
노、보
비도에
ᄒᆞᆫ되、그
、허
오、그
、된다

[illegible]「보도ᄋᆞᆫ人과 [illegible]利加州에「안ᄆᆞᆫ人 이리라、여러나라의사ᄅᆞᆷ은、그장이ᄂᆞ 民ᄂᆞᆫ부터ᄉᆞᆫ人ᄒᆞ만、되ᄂᆞᆫ셩小ᄒᆞᆫ인죵 이라더라、인젼팔ᄇᆡᆨ팔십ᄋᆞ년(십년 젼)에、英國學士바그氏가보도ᄋᆞᆫ人은、 평균ᄒᆞ야、몸의키가、석자세치반 기、안되ᄂᆞᆫ알온、친히視察ᄒᆞ야보왓 더라ᄒᆞ며、또、ᄒᆞᆫ人類學士의말에ᄂᆞᆫ 「그왜소ᄒᆞᆫ人種은、印度北部[illegible]利加「비 래니스、山과瑞西及米國에잇ᄂᆞᆫ人種之 遊族이라더라

# 趙婦人傳 (조부인젼)

二十五

노위러가사ᄅᆞᆷ으로ᄒᆞ여금、서격란 의、동졍을알어본죽、병쥰과긔계ᄅᆞᆯ 쥰비ᄒᆞ고、혼단은기드리ᄂᆞᆫ듸、또다 시사ᄅᆞᆷ으로ᄒᆞ여금、한국쳥의、동졍 을알어본죽、ᄒᆞᆫ의만단ᄒᆞ야、과단을 부ᄅᆡ지못ᄒᆞ고、네가지의ᄒᆞᄂᆞ도、쥰 비ᄒᆞᆫ것시、업ᄂᆞᆫ지라、노위러가、이 에한국쳥이、더브러남을、ᄀᆞᆺ치ᄒᆞ지 못ᄒᆞᆷ을알고、ᄉᆞᄉᆞ로속으로경영ᄒᆞ 야、쥰비만ᄒᆞ고잇더라 서호영은、 한국쳥의、과단업슴과、노위러게、 서격란을ᄀᆞ리ᄂᆞᆫ것과、서격란의、쥰 비가국진ᄒᆞᆫ것슬、다ᄌᆞ세이、알엇ᄉᆞ 나、그러케되ᄂᆞᆫ날만、밋지안코、국 히조심ᄒᆞ야、쥰비ᄒᆞ드ᄅᆞᆫ밀이、ᄯᅩ고、 졍탐도ᄌᆞ세이ᄒᆞ고잇더라、서격란 이병졸과、긔계ᄃᆞᆯ、쥰비ᄒᆞ고도、노 위러가동ᄒᆞ지아니ᄒᆞ미、웅밍ᄒᆞᆫ듸 가、업ᄂᆞᆫ지라、무한갑갑히녀기、다 가、다시싱각ᄒᆞᆫ죽、막비조부인의、 남을위ᄒᆞ야、ᄒᆞᄂᆞᆫ일인데、물은죽조 부인의[illegible]、비ᄒᆞᆼ연다ᄒᆞ내 내맛다이서호영과、의논ᄒᆞ고、조 부인을취ᄒᆞᆷ이、맛당ᄒᆞ리라、서호ㅣ 의게、굴얼다거서、보ᄂᆡ여곰으ᄃᆡ、 조부인을、내가친히、보호ᄒᆞ고쟈、 ᄒᆞ노니、의논을잘ᄒᆞ야、긔별ᄒᆞ기ᄅᆞᆯ ᄇᆞ라노라ᄒᆞ엿거ᄂᆞᆯ、서호영이ᄃᆡ답 ᄒᆞ기ᄅᆞᆯ、조부인은、곳나와더브러、 형뎨의물이진지라、사셩은、ᄀᆞᆺ치ᄒᆞᆷ 뎌이온죽、형은뎨의낫춘보아서、뎨 의뒤ᄅᆞᆯ보고、뎨의쳥을도아쥬ᄉᆞᄅᆞᆷ 이라、만날영이몸소보호、ᄒᆞ고져ᄒᆞ 면뎨도불안ᄒᆞ려니와、조부인이국 히불안ᄒᆞᆯ것시요、또온ᄂᆞᆫ노위러와、 한국쳥의ᄒᆞᆫ단ᄒᆞᆷ、지속ᄒᆞᆷ이라、셩 [illegible]치말ᄂᆞᆫ[illegible]잇거ᄂᆞᆯ、서격란이、과히 [illegible]ᄒᆞᆫ、쥰시아ᄋᆞ은ᄉᆞᆫ셜

곳더라、서격란의、편지왓든말ᄉᆞᆷ、 조부인이듯고、ᄀᆞ히싱각ᄒᆞ야ᄀᆞᆯᄋᆞ ᄃᆡ、ᄀᆞᆺ차사ᄅᆞᆷ은맛찬가지여ᄂᆞᆯ、녀ᄌᆞ ᄂᆞᆫ엇지ᄒᆞ야、몸뎐과ᄀᆞᆺ치、남ᄌᆞ의ᄌᆡ 미여지ᄂᆞᆫ고ᄒᆞ야、ᄀᆞ이락시ᄒᆞ고、 이에옥쳥공ᄌᆞᄅᆞᆯ、쳥ᄒᆞ야서、의논ᄒᆞ 야ᄀᆞᆯᄋᆞᄃᆡ、인셩은、ᄒᆞᆫ가지여ᄂᆞᆯ、남 녀의달음으로써、남의게、욕을만히 취ᄒᆞ고、붓그러옴을、만히당ᄒᆞ니、 엇지분ᄒᆞ지、아니ᄒᆞ리요、또ᄂᆞᆫ 쳐부에직임이、잇슬쟉의、슌ᄒᆞᆫ걸 노써 올케압거니와、쳐부에직임 이、업신후에야、엇지유약ᄒᆞ야、사 ᄅᆞᆷ의절제ᄅᆞᆯ밧으리요、오날이야、내 가이왕의、어리셕은것슬、ᄭᅢ다랏 노라、쟈금위시ᄒᆞ야ᄂᆞᆫ、쟈강ᄒᆞᆷ도 리라、ᄒᆞ고쟈ᄒᆞ노니、군은ᄒᆞᆫ계칙 을도와라ᄒᆞ니、[illegible] 케듯고、져져외지취ᄅᆞᆯ、좃게노라ᄒᆞ 거ᄂᆞᆯ、이에지안의잇ᄂᆞᆫ지물파、다른 디져쟝ᄒᆞᆫ지물을、모다모와서、운동 ᄒᆞ고、유힝케ᄒᆞ야、시리코쟈ᄒᆞᆷ시、 모단문긔과、하인을불너서、크게잔 치ᄅᆞᆯ베풀고、서로언약을、죵ᄒᆞ며、 장졍을베풀고、법강을엄히、졔원 서、사ᄅᆞᆷ마다、그현문과、교쥰을보 아서、직업을밋기고、긔여이、부강 ᄒᆞᆫ디경의 입으기ᄅᆞᆯ、밍셰ᄒᆞ니、모단 문긔과、하인엽이、본ᄅᆡ봇터、부인 에더화ᄒᆞᆫ、감복ᄒᆞ든터이라、이졔、 법강이、엄ᄉᆞᆨᄒᆞ미、무려워ᄒᆞ지、안 ᄂᆞᆫ쟈이、어더라、부인이、다시、서호 영의게 편지ᄒᆞ여ᄀᆞᆯᄋᆞᄃᆡ、여가、향 자에、한국쳥의、쟝악에、ᄲᅡ질슈젹 에ᄂᆞᆫ、비권ᄃᆡ、합졔에、든것、ᄀᆞᆺ거ᄂᆞᆯ 다ᄒᆡᆼ에、[illegible]으로、구ᄒᆞ심 을닙어서、호랑의굴을、버서나서 ᄃᆡ런일이、다시보오니、살어나온게、 깃분게、아니오라、욕을셜치、ᄒᆞ온 것시、만힝이업거ᄂᆞᆯ、그후로、또다 시、노위러의、유이업으고、서격란 둥의、업신녀김이、나오니、엇지분 ᄒᆞᆫ치、아니ᄒᆞ오리잇가、모다、ᄒᆞᆫ의、 쉬뎌으로、보젼ᄒᆞ옵기ᄅᆞᆯ、웃덧거니 와、엇지인셩이라、일것ᄉᆞ오리잇가 더구ᄂᆞ、노위러와、한국쳥에、무리 가、듀야로、움모비계ᄅᆞᆯ、셜시ᄒᆞ오 니、후려가무궁무진ᄒᆞ온지라、잠시 도、방심치、못ᄒᆞᆯ올、디경이옵거ᄂᆞᆯ、 서격란인죽、김이밋ᄇᆞᆯ슈、업ᄉᆞᆸ고、답 운형이혼자 심려ᄒᆞᆯ씨슬、남도민망 ᄒᆞ옵고、ᄉᆞᄉᆞ로분격、온마음을、ᄒᆞ 계치곳 ᄋᆞᆸ다가、다시싱각ᄒᆞ온죽、 쳐부에는、ᄋᆞᆫ보견노써、쥬장을、

삼ᄂᆞᆫ다、ᄒᆞ엿ᄉᆞ오나、쳐부에직임이 업ᄂᆞᆫ쟈이야、나약ᄒᆞᆷ것시업ᄉᆞᆸ거ᄂᆞᆯ、 ᄃᆡ가이왕에ᄂᆞᆫ、우미ᄒᆞ와서、유약 ᄒᆞ온ᄐᆡ도ᄅᆞᆯ、버리지못ᄒᆞ옵고、녀ᄌᆞ 에、본식을지희고업ᄉᆞᆸ기로、규슈ᄀᆞᆺ 흔놈의、모욕을、당ᄒᆞ엿ᄉᆞ온죽 ᄌᆞ 금이후로ᄂᆞᆫ、녀ᄌᆞ에본식을、버리옵 고、즁남불의ᄒᆞ야、ᄌᆞ강쟈유ᄒᆞ옵ᄂᆞᆫ 권을가저서、남의모욕도、밧지아 니ᄒᆞ려니와、형의심녀도、덜고쟈ᄒᆞ 오나、우인이、용렬ᄒᆞ고、소견이업 ᄉᆞ와、견졍이오이다、ᄒᆞ엿거ᄂᆞᆯ、서 호영이、편지ᄅᆞᆯ보고、크게깃버ᄒᆞ며 ᄀᆞᆯᄋᆞᄃᆡ、향히녀겨서、답서ᄅᆞᆯ、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보닌글얼ᄌᆞ세이본죽、탁월 ᄒᆞᆫ소견이、사ᄅᆞᆷ으로ᄒᆞ여금、항복ᄒᆞᆯ 비로다사ᄅᆞᆷ의、영걸[illegible]、남녀가、 어듸잇스리오、부인도쟝부에、힘ᄉᆞ [illegible]연ᄉᆞ쟝부라、일은바말이 졀졀이、리치에합당ᄒᆞ야、형의마음 을상쾌ᄒᆞ게ᄒᆞ니、이런경ᄉᆞ가、어 듸잇스리요、무슨사업을、ᄒᆞ라면 지물이、잇서야셔、의ᄒᆞᆫ것시니、ᄉᆞ소 ᄒᆞᆫ지물은、보ᄂᆡ니、소용에、번티고、 거긔잇ᄂᆞᆫ、쟝졸을、부탁ᄒᆞ니、지휘 졀제ᄅᆞᆯ、잘시겨서、부리기ᄅᆞᆯ、ᄇᆞ라 며、다음에미진ᄒᆞᆫ됴건은、긔별ᄒᆞ기 ᄅᆞᆯ기ᄃᆞ리노라、ᄒᆞ엿고、사ᄅᆞᆷ을보 ᄂᆡ서、치ᄉᆞᄒᆞ고、슈만만금지물을、 보ᄂᆡ서、부됴ᄅᆞᆯ삼어ᄂᆞᆯ、부인이、이 에사ᄅᆞᆷ으로、ᄒᆞ여금、샹고의업을、 크게열고、각식장식의、지됴ᄅᆞᆯ、샹 급ᄒᆞ야、놉혀쥬니、장식의、교합이 발거지며、농민에、궁ᄒᆞᆫ것슬、부됴 ᄒᆞ야、힘을다ᄒᆞ게、ᄒᆞ니、노ᄂᆞᆫ빅셩 이업고、젼일ᄒᆞ든、향약을、다시ᄒᆞ 니、본ᄅᆡ홍지、긔선싱의、덕화ᄅᆞᆯ입은 ᄇᆡᆨ인이라、크게절거워ᄒᆞ야셔、일 도에규구가、찬란ᄒᆞ여지니、사룽ᄒᆞ여 고에、네가지업이분명ᄒᆞ여서、강도 입향이、날노흥왕ᄒᆞ여가며、지물을 느리ᄂᆞᆫ것과、샹고업업이、날노흥왕 ᄒᆞ야、편하의지물이、복쥬ᄒᆞ야、물 어오고、편하의거부가、되야서、아 모사업이라도ᄒᆞᆫ만ᄒᆞ더라、한악에、 규구가굿드미、ᄒᆞᆫ술이셩 고、례법 이ᄒᆞᆼᄒᆞ야、편하의졔일되ᄂᆞᆫ、례의 지향인너라 부인이、이졔편공에、 범법으로써、문긔과하인을、지휘ᄒᆞ 야、입향의장졍을、약속ᄒᆞ고、졔샹 의병긔ᄅᆞᆯ구취ᄒᆞ야、듸오와、긔물 을、즁ᄒᆞ야노니、사ᄅᆞᆷ다다、용밍ᄒᆞ 야、편하의듸적이、업슬졍병일너라 、소소명과、하샹홍과、나히각등이、 즁에ᄂᆞᆫ、부인의、졀졔ᄅᆞᆯ、밧게되미、 마음으로심ᄒᆞ여、우셧더니

## 雜報

●原公使之着仁

일본셔공ᄉᆞᄂᆞᆫ, 자안, 오젼아홉시반에仁川에下陸ᄒᆞ시고, 곳하륙ᄒᆞ야, 동지일본령ᄉᆞ관에셔ᄒᆞ로밤자시고 오ᄂᆞᆯ, 오후세시쯤에, 용산으로[illegible]ᄒᆞ시리라

●[illegible] 진고개공관에셔[illegible]이, 벌셔, 나갓스되, 오ᄂᆞᆯ, [illegible]ᄒᆞ실때ᄂᆞᆫ[illegible]은, 마지러간다더라

●[illegible] 는, 일젼에, 무ᄉᆞᆫ일이잇셔, 그러ᄒᆞᆫ지, ᄉᆞ직소를내엿다는말은, 못드럿더니, 지작일, 관보호외로, 그비지나는뒤, 좌와여ᄒᆞᆷ

[illegible]

●[illegible] 는, 이나라[illegible] 추서, ᄉᆞ직소를, 쥬지계ᄒᆞ야, 내엿는뒤, 여시, 지작일, 관보로, 좌ᄀᆞᆺ치비디뢰, 올녓더라

[illegible]

## ●興化門大闕

[illegible]에, 여ᄉᆞ를ᄒᆞᆫ다든흥화문셔궐은, 아라사공ᄉᆞ관ᄒᆞᆫ고[illegible]ᄒᆞ야[illegible] 대종대왕이[illegible]로, 별궁으로삼고, 그후에[illegible]을, 그안에, 설치ᄒᆞ야지너왓는뒤, 계미년봄에, 그화약고에셔, 불이나셔, 집은, 비여간이[illegible]ᄒᆞ고, 그화약[illegible]과, [illegible]입을ᄒᆞ야잇든[illegible]과, 그산에잇ᄂᆞᆫ물로, 빨나전ᄒᆞ야잇든네편네를에, 一셔소[illegible]에[illegible]ᄒᆞ야, 그근처에[illegible]는, 다타버리고, [illegible]의몸은, 조각ᄉᆞᄉᆞ되야, 각처에떠러져잇고, 그때[illegible]은[illegible]로다ᄒᆞᆯ슈업ᄂᆞᆫ지라, 그때[illegible]의소문이나기를, 이변궁이, 대궐로, 되야잇슬때ᄂᆞᆫ[illegible]ᄒᆞᆫ[illegible]만ᄒᆞ야, 흉악ᄒᆞᆫ일만잇셔ᄉᆞ죽, 사방당ᄒᆞ야, 굿ᄭᆞ가나든거시라고, 못되ᄂᆞᆫ궁셜이잇든곳인뒤, 그후에[illegible]모양쳐를되야[illegible]으로[illegible]ᄒᆞ고[illegible]을인연ᄒᆞ야이잇더니마는

[illegible]와대궐로, 다시슈츅ᄒᆞᆫ다니, 아마[illegible]으로되리라

●[illegible] 죵부터묘쇼ᄉᆞ는, 김진승이라ᄒᆞ는사ᄅᆞᆷ이, 미양쳥탁ᄒᆞ는, 날노남을[illegible]소기기도ᄒᆞ며 지물을, 어더싱이슴긴로, 남숨더니, 작넌가을이후로는, 우연히법을학도들과, ᄉᆞ괴여놉다가, 법을[illegible]ᄒᆞ고, 조셰이안후로는, 동씨가조가의, 이앙셩ᄒᆞᆫ찬도, 성이슴든일이, 심히글룬줄, 세닷고, 다사는청보(치일의), 간셥ᄒᆞ시니ᄒᆞ더니, 일젼의, 그동ᄂᆡ사ᄅᆞᆷ슈슴인이, 을쳐아나훈닐ᄂᆞᆫ, 돈싱길날을, 의논ᄒᆞ는말을듯고, 여러사ᄅᆞᆷ을권ᄒᆞ여, 그닐져히ᄒᆞ엿더니, 여러사ᄅᆞᆷ넌이, 그말얼못지아니ᄒᆞ고, 일은관경셩ᄉᆞ가되야셔, 지물을만이어든후의, 여러친구덜이, 김진셩의, 간고ᄒᆞᆷ을, 불상이여겨셔, 약간지물열허규ᄒᆞᆫ, 동씨 가기부지아니ᄒᆞ야셔 친망ᄒᆞ여갈ᄋᆞ뒤, 니가비뉴이앙의는, 군언넘엄, 만이칭ᄒᆞ엿시ᄂᆞᆫ, 군니법을셔ᄂᆞᆫ, 본죽그런닐노지물얼취ᄒᆞ면, 장의만코져온것과, 죄의경ᄒᆞ고 즁ᄒᆞᆷ을, 계교ᄒᆞ야, 린법과, 징역법과, 키앙법과, 교ᄒᆞ는률이, 잇스니옷지 무렵지아니ᄒᆞ리오, 그[illegible]몸은, 쥬는사ᄅᆞᆷ만, 죄될뿐아니라, 밧는사ᄅᆞᆷ셔지, 놈의당ᄒᆞ는닐이라, ᄒᆞ고맛치니, 그지물을, 아니밧으니, 그여러친구덜이, 다붓그러워, 한번아니라, 또동씨의말슴이, 당연ᄒᆞ다ᄒᆞ고, 칭찬[illegible]이잇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됴션인간에는, 이나라가, 타국의셔비러온[illegible]에셔, 이백만원이낭삼인젼에, 드러왓다는, 소문이잇스되, 우리들[illegible]바에는, 아직, 그런돈이[illegible]치아니ᄒᆞ미나, 소문대로, 그러ᄒᆞ지ᄒᆞᄂᆞ니라

## ●朝鮮之外債說

됴션이, 아라사국의셔, 비러쓰잔든[illegible]돈ᄉᆞ셔, [illegible]은, 법국에셔[illegible]ᄒᆞ게시작ᄒᆞ얏더라고[illegible]에, 뵈엿더라

●[illegible] 근뒤, 이나라[illegible]이[illegible]ᄒᆞ야, 모화관과, [illegible]에, 공원과, 독닙문을, 민길거다는뒤, 호쳥인이[illegible]ᄒᆞ야, 맛참, 이니야기나니, 그[illegible]에만이, 이젼에, 수빅년간을, 그[illegible]은, 우리대국의, 속국으로잇슬며, 듕국ᄉᆞ신이, 나오면, 이문ᄉᆞ지, 그ᄉᆞ신을, 마지러나오며, 또모화관은, 우리나라화국[illegible]ᄒᆞᆫ다ᄂᆞᆫ 곳으로, 셰위지여셔, 디ᄉᆞ로, 느려왓스나, 넌젼에, [illegible]일로 그국ᄋᆞᆫ토 [illegible]니고, 그[illegible]은, 아니[illegible]다ᄒᆞ고 금히, 곳[illegible]지, 그[illegible]우 거죽은, 독닙이라ᄒᆞ되, 속은, 우리대등화의은혜를, 니지바리지못ᄒᆞ야셔, [illegible]ᄒᆞᆫ논거신즉, 우리쳥인에, [illegible]으로보면, 참, 불상ᄒᆞ다ᄒᆞ니, 우리가말ᄒᆞᆫ기를, 넌전에, 그만츰도 [illegible]을밧고[illegible]상, 속은엇던넌지모르나[illegible]은, 지금독닙이되얏는뒤, 그리ᄒᆞ야도, 쳥인에눈으로는, 이젼에셩각이, 잇는뇨ᄒᆞ니, 그쳥인의말이, 시방, 외국인눈으로는, 독닙인죵번가마는, 이나라영세를, 모라보시요, 이나라말도즁에, 독도[illegible]이, 봉기치아넌쌍은, 도쳐에, 호군이도업는뒤, 그[illegible]을, 진정ᄒᆞ야, 독닙ᄒᆞᆫ의, [illegible]을[illegible]케코자ᄂᆞᆫ마음을, 가지넌이논, ᄒᆞᆫ나업고, 누구나라든지, 타국의셔, 병정을내여, 그목도[illegible]을, 진정ᄒᆞ야쥴가ᄒᆞ고, 기다리는셉이아니뇨ᄒᆞ니, 우리도, 시방, 경향간의형셰로보면, 그뒤답ᄒᆞᆯ말이업섯스니, 그[illegible]들, 다른니야기로, 옴겨버리고, 그쳥인이, 나갓든후에, 잡성각ᄒᆞ야보니, 공원지문, 민들게[illegible]을내여셔[illegible]가[illegible]ᄒᆞᆯ[illegible]야내는것도, 못ᄒᆞᄂᆞᆫ모호되, 그일보단도, 더홈한각쳐의목도를, 진졀ᄒᆞ야[illegible]이, 도탄에고싱치안쿠, 안도게[illegible]을내여셔[illegible]ᄒᆞ면, 국기도홈일이니, 이일에도[illegible]ᄒᆞ야그리ᄒᆞᆫ심은, 쳔만부란노라

●[illegible]

일젼못더, 셜권지비에, 봉기ᄒᆞ야잇든, 쪽도가, 오뵉여명이, 이산일젼에[illegible]을[illegible]ᄒᆞ야와서, 그[illegible]기, 대단히[illegible]ᄒᆞ니, 홉, 그쪽도가, 송도로[illegible]ᄒᆞ야오려면, 먼리아니되는고로 송도의, 인심이[illegible]ᄒᆞ고, 도망ᄒᆞᆯ경군을ᄒᆞ야, 대단ᄒᆞ다고, 군부로[illegible]나왓스므로, 군부대신은, 곳[illegible]케훈련운내여, 지작셜에, 칠십명을[illegible][illegible]케ᄒᆞ고, 일본령ᄉᆞ관의셔도, 그날[illegible]ᄒᆞᆫ일인을, 보호ᄎᆞ로, [illegible]일명과, 슌ᄉᆞ십명을보니엿더라

●[illegible]人之[illegible]이다 작일에[illegible]ᄒᆞᆫ, 경인이, 놀러와셔, 맛참[illegible]에이야기나는뒤, 그쳥인이, 말을ᄒᆞ니[illegible]이야기는, 고사ᄒᆞ고, 셰상에셔, 의식쥬가너ᄉᆞᄒᆞ여야, 형셰도잔ᄒᆞ야지

[illegible] 슈다는말 논말인즉, 유식ᄒᆞ사 [illegible]의 은피시나 [illegible]에 [illegible] [illegible]결ᄒᆞ야 ─이말을 굿ᄒᆞᆫ모양 [illegible]라 보든사ᄅᆞᆷ 든사ᄅᆞᆷ도 려셔 장, ᄒᆞᆫ다든지 산을가져 뇨, 우리 ᄒᆞ다든지 우리[illegible] 출무미치 워지내논 고, 언지[illegible] [illegible]ᄒᆞ면, 人[illegible] 을비러셔 고, 남의[illegible] 먹어도, 셔, ᄒᆞ면 를시작ᄒᆞᆫ 올흔말이 ─러라

●[illegible]은 가, 지는[illegible] 로, 갓다[illegible] 을, 탐ᄒᆞ[illegible] 죽, 효ᄌᆞ[illegible] 의나혼, 이효ᄌᆞ논 식의, 갑지 저의분[illegible] 생[illegible]맛보 여셔, 쥭ᄂᆞ[illegible] 사ᄅᆞᆷ업이, 지니논, ᄒᆞ 도논창[illegible] 와셔문압[illegible] 이, 맛참니 ᄉᆞ지니야 지니는지

[illegible]토 [illegible]나라가 [illegible]도[illegible]우 [illegible]우ᄃᆡ 지못ᄒᆞ야 쳥인에、[illegible] ᄒᆞ니、우 그만콤도 쇼년지모 되얏ᄂᆞᆫᄃᆡ、 쓰ᄂᆞᆫ、이젼 쳥인의말 ᄂᆞᆫ、무남인 ᄒᆞ、도라보 도亂民이、 호군ᄃᆡ도 야、듀님ᄒᆞᆫ 음을、가지 나라든지、 그쪽도亂民 다리논션 방、경향 봅말이업 야기로、옴 갓든후에、 ᄒᆞ、민들게 [illegible]ᄒᆞᆫ、 ᄒᆞ、그일보 ᄒᆞᆫ、진졍 치안국、안 ᄒᆞ면、국긔 ᄒᆞ야그리

ᄀᆡᄒᆞ야잇 이산일젼 [illegible]기、대 가、숑ᄃᆡ로 되ᄂᆞᆫ고로 、도망ᄒᆞᆫ경 군부로[illegible] 、公使ᄭᅦ 삼십명을[illegible] 셔도、그남 로、[illegible]일 더라 [illegible]ᄒᆞᆫ졍 에이야기 니며[illegible]이 셔、의식 잔ᄒᆞ야지

[illegible]가마、[illegible]셔ᄃᆡ、그이시[illegible]ᄒᆞᆫ [illegible]ᄂᆞᆫ[illegible]ᄒᆞ고[illegible]에、비[illegible] ᄉᆞ다ᄂᆞᆫ말은、저산이너ᄉᆞ기、지난다 ᄂᆞᆫ밤인즉、엇지되ᄂᆞᆫ、옴녑고、엇지 유식[illegible]ᄒᆞ야、벗엇손지연영[illegible] [illegible]의에、[illegible]가업스면、져미자 온[illegible]셔니라、이나라사ᄅᆞᆷ은、그[illegible] [illegible]에[illegible]ᄂᆞᆫ、세상각국의셔、데인되 ᄂᆞᆫ[illegible]ᄒᆞᄂᆞᆫ[illegible]이로되、[illegible]의돈은 、[illegible]잔ᄒᆞ야닙고、[illegible]잔ᄒᆞ야먹잇스되 、이말은[illegible]ᄒᆞ면[illegible]다ᄂᆞᆫ말과 ᄀᆞᆺ흔모양인즉、이나라에서、아모리 [illegible]라ᄒᆞ야도、빅만원돈을、만져 보든사ᄅᆞᆷ은업스리라、또그돈을、보 든사ᄅᆞᆷ도업스리라、빅만원돈을드 려셔 쟝ᄉᆞᄒᆞᆫ다든지、무ᄉᆞᄉᆞ업을 ᄒᆞᆫ다든지ᄒᆞᆯ사ᄅᆞᆷ은、삼ᄉᆞ빅만원지 산을가져야、그별슈잇ᄂᆞᆫ거시아니 뇨、우다셩인은、각국사ᄅᆞᆷ들은、[illegible] ᄒᆞ다든지、더러다든지、ᄒᆞ기ᄂᆞᆫ[illegible]되 、우리[illegible]인은、이나라사ᄅᆞᆷ[illegible]것

[illegible]미치아니ᄒᆞ므로、ᄆᆞ음에、어려 워지내ᄂᆞᆫ사ᄅᆞᆷ이드물고、또[illegible] 고、언지ᄂᆞᆫ음식을먹어잇셔도、속이 [illegible]ᄒᆞ면、덥고、또마시、잇다ᄒᆞ나、 [illegible]에서、말을ᄒᆞ며ᄂᆞᆫ、남의돈 을비러셔、잘옷[illegible]야닙어도、[illegible] 고、남의돈을어더셔、아모리잘ᄒᆞ야 먹어도、음식마시업스리라、또쟝ᄉᆞ [illegible]시작ᄒᆞᆫ다ᄒᆞ야도、남의돈을비리 셔、ᄒᆞ면、그진졍마시ᄂᆞᆫ[illegible] 울ᄂᆞᆫ법이니라、이[illegible]은、쳥인에[illegible] 러라

●[illegible]에[illegible]다 가、지ᄂᆞᆫ겨울에、[illegible]에시찰위원으 로、갓다가、각군에、[illegible]ᄒᆞ야、민졍 을[illegible]ᄒᆞ더니、간셩[illegible]군슈、일은 죵、효ᄌᆞᄒᆞ나히、잇ᄂᆞᆫᄃᆡ、저의부친 의나흔、만코、그가세ᄂᆞᆫ젹빈ᄒᆞᆫᄃᆡ、 이효ᄌᆞᄂᆞᆫ、지셩으로、봉양ᄒᆞ야、[illegible] 식의、감지ᄂᆞᆫ[illegible]진이、갓추어받들고 저의분친이、[illegible]이잇스면、[illegible]상그 [illegible]을맛보고、손을근으며、다다[illegible] 여셔、[illegible]ᄂᆞᆫ것을여러번、회셩ᄒᆞ니、 사ᄅᆞᆷ덜이、일ㅋ르되、[illegible]과、[illegible]ᄭᅦ 지니ᄂᆞᆫ、효도라ᄒᆞ더라、올봄에、비 도ᄂᆞᆫ창권ᄒᆞᄂᆞᆫᄃᆡ、큰호랑이ᄒᆞ나히、 와셔문압헤、업드려잇더니、그부친 이、맛츰뇌죽ᄂᆞᆫ지라、그셩명에、쟝 ᄉᆞ지니야면、검이비드에、[illegible] 지니ᄂᆞᆫ시라、사ᄅᆞᆷ들이、관심ᄒᆞ더니

산[illegible]에、ᄒᆞᆫ[illegible]이가、[illegible]가[illegible]、 [illegible]、비[illegible]보고、[illegible]、자페ᄒᆞ기ᄂᆞᆫ 젼에、도리어회쟝ᄒᆞ더라、그효ᄌᆞ가 삼년시묘ᄒᆞ고살랴ᄒᆞᄂᆞᆫᄃᆡ、그호랑이 도、ᄀᆞᆺ치살랴ᄒᆞ더라、[illegible]가그효셩 [illegible]탄복ᄒᆞ고、그빈한ᄒᆞᆫ것을、불상 [illegible]이너가여셔、돈십원을、주고왓다ᄒᆞ 더라

●[illegible]이라 [illegible]에셔、나왓ᄂᆞᆫ [illegible]신[illegible]、[illegible]이잇스니、두어말 을번역ᄒᆞ야긔지ᄒᆞᆷ

▲[illegible] 그셩의[illegible]ᄉᆞᆫ、동양사 ᄅᆞᆷ의[illegible]로、되ᄂᆞᆫ거슬보라ᄂᆞᆫᄃᆡ、이삼 만[illegible]이나、수십만[illegible]을、가진지산가 의、[illegible]ᄒᆞᆫ[illegible]들이잇ᄂᆞᆫ지라、然이나、 여그ᄯᅡ순[illegible]의[illegible]이、대단 ᄒᆞᄂᆞᆫ군인즉、그[illegible]가、신발이든지、 덕대기ᄅᆞᆯ가지고、셔방[illegible]ᄒᆞᄂᆞᆫ일 인[illegible]이나、[illegible]쿤자ᄂᆞᆫ、사나히 ᄂᆞᆫ、그일을、알고가야ᄒᆞ겟더라

([illegible]、이산[illegible] 이나、수십만원지산은、ᄌᆞᆺ기ᄂᆞᆫ、 조호되、내[illegible]ᄒᆞ더셔、매[illegible]맛ᄂᆞᆫ거 시죠、시젼치아니ᄒᆞᄂᆞ니라)

[illegible]人 ᄉᆞ시에[illegible]ᄒᆞᆫ논일업시[illegible] [illegible]ᄒᆞᆫ논ᄯᅡᆨ이므로、너무[illegible]、버러셔[illegible] ᄒᆞ야우잇다가、계오에、먹자ᄂᆞᆫ、거 졍이업ᄂᆞᆫ거ᄉᆞ[illegible]의[illegible]인ᄃᆡ、아모 나라다[illegible]은[illegible]가、보바다셔、 저산[illegible]면기ᄂᆞᆫ[illegible]되、[illegible]그이잇ᄂᆞᆫ [illegible]은、ᄉᆞ시가、덥고ᄒᆞ니 간ᄃᆞᆯ、ᄌᆞᆺ고 이라도、[illegible]ᄒᆞ러、왕니ᄒᆞᄂᆞᆫ니미ᄂᆞᆫ 입고、그저가ᄂᆞᆫ대로먹고、먹ᄂᆞᆫ대로 、도라[illegible]거잇더라

[illegible]人[illegible] 바리가、금지ᄒᆞ면코、모 미가금지ᄒᆞ、만어、그러ᄒᆞ되、그[illegible]人 온、[illegible]ᄒᆞᆫ[illegible]에、아주、옷슬 벗그、자니、[illegible]ᄒᆞᆫ[illegible]언ᄂᆞᆫ모양이라

●[illegible]다 이인무[illegible]각 국에셔、이러[illegible]나ᄃᆡ、ᄒᆞᆫ사ᄅᆞᆷ은、이 보[illegible]ᄒᆞᆫ나ᄂᆞᆫ、가량ᄒᆞ야、십ᄉᆞ년간이 라ᄒᆞ되、일젼에、영국「이스단、메제 스」란은、[illegible]와셔、그나라[illegible]으 로、제[illegible]ᄒᆞ든[illegible]보니다 이십여 년을지나 엇스되、아직도[illegible]ᄒᆞ다、 더라、시방、그[illegible]ᄒᆞ든[illegible]보니 [illegible]ᄒᆞ더라수비난[illegible]과비난、신가빌」 [illegible]의전션은、일쳔팔빅칠십년（이십 [illegible]、유니젼[illegible]、[illegible]신가빌[illegible]과[illegible]이며、 [illegible]간은、일쳔팔빅칠십일년 (이샹오년젼)에、「신가빌」과「[illegible] [illegible]」[illegible]은、일쳔팔빅칠십년(이십육 년젼)[illegible]「[illegible]」과「새도ᄯᅡ르 원」[illegible]、일쳔팔빅칠십일년(이십오년 젼)ᄯᅢ오、「흐란ᄯᅡ스러체더」[illegible]은、일 쳔팔빅[illegible]십구년(이십칠년젼)때에 [illegible]ᄒᆞ든거신ᄃᆡ、아직도、관계치아 닌거슬보면、삼십년을지니여도、 관계치아닌모양이로라

●[illegible] 챡실ᄒᆞᆫᄃᆡ셔、난말이라 고[illegible]ᄶᅦᆺ도[illegible]에、[illegible]ᄒᆞᆫᄃᆡ、쳥국졍 부ᄂᆞᆫ、영국「아므스트롱」[illegible]로、[illegible] [illegible]세[illegible]을、제조ᄒᆞᆷ을부탁케、의논이、 다되얏더라、젼에ᄂᆞᆫ、독국사ᄅᆞᆷ이、 그군함의부탁을바드리라더니、둥 간에셔、의논이변ᄒᆞ야지고、쳥국관 리가、영국의셔、제조ᄒᆞ겟다고ᄒᆞ야 셔、그리되얏더라

## 官報

[illegible] 白[illegible]
[illegible] 金漢[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用來
[illegible] 李[illegible]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李東[illegible]
六品 [illegible]

[illegible]以上七月二日

## 社告

[illegible]本社[illegible]에便利함을 [illegible]ᄒᆞ야[illegible]으로[illegible]ᄒᆞ오니請ᄒᆞ [illegible]에셔[illegible]되얏스미 [illegible]一[illegible]一[illegible]二錢五 [illegible]으로보 니시면[illegible]에보니옵

| | | |
|---|---|---|
| [illegible] | 一[illegible] | 一錢三分 |
| 一個月 | [illegible] | 一兩二錢五分 |
| 三個月 | [illegible] | 三兩五[illegible] |
| 六個月 | [illegible] | 六兩七錢五分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七錢五分 |

[illegible] ᄒᆞᆫ졸을ᄒᆞᆫ번내ᄂᆞᆫ거시三錢式 이오[illegible]로ᄒᆞᆺ차셔갈 수업[illegible]고[illegible]도션급으 밧ᄉᆞ로옴

れ、一隊は西門より攻め入り、〔illegible〕の兵は東門より攻め入らんとするや、一手に分れて城の〔illegible〕に止むるを得ず、官兵は越えて〔illegible〕するまでは官兵は〔illegible〕の官兵の〔illegible〕に〔illegible〕し〔illegible〕の〔illegible〕敵兵の〔illegible〕に関する〔illegible〕、〔illegible〕せらるゝ〔illegible〕て城は全く〔illegible〕ら〔illegible〕



# 特別廣告

## 三陸大海嘯遭難者弔恤金募集

嗚呼、地方の地三縣に於て、海嘯の慘害、未だ其類を見ざる所にして、〔illegible〕死傷者〔illegible〕に上る。我邦近來の凶變、未だ其類を見ざる所なり。同胞、誰れか天に慟し、地に哭せざるものあらんや。

海嘯の未だ來らざるに當りて、三縣の人民、誰れか又其の生命の瞬間に迫れるを知らん、盡く歡び且つ笑ひ、以て其の家に團欒して居れりしなり。其の一瞬、忽ち〔illegible〕の聲を聞き、〔illegible〕、其の家を〔illegible〕、〔illegible〕の多からんことを〔illegible〕、〔illegible〕、大地を捲き、滔々たる其の勢、〔illegible〕、〔illegible〕、〔illegible〕に迫り、〔illegible〕、〔illegible〕に〔illegible〕

〔illegible〕に〔illegible〕して〔illegible〕するのみ、〔illegible〕、〔illegible〕の〔illegible〕、〔illegible〕、何んぞ〔illegible〕の〔illegible〕して人を〔illegible〕の〔illegible〕かある、此の〔illegible〕に至るや、〔illegible〕の〔illegible〕人〔illegible〕して〔illegible〕、〔illegible〕に〔illegible〕して〔illegible〕、我〔illegible〕は〔illegible〕に〔illegible〕し〔illegible〕する方法によりて之れが〔illegible〕に〔illegible〕を以て〔illegible〕

一部に充てんとす

天皇陛下には〔illegible〕、〔illegible〕、直ちに〔illegible〕下は〔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を〔illegible〕せられ、〔illegible〕天皇皇后兩陛下より、三縣下に金一萬四千圓を下賜せられたりと、陛下の臣民たるもの、誰か感〔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せざるものあらん、若し夫れ〔illegible〕上〔illegible〕の〔illegible〕を奉體し、同胞相憐むの情を〔illegible〕は〔illegible〕に〔illegible〕の〔illegible〕にわ〔illegible〕のみ

一義捐金は〔illegible〕より〔illegible〕すべき〔illegible〕に〔illegible〕すべし

一義捐金を受取るときは〔illegible〕及び姓名を漢城新報紙上に〔illegible〕して受領の證と為すべし

一義捐金にして〔illegible〕の〔illegible〕所を〔illegible〕されたる分は〔illegible〕より〔illegible〕すべきも〔illegible〕の〔illegible〕らざるものは〔illegible〕の〔illegible〕を以て〔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し〔illegible〕の〔illegible〕に分配し其配與方法は一に各該地方官に委託すべし

明治二十九年七月　　　右發起者


和田常一
中村再造
松田行藏
漢城新報社


## 雜報

### 原公使の仁川着

原新任公使は愈々昨日午前九時三十分頃仁川に安着、同十時上陸して同港我領事館に投ぜられたり、而して本日午前七時過官廳の御用船に搭じ同港を出發せらるべき豫定なり、されば午後三時前後には麻浦に着せらるべしと云ふ

### 原公使の出迎

我公使館よりは既報の如く杉村書記官も昨日既に同公使出迎の為め下仁せられたり、又同公使館の出迎は公使館員、領事館員、商業會議所員、居留民會議員、商議員、〔illegible〕の〔illegible〕は麻浦に出迎ふ筈なり

### 山縣大使

山縣特派大使は來る七日馬耳塞港に便船にて歸朝する趣き北筋へ來電ありしと聞く

### 敦化門大開

近々修繕すべしと云ふ敦化門大闕は四大門内に於ける公使館を相對して北側一條の街路を隔つるに始まり北方にある敦化門は遂に東大門と相對して其の〔illegible〕を入る〔illegible〕敷十間外、〔illegible〕大王門修繕の疑あるしか去る明治十六年三月の〔illegible〕内に於ける〔illegible〕火災に罹り〔illegible〕にして〔illegible〕が爲めに〔illegible〕に〔illegible〕なりし〔illegible〕一〔illegible〕、〔illegible〕の〔illegible〕を〔illegible〕して〔illegible〕たる城門〔illegible〕、〔illegible〕、〔illegible〕の〔illegible〕を〔illegible〕へ〔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し〔illegible〕の〔illegible〕を〔illegible〕にて〔illegible〕を以て〔illegible〕に〔illegible〕りしを〔illegible〕と云ふは去る一日〔illegible〕を〔illegible〕と云ふの〔illegible〕の〔illegible〕として實際未だ工事に着手するの模様なし

### 朝鮮の外債に就て

朝鮮の政府より借入れんとせし國債の内三百萬圓は露國に於て募集せらるべき由外國電報に見ゆ果して然る乎

### 新度支部の成行

制度改革と云ふも此機際を利用せんとにわかにして北官制、官吏界の名目を改正せんと云ふに於ける由は既記の如し而して此決行の期は久しふして今日未だ其發表を見ざるものは〔illegible〕外國家及び内部の意見二派に別れ居るが為めと云ふもの有り其說を聞くに一派は此機に乘じ本邦の制度に倣はんとし他の一派は現在の官制、〔illegible〕國の官制及び明の制度等を折衷し〔illegible〕的にして〔illegible〕官制を制定せんとし兩派共に相先を制せむとやゝ〔illegible〕ふて〔illegible〕官制の起草に着手し彼の一派は已に此〔illegible〕起草を了へたるに〔illegible〕國外機密の〔illegible〕に〔illegible〕して成立せず爲めに日下又々〔illegible〕を〔illegible〕に新〔illegible〕に着き起草し居れり〔illegible〕に關する内情報の如くなれば右兩派の意見〔illegible〕して〔illegible〕の〔illegible〕を見るまで〔illegible〕の期日を豫す〔illegible〕云々又彼の一派にて起草し成立せざりし新官制案なりと云ふを聞くを得たれば参考の爲め其要を左に抄録す

現今の内閣を議政院と改め〔illegible〕、參賛各一、〔illegible〕二、〔illegible〕若干名を置く尤も副總の〔illegible〕は之れを置〔illegible〕、〔illegible〕院と稱するものを新設し大臣、大將、大保、小師、小傅、小保等、〔illegible〕、〔illegible〕、〔illegible〕、各部大

### 日本東北部の大海嘯詳報（二）

〔illegible〕及び其他の〔illegible〕を〔illegible〕に〔illegible〕して〔illegible〕を〔illegible〕せしむ〔illegible〕して〔illegible〕は〔illegible〕の〔illegible〕に之を〔illegible〕員の〔illegible〕を〔illegible〕の〔illegible〕を行ひ以て吏員の數を減ぜんとす即ち各部會計局は凡べて之れを廢し〔illegible〕て大臣官房中の一課と爲し外部には大臣官房に交渉、〔illegible〕の三課あり各部之に同じ〔illegible〕及び交渉、通商の二局を置き、内部は現今の〔illegible〕局を地方局に、土木局を衞生局に合し、〔illegible〕は〔illegible〕、〔illegible〕の二局を合して一局となし、〔illegible〕は〔illegible〕、〔illegible〕の二局に、農商工部は農商工、通信の二局に、法部も〔illegible〕、法務の二局に減じ學部は各局とも現今の儘に据へ置かんとするなり

岩手縣下沿海各地海嘯の慘害は實に見るに忍びざる狀況にして釜石より綾石、大槌、宮古、鍬ヶ崎、久慈に至る南北五十餘里の間一帶に北海道を破り出しき全村一戸を餘さず〔illegible〕人の〔illegible〕を〔illegible〕一村の半數は流亡し總じて死亡者二萬人に超ゆるの慘状を聞くべし、釜石町にありては去十五日午後八時半頃微震を生じ暫らくして大海嘯起り來れり水の高さ約七丈之を見ざるものは或は失火ありと避難したる者多く、〔illegible〕として〔illegible〕十五分時間に釜石市街を破壞し〔illegible〕り〔illegible〕、〔illegible〕せる一刹那に〔illegible〕して〔illegible〕に〔illegible〕し〔illegible〕九百五十三戸と本業殆ど一戸も存せず四千九百八十五人の同胞と一呼吸の間に滅没し五百餘名の負傷者を生じ八百六十七の建物を〔illegible〕し一百七十六の船舶を〔illegible〕し〔illegible〕、〔illegible〕し〔illegible〕る所不動産の損害其幾何なるを知らず今日までに發見したる屍體は悉く同町北方の高地なる石應寺に運搬し居れり、伏屍累々たる中には或は手を〔illegible〕の間に〔illegible〕みたる爲め九字形に〔illegible〕せるあり或は頭部破裂して腦漿を露出せるあり或は四肢〔illegible〕して其何人なるやを知る能はざるあり或は泥水を飲みて全身腫大せるあり、〔illegible〕多くは一寸〔illegible〕して之が〔illegible〕しと謂ふものなし鬼哭啾々鬼火閃く〔illegible〕慘たる光景形容するに物なし

然れば當地生存者の談話を聞くに一として悲慘ならざるはなし〔illegible〕も〔illegible〕に十歲の少女が三日四夜絶食して去る十九日に至り僅かに救ひ出されたるの一事は悲哀の中の悲哀なりし聞く少女は當夜旅館の傍に臥し居りしに俄然海嘯の襲ふ所となりて〔illegible〕流出せしも幸にして高地に〔illegible〕し〔illegible〕を〔illegible〕の間に於ける僅少なる〔illegible〕にありて、命を完うしたるなりと又〔illegible〕も〔illegible〕の〔illegible〕は〔illegible〕に〔illegible〕して〔illegible〕に〔illegible〕し〔illegible〕に〔illegible〕されて〔illegible〕物に〔illegible〕り〔illegible〕見のみ〔illegible〕を〔illegible〕、〔illegible〕り居りし一家族も〔illegible〕此〔illegible〕の〔illegible〕を〔illegible〕れば〔illegible〕六にして〔illegible〕らず釜石町の北方二里許なる〔illegible〕の〔illegible〕も亦〔illegible〕數百〔illegible〕十戸の地に下らざるが如し同地の〔illegible〕内現存せる者僅に二、人口七百九十の内一種の命脈を保つもの百名内外あるに過ぎず〔illegible〕北方六里なる山田町の如きは〔illegible〕と同時に火災起り二千の同胞は〔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附に一半〔illegible〕を保するに過ぎず、〔illegible〕より〔illegible〕

し因て國政を今の際に之を其の數を減ん之れを放しには大臣官房各部之く同、內部は現總督府に介して一同さ、殖產工部亦民刑、法も現今の爆

# の　（二）

に見るに忍大和、富山、餘そなく化の田一帶にし總じて死べし

特作頭徵體り水の商さおりと除へは殘は人殺大湖關は殲所と破壞し四千九百八五百餘名の流出し一百外浦、押流知內方同町北方の伏飛別々たる爲め九ケて陥歿を致人なるやとて全身隙大まで之が引渡

鬼火府く終一として悲の少女が三僅よ救ひ出なりし聞くし後惡辦關せしも幸にしに於ける條たるありと間に消され出して何か該し一事なりと存せらるの技術も亦皆數百五十戶の中の內一圈面して該の[illegible]

遂する所にあらず現に州川岡の所見に依れば數二百六十九の內實に二百五十を流失し一千百人の內一千百三人は空しく非業の最期を遂げ九死の中に一生を得たるもの僅に百三人而も其內の六十二人は洪水の爲め負傷へりと云ふ、前淵（高石町、猿ケ崎町、流山泉府五百戶、死者百五十人、內傷者五十餘人）は浸水家屋殆ん全部に及び船舶は僅に漁船四五艘を殘すのみ其他は流出又は破損せり

田浴村は洪水の起る以前にかつて三百餘町歩洪潮の干去すると共に明月の如き光、明に激面を照し刷掃ヨ前さ破史の怒濤、好風の如くに押來り一村全部流出して平原と化し死者二千餘人、生存せしもの纔に七十餘名、死屍累々として路傍に曝し村役場、面便所、學校郵便電信所皆無となり行政員一人の生存するもの無し恐らくは本縣中慘害の最も劇甚なるしものならん

勇茂村余村流失跡を止めざるの慘狀にして死者七百餘名に擧く生存せしものも過半負傷を負ひて道路に迷ひ在巡査同く災厄に罹り死亡す警察官は非役を止め半の死せしもの百餘以上なり

山田町戶數七百八十六戶の內殘余ある家屋は几を百戶、其他は流出又は全滅、死者一千人仍ほ不明

大浦村殘余部落流失跡を止め人畜の死傷夥し

●郊原の部徒現出に押寄せ

酒田方面郊原地方に起り居りし郊徒五百餘名附三日前更山（開拓府より北十二里に在り）に押寄せ來り北邦洪犯所駐、郊徒君し開拓府に對峙せんとは此開拓に一日程に過ぎず爲に人心恟々として過り此度を放す怖行なからざる狀勢なる由該地より北衙へ急報ありしにつき郊大臣は直ちに兵の命を下し一昨日數十名のへ六七十名の兵を繰り出し我日本領事館よりも同日該地我行府人保護として門非野部及び郊徒十名を護送したり

●開拓府答客の談

別川開拓の如く郊原の部徒開拓を襲はんとするの說はもとよるが去一日同地を發し開京したる人に就て聞く所によれば郊徒ならでは更に不る形跡なるを非にしたるとある只其郊日前谷山の郊守總府あるとて之に對し開拓人民の間に多少八騷ぎありしも固より一部の紛擾に止まり且つ火事には至らざりし由にて府內一般に人心靜穏なりしされば開拓附近に於て如く不穏の狀を呈し來りしは全く北境の事ならん

日下同地には三十五六名の本邦商人滯在し居れるが常時居住者の何に際し地方人民の入來る者少きを以て同地方狀況を得る見込みなし支那人の在留するもの頗る多から多くとも七八名に過ぐるとなし

去年七百名の露國騎兵、內一名は士官一名の朝鮮人（露國風に扮裝せり）と共に何れも北方面の路よ跨り外に民間主員を從へ京城府近より入來せるが先ず京城より來りしものとは思はれざりし右三頭の騎馬府一團には被服にし[illegible]

行、同地に、同日田瀬作し地理物留將を相借したる後北城方面に向ひて出發せしが後州地方に赴かんとする者なりとも人に語りしとか開城及び附地開城附近の人民の日本人に對する人氣は極めて好く十一日平壤以前と違る狀なる所なし

開城地方の騷作は未だ稍沈して良好にして居り又此稍來の農耕にて収穫多かりしを以て小麥、米、豚、大小豆、鷄卵何れも生ひ茂り附近地域には緩かて好命合を得從來順地なりし由も概ね水田に反して相什を爲せしも少からざる爲に甚だ不足を作けし樣なりされば今日の處にては未だ此の搜作なるべし

●武官の任命　去る二日、三品李淡英氏は正附に任じ視察部一隊大隊中隊長に加せられ、國東弼氏は副將に任じ、移財李東根氏と共に南州地方巡附を命ぜられ、滿州部守部領余用來氏は滿州地方隊大隊長に補せられたり

●法非起承委員の任任　六品尹榮登氏は去る二日法部法非起承委員に任ぜられたり氏は嘗て學而部著官たりし人にて前る英語英文に通せり、此の今回の任命に之れ於にて就任のため大のグレートハーウス氏の欽聞を受くべき法制取調部の屬員となるべしと云ふ

●領事館の夜會　來る八日午後八時より當地の我日本部館に於て盛大なる夜會を開かる筈にて本社にも招待を寄られたり宴日者し開天なれば更に時日を延ばすると、

●米國國立紀念祭の狀況

既記の如く一昨日は米國獨立紀念祭なりしを以て午前には各國外交官、領事、武官、朝鮮政府の顯官等何れも祝賀の爲め同國公使館に赴け午後公使館內は盛況を極めたり午後に於ける同國公使館の夜會は非什盛狀の庭內に催されたる同館前の競技會に始まり先づ開設、唱歌、管弦樂あり續て花火の開設あり次で宴會参会者七八十名して盛行、朝化の川椅ありき來會者七八十に達したり[illegible]同國公使館は同館を賀し、時に午後八時より始まり十時半頃より順々散會せりき米國公使館同代公使、內田領事、國分書記官、高松書記生等何れも出席せり此際にも開化の打掛けありたり宮日我公使館、內田領事、國分、日置書記官、渡邊、鄭納、野沢の三武官同公使館に集りて祝辭を述べられ同館比較會には加藤代理公使、內田領事及び同夫人、公使の夜會には加藤代理公使、內田領事、同夫人及野澤大尉之に臨まれたり

●李承九氏疏本

弘卑、吉濟、鉄源郡の如きに至りては、法罪と其の禁を犯すと雖も、其の因逆の心は氷炭と相ひ同じ、故に法律の迫るや、其の禍一身に歸なきのみならず、却りて一身を挫くと出す、其の故心南況を致むことを之れを知らず、則はち其の後日逆に就き、盛ひて、危くも[illegible]たしき者、試として逆臣逆分の法案あらざるに由るなり、故に彼が惡たる逆臣逆分の出仕をとりて曰く、國犯を得ぎ、又曰く其の[illegible]外逆悪なし、其の心は[illegible]也、而して[illegible]しし、今內の個部とへるおりしは彼等の[illegible]

（未完）

逃ぐべきなし、先づ根據を正たさば民衆何か感服すべし、國家安危の機は惟々懲討の點なりと認あらざるを如何に在るのみ、一に曰く、昨年十月十一日の國難に其名せし各大臣は赦せざるべからず、但し彼等の爲罪に關するものは其の情態す可きなり、二に曰く、其特逆賊の風習を承認し禍神女を製して之を進め以つて祖宗を惑たるの故臣、若其國權の猖に爲て滿かに搜拏を下さんことを請ひたる疑官は罪せざるべからず、一に曰く、內閣及び各部出逆賊の爪牙腹心となりたるものは悉らざるべからず、一に曰く、此代將兵を頒して期に入りたる將官は除かざるべからず、此の四條路がらずんば追れ此に送れりと曰ふべけんや、國法無くして擾亂の作せざるを欲るなは恐れ彼は退步して前なんことを求むるが如し、亦た惑からずや、逸し今の論者皆ある曰く、昨年八月以後、逆魁に要用せらるるものは皆な之れを罪すべしと、臣思以らく、彼れは特に無恥の齣夫のみ、故に一々之れを罪すべけんや、彼れの血族は除かざるべからず、陛下が仁の徳を推して以つて寬仁の政を廟ずと雖ども、彼が悖逆の心、固より已に露はせり、惟し恩に感せざるのみならず、却りて怨を因を胎し、余を如何するなしと云し、內は以つて朝廷を動搖し外は以つて他官の猖獗す、地方民衆の鎮定せざるは、亦た未だ必ずしも此の流の政策に由らずんばあらざるなり、

逆々內閣委官補類、宋英大は曾に其黨逆魁弘榮の家と世々の好みあり、乃ち其の爲[illegible]も斯官の下を起る者に、其の國の色外を盡見て、人に對して罪官して曰く、內批故を行ふは我組の在る所にわらずと、宋大は則はち非年八月以後事と同盟し、若し國家を變ひ忠官を殺する者われば、必らず逆魁に告げ、陷然して陷を寇し、必らず之れを死に陷く、其の甚上の名、上に孤立し孤人の麾下に成ると欲するの狀、宋日益々甚し、前警務使許璡は有勇[illegible]の朴泳孝を拔り出して黨を擁へ狀を結び、突大なる討の事を張々に助了して以て柴が根の明題を擬ひ致身の計をなさんと欲す、其の不道極討の狀、十下の指ざす所なり、前內部協辦劉世南、前協辦李周會仁は弘集が爪牙となりて國を亂し民政を亂たる且つ其の罪謀を作りて以て國政を斷せざるなし、其の奸猾路人だも知る所なり、其の逆魁に出現用せらるるもの惟る此に公然として官に在り、惟し郭せざるのみにわらず、此の如くなれば則はち何を以つてか國家の刑罰を以て辨せんや、朝廷の大臣亦た必らず之れを恥りて此に及ばん、然るに今數日、徒々として經討の學なし、此れ誠に國家の恥辱は遠く、四討未だ辿わらざる所が爲に勿く未だ大權相あらざる者ならん、然れども先づ國討を行なて然る後は邪の事に就くを見るべし、然らずんば或に於て藏くの日けん、此れ名先の勢にわらずや、此れ臣一人の言にわらず、則はち國民の同じく憤る所なり、故に敢へて其の明を發す、云々

（完了）

日本郵船株式會社
滊船仁川出帆廣告

肥後丸 [illegible]

玄海丸 七月二日出港 [illegible]

甑島丸 七月二日出港 [illegible]

薩摩丸 [illegible]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七月十六日入港 [illegible]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株式會社
滊船仁川出帆廣告

隅田川丸 [illegible] 大阪行

二見丸 六月 [illegible] 大阪行

筑後川丸 七月 [illegible] 大阪行

信濃川丸 七月 [illegible] 大阪行

白川丸 [illegible]

大阪商船株式會社 仁川荷客取扱所

[illegible]

旅人宿料

一 上等 壹圓
一 中等 七十錢
一 下等 五十錢
外 二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三十八號地
田原旅館

飮料水適否檢定ノ依頼ニ應ズ
漢城病院

從來使用セシ貸物船運送[illegible]無効トス
[illegible]
安田積

本支部[illegible]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支部

[illegible]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illegible]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illegible]
明治廿九年六月 日
石川商會
織居加一

[illegible]

本 漢陽屋 [illegible]

[illegible]

一 [illegible]

小林菓子製造所

[illegible]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富田藥舖

[illegible]

발 [illegible]

하지시무시고잔부도슈광고

[illegible]
[illegible]
다[illegible]셰상사[illegible]
스[illegible]맛[illegible]이[illegible]의[illegible]오세샹에[illegible]
시무시고잔[illegible]는[illegible]술을보[illegible]
시무시고잔포도쥬는극샹포도[illegible]
여[illegible]보[illegible]몸이 약[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마시는[illegible]
에맛고그[illegible]
여가[illegible]
쥬[illegible]구[illegible]려[illegible]
진가[illegible]

賣捌元 洋酒問屋 近藤利[illegible]
방[illegible]

一地球印藥用フダウ酒効能[illegible]

[illegible]

一地球印フダウ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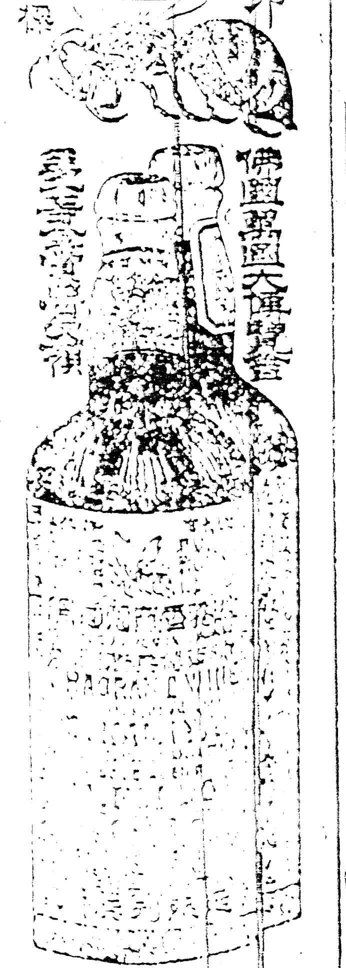
[illegible]

造所

造

發賣元 伊部商店

朝鮮國特約店 隈本商行



하지시무사고많부도슈광고

이런신봄에이것치아니면…이오…이는…나 면어지법
만으리오세샹에올엔…하는번이어러가지오나…에셔 방미하는데효험하지
…는슈울보하는선약이오니이술먹는거시그즁묘한법이오본뎌우리하지
포도쥬는국샹품도찹게타가각죵보약을…하여비 쥬술이나음식이잔샛이고현
즙이 약하니드른지병속에수석하니가이술만잡스시면그효험이신통히고쥬시건장
헙는거시오그런고로포도쥬…는…에셔도신보고하다고칭찬
…언쓰며기타 각국…아니…고여러 …는거시샹
…이마이…이에…하여라…에…인하아시기시…이 권함이다…
니오그포타하는소문이…만…에…스며또한이 …포도쥬는…고시…
…마시는못하니일샹…하니…인네라도다도와…이고그맛시입
…이신긔한약이되면…아니묘…가그런고로…마다 …니고…다번셩하
…들이…여시공과이그고샹을…또하여방미히는재잇스니수리포도
하시는니는…이에그런법의 그림과방미자…를조계히 보시고
…신후에 …을천만보라 …

…

近藤利兵衛 朝鮮國特別販賣店 隈本商行

마…는…와인…가…시니가가…셔주하시

旅館 東京館

日局方 和漢洋藥廣賣
成尾安五郎

廣告

九月二日
金文淳
李東鉉

廣告

一草鞋
一日本石
一価…
一新…
一木炭

北川醇

一夏帽子色々
一皮座蒲團 丸形 角形

入荷廣告

一日本人向朝鮮人向石鹸

右新着庶價販賣仕候條多少に不係御用被仰付度奉願候也

鈴木大阪堂支店

發行所 漢城新報社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英國皇帝陛下之御[illegible]

今回日本東北部大海嘯災害를당ᄒᆞ야、
일본
天皇陛下게옵서ᄂᆞᆫ、크게
哀痛ᄒᆞ옵시더니、영국
황뎨폐하게옵서도、그긔별을
御聞ᄒᆞ옵시고、동경주찰ᄒᆞᆫ、동국공
ᄉᆞ를、명ᄒᆞ야
御慰問ᄒᆞ옵시더니、일본
황뎨폐하게옵서、피ᄎᆞ국가、더
욱親密ᄒᆞ게되물주일ᄒᆞᆫ、영국공ᄉᆞ를
경ᄒᆞ야[illegible]
황뎨폐하의게[illegible]를、니여셧다더라

●露國皇帝陛下之[illegible]

지난[illegible]이[illegible]의「무됴」젼보를
보니、말ᄉᆞᆷᄒᆞ기도、황숑ᄒᆞ오나、아
라사
황뎨폐하게옵서ᄂᆞᆫ[illegible]을、나랏、계
옵시다니、[illegible]이라도、ᄉᆞ기、[illegible]
ᄒᆞ옵심을、타국신민이로되、션만ᄇᆞ
란ᄂᆞᆫ이다

●淸國皇帝陛下之[illegible]　淸國

皇帝陛下[illegible]가、[illegible]ᄒᆞ시셧다ᄂᆞᆫ
말이、잇ᄂᆞᆫ데、그ᄌᆞ세ᄒᆞᆫ일을、들으
니
[illegible]陛下ᄂᆞᆫ、지난ᄃᆞᆯ십팔일[illegible]
오젼여ᄃᆞᆯ시에[illegible]ᄒᆞ셧더라
下ᄂᆞᆫ[illegible]친왕젼하의[illegible]되시고
今[illegible]陛下의[illegible]의
妃[illegible]로계시고 今[illegible]陛下의[illegible]
[illegible]陛下로되시고[illegible]ᄒᆞ시다ᄂᆞᆫ소문
이잇고、시방
西[illegible]太后폐하게셔[illegible]에[illegible]、아
니ᄒᆞ셧ᄂᆞᆫ데、그[illegible]ᄒᆞ셧다ᄂᆞᆫ、긔별
이
天[illegible]으로、물넌ᄌᆞ、곳[illegible]을、그[illegible]로
[illegible]ᄒᆞ사、그신톄를보시고、낙
누ᄒᆞ옵시고 조측을나리사、ᄀᆞᆯᄋᆞ
시되「짐이、셔황태후폐하의유지로
、슌친왕비「예호라」(일홈)殿下를、
짐의生母로[illegible]ᄒᆞ사、짐의[illegible]
陛下가、도라가셧슬때、[illegible]ᄒᆞ얏ᄂᆞᆫ데
쳐음、[illegible]ᄒᆞ리다、ᄎᆞᄒᆞ다[illegible]ᄂᆞᆫ
[illegible]以[illegible]行、以[illegible]之[illegible]ᄒᆞ야、
뎐하[illegible]의[illegible]으로、되시미、익기、
아ᄂᆞᆫ비[illegible]、짐의[illegible]을、셜치못ᄒᆞ노
라[illegible]

●治[illegible]

향일봇터、동남[illegible]을、민길자고[illegible]
[illegible]의[illegible]이되야 잇ᄂᆞᆫ것ᄀᆞᆺᄒᆞᆫ데、
시방[illegible]봇터 팔도가 쳐에、[illegible]도[illegible]
나、[illegible]가、밤낫업시、회ᄒᆞᆼᄒᆞ
야、[illegible]이 도한에[illegible]ᄒᆞᄂᆞᆫ데、나라ᄒᆞᆫ다
스리ᄂᆞᆫ인에、치민[illegible]이[illegible]케야ᄂᆞᆫ지
、[illegible]ᄒᆞᆫ、공권지[illegible]、민긴면、ᄌᆞ연히、
치민치국되ᄂᆞᆫ지오、치민치국ᄒᆞᆼ의
법이、[illegible]ᄒᆞ고、션판이、되지아닌
넌지뇨

●[illegible]

[illegible]의에、[illegible]ᄒᆞᆫᄃᆡ、져에、쳥국
의젼션을、슈리ᄒᆞ고、쓰자ᄂᆞᆫ[illegible]가、
잇다더라、[illegible]ᄒᆞ야、그[illegible]ᄂᆞᆫ、히삼
위셔、[illegible]、나와잇다더라、이ᄂᆞᆫ、치
민치국ᄒᆞᄂᆞᆫ일보다[illegible]ᄒᆞᄂᆞᆫ이리다

●[illegible]之[illegible]

시방져부가、ᄒᆞᆫ자봇터、슈리ᄒᆞ야잇
든[illegible]에셔、[illegible]파숑ᄒᆞᆫ간온
、지난ᄃᆞᆯ봇터[illegible]ᄒᆞ야잇더니、요ᄉᆞ
이、쓰다시、부뭇케되얏다라、[illegible]ᄒᆞ
니、이슈리역ᄉᆞᄂᆞᆫ、퍽잔되야가셔、
평양근쳐ᄭᆞ지ᄂᆞᆫ、아다、다되얏스리
라더라

●米國水[illegible]之[illegible]

젼봇터[illegible]에、미국공ᄉᆞ관을、보호
ᄎᆞ로잇든[illegible]오구다온ᄃᆡ에、두잇든
[illegible]一人、[illegible]人은、저자일앗치에、
셔나셔、그날져녁에、인쳔가셔、곳
[illegible]ᄒᆞ얏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작일에、ᄒᆞᆫ한가ᄒᆞᆫ친구
가[illegible]ᄒᆞ시고、니야기가、맛쳐、근리
의[illegible]ᄒᆞᆫ맘이、되얏ᄂᆞᆫ데、그친구에
말이、우리됴션인은、타국일은모르
니간은、그만두고、우리됴션일로만
ᄒᆞ야도、심[illegible]ᄒᆞᆫ일이 만은지라、
젼거나ᄒᆞ기ᄂᆞᆫ、[illegible]기시[illegible]、시방

졍부로 되ᄂᆞᆫ[illegible]、[illegible]셔에잇슬[illegible]
[illegible]야도、[illegible]셔쇠ᄒᆞ[illegible]
못견ᄃᆡᄂᆞᆫ일이만코、그[illegible]어말[illegible]
면、일국졍부가、타국[illegible]에[illegible]ᄒᆞᆫ
지、일빅오십일이되ᄂᆞᆫᄉᆞ이에、그
[illegible]에ᄂᆞᆫ、삼리ᄡᆞ가、뎐하[illegible]을잡고
기동에도、니범진ᄡᆞᄂᆞᆫ、그셰도가、
대단ᄒᆞ고日光을ᄀᆞ리워、밤되ᄂᆞᆫ것ᄀᆞᆺ
치、진동ᄒᆞ고、공즁을、나라된기ᄂᆞᆫ[illegible]
[illegible]도、여러걸만콤、셰도가、금직ᄒᆞ더
니、그[illegible]ᄒᆞ기、어려운[illegible]이
지[illegible]가ᄒᆞ고、이러나 지러나ᄒᆞ야잇
ᄂᆞᆫ못히、그권셰가써러지고、ᄎᆞ차、
어려운셰가、더ᄒᆞ야가므로、피ᄒᆞ
야、미국으로、가게ᄒᆞ고、시방은、아
주、[illegible]ᄒᆞᆫ사ᄅᆞᆷ이、ᄒᆞᆫ낫업게되얏코、
또ᄒᆞᆫ나ᄂᆞᆫ、사ᄅᆞᆷ일이아니요마ᄂᆞᆫ、아
모리아모리가、션동을ᄒᆞ야셔、샤당
을[illegible]、ᄂᆞᆫ입인ᄃᆡ、이일도、본리[illegible]
운[illegible]ᄒᆞ지말게[illegible]로、유인ᄒᆞᄂᆞᆫ거
시면、올은일이로되、샤당의[illegible]을
타버린다ᄒᆞ더니마ᄂᆞᆫ、진졍가셔ᄂᆞᆫ、
한[illegible]로、[illegible]에[illegible]이나[illegible]의[illegible]
망ᄒᆞᄂᆞᆫ 인민이만코、심ᄒᆞᆫ일에가셔
ᄂᆞᆫ、[illegible]의[illegible](이일은나즁에、쳐별
되얏소마ᄂᆞᆫ)올타버리고、그형세ᄂᆞᆫ
、[illegible]에게신[illegible]도、당[illegible]가업슬만
금、금지기ᄒᆞ더니、[illegible]에 셔[illegible]이나
나셔、고등지판소로、소지나ᄒᆞ야
[illegible]、[illegible]ᄒᆞ야、그러ᄒᆞᆫ지、그ᄌᆞ손
을、붕샹이너겨셔、그리ᄒᆞᆫ지、다른
일로、[illegible]ᄂᆞᆫ비잇셔、그러ᄒᆞᆫ지본으
나、그[illegible]가진[illegible]ᄒᆞ고、요ᄉᆞ이ᄂᆞᆫ、아
모말도、[illegible]게되얏고、그ᄃᆡ신으로
시방[illegible]ᄒᆞ고、일젼오빅만의[illegible]
[illegible]을ᄒᆞ야[illegible]케ᄒᆞᄂᆞᆫ일은、됴션은
힘이요、이온졍지ᄉᆞᄂᆞᆫ、잘되야가면
국가[illegible]에、금직히 됴흔일이로
되、[illegible]늣게민기러도、과히、관계치
아니ᄒᆞᄂᆞᆫᄃᆡ、퍽이[illegible]고、운동을ᄒᆞ
며、열심케[illegible]ᄒᆞ야 잇ᄂᆞᆫ거슨[illegible]되
[illegible]일이오、이러케[illegible]ᄒᆞᆫ돈이잇스
면、국민이[illegible]케[illegible]、진졍ᄒᆞ야
주면、치민치국ᄒᆞᄂᆞᆫ법에、맛당ᄒᆞᆫ가
보더라고ᄒᆞ니、이[illegible]의말도、지셩
지국ᄒᆞᆫ말이 요마ᄂᆞᆫ[illegible]은、[illegible]
、도ᄀᆞᆺ흔[illegible]ᄒᆞᆫ일에ᄂᆞᆫ、[illegible]ᄒᆞᆷ이、업
[illegible]ᄂᆞᆫ도샹이러다

[illegible] 이샹 … 스니 … 롬이 … 히사 … 기요 기샹 에져 ᄂᆞᆫ자 지못 가、 에호 치지 ᄒᆞ여 으로 와、치 졍힐 지변 、부이 졸이、 、곤고 뎍이 니、이 울도 을、아 、호겁 、슈슈 제구 올후 니셔、 셔의 [illegible]

게잇ᄒᆞ[illegible]을두번게、합
말ᄒᆞ[illegible]히大人의아기을그夜에、셩기다ᄂᆞ야
ᄒᆞᆫ[illegible]롬이[illegible]신자ᄋᆞ나께에、사ᄂᆞ득ᄒᆞ더
、그스、형스님은라사룸이라니쳐고시
잡고기에ᄂᆞᆫ대여셧씨을셩가되、사룸이
셰도가、大人을、혼룬밥에、셩기다ᄂᆞᆫ일은、
ᄂᆞᆫ것곳이샹ᄒᆞ더라

# 趙婦人傳 (조부인전)

二十六

기ᄂᆞᆫ
적ᄒᆞ더나蕩에ᄒᆞᆫ、그법면이、엄숙ᄒᆞ고、그
라、잇쏨이정재ᄒᆞ며、비범이、웅부ᄒᆞ고、
ᄒᆞ야잇군심은인복ᄒᆞᄂᆞᆫ것시、예전명창
추차、라도、ᄯᅩ무지못ᄒᆞᄂᆞᆫ지라、이에드세놀
、피ᄒᆞ너여、자연이화복지아ᄂᆞᆫ유、잇고、
은、아광경치아닌슈업ᄂᆞᆫ지라、흔렁은어
얏코、그지못ᄒᆞ고、졍셩이졀노나ᄂᆞᆫ지라、
ᄂᆞᆫ、아한을면강도ᄯᅢ의본토지인야、일너
、샤당무엇ᄒᆞ리오、ᄒᆞ노이놀어셔、무시ᄒᆞᆫ
[illegible]사룸이업고、장식의저조가、한어셔
ᄂᆞᆫ거、몸뻔에기교ᄒᆞᆫ것시、만히지고、ᄒᆞ
[illegible]스에리치믈、다ᄒᆞ야셔、국슈이、쟉
셔ᄂᆞᆫ、죡ᄒᆞ고、장ᄉᆞ가、흉왕ᄒᆞ여셔、지뭄
의이부요ᄒᆞ여지고상하의구솝인、졈

잇ᄂᆞᆫ지라、이에교둥을맛쳐셔、말
ᄒᆞ기를、노우러ᄂᆞᆫ、당음곳그러운을
、씨고、셔호영을、항복바기에、쏫시
잇슴을보이고、당인군사를、발ᄒᆞ야
、쥬간의이셔져、셩셰를둡기운칭
ᄒᆞᆫᄃᆡ、한국쳥이、크게깃버ᄒᆞ야、마
음에헤야리되、군ᄉᆞ를거느리고쥭
간의잇스면、노와러가、피ᄒᆞ야도、
셔호영의쌍이쇠진ᄒᆞᆯ터이니、그뒤
로쫏차두러개면、광을세우기쉬운
더이오、노워러가、익여도、ᄒᆞᆫ을다
ᄒᆞᆫ쥬에야、도라올터이니、쥭간에셔
、쥰기본의ᄒᆞ면、저의가놉깃터이니
、조부인만、세셔가지고、오면다시
한、업스리라ᄒᆞ고、이에허락ᄒᆞ니
라、노워러가그밥갑못고、크게깃버
ᄒᆞ야、오너지간의、경병을반ᄒᆞ야、
유삼십쳑병션의싯고、슈십쳑은、바
다영쥬를향ᄒᆞ야、셔호영에、말을동
여미고、십여쳑은、강도로가면、부
인을위ᄒᆞ기、너너ᄒᆞ리라、ᄒᆞ고、이
에길을떠나니、졍병이슈만인ᄃᆡ、그
세당당ᄒᆞ야、세샹을두러운비、어슐
[illegible]

、도망ᄒᆞ야、간신이목숨을살아셔、
영쥬로가고자ᄒᆞ거서、감히바로가지、
못ᄒᆞ고、셔영을면ᄒᆞ고、도라가나라
、노워러의군사가、죽은자이러만이
요、남어지ᄂᆞᆫ、항복ᄒᆞᆫ거시、삼사천명
이라、부인이、이에쟝졸을、모와셔、
잔치ᄒᆞ샹ᄒᆞ며、샹급후이쥬고、이에군
사ᄂᆞᆫ、일ᄒᆞ고、영쥬로、향ᄒᆞ실ᄉᆡ、노워
러의、ᄯᅡ고잇던비를、슈습ᄒᆞ야압
헤셔、힝ᄒᆞ되、항복ᄒᆞᆫ군사등으로、
ᄒᆞ여금압셰거ᄒᆞ게ᄒᆞ고、긔와물식
을、곳치지안코그ᄃᆡ로가며、다른비
ᄂᆞᆫ、뒤에ᄯᅥ러가더니、이ᄯᅢ의영쥬도
의셔ᄂᆞᆫ、슈전으로쓰ᄒᆞᆷ이、ᄒᆞᆫ차의어
가더니、ᄒᆞᆫ부리전션이、오ᄂᆞᆫᄃᆡ조셰
이、본쥭져의비라、크게반가워ᄒᆞ다
가、각가이일은후에본쥭、저의군ᄉᆞ
요、저의긔호ㅣ라、어셔밧비구원ᄒᆞᆯ
기를、지쥭ᄒᆞ더니、홀연이저의모
누다리ᄂᆞᆫᄃᆡ、천만의외에、변이라밋
쳐방비ᄒᆞᆯ실이도、업고압뒤로ᄃᆡ져
지못ᄒᆞ여셔、크게픽ᄒᆞ야、쥭은쟈이
부지기슈요、사루잡힌쟈이부지기

[illegible]
가셔긔요、사룸마다깃버ᄒᆞ여셔、오슌세
처벌그상이라、ᄃᆡ화가、퍼저가미、원근
영세ᄂᆞᆫ에졋저셔、갓가온ᄃᆡ사룸은、ᄯᅥ누가
기슐만ᄂᆞᆫ자ㅣ업고、먼ᄃᆡ사룸은、갓가이사
이나지못ᄒᆞ믈、한ᄒᆞ더라、이ᄯᅢ의련ᄒᆞ
가ᄒᆞ야가、요란ᄒᆞ야왕명이、업셔지고、사방
조손에호걸이、각각쥬쟝ᄒᆞ야、젼졍이곳
다른ᄒᆞ여가더니、남방은、분인의、위ᄃᆡ
셔분으으로、국히ᄐᆡ평ᄒᆞ얏ᄂᆞᆫᄃᆡ、셔쥬인쥬
ᄂᆞᆫ、아와、쳥쥬둥지에、가젹이、잇셔셔、학
션으로졍힝ᄒᆞᄂᆞᆫ쟈ㅣ만커ᄂᆞᆯ、비쟝ᄃᆡ이、입
만의지병ᄋᆞᆯ、의ᄃᆡ토평ᄒᆞ기를、쳥ᄒᆞ거ᄂᆞᆯ
표션은、부인이、부득이ᄒᆞ야、허락ᄒᆞᆫ쟉、쟝
아가면졸이、모다동심동덕이라、가ᄂᆞᆫᄃᆡ로
일이로ᄃᆡ이라、기다리지、안ᄂᆞᆫ곳시、업더
관게치니、이ᄯᅢ에、노워러가、뉴야로、부인
공을ᄒᆞᆫ을도두ᄒᆞ며、경문을엄시、거다ᄒᆞᆫ지문
[illegible]된을、앗기지아니ᄒᆞ고、텬하의영웅과
이잇스、호길을、연랍ᄒᆞ며、사죨과、병긔ᄅᆞᆯ
셩ᄒᆞ야、슈습ᄒᆞ며、비문경셜ᄒᆞ게、지어셔、
낭홈가제구를쥰비ᄒᆞ고、한국쳥의게、폐빅
、지셩을후히갓추어셔、변사로ᄒᆞ여금、달
은폭니셔、셔격란이나、막고ᄌᆞᄒᆞ신、이
비、업셔의갓든、변사가、한국쳥의、의향
[illegible]다만조부인의[illegible]만、바야[illegible]

고、강도로향ᄒᆞᆫ、군ᄉᆞ가、슌풍을의
더쌘니가니、압ᄒᆡ걸님이업ᄂᆞᆫ지라、
무ᄉᆞᆫ념녀잇스리오、기탄업시드러
가더니、이ᄯᅢ의조부인이、몬져졍탐
ᄒᆞ야、노워러의오ᄂᆞᆫ쥴알고、간안
이군ᄉᆞ를발ᄒᆞ야、강샹의미복ᄒᆞ고
、지젹ᄒᆞᆫ이잇셔셔、기다리다가、
ᄒᆞ기노워러의군ᄉᆞ가오거든、지나
가게[illegible]
이나기든、일제이나셔서、그도라가
ᄂᆞᆫ길은、산으라ᄒᆞ고、부인은、군사
ᄒᆞ게ᄂᆞ리고진뒤에숨어셔、동졍을
보고、잡군셔긔ᄂᆞᆫ、화포문만히뭇더
곳코、문견을、중제이써러노코、거
드리더니、노워러가、일지병을거
누리고、비에나려셔、중우곳치、모
라오더니、일동이요ᄋᆞ야、무안지
경곳더니、부인의디율、다라ᄂᆞᆫ죡、
분견이정제ᄒᆞ야、기드리던것、곳다
가、집속의도러간죡、아모도업ᄂᆞᆫ지
라、크게의아ᄒᆞ야、조쳐ᄒᆞ더니、밤
쫏ᄒᆞᆫ소리의、런디가진동ᄒᆞ고、산쳔
이훈들니며、사면에복병이、일시에
、인어ᄂᆞᆫ선지라、노워러의、군사가、
감히싸호싱각을、ᄒᆞ지못ᄒᆞ고、손을
묵거셔、항복ᄒᆞ믈、쳥ᄒᆞ미라、노워
러ᄂᆞᆫ、형세가분리ᄒᆞ믈、보고、이에
미쥬ᄒᆞ야、배시바리고、광ᄉᆞ부의[illegible]

되지못ᄒᆞ더라、셔호영에、우의에、
구원병을만나셔、큰게이긔고、크게
깃버ᄒᆞ야、군ᄉᆞ를거두고、구원병을
、맛저드려서보니、조부인이、노워
러을파ᄒᆞ고、그군사를、도루거ᄂᆞ、
러구원ᄒᆞᆫ거시라、더구나깃분마음
이、쟉샹업셔셔、군졸을、잔치ᄒᆞ며
샹쥬고、조부인의게、글얼다거셔、
치사ᄒᆞ야홉시、마참조부인에、셔간
이、일으ᄂᆞᆫᄃᆡ、뭇ᄌᆞ온죡、한국쳥이、
노워러의、후원으로、중간의와셔、
잇다ᄒᆞ오니、이ᄂᆞᆫ쉔슈믈、감흘ᄯᅢ라
아오옥쳥으로、ᄒᆞ여금、군ᄉᆞ슈쳔
을、거ᄂᆞ려보ᄂᆡ오니、몬져군ᄉᆞ와、
아울나、압혜나아가셔、노워러가
독승ᄒᆞ고、도라오ᄂᆞᆫ것、곳치ᄒᆞ였다
가、쥬ᄃᆡ[illegible]쓰호면、이번의、노워러
물미ᄒᆞ든것곳지라、평이도ᄒᆞᆫ
、ᄒᆞᆫ팝쳔을、또의심을보라ᄂᆞ이다、
ᄒᆞ엿거ᄂᆞᆯ、셔호영이、이글을보고、
크게칭찬ᄒᆞ야갈ᄋᆞᄃᆡ、만고에영웅이
며、텬하의명쟝인뎌、소견이、이예
셔지ᄂᆞᆫ쟈이、어ᄃᆡ잇스리오、ᄒᆞ고이
에、군중에령을나려서、밧비힝군ᄒᆞᆯ
시、몬져노워러의、군ᄉᆞ항복ᄒᆞᆫ쟈으
로、ᄒᆞ여금안서셔、ᄯᅥ나게ᄒᆞ고、그
뒤호로、뉵속ᄒᆞ야、ᄯᅥᄂᆞ보니니、위
의라、학셰가、극히쟝ᄒᆞ더라

## 社說

### 迎原公使

前月十一日、原氏特命全權公使、[illegible]、[illegible]之士、[illegible] 漢城之士、[illegible] 公使之任、[illegible] 交之道[illegible] 化[illegible] 必欲出而使於外、[illegible] 之、而[illegible] 而必有於[illegible]、不[illegible] 是其任[illegible] 以[illegible] 靜居其所之可也、[illegible] 之成[illegible]之[illegible]、則日本也、日本公使[illegible] 則其[illegible]、[illegible] 日本公使不得其人、則其[illegible] 宜、而東方日以[illegible]、亂之生也、[illegible] 者[illegible]也、[illegible]、則日本不得不[illegible] 疑[illegible]、是[illegible]、[illegible]日本公使、[illegible] 重責[illegible]大、[illegible] 也[illegible]、人各以其心[illegible]、[illegible] 故、[illegible] 之外、[illegible]之、則 第一[illegible]也、[illegible] 國[illegible]、況方今[illegible]之[illegible]、[illegible] 擧、[illegible] 比持、[illegible] 爲之時、是[illegible]、[illegible] 父、天下皆知[illegible] 子[illegible] 於[illegible] 天下皆知[illegible] 能、[illegible] 使[illegible] 士、使之[illegible] 豈[illegible] 而[illegible] 以[illegible] 其成功、[illegible] 之使也、[illegible] 之[illegible]。

## 雜報

[illegible] 이니라와 여휴[illegible] [illegible] 황데 [illegible] 화미「모르」[illegible] 대웅녕「가보지」[illegible]「셰리므」[illegible] 「쟈르」 스도레야스」[illegible]「스」[illegible] [illegible] 대웅녕、 [illegible] 베르[illegible]대웅녕「발두」[illegible] 레스」[illegible] 대웅녕「란꼬름」[illegible]「피사치리」[illegible]「알두르으씨」[illegible]「스」[illegible] 황데「오레산다」[illegible] 대웅녕「갈노」[illegible]「녜두」[illegible] 로베드」[illegible]「오지사미리」[illegible] 온、[illegible]「유랴」[illegible] 이시니라

●[illegible]

[illegible] 동씨가 [illegible]야、편하에 일이、내민 옴대로、안될거시업다논 [illegible]야、각하교논 [illegible]야 [illegible] 도 내며、[illegible]고、조미잇게、싸홈 도야 보고 [illegible]게、[illegible]、 진동야잇든 학부대신、신긔션씨논 군미、하놀에 올나가서、귀신들에 게도 [illegible] 내려 고가셧든지 、아주、아모소식도、업셔스므로 잘 [illegible] 각국[illegible]게 [illegible]야 논 의 국교스 고、상관이되야、너무、긔 로군인[illegible] 만구로 [illegible] 모양이로되、소변한고나、셔군관게 [illegible] 야 논 전과 곳치、날마당 [illegible] 항의일로、[illegible]고、[illegible]다고 [illegible]의말인 [illegible] 신이라고 야셔 논[illegible] 시원치아니 니라

●[illegible]

[illegible] 앗침에 인 [illegible] 나셧슬터이니、 시버 [illegible]가、너무만어서、정오 쭈에 부인과 [illegible]고、슈로로、나 옷 [illegible] 되야셔、양화진에 [illegible] 야 [illegible]나 오믈기다려셔、작일 오전 [illegible]에 [illegible] 시더니、[illegible] 로、일본[illegible]이、마지러가고、아 [illegible]시에 [illegible]야、[illegible] 셧논디、이때、[illegible] 성도와、[illegible]이、[illegible]

●[illegible] 아모나라 [illegible]、상국에 [illegible] 셰긔란말은、상국이안 [illegible]야 잇더라

●[illegible] 가、일젼의、아관에 갓더니、아국 의게 [illegible] 여셔、지금지 [illegible] 논、종이라더라

●[illegible]에 [illegible] 야 [illegible] 나、시방이、일천팔빅구 십륙년인쥬 일쳔팔빅일년봄 、일쳔구빅년 지음、십구 세긔라 [illegible] 되엿 든 각국군쥬와、대통녕은、십 명 [illegible]、박영유씨、[illegible] 모친 [illegible]

사리말 [illegible] 동씨 [illegible] 사직 [illegible]、[illegible] 서로、[illegible] 가 그뒤를바쳐、참서관이 [illegible] 작할자 못할니라

●[illegible] 이왕에 [illegible] 남노셔 기를、[illegible] 몬이、아쳐구쳐되지못 [illegible] 츈지 [illegible] 아니여 [illegible]고、[illegible] 아 논、실늘일이 [illegible] 취장이쥬、국상즁이 못、[illegible] 부가 [illegible] 와、[illegible] 그다 여가지고、장구 [illegible] 엉 [illegible]

●[illegible] 사판 [illegible] 멍인셔씨가、각능에 [illegible] 며、능상에、술、버 [illegible]과、[illegible] 일도、사판 [illegible] 도 [illegible] 도잇고、[illegible] 되는 [illegible] 뒤송이 [illegible] 만되면、등 [illegible] 법이라 [illegible] 능관들이、그문서 [illegible] 은사 [illegible] 군일 [illegible] 되、그 [illegible] 논 아직 [illegible] 아니 [illegible] 업고、또능관은、지금능관 [illegible] 당 논것시아니라、[illegible] 로、이전능관、지 [illegible]

이적지 [illegible] 더라

●[illegible] 이라 [illegible] 일젼에、아주다고、[illegible] 도、다 야스므로、수 [illegible] [illegible] 야 다 [illegible] 성도 [illegible] 스되、금지 못고、[illegible] 지 [illegible] 어다더라

●[illegible] 이왕 [illegible] 야、모러 [illegible] 바 [illegible] 삼명이 [illegible] 야、이왕 [illegible] 여 노니 [illegible] 이 디셔、[illegible] 이 [illegible] 야 [illegible] 지 [illegible] 년 [illegible] 야 [illegible] 야스되 [illegible] 지 노 [illegible] 다더라

[illegible]

을 복구호자는거시아니라, 그 실상은 [illegible]

외국의 명식을 복구호자는거시라

[illegible] 의 수문에 [illegible] 슈가 너무 [illegible] 호다고, 그 고을 [illegible]

[illegible] 부대신과 법부대신이, 각 [illegible] 지방에 나 [illegible] 호고, 감옥호는 [illegible] 호여서

직신들을 비소로, 도로가게호여다

더라

●근일에 [illegible] 라 [illegible] 본일도 [illegible] 가, 판 홈이

로 과보 [illegible] 관 [illegible] 을

아니홈

# 官報抄錄

[illegible]

[illegible] 국문 [illegible] 호는 [illegible] 우 [illegible]

[illegible] 시 [illegible] 당 [illegible] 신되리라더라

●[illegible] 

농상공부 고시

[illegible] 농상공부 [illegible]

[illegible] 농상공부 [illegible]

[illegible]

농상공부대신 [illegible]

## 特別廣告

### 三陸大海嘯遭難者弔恤金募集

嗚呼、彼等の地三縣十餘郡に於ゐ、溺死者二萬餘口に上ぼる、我邦近來の凶變、未だ[illegible]大海嘯の惡逆至慘に如くはあらず、凡そ我が同胞、誰れか天に慟し、地に哭せざるものあらんや、

知らず、未だ來らざるに於りて、三縣の人民、誰れか又其の生命の瞬間に迫れるを測らん、[illegible]團欒して其の家族ある樂みの、わりしおり、其愛兒の長ぜんことを祝しつゝ、わりしおり、其の[illegible]の秀でんことを祈りつゝ、わりしおり、其の漁獲の多からんことを[illegible]つゝわりしおり、其れ奈何せん、激たる浪は[illegible]の異響、忽ち萬丈の狂瀾を驅り來りて、蕩然大地を捲き、滔々たる其の勢、洶々たる其の流、墻を崩り家を漂はし、野に溢り丘を沒し、愛兒物にわれとも、救ふに道あらず、逃れ叫ぶわれとも扱くるに由あらず、悲號叫すれとも夫知らず、痛哭すれとも兄聞かず、千村萬落齊しく淪んで其に死す、其の幸にして免かるゝものは、亦た僅々たる[illegible]の餘、僅かに[illegible]を保ち、親子相失し、夫妻相見ず、倚るに親戚なく、歸るに家なく、顛沛流離、風を餐し[illegible]して號哭するの聲[illegible]の罪かある、何んぞ天の怒ますして人を殃する此の極に至るや、世の義士仁人豈に必らず遽らに慟哭して止むに忍びざるなり、是を以て、吾儕は茲に義捐金を募集し適當なる方法によりて之れを遭難者に頒ち以つて弔恤金の一部に充てんとす

又に聞く此の慘報が達するや、我　天皇陛下は深く　叡慮を惱まさせられ、直ちに東宮侍從を遣はさせられ、尋で　天皇皇后兩陛下より、三縣下に金一萬四千圓を　下賜せられたりと、　陛下の臣民たるもの、誰か　恩澤の厚きに感泣せざるものあらんや[illegible]募上至仁の　叡慮を奉體し、同胞相憐むの誼を盡さは惟ふに仁に[illegible]義に於けるの詳にあるのみ

一義捐金は發起者若くは發起者より委囑すべき集金者に拂込まるべし

一義捐金を受取るときは其金額及び姓名を漢城新報紙上に廣告して受領の証と爲すべし

一義捐金にして特に寄附の場所を指定されたる分は固より其場所に送附すべきも其の然らざるものは發起者の見込を以て政府の實狀に應じ適宜岩手宮城青森の三縣に分贈し其配與方法は一に各該地方官に委託すべし

右發起者

明治二十九年七月

和田常一
中村再造
松田行藏
漢城新報社

## 雜報

### ●原公使の着京

原公使は前號記載の如く一昨日午前七時を以て仁川を出發せらるゝ[illegible]に山路を[illegible]して待たるゝもの數時間遂に同十一時頃に至りて漸く[illegible]以て夫人從者及び出迎の日[illegible]官[illegible]と共に迎船部の御用船[illegible]に乘込まれたり此際我仁川居留官民の見送り[illegible]て同船は同五十分過ぎ[illegible]せしが[illegible]に投しを以て其夜[illegible]の下に投錨[illegible]しも水[illegible]の[illegible]り[illegible]投錨したるは午前八時頃なりき既に[illegible]して加藤代理公使及び其の他の公使館員、守備隊將校、朝鮮政府の[illegible]官[illegible]の諸官、[illegible]民總代十名は[illegible]して公使を迎へ公使は九時頃[illegible]入京せられたり時已に十一時頃にして[illegible]、小[illegible]、[illegible]部其の他の居留民等の出迎[illegible]たる者も亦頗る多かりき

### ●京城義州間の鐵道

京城義州間に鐵道を敷設したき旨佛人某より我政府に申込みたることは嚮きに已に本紙に記せし所なるが[illegible]ふ之を承諾し[illegible]日[illegible]契約[illegible]に[illegible]にて其契約の要領は起工期限を三ヶ年以內、全成期限を九ヶ年以內とし落成後十五ヶ年後に於て我政府之を買收せんと欲するときは該鐵道所有者は直ちに之れを政府に渡すべしと云ふ而して其の京仁間鐵道に於ける米人との契約條項と略ぼ同一なりと云ふ

### ●京仁間電線架設の件

鐵道は京仁間に於ける現在の我電線の外側に此下にて此間に於ける從來の支那電線を使用し之を使用せんとするの[illegible]

### ●京城開城間の電線

此電線は已に[illegible]より[illegible]し成れりとも朝鮮政府にて[illegible]より修繕中なりし京城、義州間の電線[illegible]は已に去月末開通し居りしが此程より又々不通となり因みに記す右修繕工事は[illegible]の[illegible]なるらんと云ふ

### ●伊藤西鄕兩大臣

[illegible]大臣は[illegible]二十九日[illegible]に[illegible]より[illegible]大臣は同地にて西鄕大臣より[illegible]にて[illegible]に[illegible]て[illegible]

### ●賊開城に入らず

[illegible]の[illegible]は[illegible]

●[illegible]の[illegible]

[illegible]

### ●日本東北部の大海嘯詳報（三）

[illegible]へ赴任せし由

[illegible]に於る最大の[illegible]は[illegible]にては[illegible]北部[illegible]して[illegible]、三[illegible]、六ヶ所の三[illegible]村あるが[illegible]は[illegible]、[illegible]、[illegible]下長、[illegible]の[illegible]村より小川[illegible]口迄十[illegible]の[illegible]を[illegible]とす中に就て尤も慘狀を極めたるは[illegible]石、三[illegible]の[illegible]村にして此[illegible]村は全部[illegible]を蒙りたる[illegible]は十が一二に過ぎず[illegible]打ち[illegible]たる[illegible]て其地の[illegible]北[illegible]の狀況に依て一[illegible]なると[illegible]して二十[illegible]內外に[illegible]の[illegible]に遁されて引去りしが[illegible]

### ●元山北關間の航海

元山北關間の航海[illegible]

[illegible]下に於て[illegible]北航路の目的を以て[illegible]航したる小[illegible]船は[illegible]去る十一日より[illegible]を[illegible]し去る十八日[illegible]て[illegible]したり

●[illegible]

[illegible]

●平民の[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人[illegible]に來住す

[illegible]

●日[illegible]の[illegible]

[illegible]を[illegible]せらる

●[illegible]の[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開きたる所ありと云ふ細説にて右鳴動の外に見聞せる所なし尤も一ヶ月前より近作の[illegible]の火なかしのみならず魚形の火なる[illegible]らずらしやと云ふ者ありし[illegible]

は州の将に見ずと云ふ

其の被害の惨状は彼村の旧観よりも甚しく[illegible]して已に悽惨なる者あり[illegible]の視とも頼むべき漁具を失ふて棚口に迷ふもの[illegible]家屋もなからも[illegible]も稀る溺死を探はれて泥中に泥然たる者も有之[illegible]なる其の死体を抱きて惜然たる夫、泥にまみれたる夫の屍にすがりて號泣するも有んとする迄、天にも地にも唯一人の子を失ふて狂乱するも老親、父母に離れて[illegible]他人の[illegible]に[illegible]

[illegible]北海道石村は死亡百三十六人、負傷者三十[illegible]

[illegible]百七十一棟、斃牛馬八頭なり

[illegible]戸郡市川村は死亡二十一人、生死不明八人、負傷四人、家屋流失及破壊二十七戸、納屋流失及破壊三棟、破船六艘、斃牛馬十頭なり

北海道に於ける海嘯被害の地は歌別、歌露、油駒、小越、庶野、幌泉にて人の溺死五人、家屋の流失三十五戸、漁船の破壊八十三艘なりと云ふ

●日置山座の二氏 [illegible]公使田辺の下に仁[illegible]なりし日置[illegible]、山座[illegible]は別項にる[illegible]

●英国領事 ヒッア氏の近々日本に赴任せしとの事は前號に記せし如くなるが氏は都合ありて仮に之を見合せ仁川に駐在することとなりし由

●内田領事送別会 我居留民中の有志者六十余名は昨夜内田領事を非門楼に招待し盛んなる送別の宴を張れり

●内田領事の宴会に就て 内田領事の明八日留別の宴を張らるゝと及び雨天の際は更に期日を定めて通知せらるべきことは前號に記せしが同領事が帰京する十二日頃居留地出発帰朝の途に就かるゝ由、然れば此れ迄には各種の宴会等あり時日に余裕もなければ右の宴会日割は斯く図らずも前夜を以て施行せらるゝことなれり

●武田補佐官の辞職 度支部補佐官武田[illegible]氏は都合ありて財政顧問との間に辞職の相談調ひ出帰既に辞表を辞せしと云ふ而して氏は[illegible]からず帰朝する由

●[illegible]民久保遊氏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は今回北海女と米国より[illegible]

●[illegible] 小川通信局に[illegible]せられし[illegible]

●[illegible]の近任 [illegible]

●北部[illegible]の新任 [illegible]

●[illegible]官の異動 [illegible]

●朴[illegible]の辞表 [illegible]

●特別会員の[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巫女の[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児の[illegible] [illegible]

廣告

日本郵船會社
濵船仁川廣告

肥後丸
玄海丸
豐島丸
薩摩丸
長門丸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仁川支店

大阪商船仁川廣告

隅田川丸
二見丸
筑後川丸
信濃川丸
白川丸

第一回仁川荷客取扱所

第拾會正風集題
入花秋園桃源所樂撰
寄限
撰定
投込所
正風會

一上等 二圓
一中等 一圓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二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銃獵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附屬品

石川商會
護謨履
長靴
西洋服各種
帽子

着荷廣告品



地球印藥用フダウ酒効能書

一地球印フダウ酒

發賣元 伊部商店
朝鮮國特約店 隈本商行



スコット乳
レーフル油
肺病、氣管支炎、瘰癧、咽喉病、衰弱、小兒

紐育製藥舖 スコット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隈本商行



帝國株式會社

織居加一

漢履

履

各種

子

服

店

行

會社

新衡到着廣告

貴婦人用…… 紳士用…… 麥藁帽子種々

パイレート

オールドゴールド

ピンヘッド

天狗巻煙草各種

キリンビール

エビス黒ビール

白赤葡萄酒各種

メリケン粉各種

シャンパンラムチ

機械大小各種

香水石鹸諸雑貨類

ツト、ミルク、和洋缶……

肉野菜罐詰各種

飲料水適否檢定ノ依賴ニ應ズ

漢城病院

京城支部

和漢洋藥廣賣

成尾安五郎

旅館 東京館

阿津阪商店

總本店

總分店

宮田種德堂

弊舗今回都合ニヨリ西洋雑貨一切チ泥峴大阪堂ニ譲リ渡シ今後時計眼鏡藥ノ傍ハラ払ク眼鏡ノ販賣ニ從事可仕此段愛顧各位ニ廣告仕候也

各國時計商 石川商會

廣告

[illegible]

各國時計商 石川商會

一 朝鮮飴 [illegible]

小林菓子製造所

鍼灸術按摩療治

久田安生堂

廣告

一 草鞋

一 日本足袋

一 荷車

一 新 [illegible]

一 木履

錦鑄造

北川 醇

入荷廣告

一 皮座蒲團 丸形、角形

一 夏麥藁帽子 色々

一 日本人向朝鮮人向石

敬白

右新着販賣仕候條多少に不係御用被仰付度奉願候也

鈴木大阪堂支店



一枚 [illegible]

一個月 [illegible]

三個月 [illegible]

六個月 [illegible]

發行所 漢城新報社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 [illegible]

양녁으로、본변이원봇터、오륙삭간 월、[illegible]가졍치못ᄒᆞ야서、[illegible]이니러 나서日光을못보며、[illegible]가마리워히 빗슬보ᄂᆞᆫ날이、업ᄂᆞᆫ고로、시골지방 에ᄂᆞᆫ、의병이란[illegible]을바다가지고、[illegible] 民을도탄에、고싱케ᄒᆞ야、지물을양 탈ᄒᆞ며、셩명을쥭이며셔、[illegible]파다 룸이업시[illegible]ᄒᆞ야、[illegible]것을보ᄂᆞᆫ땅 이가[illegible]도업고、그[illegible]을아나당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군ᄉᆞ、일본、외면만[illegible]에、ᄒᆞᆫ 낫도업스리라、그저、그[illegible]ᄒᆞᄂᆞᆫ자 ᄂᆞᆫ、소위、의병뷔져도와[illegible]、우리 ᄇᆡᆨ셩이라、이럿케、쥬야업시、회칭 ᄒᆞ야잇ᄂᆞᆫ적도들도、[illegible]ᄂᆞᆫ、 달내며셔、진졍코자ᄒᆞ얏스되、의병 이란、명식만바다도[illegible]ᄒᆞᆯ슈업시넛 가、그[illegible]만ᄒᆞᆫ[illegible]을드라고、그 리ᄒᆞ야、진졍치안코、졍부도、그[illegible] 을주ᄂᆞᆫ[illegible]가업고、ᄒᆞᆯ슈업시、[illegible] [illegible]의져분을ᄒᆞ야、경병을니며셔、 진졍케ᄒᆞ엿스되、소위의병은、ᄒᆞᆫ[illegible] 見이잇ᄂᆞᆫ것도아니라、ᄒᆞᆫ[illegible]이잇ᄂᆞᆫ 것도아니요、ᄒᆞᆫ[illegible]가잇ᄂᆞᆫ거 시아니라、ᄒᆞᆫ[illegible]ᄒᆞ든것도아니요、 [illegible]上의[illegible]을치ᄂᆞᆫ것ᄀᆞᆺ치、경병이나 가면、곳、흣터지고、경병이、물어오 면、곳、모와지ᄂᆞᆫ[illegible]인즉、그놈들은 大[illegible]을가지고、그리ᄒᆞᄂᆞᆫ거시아니라 、그럿케ᄒᆞ야、놈의지산을、양탈ᄒᆞ 야[illegible]ᄒᆞᆷ을、싱애로삼고、젼연[illegible] ᄒᆞ얏스되、시방은、신졍부가[illegible]ᄒᆞ 야주ᄂᆞᆫ[illegible]으로ᄒᆞ야、지ᄂᆡᄂᆞᆫ거신즉 네ᄉᆞ에싱애들ᄒᆞᄂᆞᆫ것보담、힘이업 들고、[illegible]을ᄒᆞᄂᆞᆫ거시리니、시골 지방에셔、오륙삭간을、하ᄂᆞᆯ에[illegible] 님이계시건마ᄂᆞᆫ、요운이、마리워셔 、그[illegible]를못보고、[illegible]가치리ᄒᆞ고、 [illegible]이잇서셔、그日光을못보고、[illegible] 이[illegible]봇터、[illegible]ᄒᆞ야도、[illegible]ᄒᆞ야 셔、다른[illegible]을삼으니、그하ᄂᆞᆯ밋ᄒᆡ、 사ᄂᆞᆫ사ᄅᆞᆷ은、그졍상이[illegible]의모 양이오、또[illegible]은、폭도[illegible] [illegible]에게、지산을、[illegible]가ᄂᆞᆫ일이、드문 엇스되、역시、눈이오ᄂᆞᆫ날이며、비 오ᄂᆞᆫ날과、뭇ᄀᆞᆺ치、[illegible]가、마리워 셔、日光이이십만창싱을、빗취시든 일이、ᄒᆞᆫ번도업ᄂᆞᆫ지라、그[illegible]이 되ᄂᆞᆫ、요운악마들、[illegible]ᄒᆞ면、묘ᄒᆞᆫ련 다ᄂᆞᆫ、[illegible]을、긔지ᄒᆞ야도、다[illegible] 지못ᄒᆞ나、그[illegible]ᄂᆞᆫ、그만두고、타일 에、그ᄯᅢ를맛나거든、셰샹人士로ᄒᆞ 야곰、[illegible]

● [illegible]

철원에、니러난[illegible]도、오빅여명이[illegible] 山을[illegible]ᄒᆞ고、송도[illegible]ᄒᆞ려든모양 이잇서、친위ᄃᆡ병졍이、곳나가고、 일본[illegible]도갓더라ᄂᆞᆫ말은、일젼신문 에、긔지ᄒᆞ얏거니와、그[illegible]은、송도의 [illegible]비ᄒᆞ얏다ᄂᆞᆫ알을、알고、일 부로、피ᄒᆞ야、황히도、[illegible]편으로、 갓스므로、동지ᄂᆞᆫ、무ᄉᆞᄒᆞᆷ을득ᄒᆞ얏 다더라

● [illegible]

[illegible] 으로、ᄒᆞ야왓든、화[illegible]션은、지난달 업ᄒᆞᆫ몬납붓터、시작ᄒᆞ더니、그달십 팔일에、무ᄉᆞ히[illegible]ᄒᆞ니、그[illegible]의말 인즉、[illegible]ᄒᆞ든[illegible]에인심이、시 방은、아주[illegible]ᄒᆞ다니、이제ᄂᆞᆫ거졍 ᄒᆞᆯ비업ᄂᆞᆫ모양이라고、원산[illegible]신ᄎᆞᆺ 히뵈더라

● [illegible]之[illegible]

신경무사、니[illegible]건씨 ᄂᆞᆫ、[illegible]ᄒᆞᄂᆞᆫ[illegible]스로、그러ᄒᆞᄂᆞᆫ지 、일젼붓터、셩안에셔、샹민이、멀운 들지못ᄒᆞ게、금ᄒᆞ얏다ᄂᆞᆫ소문이잇 더라

● [illegible]의상서ᄒᆞᆫ일이라

융졍도제젼 비도거피、류인셕등이、군부ᄃᆡ신파 、다른ᄃᆡ신들의게、샹서ᄒᆞ엿ᄂᆞᆫᄃᆡ、 그사연인즉、묘졍의셔、군ᄉᆞ를거드 시면、우리가、의병을기나리고、서 운노、올나가서、각국가[illegible]과、담 판ᄒᆞ여가지고、더[illegible]폐하게서 환어ᄒᆞ시게ᄒᆞᆫ후에、우리의병은、 궁셩호위를、ᄒᆞ려ᄒᆞ라고、ᄒᆞᄂᆞᆫ사 라더라

● [illegible]之[illegible]

동씨ᄂᆞᆫ、금회、그[illegible]를、미국의셔볼 르자ᄂᆞᆫᄃᆡ、동씨가、단여올동[illegible]안 을、[illegible]신문의[illegible]과、기타에일을、 ᄒᆞ야줄사ᄅᆞᆷ이잇거든、[illegible]졈에、그 [illegible]을마지러、일본셔지간다고、아모 리더러、그니야기를ᄒᆞ얏다더라

● [illegible]

지난달의、경무ᄉᆞ김지풍 씨、잇슬ᄯᅢ의、무녀와신위ᄒᆞᄂᆞᆫ、풍 속을、금단ᄒᆞ엿더니、동씨가、경무 ᄉᆞ갈닌후로ᄂᆞᆫ、무녀덜이、여젼이、 [illegible]ᄒᆞᆫ다더라

● [illegible]之[illegible]라

이말을、이왕긔지 [illegible]ᄒᆞ엿거니와、[illegible] 라도에、각처보부상덜이、이소문을 듯고、졍부명령을、기ᄃᆞ리지도안코 、저외ᄭᅵ리、복구례ᄒᆞ야、예젼젼례 로、임방을복셜ᄒᆞ고、반슈며졉장과、 여러유ᄉᆞ덜은、의연이니여셔、자칭 ᄒᆞ고、서로긔졔들、의지ᄒᆞ야、막능 당ᄒᆞᆯ모양이라、관령이나리기전에 도、이러ᄒᆞ니、ᄒᆞᆷ을며관령이참반ᄒᆞᆫ ᄒᆞᆫ후이면、그작페를、가히짐작ᄒᆞᆯ너 라

● [illegible]

졍미비가、[illegible] 이지아니ᄒᆞ여셔、보리농ᄉᆞ를[illegible] ᄒᆞ여、그러ᄒᆞᆫ지 근일쌀가가、고등 ᄒᆞ여、아리와여흡

| | | |
|---|---|---|
| 白米 | 최[illegible]밥쌀、ᄒᆞᆫ되에 | 三兩五錢 |
| | 갓밥쌀、ᄒᆞᆫ되에 | 三兩四[illegible] |
| | 구즌쌀、ᄒᆞᆫ되에 | 二兩二錢五分 |
| 太 | 上品ᄒᆞᆫ되에 | 三兩二錢 |
| | 中品ᄒᆞᆫ되에 | 二兩八錢 |
| | 下品ᄒᆞᆫ되에 | 一兩七八錢 |
| 赤豆 | 上品ᄒᆞᆫ되에 | 二兩八錢 |
| | 中品ᄒᆞᆫ되에 | 二兩三錢 |
| [illegible] | 上品ᄒᆞᆫ근에 | 八兩五六錢 |
| | 下品ᄒᆞᆫ되에 | 四兩八錢 |

● [illegible]이라

젼에[illegible]一冊 며、[illegible]군ᄒᆞ야、아라사、셔울모스거 (莫斯科)를칠ᄯᅢ에 갓치[illegible]케[illegible]ᄒᆞ든 、[illegible]졍에、「[illegible]보스기」란[illegible]이잇

고、서 ᄒ、다 계서 으로、 느샤시 서불 쌍안 일흔、 、그 아모 라 지풍 ᄀ풍 경무 신이、 괴지 쳔쳔 분을 안코 전례 샹과、 쟈칭 막능 전에 반포 홈나 적 낭파 고등 卍一世 스거 ᄒ든 이잇

싯도다、그후에 이란쌰에、샹고、
나히、온아、일비절세되는노인인쥭
ᄇ려네을슈도잇고、님의 바
다셔、게우자비고、사람이차ᄌ오면
、그ᄯ에 ᄒ나아가ᄒ야、지니
녀잇더니、본ᄃ수업에、 에 ᄒ
ᄇ름의게、유인되야 이되야、
갓다더라

## 趙婦人傳 (조부인전)

二卷

이ᄯ에、한국청이、노위려의승피를
기다리고잇더니、엇던군ᄉᄒ나히
、노위려의게로、조차왓노라ᄒ고、
노위려가득승ᄒ야、만사여의ᄒ고、
개가를부니、도라온다ᄒ거ᄂ、이에
한국청이、비쟝ᄒ과더 ᄇ러언약ᄒ
되、노위려마져도라온후에、잔쇠는
、크게비셜ᄒ야、ᄂ다가만닐、내가
슌잔을던지거든、일시에 달녀들어
셔、노위려는쥭이고、아모아모는、
군사를거느리고잇다가、박가ᄒ변
을、비비ᄒ라ᄒ고잇더니、노위려의
병션이、도라오거ᄂ、한국청이이에
비론거느리고마지러 나갈ᄉ、노원
려의비로、알엇든비에셔、후연이버
녀이이러며、음슉ᄒ야치거ᄂ、한국
청이、크게놀나야、감히디적지못ᄒ
고、예비가업던더이라、크게퍼ᄒ야
도망ᄒ식、죽은디경은、몟번지니고
、간신이목숨을、보존ᄒ야、겨우위
디를버서나셔、도라보니、퍼ᄒᆫ군
사의 남어지가、ᄒ과슈비명일너라
이ᄯ에、셰계란으、한국청과、노위
려가、군사를、동ᄒᆫ줄알고、이에군
ᄉ를、일르켜셔、중간의요디는、갑
여셔진치고、잇셔셔、승피두싸음
보랴ᄒ더니、밋쳐몃칠이、되지아니
ᄒ야、한국청의군ᄉ가、크게퍼ᄒ는
지라、그뒤를알어본즉、조부인의군
사가、노위려를、강도의셔、크게파
ᄒ고、형세를타셔김이모라셔、영쥬
로쏫차가셔、또크게파ᄒ고、셔호영
에군사와、합셰ᄒ야、노위려에군
사ᄀ치ᄒ고、쏫차와셔、한국청을
마쥬파ᄒᆫ것실너라、이에마쥬나가
셔、치하ᄒ고 전의언약을、드의라
고、군ᄉ를동ᄒ야、왓노라ᄒ더라
일노쏫차、셔호영도회군ᄒ고、조부
인의군사돌녀보니、게가를보의
고도라오는거샹이당당ᄒ더라、입

노조차조부인의、위명이텬하의、진
동ᄒ야、두려워ᄒ지안는쟈ㅣ업고、
강도의사민은、의리가、쇄열ᄒ야、
을혼난애、ᄌ는것슨、기부게알고、
별의로는、부귀라도、보그러게알더
라、텬하의 셔조부인을、두렵게만、
알뿐이아니라、정치에구규와、용군
에게칙을、비호고쟈ᄒ며、쟝식을권
쟝홈과、샹고를쿵미시기는것슨、발
서넘버젓스며、못분을놉히고、인심
열복케ᄒ는것슨、그라일홈을、밋지
못ᄒ줄알더라、그러ᄒ나、남방외웃
듬이된쎤아니라、세샹의、경복ᄒ넌
바이요、일셰의、일름난디경뿐아니
라、쳔고에、아름다온한국이라、요
슌쩍런디요 삼ᄃ써세계러라 뉘라
셔부인이라고、쉬게알며、영웅과호
길이、남ᄌ외게만、잇다ᄒ리요、끈
ᄒ다가、왕ᄉ홈과、쇠ᄒ다가、다시
흥ᄒ면、전ᄇ이가、한량업는지라、
우환진고를、겨근쟈이라야、안락리
평이또ᄒᆫ것업ᄂᆫ、귀히셔ᄃ나니라、조
부이、아모리현명ᄒ야、샹등에ᄌ품
을、가젓스나、만난한국청의、간유
과、노위려의、능멸홈을、당ᄒ지아
니ᄒ엿스면 무엇스로써、분홈을겨
동ᄒ며、파가ᄒᆫ、ᄀ다든이셔、이것
흔근공적은、입우엇스리오、하날이
、사름을내여셔、ᄉ업은、입우고쟈
ᄒ신진ᄃ、반ᄃ시、몬저ᄒ여금、곤란
을、겨근후에、그마음을、격동ᄒ야、
사업을입우게ᄒ나니、엇지홈인고、
사름이、안닌ᄒᆫ데셔、나고자라셔、
안닌ᄒᆫ데셔쥭는쟈는、ᄉ업을크게
입우는쟈ㅣ、업는니라、조부인으로
、ᄒ야금 태평시졀의、싱장ᄒ야、쟝
부에슈하의잇실진ᄃᆫ、불과시규즁
에요됴숙녀라、세샹에ᄉ업이야、엇
지몸아나ᄐ엇스리요、호랑의굴을
드러가지아니ᄒ면、호랑에ᄌ식을、
잡지못ᄒᆫ다ᄒ엿스니、파연을토다、
이많이ᄯ、세샹남이、경우더므、되
는것을、알니로다、언뎌에다름ᄒᆫ쟈
ㅣ、궃치지못ᄒ며、시우에、언찬술
이、발ᄒ지안치못ᄒᄂ니、이럼으로
써、안인ᄒᆫ쟈와、곤란ᄒᆫ쟈에、ᄉ업
이ᄀ지안토다、그러나、형세를、옷
는자도잇고、형셰를슌지못ᄒ는쟈
도、잇스니、ᄃ양의비접홈식、슌풍
을만남과、녀풍을、만남의、리둔ᄃ

실이、현슈ᄒ나、다ᄒ잉이、셔호잉이、
잇스니、이는금직ᄒᆫ슌쫑이라、엇지
기부지아니ᄒ라고、경륜지사의、깁
하깁동홈바로다、차호ㅣ라、부인이
、한국청의게、곤욕을당홈적에、목
셔에분격홈이、비홀ᄃ업는지라、멸
녀의셩품으로、거연이자쳐ᄒ기가、
십샹팔구여늘、부인이그、분홈을、
능히참고、그위국홈을、능히면ᄒ니
이는지혜와、힘졀이쌍젼ᄒᆫ지라、
엇지범샹ᄒᆫ녀ᄌ등에、비ᄒ야말ᄒ
비리요、이는일온바、지혜우어리셕
음이、궃지아니ᄒᆫ쟈ㅣ로다、이럼으
로써、그ᄌ말에、다른사름의세닷
지못홈바는、능히세닷고、다른사름
의힝ᄒ지못홈닐을、힝ᄒ엿스니、이
는진실노부인에지혜만、너너홀봄
아니라、크게격동치아니ᄒ엿스면、
엇지이지경의일을슈잇슬가보냐、
그런고로、큰사업은、반ᄃ시격동을
당ᄒᆫ후에、셩공ᄒᆫ다ᄒ노라、그러
나샤쥬、욕을당ᄒ고、분홈을、알지
못ᄒ며、업신녀김을、입고도、붓그
런게녀기지、안는쟈이야、엇지인류
라칭ᄒ리요、세샹에、남ᄌ된쟈덜은
、이조부인에、사업을보면、거의감
격ᄒ고、거의세닷고、거의붓그려와
、흡가ᄒ노라、우리는말ᄒ되、근본
이잇는쟈는、사업이쉽다ᄒ노니、조
부인이、어렷슬ᄯ븟터、총명예지가
욱욕을ᄒ야 강도에、사민을、교육홀
시、홍지기션싱이、락걸ᄒᆫ、후식의
로、인분교화를、깁히베프러、인심
을바르게잡은곳시라、금기쥭말에、
부인에ᄒᆫ마듸명령으로、발연이흥
기ᄒ니、일온바약결강하라、진실노
、사반공비라홈만ᄒ도다、그러나、
가쟝부인을란복ᄒ는바는、능히사
름을알어보고、능히사름을씨는것
시라、사름을능히아는고로、사름이
깁히감복ᄒ고、사름을능히씨는고
로、사름이쥭을힘을다ᄒ엿스니、슌
희에ᄃ신가는것과、금셤、황의무、
조달셔、유의얼등에、쥭음을인기지
안는것슬보면알지라、세샹사업을
、ᄒ라는쟈는、둑인이졔일인즐、가
히알니로다、차호ㅣ라、긔션싱외교
쥭ᄒᆫ、박셩으로、근본을삼고、한국
쳥、노위려의격동을、당ᄒᆫ후에、밍
연이셰다르며、능히지안못인ᄒ니、
엇지이루칭찬을다ᄒ리요 (完)

## 雜報

○[illegible]역사폐지권다ᄂᆞᆫ풍셜이라
셔운간ᄃᆡ권、지으시랴던일을、아주
그만두기로작뎡되여서、그문젹을、
환수ᄒᆞ엿다ᄒᆞᄂᆞᆫᄃᆡ、후운현임ᄃᆡ신、
수교도씨가、연주ᄒᆞ여서그리되엿
다ᄒᆞ고、후운탁지부고문관、후라온
씨가、지셩강연ᄒᆞ여서、그리되엿다
ᄒᆞ나、그무숨연관지、아지못ᄒᆞᆫ다더
라

○[illegible]大臣의게호원ᄒᆞᆷ이라 경긔도
쥭산、미[illegible]동디에、사ᄂᆞᆫ쥬막졍이들
파、인민들이、군부ᄃᆡ신외게、등장
울、올나왓ᄂᆞᆫᄃᆡ、그사연인즉、ᄃᆡ가
드르니、시고울、비도들이、창궐ᄒᆞ
여셔쳔만가지로、인민을、도식할
ᄲᅮᆫ아니라、간곳마다、쥬식은아니ᄒᆞ
여、줄수업ᄂᆞᆫ거시、아니주면、포살
ᄒᆞ고、그집을소화ᄒᆞ난연고로、부득
이ᄒᆞ여서、ᄒᆞᆫ일인ᄃᆡ、지금경평이、
[illegible]
고、첨랍ᄒᆞ고、젼곡주엇다고、첨랍
ᄒᆞᆫ거시、비도에셔삼ᄒᆞ오니、별반
히、구쳐、ᄒᆞ여달나고、ᄒᆞ엿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시공ᄉᆞᄂᆞᆫ、지작인에[illegible]홈을위
ᄒᆞ야、오젼열ᄒᆞᆫ시쯤붓터、외부[illegible]
[illegible]ᄒᆞ시고、오후에ᄂᆞᆫ、각국공ᄉᆞ관이
며、령ᄉᆞ관을[illegible]ᄒᆞ셧더라

●듀미공사[illegible]之[illegible]라 듀미공ᄉᆞ니
범진씨ᄂᆞᆫ、오ᄂᆞᆫ十二日떠나기로、작뎡
되엿다더니、지금또드르니、무숨소
관이잇ᄂᆞᆫ지、二十二日이나、二十三日시
나、낭일간떠나기로、작뎡ᄒᆞ엿다더
라

●[illegible]에[illegible]ᄒᆞ엿던[illegible]라 일
젼에、삼권도、등언ᄒᆞ엿더란、인은、
임의권일에、올녀거니와、지금다시
ᄃᆡ강드르니、승동ᄃᆡ신김병셔씨ᄂᆞᆫ、
ᄃᆡ군쥬폐하에、부르시ᄂᆞᆫ명령이、잇
서서、궁ᄂᆡ부ᄃᆡ신、니지순씨가、동
ᄃᆡ분밧게、나가서、김ᄃᆡ신의처소에
이르러、[illegible]면ᄒᆞᆫ후、김ᄃᆡ신이、
그자부상사를맛나서、지존지디에、
입시할수업다ᄒᆞ여、아니드러오고、
수교ᄃᆡ신료씨와、침동ᄃᆡ신영씨가、
등연ᄒᆞ여서、서분안ᄃᆡ권역사를、그
만두시게、강권ᄒᆞ시므로、원ᄒᆞᆸ말
이、잇ᄂᆞᆫ걸、못될연유로、쥬달ᄒᆞ엿
다ᄂᆞᆫ풍셜이잇다하니그진가ᄂᆞᆫ알수
업다더라

●상소ᄒᆞ던사ᄅᆞᆷ이입지[illegible]라 서
운동부[illegible]리우들[illegible]서ᄂᆞᆫ[illegible]
씨가월젼부터、신구졍부를、탄히ᄒᆞ
ᄂᆞᆫ상소를、밧치라고、아[illegible]사공ᄉᆞ
관압헤、여러날을、엄드엿다가、상
소를밧지아니ᄒᆞᆫ바、할수업서ᄉᆞ、집
으로도라와잇더니、지자일에、대군
쥬폐하게서、부르심을、입어서、이
시ᄒᆞ엿더니、 ᄃᆡ군쥬폐하압폐서、
그상소를、읽으라ᄒᆞ시다니、읽기를
맛추미、나가잇스라、ᄒᆞ시더라ᄒᆞ더
니、그잇흔날또동씨가、아관으로갓
ᄂᆞᆫᄃᆡ、그비지가、엇더할넌지、아마
도、우비가、내리실뭇ᄒᆞ다더라、그
단례ᄒᆞᆫ、풍에서지필씨가、첫지라ᄒᆞ
더라

## ●又々捕縛開始

이삼일젼에[illegible]가、금작기、경무
쳥으로、잡혀가고、또지작일에、[illegible]
ᄉᆞ、[illegible]도、여시갓치、결박되얏
다
ᄒᆞᆫ사ᄅᆞᆷ인ᄃᆡ、작년[illegible]쯤에ᄂᆞᆫ、공
더리[illegible]에[illegible]ᄒᆞ야잇더라ᄒᆞ며、
[illegible]도 [illegible]ᄒᆞᆫ사ᄅᆞᆷ이라ᄒᆞ고
[illegible]ᄂᆞᆫ、젼에、경무쳥총순을ᄒᆞ야잇
섯다가、군부[illegible]의[illegible]ᄒᆞ얏든사
[illegible]이라더라、[illegible]ᄒᆞ야、갑소관들은、
쟉、이[illegible]박ᄒᆞ야、경무쳥으로、
갓치든일은、[illegible]란사ᄅᆞᆷ이、상소를
ᄒᆞᆫ일인에인연ᄒᆞ야、그리ᄒᆞ다ᄂᆞᆫᄃᆡ
、금후에、나가가、내[illegible]ᄒᆞᆫ든사ᄅᆞᆷ
들에셔[illegible]되ᄂᆞᆫ이、아직도、만
히잇다더라、그[illegible]가[illegible]ᄒᆞᆫ사ᄅᆞᆷ
은、엇지ᄒᆞᆫ다ᄂᆞᆫ고ᄒᆞ니、그[illegible]에말
은、一게왈、작편잡죄이십일외[illegible]
([illegible])에、일[illegible]을스른[illegible]은、원
훙[illegible]치아니ᄒᆞ고치못ᄒᆞ거나와、[illegible]가
[illegible]ᄒᆞ든、박ᄃᆡ영과、심상훈두씨ᄂᆞᆫ、
그만둘거시요、二에왈、그ᄃᆡ[illegible]之[illegible]
[illegible]를가지고[illegible]님에게、[illegible]
ᄒᆞᆫ관인들과、[illegible]ᄒᆞᆫᄃᆡ에、[illegible]
[illegible]을나리시게、졍연ᄒᆞ든[illegible]인、지
번ᄎᆡ아니치못ᄒᆞᆫ일이오、一에왈、
니각이며、각부의[illegible]에[illegible]되얏
든사[illegible]은[illegible]치아니치못할지라、그
예왈、그ᄃᆡ[illegible]ᄒᆞ야[illegible]ᄒᆞ든[illegible]은、
주이지아니치못ᄒᆞ게라ᄒᆞ다、그러
ᄂᆞ、팔결이십인、남니[illegible]에、연좌
된사[illegible]들은、ᄉᆞ연실[illegible]간에 그[illegible]
을ᄒᆞ지아니ᄒᆞ면、쏜팔[illegible]이신삼인에、
[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등은、다、그ᄯᅢ의
ᄃᆡ군쥬폐하가나리시든[illegible]인줄은、
그조츙을보와도、아ᄂᆞᆫ일이아니뇨、
또、젼보터、사ᄅᆞᆷ을잡ᄂᆞᆫ일은、흔히
[illegible]이아니뇨、이번에[illegible]
[illegible]은、[illegible]인이、그듯슬、알기어렵다라、
[illegible]ᄂᆞᆫ、맛당히、쇽키[illegible]판
[illegible]ᄒᆞ야、[illegible]인이[illegible]지발게ᄒᆞ시오

●[illegible]之[illegible](一[illegible])
[illegible]의ᄉᆞᄂᆞᆫ、일젼에、공리 (법국셔
울)에서、비셜ᄒᆞ얏더라、이[illegible]ᄒᆞᆫ
ᄂᆞᆫ、구명석을、보ᄎᆡ든대로、아삽오
[illegible]、그[illegible]을、동국[illegible] 셔만
[illegible]이 위싸나、공리셩은[illegible]
[illegible](一[illegible]) 물르고[illegible]ᄒᆞ얏든사
[illegible]에、ᄯᅥ러지고、드러잇ᄂᆞᆫ스、허다히、
몸속에、시방、아직[illegible]ᄒᆞᆫᄂᆞᆫ사ᄅᆞᆷ이、
세었든거신ᄃᆡ、그ᄯᅢ[illegible]이、공、타셩
[illegible]ᄒᆞ야、[illegible]에、죽ᄂᆞᆫ거슬、기다
려잇ᄂᆞᆫ스이가、구원이십삼일붓터
부인[illegible]이셔팔일서지에、그[illegible]에셔、
공[illegible]으로[illegible]나[illegible]ᄒᆞᆫ풍셜은、
며순비인ᄃᆡ、이풍셜은、다[illegible]ᄒᆞᆫ
가[illegible]잇셔서、[illegible]을[illegible]우든더시구
십일명이오、[illegible]가、삼백육십삼ᄀᆡ
요、[illegible]은、삼[illegible]만쟝을[illegible]
ᄒᆞ얏더라、[illegible]ᄒᆞ야、이[illegible]셔쇽에셔、두
ᄀᆡᄂᆞᆫ、바다에、ᄯᅥ러지고、다섯ᄀᆡᄂᆞᆫ
[illegible]에、ᄯᅥ러저잡히고、오십칠ᄀᆡᄂᆞᆫ
●안진ᄒᆡ、다른ᄃᆡ에、ᄂᆞ려서、각쳐로
가ᄂᆞᆫ[illegible]지며、도국리셩을[illegible]ᄒᆞᄂᆞᆫ모
양졀ᄎᆞ를、졍부로、[illegible]ᄒᆞ얏더라、그
ᄯᅢ、[illegible]지ᄂᆡ고、올나가ᄂᆞᆫᄃᆡ、[illegible]
[illegible]、두려워아니ᄒᆞ고[illegible]、나갓
ᄯᅳᆫ[illegible]이[illegible]이되얏더라、그[illegible]ᄒᆞᄂᆞᆫ[illegible]
[illegible]가、시방、사라잇ᄂᆞᆫ거시、ᄋᆡ순ᄒᆞ
명인ᄃᆡ、법국과타국[illegible]ᄒᆞ되、그
[illegible]라ᄂᆞᆫ거슬、[illegible]든거시ᄂᆡ
라

●[illegible]으로옴기건다 남경
[illegible]ᄂᆞᆫ、쟝지동씨가、신셜ᄒᆞ
얏든[illegible]을、어잔케、ᄃᆡ졉ᄒᆞ야、여
러ᄉᆞ졍、인연ᄒᆞ야、그군ᄃᆡ[illegible]
으로、옴기게되야、법셔、그[illegible]
[illegible]、동지방으로、명령ᄒᆞ얏다더라

●[illegible]이라 이남녀ᄂᆞᆫ、뎌
[illegible]되야[illegible]이、기ᄂᆞ린군ᄉᆞ이만
명과、[illegible]가、거느린병졍이[illegible]명
은、싸홈마다[illegible]ᄒᆞᄃᆡ[illegible]
[illegible]ᄂᆞᆫ、구량이[illegible]이、부족ᄒᆞᄂᆞᆫ대[illegible]

、미거에
싸우ᄂᆞᆫ[illegible]
훈령을내
게ᄒᆞ고、그
[illegible]
[illegible]편은
가퍼[illegible]
ᄃᆡ진ᄒᆞ기
[illegible]
내여주게
엽ᄃᆡ라
●[illegible]
미인에[illegible]
[illegible] 셔만
욕십ᄉᆞ[illegible]
엿ᄃᆡ라
●[illegible]之[illegible]
산 면ᄒᆞ
[illegible]ᄒᆞ야、그
에、병[illegible]
[illegible]이된다[illegible]
●[illegible]
세계상에
그[illegible]가[illegible]
●사사욕
이십우일
ᄃᆡ군부자
게、부학
잇거든、
비금서자
져돈ᄂᆡ오
자ᄒᆞ여서、
[illegible]취시
락ᄒᆞ고[illegible]
라든ᄉᆞ로
니ᄒᆞ나、한
돈을도로
돈[illegible]주던
지 마고、
다가、지작
、그쇠에드
다쥬고、변
그중담[illegible]
로가자고、
아니ᄒᆞ엿
[illegible]
밧기、
[illegible]
상고ᄂᆞᆫ、
국으로셔

、그때의 인총은、 아다뇨、 온、혼히 민에 [illegible] 락다라、 [illegible] 판 호시오 [illegible] (법국셔 [illegible]ᄒᆞᆫ 、마삽오 놀、둥국 [illegible] 허다히、 얏든사 사름이、 쿠、리셩 술、 기다 일본티 [illegible] [illegible]애셔、 [illegible]은、

[illegible]ᄒᆞᆫ故로 니시구 유심삼기 장을 [illegible] 셔、두 다섯ᄶᅢ는 십칠기는 、각쳐로 ᄒᆞ는모 더라、그 는ᄃᆡ、독 곳곳는 ᄒᆞᆫ、나갓 라、그 [illegible] ᄒᆞ되、그 、예순ᄒᆞᆫ 돈거시니 、신셥ᄒᆞ 남경 공야、여 뒤 [illegible] 그 [illegible] 얏다더라 너는、뎍 군수이만 졍이 [illegible] 명 [illegible] 편 [illegible] ᄒᆞ는대 군

、미지에 [illegible] 만ᄒᆞ고、이제 [illegible] ᄒᆞ다시 싸우는 [illegible] 업다고 ᄒᆞ야、[illegible] 경쳐부는 、혼령을 내여 [illegible] 은、[illegible] 게 ᄒᆞ고、그 병정 만 [illegible] 의 병정에 게 [illegible]、천々히 [illegible] 케 ᄒᆞ얏다더라、관병편은、이러ᄒᆞ되 [illegible] 는、그형세가、퍽 [illegible] ᄒᆞ야、삼만 명 병정으로는、데진ᄒᆞ기도、위티ᄒᆞ노라고 ᄒᆞ야 [illegible]、四川 [illegible] 及 湖北 [illegible] 으로、구와 병을 내여 주게 [illegible] ᄒᆞ얏다니、그 [illegible] 이 ᄀᆞ엽미라

● [illegible] 之 [illegible] 은、이 ᄇᆡ 삼십삼 [illegible] 션만 [illegible] 이라 ᄒᆞᆷ、구라파 사름、미인에、평균ᄒᆞ야 [illegible] ᄒᆞ면、미명에、육십ᄉᆞ [illegible] 씨 된다고 [illegible] 에、비엿더라

● [illegible] 之 [illegible] 평화ᄒᆞᆫ 때에、원셰계상에、병졍수는、삼ᄇᆡᆨ쳘십만명인ᄃᆡ、[illegible] ᄒᆞ야、그 [illegible] 과、기타、화약등을 게산 면ᄒᆞ로 [illegible] 는 [illegible] 은、[illegible] 만 [illegible] 이 된다더라

● 世界第一之大河 米國의 미존 [illegible] 는、세계상에서、데일되는、곤경인ᄃᆡ、그 [illegible] 가 [illegible] 되야 잇다더라

● 사사 유심이 현발ᄒᆞᆷ이라 지난달 이십유일에、군부외셔、병정을 ᄲᅡᆸ는데、군부장관、아모가 그 친ᄒᆞᆫ 사름외게、부탁ᄒᆞ여셔、돈 ᄂᆡ고 ᄲᅡᆸ 사름이 잇거든、몃명을 구ᄒᆞ라、ᄒᆞ여셔、이 빅금시자 [illegible] ᄒᆞ고、칠십여명인ᄃᆡ、언져 돈 ᄂᆡ오ᄂᆞᆫ자 만ᄒᆞᆫ지라、그말이 낭자ᄒᆞ여셔、그장관이、탈이 날줄알고 병뎡 취시ᄒᆞᄂᆞᆫ날、무ᄉᆞᆷ연고인지、칭탁ᄒᆞ고 [illegible] 그로나가스니、병뎡ᄒᆞ라든ᄉᆞ、[illegible] 들이、되는줄、알고 ᄎᆔ지ᄒᆞᆫ [illegible] 당에 드러갓다가、호령을 아니ᄒᆞ니、할수업서셔、그 잇든 날、그 돈을 도로 달나ᄒᆞ니、십일후에、오면 돈을 주던지、그 시에 병뎡을、시기던지 마고、그 친구가 [illegible] 답ᄒᆞ여、보닛다가、지작일에、또 병뎡 [illegible] 사 [illegible] 들이、그 시에 든 사름을、줄으니、본젼은 다주고、별니 돌달나고지 [illegible] ᄒᆞ노니、그 [illegible] 단 [illegible] 이 무수ᄒᆞ고、경무청으로가자고、ᄯᅡᆯ기도ᄒᆞ니、망신이 젹지 아니ᄒᆞᆫ엿다더라

● [illegible] 향인 [illegible]、셔문 밧긔、독닙공원지을、민간다는、소 [illegible]、낭ᄌᆞᄒᆞ므로 [illegible] 에 [illegible] ᄒᆞᆫ 청국 상고는、거긔 심근 [illegible] 자고、본국으로、여러 [illegible] 을、구ᄒᆞ야 보지고

、그 [illegible] 에게、그 [illegible] 을、[illegible] ᄒᆞ더니、그 실정은 모르나、청인의 [illegible] 에、만치감이、아모나라 사름도、못당홀비니라

● [illegible] 孝子之[illegible] 평양 [illegible] ᄇᆡᆨ 미사ᄂᆞᆫ、김인슈、[illegible] 란 사름은、다ᄒᆡᆼ、올히、십팔세오、집이 간난ᄒᆞ야셔、날마당、버려셔、서십니 무신 모친을 모시고 효셩을 극진히 갈ᄒᆞ야、그근쳐 사름은、그 효ᄌᆞ임을、곱으ᄂᆞᆫ 사름이어게 되야、효셩을 잘 ᄒᆞ야 지니더니、양녀지 난ᄒᆡ、십삼일 ᄭᅥᆺ、그모친이 병이 나셔、대단ᄒᆞ니、그 김가는 [illegible] 을 ᄒᆞ야 잇스므로、버는 일을 ᄒᆞ지못ᄒᆞᄂᆞᆫ 때문에、모친에게 약을 사셔 [illegible] 이 돈 [illegible] 이、엇셧 [illegible] 니라、[illegible] 은 사ᄂᆞᆫ슈 돈 업ᄂᆞᆫ 모양인즉、그근쳐 사름들이、날마다、[illegible] 돈을 가다주며、나무를 ᄒᆞ야 다 주며、기타 반찬 등、ᄒᆞ야 주기로、먹기는、[illegible] 들이 잘 먹엇스되、약을 먹입슈 업셔셔 [illegible] 안에、약집으로 가셔、모친의 병이 나오거든、내 몸을、이 집ᄒᆞ 인으로 [illegible] ᄒᆞ야、부리계ᄒᆞ야 주시고、약을 [illegible] ᄒᆞ야 달나고 [illegible] ᄒᆞᆫᄃᆡ、이 약 집 쥬인은、[illegible] 이 [illegible] ᄒᆞ야、돈을 가져 오면 주되、그렇치 아니면、못 주겟노라 ᄒᆞ니、눈물을 [illegible] 아、도라가셔、간병이나 ᄒᆞ자고 가는 ᄉᆡ、집근셔로 나와셔、김ᄀᆡ、도라 지ᄭᅩᆺ 혼거시、두어 ᄀᆡ、ᄯᅥ러져 잇셧스므로、가져와셔、그 남져녁에、도라진줄 알고、반찬ᄒᆞ야 먹이더니、그 [illegible] 붓터、모친이 [illegible] ᄒᆞ셧스ᄆᆡ、어인일인고ᄒᆞ더니、그 도라진줄 알고、반찬ᄒᆞ [illegible] 먹이든거시 [illegible] 도라지가 아니라、인삼이라、그러ᄒᆞᆫ즉、모친의 병이、[illegible] ᄒᆞ시든거시니、그 효조를、하ᄂᆞᆯ이、불샹히 녀기사 [illegible] ᄒᆞ시든거시라고、그 소문이、굉지히、낭ᄌᆞ 다니、츙 [illegible] ᄒᆞ놈이、그 효셩을 감동ᄒᆞ사、그 [illegible] 구ᄒᆞ야 주시든거시니라

● [illegible]

오래 도록、묘부인 젼을 [illegible] ᄒᆞ시ᄆᆞᆯ어 더셔 [illegible] 가、고맙게 알고、이를、감ᄉᆞ 말이 업셧는ᄃᆡ、그묘부인 전도、[illegible] 가 되엿스니、[illegible] 국치ᄌᆞ미 잇고 [illegible] ᄒᆞᆫ 만 申進 十冊 [illegible] 이란 니야기 ᄎᆡᆨ、[illegible] 윤 [illegible] 히 오니、[illegible] 이 [illegible] ᄒᆞ야 주시믈 [illegible] 옵노라

## 官報抄錄

[illegible] 主事 [illegible]

陞敍判任官四等

七月三日

敍任及辭令

王太子[illegible] 金[illegible]

秘書院丞 鄭日永

[illegible] 宋明[illegible]

[illegible] 金[illegible]

依願免本官 [illegible] 閔丙[illegible]

任 [illegible] 院 [illegible] 敍勅任官三等 [illegible] 李[illegible]

任 [illegible] 敍判任官八等 李[illegible]

任 [illegible] 敍判任官八等 李白[illegible]

任 [illegible] 敍判任官八等 [illegible] 主事 [illegible]

[illegible] 主事 朴[illegible]

[illegible] 主事 李[illegible]

陞敍判任官九等 度支部主事 白[illegible]

依願免本官

以上七月六日 金[illegible]

任 [illegible] 院主事敍判任官六等 宋[illegible]

任 [illegible] 吳[illegible]

免本官

以上七月七日

[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에 [illegible] 치못ᄒᆞ미 [illegible] ᄒᆞ기로 以후 [illegible]

(七月四日 [illegible])

## 社告

[illegible] 이로 [illegible] 에 [illegible] 되얏스미 [illegible] 에 [illegible] 一兩二錢五 [illegible] 先給 [illegible] 으로보니시면 [illegible] 에 보니옵

[illegible]

一張 一錢三分

一朔 先給 一兩二錢五分

三朔 先給 三兩五錢

六朔 先給 六兩七錢五分

[illegible]

[illegible]

ᄒᆞᆫ즁을ᄒᆞᆫ번내는 거시 三[illegible] 이요 [illegible] 로 곳 차셔 갑 슬업 밧고 [illegible] 도 션금으 밧ᄉᆞ로옵

同じく[illegible]たし[illegible]居たり[illegible]海岸は[illegible]武府[illegible]諸氏[illegible]及の依頼は同[illegible]将之れ此説は国[illegible]組織一府[illegible]ざるべか[illegible]なり[illegible]てを敷し[illegible]ことを請[illegible]く内[illegible]るものは[illegible]を試し[illegible]らずに[illegible]施行りし[illegible]物及び[illegible]福岡川[illegible]からず[illegible]の爪牙[illegible]を知[illegible]正大[illegible]るべか[illegible]たく[illegible]前に[illegible]に入路[illegible]臣大に[illegible]むるく[illegible]の突然[illegible]の根本[illegible]て之を[illegible]すべき[illegible]内した[illegible]は急[illegible]順せる[illegible]等を[illegible]依然殺[illegible]商、李[illegible]は北[illegible]而く過[illegible]便許可[illegible]所留地[illegible]人を殺し[illegible]日本は[illegible]の開部[illegible]て在の[illegible]上り来[illegible]は此程[illegible]氏は

日下滞在して開外に[illegible]を云ふ
○朴[illegible]氏[illegible]は前日来滞在[illegible]依頼せるが別紙記載の如く我和宮殿下同地に避暑遊覧せらるゝを以つて出迎の為め大坂に赴き因つて[illegible]公使館員も[illegible]受領の途を出し公使館を同途上殿下を[illegible]出迎へ殿下に随ひて[illegible] [illegible]ら当地寄人[illegible]は近く帰国すべし[illegible]ずるものあらんが其の資金[illegible]氏は須臾し来り今や寄宿同じ所[illegible]大尉[illegible]氏に別途[illegible]くなんがり決じめ本ヶ月を約せんとせしは其方の仲介にて四ヶ月を約せり又和宮殿下出迎の大将数隊、[illegible]で[illegible]、艦船は他食器など[illegible]と見え之を携へて開口[illegible]に知らしめき此れべし氏は日々東京大坂京都等の新聞紙を読む等を見ても其の急に敵情を察するを知るを一切突とかし[illegible]おりて政談をなせは忽ち頭みて他をいひ只宗教の事など語るのみ米国より退へ来れる宣教師は開城[illegible]と述ぶるあり[illegible]とあり

## ●開城飛報

[illegible]に犯せし親属の発程[illegible]山を前れ此に開城[illegible]関係者よりの報道なりと聞きしが此事に就き開城[illegible]三大殿(開城)より京城支部に報告し来り此等のは又之を報ぜられり今其全文を左に掲ぐ

伊川[illegible]報起

去月下旬伊川郡伊川郡(開城管轄)に対し[illegible]府を去る凡十五里)に暴民起らんとする機微ありしも左したることもなかりしに今や暴徒数[illegible]民は深く注意もなさゞりしは去る三十日夜凡五百名もわらん一隊の暴民不意に郡衙を襲ひしかば郡守は[illegible]す能はず知らず郡守逃して本月二日京城府へ来到し急使と中央政府に訴し其指揮を仰がれり郡守の言ふ所に由れば彼暴徒は郡衙を[illegible]しめ其余勢を以て直に開城府をも侵さんとす故に見へし由なるも府昨三日京城よりの報に依れば此暴徒の一隊之を[illegible]すべく取り近郊なる所々へ赴きこのことにて此報を得されば明今両日の警察部へも[illegible]此報を受取りし我京城二大隊は[illegible]を[illegible]他の状況を探査し以て其必ずあるのときは[illegible]んと準備せし中本日午後五時四十分京城より行商人保護として我官十名[illegible]四十名[illegible]に派遣せられ[illegible]を持ち急行せしめられ今時は仁川領事館より此の事件調査の為め急派せられし巡査七名外巡査補三名も開城府より此に来る行商人の帰途を保護する事になり此の事件は未だ一も府下在留人間に伝らずと見へ平穏前の如くなり[illegible]氏は本城に我行商人の住居へ(三戸)

此府開城居来候

余は後報

在開城[illegible]

京城支部長和田常一殿

第二大隊[illegible]

●兇と強盗に訴ふ　京城[illegible]竹山、利川地方の人民[illegible]に発起の為め酒食を掠奪され[illegible]して[illegible]所の[illegible]兵卒に[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中[illegible]出でたり[illegible]
●三[illegible]　去月三十日宮中にて授与式あり其日各員[illegible]の次第を[illegible]に三列に伺候し[illegible]せられし[illegible]
●[illegible]不明の[illegible]人　[illegible]なる[illegible]は[illegible]きたる[illegible]せるより[illegible]郎よ内田[illegible]の附人之れが[illegible]の為め同地へ赴き此の程かへり来りしが今其の語る所なりと云ふを聞くに[illegible]九日と[illegible]る地の[illegible]上[illegible]の所作船と[illegible]て[illegible]見し[illegible]たるに[illegible]船に[illegible]二[illegible]を除く外人影は勿論在留の物品とては」も[illegible]せる者なく[illegible]とありて已に久しきを見受けたれば[illegible]へ[illegible]一[illegible]人に就て[illegible]を尋ねたるに[illegible]月四日我十一月十日同地を[illegible]一[illegible]の[illegible]此の[illegible]九月の[illegible]上[illegible]谷を[illegible]する地の[illegible]の[illegible]の[illegible]し[illegible]たるを[illegible]木村に[illegible]し来りしに依り木村よりは[illegible]之を[illegible]中に[illegible]で[illegible]は[illegible]木村の[illegible]

[illegible]して[illegible]が[illegible]の如き始中に[illegible]し居たる由にて伊川[illegible]の食[illegible]し其他の[illegible]の[illegible]へなるに付き[illegible]を[illegible]と見んと求めたるに村内各[illegible]に一品乃至二品位宛[illegible]し居る由にて各[illegible]より持出し来りしと見ゆる[illegible]又[illegible]に[illegible]其他の状況を[illegible]すれば[illegible]して何事とも[illegible]して[illegible]するに[illegible]三郎は[illegible]八[illegible]を所持し居りしに付き[illegible]人談つて同人を[illegible]し[illegible]を[illegible]して[illegible]たるものと思はる云々

●陸官の心術　此の程各陸[illegible]部員[illegible]氏各[illegible]を[illegible]して陸上の[illegible]を[illegible]せしに[illegible]陸[illegible]は二十[illegible]、少きは十[illegible]の[illegible]し由にて同氏は[illegible]なる[illegible]を[illegible]し[illegible]日[illegible]へ[illegible]は[illegible]等の[illegible]もなき由なれども各陸官等は此際[illegible]不服なるは[illegible]の[illegible]べきものなれば何れ[illegible]から[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して[illegible]分あるべしとて何にも[illegible]し居れりと云ふ

●兵士の[illegible]　[illegible]の[illegible]日兵十[illegible]の時かはく[illegible]し[illegible]二[illegible]の人を[illegible]托し人[illegible]に二[illegible]を以て[illegible]士の[illegible]りしに之を[illegible]ひ及び[illegible]はんと[illegible]する[illegible]七十[illegible]せり[illegible]るに[illegible]れ[illegible]を[illegible]るの[illegible]し、[illegible]、[illegible]政府に[illegible]北[illegible]か[illegible]数十名[illegible]百余に[illegible]地へ[illegible]しと迫り子の利息を[illegible]山[illegible]ん方なく[illegible]北[illegible]て[illegible]を謝し数日を限りて[illegible]と云ふ

●[illegible]　[illegible]二十二人の[illegible]人をけし[illegible]

●心術[illegible]　此[illegible]中の[illegible]は内田[illegible]加藤[illegible]若松[illegible]
●又　当[illegible]が[illegible]は昨日[illegible]より内田[illegible]に招待して送別の宴を[illegible]たり
●内田[illegible]別の宴　[illegible]の如く内田[illegible]は二[illegible]公使館員、守備隊将校、[illegible]政府の[illegible]官、[illegible]官、郵便局員、[illegible]役員、小学校教員、[illegible]会議所[illegible]員、居留民会議員、及居留民中の重立たる者都合八十名を[illegible]内に招待して送別の宴を張られたり[illegible]天[illegible]をなして其前途を以て之に充て其の周囲及び[illegible]には無数の[illegible]を[illegible]し又[illegible]火を点して四囲を照らし入口には[illegible]大の[illegible]を交叉し其他諸般の装飾[illegible]を[illegible]めたり八時前後には[illegible]する者以下[illegible]に[illegible]かれて[illegible]に入り先づ[illegible]の挨[illegible]

[illegible]三回を[illegible]つて[illegible]したりと云ふ

●外国人の[illegible]　三[illegible]海[illegible]の為め仁川[illegible]る[illegible]は[illegible]を仁川[illegible]長オスボン氏は[illegible]十[illegible]を、同[illegible]長ウォート氏は[illegible]を[illegible]は[illegible]二[illegible]国と[illegible]したりと云ふ外国人間には此の如し邦人豈に[illegible]たるべけんや

●各国水兵[illegible]　去る四日米国独立記念祭の際仁川にては同港碇泊中なる各国軍[illegible]の[illegible]しありたり今其の勝負の概略を記さんに[illegible]は日本水兵と英国水兵との[illegible]にて米国[illegible]を[illegible]とし英国[illegible]を終点[illegible]しが[illegible]日本水兵の勝利に[illegible]、[illegible]、英国、日本の[illegible]にて米艦を[illegible]として英、[illegible]、日の三艘にてせしに英国水兵の勝利にして第三回は露、米、英、日の四艘にて[illegible]の競争をなしたりしに露国水兵の勝利に帰したり[illegible]には食品を与へしが[illegible]の[illegible]は[illegible]の賞[illegible]たりと云ふ

●[illegible]又た来る　去る四日[illegible]より入港の[illegible]丸にて十二名の[illegible]又々来韓したり

●[illegible]の任命　宮内府[illegible]内署[illegible]氏は[illegible]に任ぜられたり

●[illegible]の[illegible]　[illegible]一[illegible]氏は此[illegible]りしは聞き届けられず

●[illegible]の[illegible]　[illegible]氏は[illegible]上不[illegible]の[illegible]とて此[illegible]せられたり

廣告

# 日本郵船株式會社
## 瀛船仁川出帆廣告

**肥後丸** 八百七十二噸 七月十六日出港同十五日入港 芝罘大沽牛莊行 船長 ［illegible］

**玄海丸** 八百七十四噸 七月十四日出港同十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船長 茂木則之

**豐島丸** 六百八十九噸 七月十八日出港同十七日入港 釜山下ノ關神戶行 船長 井上保三郎

**薩摩丸** 千四百五十七噸 ［illegible］ 船長 ［illegible］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七月十六日入港 ［illegible］ 元山［illegible］行 船長 ウイルソン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 大阪商船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隅田川丸** 六月 日入港 六月 日午前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二見丸** 六月 日入港 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筑後川丸** 七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信濃川丸** 七月 日入港同日午前十時出港 釜山下ノ關神戶大阪行

**白川丸** 七月 日入港同日出港 釜山 ［illegible］ 大阪行

**木曾川丸** 七月十［illegible］日入港 ［illegible］ 大阪行

# 仁川商客取扱所

［illegible］

明治二十九年七月

# 京城支部

# 第貳會正風集題

# 人花

# 秋園 ［illegible］

# 寄限

# 投込所 正風會

［illegible］

# 公告

當銀行ハ［illegible］五月十七日［illegible］本年九月二十六日［illegible］

# 株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シ資本金ヲ四百五拾萬圓ニ增加

［illegible］

明治二十九年七月

# 第一國立銀行

# 貸借對照表

［illegible］

# 財產目錄

［illegible］

# 生魚 生肉に優さる夏の衛生料理

◉飯 蒸 魚
◉あ な 鯛
◉い わ し
◉さ け
◉佃 煮
◉松 た け
◉竹 の 子
◉伽 羅 ふ き

◉茄子辛子漬
◉八千代卷
◉時 鳥 卷
◉時雨紫卿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 神 漬
◉其他罐詰各種

［illegible］

# 無類大白目ノ身

［illegible］

# 岩崎佐源太

［illegible］

# 朝鮮發

［illegible］

# 地

［illegible］

# 銃 砲 着荷 廣告

［illegible］

百五拾

銀行

[illegible]

總屋分店

[illegible]

獵銃

荷着廣告品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獵銃附屬品

石川商會

護謨履
長履
西洋服各種
帽子

地球印藥用フダウ酒効能書

[illegible]

一地球印フダウ酒

[illegible]

發賣元　伊部商店

朝鮮國特約店　隈本商行

帝國生命保険株式會社

[illegible]

太

[illegible]

綿店加一

[illegible]

鍼灸術按摩療治

[illegible]

久田安生堂

[illegible]

阿津阪商店

梯鐵造

[illegible]

宮田種德堂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田原旅館

一朝鮮飴

[illegible]

小林菓子製造所

飲料水適否檢定ノ依賴ニ應ズ

漢城病院

[illegible]

旅館　東京館

[illegible]

和漢洋藥廣賣

[illegible]

成尾安五郎

入荷廣告

一皮座蒲團　丸形　角形
一夏麥帽子　色々
一日本人向朝鮮向石鹸

右新着廉價販賣仕候條多少に不係御用被仰付度奉願候也

鈴木大阪堂支店

[illegible]

發行所　漢城新報社

(明治廿八年三月□日 遞信省認可) 大日本明治二十九年七月二十日(日曜日) 第二百五十一號 大朝鮮建陽元年七月二十日 (建陽元年一月廿二日 農商工部認可) (一)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親和宮殿下之近狀 동경에계옵시든
외화궁뎐하는、이번에
로(이뜻은、아제아등에서、데입
되고、금지히가、됴흔뜻이미、각
당사로、일본문나와서
으로、나가는뜻이라)로、가셧는뒤、
그저平服으로、뒨기시든가닥으로、
각쳐로、가시든뒤마닥、경무관과、
순검과私服순검이、오륙명이、모시
고ᄒᆞ야、박영효씨가、그긔별을
듯고、져지、마지러가셔、갓치
모시고로갓다는뒤 殿下는、
처음에이신가ᄒᆞ고、그가격
졍을ᄒᆞ더니、감긔로、계옵시미、
가、됴흔뒤로가셔도ᄒᆞ시고、
십ᄉᆞ오일만、지니고、동경으로、도
라가옵시겟다더라、또본국의셔
ᄒᆞ옵시게、긔별이나왓든일도잇든
모양이로되、은、아니ᄒᆞ게다ᄒᆞ
야계옵시다더라

●延亦可笑
ᄒᆞᆫ자에、수조로、긔지ᄒᆞ얏든대로、
ᄒᆞᆫ됴션사ᄅᆞᆷ이、우수운을내
여셔、공ᄉᆞᄒᆞᄂᆞᆫ
젼동근쳐ᄂᆞᆫ、히을엄히ᄒᆞ며
、진고기셔붓터、남대문이며、못산
으로무수ᄒᆞᆫ을、니여두엇다
니、춍、우습지아니ᄒᆞ뇨

●松都飛報
젼에、긔지ᄒᆞᆫ、쳘원에니러난폭
도가을치고、또히、송도를
ᄒᆞ려ᄂᆞᆫ모양이잇다ᄂᆞᆫ일은、그관
찰ᄉᆞ가ᄒᆞ든거시라ᄂᆞᆫ뒤、이일
로、거긔잇ᄂᆞᆫ이란에셔
보고ᄒᆞ야왓스니、좀、젼에일파、
다르니、그을긔지ᄒᆞᆷ

●伊川暴徒
「양녁지난달」그믐게쯤에、가진도
명伊川郡에、폭민이、봉긔ᄒᆞ려든모양
이잇셧스되、파히、거졉ᄒᆞᆯ거시업서
셔、그럿턴지、군슈、범로
도아니ᄒᆞ야잇더니、그그믐날밤
에、오비명이、되ᄂᆞᆫ이、또받고
률ᄒᆞ리왓스나、군수ᄂᆞᆫ、두려워、
져치ᄒᆞᆯ바를몰으다가、혼자、도망ᄒᆞ
야、계우、이튼ᄂᆞᆯ에로、나와셔、
곳셔올노올나보니고、그지
휘ᄒᆞ기다리더라、그리ᄒᆞ고、그군
슈에말에ᄂᆞᆫ、그놈들도몰이
ᄒᆞ고、가지고、이용도
ᄂᆞᆫ、진습ᄒᆞᆯ경황인못ᄒᆞ더니마ᄂᆞᆫ、작
일三日에、이쳔외셔、나온긔별에ᄂᆞᆫ
、그후에、그놈들이、확히도편의
로가셔、신계로갓더라고ᄒᆞᄂᆞᆫ후에、
소식이업슨즉、의모양은、알
슈업ᄂᆞᆫ지라

아이에、이긔별을들은즉、곳、그쥰
비마련을ᄒᆞ야、의동졍을
야잇ᄂᆞᆫ、금일오후다섯시반에셔
의셔、人순보호ᄎᆞ로
가、순ᄉᆞ십명다리고
마자ᄒᆞ야주시고、인쳔녕ᄉᆞ
관에셔도、이일을게、보니시든
순ᄉᆞ칠명과、됴션순검세명도ᄒᆞ
니상고가、비로소、안도ᄒᆞᆷ을어덧더
라
이은、아직에게、소문이
업서셔、그러ᄒᆞᆫ지、조곰도ᄒᆞᄂᆞᆫ
모양이업더라ᄂᆞᆫ더라

● 청국정부ᄂᆞᆫ、향
자에、일본으로、류학성도를、업여
섯명을보니여、케ᄒᆞ얏다ᄂᆞᆫ뒤、
또다시、과、경비성은、오십칠
명을、보니게되얏다ᄂᆞᆫ뒤、그ᄂᆞᆫ、각
아교마다、三十식드려셔、공부케ᄒᆞ
뒤、문명ᄒᆞᆫ술을、비우ᄂᆞᆫ일에、구라
국셔지、보니지아니ᄒᆞ야도、일본에
셔케ᄒᆞᄂᆞᆫ거시、부비도、덜들고、
오히려ᄒᆞᆯ비만타고、그리되얏든
거시라더라

●人 지난번신문지에、사나히
를、실타ᄂᆞᆫ人일을긔지ᄒᆞ얏거니와
、시방、또、에、긔지ᄒᆞ야잇ᄂᆞᆫ
、계집을시러ᄒᆞᆫ에말을、번역ᄒᆞ
야、긔지ᄒᆞ니、유명ᄒᆞᆫ化學士「뎬리가
번지드시」란사ᄅᆞᆷ은、계집을시러
ᄒᆞᄂᆞᆫ일에도、평、일흠이잇ᄂᆞᆫ사ᄅᆞᆷ인
뒤、녀편네ᄒᆞ고、말을ᄒᆞᄂᆞᆫ일을、아
주ᄒᆞ야、그「우만헤다
ᄒᆞ다ᄂᆞᆫ말이라)라고、지여셔、ᄒᆞᆫ
긔에、부득이ᄒᆞ야、혼인ᄒᆞ야、녀편
네를어덧스되、아주、말도아니ᄒᆞ고
의논ᄒᆞ여야、되ᄂᆞᆫ일이나면、편지
로、의논을ᄒᆞ거나、또등간에、사ᄅᆞᆷ
을드려셔、의논을ᄒᆞ얏고、ᄒᆞᆫ규
칙을세워셔、엇던ᄉᆞ졍이、잇슬지라
도、녀편네가、그로、못드러오게
ᄒᆞ야、두엇다더라、또국、셔울
「위인나」에셔、향자에、죽엇든
ᄂᆞᆫ、역시유명ᄒᆞᆫ、녀편네를、시려ᄒᆞ
ᄂᆞᆫ사ᄅᆞᆷ인뒤、평싱에、녀편네ᄒᆞ고
를아니ᄒᆞ고、구경ᄒᆞᄂᆞᆫ
ᄂᆞᆫ、져후좌우를、널니잡고그가온뒤
에、산자셔녀편네가、갓가히오지말
게、그리ᄒᆞ고、길을갈때ᄂᆞᆫ、(화
륜거)의一을아주사셔두고、다른
계집이、아니오게ᄒᆞᄂᆞᆫ거시오、거러
셔、길을갈때ᄂᆞᆫ、ᄒᆞᆫ길을가셔、
계집을못뵈게피ᄒᆞ야가뒤、이사ᄅᆞᆷ
은、금세상에셔、계집을、시러ᄒᆞ얏
슬ᄲᅮᆫ아니라、죽고장ᄉᆞ를ᄒᆞ든후에、
그무덤근쳐에、의못지말게、
수비자ᄉᆞ방의을사셔、그가온뒤
에、그들미장ᄒᆞᆫ세ᄒᆞ야더라、
ᄒᆞᆫ나ᄂᆞᆫ、영국자에、시방、금직
히、계집을ᄒᆞᆫ사나히가、사ᄂᆞᆫ뒤、
이사ᄅᆞᆷ은、집이부자요、낙ᄉᆞ히지니
ᄂᆞᆫ고로、허다히을두엇스되、그
문안으로、오난계집이라도、ᄂᆞᆫ、
아주、못드러오게ᄒᆞ고ᄌᆞ그도장ᄀᆞ
안들고、못ᄒᆞ등이、다、사
나히가ᄒᆞ뒤、그부란의동싱이라
、보러오지못ᄒᆞ게、ᄒᆞ야、그
렬소분이나、잇스면、곳ᄒᆞᆫ다더
라、또영국에살고、계집을ᄒᆞ
ᄂᆞᆫ사나히ᄂᆞᆫ、그ᄒᆞ야、사나히동
싱만、그을、노ᄂᆞᆫ가지라고을
ᄒᆞ야코、ᄒᆞ나ᄂᆞᆫ、에셔사든、계집
을ᄒᆞ든사ᄅᆞᆷ인뒤、항상에、계집
을、보기굿치알고、금직히、독ᄒᆞᆫ
사ᄅᆞᆷ이더니、ᄒᆞ며당ᄒᆞ야、그
드라、그을、원동
로ᄒᆞ얏다고

●之 지나간、나흔
날의、미국두며、인쳔항구에
ᄒᆞᆫ、각국군함이、공동ᄒᆞ야
을ᄒᆞ얏더라、시방、그승부ᄒᆞᆫ의
을、들어슨즉、긔지ᄒᆞ니、쳣번에
ᄂᆞᆫ、일본
뒤、미국
군함을
본슈병、
사、영국
을으
逆ᄒᆞ더니
지ᄂᆞᆫ、아
小가、
이利되
든、온、

●外國人
로、
行은、일
십원이。
오원을

●
뜻의
ᄒᆞ고、드
그과
ᄒᆞᄂᆞᆫ일이
이와、비
되ᄂᆞᆫ뒤
비둘기
져ᄂᆞᆫ、그
함기、나
주니것

경상도、
너、승은
손인뒤、
상ᄒᆞ야、
으로군보
유명ᄒᆞ더
나흐니、
명낭ᄒᆞ더
즁ᄒᆞ고、
붓터큰그
고、그집
이우히에
라、공부
취질장ᄒᆞ
도를、졍ᄉᆞ
외、연원으
젹ᄉᆞᄒᆞᄂᆞᆫ
에긔상과
의、을나이
에、세상이
ᄒᆞ고、향

논일에、아헤다 (완) 셔、[illegible]하야、너편고아니ᄒᆞ고가면、편지는에、사ᄅᆞᆷ、쏘ᄒᆞᆫ규잇술지라스드러오게국、셔울엇든[illegible]ᄒᆞ시려ᄒᆞ네ᄒᆞ고[illegible]그가온ᄃᆡ히오지말、秘密(화고、다른시오、거려를을가서、、이사ᄅᆞᆷ시려ᄒᆞ얏든후에、시지말게、그가온ᄃᆡ야더라、방、금직사ᄂᆞᆫᄃᆡ、시히지ᄂᆡ스되、그李ᄂᆞᆫ、도장가、다、사동싱이라야、ᄒᆞᆨ그放ᄒᆞᆫ다더에、[illegible]사나히동[illegible]고[illegible]을든、계집에、계집히、독ᄒᆞᆫᄒᆞ야、그罪[illegible]會나간、나ᄒᆞᆫ젼항구게ᄒᆞ야小[illegible]승부ᄒᆞᆷ의、첫번에

는、일본水兵과、영국슈병의、戰爭인ᄃᆡ、미국군함을保護ᄒᆞ로ᄒᆞ고、영국군함을救援으로ᄒᆞ야、關係ᄒᆞ더니、일본슈병이勝利되고、두번지ᄂᆞᆫ、아라사、영국、일본의三小艦가、미국군함을征服으로ᄒᆞ야、英國의세군함을圍逆ᄒᆞ더니、영국슈병이勝利되고、세번지ᄂᆞᆫ、아라사、미국、영국、일본의四小艦가、[illegible]ᄒᆞ더니、아라사슈병이勝利되얏다더라、그날[illegible]에게주든ᄒᆞᆫ、이삼권씩을주엇다더라

●外國人之勝利 일본동북부[illegible]城로、보니여달나고、인쳐외[illegible]行은、일번원이오、인천[illegible]오스번[illegible]십원이오、구든온센ᄃᆡ」[illegible]ᄂᆞᆫ、이십오원을[illegible]ᄒᆞ얏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예스도흐리으」란ᄯᅡ의[illegible]ᄒᆞ고、그옷집의[illegible]ᄒᆞ고、두집쥬인이、나기를ᄒᆞᄂᆞᆫᄃᆡ、그[illegible]가、어ᄂᆞᆫ거시、ᄲᅡᆯ리가느냐ᄒᆞᄂᆞᆫ일이라、그두사ᄅᆞᆷ은、변、열무맙기와、비둘기、연두맙을구지고十二圓되ᄂᆞᆫᄃᆡ로가셔[illegible]ᄒᆞ니、첫번에ᄂᆞᆫ、비둘기보다、一[illegible]을먼져가고、두번지ᄂᆞᆫ、그별달파、비둘기가、ᄯᅩᆨ갓치함긔、나왓다ᄒᆞ므로、그[illegible]이가、아주니것다더라

## ●申進士問答記 (一)

경상도、안동ᄯᅡᆼ의、사죡ᄒᆞᆫ집이、잇스니、승은신씨라、신장군슉당공의ᄌᆞ손인ᄃᆡ、세ᄉᆞ장영지가로、ᄒᆞᆨ힝을숭상ᄒᆞ야、효우가밧탕이、되고、충신으로근본을삼어、일향에、법가로、유명ᄒᆞ더라、일죡이、은둔ᄒᆞ나、ᄒᆞᆫ나흐니、골격이쥰슈ᄒᆞ고、미목이、명낭ᄒᆞ더니、차차자라미、총명이출중ᄒᆞ고、긔상이비범ᄒᆞ야、어렷슬ᄯᅢ붓터큰그릇신줄、사ᄅᆞᆷ마다허예ᄒᆞ고、그집안의셔도、션ᄉᆡ의、슈치를이으、회에게、와셔ᄂᆞᆫ、씨스리라ᄒᆞ더라、공부를시작ᄒᆞᆫ후에ᄂᆞᆫ、ᄒᆞᆨ문이입취월장ᄒᆞ야、예젼승현의、오묘ᄒᆞᆫ、도를、졍일히강구ᄒᆞ야、퇴계니션싱의、연원을、이을줄노쟈임ᄒᆞ고、우명책ᄉᆞᄒᆞᄂᆞᆫ、언론이、준절ᄒᆞ야、밍ᄌᆞ에긔상과、방불ᄒᆞ더라、일죡이경ᄉᆞ의、올나와셔、대ᄒᆞᆨ、진사외샹ᄒᆞᆫ후에、세상이、인지를ᄡᅳ지못ᄒᆞᆷ을탄식ᄒᆞ고、향쟈의도라와셔、ᄒᆞᆨ업을닥그니、ᄒᆞᆨ식이대진ᄒᆞ야、더어이、승현에비향ᄒᆞᆷ만ᄒᆞ고、문장이、일셰의탁월ᄒᆞ야、유도에거벽이요、ᄒᆞ진의스승일너라、겸ᄒᆞ야、승리와、긔슈에、공부가도져ᄒᆞ고、듀역에、음양변동ᄒᆞᄂᆞᆫ라치를、ᄒᆞᆼ루이세다르니、일온바동리군ᄌᆞ일너라、일동일졍이、법식에맛지아ᄂᆞᆫ거시、업고、진퇴주선이、모다졀ᄎᆞ의합당ᄒᆞ며、말ᄒᆞᆫ마듸가、헛말이업고、우숨ᄒᆞᆫ빈욕공연이웃지、아니ᄒᆞ니、넌리가、화ᄒᆞ고、일향이、법바더셔、의양ᄒᆞ지안ᄂᆞᆫ쟈ㅣ업서셔、아모리어려운날파、의심된말이라도、신진사의말ᄒᆞᆫ다듸면、진중이되야셔、히ᄒᆞᆨ은ᄒᆞ더라、신진사가、져션ᄒᆞᆫ이[illegible]상의、ᄒᆞᄂᆞᆫ말이、일본국이、히도즁나라으로、됴션보다、얼마크지못ᄒᆞ고、더구나、언ᄒᆞᆨ지못ᄒᆞ여서、더커지지못ᄒᆞᆫ나라이여ᄂᆞᆯ、됴션으로、더브러가쟝ᄭᆺ가온ᄃᆡ、쟈고로、일본은、강ᄒᆞ고、됴션은、약ᄒᆞ여서、그침범ᄒᆞᆷ을、당ᄒᆞᆫ젹이、적지아타가、지어임진ᄒᆞ야ᄂᆞᆫ、일국이、거의멸망ᄒᆞ엿다가、겨우회복ᄒᆞ엿스니、비단내집의만、세슈원바ㅣ아니라、즁국에슈치가、쳔추만ᄃᆡ의업서지지、아니ᄒᆞᆯ거시라、엇지ᄒᆞ면、ᄒᆞᆫ번소원을드듸여셔、나라의슈치를、씻고、창싱의원심을쾌히ᄒᆞ리요、언론이항샹이ᄀᆞᆺ치쥰졀ᄒᆞ거ᄂᆞᆯ、못ᄂᆞᆫ스ᄅᆞᆷ이감개치아니케、너기ᄂᆞᆫ사ᄅᆞᆷ이업스되、그즁에、신진사친구ᄒᆞ나히잇스니、니ᄒᆞᆨᄌᆞ라칭ᄒᆞᄂᆞᆫ사ᄅᆞᆷ인ᄃᆡ、숑무공에、후예라、위인이、몽후관대ᄒᆞ고、문쟝덕업이、일세의、유명ᄒᆞᆫᄃᆡ、신진사와더브러、교분이、형뎨와셔、무터워셔、신진사ᄂᆞᆫ관즁、비ᄒᆞ고、니ᄒᆞᆨᄌᆞᄂᆞᆫ、포숙의비ᄒᆞᄂᆞᆫᄃᆡ、둘이다제세안민ᄒᆞᆯ방칙이、너무ᄒᆞ더라、니ᄒᆞᆨᄌᆞᄂᆞᆫ、깁히신진사를밋고、그비범ᄒᆞᆫ식견을、항상이、아ᄂᆞᆫ지라、미양신진사의、언론을、들으면、깁히탄복ᄒᆞ고、그셜치ᄒᆞᆯ방칙을、외논ᄒᆞ시、신진사가、골ᄋᆞᄃᆡ、우리가、가령당로ᄒᆞ야、정권을、ᄒᆞ야도、일본의、방편을、실샹아ᄂᆞᆫ쟈ㅣ업ᄂᆞᆫ지라、무ᄉᆞᆫ경륜을、ᄒᆞ여보리요、옛말에ᄒᆞ엿스되、지피지긔ᄒᆞ면、빅젼빅승이라ᄒᆞ엿스니、내가맛당히、일본에건너가셔、형편을ᄌᆞ셰히、보고도라오리라ᄒᆞ거ᄂᆞᆯ、니ᄒᆞᆨᄌᆞ가、골ᄋᆞᄃᆡ、여번ᄭᅳᆺᄂᆞᆫ거시、ᄒᆞᆫ번보ᄂᆞᆫ니만、ᄀᆞᆺ지못ᄒᆞᆫ지라、형의지조와、식견으로、치히보고、도라오면、반ᄃᆞ시크게으ᄃᆡ、잇슬터이니、심히맛당ᄒᆞᆫ경륜이로다ᄒᆞ고、서로작별ᄒᆞ고、건너갈ᄉᆡ、도라오ᄂᆞᆫ긔한은、ᄉᆞ계를、보아서ᄒᆞᆯ게로ᄃᆡ、슈년의지나지、아니ᄒᆞᆯ줄노알고갓더니、비를나려서、못히을은ᄉᆞ、산쳔이、슈려ᄒᆞ고、풍속이졍졔ᄒᆞ야、혜아리든、밧기라、크게놀니여셔、마음에탄식ᄒᆞ고처음에ᄒᆞᆨ교로들어셔、언어를、공부ᄒᆞᆫ후에、다른ᄒᆞᆨ업을、만히ᄒᆞ고、됴졍의법률과、[illegible]두쳐이며、빈관의용명ᄒᆞᆷ으로、ᄎᆞᄎᆞ시졍에구모며、여럼와풍속셔지、ᄌᆞ셰이보고、안、연후에、외방으로나셔셔、각쳐대도회며、산협농촌으로、언히변항구셔지、두루다니며、ᄌᆞ셰이알고、도라오니、거연이、십년이되얏더라、도라온후로ᄂᆞᆫ、언론이、전일이에셔、달나셔、미양말ᄒᆞᆯ적이면、일본을추고、ᄒᆞᆨ양ᄒᆞ야、자리로합원ᄒᆞ든、ᄯᅢ시업ᄂᆞᆫ지라、니ᄒᆞᆨᄌᆞ가、혜아리되、평일에ᄎᆞ든날파、먹온마음으로써、볼진ᄃᆡ、신진사의위인으론、졸연이、이무의현황ᄒᆞᆷ으로써、의몰에팔닐사ᄅᆞᆷ이、아니여ᄂᆞᆯ、이제십년동안에、그언어와、지외가、져일이에서、달나셔션졔의、켄슈를、합셤ᄒᆞᆫ던마음이、풍녀、업슬뿐아니라、도리여추앙、고、흠모ᄒᆞᄂᆞᆫ모양이니、이ᄂᆞᆫ필경슈토가、쟝위에비여셔、심승이변ᄒᆞ고、지의가어두어진것시라、아마약을、만히써셔쟝위에、오예ᄒᆞᆫ물건을、소멸ᄒᆞᆫ후와야、그평일의식견을、회복ᄒᆞ리로다ᄒᆞ고、약을만히、구ᄒᆞ여가지고、와셔어기를권ᄒᆞ거ᄂᆞᆯ、신진사가、골ᄋᆞᄃᆡ、내가아모병도업거ᄂᆞᆯ、형은엇지슈고로、드려셔약을、구취ᄒᆞ야왓스며、또무산병징으로、집증ᄒᆞᆫ온약인지、듯고쟈ᄒᆞ노라、니ᄒᆞᆨᄌᆞ가골ᄋᆞᄃᆡ형이타국에가셔슈토에불복ᄒᆞᆫ모양이라、슈토를졔어ᄒᆞᆯ약이로라

---

●[illegible]ㅣ라 일전에、[illegible]가、상소ᄒᆞ얏다ᄂᆞᆫ말은、긔직ᄒᆞ얏거니와、이번에、그소장을、어덧스니[illegible]에긔지ᄒᆞᆷ

新[illegible]

●大君主陛下之御不豫

대군주계옵셔ᄂᆞᆫ 시방 [illegible]이 계옵시다ᄒᆞ오니 [illegible] 쇼라도、속키[illegible]ᄒᆞ옵시믈ᄇᆞ란ᄂᆞ이다

●鄭進士與被劾者之對質

진ᄉᆞ、정셩우씨가 대군주폐하께에서、[illegible]ᄒᆞᆫ듯[illegible] ᄂᆞᆫ[illegible]울니겟스되、[illegible]ᄂᆞᆫ、젼례국법을좃추서、각각이나와서、고등쟤판소압집에서[illegible]ᄒᆞ야、[illegible] 졍진ᄉᆞ를、고등쟤판소로[illegible]ᄒᆞ고、ᄃᆡ질ᄒᆞᆯ[illegible]청ᄒᆞ엿더라、[illegible]ᄒᆞ야、고등쟤판소ᄂᆞᆫ、그일[illegible]ᄒᆞ고、쟤판쟝、한규셜씨와、판ᄉᆞ권쟤형씨[illegible]가[illegible] [illegible]ᄒᆞ고、[illegible]례ᄃᆡ로ᄒᆞ으스ㄴ 씨가[illegible]이 되고[illegible]ᄒᆞ야、져작일븟터[illegible]ᄒᆞ얏더니、그날은、박졍양씨와、졍진ᄉᆞ에게[illegible]을ᄒᆞ얏ᄉᆞᆫ뎐인ᄃᆡ 그ᄃᆡ심의모양은、알지못ᄒᆞ나、그날、졍진ᄉᆞᄂᆞᆫ、[illegible]의[illegible]ᄂᆞᆫ、아주엄고、어좁ᄒᆞ야、[illegible]치못ᄒᆞ야 너무、[illegible]ᄒᆞ고[illegible]셔지ᄒᆞ얏고、셔지필씨도、무ᄉᆞᆫ일로、그러ᄒᆞᆫ지[illegible]ᄒᆞ야잇셧다더라、또작일은、다른[illegible]ᄒᆞ고、ᄃᆡ심이、잇셧ᄉᆞᆯ더히라、[illegible]ᄒᆞ니、졍진ᄉᆞᄂᆞᆫ[illegible]의쟝[illegible]된、견[illegible] 경지씨에[illegible]라더라

●[illegible]

셔지필씨ᄂᆞᆫ、졍진ᄉᆞ를、소지ᄒᆞ야、[illegible]의[illegible]을、고구ᄒᆞ겟다ᄂᆞᆫ소문이、낭자ᄒᆞ더라

●[illegible]라 탁지쥬사、[illegible]남우씨ᄂᆞᆫ 일젼에、의원면본관ᄒᆞ엿더니、이졔、그리유를、자셰히들으니、쟉년봄[illegible]더、탁지부에셔、갑오년、이젼에、구묵、밀닌것을、다셧히작뎡ᄒᆞ여、일년에、엇번식、차하ᄒᆞᄂᆞᆫᄃᆡ、이번에、또、구묵을쥬ᄂᆞᆫᄃᆡ、그묵、엇은사ᄅᆞᆷ들이、ᄐᆡ반이나、시굴잇ᄂᆞᆫᄃᆡ、묵을주ᄂᆞᆫ줄도、모로고、또알더릭도、수빅리를、젼위ᄒᆞ여올수업서서、친쳑고구의게、부탁ᄒᆞ여서、타기도ᄒᆞ고 아주타、먹으라도ᄒᆞᄂᆞᆫᄃᆡ、쟉、속피엽ᄂᆞᆫ사ᄅᆞᆷ은、탁지관원이、보、만ᄒᆞ면、주ᄂᆞᆫ지라、동씨가、다른사ᄅᆞᆷ의묵을、자갸가、보ᄂᆞᆫ달고ᄃᆡ서、임자몰ᄂᆞᆺ지안코、먹은ᄭᆞ닭으로、탁지ᄃᆡ신이、ᄃᆡ단이、말ᄒᆞ마、무안ᄒᆞ여서、의원면본관ᄒᆞ엿다더라

●父子被捕

[illegible]가 잡혀갓셧다ᄂᆞᆫᄃᆡ[illegible]ᄂᆞᆫ[illegible]셔 몸에[illegible]치ᄂᆞ둥이라더라

●[illegible] 군인、평양셔、올나온사ᄅᆞᆷ의、말을、만히、드르니、평양셔ᄂᆞᆫ[illegible]、[illegible]남슈、사ᄅᆞᆷ이젹고、아젼장교들도、검은갓슨、사ᄅᆞᆷ이、ᄐᆡ반이라ᄒᆞ니、그말이파연그러ᄒᆞᆫ지、그러치아니ᄒᆞᆫ지알수ᄂᆞᆫ、엄거니와、만일、아니면、군묵에연기나ᄂᆞᆫ법이잇스리오

●松都來信

[illegible]ᄒᆞᄂᆞᆫ거슨[illegible]날ᄌᆞ로、나와든편지에[illegible]ᄒᆞ니

▲[illegible]이라 본군삼인에、관찰[illegible]ᄒᆞ러[illegible]에가서 오ᄂᆞᆫ도라왓든、여명[illegible]바다셔[illegible]지방의、쪽도[illegible] 슌검의[illegible]ᄒᆞᆫ드[illegible]시、죄의와홍 본군삼인에、김[illegible]나[illegible]에가셔 자고、[illegible]으로、드러가[illegible]한지ᄒᆞ니、[illegible]가、삼빅명만거ᄂᆞ려、강원도강능에셔[illegible]으로나와셔、그[illegible]잡어、업젼사젼냥을[illegible]ᄒᆞ야[illegible]으로드러오고、[illegible] 온심히ᄒᆞ다[illegible]에、[illegible]에와셔、일젼오[illegible]명의밥을구ᄒᆞ야먹고、히가와송도의사[illegible]의돈을、오빅쉬인냥과、[illegible]의돈을、삼빅냥과、[illegible]의돈을、오빅삼십냥과[illegible] 돈을、이만오쳔냥을、[illegible]ᄒᆞ야[illegible]으로가되、[illegible]에서、포슈라고[illegible]ᄒᆞ야、[illegible]ᄒᆞ셔、이만오쳔냥은세여서[illegible]으로갓ᄂᆞᆫᄃᆡ、그후에쇼식을、알지못ᄒᆞ나、[illegible]ᄒᆞᆫ리셔듯온즉、무수ᄒᆞᆫ포슈들이[illegible]편으로갓더라ᄒᆞ고、[illegible]군슈의편지에ᄂᆞᆫ[illegible]ᄒᆞ고저ᄒᆞ기든 사[illegible]인、[illegible]에、듀ᄒᆞ야서、거긔셔[illegible]ᄒᆞᆫ편다ᄒᆞ고

▲[illegible] 일본[illegible]온、관찰ᄉᆞ나、경무관등[illegible]ᄒᆞ고、또이블ㅅ고、[illegible]ᄒᆞ되、쪽도가、어ᄂᆞᆫ편으로、가든지、아ᄂᆞᆫ슈어겻더라

▲[illegible] 본일오후[illegible]시에、셔울셔、친위병졍이[illegible]가나왓다라

▲人心[illegible] 쟉일에、보고[illegible]ᄒᆞ든대로、여긔인민은、근쳐에、쪽도가、니러낫든거슬아ᄂᆞᆫ사ᄅᆞᆷ은、아주업ᄂᆞᆫ모양이더니、일본[illegible]이나、친위병이[illegible]ᄒᆞᆫ든거슬보고、비로소세ᄉᆞᆺ든모양인즉、민심은、극키[illegible]ᄒᆞ더라

●不知去處된日人

일본인[illegible]이란사ᄅᆞᆷ이、양력으로、샹년십이월에[illegible]코자、황히도지방으로가셔[illegible] ᄃᆡ도[illegible]치아니ᄒᆞ므로、그친쳑[illegible]이란두사ᄅᆞᆷ이、[illegible]ᄒᆞ러、[illegible]로가서、일젼에、도라왓ᄂᆞᆫᄃᆡ、시방、그모양을들으니、쳐ᄉᆞ방ᄉᆞ을、차즈된[illegible]든시、황히도[illegible]라ᄒᆞᆫ[illegible]에、그[illegible]이가、젼에가지든[illegible]이잇ᄂᆞᆫ거슬보고、그[illegible]도ᄉᆞᄒᆞ니、[illegible]와[illegible]박긔、아모것도업고[illegible]이[illegible]ᄒᆞᆫ지、오래되얏든모양인지라、너무[illegible]으로、혼죠션사ᄅᆞᆷ의게、그ᄉᆞ유를무르니、거긔、사ᄅᆞᆷ만이、샹년십이월(양력)십일[illegible]스므날)에、거긔셔、십오리만되ᄂᆞᆫ[illegible]의사ᄅᆞᆷ[illegible]이가、[illegible]히변에[illegible]이、간[illegible]히변을[illegible]주고가ᄂᆞᆫ시、이비가[illegible]ᄒᆞᄂᆞᆫ거슬보고、[illegible]으로、귀변ᄒᆞ야왓스므로、[illegible]시의셔、[illegible]、고ᄒᆞ니、군슈ᄂᆞᆫ、[illegible] [illegible]시에게[illegible]커분부ᄒᆞ얏ᄂᆞᆫᄃᆡ、그ᄃᆡ[illegible]이、[illegible]외잇셧스되、이ᄂᆞᆫ、슌검들、나왓슬ᄃᆡ[illegible]으로ᄒᆞ야다[illegible]어셔 업셔지고、다른[illegible]ᄂᆞᆫ[illegible]인이、맛[illegible]두엇노라ᄒᆞ기로、그맛타두엇든[illegible]、[illegible]라ᄒᆞ니、그[illegible]에、ᄒᆞᆫ가지무가지셰[illegible]ᄒᆞ야두엇ᄂᆞᆫ모양을보여、각집에셔、가져왓든거슨보니、그져[illegible]분인즉、기타[illegible]、눈치도보며、심문ᄒᆞ니、다묵의면[illegible]ᄒᆞ야、아모ᄃᆡ답도업ᄂᆞᆫ지라、여긔일은、충[illegible]못ᄒᆞᄂᆞᆫ일이、하、만으므로、이일들[illegible]ᄒᆞ니、그[illegible]은 그[illegible]가져잇셧슨즉、그밧의됴션사ᄅᆞᆷ들이、도모ᄒᆞ야、그일인을죽이、비ᄂᆞᆫ표ᄒᆞᆫ듯ᄒᆞᆫ모양을ᄂᆡ고、[illegible]을、구리든거시리라ᄒᆞ더라

●兇山匪徒之[illegible]

이、강능。
니모와서、
군슈렬좌여
로와서、히
무슈ᄒᆞ나、
화를면ᄒᆞ지
이걸ᄒᆞ며、
듬을으며、
우리들이
군슈와부
올으며、
인이、본
야갈ᄋᆞ되、
다가、갓
개ᄒᆞ려니
익다、갓시
게나、ᄒᆞ
스기가극
말이옵ᄂᆞᆫ
어즛코、ᄂᆞ
쥬쟝군슈
쥬ᄉᆞ를ᄂᆞ
들어가니
고、[illegible]에
ᄂᆞᆫ、이왕
총노아죽
ᄒᆞᄂᆞᆫ、쪽
조궁ᄒᆞ며
군슈와
비도가그
가、그군
ᄒᆞᄂᆞᆫ소로
폐ᄒᆞᆫ[illegible]
토손、의
폐도잇셔
왕셰슈
량소로가
려와서、
군슈눈셔
더젼ᄒᆞ여
지、당ᄒᆞ
ᄒᆞ고、지
의변즁의
니、비도
거셩함
라

●[illegible]

김하현
아셔、도
니、나간

라

●원山[illegible]一說 비도오백여명
에、서이、강능으로、곳히김셩(金城)유
나왓다니모와서、자폐를무슈아ᄒ고、ᄒ
군슈결쥬엿다ᄒ며、도결원으
破故ᄒ로와서、히군슈를결박ᄒ고、공갈이
、폭도무슈ᄒ나、군슈가위급함을당ᄒ야、
은、아주화분면ᄒ지못ᄒᆯ줄알고、비도의세
나、천이길ᄒ며、ᄉᄉ순종ᄒ다가、종용ᄒᆫ
비로소돈을으더서、도망ᄒ엿더니、비두의
키기우리덥이분ᄒ함이그지못ᄒ여、그
군슈와부인을、결박ᄒ고、쥭일듯시
굴으며、그남편을ᄎ져니라ᄒ니、부
샹녀의 인이、본ᄃ담약이잇ᄂ지라、ᄃ답ᄒ
확히도 야갈ᄋᄃ、군슈가만일、나와갓치잇
ᄒ라ᄒ시면、거쳐를ᄂ게ᄀ가근
그친적 가ᄒ려니와、군슈가、ᄂ의ᄒ고가
이、 인마、갓시니、ᄂ가그거샹을못ᄒ겟시살
라와ᄂ 겟ᄂ냐、ᄒ며、언어가ᄌ히유리ᄒ고
셔々방 ᄉ기가극히엄ᄒ니、비도를도합
라 말이옵ᄂ지라、그부인의결박을풀
에가지 어노코、또평강으로、향ᄒ니、
존도스 평강군슈ᄂ、몬져도망ᄒ엿더니、관
기、아 쥬스를、결박ᄒ여가지고、안협으로
되얏든 들어가니、히군슈ᄂ、미리도망ᄒ엿
옥、ᄒ죠 고、또이쳔으로、들어가니、히군슈
니、거기 ᄂ、이왕셔운잇ᄂ고로、그군슈ᄉᄂ
을(양녀 ᄎ노아쥭이고、저의중의셔도、위령
셤오리 ᄒᄂ、포군ᄋ츙노아셔、쥬여위령ᄋ
、九月日 조궁ᄒ며、다시토산으로、들어가니
변을ᄒ비 、군슈와쥬ᄉ가、다도쥬ᄒ엿더라、
ᄂ거슐보 비도가그셩중의셔、슈일유진ᄒ다
므로、 가、그군쥬ᄉᄂ、니인셩이라
슈ᄂ、 ᄒᄂᄉ름을부르니、니인셩이가、모
[illegible]
스되、이 토산、의병은량관으로、민간의여간
으론ᄒ 폐도이셧고、히우쥬ᄉᄂ、쳡박ᄒ여
은 양졔슈만금을、쳥ᄒ거ᄂ、우리순
로、그맛 량소로가져왓더니、그후경변이나
그 려와서、토산읍우읍[illegible]정ᄒ후의、히
ᄒ야무엇 군슈ᄂ셔셜가[illegible]와、기셩부의셔、
가져왓든 뎌간ᄒ여、지판ᄒ후、관ᄀ언졍ᄒ여가
쥭、기타 지、당ᄒ엿다가、간신히、쥬소로면
니、다뭐 ᄒ고、지금나와잇시ᄂ、웃지다시、
니、여기 의병즁의참며ᄒ리오ᄒ고、아니가
、하、간 니、비도던이니인셩의집으로、가셔
그 라 ᄀ셩헙셩할、의노름을경영ᄒᆫ다더
잇셧슨쥭 라
●[illegible]가이라 남부초진골、사ᄂ
으모ᄒ야、 김화경씨ᄂ、쟝사ᄒ기로、업을삼
양ᄂ모양 아서、료션팔도로、ᄃ쳐어시다니더
라、라。 니、나간지수삼년이、되도록、쥬적

이、요연ᄒ고、유신이、큰결ᄒ지라、
등씨의집의셔、지자권수이、날마다
、기도라되、일거연ᄂᄒ여도、알수
어셔셔、쥬야근심으로、자니더니、
둥씨에 아들、교신이란아희가나
히십삼세라、그모친게、고ᄒ여가로
되、부친이、분을ᄂ지가、벌서삼사
년이되도록、음신이、묘연ᄒ오니
소자가、부친을차지러가셔ᄒ오
니、모친은、허ᄒ소셔ᄒᄃ、그모친
이、가로되、네가、나히쟝셩、ᄒ엿ᄉ
면、그러ᄒᆯ연만은、지금십삼세된아
히가、어ᄃ가、어ᄃ줄알고、차지며、
셜노자가、잇더ᄅ도、가지고、단일
수도잇거니와、우황노자도、판눈
뎡기리오、너ᄂ허ᄒᆫ、말、말나ᄒ
ᄃ、교신이가、ᄃ답ᄒᄃ、도션편ᄃ
의셔야、엇지、굴머셔、ᄃ니지못ᄒ
오며、부친이도션편ᄃ외、계실거경
이면、엇지、차자、뵈옵지、못ᄒ올잇
가、소자비록어려도、그일은、ᄒ할
리오니、모친은、근심마옵소셔ᄒ고
、쥬시ᄒ지ᄒ고、ᄯ나셔、사방으로、비
러먹으며、차지되、죵젹이업ᄂ지라
、미양편ᄃ、ᄇ무지져운며、츅수
ᄒ며、신편잇ᄂᄃ로、그모친의게、
편지ᄒ고、ᄃ니더니、금츈에、계쥬
ᄯ을드러가서、다닝이、그부친의죵
적을、못고、자셰히살아본즉、임의、
계샹을ᄇ린지가、오륙년이오、ᄒ무
뎐한、잇ᄂ지라、지극히운ᄒ며、장
승을구ᄒ여、잇ᄂ、오랴다가、그곳비
보의게、붓들녀서、적당군이라고、
무슨、무수히보고、지셩이겁ᄒ니、
비도가、모집、잡샹ᄒ며、너거、반구
한、부비롤、마니주고、군인을、ᄇ려
、그비[illegible]、엿습ᄂᆫ며、주ᄂᆫ지라、교
신이가、경긔ᄒ、졍단계들아셔、제
가뭄소、지고、올나올시、강원거너
오던지、산을넘어올ᄯ、ᄂᆫ도혼ᄒ며、
밤의한ᄯᄂᆫ、도셕으로、밥샹을ᄀ、
부친의ᄇ골을、폐、상셕ᄒ며、무인지
경의셔ᄂ、운공ᄒ니、한제가、업시
올나와서、선산의、안장ᄒ고、다시
삼년샹을、입기로、ᄒᆫ다ᄂᄃ、지금
나히십구세라더라
●人[illegible] 일본동경사ᄅᆷ이、궁리ᄒ
야버엿든人[illegible]ᄂ、그[illegible]이、[illegible]
의、뉴것트다더라

# 官報抄錄

敍任及辭令

敍判任官一等 內部主事 金[illegible]
內部主事 李[illegible] [illegible] 洪[illegible]
敍判任官四等 內部主事 李[illegible] 李[illegible] 吳在[illegible]
朴[illegible]
敍判任官六等 學部主事 金[illegible]
敍判任官四等 [illegible] 朴之陽 韓[illegible]
官立小學校教員 徐[illegible]
敍判任官五等 [illegible]
以上七月六日
度支部主事 金[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敍判任官五等 度支部主事 [illegible] 李[illegible] 朴[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朴[illegible] 金[illegible]
朴[illegible] 高[illegible]
敍判任官六等
以上七月七日
宗[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敍判任官八等 [illegible]
[illegible]敍判任官八等 李[illegible]
日本[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illegible]
以上七月八日

# 社告

今回本社新報ᄂ 江原[illegible]에 便利함을
爲ᄒ야[illegible]으로[illegible]ᄒ오며
얏더니[illegible]에 셔[illegible]되얏스미
[illegible]
廣[illegible]本社의[illegible]의로보
시면日日게보ᄒ옵

[illegible]
每[illegible]一段三分
一個月 先給 一圓二錢五分
三個月 先給 三圓五錢
六個月 先給 六圓七錢[illegible]分
[illegible] [illegible]七錢五分
[illegible] 혼줍을ᄒᆫ번내ᄂᆫ거시 三錢式
이요[illegible]로ᄎ차셔갑
슬연 받고 [illegible]도ᄒᆫ금으
받ᄉ로옵

# 特別廣告


[illegible]第二十三號

[illegible]十一日[illegible]分ノ内[illegible]

ヲ相定候事

午前八時ヨリ[illegible]午十二時マテ[illegible]

[illegible]ヲ要スル事件ハ此限リニアラス

明治廿九年七月九日

在京城　日本領事館

右領事館ヨリ通ニ有之候ニ付此段報告ス

明治廿九年七月十日

居留民總代役場

[illegible]第二十[illegible]號

本官今般京城在勤ヲ命セラレ本日ヨリ就務セ[illegible]

右告示ス

明治廿九年七月七日

在京城

一等領事　加藤増雄

右ノ通領事ヨリ通ニ有之候ニ付此段報告ス

明治廿九年七月十日

居留民總代役場

居留民一般


## ●三陸海嘯遭難者弔恤金（第一回）

[illegible]

日本郵船[illegible]

小計八拾六圓

## 雜報

### ●内田領事の歸朝

内田領事は[illegible]明十三日午前八時頃[illegible]

### ●又々辭職せらる

[illegible]

### ●鄭進士の上疏

[illegible]

### ●鄭進士と被彈劾者の對策

[illegible]

[illegible]

## ●京釜線の開通

昨日京釜直通となりし京城釜山間の直線は昨日午後三時五分より開通したり

●[illegible]

[illegible]

## ●開城來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救助に就て

[illegible]

## ●卅九年六月中京城輸出入

（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要領）

本月中輸出入統計は

内

輸入 [illegible]千七百[illegible]拾[illegible]圓八拾[illegible]錢

輸出 [illegible]千九圓五拾錢

輸出入統計を細別すれば

輸入日本産 [illegible]萬四千九百九拾五圓[illegible]拾

六錢

輸入外國産 [illegible]萬八百四拾五圓四拾七錢

仁川轉入日本産 四百拾[illegible]圓

同上外國産 [illegible]千圓

同上朝鮮産 [illegible]千四百七拾圓

輸出朝鮮産 [illegible]千九圓五拾錢

▲輸出入金額と客年同月に對照すれば

（圓位以下省略）

| 月別 | 本年六月中 | 客年六月中 | 増 | 減 |
| --- | --- | --- | --- | --- |
| 輸入日本産 | 一五、四〇七 | 一一五、一六二 | | 九、七五五 |
| 輸入外國産 | 一三、八四五 | 五四、八六二 | | 二、〇一七 |
| 同上朝鮮産 | 三、七七〇 | 五、〇〇〇 | | 一、五三〇 |
| 輸出朝鮮産 | 一、〇〇九 | 八、二四〇 | | 七、二三〇 |

▲右增減に對し輸出入重要品の增減を現す時は

（圓位以下省略）

| 品別 | 本年六月中 | 客年六月中 | 増 | 減 |
| --- | --- | --- | --- | --- |
| 生巾 | 五、三五一 | 二一、〇四五 | | 一五、六九四 |
| 白綿 | 四六五 | 四、〇〇六 | | 三、五四一 |
| 黒綿 | ― | 一三六 | | 一三六 |
| 綿糸 | 一、二五八 | 一、八三四 | | 五七六 |
| 甲斐絹 | ― | ― | | ― |
| 西寸 | 二、七五五 | 九〇四 | 一、八五一 | |
| 石油 | 二、四九〇 | 八二二 | 一、六六八 | |

（未完）

原 告

#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出張所廣告

● 肥後丸 八百七十一噸 七月十六日出港同十五日入港 芝罘天津牛莊行 船長 [illegible]

● 玄海丸 八百七十四噸 七月十四日出港同十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戶行 船長 茂木則之

● 豐島丸 六百八十九噸 七月十八日出港同十七日入港 釜山下ノ關神戶行 船長 井上[illegible]郎

● 薩摩丸 千百五十七噸 七月廿四日入港即日出港 馬關香港行 船長 ソンマー

●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七月十六日入港即日出港 長崎釜山元山浦鹽行 船長 ウイルソン

● 顯益號

● 蒼龍號

●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 大阪商船株式會社仁川出張所廣告

● 隅田川丸 六月 日入港六月 日午前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 二見丸 六月 日入港翌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 筑後川丸 七月三日入港同四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 信濃川丸 七月 日入港同九日午前十時出港 釜山下ノ關神戶大阪行

● 白川丸 七月 日入港同七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 木曾川丸 七月十二日入港同十三日出港 釜山馬關神戶大阪行

大阪商船會社仁川荷客取扱所

本支店船舶代理店所在地ニ於テ[illegible]取扱所ヲ設ケ置分[illegible]取扱所[illegible]ニ[illegible]諸君ノ便宜ヲ[illegible]ス

# 京城支部

明治二十九年七月

和歌 [illegible]

○第弍會正風集題 [illegible]

入花 [illegible] 判者

秋園瑞穗宗匠樂撰 [illegible]

寄限 七月廿一日 撰定 [illegible]

投込所 [illegible] 正風會


生魚 生肉に優さる夏の衛生料理

● 飯章魚 ● あま鯛 ● いわし ● さけ ● 佃煮 ● 松たけ ● 竹の子 ● 伽羅ふき

● 茄子辛子漬 ● 八千代卷 ● 時鳥卷 ● 時雨紫蜘 ● 海苔大和煮 ● 味付海苔 ● 福神漬

其他罐詰各種

京城 [illegible] 屋 [illegible] 分店


# 公告

當銀行ハ從來國立銀行條例ニ據リ營業致シ來リ候處明治二十九年九月二十六日ヲ以テ營業滿期ニ付キ

株式會社第一銀行ト改稱シ資本金ヲ四百五拾萬圓ニ增加シ六月二十六日大藏大臣ノ認可ヲ得タリ依ツテ同法施行細則第三條ニ據リ本年四月三十日ノ計算ヲ以テ調製シタル貸借對照表及ビ財產目錄ヲ附記シテ茲ニ公告ス

明治二十九年七月

第一國立銀行

# 貸借對照表

| 資産 | 金額 |
|---|---|
| 紙幣消却元資預ケ金 | 七七四、〇四四 三三〇 |
| 政府預ケ金 | 五、六三八、〇七四 〇九九 |
| 貸附金 | 一、六九四、五五〇 九五九 |
| 割引手形 | 一、三七六、七五〇 五九八 |
| 荷爲替手形 | 四、四二九、四一六 三九〇 |
| 他店ヘ貸 | 六、五九一 九〇五 |
| 預ケ金 | 三〇一、七三九 九九七 |
| 地所建物 | 一、九四七、八〇二 七一〇 |
| 他店 (七個所) | 三九三、八一〇 九五四 |
| 營業用地所及建物 | 六八七、一一〇 〇〇〇 |
| 金銀有高 | 一三八、三一二 六九八 |
| 内 貸 | 二、六三三、二九一 〇〇〇 |
| 合 計 | 一九、〇二一、四九七 二四〇 |

| 負債 | 金額 |
|---|---|
| 紙幣流通高 | 七六九、七八五 〇〇〇 |
| 公債利子 | 八、一一五 六四〇 |
| 公金預り金 | 一、六二六、二〇〇 〇四〇 |
| 定期預り金 | 四、七三、二七〇 〇〇四 |
| 當座預り金 | 八八一、一三六 九八一 |
| 別段預り金 | 二、七六五、五一〇 六八二 |
| 他店ヨリ借 (七個所) | 一、八一、六四八 六九〇 |
| 資本金 | 四五九六、〇七〇 六三〇 |
| 積立金 | 八一、五〇〇 〇八〇 |
| 前期繰越金 | 八二二、五八二 七八八 |
| 純益金 | 二、二五〇、〇〇〇 〇〇〇 |
| 各種準備金 | 一、四五〇、〇〇〇 〇〇〇 |
| [illegible] | 四七四、〇四四 三〇〇 |
| [illegible] | 四三〇、二五一 〇九九 |
| [illegible] | 二二九 〇九〇 |
| [illegible] | 三九、四三九 三〇三 |
| [illegible] | 一四五、五九八 〇六一 |
| 合 計 | 一九、〇二一、四九七 二四〇 |

# 財產目錄

| 資産 | 摘要 | 金額 |
|---|---|---|
| 紙幣消却元資預ケ金 | 千三百 | 七七四、〇四四 三三〇 |
| 政府預ケ金 | 國債 四百 | 五、六三八、〇七四 九九九 |
| 貸附金 | 千 | 一、六九四、五五〇 九五九 |
| 割引手形 | 三 | 一、三七六、七五〇 五九八 |
| 荷爲替手形 | 六百五拾 | 四、四二九、一六〇 三九〇 |
| 他店ヘ貸 | 三百 | 六、五九一 九〇五 |
| 預ケ金 | 拾八 | 三〇一、七三九 九九七 |
| 地所建物 | 六八七 | 一、九四七、八〇二 七一〇 |
| 國債證券 | 公債證書 九拾六萬八千七百三拾五圓 | 三九三、八一〇 九五四 |
| 株券 | 株券 三拾八萬七千 | 六八七、一一〇 〇〇〇 |
| 地所 | 三百五拾七ヶ所 | 八三、九六〇 六九八 |
| 家屋 | 四千坪 八拾七合五勺 | 五四、三九三 〇〇〇 |
| 金銀有高 | 七拾七棟建坪壹千八百九拾四坪九合三勺 | 二、六三三、二九三 〇四〇 |
| 合 計 | | 一九、〇二一、四九七 二四〇 |

但市價今後[illegible]回收ノ[illegible]ニ依リ多少ニ拘ラス[illegible]

[illegible]

阿津阪商店

飲料水適否檢定ノ依頼ニ應ズ

漢城病院

一 肥後名產 朝鮮 [illegible]

[illegible]ノ美[illegible] 且ツ[illegible]日[illegible] 一[illegible] ノ好[illegible] 五[illegible]

朝鮮國 [illegible]

一 地 [illegible]

發 朝鮮 [illegible]

時ノ[illegible] 酒八百[illegible] 第一之 第二[illegible] 第三[illegible] 用ヒ大[illegible] 加之既ニ[illegible] ナルヲ知[illegible] 之[illegible] 十[illegible] 多[illegible] 一實ニ今[illegible]

十六日… 五拾 …行

依頼 院

# 京城 龜屋分店 泥峴

## 地球印藥用ブダウ酒効能書

時ノ古今ヲ問ハズ邦ノ東西ニ論ナク酒類ハ用ノ飲料アラザルハナシ古昔ヨリ唱ヘテ日ク酒ハ百藥ノ長ナリト又云フ酒ハ愁ヲ掃フノ箒ナリト蓋シ又タ理ナキニ非ラス今マ其ノ然ル所以ヲ略陳スレハ

第一 之レヲ飲用スレハ味強ナ清爽ニシテ健胃ノ消化ヲ強シナクシンバナリ以テ食欲ノ不足ヲ補フニ足ルベシ

第二 之レヲ飲用スレハ精神ヲ興奮シ以テ精神ノ疲労ヲ除ス可ク進取ノ氣象ニ富マシムルヲ得ベシ

第三 之レヲ常用スレハ血液ノ循環ヲ迅速ナラシメ以テ胸間ノ欝散ヲ盛ニシ得ヘク身体ノ強壮ヲ計ルヲ得ベシ

用ヒテ能ク其ノ効益ヲ奏シ其ノ健康ヲ保護シ其ノ疲労ヲ除キ俄リ奮ヲ去ルヲ得ヘキナルナリ加之既ニ我邦ノ需要ハ今ヤ其ノ如キ貨狀ヲ要リ以テ我ガ地球印藥用ブダウ酒ノ最モ好ナルヲ知ルニ足ルベシ

### 一地球印ブダウ酒

之レヲ飲スルニ醸造品ヲ見ス遠地運送及ビ遠洋航海ノ貯用トシテ故ニ適當ナルモノト認定ス要スルニ今回ノ航路ハ水路ヲ經シテバナリ如何ニ太陽ノ方ヲ過ヒ又タ赤道ノ下ヲ通過スル一回度ニ及ビ必ズ變質多カランナト心配セシハ少シニ其ノ跡ヲ見ザルハ品質良好ナルモノト認定ス今マ故ウニ其ノ効能ヲ讃々セザルモ以上ノ貨狀證明ニ依レヲ知ルヘキナリ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坂町貳丁目 伊部商店

朝鮮國特約店 京城 隈本商行

---

一 肥後名產 朝鮮飴

抑モ此ノ朝鮮飴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味ノ美好ナル遠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且ツ幾日ヲ經ルト雖モ腐敗ノ患無ク殊ニ一箱ヲ贈ヘハ旅行ノ旅嚢子トシ最上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ヲ需メ試用シ玉ハンコトヲ希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

石川商會儀今回協合ニ依リ和泉商會ト改稱シ更ニ時計眼鏡及火災保險ノ保險代理業仕候間此段謹告仕候也

各國時計 眼鏡及火災 商 和泉商會

追テ時計眼鏡今回日本ヨリ多数ヲ輸入仕候ニ付何卒陸續御注文ノ程奉希候

石川商會가今番協議之結果로和泉商會라고改稱ㅎ야時計眼鏡及火災保險會社代理店營業ㅎ오니此段을廣告ㅎ게됩ㅎ옵

各國時計 眼鏡及火災 商 和泉商會

而ㅎ야時計眼鏡을日本에서新製品이數多히나왓스니陸續히購求ㅎ야주시요

---

外務省御指定之御旅館ニ御座候間何卒御愛顧ノ程奉願候

一 上等 壹圓

一 中等 七十錢

一 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三十八號

田原旅館

---

## 在朝鮮國京城關東會

去ル六月十五日宮城、岩手、青森三縣下ニ起リタル海嘯ハ我カ帝國歴史上未ダ曾テ見ザル所ノ一大凶災ニシテ我々同胞此災害ニ罹リシ人何ンゾ一路ノ涙ヲ喫セザランヤ我々ハ千里ノ外ニ在リト雖モ飯ヲ同シ一淚ノ涙ヲ催シテ之レヲ不幸ニ遭遇シタル可憐ノ罹災人民ヲ救ハザルベケンヤ諸君有志ノ諸彦ハ我々ノ微意ヲ賛助シ不論多少義捐ヲ以テ同胞臣民ノ分ヲ盡サレンコトヲ追テ義捐金ハ本月廿日ヲ以テ締切リ領事ニ請願シテ本國ニ送附スルモノトス右謹テ諸君ニ通告シ賛同ヲ仰グ

明治二十九年七月三日

發起人 總代人名

一金 …圓也 …田 …作 …風

一金 …圓也 松本 …平 ／ 井原…

一金 …圓也 …代四郎 ／ 中…安 ／ 山…

一金 …圓也 大久保…介 ／ 中…安太郎 ／ 水尾…三郎 ／ 川本…一郎 ／ 伊村…之助 ／ 岡…吉 ／ …木…藏 ／ 一川…太郎 ／ …竹本…郎 ／ 大野…二太郎 ／ 西…伊…一 ／ 野…

一金 七拾錢 高…郎 ／ 加…郎 ／ 江川文吉

一金 五拾錢也 上…民司 ／ 今井…大郎 ／ 仙…一方 ／ 加…郎 ／ 河…内 ／ …一 ／ 小…郎 ／ 日…太郎 ／ 北…吉 ／ …作 ／ 本田…郎 ／ 高田五…郎 ／ 倉…作 ／ 中…助 ／ 大…郎

一金 四拾錢也 …北田…助

合計金四拾四圓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京城 旅館 東京館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參拾五錢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六錢但し行數及回數により割引仕候代金は總て前金にて可申受候事

發行兼印刷人

編輯人

朝鮮國京城泥峴

發行所 漢城新報社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內田領事之歸國 [illegible] 前朝에、길을ᄯᅥ나서、룡산에서、화륜선ᄐᆞ고下仁ᄒᆞ셧더라、이ᄯᅢ公使館의 領事館員、守備隊將校、通信部員、朝鮮政府之日人顧問官、補佐官、小學校生徒、日本居留民之有志者등이、수십명이、룡산으로가고、기타에停車場은、남대문ᄭᅡ지送別ᄒᆞ니、룡산에서ᄂᆞᆫ、쇼학교ᄉᆡᆼ도가一齊히 內田領事萬歲 라고부르더라、ᄯᅩ인쳔에서、본일에ᄯᅥ난汽船을ᄐᆞ고、가실려ᄒᆞ라더라

●牢獄囚之增加 소문을들으니、요ᄉᆞ이 대군쥬폐하가 [illegible] ᄒᆞᆫ 신[illegible]의[illegible]ᄒᆞ기、금지ᄒᆞ、엄ᄒᆞ다ᄂᆞᆫᄃᆡ、오륙일젼에ᄂᆞᆫ、친위병들에서[illegible]ᄒᆞᆫ자、수비영을ᄶᅢ아서、아라사공관과、그근처에[illegible]케ᄒᆞ얏더라、[illegible]ᄂᆞᆫ、아직、그[illegible]ᄒᆞᆷ은문으나、됴션사롬이[illegible]ᄒᆞᄂᆞᆫ거술들으니、일본[illegible]이、수십명이、셩안에、드러와서、일을내자고、부며잇다더라、이ᄂᆞᆫ、[illegible]이업ᄂᆞᆫ[illegible]이미、이말을、듯ᄂᆞᆫ사롬은、우수워못견듸ᄂᆞᆫ일이니、[illegible]로、귀히놉히ᄂᆞᆫ됴션사롬중에、엇더ᄒᆞᆫ사롬은、졍그런가ᄒᆞ고、[illegible]ᄒᆞᄂᆞᆫ사롬이、잇ᄂᆞᆫ게고이치아닌인이라、[illegible]은、인본졍부가[illegible]을[illegible]사[illegible]이、함부로、못나오게ᄒᆞ야시든、인믈을몰으ᄂᆞ뇨、눈안이며、각기항쟝에ᄂᆞᆫ[illegible]의시찰ᄒᆞ시미[illegible]ᄒᆞ야、사롬의출입ᄒᆞᆷ이、금직히、엄밀ᄒᆞ야잇ᄂᆞᆫ거술、몰으ᄂᆞ뇨、이러ᄒᆞᆫ소문은、내ᄂᆞᆫ사롬의고약ᄒᆞᆷ이、닐을길이업스나、그[illegible]을밋어[illegible]ᄒᆞᄂᆞᆫ사롬의[illegible]ᄒᆞ기도、이고、불샹ᄒᆞᆫ일이아니뇨

●米國大統領之候補者 ᄂᆞᆫ、아마「못김레、싸가、물망이잇다더니마ᄂᆞᆫ、갓나온、양조신문을보니、[illegible]된사롬이[illegible]키나서、그[illegible]을、시작ᄒᆞ얏스니、[illegible]세로되야가면、엇더ᄒᆞᆫ사롬이、진졍대통령으로、[illegible]홈넌지、압슈엇다고、야단들치나、구원졈피면、[illegible]

●[illegible] ᄂᆞᆫ、한번ᄅᆡ [illegible]에、쥬찬ᄒᆞᆫ、법국[illegible]의보고ᄅᆞᆯ보니、신만입쳔ᄉᆞ비이(일ᄂᆞᆫ이가、유비유십유[illegible])인즉、젼년도、보담、갑ᄒᆞ기、유쳔[illegible]이라더라

●[illegible] 오초ㅣ라、하ᄂᆞᆯ님이、엇지、그러케도、무졍ᄒᆞ시ᄂᆞ뇨、[illegible]이、무ᄉᆞ[illegible]가잇ᄂᆞ뇨、근리ᄀᆞᆺᄒᆞ[illegible]며、ᄯᅩᄉᆞ[illegible]가、조곰잇서、셩민이、죽ᄂᆞᆫ일[illegible]에도、지나간[illegible]간에잇든[illegible]ᄂᆞᆫ、금직히[illegible]을놀나게ᄒᆞ든일이라、왈、미국「센도뤼스」에서ᄂᆞᆫ[illegible]이、낫든ᄯᅢ문에、칠ᄇᆡᆨ명이쥭고、왈、아라사「모스거」에서ᄂᆞᆫ[illegible]、[illegible]되얏든사롬이、이천명만되고、왈、「가나다」에서ᄂᆞᆫ、[illegible]가되야[illegible]가삼ᄇᆡᆨ여명되고、왈、비스게에서ᄂᆞᆫ、화륜선이[illegible]ᄒᆞ야[illegible]이ᄇᆡᆨᄉᆞ십여명되고、왈、[illegible]에서ᄂᆞᆫ、[illegible]ᄯᅢ문에、쥭은사롬이、삼만여명이되니、하ᄂᆞᆯ님이、무졍ᄒᆞ시미、무슨[illegible]이나잇스려뇨

●[illegible] [illegible]과、가관닙쇼학교ᄂᆞᆫ、지나간十日붓터、서롬[illegible]을ᄒᆞ얏ᄂᆞᆫᄃᆡ、그[illegible]ᄂᆞᆫ、그난것더、ᄉᆞ[illegible]이[illegible]라

●英國水兵[illegible] 인쳔항구에、[illegible]ᄒᆞ야잇ᄂᆞᆫ、영국군함「다ᄒᆞ네」[illegible]의[illegible]ᄒᆞᆫ명이、지나간十日오젼세시에、[illegible]히[illegible]에、잡바져、고ᄉᆡᆼ케ᄒᆞᄂᆞᆫ거술、보든사롬이잇서서、곳[illegible]은다리고、일본[illegible]로[illegible]ᄒᆞ얏스므로、그[illegible]에서ᄂᆞᆫ[illegible]을붓너서、진ᄆᆡᆨ케ᄒᆞ더니、몸에[illegible]이군ᄃᆡ[illegible]이잇고、[illegible]에ᄂᆞᆫ、음식이、ᄂᆞ려가ᄂᆞᆫ길로、나갓든[illegible]이잇고、도제히[illegible]ᄒᆞ지못ᄒᆞ므로、죽시、영국군함으로、[illegible]보ᄂᆡᆺ더라、이사롬은、위리움、「그레스」란사롬인더、그날밤에[illegible]에서、잔치、술을ᄂᆡ고[illegible]ᄒᆞ야、도라가라ᄂᆞᆫ시、이러ᄒᆞᆫ[illegible]가니、이러ᄒᆞ다ᄂᆞᆫ다、다른사롬들의말인즉、이[illegible]ᄂᆞᆫ、쳥인이나、됴션사롬인듯ᄒᆞ다고ᄒᆞᆫ다미ᄃᆡ로[illegible]ᄒᆞ야거긔、일본경찰서에서ᄂᆞᆫ、사방[illegible]케、그[illegible]ᄒᆞ야잇다더라

●[illegible] 英人하리、더、원도ᄂᆞᆫ、유명ᄒᆞᆫ探檢家ㅣ라、[illegible]를[illegible]을、회험ᄒᆞ야서、본국으로、도라갓더라、이러ᄒᆞᆫᄃᆡ、그사롬이、시방、계회ᄒᆞ야잇ᄂᆞᆫ[illegible]은、「우투스가」란ᄯᅡᆼ에서ᄇᆡ[illegible]을지나서、[illegible]로나가서、조곰치라도、비롭아니두고、원ᄉᆡ계를、도라단기자ᄂᆞᆫ일이라、그ᄂᆞᆫ、미국[illegible]으로ᄒᆞ야、거긔서붓터、하인을다리고、여러번、국ᄇᆡ[illegible]을、가보와다ᄂᆞᆫ[illegible]은데[illegible]ᄒᆞ고「완구바」란ᄯᅡᆼ에서맛나、지나간삼월에、발졍ᄒᆞ얏다더라

본ᄅᆡ、이[illegible]은、금직히[illegible]ᄒᆞ고、위[illegible]ᄒᆞᆫ일인지라、그「으로스가」ᄯᅡᆼ에도「노라도」란ᄯᅡᆼ세지ᄂᆞᆫ、사롬지이、디러、잇스되、그곳을지나가면、人跡이、아주업ᄂᆞᆫᄯᅡᆼ인데、그사롬은[illegible]런스、우엔스」[illegible](지명)애가서、셜마ᄅᆞᆯ두고、[illegible]ᄒᆞ야、곰[illegible]계ᄒᆞ야、그[illegible]을건너서、스도[illegible]으로가서、거기서「이으거죡」이란ᄯᅡᆼ으로、갈작졍이니라、이[illegible]은、본ᄅᆡ민북방이미、[illegible]간인、아주[illegible]되고、도[illegible]ᄒᆞᆫ곳인즉、난ᄌᆞᄂᆞᆫ[illegible]이오、그[illegible]을가ᄂᆞᆫ날ᄌᆞᄂᆞᆫ、연잇슬이뎌ᄒᆞᆫ쥭、[illegible]으로、도라가ᄂᆞᆫ날은、명년ᄀᆞ을ᄶᅢ셤되고、그부비ᄂᆞᆫ、이만오쳔원이라더라

●[illegible]ᄒᆞᆫ사ᄃᆞᆰ으로月俸이[illegible]라 법부[illegible]쵸에[illegible]권、[illegible]ᄂᆞᆫ미월、월봉이、오십원인데、불과무식ᄒᆞᆫ、사ᄃᆞᆰ으로、법부[illegible]초、ᄒᆞᄂᆞᆫ、지무ᄂᆞᆫ단、당할수업서서、ᄆᆡ양、그동관들、보기에무식ᄒᆞ여서、날마다、그동관들의졈심을、담당ᄒᆞ고、소소잡비들、수응ᄒᆞᄂᆞᆫ고로、연급을다며、그부비에、오ᄒᆞᄂᆞᆫ거시、십여원이오、실상、타져ᄂᆞᆫ것슨、반밧가모(된다ᄒᆞᄂᆞ、우리ᄂᆞᆫ、그말을、고지듯지、아니ᄒᆞ노라

●[illegible]라、[illegible]우두편[illegible]이라ᄒᆞᄂᆞᆫ곳셔、홍씨ᄒᆞ나히、잇스니、운집을짓고、품을관어서 싱애를、

삼고지나
ᄂᆞᆫ이고、
군동부
셩운、셔
오다다
심여슈
며、올을
치게ᄒᆞᆫ
ᄂᆞᆫ지라、
닐너라
되ᄋᆞᄂᆞᆫ의
ᄅᆞᆷ을、죠
ᄀᆞᆺ치ᄒᆞ
심편이ᄋᆞ
라、홍씨
마지고、
ᄂᆞᆫ하가지
한셔가、
ᄂᆞᆫ부득이
지리、
인ᄒᆞ야거
쳔비도가
탐곡ᄒᆞ
셔가듯고
원ᄒᆞ다
●[illegible]
、죡악과、
ᄃᆡ、근일
사롬의
로、지금
ᄂᆞᆫ업스되
억고、각
다ᄒᆞ니、
그숨겸이
를가지고
신진사가
이、탐쳔ᄋᆞ
지、안ᄂᆞᆫ
슈토로、
로、써식
의믈에
리치ᄂᆞᆫ업
쳥권ᄃᆡ、
셩운다ᄒᆞ
가、ᄀᆞᆯᄋᆞ
일본이슈
、동과、
라ᄒᆞ면、슈
커르면、져

이가바ᄂᆞᆫ삼고지니더니、셔로궁론ᄒᆞᆫ되의、인가나ᄒᆞ다던ᄂᆞᆫ이고、계견셩도、둥졍슈어ᄂᆞᆫ지라깨ᄂᆞᆫ니、근동부호의、한씨집에、가셔、ᄃᆡ한다고ᄒᆞᆫ、쌍쇈、쉬이챠논ᄒᆞ거ᄅᆞᆯ、쟉졍ᄒᆞ고、찬셔에、오다다노핫더니、고ᄃᆡ이、당년의칠상ᄒᆞ야、십여슈가、되거ᄂᆞᆯ、홍씨가、그ᄃᆡ이며、운운하나도、어ᄉᆞ지안코、식기、더、원치케ᄒᆞᆫ더、그이듬히에、쳔여슈가되ᄂᆞᆫ지라、그집근쳐가、원ᄉᆞᆼ도마요ᄉᆡᆫ넘너라、이에완과도ᄋᆞᆯ、익간팔어셔도라갓되ᄋᆞᆫ와、송ᄋᆞᆫ지ᄅᆞᆫ、사셔、다른사시박계몸을、쥬어긴너셔、논ᄒᆞ게ᄒᆞ야、이ᄂᆞ간쯤못치ᄒᆞ기ᄅᆞᆯ、칠년월ᄒᆞ미、소가오ᄂᆞᆫ섯편이요、되ᄋᆞᆫ지와도ᄋᆞᆫ、셴슈어더ᄂᆞᆫ아니라、홍씨가이에、음식을、만히쳔여논인이마지고、소와、되ᄋᆞᆫ지와、도ᄋᆞᆯ、반식고ᄒᆞ야、논하가지고 한씨의집으로、간쥭、여러번한씨가、ᄉᆞ양ᄒᆞ야밧지안코、나중에ᄂᆞᆫ브ᄌᆞ이ᄒᆞ야、ᄃᆞ투어밤이마、밧ᄂᆞᆫ셔맛나저리、홍씨가、가단ᄒᆞ고도라와셔더라 인ᄒᆞ야거부가되얏더니、요ᄉᆞ이、츈고、위쳔비도가、챵권ᄒᆞᆫ뒤에、한씨의지이셔에ᄐᆞᆨ편ᄒᆞ야、남져지가、어ᄂᆞᆫ지라、홍지이、씨가ᄃᆞᆺ고가셔、한씨의、지안소솜을면、人원ᄉᆞᆼ다리고와셔、샹녀죠다더라

●됴션이、국샹ᄂᆞᆫ이후ᄂᆞᆫ셔、셜、쥭아과、노ᄃᆡ소리ᄅᆞᆯ、듯지못ᄒᆞᄂᆞᆫ야、그ᄃᆡ、군일북ᄌᆞᆫ군쳐엇던、슌검뎡기ᄂᆞᆫ셔、거、사ᄅᆞᆷ의지이、부터미유ᄒᆞ던쟈인고、갈쟉로、지금도、하로도쳔시업시、즁류북방이논업스되、노ᄃᆡᄂᆞᆫ、아니부르ᄂᆞᆫ난이언고、각쳐갑보물이、모쳐와셔、ᄂᆞᆫ그다ᄒᆞ니、이나라、관슈법으로、ᄒᆞ면、헌족、그숨검이、그런일올경무ᄒᆞᄂᆞᆫ、져무년ᄆᆞ올률가지고、어뎡지아니ᄒᆞ리오쳔권이

## ●小進士問答記 (三)

법부신진사가、우셔곱ᄋᆞ되、예사ᄅᆞᆷ의말봉이、이、담쳔을、ᄆᆞ셔도、칭비ᄒᆞᆷ을곳치답으로지안ᄂᆞᆫ다ᄒᆞ엿거ᄂᆞᆯ、사ᄅᆞᆷ이、엇지당할수슈로로、써심지가변ᄒᆞ리요、문견으기에무로、써식견이나온것슨、잇거니와、의점심의물에、숩녀셔、승졍이변ᄒᆞ야숩、수응ᄒᆞ리치ᄂᆞᆫ업스니、망녕에싱각을말고、에、오쳥컨ᄃᆡ、그연유ᄅᆞᆯ、말ᄒᆞ면、ᄃᆡ가졍、타졔셩올다ᄒᆞ야ᄃᆡ답ᄒᆞ오리라、니ᄒᆞᆫᄌᆞ우리ᄂᆞᆫ가、굽ᄋᆞᆫ되、위션우리가、션셰북터、고라일본이슈국이、되야셔、팔도챵싱이미쥬이、ᄋᆞ동과、부녀덜셔지라도、일본이잇스니、라ᄒᆞ면、슈국으로알고、임진년을일셩애ᄃᆞᆯ、커르면、졀치부심ᄒᆞ거ᄂᆞᆯ、ᄒᆞᆷ을며、

나와형은、다인이예셔다、ᄅᆞᆫ지라반먹기시쟉ᄒᆞ고、밥ᄒᆞᆯ찬이든、이수로ᄂᆞᆫ、평싱의、위ᄒᆞᆫ、마음이、군슈에비여셔、이왕ᄒᆞ던슈자이、예으로ᄂᆞᆫ、켄슈ᄂᆞᆫ、가지못ᄒᆞ야、셜치ᄒᆞ지못ᄒᆞ여도、마음에ᄂᆞᆫ、잇지안코 입으로ᄂᆞᆫ、쥰졀이언론ᄒᆞ엿거ᄂᆞᆯ、형이일본을、단녀온후로ᄂᆞᆫ、그마음만、공난션이아니라、두리에、일본을츄양ᄒᆞ고、휴모ᄒᆞᄂᆞᆫ모양이니、엇지샹셥에、말ᄒᆞ고시부되、형이보지못ᄒᆞ진사가、굽ᄋᆞ되、ᄂᆡ가모단말을、한졉이、변치아니ᄒᆞ엿다、ᄒᆞ리요、신고、듯지못ᄒᆞ든넌올、파격히말ᄒᆞ면과연일본의ᄒᆞᆨᄒᆞ엿다、ᄒᆞ려인고로파격히말ᄒᆞ저밧ᄒᆞ오니、형이、데분비리지、아니ᄒᆞ올진ᄃᆡ、초초말슴윤죠셰이、ᄒᆞ오리니、동쇽ᄒᆞ야들을진ᄃᆡ、ᄃᆡᄂᆞᆫ봉소근고ᄒᆞ야、셰다ᄅᆞᆫ길형인안져셔、듯고셰다ᄅᆞᆫ가ᄒᆞ노라셜영이동비사ᄅᆞᆷ잇ᄂᆞᆫ되、저동비사ᄅᆞᆷ이、셔의ᄂᆞᆫ지어거ᄂᆞᆯ、쳐이너너히션치ᄒᆞ엿스면、샹쾌ᄒᆞᆫ런마ᄂᆞᆫ、ᄃᆞᆫ온방안에、안져셔만ᄒᆞ고잇스면、엇지어리셕지아니ᄒᆞ리오、대져켄슈라ᄒᆞᄂᆞᆫ것슨、당쟈라도、죵고화협ᄒᆞ면그만이여ᄂᆞᆯ、ᄒᆞ올며、십여ᄃᆡ가、지ᄂᆞᆫ후에、죵고화친ᄒᆞ엿ᄂᆞᆫ되、무산밟을다시ᄒᆞᆯ것시잇스며、또조샹이우히ᄒᆞ여계셔도、피ᄎᆞ에、국ᄉᆞ물위ᄒᆞ여、ᄉᆞ망이、잇슨것시지、ᄉᆞ셔이잇슨것시아니여니와、가령예젼닐노써보아도、임진젼정은、츙에죠션이피ᄒᆞ엿다가、나죵에ᄂᆞᆫ일본이、피ᄒᆞ여갓슨즉、켄슈될것시、업고、쳥국ᄀᆞᆺᄒᆞᆫ나라ᄂᆞᆫ、본ᄅᆡ북방의、웅젹으로、대명을、멸ᄒᆞ고、됴션을、음습ᄒᆞ야、황복을밧을시、군샹을、변신으로삼고、부녀ᄅᆞᆯ、랍쳐ᄒᆞ여갓스니、슈치가、비셰와、씨슨슈업거ᄂᆞᆯ、이것슨못그러운즉、아지못ᄒᆞ고、도리여、일본을한헌ᄒᆞ니、이ᄂᆞᆫ분ᄀᆡ가엇논말이요、또불치한문이라ᄒᆞ엿스니、남만못ᄒᆞᆫ사ᄅᆞᆷ의게도、비ᄒᆞᆯ것시잇스면비ᄒᆞᄂᆞᆫ게、맛당ᄒᆞ거ᄂᆞᆯ、ᄒᆞᆷ올며이웃나라와、비ᄒᆞᆯ것시만흔것술、엇지츄앙치、아니ᄒᆞ리요、니ᄒᆞᆫ조가、굽ᄋᆞ되、일본이무삼비ᄒᆞᆯ것시잇스리오 예진셩왕의、례악졔도ᄂᆞᆫ、일본이됴션의비ᄒᆞ거시요、요ᄉᆞ이나、소위ᄀᆡ화라ᄒᆞᄂᆞᆫ것슨、일본도셔

양의서비화순족、셜영귀화분비훈진ᄃᆡ、됴션서도、셔양의비ᄒᆞᄂᆞᆫ것시、맛당ᄒᆞ거ᄂᆞᆯ、엇지구ᄒᆞ야、일본의비ᄒᆞ리요、형의일본을츄양ᄒᆞᄂᆞᆫ것슨、의ᄒᆞᆨ올골자못ᄒᆞ노라、신진사가、ᄃᆡ답ᄒᆞ여굽ᄋᆞ되、대져ᄀᆡ화라ᄒᆞᄂᆞᆫ것슨、셰샹을、ᄀᆡ명코쟈ᄒᆞᄂᆞᆫ것시라、샹고의ᄒᆞᆫ호셰계셔럼、ᄇᆡ셩이앗기어락기토ᄒᆞ야、불샹왕ᄂᆡᄒᆞ고살어[illegible]ᄒᆞᆷ이ᄀᆡ교ᄒᆞᆷ을ᄉᆞᆼ샹ᄒᆞ야、히양의화륜션이ᄉᆞᆼᄒᆞ미、만리가、지쳑이라、이졔와셔ᄂᆞᆫ、외국을교셥ᄉᆞᆼ샹ᄒᆞ쟈아니ᄒᆞᆷ슈업스니、그왕에교셥ᄉᆞᆼ샹ᄒᆞ야、외국에규모ᄅᆞᆯ비ᄒᆞᆫ진ᄃᆡ、우리가、첩ᄋᆞᆫ듈ᄅᆞᆯ고、효허온만로록、ᄒᆞᄂᆞᆫ것시맛당ᄒᆞᆫ지라、일본이몬져、ᄀᆡ화ᄅᆞᆯ비ᄒᆞ니라고、근삼십년근고ᄒᆞᆫ、무슈히ᄒᆞ야거ᄂᆞᆯ、이제우리ᄂᆞᆫ、일본을젼일히비화쓰면、날은반이오、공은갑졀이라、그편리ᄒᆞᆷ이、여러가지니、첫지ᄂᆞᆫ、뎌셔각국인죡、사ᄅᆞᆷ의죵류가다르고、ᄆᆞᆫᄌᆞᄂᆞᆫ갓지아니ᄒᆞ며、풍긔와、관습이각각이라、의ᄉᆞᄅᆞᆯ샹통ᄒᆞ기、극란ᄒᆞ거ᄂᆞᆯ、일본인죡、이ᄒᆞᆫ가지라、ᄆᆞᆫᄌᆞᄂᆞᆫ갓치쓰고、언어ᄂᆞᆫ、ᄒᆞᄂᆞᆫ리치가、다르지아니ᄒᆞ야、의ᄉᆞᄅᆞᆯ샹통ᄒᆞ기、어렵지아니ᄒᆞ니、법빗을비ᄒᆞ기가、쉽이져게들것시요、둘지ᄂᆞᆫ、셔양사ᄅᆞᆷ인죡、리용후싱에만、쥬쟉ᄒᆞ고、인륜샹의ᄂᆞᆫ、몽리ᄒᆞ거ᄂᆞᆯ、일본사ᄅᆞᆷ은、피ᄎᆞᄅᆞᆯ짐쟉ᄒᆞ야셔、무가지의、졀츙ᄒᆞ야、씰시、도ᄂᆞᆫ공ᄌᆞᄅᆞᆯ츄숭ᄒᆞ고、기예ᄂᆞᆫ、셔양을츄숭ᄒᆞᄂᆞᆫ지라、지어됴션사ᄅᆞᆷ도、셔양을、숭ᄒᆞ기젼브터、셩ᄒᆞ의ᄒᆞᆨᄒᆞᄂᆞᆫ쟈ㅣ만코、쳥국사ᄅᆞᆷ얼은、아편연ᄀᆞᆺᄒᆞᆫ데도、히ᄅᆞᆯ편벼되이、입거ᄂᆞᆯ、일본사ᄅᆞᆷ인죡、셔ᄒᆞᆨ의ᄒᆞᆨᄒᆞᆯ것시업ᄂᆞᆫ죵은、알며、아편연의、히ᄅᆞᆯ당ᄒᆞᄂᆞᆫ쟈ᄂᆞᆫ、ᄒᆞ나도、업스니、엇지문명치안타ᄒᆞ리오、도와、기예ᄅᆞᆯ、놉고、졍ᄒᆞᆫ견노만、비ᄒᆞ셔、셰샹의、유익ᄒᆞ도ᄉᆞ만、ᄒᆞᆯ뿐아니라、예젼의ᄂᆞᆫ지물노씨、풍쇽이효박ᄒᆞᆫ가、념녀ᄒᆞ샤、지물은다ᄋᆞᆷ으로、의논ᄒᆞ엿거니와、지금셰상에ᄂᆞᆫ、남의나라와、ᄀᆞᆺ고쟈ᄒᆞᆯ진ᄃᆡ、지물이、남의나라와、ᄀᆞᆺ허야、될것시요、남의나라보다、낫고쟈ᄒᆞᆯ진ᄃᆡ、지물이남의나라보다만허야、될지라、일본이、이리치ᄅᆞᆯ깁히ᄭᆡ다러셔、농샹공리에、졍셩을극히다ᄒᆞ니、가위문명ᄒᆞᆫ나라이니라

## 雜報

### ● 鄭進士疏本

전호지상에 [illegible]ᄒᆞ야ᄃᆞᆫ대로, 본일지상에, 그 [illegible]을 등재ᄒᆞ니 좌와여흠

이날노서, 지판ᄒᆞᄂᆞ시ᄂᆞᆫ말ᄉᆞᆷ을, 초호, 지상의, 조졔이, 긔지ᄒᆞ옵더이오니그리아시옵

伏以三綱五常[illegible]民之生有人而無此冠衣[illegible]之[illegible]而無此[illegible]而[illegible]哉大凡天下國家[illegible]人[illegible]有人心而國之[illegible]何[illegible]於[illegible]而鬼[illegible]開化之[illegible]外國乃[illegible]本國[illegible]形以乃[illegible]之心[illegible]史[illegible]有[illegible]天下[illegible]國[illegible]現今[illegible]而未[illegible]死而未刑[illegible]生而[illegible]加亂[illegible]我刑[illegible]百年[illegible]一切亂[illegible]之[illegible]故此[illegible]非[illegible] 陛下之[illegible]乃[illegible] 先王之大[illegible]陛下何以[illegible]生之[illegible]今不[illegible]而[illegible]甲申十月[illegible]外乃[illegible]甲午六月之亂[illegible]山乙未八月之大[illegible]之[illegible]未[illegible]古[illegible]於之[illegible]本[illegible]大日[illegible]又[illegible]自[illegible]外[illegible] 陛下之[illegible]朝[illegible]之[illegible]此[illegible]乃[illegible] 先王之[illegible]本[illegible]之[illegible]甲午六月之[illegible]定[illegible]也甲午[illegible]乙未[illegible]止刑[illegible]也[illegible]則不可以誅[illegible]用[illegible]之[illegible]以社[illegible]宗[illegible]況之[illegible]以[illegible]之[illegible]如[illegible]後亂[illegible] 陛下[illegible]入不[illegible]此乎今[illegible]正[illegible]古[illegible]之[illegible]四大[illegible]之[illegible]引不可仍[illegible]於內外官[illegible]四[illegible]大官以下一[illegible]以[illegible]之[illegible]式[illegible]文字自甲午六月二十一日以後[illegible]勿[illegible]先朝[illegible]地方[illegible]定[illegible]之[illegible]以內外兵[illegible]自 上[illegible]之[illegible]如[illegible]所不可[illegible]大[illegible]四[illegible]以[illegible]中外[illegible]之頭[illegible]行 [illegible]以[illegible]王太子殿下[illegible]之[illegible]凡[illegible]之地也五百年[illegible]之[illegible]一[illegible]之[illegible]以[illegible]之風[illegible]而不[illegible]則先[illegible] 先王之[illegible]列今[illegible]大[illegible]之道惟臣[illegible]入今[illegible]正[illegible]入乎自[illegible]臣[illegible]以[illegible]上[illegible]別[illegible]二[illegible]之上[illegible]三[illegible]之[illegible]以[illegible]內[illegible]外[illegible]

批曰省疏具悉[illegible]何多[illegible]也

### ● 因[illegible]之[illegible]

전에, 됴병세, 졍범조[illegible]ᄒᆞᆫ [illegible]에 인견ᄒᆞ시고, 므ᄉᆞᆫ일인지 [illegible]ᄒᆞ든비잇다든일은, 그ᄯᆡ신문에, 긔지ᄒᆞ얏거니와, 그 됴병세씨 [illegible]ᄒᆞ얏다든소문의 [illegible]을 들으니, 근리 [illegible]을ᄒᆞ기, 역신의 명식으로만 ᄒᆞ되 이는, 다만율슈언ᄂᆞᆫ말ᄲᅮᆫ이라, 근리 [illegible]에 유하ᄒᆞ야 왓든사ᄅᆞᆷ은, [illegible]케 밋지못ᄒᆞᄂᆞᆫ인이라, 사방 [illegible]에, 시봉ᄒᆞ야 잇ᄂᆞᆫ사ᄅᆞᆷ은 [illegible]게 빌되, 그 [illegible]이 [illegible]ᄒᆞᆫ ᄉᆞᄅᆞᆷᄲᅮᆫ이 아니옵, 훗날에 [illegible]가 잇ᄂᆞᆫ데 잇스리니, 미리 用心ᄒᆞ시미 [illegible]ᄒᆞᆫ일이라 나 법진씨ᄂᆞᆫ 대군주폐하가 환어ᄒᆞ시게, 힘을써야 ᄒᆞᄂᆞᆫ데, [illegible] 죵용ᄒᆞᆫ일이 업ᄂᆞᆫ몸이라, 미[illegible]이, 다, 망근을 쓰게ᄒᆞᄂᆞᆫ일을 라더라 [illegible]ᄒᆞ야 이 [illegible]을 용납지아니시거든, 도로 [illegible]ᄒᆞᆷ을 밧[illegible]고 업ᄉᆞᆸᄂᆞ이다ᄒᆞ고, 주언ᄒᆞ얏다더라

### ● [illegible]

일젼에, 경무령으로, 보박되엿던 박준셩, 변서공, 안규ᄃᆡ 강면희 네분에, 일은, 일젼외도, 긔지ᄒᆞ엿거니와, 그즁에, 강면희씨ᄂᆞᆫ 지작일에 방면이 되여서, 나오고, 그남어다른분들은, 아직못나왓다ᄒᆞ더라

### ● 現任之[illegible]

군일신면부의서, 나지파, 의지을 나 고간고울기를, 도모지, 규졍이, 업시, ᄒᆞ여, 누가, 그사ᄅᆞᆷ을, 모히하여도, 갈고, 각부ᄃᆡ신의게 긴치아니ᄒᆞ여도, 갈미니, 또시ᄃᆡ상소가, 자ᄌᆞ이 되나서, 대단이된다고, 지금다규졍니기를, 각ᄃᆡ신이던지, 관찰사가, 무단히, 남의벼슬갈면, 그ᄃᆡ신과, 벼슬일흔사ᄅᆞᆷ파 한가지로 재판ᄒᆞ여서, 시비를, 분변ᄒᆞᆫ후에야, 구졍ᄒᆞᆫ다ᄒᆞ더라

### ● 收稅[illegible]

봉셜에, 들니기를, 팔도에수세ᄒᆞᄂᆞᆫ법이, 다시셜시가된다고, 소문이, 낭쟈할ᄲᅮᆫ이아니라, 그수세ᄒᆞᄂᆞᆫ절차ᄂᆞᆫ농상공부에서, 쥬쟝ᄒᆞᄂᆞᆫ고로, 일젼에, 듯ᄂᆞᆫ바의ᄂᆞᆫ, 농상공부대신이, 렴란위 권ᄒᆞᆫ, 팔도로, 과송ᄒᆞ여서, 각포구와, 장시의영편을, 쌉핀후에, 그포구에, 세랍도 경ᄒᆞ고세랍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차출ᄒᆞᆫ다ᄒᆞ더니, 요ᄉᆞ이, 드르니, 농상공부ᄂᆞᆫ, 상관이업고, 궁ᄂᆡ부와 탁지부의서 상관이되ᄂᆞᆫ데, 궁ᄂᆡ부의서ᄂᆞᆫ, 남편으로, 맛타 상관ᄒᆞ고, 탁지부의서ᄂᆞᆫ, 황히도편을, 맛타서, 상관ᄒᆞᄂᆞᆫ데, 궁ᄂᆡ부의서ᄂᆞᆫ, 경상도양산원동수세와, 동ᄂᆡ, 영엄, 세를마련ᄒᆞ여주고, 남양도, 수세를시기고, 탁지부의서ᄂᆞᆫ, 희쥬와연안을, 먼저ᄂᆡ여주엇다ᄒᆞᄂᆞᆫ데, 그진가와멧곳수효를, 다알수ᄂᆞᆫ, 업스나, 요ᄉᆡ의 청군이, 사면의, 널너서 미편금이 다, 그만냥이다, ᄒᆞ면서, 그실쳐를구허려ᄃᆞᆼ기ᄂᆞᆫ쟈이 만타ᄒᆞ더라

### ● 仁川[illegible]用[illegible]合[illegible]之設立

[illegible]邦一部[illegible]及京城[illegible]民 이, 발긔ᄒᆞ야 [illegible]의회샤를, 셜립ᄒᆞ야가지고, 米[illegible]모스[illegible]ᄒᆞ고, 후별도약을ᄒᆞ야서, 서울과인쳔ᄉᆞ이에, [illegible]ᄒᆞᆯ철도역ᄉᆞ를, 담부ᄒᆞ야보자ᄂᆞᆫ경륜이라ᄂᆞᆫ데, 이일은, 요ᄉᆞ이, 다되얏다므로, 쇼[illegible]히드러ᄂᆡ고, 그 事務所를, 슈표교근쳐에 짓ᄂᆞᆫ다더라과

### ● 六[illegible]民及各[illegible]之合同

갑오년, 이후로, 륙쥬비젼, 사젼들이 상무가 되 폐ᄒᆞ여, 폐젼ᄒᆞᆫ쟈가, 만코, 각샤서리들이 구실ᄯᅥ러진쟈 부지기수라, 그쟈들이, 다 싱계가, 업서서, 인졍이, 오오ᄒᆞ다, ᄒᆞ여서, 작일에, 무삼조쳐지방이, 잇ᄂᆞᆫ지, 륙쥬비젼시민들파, 각샤서리들을, 션혜령으로, 다모히라고, 령치이, 계셧다더다

### ● [illegible]之[illegible]記

일젼에, 양근, 지평, 당에, 비도가, ᄃᆡ치ᄒᆞ여서, 양근군수, 명운렬씨가, 셔울노, 도망ᄒᆞ여, 왓다ᄒᆞ더니, 지금그군쳐의서, 올나온사ᄅᆞᆷ의, 연ᄒᆞᄂᆞᆫ말을, 들으니, 이젼경무사, 지ᄂᆡ던, 김지풍씨의ᄯᅩᆨ데 김지온씨가, 도지휘사, 를ᄒᆞ여서 군사사빅명을거나리고, 그곳에가서, 비도를, 무수히, 포살ᄒᆞ미, 지금은, 그곳이, 진뎡되엿다더라

### ● [illegible]之[illegible]況

[illegible]쥬, 비도, 거괴, 류인석의, 일은, 여러번, 본지상에, 올녓거니와, 지금, 다시드르니, 류의석이가, 형세가, 졍ᄉᆡ, 궁진ᄒᆞ여, 양식도 구ᄒᆞ여, 어온수도, 업고, 포수들도, 만히허여져서, 지금잇ᄂᆞᆫ것시, 불과 ᄇᆡᆨ여명인데, 그져허여지기, 무미ᄒᆞ미, 일젼의, 도지휘사, 김지온씨의게, 편지ᄒᆞ여서, 각국, 회판[illegible] 그수ᄒᆞᆫ조수[illegible]월, 등디로, [illegible]ᄅᆞᆷ들은, 류이더라고, 말[illegible]

### ● [illegible]

[illegible]남서, 비도ᄂᆞᆫ 힝ᄒᆞᄂᆞᆫ데, 에 이러나고, 저 이러ᄂᆞᆫ다ᄒᆞ[illegible]

### ● [illegible]

지난달, 이[illegible]ᄒᆞ든 [illegible]之[illegible] 듯지, 안[illegible] 북쪽된 [illegible]게 그근쳐에 [illegible] 형졔잇순쪽 켸룡[illegible]계ᄒᆞ

### ● 假[illegible]

[illegible]가[illegible] 공쥬샤ᄂᆞᆫ, 금년봄에, 곳[illegible]것슬, 도모ᄒᆞ[illegible] 소지를위조[illegible]리지졍씨의[illegible]에, ᄒᆞ기를, 자졔히, 민[illegible]실ᄒᆞ여서, ᄇᆡ[illegible]ᄒᆞᆫ, 먹거ᄯᅥ니 사ᄅᆞᆷ, 가지구 엇더ᄒᆞ게, 조[illegible] 집의주졉ᄒᆞ[illegible] 아라ᄒᆞ고, 서[illegible]이ᄒᆞᄂᆞ고 환[illegible]어사 관찰사의 아[illegible], 논일이라, 량ᄒᆞ며, 남의 복울셩비ᄒᆞ[illegible]부로, ᄂᆞ려가[illegible]되, 각군의이[illegible]더니, 관찰사 소관, 셥여구[illegible]가, 참관ᄒᆞᄂᆞᆫ[illegible]아ᄒᆞ여, 연유[illegible]더니, 탁지ᄃᆡ[illegible]지, 령ᄒᆞ기를[illegible]라고, ᄒᆞ엿다[illegible]분변, 이와, 그[illegible]이나, 던다ᄒᆞ

### ● [illegible]

서눈,황히ᄂᆞᆫ뒤,궁비동수세와,여주고,남부의서는주어다ᄒᆞ다알수사면의만냥이다뎡기는쟈設立리ᄒᆞ야고,米糧모야서,서도역스를는뒤,이로,조용히교군쳐에 [illegible] 사젼를던ᄒᆞᆫ쟈가,더러진쟈싱게가,ᄒᆞ여서,잇는지,시리들을,령치이,,양군,여서,쟝노,도망근쳐의서을,둘으김지중씨휘사,를나리고,그,포살ᄒᆞ되엿다더궁쥬,비,여러번,금,다시가,경ᄉᆞ,,먹은수허여쳐서,명인뒤,그 [illegible]

,각국,회판부려달나,고,드뒤여,그수ᄒᆞ모수ᄂᆞᆫ,거나리고,대천영,원등미로,드러간다ᄂᆞᆫ뒤,엇던사ᄅᆞᆷ들은,류인석이가,강원도로,간다더라고,말이잇다더라

● [illegible] 근일드르니,영남서,비도각쳐의,이러나서,횡힝ᄒᆞᄂᆞᆫ뒤,에서,평영ᄒᆞ면,저긔서,이러나고,저긔서무사ᄒᆞ면,여긔서이러ᄂᆞ다ᄒᆞ더라

● [illegible] 지난달,이십삼일에,관병의게 [illegible] ᄒᆞᆫ [illegible] ᄂᆞᆫ,그후에,어뒤로갓든지 [illegible] 북쪽된 [illegible] 게잇서서 [illegible] 을내므로,그근쳐에 [illegible] 은,초자 [illegible] ᄒᆞ야지는형세잇ᄉᆞᆫ즉,경쥬에 [illegible] ᄒᆞᆫ관변은,권용 [illegible] 케ᄒᆞ얏다더라

● [illegible] 츙쳥도,공쥬사ᄂᆞᆫ, [illegible] 란사ᄅᆞᆷ이,금년봄에,공쥬부,도사수 [illegible] 란것슬,도모코져ᄒᆞ여,여러빅셩에,소지를위조ᄒᆞ여,락지부서리뒤신,리지젼씨의게,등ᄒᆞ엿더니,그뒤사에,ᄒᆞ기를,민원이파연그러ᄒᆞᆯ진뒤,자졔히,민졍의,그러ᄒᆞᆫ연유ᄂᆞᆫ,사실ᄒᆞ여서,보고ᄒᆞ라고,공쥬관찰사ᄒᆞᆫ,민거떠나,덩어ᄉᆞ가,그소지졔사ᄅᆞᆷ,가지고,사면으로다니면서,어더ᄒᆞ게,주션ᄒᆞ엿ᄂᆞᆫ지,남촌 [illegible] 집의주졉ᄒᆞ여,그집이,다사수집아라ᄒᆞ고,서긔몃명과,사고뒤 [illegible] 이ᄂᆞ니고,발ᄒᆞ게를 [illegible] 쳥도사환 [illegible] 어사을ᄒᆞ엿노라고,또공쥬관찰사의,아들,리범팔씨가,쥬장ᄒᆞᄂᆞᆫ일이라ᄒᆞ고,도쟝과훈령을,자량ᄒᆞ며,남의돈을,만히어디서의복을셩비ᄒᆞ고,각각긔술ᄒᆞ고공쥬부로,니려가서,사면게,방을,부치되,각군의인민들을,오라고,ᄒᆞ엿더니,관찰사가,그방을본즉,공쥬소관,십여군,환곡읍은,다,명씨가,참관ᄒᆞᄂᆞᆫ일이라,관찰사가의아ᄒᆞ여,연유열락지부에,보고ᄒᆞ엿더니,락지뒤신이,셥작,놈뒤여서지,령ᄒᆞ기를,그놈들을,상사시기라고,ᄒᆞ엿다ᄒᆞᄂᆞᆫ뒤,그동류는,송문빅,이와,됴용렬,등인뒤,수십명이나,된다ᄒᆞ더라

● [illegible] 지난간십일에,군부소뒤쟝ᄒᆞᆫ사ᄅᆞᆷ이,모교다리를,지나ᄂᆞᆫ뒤,그교번소,순검,ᄒᆞᆫ분이,거러안져서,소뒤쟝을,보고,경례ᄒᆞ지아니ᄒᆞ거ᄂᆞᆯ,그소뒤쟝이,그순검다려,무례ᄒᆞᆫ것슬,칙망ᄒᆞ고,또경무령은,본뒤,엇젹,놈들이,셜시ᄒᆞᆫ연고로,그러,ᄒᆞᆫ가ᄒᆞ며말이다리치에,버서ᄂᆞᆫ지라,순검이또ᄒᆞᆫ,분로ᄒᆞ여,그무도ᄒᆞᆷ을,칙망ᄒᆞ며,인ᄒᆞ여,서로싸호다가밤이,기픈후에,군부경무령의서,서로공문왕복이되여,그순검 [illegible] ᄒᆞ더라

● [illegible] 지난간십일일밤에,연동순포령압헤서,ᄒᆞᆫ계집이,머리에무삼몰건을니고가거ᄂᆞᆯ,순검이,그밤에몰건가지고,가ᄂᆞᆫ일이,수상ᄒᆞ미,뒤를ᄯᆞ라,그쥭젹을,탐지ᄒᆞ니,그게집인쟈,안동,리씨집,아리것신ᄃᆡ,그집,몰건을,도젹ᄒᆞ여,가지고,오ᄂᆞᆫ것시라,그몰건을,계수ᄒᆞ니,유리와,가ᄋᆞᆨ지,등몰인뒤,갑스로말ᄒᆞ면,오륙빅금이,넘ᄂᆞᆫ지라,쥬시그니씨 [illegible] 차자주고,그게집은,경무쳥으로,보ᄂᆡ여,가두엇다,ᄒᆞ더라

● [illegible] 경상도 [illegible] 김히 [illegible] 사ᄂᆞᆫ 엇던사ᄅᆞᆷ이,쟝사로,성인을,삼어서,항상단이다가,분힝이작년여ᄅᆞᆷ에,경기도 [illegible] 와의와서,쥭으니그쳐가,문부를ᄒᆞ고,쥭시남양으로가서,그남편의시톄를,거무어서,송쥬우희,권조ᄒᆞ엿다가,을오월의,다시그송쟝을,유지로,싸서,송판의박첫서 머리우의이고천리길의,고향으로,운구할시,구차ᄒᆞᆫ졍분과부의경상이보기불상ᄒᆞᆫ지라,길가의힝인뎌이,그녀편네머리우의,시톄이고가ᄂᆞᆫ거셜보고사ᄅᆞᆷ마다괴이하게너겨,서몰은즉그과부가뒤답ᄒᆞ기를실졍으로ᄒᆞ니연노의서못넌사ᄅᆞᆷ들이다불상이너겨서노자주ᄂᆞᆫ사ᄅᆞᆷ이만흐니,힝중외무거워서만이ᄉᆞ양ᄒᆞ고아니밧으며,밤이,면시쳔들여각집졈하미헤서지히여자고,낫지면힝ᄒᆞ여단ᄒᆞᆫ만외고향의득달ᄒᆞ뒤인리가모다충찬ᄒᆞ더라그녀편니ᄂᆞᆫ혼삼십이계오계살너온아들ᄒᆞ나히잇다더라

● [illegible] 저작일밤에,도시말이나,숙시초음에, [illegible] 박긔서 두어사ᄅᆞᆷ의소리가나므로,자만히,들온즉,동관대궐편에,뉵갑이불이뵈인다ᄒᆞ므로,문열고나가서보니,크기가,박아지만금ᄒᆞ고,빗치 [illegible] ᄒᆞ야,쌍에서十五六尺만ᄒᆞᄂᆞᆫ뒤를,이리갓다,저리갓다가,엇던ᄯᅢᄂᆞᆫ,꼬리를내ᄂᆞᆫ뒤,그쟝이여자나되고,모두, [illegible] 오리도록,보고잇더니,ᄒᆞᆫ참잇다가크기가 [illegible] 만ᄒᆞ얏더니,곳 [illegible] ᄒᆞ얏더라고,하도갑근쳐에사ᄂᆞᆫ [illegible] 가,그니야기를ᄒᆞᄂᆞᆫ뒤,또필동에사ᄂᆞᆫ사ᄅᆞᆷ도,그날밤 [illegible] 에, [illegible] ᄒᆞ러,나갓더니,동관대궐편에,그독갑이불이보이므로,쳔리경을,내여와서,잘보니,그形이,조곰 [illegible] 이요,크기는,젼의죠션사ᄅᆞᆷ이ᄒᆞᄂᆞᆫ것보담크고,그빗파 [illegible] 만 다논거슨,뚝굿고,그나든뒤ᄂᆞᆫ,동관대궐후원의,남쪽인뒤,ᄒᆞᆫ참ᄒᆞ야,그쳐 [illegible] ᄒᆞ얏다니,뭇사ᄅᆞᆷ의말이,뚝,합ᄒᆞ니,이ᄂᆞᆫ,무ᄉᆞᆫ [illegible] 인지,몰으나이상ᄒᆞ더라고말이잇스니,긔지ᄒᆞ야,타인의 [illegible] 보겟스되 아마, [illegible] ᄒᆞᆫ사ᄅᆞᆷ의,종셜이리라

## 社告

今回本社 [illegible] ᄂᆞᆫ地方 [illegible] 에便利합을 [illegible] ᄒᆞ야 [illegible] 으로 [illegible] ᄒᆞ물請ᄒᆞ얏더니 [illegible] 에 서 [illegible] 되얏스며 [illegible] 이 [illegible] 은 [illegible] 一 [illegible] 一兩二錢五分과 [illegible] 錢五分을本社에先給으로보ᄂᆡ시면日日에보ᄂᆡ옵

| | | |
|---|---|---|
| [illegible] 一張價 | | 一錢三分 |
| 一個月 | 先給 | 一兩二錢五分 |
| 三個月 | 先給 | 三兩五錢 |
| 六個月 | 先給 | 六兩七錢五分 |
| [illegible] | | [illegible] 七錢五分 |

[illegible] ᄒᆞᆫ졸을ᄒᆞᆫ번내ᄂᆞᆫ거시三里文
이 요 [illegible] 로쫏차서 갑
술면맛고 [illegible] 도션 갑의
밧ᄉᆞ오웁

雜報

●原公使同夫人等の訪問

原公使、同夫人、日置書記官、野津大尉等は昨日米公使及び同夫人を訪問せられたり

●趙秉世氏の奏議

趙秉世、鄭範朝諸氏等の如前に拜辭し何事か奏上する所ありし趣は當時の紙上に記せしが右の際趙氏の奏上せし所の大要なりとて傳ふる所を聞くに近來彈章中多く趙臣の名を用ふるも是れ一々信すべきものにあらざる事、近日外國に遊びし者多くは是れ輕佻兒、容易に信用すべからざる事、今日如前に奉侍する者忠勤を勵み居るが如き觀あるも其内心必しも忠良なる者のみにあらず或は他日に深憂を貽すことも之れ有るべければ緩め用心肝要なる事、李範晋氏は 陛下の還御あらせら[illegible]して出使すべき者にあらざれば[illegible]官民の別なく都て網巾を着せしむべき事なりしと而して以上の奏聞にして若し容られずんば致仕永く退隱するの外なしと云ふ事とも同時に奏上せしとか

●對審の模様

去十一日に於ける朴定陽氏と鄭進士對審のことは前號に記せしが其翌日は他の嫌疑動者と鄭進士の間に對審あり同日にて對審は全く了はり 陛下より之れ嫌疑動に對し法官、審理員、殺論何多虚實の裁官を下されたるを以て嫌疑動者は同夜何れも各自其家に戻りたり聞くが如んば鄭進士は内[illegible]せ疑惑多くして外で年齡は五十前後とも見え[illegible]しく對審の際には或は低聲獨笑の如くし而して時に[illegible]説亂言狂者の如きとあり其の朴氏以下との對審の大要左の如し(前號の續)

鄭進士(鄭本著者)

朴定陽氏との對審

(朴)政本中余に對し問ふ所の貪官とは何の謂なるや又余の[illegible]

會議任以來今に於て其遺未だ何の施設する所なし故に云ふのみ(朴)政府の要は事の前に浚淀を要するにして又他との關係とも慮らざるべからずして一事一物たも輕しく施措すべきものにあらず國より余は淺劣にして責任は堪へず故に屢く辭を乞ひたりしも許されざるを以て巳むなく留任し居れり皮相の見、何事の施設する所なしと云ふを以つて貪官と爲す理由も亦甚だしと云ふべし(鄭)答ふる能はず(朴)政本中義なしと云ふは抑く何事ぞ(鄭)政府の必用を述べ生徒の定員三十名なるに實際募集の生徒は二十名に超へず且つ之れを養成するの方針理に失する旨を論ず(朴)之れに對し辨論す(鄭)答ふる能はず

(裁判長)鄭の言ふ所理由なきを責む

李完用氏との對審

(李)一問貪官とは何の意ぞ、(鄭)公の三父子皆高官に登る貪官にあらざるか、(李)陛下の思龍此に至る汝は此の思召を如何と爲すも[illegible]

(李)前年七月七日米國寧遠の[illegible]國を[illegible]

(李)[illegible]も故なく辭退せるか、(鄭)答ふる能はず

(李)功臣叛賊と云ふ余に何の罪有るや、(鄭)昨年七月七日米公使館に往きて當時公は任に莽務使に在り此が逃捕を爲すを得ず却之を逃走せしむ故に罪有り、(李)余は一旦之を逃走せしむるを得ず想起せり昨年七月六日の夜、勅使余の邸に下り四時参内せよとの勅命を傳ふ然れども如前に拜辭するには逐に亂髮なるべからず又夫々制服なり故に髮を梳り服を改め居たる際第二回の勅使至る即ち起て参内せんとしてたるに偶々從僕外出して家に在らず巳むなく徒歩参内せんとし門を出でたるに第三回の勅使又到る是に於て騎せて宮闕に至り將に宮門を入らんとしける際偶々人あり余の見舎せられたるを傳ふ而して大君主陛下の余を召されたるは警務使として召されたる次第にして一個の事尤用を召されたるものにあらざりしを以て余は巳むなく宮門より辭し去りたり斯くして免官及び罷職に附する旨の勅令下りたるは七月七日朝の事なり故へに余逃したるは此事に對し責任なしと云ふ、(鄭)答ふる能はず

(裁判長)李完用氏の問ふ所理あり鄭の論ずる所謂なきを責む

安駉壽氏との對審

(安)甲午年六月の事變とは何の謂ぞ(鄭)當時南大門及び鍾路附近の路上公を拜謁と云ふ者有りしと聞けり故に云ふ尤も未だ其證跡を見ず(安)當時余大臣の任なし時事少しも與せる所あらず云々(安)引證云々とは何の謂ぞ(鄭)公嘗て軍部大臣たりし時兵器を濫造す故に云ふ(安)余は軍部大臣たりし時官僚の事を爲せしと雖も此れ政府の命に依りたるものにして私に濫造せしにあらず何ぞ叛賊と云はん(鄭)答ふる能はず死を請はんことを請ふ

(裁判長)又安駉壽の言、理にして鄭の論、識るところなきを責む

又同日は午前十時より徐載弼氏の名譽損害賠償に關する對審あり其状況は餘白なきを以て次號に讓る而して右對審終りて後警務官金熙[illegible]源氏は法官所に出で鄭の上疏は彼れ自身に爲せしものにあらず彼れは本と資源仲謀を為しに四十刑の全を貪りたることあり此一事を以ても彼れは已に罪人たるのみならず道校の上疏は則ち前承旨李最應之を書し前參議金[illegible]作に係るものなること明白故に李、金兩人は已に捕縛したりとの事を公言したる由又朴定陽氏及其他の嫌疑動者は更らに鄭道士と相手取り何れも個人の資格を以て名譽恢復の民事訴訟を起したりと云ふ

●守備兵の増加　傳ふる所に曰く　陛下の宿らせ給ふ露館の警戒は何故か近來益々嚴にして五六日前には更らに露國水兵中異類の者數百名を撰び以て露館及其近地の守備に充てたりと、予輩未だ其真否を知らず、又た韓人間傳ふる者わるを聞く日く日本壯士數十名京城に入り込み何事か頻りに企だてつゝありと、實に是れ根も葉もなき説傳の甚しきものにして聞く者欲ねて之と一笑に附するは疑ひなきも[illegible]政府に韓人の事とて兩には之を事實かの如くに想ひ頻りに恐懼し居るもの若きにあらずと、政府は[illegible]動令を發して一

●内田領事の出發

殷栗民の渡航を嚴禁にせる[illegible]知らざるか、恃地及沿岸各港には密察の警戒極めて嚴にして人の出入寸隙も假借する所なきを知らざるか、斯る能弊を排ふる者ありは云ふまでもなく容易に此能弊を信じて恐怖狼狽する勢の堪[illegible]然る其突すべきにあらずや

内田領事は夫人及從者と共に愈る昨朝八時半領事館を出發せられ同十時頃龍山より乘船仁川に下られたり此の日公使の小林通譯官、領事館員、守備隊將校、通信部員、朝鮮政府の殺[illegible]官、補佐官、小學校生徒、居留民中の重立者等數十名は龍山に、其他の居留民は南大門外に見送り龍山にて乘船の際小學校生徒は一齊に内田領事の萬歳を唱へたり領事は仁川より本日出帆の[illegible]なる玄海丸に

●蠶動派氏放免せらる

入院者の門外蠶動派氏は捕はれたるとは前號に記せしが氏は間もなく放免せられたる由

●水仁鐵道設用株式會社の設立

京仁一部の官吏及び京城商民中には匿名の合股を設立し夫の米國キース會社と特約して京仁間鐵道敷設工事の請負を爲さんとの計畫ある由なるが此計畫は昨今大に熱し遠からず公然發表し其の事務所を水標橋近辺に設くる筈なり

●六矣廛の不景氣と城内の人氣

性年間、綿反物、紙其他の商權を其の手に持占し多分の利益を貪り居りし鍾路なる六矣廛も一昨年以後は改たに前日の如く不當の利を貪る能はざるに至り加ふるに近來一般商況の不景氣に連れ同廛も余程の不景氣なる由にて旁く收支償はず於て閉店する者さへ有る由又一昨年改革の際獨占法せられたる各官衙の吏員輩も此頃に至り益々糊口の途に窮し城内一般の人氣甚だ立しからずと云ふ昨今六矣廛の不景氣及び官民の人氣斯くの如くなるを以て其善後策に關する相談にもわらんか昨日は前京主及咒識吏員數名大門内南北廛に會して何事か相談する所有りしと云ふ

●暴徒か漁業者を襲ふ

釜山居留漁業者の一組は十數日前釜山を距る約五十里餘なる「コプチケン」の沖合に至りて漁業を營み居たりしに去る三十日頃より何れも大に驚き船を殺りて逃走する内暴徒は船を以て追跡せしも幸ひにして危難を免かれ一名の負傷者もなかりし尤も船体には何れも二三の彈痕を留めざるはなしと云ふ

●堤川暴徒の近状　觀察使[illegible]の報に由る堤川の暴徒は糧食の缺がざる爲め近來漸く解散する者多く目下其數七八十名を超へざるべしと云ふ而して觀察中隊長金在鳳氏は此程征討の爲め同地方に向ひしに敢て抵抗せず一書を金中隊長の許に差出して觀察大臣に轉送せんことを請ひしを以て金中隊長は之を諾して直に奉軍相に轉送し奉軍相は 陛下に之を奏上せし由其遊は大概に記する所の如し

●匪魁の上疏

忠清道の匪魁柳麟錫、申[illegible]秀、江原道の匪

[illegible]へきも十三[illegible]

逆に先王の[illegible]含んで別[illegible]

[illegible]卒黨を[illegible]其の大小の任して兇黨は何等の罪だにせず、

[illegible]するに及ぶ[illegible]徒らんとす逆黨の[illegible]るは是れ[illegible]ふと雖も、[illegible]黨の外國[illegible]るもの[illegible]やを夫れ外國[illegible]犯し殺人を[illegible]に照會して此れ即ち盟[illegible]書計を行は[illegible]國公使と一[illegible]と且つ將さ[illegible]如し以つて解き去ると

●[illegible]

軍四方に出[illegible]せず大小の[illegible]官[illegible]なら各國[illegible]使の[illegible]して[illegible]生ず[illegible]つて[illegible]局者に[illegible]

か、偖にしてるかいてもな者の如　發　八時半渡江通の日公部員、生徒、其他の相川彩州へた消丸に　[illegible]　は前頃る由石の合して京到着わつず公る筈すに特八笑辰利を責死の不こ考へ入一非兵挑も叙の人不決職普揆職出及究中か相釜山の沖合十日限射せしる内幕難を免体には云ふる逃く解放るべし相征討一番を逃せんて直に要上せ道の理

桓閲哲鉄、樋仁夏は又々左の陳情書を叛好密局者に上れり

生等昨つて本年三月の頃に於いて一揆の頭領者を殺して政府に迫らんとせり凡そ慎謐遁卿の幹各国政府の為、官民相ひ争ふの利害、反覆丁寧なるならず、而るに独り生等の志望未だ平せず大小の官吏等を討滅を以つて主となし官軍四方に出で、朝廷亦れず延期民情騒擾に同じきわり知らず生等何んの罪戻ありて然るか生等平日語る所のものは堯舜孔孟の道にして行ふ所のものは堯舜孔孟の道なり、之れを政府に帰すれば則ち其の情にあらざるなり、使る所のもの仁か復讐討賊の義にして発る所のものは開闢以来の論なり之れを鉄林に開きそれは則ち其の情よりあらざるなり生等の趣旨にして政府の意見ならば則ち我等の来る所より甘じて受くる所なり生等の冤屈として政府の所[illegible]へども士子の仁を成し義を取る所以のもの、是に於いて国とすれば則ち国よりなさに突含んで刑を受くべきなり其の閣下の地にある世に先王の国にあらずや世に孔孟の徒にあらずや世は忠愛の君よりあらずや　君父をして以く洗脳の名を蒙むらしめて叛賊の躁を存けなば則はち後世の今日を何論するもの必らず我究して之れを辨ずるものあらん

生等が辞散を得ざる所以の者二三大義あり情ふ閣下の為めに之れが陳陳せん夫れ人の生や非日日本の法制より裁判を明なることとなし然れども惟く其の道に異なるものは仁義なり而して仁は父子より大なるなく義は君臣より大なるなし不幸にして君父の難に遭はばね子を枕にし遂に臥し難を排め讐賊と共にに一天に戴かざるものは天の理、地の義にして聞ゆる民族なるものなり関巷の小民猶ほ以て寛わ是を被むるといへども代数の法、三尺之れより厳なるはなし況んや我が　両后は一国宗社の主君なり　殿上中宮の姉妹なり　東宮妨娘の王愚なり八路臣民の慈母なり綱常の係るところ、義理の関るところ、何等の重大ぞ、而して大小の臣民路人と同視し賊人の列頭に一任して究明依頼するところなし、知らず今日は何等の時なるや、講究未だ報ひず　因山未だトせず、而して以つて仗義復讐の兵を征討するに及ぶ可なる乎　同役罪を講思解するに伸らんとす而して以つて奴死勤王の師を征討するに及ぶ可なる乎、前日凶状の輪は国より逆賊の為す所なり今日　王家の難放返へらざるは逆れ難の所ぞや逆臣害某等毀に就くと云ふと雖も、正名明示、未だ其の身に加はらず然黨の外国に逃逸し及び外人の私保に干預とるもの皆つて一人の捜捕するなし抑々何故ぞや夫れ外国に逃逸する者にして苟くも王本を犯し殺人を犯すものあれば則ち本国より各国に照会して未だ本国に拿致せざるものあらず此れ則ち盟約の載する所なり閣下何んぞ此の誓言を行はずして外邦を救ふや生等将すに各国公使と一場談判し詰弁して乃はち已まんとし且つ将さに官職を罵倒し　軍に赴して　国如し以つて一国の恥みと慰さめんとす生等か解き去るを得ざる所以のものなり　（未完）

●揚根砥平の暴徒平定す　一時稍々猖獗なりし揚根、砥平地方の暴徒は中隊長余在股氏の行路に迎ひ四方に散乱し生田されし者数多有りしが何れも砲殺せられ同地方は目下平定せりとぞ

●暴徒界游に譲る　去月廿三日官兵の攻撃に遭ひ潰散したる忠州の暴徒は北後何地へか跡を隠し居たるが又々忠州城の北約八里なる界游に譲りて大に勢焔を張り附近の暴民もか々に増加するの状況あり依て忠州城に駐屯し居たる官兵は挙げて同地方へ向け前進せりと

●原公使の要宴　原公使は一昨夜公使館、領事館の高等官及び新山守備隊長、川村電信局理事を招待して饗宴の宴を張られたり

●大三輪長兵衛氏　は原公使と同船し再び渡韓する筈なりしも都合ありて見合せたるが術関杆の用向き掛け大坂近々渡韓する筈なり[illegible]氏の内一人同行するやも知れずと云ふ

●官立学校の暑中休暇　漢城師範学校、成内館及び各官立小学校は去る十日より暑中休暇を許せり其日数は同日より向ふ四十日間なりと

●處罰一束　内閣記録局官報課長李裕圭氏は法部令第三號を官報に掲載せざるに方り参照を載せざりしは職務上精誤を欠きたるものなりとて去る四日譴責せられ、税務第一勝隊一大隊附副尉元教祝、同第四大隊附参尉趙顕進の二氏は共に職務上注意を欠きたりとて去る六日一週間の謹慎に處せられ、警務官李啓信氏は職務上誠実を欠きたりとて去る六日謹慎十日に處せられ、警務官李舜錫氏は職務上誠実を欠きたりとて、警務官白敬善、同沈鍾萃の二氏は職務上注意を欠きたりとて何れも同日譴責せられたり

●幼児遠く父の行衛を尋ぬ　（つゞき）

数術は彼の昨を得て小躍りして打喜び早速旅装を調へて発足し東西南北或は山を越へ河を渉り到る所至らざるの地なく其間幸便あれば必ず音信を北に通じ三ケ年の長日月千辛萬苦を嘗めて父の行衛を尋ぬる曾つて一たびも家に帰へりしことなく今春全羅道南端に至りて由めて父の先年同地より済州島に渡りしことを聞き出し便船ありしを幸ひ喜び勇んで同島へと渡り父の在処を尋ねしに其は如何に父の姿は見へで只だ京城々たる一坵墳を存するのみ数術は父の病死の次第を聞きて気も狂はん許りに泣き悲しみ哀訴に至りて慟哭すること数日殺夜児見たらん如きの風らくも男も覚へず袖を絞りけると斯くて数術は泣く泣くも父の墳墓を発掘し遺骨を収めて帰途に就かんと支度し居る所余同郷の船に乗りて所地方に舞ひ来り数術は之れに同せられて暴徒の陣所に拉れ行かれ万死一生の窮地に引き摺へられて種々の苦難を受け数術は少しも恐み恐らく一係一什物語りけるに流石の暴徒も孝子の至誠に感じ直ちに其の罪を解きしのみか若干の路用までとも与へけり数術は意外の事に一時茫然たりしに暴徒の日為は驚突しながら我々は天下の義兵なり御身の孝行は我々の深く感ずる所なり少なれど切角代志受けられて仔細はあるまじとて強ひての勧めに辞しもせられず其金を受け父の遺骸は既に収め白ら之れを仔伝ひて舟路にわり渡すがら朝な夕な伏し拝みつゝ山路千里遥々と我家へと旅立しは今より二ヶ月前の事なりしとかや世に珍しき孝子と云ふべし　（おわり）

## ●京城輸出入（本前）

廿九年六月中（京城商業会議所調査の摘録）

▲輸出重要品に就ては（団位以下省略）

| 種別　月別 | 本年六月中 | 客年六月中 | 増減 |
|---|---|---|---|
| 金地 | 一 | 七、七八一 | 七、七八一 |
| 牛皮 | 一、〇〇九 | 三六 | 九七三 |
| 牛骨 | 一 | 五七 | 五七 |
| 大豆 | 一 | 一六〇 | 一六〇 |
| 小豆 | 一 | 二〇五 | 二〇五 |

▲輸出入貨物品目及価格を細別すれば

輸入日本貨（団位以下省略）

| | | |
|---|---|---|
| 和金巾 | 二〇〇 | 八六〇 |
| 木綿 | 五〇 | 五〇 |
| 生平 | 三五 | 一一五 |
| ゾカン | 三打 | 三四 |
| 銅針金 | 六二 | 二八 |
| 真鍮釘 | 二〇〇 | 八〇 |
| 洋傘 | 一〇〇 | 五五〇 |
| 洋服 | 八 | 二一 |
| 香ゝ油 | | 一三 |
| 絹反物 | 一一〇 | 九九 |
| 白綿 | 二 | 六 |
| 紡績糸 | 三四〇 | 八三四 |
| 天保銅 | 六〇〇 | 一三〇 |
| 真鍮針金 | 三一 | 二二 |
| 洋寸 | 三四〇噸 | 二、七五五 |
| 洋製洋紙 | 一六、二〇〇 | 二七九 |
| 鋳鉄 | | 一一〇 |
| 石鹸 | 五七〇 | 一一四 |
| 硝子器 | | 六〇 |
| 雑物 | 七八〇 | 二六八 |
| 罐詰 | | 一五八 |
| 酒 | 一〇八 | 八一八 |
| 葡萄酒 | | 四七 |
| [illegible] | 二〇〇 | 一七〇 |
| [illegible] | 三〇 | 二二 |
| [illegible] | 四〇〇 | 四〇 |
| ビール | 四七 | 一四五 |
| [illegible] | 四四五、五〇〇 | 三三〇 |
| 薬品 | | 六〇七 |
| 素麺 | 二〇〇 | 八五 |
| 片栗粉 | 四一八 | 六二 |
| 醤油 | 二五四 | 七八〇 |
| 製粉 | 四、〇〇〇 | 四四 |
| 竹 | 五〇〇 | 四五 |
| 砂 | 一〇〇貫 | 二八 |
| 紙 | | 一四七 |
| 古鉄 | 八〇〇 | 三三 |
| [illegible] | | 九九 |
| 硯 | 一二〇打 | 四七 |
| 新聞紙 | 二〇貫 | 一二 |
| 小間物 | | 一三二 |
| 食品 | | 四九 |
| 雑貨 | | 四、五六六 |
| 計 | | 一四、九九五 |

（未完）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肥後丸 八百七十一噸 七月十六日出港同十五日入港 芝罘、大沽、牛莊行 船長 ゃロソ

●玄海丸 八百七十四噸 七月十四日出港同十二日入港 釜山、長崎、馬關、神戸行 船長 茂木鋼之

●豐島丸 六百八十九噸 七月十八日出港同十七日入港 釜山、下ノ關、神戸行 船長 井上從三郎

●薩摩丸 千百五十七噸 七月廿四日入港四日出港 馬關、香港行 船長 ソソナー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七月十六日入港四日出港 長崎、釜山、元山、浦潮行 船長 ウイルソソ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隅田川丸 七月 日入港 釜山 馬關 神戸 同 大阪行 日午前出港

●二見丸 七月 日入港 釜山 馬關 神戸 同 大阪行 日出港

●筑後川丸 七月 日入港 釜山 馬關 神戸 同 大阪行 日出港

●信濃川丸 七月 日入港 釜山 下ノ關 神戸 同 大阪行 日午前 時出港

●白川丸 七月 日入港 釜山 馬關 神戸 同 大阪行 日出港

●木曾川丸 七月 日入港 釜山 馬關 神戸 同 大阪行 日出港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本支部總代役場內東京ニ假事務所ヲ設ケ當分團務取扱候間此段團員諸君ニ謹告ス

明治二十九年七月

鷄林奨業團
京城支部

●第式會正風集題 及季題 何々 正風

入花拾句ニ付金十錢 判者

豐秋園瑞穗宗匠樂撰

新題二ケ月分一軸 全一ケ月分第三式組 各次會振入花十錢 漢城新報五日分 集句高ニ依リ增賞

寄限撰定 七月二十日限 七月廿一日發々 日出詠ヲ乞

漢城新報ニ投吟詠草ハ披露撰題 所明記ヲ乞

投込所 北樺橋設 漢城新報 正風會

主任 河水 桃川

附言 第定會ハ芳翠八宗匠撰ニ付大喝ニ出詠ヲ乞フ

石川商會ハ今回都合ニヨリ和泉商會ト改稱シ專ラ時計銃砲及ビ火藥販賣ノ營業仕候間此段廣告仕候也

各國時計 銃砲及火藥 商 和泉商會

追テ弊店儀今回日本ヨリ尚ホ數多ノ新荷仕入候ニ付陸續々御注文ノ程奉希候

石川商會는今回與替之便宜로써和泉商會라고改稱하야本商時計銃砲及火藥을販賣營業하오니此事를江湖諸君에게謹告하옴

各國時計 銃砲及火藥 商 和泉商會

而하야弊店에는日本에서新貨이數多히 나왓스니陸續키來하야買求하시요

生魚 生肉 に優さる 夏の衛生料理

●飯章魚 ●あま鯛 ●いわし ●さけ ●佃煮 ●松たけ ●竹の子 ●伽羅ふき

●茄子辛子漬 ●八千代巻 ●時鳥巻 ●時雨紫艸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神漬 ●其他鑵詰各種

京城 泥峴 龜屋分店

銃獵 獵銃

荷着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附屬

廣告品

石川商會

護漢履
長履
西洋服各種
帽子

一 肥後名產 朝鮮飴

抑モ此ノ朝鮮飴ハ肥後國ノ名產ニシテ其味ノ絕好ナル近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且ツ幾日ヲ經ルト雖モ滯敗ノ患無ク茲ナ一箱ヲ滿ヘ置ケバ出來ノ茶菓子トシ最上ノ好品ナリ大方之諸彥一箱ヲ購ナ試用レ玉ハンコトヲ請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弊館御宿泊料之儀左ノ通リ相定メ懸々丁寧親切ニ勉强仕候間御愛顧奉願候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三十八號
田原旅館

內國勸業博覽會 西班牙萬國大博覽會
賞牌 受領賞牌


지병 후장 이거 안견 기가 ᄯᅥ러 가온 되량 싱에 도알 쏫치 술인 이포

第一 第二 第三

京城 龜屋分店 泥峴

履 履 種 子

…子泥峴 一圓 …錢 …錢 五錢 …館



內國勸業博覽會 西班牙萬國大博覽會

受領 賞牌 銅賞牌

DAI.NHON

帝國醫科大學撰範藥局御用

甲斐國 祝村甲斐産葡萄酒 合資會社醸造

農商務省

陸軍御用

登錄商標

第一甲斐產葡萄酒

○第一甲斐產葡萄酒ノ特効

葡萄酒ハ衛生上缺クベカラサル飲料タルコトハ諸大家ノ皆之レヲ許サヽルナシ然レドモ其ノ酒質若シ粗惡ナルトキハ[illegible]最モ注意ヲ加ヘタレバ衛生上ノ効アルコト實ニ卵ノ如ク人若シ常ニ此第一甲斐產葡萄酒ヲ適度ニ飲用スレバ能ク其性ヲ知スルニ於テハ血液ノ循環ヲ強クシ機能ノ調理ヲ得セシメ貧血ヲ補ヒ腦髓ノ疲勞ヲ助ケ精神ヲ爽快ニシ胃ヲ強健ナルヲ得テ消化力ヲ助クル爲ノ食慾ヲ喚起シ全身ロク快活ナ發ユルコト妙ナリ仰ナ過度ノ運動ヲ爲スノ人若クハ病後ノ運動ノ乏シキ人若シクハ事業ノ爲ニ精神ヲ勞スル人ノ如キ殊ニ此第一甲斐產葡萄酒ヲ小量宛用ヒテ怠ルコト無ケレバ其偉効ヲ奏スルコト疑ナシ又第一甲斐產葡萄酒ヲ醫用トスレバ許ク左ノ諸症ニ適ス

第壹 貧血病。其他種々ノ原因ニヨリ來ル貧血症。急性重病後ノ回復期。肺病初期病等ニ用ヒテ殊効アリ

第貳 小兒ノ此嗽症。慢性下痢。赤痢病。大出血病等ニテ心臟ノ機能將サニ過止セントスル殊状アルモノニ内服セシムレバ奇効ヲ奏ス

第參 熱病。腸室扶斯。[illegible]。[illegible]ヒ熱ノ後メル[illegible]。[illegible]等ノ諸病ニ用ヒテ大ニ効能アリ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洋酒都賣 限本商行

○第一甲斐產葡萄酒에特效

이포도쥬란술이사룸위싱(식명을호위함)하는게가히업지못홀묘.혼술인즉온모든대방가의원던이깁히아는바이니만닐그술빗즌바탕이좃치아니하면엇지이것흐리오도로혀히가잇술것슬말하지아니하여도알것시라이제일甲斐產葡萄酒는가장그빗는지묘에정셩을드려서그위싱에효험잇는것시신통하니사룸이만닐제갑비산포도쥬를상히마시되량에맛게장복하면긔혈에순황되기가도흐며긔룽(機能)에됴리하기가온젼하며혈분부족호것술보하며골슈에영위(榮衛)를도으며정신이ᄯᅥ러상쾌하고비위가ᄯᅩ건장하야서식량이눈고경신이스ᄉ로쾌찬하기가정녕하니이럼으로써슈고롬과도이하던사룸이노남마드거 ᄌ에안젼셔힝보를적게하던사룸이노평싱에근골을슈고로이하던사룸덜이거상에이第一甲斐產葡萄酒를머우면이우히여러가지병에심히맛당하니혹장복을하면그공이크게나기가의심업고ᄯᅩ외젼염이ᄉ술을여,러가지병에ᄡ니그ᄊ는법을이으리젹노라

第一은 한담병과 혈분부족한병과 중병후소복과 [illegible]利病과 요동지결둥에공효가ᄋ이하고

第二는 소아(小兒)의로사증과 괴질과 젹현니질과 하혈증과 장부에병이셔졍신부족호것에공효긔이하고

第三은 열병과 음회병과 부종과 번열증과 폐경널과 님종으로폐경노막과 장부노막(勞役)등병에공효가모다젹지아니하오이다

朝鮮國京城 洋酒都賣 限本商行

鍮店洞 (뉴작골) 一手販賣



●日用方 職工用 和漢洋藥廣賣

各位ノ御愛顧ニ依テ帰ス益商業ヲ振興候間一層勉強仕候間不相變多少ニ不限御注文御用ノ程伏テ希望仕候

日本大阪 東區道修町三丁目 成尾安五郎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客室 旅 京城 東京館

浴室 館 明洞

●御料は廉く 衛生を旨とす● 位置便利



スコット乳剤は大鱈肝油石灰及曹達を配合したる事にして其の好味なる事レーフル油牛乳に勝る滋養の特にも消化を助け行くものなり 肺病、氣管支炎、瘰癧及喉咽病に之格別に効能あり

虚弱の小兒著しき効あるはスコット乳剤の右に出るもの少し既に萬國名醫の賞賛を博したれば彼に用ひて其效の盛なるを知り給へ

全國到る處の藥舗に販賣されれば御遠寄りにて御用求を乞ふ若しこれなき時は下記の特約劑人へ御問合われ

紐育製藥舗 スコット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洋酒都賣 限本商行



入荷廣告

一皮座蒲團 丸形 角形

一夏麥藁帽子 色々

一日本人向朝鮮向石鹼

右新着廉價販賣仕候條多少に不係御用被仰付度奉願候也

京城 泥峴 鈴木大阪堂支店

弊店儀今般當地商販賣相始メ候條多少ニ不限ラズ御愛顧被下度此段伏シテ奉願候也

泥峴第三拾八號 阿津阪商店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參拾五錢

廣告料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六錢とし行數及回數により割引仕候廣告料金は必ず前金にて申受候事

發行兼印刷人 林 [illegible] 人
編輯人 [illegible]田[illegible]雄
朝鮮國京城南部會賢坊[illegible]洞

發行所 漢城新報社

漢城新報

隔日發刊

雜報

●關于名譽損害賠償裁判

첨지 ... 에 ... 과, ... 에 ... 과, ... 에, ... 과, ... 에, ... 에, 는 미국 사롬 사명과, ... , ... , 李完用, 李采淵, ... 과, 관인 민이며, 평민 된 얼은, 아오르면 수뵉인 일너라

... 가, 물의되, 외국에 ... 호는 이화당이라 혼것슨, 누구 ... 인것 신고, 뎡씨 가 디답호여, ... 이, 김홍집, 뎡병하, 유길쥰, 댱박, 우범션, 니두황, 니범리, 니진호, 조희연, 권영진 등에, 작년 ... 수변을, 양성혼자 업이니라

... 가, 또 물으되, 갑신년의, 누망호야셔, 히외에, 잠젹호엿다가, 이에 갑오년 ... 란리 ... 만든자는, 누구냐 혼티, 뎡씨가, 디답호여 ... 이디 갑오년 ... 린즉, ... 본 증거가 업스나, 박영효가, 편경입병을, 지휘호야, 그변란을, 일은것신듯, 호고로, ... 이디 갑신 누당이 란리 ... 일우엇다, 호엿노라,

권씨가, 또 물으되, 서지필이가, 스스로 한본국 호야서, 슈옹국병이라, 호엿스니 무슨 증거가, 잇던다, 뎡씨가, 디답호여 ... 이디, 사한 ... 이라 호는 것슨, 임의 그죄를, 사호시고, 불너오라신, ... 가, 잇다호온즉, 디답홈슈어거니와, 슈옹국병이라 호온 것슨, 니가 들으니, 외국에도, 신문지가, 잇다호오니, 이제 여긔셔, 신문지 ... 흥진된 조션신문지로, 호여야 올커놀, 이에 독립신문이라, 호엿스니, 반드시 됴션국을, 변경홈의 할인고로, 슈옹국병이라 혼것시오, 다른 증거는, 업노라 혼즉, 판사 붓터 방충자셔지, 모다 가가대소 호엿다 더라

권씨가 또 물으되, 독립신문이, 담은 방산호엿고, 도모지 의리는, 업다호엿스니, 엇지호야 의리가, 업다호노, 뎡씨가 디답호되, 내가 들으니, 독립신문에 호기를, 됴션 혼인에, 션왕의 례로, 친영호는, 법을 폐호고, 셔양에 무람어시 아오르는, 혼인법을 힝호는 것시 올타, 호기로, 의리가, 업다호엿노라, 그러나, 답온 귀로만, 들엇지, 눈이 어둡고로, 보지 눈못호엿노라, 권씨가 또 물으되, 서 조필이 ... 외신이라 호엿다 호니, 니가 친히 듯엇느냐, 남의게 들엇느냐, 뎡씨 가 디답호야 골 인디, 친히 듯지 눈 못호고, 여러 사롬 덜이 원망호는 것슬, 들엇고, 다른 증거는 업노라, 남이, 이것치 지판을 함슐 ... 지 안엇스리오, 진즉 ... 여 달나고, 호엿다 더라, 여러 말을, 다 증거 ... 분명이 되지못호고, 이때 외, ... 에 보고 (번항에 긔지홈) 가 잇기로, 모다 물너 갓다더라

●地方郡守之級 각디 방 군수의, 급 잇는 것슬, 일젼지상에, 삼십여 군이라 호엿더니, 지금 다시, 듯는바에는, 지금 군수 넘거시, 구십여 과가 ... 되다 호노니, ... 방금, 급 잇는 것시, 삼십여 군이오, 지금 비도의게, 쬐셔와 셔, 셔 온 잇는 군수는, 다, 간더 히오, 또 디방에, 착하엿던, 고을을, 다시 복구호여 넘거시, 십여군이오, 각부 관찰사 도에, 참서관이, 군수로 된거시, 잇서서, 합호면 구십, 여군이라 장찻다, 니리라호는 소문이 잇더라

●對答之模樣

本月十一日 ..., 박정양 씨와, 뎡진스 ... 에 잇운 ... 에, 긔지호얏거니와, 뎡진스 그 ... 날은, 다 문 ... 와, 뎡진스 ... 호고 ... 을 호야셔, 그 난노, 아주 ... 지판은 다 호야서, 그 비답이, 나렷 스미, ... 는, 그 날밤에, 다 ... 로 도라가 더라, 들은 바에는, 뎡진스는 ... 호야 ... 이 셔주게 나고, 나히오 십세 쯤 되며, ... 때는, 모양이 ... 엇더 때는, 이 ... 홈이 미처 는 것 곳은 업도, 잇셧 는 티 朴氏以下의, 디심 ... 든 ... 는, 좌와여 홈

朴 ... 씨 호고 對答

(朴) 소장 안에, 남을 ... 호야 ... 이라 호는 말은, 무슨 ... 이 잇느뇨

(鄭) 몸이, 비부 대신으로, 잇스면서 ... 호야 ... 로, 반년이 나, 되얏스되, 아모, 혼 ... 호든 거시 업습으로, 그러호노라, (朴) ... 호는 일은, 인에 ... 홈을, 살펴보고, 또, 기더에 ... 홈의, 유무를, 살피지아니치 못홈지니, 一 ... 이라도, ... 치아 닐지라 나는, 무식호니 ... 을, 당호야, ... 치 못호므로, 초초, 소지 상소를 호얏스되, ... 호시지 아니호므로, 부득이 호야 ... 호엿 ... 는지라, 거죠만 보고, 아모 ... 호는 일이 엇다 고 ... 이라 호는 거슨 ... 호기 도 몸시 ... 호도다. (鄭) 不能 ... (朴) 소장안에 ... 호다 는 말은, 무슨 곡절로, 그리호느뇨, (鄭) ... 의 일을 말호니, 성도에 ... 이, 삼십명 인티, 경 ... 호는 성도는, 이십명 밧긔 업고, 또, 그 성도를 ... 호는 법이, 올치 안 혼다 홈을, 논박호니 (朴) 이 일을 ... 호면 (鄭) 은, 부능 ... 이더라

李 ... 川씨 호고 對答

(李) 一 ... 이란 말은, 어인 말이뇨

(鄭) 그티의 ... 가, 다 ... 을 호니, ... 이어나 ... 군 ... 하위 ... 호시므로, 그러호는 티, 그티는, 이러호 ... 호실지 연졍, 무고히 ... 호노뇨, (鄭) 부능 답이라, (李) ... 이라 호니, 내게 무슨 죄가 잇느뇨, (鄭) 상년 칠월 칠일에, 박영효가, 도망호얏슬 때는, 그때 그티는, 경무스로 잇서서, ... 치 안고, 도로혀, 도망케 호얏스니, 죄가 잇노라, (李) 나는, 一 ... 호야 ... 치 아니치 못홈지라, 성각건티, 상년 칠월 유일 밤에, ... 가, 내 집에 나와서, 쥬시 ... 호라는, 츄명이 잇더라, 그러호나, ... 으로 나가서 ... 호려면 ... 치 못호고, 또 관복을 넘어야 홈터 인즉, ... 호는 때, 또 다시 ... 가, 다 왓스므로, 곳 입궐 호려니, 맛침 ... 들이, 총란 호야, 이젓스나, ... 서, 이 ... 호

자고 ... 나 ... 서 ... 롬이 ... 물 ... 대균 ... 손 ... 고 ... 시아 ... 도라 ... 친원 ... 도망 ... 라 ... 그일 ... 능답 ... (지 ... 잇고 ... 논줄 ... (安 ... 시됴 ... 근쳐 ... 닛가 ... 온모 ... 박 ... 곰도 ... 그티 ... 쥬조 ... 내가 ... 되이 ... 이 ... 티어 ... 답호 ... (지파 ... 정가 ... 또십샤 ... 필씨 ... 모양은 ... 이다호 ... 관이잇 ... 상소는 ... 라이샤 ... 스십냥 ... 로보와 ... 이왕의 ... 고 ... 호므로 ... 다는일 ... 씨기타

잇셧ᄂᆞᆫᄃᆡ 좌와여 所謂[illegible] 잇ᄂᆞ뇨、 잇스면 반년이 [illegible]ᄒᆞ든 다、(朴) [illegible]ᄒᆞᆷ은、 용의、유 지니、ㅡ 넘지라 ᄒᆞ야、 지상소 니ᄒᆞ므 ᄂᆞᆫ지라 ᄂᆞᆫ일이 못ᄒᆞ기 (朴)소 손곡절 의인울 서명인 섭명밧 ᄒᆞᄂᆞᆫ법 박ᄒᆞ니 부ᄂᆞᆼᄒᆞ ᄒᆞᄂᆞ니、 말이뇨 해외[illegible] 되ᄂᆞᆫ、 고히[illegible] (朴)[illegible] 가잇ᄂᆞ 박영효 그ᄃᆡᄂᆞᆫ 고、도 가잇노 치아니 년칠월 이와셔、 셧더라、 [illegible]ᄒᆞ 관복을 야ᄂᆞᆫ대、 、못입 쵸다ᄒᆞ 의원ᄒᆞ

자고、문을나가ᄂᆞᆫ셔、또세번재勅[illegible]나왓스므로、[illegible]ᄒᆞ야、대궐로가서、[illegible]올드러가려니、경히、ᄒᆞᆫ삭름이나와서、네벼슬을 면[illegible]ᄒᆞ얏다물[illegible]ᄒᆞ고、[illegible]ᄒᆞ야 대군주폐하가、날을부르시든거손、경무스로ᄒᆞ야、부르시든거시고ㅡ슈ᄒᆞᆫ、니윤용을、부르시든거시아니쟈、나ᄂᆞᆫ、그냥、[illegible]슈어ᄂᆞᆫ시도라왓더라、그리ᄒᆞᆫ후에、[illegible] [illegible]이나왓더라、이ᄂᆞᆫ、친[illegible]구일반의일이오、박영효가、도망ᄒᆞ든거ᄂᆞᆫ、칭원[illegible]일이라、그때일이、그러ᄒᆞ므로、나ᄂᆞᆫ、그일에[illegible]된거시 업 노라[illegible] 부농답이라

(지판장) 니윤용ᄒᆞᄂᆞᆫ말이[illegible]이잇고、[illegible]개ᄒᆞᄂᆞᆫ말은、[illegible] 업ᄂᆞᆫ[illegible]을[illegible]ᄒᆞᆷ

(安駉壽)씨ᄒᆞ고[illegible] (安[illegible])[illegible]이란말은、어인사시뇨、(朴)그때、남대분이며、쥰노근쳐에서、그[illegible]이라ᄒᆞ얏스니가서、그러ᄒᆞ오、[illegible]이나、그[illegible]은、못보왓노라、(安) 그때ᄂᆞᆫ、나ᄂᆞᆫ、박숨이대신이아니쟈、[illegible]에、죠곰도、상관이 업셧더라[illegible] [illegible]이란말은、어인[illegible]시뇨、(朴)그ᄃᆡ가、전에、부평부스때[illegible]、쥬조ᄒᆞ얏기로、그러ᄒᆞ노라、(安)내가、부평부스때、쥬전을ᄒᆞ얏스되、이ᄂᆞᆫ、졍부에명을바다ᄒᆞ든일이[illegible]스로[illegible]조ᄒᆞ든거시아닌듸、어지[illegible]이라ᄒᆞᄂᆞ뇨、(朴)부ᄂᆞᆼ답ᄒᆞ야[illegible]ᄒᆞᆷ을、청ᄒᆞ얏더라

(지판장)안경슈가 ᄂᆞᆫ말이[illegible]오、정가의말이[illegible]ᄒᆞᆷ을[illegible]ᄒᆞᆷ

또、십삼일은、오젼연시붓터、서지필씨[illegible]ᄒᆞᆷ외[illegible]이잇서、그모양은[illegible]ᄃᆡ로、그러ᄒᆞ고、이ᄃᆡ심이다ᄒᆞᆫ후에、경무관[illegible]씨ᄂᆞᆫ、법관이、잇ᄂᆞᆫᄃᆡ로가서[illegible]ᄃᆡ、정가와상소ᄂᆞᆫ、자긔가、그리ᄒᆞ든거시아니라、이사ᄅᆞᆷ은、본히[illegible]ᄒᆞ야、、스십냥돈을먹엇든일이잇서、이임로보와도、죄인이되얏ᄉᆞᆸ넨아니라、이왕의상소ᄂᆞᆫ、[illegible]이가、가스고、[illegible]이가、지든일이、분명ᄒᆞ므로[illegible]、[illegible]은、법서、결박ᄒᆞ얏다ᄂᆞᆫ일을[illegible]ᄒᆞ얏다더라、또박젼양씨、기타[illegible]들은、[illegible]ᄂᆞᆫ피고

로ᄒᆞ야名[illegible]의[illegible]을ᄒᆞ얏다더라

●[illegible]구쳐ᄒᆞᆫ다ᄂᆞᆫ중셜이라 작년의각부의서、주사들을、각ᄃᆡ방으로、시찰을보내고、그후ᄂᆞᆫ、그사ᄅᆞᆷ들이、올나와도、구처가업다더니、지금듯ᄂᆞᆫ바에ᄂᆞᆫ、각각그마을노、시찰가던、사ᄅᆞᆷ들을、다、구쳐ᄒᆞ여、쥰다ᄒᆞ더라

●[illegible] 어ᄂᆡ나라、선교사가、쟝찻[illegible]쥬당을、평양감영에、짓ᄂᆞᆫᄃᆡ、그젼인쟈、사신간으로、작뎡ᄒᆞ여、시운서、지[illegible]을、다마련ᄒᆞ여서、평양가셔ᄂᆞᆫ、사기만、[illegible]추면、되게ᄒᆞ여서、지금비게싯고、갈터인ᄃᆡ、비ᄂᆞᆫ두쳑이야、싯기오、선가ᄂᆞᆫ、숨쳔여랑이라ᄒᆞ며、숨일니로、떠난다ᄒᆞ더라

●[illegible]라 군임에 [illegible]을、들으니어ᄂᆡ그자게、일본병졍、슈박명이、남대문으로、좃차서、감안감안이、드러온다고、소동이대단ᄒᆞ다ᄒᆞ니、와셜도、과연심ᄒᆞ도다

●[illegible] 동ᄂᆡ부산항、각긔쥬에、영어서란것슬、이젼의도、ᄂᆡ여서、쟝사와긔쥬의호연이、적지아니ᄒᆞ다ᄂᆞᆫ、소문을、들엇더니、요스의또、두무나、궁녀부의셔주쟝ᄒᆞ여서、동ᄂᆡ영어계를、마련ᄒᆞ여、수재ᄒᆞ기로、동ᄂᆡ부로、훈령、ᄒᆞ엿ᄃᆞᆫᄃᆡ、아직동ᄂᆡ관찰사가、시칭ᄒᆞᄂᆞᆫ、보고ᄂᆞᆫ、아니왓다더라

## 官報抄錄

敍任及辭令

[illegible] 九品 金[illegible]
[illegible]第一[illegible]第一大隊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第一[illegible]第二大隊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品 [illegible]
江界府[illegible] [illegible] 四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第一[illegible]第一大隊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第一[illegible]第二大隊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地方隊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州地方隊附 [illegible] [illegible]

補江界地方隊附 參尉 金[illegible]
依願免本官 中樞院一等議官 劉世南
(以上七月八日) 內部參書 [illegible]
任[illegible]大臣[illegible]務
(七月十一日)

[illegible]部令第三號[illegible]에[illegible]ᄒᆞᆫᄃᆡ[illegible] [illegible]
不[illegible]ᄒᆞ은[illegible]上에[illegible]치못ᄒᆞᆫ미라[illegible]로以ᄒᆞ야[illegible]ᄒᆞᆷ (七月四日內部)

[illegible]第一[illegible]第一大隊附 參尉 [illegible]
[illegible]에[illegible]ᄒᆞ미[illegible]ᄒᆞ은[illegible]上에쥬의치못ᄒᆞ미라시로이ᄒᆞ야一週日[illegible]에[illegible]ᄒᆞᆷ (七月六日[illegible]部)

[illegible]第四大隊附 參尉 [illegible]
[illegible]上에주의치못ᄒᆞ미유ᄒᆞ기 시로이ᄒᆞ야一週日[illegible] (全上)

[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上에[illegible]치못ᄒᆞ미유ᄒᆞ기시로이ᄒᆞ야十日[illegible]에[illegible]ᄒᆞᆷ

[illegible] 李[illegible]
[illegible]上에[illegible]치못ᄒᆞ미유ᄒᆞ기 시로이ᄒᆞ야[illegible]ᄒᆞᆷ

[illegible] 沈[illegible]
[illegible]上에쥬의치못ᄒᆞ미유ᄒᆞ기사로이ᄒᆞ야[illegible]ᄒᆞᆷ
(以上七月七日內部)

[illegible] 沈[illegible]
[illegible]에[illegible]ᄒᆞ미[illegible]ᄒᆞ기[illegible]로以ᄒᆞ야十日[illegible]에[illegible]ᄒᆞᆷ (七月八日內部)

[illegible]第四大隊[illegible] [illegible]
[illegible]로[illegible]ᄒᆞ물大隊長이[illegible]ᄒᆞ야도[illegible]치아니ᄒᆞ니上[illegible]에[illegible]을不[illegible]ᄒᆞ야[illegible]에[illegible]ᄒᆞ미라[illegible]로以ᄒᆞ야一週日[illegible]에[illegible]ᄒᆞᆷ (七月十一日[illegible]部)

## 社告


今[illegible]本[illegible]ᄂᆞᆫ地方[illegible]에便利함을[illegible]ᄒᆞ야[illegible]으로[illegible]ᄒᆞ믄[illegible]ᄒᆞ얏더니[illegible]에서[illegible]되얏스미[illegible]에[illegible]은[illegible]一[illegible]一兩二錢五[illegible]파[illegible]七錢五分을本社에先給으로보내시면[illegible]에보내옵

新聞紙價

新聞紙一張價 一錢三分
一朔價 先給 一兩二錢五分
三朔價 先給 三兩五錢
六朔價 先給 六兩七錢五分
地方[illegible] 每月[illegible]七錢五分

廣告價 ᄒᆞᆫ줄을ᄒᆞᆫ번내ᄂᆞᆫ거시三錢式이오[illegible]及同數로좃차서갑슬덜밧고[illegible]도션금으밧ᄉᆞ로옴

●國王移居

본일오후네시에、일본[illegible]

[illegible]ᄭ셔、경운궁으로가사고

대군주폐하ᄭ는[illegible]으로[illegible]ᄒ사、바

드실터이라더라

●再昨日之裁判

재작일、오후에、재판이되는ᄃᆡ、슈반판사、권재형씨와、임시고등관、구례씨와、서재필씨와、방청ᄒᄂᆞᆫ사ᄅᆞᆷ도、만이와셔엿ᄂᆞᆫᄃᆡ、전승지[illegible]씨와、전참의[illegible]씨와、무분을함ᄭᅴ、재판을하ᄂᆞᆫᄃᆡ、판사권재형씨가、김영석씨ᄃᆞ려、ᄃᆡᄒᆞ여、심무하라ᄒᆞᆫ즉、김영석씨가、셔ᄀᆡ럴ᄭᅳᆫ니、말하기를ᄂᆡ가신식은、모르나、눌근사ᄅᆞᆷ이、셔ᄉᆞ말을、못하게씨니안져셔、말을하게ᄂᆞ라ᄒᆞᆫ즉、권재형씨가、젓니럴ᄭᅳᆫ니、교의ᄭᅥᆯ갓다가、안치고심문을ᄒᆞᄂᆞᆫᄃᆡ、권재형씨가、못기를、상쇼한[illegible]아나ᄂᆞᆫ한즉、김영석씨가、ᄃᆡ답하ᄃᆡ、미오친한、사ᄅᆞᆷ이라한즉、또못기럴、정씨상쇼의、[illegible]된일이 잇나ᄂᆞᆫ한즉、또ᄃᆡ답하되、엇지못ᄂᆞᆫ말이、ᄂᆡ단이되ᄂᆞᆫ고하며、말하되「[illegible]이라하ᄂᆞᆫ말은、[illegible]ᄂᆞᆫ、[illegible]하다ᄂᆞᆫ[illegible]요、[illegible]ᄂᆞᆫ[illegible]하다ᄂᆞᆫ、[illegible]인즉、[illegible]을、하엿다ᄂᆞᆫ말인지[illegible]이되엿다ᄂᆞᆫ、말인지、분명이、무르라한즉、권씨가、어군하여、말하되[illegible]한일이、잇ᄂᆞᆫ가못노라한즉、ᄃᆡ답하되、ᄂᆡ가본ᄅᆡ、무식한즐은、셰상의셰다이ᄂᆞᆫ일인즉、상쇼를、지은ᄃᆡ엇지[illegible]이、잇시며、또상쇼럴、할레이면、ᄂᆡ가자의로、할거시ᄃᆡ、엇지정씨에、상쇼하ᄂᆞᆫᄃᆡ、[illegible]될리치가、잇시며또그상쇼중의、셔재필이가、슈두가되엿신즉、셔재필은、ᄂᆡ외샤의、되ᄂᆞᆫ사ᄅᆞᆷ이니、셰상의、장인이、사의럴、엇거상쇼하ᄂᆞᆫ、법니가잇나냐하고、ᄃᆡ단이、논리런한즉、권판샤가、다시못ᄂᆞᆫ、못ᄒᆞ고、그만나가라한후에또[illegible]씨럴ᄃᆡ하야、심문을한즉、역시중합인이、업ᄂᆞᆫ지라、다나가라한즉、김양한씨가、분긔럴ᄂᆡ여셔、크게쇼리럴、지르고말하기럴、나ᄂᆞᆫ무순일노、잡어오며、무순일노、나가라、하ᄂᆞᆫ지알고야、가것다하며、요식이、드ᄅᆞᆫ즉、시법의ᄂᆞᆫ、무고이송샤를、만나거드면、죵샤하ᄂᆞᆫ부비를、다밧ᄂᆞᆫ다ᄒᆞ니、이번의[illegible]부비ᄂᆞᆫ、다바더쥬워야、나가것다ᄒᆞ며、ᄯᅩᄃᆡ단이조갈을하니、만좌졔인이、다바샤[illegible]ᄒᆞ고、권판샤가、만단으로、기유하여、ᄂᆡ여보ᄂᆡ다더라그후로재판할ᄯᅢ에[illegible]한사ᄅᆞᆷ의말은、드ᄅᆞᆫ즉김영셕씨가권판샤를、ᄃᆡᄒᆞ여착망ᄒᆞ기럴、ᄂᆡ가드ᄅᆞᆫ즉、시법의ᄂᆞᆫ、중난한죄인이、아니거ᄃᆞ면、경무쳥으로、잡지아니ᄒᆞ고、또무단이、가두지도、못한다ᄒᆞ며、만일샤[illegible]ᄂᆡ여、[illegible]한다ᄒᆞᆫᄃᆡ、우리두사ᄅᆞᆷ은、무[illegible]가잇셔셔、경무쳥으로[illegible]하여셔、일주야[illegible]을하엿다가、나가라ᄒᆞ니、이거슨、권판샤의、시로마련한、법인가한즉、권판샤가、능히ᄃᆡ답을못하엿다ᄂᆞᆫ、풍설이낭쟈하다더라

●地方制度發行을停止ᄒᆞᆫ다ᄂᆞᆫ風說이라

地方制度에[illegible]ᄒᆞᆫ것을、지작일의、임의[illegible]ᄒᆞ심을무럿다、ᄒᆞ더니、근일에、회의엇ᄒᆞᆫ기를、이ᄯᅢ에、ᄂᆡ외사무가、분연이ᄒᆞ셔ᄒᆞᄂᆞᆫ、도리가、업기로、명년을기다려셔、반포시힝ᄒᆞᆫ다ᄒᆞ더라

●[illegible]水兵之入京

아라사병션、만쥬르[illegible]에셔、[illegible]一人水兵三十人이、지나간열일[illegible]새벽에、한강을、올나온、화륜션、[illegible]ᄐᆞ고입경ᄒᆞ얏더라、그리ᄒᆞ고[illegible]이、인천가ᄂᆞᆫ편에셔、전보ᄒᆞ야、아관을[illegible]ᄒᆞ야잇든[illegible]오십인이、그[illegible]스피[illegible]로、도라가셧더ᄒᆞ라

●[illegible]가、드러와알외온ᄒᆞᆫ에、각부관원이、념녀ᄒᆞᄂᆞᆫ것슐、전호지상에올녓거니와、칠월칠일에、궁니부대신[illegible]이[illegible]ᄒᆞ되、굿[illegible]봉심、겸장네의、운리ᄒᆞ에[illegible]보온즉、송오작변을금ᄒᆞ지못ᄒᆞᆫ、[illegible]전참봉에[illegible]와[illegible]과 [illegible]전참봉에[illegible]과、전령에、[illegible]의、[illegible]와、작변에、범ᄒᆞ고、뇌물을밧은 [illegible]에、[illegible]와、범ᄒᆞ야、그명군짓고、[illegible]의[illegible]방ᄒᆞ며、뇌물ᄒᆞᆫ、밧든 [illegible]전령에、[illegible]와、전참봉에、[illegible]와 [illegible]전령에、[illegible]와、작변에범ᄒᆞᆫ [illegible]전참봉에、[illegible]과、[illegible]와、전령에、[illegible]등을、모다법부로ᄒᆞ야금、조분ᄒᆞ야、증죄ᄒᆞ이、ᄒᆞ여ᄒᆞ올지、근상 [illegible]봉

[illegible]、조심ᄒᆞᄂᆞᆫ미경의、이거ᄉᆞᆫ작법이、잇스나、재관이、무슨관원이며ᄒᆞᄂᆞᆫ닐이무순닐이뇨、ᄒᆞᄂᆞ의극진ᄒᆞᆷ이、념무언이라、각[illegible]은、듀홀을의지ᄒᆞ야、모다법부로하여금、됴률감처홈

[illegible]日에궁니부대신、니재순이、[illegible]ᄒᆞ되、곳[illegible] [illegible]봉심、겸장레[illegible]에、[illegible]보온즉 [illegible]에[illegible]을、범작ᄒᆞ던、[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와、[illegible]과 [illegible]서원에、[illegible]과 [illegible]에、[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 [illegible]에、[illegible]大와、[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능히、작변을、금ᄒᆞ지、못ᄒᆞᆫ [illegible]서원의、[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범작ᄒᆞᆫ자의、[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과、[illegible]와、[illegible]와[illegible]등、재한을、또ᄒᆞᆫ법부로、ᄒᆞ여금、조률엄감홈이、ᄒᆞ여ᄒᆞ올지、근상 듀[illegible]

[illegible]능히작변을、금ᄒᆞ지못ᄒᆞ고、ᄒᆞ다히、작간ᄒᆞᆫ、각능원、원ᄂᆡ과、다못범작ᄒᆞᆫ、여러놈을、모다、법부로ᄒᆞ여금、됴률감처홈

●[illegible]외게[illegible]ᄒᆞᆫ[illegible] 근일에、각디방군수、들이、쥭도의게、뫼기온자가、만흔지라、ᄃᆡ강아ᄂᆞᆫᄃᆡ로、그지ᄒᆞ노니、연천군수、됴명식씨ᄂᆞᆫ、셔울노와셔、너려가지아니ᄒᆞᆫ지가、샤오삭이되고、용궁군수、[illegible]씨와토산군수、윤셕필씨와、평강군수、김판제씨、여러분이다、비도의게、견욕ᄒᆞ여셔、셔울노、올나와잇고、령원군수ᄂᆞᆫ、처음에졉히엿다가、게괴들니여、몸을피ᄒᆞ엿다가、비도들ᄭᅳᆯ니간후에、곳다시시무ᄒᆞᆫ다ᄒᆞ더라

●[illegible]

ᄂᆡ관에、오[illegible]한[illegible]씨ᄂᆞᆫ、지위가、일품에、잇이고、권롱이、미우듯터운사ᄅᆞᆷ이라、미양ᄒᆞ[illegible]ᄋᆞᆯ、비러도

에법ᄒᆞᆫ [illegible]와,젼 료ᄒᆞ야금 ᄒᆞ울지, 문작법이 원이면, ᄒᆞ의극진 [illegible]은, 부로하여 ᄒᆞ오되 [illegible] [illegible]과, [illegible]과, ᄂᆞᆫ호 [illegible]과,[illegible] 과,[illegible] 못ᄒᆞᆫ 과,[illegible] [illegible]과,[illegible] [illegible]과[illegible] [illegible]와,洪方 ᄒᆞᆫ법부로, 여ᄒᆞ울자 과,ᄒᆞ다 ,다못법 부로ᄒᆞ여 로에,각디 뙤거은, ᄂᆞ되로,긔 셔씨ᄂᆞᆫ,셔 ᄒᆞᆫ지가,샤 히팔씨와 평강군수, 비도의게, ᄒᆞ와잇고, 엿다가,게 ,비도들 ᄒᆞᆫ다ᄒᆞ더 ᄂᆞ,지위가 미우듯 를,비러도

라가기를,평ᄒᆞ되, 대군쥬폐하게 오셔,죠시허락지,아니ᄒᆞ시더니,슈일젼의,오씨가,술을먹고,셩광ᄒᆞ여셔, 폐하의압헤셔,욕면간ᄒᆞ야골ᄋᆞ되,폐하게오셔,엇지ᄒᆞ야오셔환궁을아니ᄒᆞ시옵ᄂᆞ잇가,궁궐을둘셔미ᄂᆞ,비여두시고,종묘와ᄉᆞ직을,ᄇᆞ리ᄂᆞ셔셔,타국공ᄉᆞ관의,손님으로굿치셔셔, 뎐하의우숨을취ᄒᆞ심을,신은,붓그러움을,의외지,못ᄒᆞ와,챵아의국사ᄅᆞᆷ은,더ᄒᆞ옵치가,엽숩ᄂᆞ이다, 지금도뎐ᄂᆞ에,무순시급ᄒᆞᆫ변이,잇슬가ᄒᆞ셔, 환어를아니ᄒᆞ시옵ᄂᆞ이가,샹바다을,죤역으로,두다리며, 통곡ᄒᆞ거ᄂᆞᆯ,좌우가협박ᄒᆞ더니, 폐하게옵셔,금ᄒᆞ옵셔,말뉴ᄒᆞ옵신되,오씨가더욱통곡ᄒᆞ며,엿ᄌᆞ오되,만남슈히,환어뎝아니ᄒᆞ옵시면,또쟝ᄎᆞᆺ망ᄒᆞᆫᄯᅳ 이슬것ᄉᆞ오니, 폐하게옵셔ᄂᆞᆫ,엇지못ᄒᆞ시지,못ᄒᆞ사옵ᄂᆞᆫ잇가, 폐하게옵셔,물너가라ᄒᆞ옵신되,오씨가말ᄉᆞᆷᄒᆞ되,소신을,몬져베여셔 국법을,ᄇᆞ르게ᄒᆞ옵시ᄂᆞᆫ것시,갓당ᄒᆞ옵거ᄂᆞᆯ,만남몰니치실진ᄃᆡᆫ,몬져면관ᄒᆞ옵시기를,ᄇᆞ라옵ᄂᆞ이다ᄒᆞ고,또통곡ᄒᆞ거ᄂᆞᆯ, 폐하게옵셔,드듸여면관을,허락ᄒᆞ시니,오씨ᄂᆞᆫ소원을,드듸여본집으로,도라갓다ᄒᆞ더라

## ●申進士問答記 (三)

나ᄒᆞᆫ즉가,겹으되,일본이,본ᄃᆡ동이지국으로,그나라ᄉᆞ젹을,보건지,그의관문물을보면,아직셔지,파벽이되지,못ᄒᆞᆫ나라이여ᄂᆞᆯ,엇지이ᄀᆞᆺ치칭찬ᄒᆞᄂᆞ뇨,과연공ᄌᆞ의도ᄅᆞᆯ,ᄎᆞ슈ᄒᆞ고,ᄃᆡ셔,기여ᄅᆞᆯ,치웅ᄒᆞᆫ진ᄃᆡᆫ세샹의,우등되ᄂᆞᆫ나라이라,내밋지못ᄒᆞ노라 나ᄂᆞᆫ들으니,일본이,ᄃᆡ셔각국에ᄂᆞᆫ,굴니고,영국ᄀᆞᆺ흔나라ᄂᆞᆫ,두려워ᄒᆞᆫ다ᄒᆞ니,과연ᄃᆡ치의교가,분명ᄒᆞ면,엇지ᄃᆡ셔각국은,이ᄀᆞᆺ치두려워ᄒᆞ며,이ᄀᆞᆺ치,ᄎᆞᆨᄒᆞ리오,ᄃᆡ셔의,ᄎᆞ죵과,노예ᄀᆞᆺ거ᄂᆞᆯ,형의말ᄉᆞᆷᄂᆞᆫ,쥴은ᄎᆞ의ᄒᆞᆷ이,더욱ᄌᆞ심ᄒᆞ여로라,신진사가,ᄃᆡ답ᄒᆞ여골ᄋᆞ되,네엇지일본을,칭찬ᄒᆞ리오,말을내여히ᄒᆞ고시부되,ᄎᆞ과장ᄒᆞᆫ다,ᄒᆞᆫ가념녀ᄒᆞ야,말을ᄒᆞᆫ다,지,못ᄒᆞ엿거ᄂᆞᆯ,도리여칭찬이라ᄒᆞ니,

이ᄂᆞᆫ,고로흠을게차지,못ᄒᆞᆫ새다이라,대져사ᄅᆞᆷ이라도,사흠을,보기못ᄒᆞ면,괄봇샹ᄃᆡᄒᆞᆫ다, ᄒᆞ여거ᄂᆞᆯ,ᄒᆞ문며나라이야,어쟉그ᄂᆡ적국이,라도,오날문명지치를 면,문명지국이어ᄂᆞᆯ,엇지예젼말을,가자고지금일커르리오,흠을며일본은,동양아셰으의ᄀᆞᆺ치잇셔셔, 셔계와문ᄎᆞ을,ᄒᆞᆫ가지로,알던나라으로, 시무를몬져세다려셔,죠져에, 졍치가,찬란ᄒᆞ고,향리에,ᄎᆞᆼᄉᆞ이,으름다위졋스니,가위문명지국이라,지어ᄅᆞ셔각국,ᄃᆡ접ᄒᆞᄂᆞᆫ것슨,ᄃᆡ방은,동셔가결젼ᄒᆞ고,인죵은,황빅이현슈ᄒᆞᆫ지라,경이쳔지ᄒᆞᆷ마음이,엽지안컨마ᄂᆞᆫ비흠지죄가,만조죡,부득불교셥ᄒᆞᆫ샹ᄒᆞᆷ밧기슈업고,영국인죵더구ᄂᆞ비흠것도만커니와,강약이부동ᄒᆞᆫ[illegible]가우지피지긔ᄒᆞᆫ,넌것시라,후히ᄃᆡ접ᄒᆞ고,그규졍규교ᄒᆞᆫ지죠흘비화셔,국민을편리케ᄒᆞᄂᆞᆫ것시,엇지외교ᄂᆡ치의,샹ᄎᆡᆨ이아니리요 이럼으로써,그국치ᄂᆡ강ᄒᆞᆷ이,셔양의ᄃᆡ지지,아니케되엿스니,동양의ᄂᆞᆫ,션진이라, 그런고로,죠션과쳥국을,권ᄒᆞ고인도ᄒᆞ야,ᄒᆞ야금슈히ᄀᆡ명ᄒᆞ야,동심합력ᄒᆞ야셔,셔양사ᄅᆞᆷ의,동양을,엽슈이녀기고,조식ᄒᆞᆷ영셰를,막으라ᄒᆞ니,이ᄂᆞᆫ밧그로ᄂᆞᆫ,ᄃᆡ접ᄒᆞ며,지조를,변낫고,안으로ᄂᆞᆫ,구변ᄒᆞ야,그후환을,방비코자ᄒᆞ니,셔양을ᄃᆡ접ᄒᆞᆫ넌것도,또ᄒᆞᆫ고명ᄒᆞᆫ외견으로,심모원려에,말미암온바이라,나ᄒᆞᆫ즉가,겹으되,과연형의말ᄉᆞᆷ과,ᄀᆞᆺᄒᆞᆯ진ᄃᆡᆫ,엇지ᄒᆞ야,일본이,죠션을,엽슈이,녀기기를ᄌᆞ심이ᄒᆞ며,날날이ᄒᆞᆷ롭게ᄒᆞ고,지어지리,도,ᄃᆡ소간의,이심ᄒᆞ게셋셔가셔,죠션을,히롭고쟈ᄒᆞ며,망ᄒᆞ고쟈ᄒᆞ리오,쳔만ᄉᆞ에,후ᄒᆞ고,용셔ᄒᆞᄂᆞᆫ것은ᄃᆡᆺ,지못ᄒᆞ겟고,각박히,업신녀기ᄂᆞᆫ것만,보겟스니,만날죠션을,위ᄒᆞ고쟈ᄒᆞᆯ진ᄃᆡᆫ,엇지능ᄀᆞᆺᄒᆞ리오,죠션사ᄅᆞᆷ업ᄂᆞᆫ,통입골슈ᄒᆞ야,졀치부심ᄒᆞᄂᆞᆫ지라,혹셩이의취ᄒᆞᆫ던지,ᄉᆞ세의부득이ᄒᆞ야,일본사ᄅᆞᆷ을,상죵ᄒᆞ더ᄅᆞ도,속마음에ᄂᆞᆫ,분ᄒᆞᆫ마음을,품지못ᄒᆞ거ᄂᆞᆯ,만날

죠션을,위ᄒᆞ고쟈ᄒᆞᆯ진ᄃᆡᆫ,엇지이ᄀᆞᆺᄒᆞ리요 내소견으로보면,셔양사ᄅᆞᆷ,죠션사ᄅᆞᆷᄃᆡ접ᄒᆞᄂᆞᆫ것시,오히려후이ᄒᆞ고,녕ᄃᆡᄒᆞᆫ지라,차라리셔양사ᄅᆞᆷ만,ᄀᆞᆺ지못ᄒᆞ니,그엇지밋어셔긔ᄇᆡᆨ하사구리요,신진사가골ᄋᆞ되,ᄃᆡ셔사ᄅᆞᆷ은,복방소산이라,만편음죵이요,쟝원지계로,리를취ᄒᆞ고쟈ᄒᆞᄂᆞᆫ지라,남의게,몬져실슈를,아니ᄒᆞ고,남의실슈만,취죨잡어 ᄉᆞ으로만비소ᄒᆞ고지ᄂᆞ니,죠션사ᄅᆞᆷᄀᆞᆺ흔니ᄂᆞᆫ,그비웃ᄂᆞᆫ쥴은ᄉᆡ닷지못ᄒᆞ고,그용셔ᄒᆞᄂᆞᆫ것만,달게녀겨셔ᄂᆞᆯ마다취죨을,잡히고,차차로,형셰를쎄거셔,ᄒᆞ야금세닷지못ᄒᆞ게ᄒᆞ니,그실샹을싱각ᄒᆞ면,붓가근이요일본인죡,동방샹명지그ᄅᆞᆯ,밧어셔,젼슈이양죵이요,그샹이발견ᄒᆞ야,온권간의,긔졍ᄒᆞᄂᆞᆫ법이,엽ᄂᆞᆫ고로,쟈연이용셔ᄒᆞᄂᆞᆫ,모양은,엽스나,당졸날은,닷투고,시비ᄒᆞᆯ날은,시비ᄒᆞᄂᆞᆫ것시,당연ᄒᆞᆫ날이요,셔로사ᄅᆞᆷ으로,아ᄂᆞᆫ게라,엇지셔양사ᄅᆞᆷ의,의ᄃᆡᄒᆞᆫ넌것과,ᄀᆞᆺ치의논ᄒᆞ리요,그러ᄒᆞᆫ되,일본의충왕ᄒᆞᄂᆞᆫ긔샹이,통국인민인의구 죠ᄒᆞᆷ이업셔셔,금조ᄒᆞᆫ마음으로,표리가달음이업시,국직을닷투니,죠션에암약ᄒᆞᆫ풍슈으로,써보면능멸ᄒᆞᆫ다ᄒᆞ기쉬으나,기실은피ᄎᆞ의,분등이젹은고로,그러ᄒᆞ고,더구ᄂᆞ,소년비와,아리사ᄅᆞᆷ들은,경솔ᄒᆞᆫ,ᄃᆡ도를,감추지못ᄒᆞ거니와,변고ᄃᆡ소ᄒᆞ고,관작잇ᄂᆞᆫ나와,ᄃᆡ위놉흔사ᄅᆞᆷ인죡,그러치아니ᄒᆞ야,관후ᄒᆞᆫ마음으로,죠션을앗기ᄂᆞᆫ뜻시,속으로븟터,형용에낫타나고,잠시도잇지아니코,언어외보이니,그아ᄅᆡ사ᄅᆞᆷ은,직ᄒᆞᆫ되로,긔샹이발월ᄒᆞ고,그웃사ᄅᆞᆷ은,관후ᄒᆞ야,셩실츙직ᄒᆞᆫ,모양이츌일ᄒᆞ니,이엇지가샹이아니리요,셔양사ᄅᆞᆷ의,의ᄃᆡᄒᆞᄂᆞᆫ것과ᄀᆞᆺ치비ᄒᆞ야,말ᄒᆞᆯ슈업고,아직은,ᄎᆞᆼ젼ᄒᆞ기가,어렵거니와,그츙직ᄒᆞᆫ마음이,셔로ᄉᆞᆼ졍ᄒᆞᆫ뒤경의ᄂᆞᆫ,셔로사랑ᄒᆞᆷ을,세닷지못ᄒᆞᆷ것시오,또셔양을친근이,ᄒᆞ고쟈ᄒᆞᄂᆞᆫ말은,뎐하의ᄃᆡ세를,아지못ᄒᆞᄂᆞᆫ말이라,지어죠를,비호ᄂᆞᆫ방편은,ᄃᆡ강맙ᄒᆞ엿거니와

## 雜報

### 國書捧呈

原全權公使は本日午後四時國書捧呈の爲め明殿宮に參内せられ　大君主陛下には特に同宮に出御ありて之を受けさせらるゝ筈なり

●金炳始氏の謁見

同氏は一昨日、大君主陛下に謁見して何事か上奏する所ありしと

●佛國共和紀念祭

一昨十四日は佛國共和紀念祭の當日なりしを以て各國外交官、領事、武官、韓廷の大臣、協辦等同日午前祝賀の爲め同公使館に抵れり此日我公使館よりは原公使、日置書記官、國分通譯官、新納、野津の三將校、加藤外交官補、領事館よりは加藤領事何れも同公使館に到りて賀辭を述べられたり

### ●名譽損害賠償に關する裁判

去る十三日は又た午前十時より徐載弼氏の名譽損害賠償に關する裁判ありたり此日も立會判事は[illegible]出廷して審官席に就きグレートハウス氏も立會ひ[illegible]氏等四名の證人及び金嘉鎭、安駉壽、李允用、李完用、尹致昊、李采淵其他數名の顧問官[illegible]居ならび外に一般士民の傍聽に出掛けたる者數百名にして場内立錐の地を餘さず暫時刻來り開廷の宣告あるや裁判長と鄭進士との間に左の如き問答ありたり（問々鄭氏進士の述本を要略とすべし）

（判）外國に出沒し乃ち本國に還へり幻形を爲すを以て奇となし異圖を放つを以て能となす所謂開化の徒とは誰れを指すか（鄭）金宏集、鄭秉夏、兪吉濬、趙羲淵、[illegible]、李範來、李軫鎬、權濚鎭、李斗璜等十八人を指す此徒は昨年八月に際會つて爀き本國を顛覆せり云々（判）甲申十月に逆賊を出れたる逆黨等が海外に脱し乃ち甲午六月の亂を成すとは孰れなるや（鄭）甲午六月の亂は則ち頑固の黨なるべきものなしと雖ども想ふに朴泳孝日兵を掛撥し此變亂を成せしや疑なし故に日本甲申の法網に脱れたる者亂を爲すと（判）凶なる彼の叛賊身爲なる者而して昨年突然として歸國す故に身は甲申の亂に與みし久しく外國に逃亡すと雖も予て國網を弄すと云々此理由如何（鄭）彼れは國故の罪を被むりながら本國に還へりたる國故の罪を被むりながら罪に本國に還へると云ふ然れども若し已に赦罪の[illegible]ありとせば吾ふべき所無し、予に獨立を非するを以て宜しく稱するに朝鮮新聞を以てすべし而して今獨立新聞と曰ひ然るに漢文を以て必ず是れ朝鮮國の人情風俗を變更せんと欲する心あるべし（判）故に國文を弄すと云ふか（鄭）然り（判）の法官其他物議甚だ恐く阿々大笑す（判）獨立新聞は論山に到きずして乾坤なしと何事を指すか（鄭）彼の新聞、朝鮮從來の舊俗を以て頑固なりと云ひ(?)[illegible]

（前號「外部の損額」の紀文參照）一同ば放す告す

●鄭進士師弟關係者の判決

鄭進士の卯踐に關係ありとして已に捕拘されし鄭氏の妻、前水昌郡守金永斗、前參領金[illegible]氏（李[illegible]氏は文補帶にして[illegible]日午後四時より裁判を開き訊問ありたり然る所よは四名の四郡人、俞鎭鳳、李允用、李完用、金嘉鎭氏等出掛け其他一般傍聽者は失張り數百の多きに達せり而して初めに鄭氏の妻が法廷に呼び出され法官の訊問を受けんとするや否や傍聽席は俄かにざわめき渡り審官の制止も寸効なく遂に訊問に着手すると能はず更に訊問の爲め別に於て開延せしに訊問を終りて此だ[illegible]の後に至りて開延し鄭氏の妻も訊問せしにせしは[illegible]本を作りしとの事は之を我夫に就くと答へし[illegible]のみなりしと而して此日は是れにて取に入り閉延したりと云ふ

●昨日の裁判

鄭進士の卯踐事件に關し證人として拘引されし前水昌郡守金永斗、前參領金[illegible]二氏に對する裁判は一昨日午後開延せし所判事權在衡氏以下出廷しグレートハウス氏も前の如く立會ひ徐載弼氏外數十名の傍聽者ありたり

金永斗氏に對する訊問

（判）北方無頼[illegible]を知るか、（金）能く之を知れり、（判）北方無頼の卯踐に參劃せしと有りや（鄭）[illegible]の何何と[illegible]るや[illegible]の事は是れ[illegible]の類、[illegible]の事は是れ干涉の[illegible]、二十[illegible]に[illegible]して時間の[illegible]る、[illegible]の意なるや、（判）[illegible]に對したるが如く更に[illegible]も答て曰く干涉せし事ありや[illegible]問ひしなり（金）[illegible]を見る、（判）北方[illegible]を[illegible]して[illegible]せしめたりと云ふもの有り果して然るか、（金）其の不[illegible]人の共に知る所なり而して[illegible]るの必要あらば自ら之れを爲す何ぞ他人を[illegible]使するが如き事を爲さんや且つ[illegible]中[illegible]を甘じ[illegible]す[illegible]るに[illegible]は我が[illegible]なり[illegible]の[illegible]するが如きの[illegible]に之れあらんや

右にて金永斗氏に對する訊問了はり裁判長權在衡氏は同氏に退出を命ず

金[illegible]氏に對する訊問は別段の事なくして已みに退出を命せしに金氏[illegible]に出でず[illegible]を[illegible]け叫んで曰く何故に我を捕へ何故に退出を命ずるや[illegible]開く[illegible]には[illegible]用ありと稱ふ[illegible]の[illegible]を受けん然して[illegible]を[illegible]し[illegible]出すべし[illegible]

と論せしとありと聞く故て親しく目撃せしにはあらず（傍聽者又た笑ふ）（判）徐載弼陛下の前に外臣と稱するとは被告親しく之を見聞せしか（鄭）唯だ之を許多の人に聞く[illegible]くは之を證明すべき人無きを[illegible]に[illegible]く事已に此に至る請ふ速かに死を賜へ（判）被告の言ふ所頗るべき明證なしと宣告す

右訊問是れにて終結し[illegible]の[illegible]ありて

…退出せしめたり

初め開延の際金永斗氏は[illegible]を呼んで同く[illegible]老[illegible]永く[illegible]する[illegible]に[illegible]なり[illegible]裁判長乃ち[illegible]に[illegible]の[illegible]金氏[illegible]裁判長に[illegible]して曰く[illegible]に[illegible]は[illegible]大[illegible]外[illegible]るに[illegible]れは拘引者し[illegible]は因[illegible]する[illegible]し[illegible]の事ある[illegible]延吏をして召喚せしむるに過ぎず然るに今[illegible]人は[illegible]の手に拘引せられて[illegible]に因[illegible]れ[illegible]れ恐くは[illegible]の精神にあらざるべしと裁判長默して答へざりし

●平壤牧使の新來

平壤牧使[illegible]が平壤に一致命状を所來せんとし已に放地の買入及其他の設計を爲しつゝ有りし由は僻て聞きしが[illegible]は昨今大に其步を進め[illegible]用材は[illegible]本工の手にて已に切り組み近々二[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せんとする[illegible]なりと云ふ

●[illegible]

[illegible]に[illegible]る人あり[illegible]の[illegible]へ[illegible]ては一品に至り[illegible]入臣を[illegible]り何故か近來[illegible]の念[illegible]に[illegible]然るに數日前の事なりしとか氏は何處にて[illegible]

しが[illegible]なりしが[illegible]やありて[illegible]を改め伏して[illegible]く　陛下[illegible]以來已に[illegible]らんとす今や人心[illegible]した亂臣賊子の[illegible]を企つるが如き[illegible]く[illegible]内の[illegible]民地方の[illegible]を[illegible]むや[illegible]切なり而して今日[illegible]し給はざるは抑も何の故か[illegible]無きが[illegible]平日く然らず、[illegible]何ぞ[illegible]らに永く外國公館に[illegible]し[illegible]を天下に[illegible]し[illegible]を後世に[illegible]ふ[illegible]之れを[illegible]つ[illegible]り[illegible]し[illegible]には[illegible]を[illegible]け地に伏して[illegible]るに至り更らに[illegible]して曰く　陛下[illegible]し[illegible]に[illegible]わらせられざれば必ず[illegible]からず不測の[illegible]る[illegible]之を[illegible]び[illegible]日[illegible]を[illegible]す[illegible]の[illegible]くは[illegible]ち[illegible]に臣の[illegible]を[illegible]し[illegible]と[illegible]せ[illegible]陛下[illegible]を[illegible]許せられ[illegible]を[illegible]して[illegible]に[illegible]へ[illegible]して[illegible]の[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せず

●門井[illegible]一行の[illegible]

[illegible]は[illegible]の本紙にも記せし如く目下[illegible]の[illegible]況之れ[illegible]を以て[illegible]に[illegible]保護の[illegible]め出張したる門井[illegible]一行は昨日當地に歸來せり

●黄山浦來信（七日發）

地方狀況[illegible]の爲め全[illegible]に向ひ目下同道[illegible]山浦に滯在中なる某氏より[illegible]方に送りし[illegible]者の大要左の如し

▲錦江沿岸　黄山浦に滯在して附近各地を巡視し地方の動靜を視察するに[illegible]、[illegible]、[illegible]錦江沿岸の恩[illegible]道及び[illegible]、[illegible]、[illegible]公州府附近、公州府近傍等は何れも目下平穩なり

▲一般商況　目下農事多忙の際なるを以て一般の商況極めて沈靜、但し、米は公州及び錦江の上流より[illegible]も[illegible]極めて僅少なり[illegible]

円く済れ を仰んで 他物到着 れども間 らずんば 開きべき に過ぎま の手に掬 故に是 機収到 の準備に 入及此 開きしが 商勢人 の輸出に

れ亦段形勢化に原因す金巾、石油、燐寸其他の雑貨にして従来邦商人に仰ぎ来りし商品は総て品切れなるが故に到る處の人民日々我商人の到るを待ち居る模様あり

▲視察員着　去月二十八日仁川を出發したる商業視察員小川光利、佐藤[illegible]、山内[illegible]、深川[illegible]一、柳本[illegible]太郎の諸氏は[illegible]本日當地に来着せり

▲清商来着　清商十三人の一行又た當地に来着し前日より巳に當地方に在るものと合して都合二十五名に達す彼等は染物、燐寸、洋傘、絹、洋紗、金巾等を携へ出れども至りて瑣細の物のみなるが如し或は日ふ是れ商業一派の視察員ならんと

▲穀類相場　穀類は數日前より稍々下落して聞きあり目下の相場は上白米六圓四十錢、玄米五圓九十錢、粗米四圓六十錢、大豆粉四十錢なり

◎富山縣下の大洪水

富山縣下に於ては去る六日及七日頃より霖雨の為め各川の出水激しく富山縣富山市にては家屋の流失二千八百三十一、浸水家屋數千にして[illegible]の被害其他の被害は[illegible]げて數ふべからず滋賀縣にては木の本、柳ケ瀬[illegible]間に記せり然るに同十一日の二三地方新聞には[illegible]として記して曰く流失家屋二千八百三十一は流失家屋二十八死者一名なるを内務省にて誤報したるものなりと予輩は此誤報の真ならんことを祈る

◎兵士と巡査との闘争　去る十日夜[illegible]小隊長某[illegible]なる巡査交番所の前を通過し巡査床に腰打掛け何等の敬禮をも行はず小隊長其無禮を責め且つ事務的に至りて其の不取締りを詰り罵りて曰く現今の警察制度たる元と是れ逆臣の設くる所其無禮此くの如きに至るも亦た宜べなりと、閣に在るの[illegible]巡査其に憤突して曰く前政府の施設する所を以て逆臣の設くる所となさは貴官等も亦た是れ逆臣の設くる所なりと[illegible]息[illegible]之れか為め[illegible]其の間[illegible]兵士の間に大騒擾を生じアハヤ由々しき一大事を惹き起さんとせしに其筋の説諭ありてやットの形に鎮定したりと云ふ

◎[illegible]山下の惨劇

全羅道[illegible]山の下松林[illegible]の間一小村あり戸数五十餘、村中老母あり[illegible]と日ふ家世々[illegible]を業とし[illegible]一村に知たり[illegible]を娶りて以來十有餘年末だ一子を設けず[illegible]常に嘆じて曰く我世[illegible]を他人の子に譲らざるべからざるか、婆は[illegible]を聞く[illegible]に邪と我身に歸し以て其子無きを謝す一日一女兒の來りて門外に佇立し恐を乞ふあり齢十二三、身體襤褸を纏ふと雖ども眉目秀麗色白きこと雪の如し徐夫婆乃ち之を延いて其身事を聴く女兒泣て語りて曰く兒は[illegible]下郡某の子なり父は仕へて京城に在る多年、不幸にして病没す[illegible]之か聞き痛哭食を絶つこと數日遂に[illegible]亦た[illegible]無くして死す而して父母の遺所親戚來恐く之を容れ以て兒を迎ふ孤身子々托す[illegible]

[illegible]

◎京城輸出入（承前）

廿九年六月中（京城商業會議所調査の分類）（圓位以下省略）

▲輸入外国産

| | | |
|---|---|---|
| 金巾 | 一、〇二〇 | 四、四九一 |
| [illegible]紗 | 一、二〇〇 | 一、二五八 |
| 白[illegible] | 一五〇 | 四六五 |
| 毛絨物 | | 四七三 |
| 具[illegible] | 五六〇 | 一七〇 |
| 釘 | 五〇〇 | 三〇 |
| 石油 | 九〇〇 | 二、四九〇 |
| 硝子板 | 四〇函 | 一九七 |
| 燐寸 | 二〇〇打 | 四三〇 |
| [illegible] | | 一五四 |
| 雑品 | 三個 | 一七〇 |
| コンデンスミルク | | 八〇 |
| 薬物 | | 三〇 |
| 洋酒 | 二〇 | 九〇 |
| 雜貨 | 二 | 三二五 |

▲仁川輸入日本産

| | | |
|---|---|---|
| [illegible] | 二六〇 | 四一二 |

▲同上外国産

| | | |
|---|---|---|
| 白[illegible] | 四一〇 | 一、一八五 |
| 石油 | 一五〇 | 四〇五 |

▲同上朝鮮産

| | | |
|---|---|---|
| 明太 | 一五八 | 三、四七〇 |

▲輸出朝鮮産

| | | |
|---|---|---|
| 牛皮 | 四、五四〇 | 一、〇〇九 |

（未完）

◎三陸海嘯遭難者弔恤金（第二回）

一金弐圓 安田[illegible]
一金五拾錢 無名氏
一金壹圓 近藤安吉
一金壹圓 松見善月
一金参圓 田川佐市
一金弐圓 菊池入太郎
一金壹圓 植山[illegible]
一金壹圓 吉津龍太郎
一金五圓 日段益
一金弐圓 國分象太郎
一金壹圓 加藤本四郎
一金壹圓 山吉盛義
一金壹圓 市岡義之助
一金壹圓 高柳喜八
一金弐圓 加藤喜雄
一金五圓 若松見三郎
一金弐圓 大木安之助
一金壹圓 新庄[illegible]
一金壹圓 斎藤和
一金壹圓 吉江三郎
一金壹圓 松原[illegible]市
一金壹圓 松田行雄
一金壹圓 石丸飛太郎
一金弐圓 漢城協友會
一金五圓 漢城新報社
一金五圓 [illegible]
一金拾五圓 京城消防組
山田太吉 山口國二郎 一ノ瀬寅作
末松市太郎 後藤鶴正 川口佐吉
橋本定市 尾上藤造 江口忠吉
本田千代松 藤本嘉造 森卯一
山口庄三郎 山口玉吉 窪田直吉
高砂寅八 有津庄吉 中村作七
井上庄太郎 小西竹松 山口成三郎
西山伊八 國野宇右衛門 深田彦太郎
今村清吉 岩見辰代助 田中豊太郎
川西五右衛門 中尾吉二郎 藤井清太郎
小計金六拾四圓五拾錢
通計金百五拾圓五拾錢

印 商標

하지시루시고쟈부도슈광고

몸이란손몸거이健康치아니면精神이快치아니날터이요精神이快치아니면엇지법
일을ᄒᆞ리요세상에몸을保護ᄒᆞᄂᆞᆫ법이여러가지오나然이나셔에방미ᄒᆞᄂᆞᆫ에日本에서ᄒᆞ지
三鞭酒ᄂᆞᆫ슐을보ᄒᆞᄂᆞᆫ션약이오니이슐을먹ᄂᆞᆫ거시그중묘ᄒᆞᆫ법이요본리우라하지
산포도쥬ᄂᆞᆫ극샹포도즙에다가각죵보약을도합ᄒᆞ여비주슐이나음식이잘색이고혈
몸이약ᄒᆞᆫ니른지병졍에ᄉᆡᆼ슈셩ᄒᆞᆫ니가이슐을잡수시면구ᄒᆞ게이신롱ᄒᆞ고쥬시건장
ᄒᆞ심업ᄂᆞᆫ거시요그런고로포도쥬즁에그뭉잔민드ᄂᆞᆫ博覽大會에서도실노묘ᄒᆞ다고칭찬
賞牌를주어쓰며기타각국大博覽會에서도칭찬아니ᄒᆞᆫ디업셧고여러賞牌를받은거시弊
물뿐외라이品이뢰한ᄒᆞ고여라포도쥬즁에뎨一인줄아실거시요이런말ᄉᆞᆷ이다만弊店
ᄒᆞ나요그뭇타ᄒᆞᄂᆞᆫ손님이요시면萬國에퍼졋스며또ᄒᆞᆫ이포도쥬ᄂᆞᆫ맛도고시ᄎᆞᆼ물을
日本사람을마시ᄂᆞᆫ뜻ᄒᆞ니일상술을먹게아니ᄒᆞᄂᆞᆫ부인네라도다묘와ᄒᆞ시리이고그맛시입
요협이신기ᄒᆞᆫ약이되면실노아니로효ᄒᆞᆫ빗가그런고로날마다잔ᄒᆞ니고드마다번셩ᄒᆞ
[illegible]그모양을위ᄒᆞ여방미ᄒᆞᄂᆞᆫ재잇스니우리포도
[illegible]
서라도양쥬파ᄂᆞᆫ더와일본약방과항화전에가시면잇슬거시니갓가온디셔구ᄒᆞ시

日本國本町二丁目九番地
問屋 近藤利兵衛
朝鮮國特別販賣店 限本商行
元北 支店

入荷廣告

一皮座蒲團 丸形 角形
一夏麥帽子 色々
一日本人向朝鮮向石鹸

右新着廉價販賣仕候條多少に不係御用被仰付度奉願候也

京城泥峴 鈴木大阪堂支店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客室 旅館 京城 東京館
館 泥峴
●御賄ひは衛生を旨とす●
宿料 便利 低廉

本社朝鮮京城半合保險ノ儀ハ自今長谷石川商會內ニ追加一ヶ所ナ代理事務取扱可申候ニ付保險ノ申込、御依頼込等ハ今後都ヘ十同店ヘ御申出可被成下此段廣告仕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區[illegible]六番地
[illegible]會社

帝國生命保險[illegible]ノ儀自今都合ニ依リ取扱ヒ可申候ニ付此段廣告仕候也
追テ保險料ノ儀ハ各保險ノ面記載ノ期日ニ御拂込ミナキ方ハ本社規ノ通リ取計ヒ可申旨ニ有之候ニ付自今該期日ニハ必ズ當店ヘ御拂込成下候保險ノ被保險人契約人各位ヘ廣告仕候也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京城代理店
石川商會
明治廿九年六月 日

廣告

一草鞋(木綿、麻、紙) 近日以上八部
一日本笠 百枚以上拾枚代價五錢ノ割
一荷車 持渡代價五圓
一薪 百貫目ニ付代價四圓
一木炭 百貫目ニ付代價六圓
右御買求仕候間御買求被下度候也

京城領事館下
北川醇

織居加一

獵銃 附屬品
二連式銃 單式銃
石川商會
護謨履 長履 西洋服各種 帽子

魚 鯛 し け 煮 け 子 (ふ き の た ま り)
●茄子辛子漬 ●八千代卷 ●時烏卷 ●時雨紫蚰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神漬 ●其他罐詰各種
京城 龜屋分店 泥峴

スコット乳 (本品は大鱈肝油石灰及曹達を配合したる)
レーフル油 (牛乳にして其の好味なる事)
肺病、氣管支炎、瘰癧及喉咽病、虛弱の小兒
全國到る處の藥舖に賣捌きあれば御需めに
紐育製藥舖 スコット
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泥峴 限本商行

●日東方
和漢洋藥廣賣
各位ノ御愛顧ニ依テ
一般販賣仕候
御用ノ節ハ御注文
日本大阪 成尾安五郎

新聞代價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參拾五錢

廣告料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六錢
但シ行數及回數ニヨリ割引仕候

發行兼印刷人 [illegible]林[illegible]人
編輯人 島田[illegible]

發行所 漢城新報社
朝鮮國京城南部會賢坊[illegible]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國母御眞影奉安之儀

듯ᄂᆞᆫ대로, 日本辨理公使가, 지작일, 오후세시반에 國分通譯官을, 다리고 國分을밧치게, 경례궁으로, 가시는데

대군쥬폐하는, 궁니부대신니지순, 외부대신니완용, 외부 협판고영희, 씨등을, 다리사, 별셔, [illegible]으로, [illegible] ᄒᆞ옵사 [illegible]에

國母御眞影을, 거힝ᄒᆞ옵사

폐하는, 바드시든후에, 도루, 곳아라사공ᄉᆞ관으로, 환어ᄒᆞ옵셧다더라

●[illegible] 일본공ᄉᆞ관[illegible] [illegible]大[illegible]는, 지작일에, [illegible]공ᄉᆞ가 국셔를밧치입네 대군쥬폐하게옵셔, 인견ᄒᆞ옵셧더라

●李範晉氏之出發

주미공ᄉᆞ, 니범진씨는, 그부인과, 운히열살된ᄋᆞᄒᆞᆯ다리고, 지작일, 오젼일곱시에, 길을떠나, 부임ᄒᆞ야갓더라, 그날, 됴션졍부각대신이며각협판기타[illegible]등은, 삼ᄀᆡ셔지[illegible]ᄒᆞᆫ나[illegible]는, 유지로, 인쳔갓더라, 而ᄒᆞ야, 인쳔에셔는, 작일에떠나든, 미국군함「욕다운」號를搭便ᄒᆞ야, 쳥국지부로, 갓는뒤, 氏는거긔셔, 상히로가셔, 거긔셔, 셔편을기다려셔, 미국으로, 갈터히라더라, 또그공ᄉᆞ관으로, 갈[illegible] 書記生[illegible]두씨는, 아직떠나지안핫스되, 일간에, 셔편을기다려셔, 샹히로가고, 거긔셔李公使ᄒᆞ고, 합ᄒᆞ야, 동힝ᄒᆞᆯ작졍이라더라

●唐紹儀氏 [illegible]唐紹儀氏는, 거번, 드러왓는지, 아직도, 인쳔항에, 류ᄒᆞ야잇셔, 지나간십ᄉᆞ일에는, 인쳔[illegible]ᄒᆞᆫ, 쳥국상고, 엽나믄명을[illegible]로불너셔, 됴션에되ᄒᆞ는[illegible]일로, 제외소견을[illegible]ᄒᆞ며,

또[illegible]의소견을[illegible]ᄒᆞ얏다더라

●[illegible]라 ᄎᆞᆷ쥬졔쳔으로, 비도치러갓던, 대뒤장, 당긔렴씨는, 변명을, 죠슈ᄒᆞ기를, 엄히ᄒᆞ야셔, 일의는곳마다, 츄호를봄범ᄒᆞ고, 챵싱이도탄에, 드넌것슨, 이궁이너기는뜻세, 고시ᄒᆞ는데대지라도, 낫하나고, 군ᄉᆞ씨는범ᄒᆞᆫ이, 엄숙ᄒᆞ야, 비도덥이, 망풍도쥬ᄒᆞᆫ다더라, 이럼으로비도를사무잡는것시, 잇셔도, 다른군사의, 포하ᄒᆞ고, 살뉵ᄒᆞ기를, 도하ᄒᆞ는것과, ᄀᆞᆺ지안코, 반드시의리로, 효유ᄒᆞ야, ᄒᆞ야 금구화ᄒᆞ도록, ᄒᆞᆷ식, 비괴로사무잡혀셔, 왕화에감복ᄒᆞ고[illegible] ᄀᆞᆺ치ᄒᆞᆫ자ㅣ가, 극히만코, 제쳔비도업도, 쏫겨셔, 영ᄂᆞᆼ으로가되, 감히[illegible] 가정ᄎᆞᆺ히신험디경의, 인인는것시, 막비당긔렴씨에공젹이라, 원근에숑셩이자자ᄒᆞ더라

●[illegible]氏 동씨는, 시방, 일본[illegible][illegible]로를고, 젼쳐[illegible]코자ᄒᆞ되, 임의[illegible]은, 다공부ᄒᆞ얏고, 시방은[illegible]을, 경영ᄒᆞ야[illegible]과[illegible] 겸ᄒᆞ야비회잇고또[illegible]만비러셔, [illegible]ᄒᆞ며, 시방비치나몰ᄂᆞᆫ심거지나ᄂᆞᆫ뒤, 우사ᄅᆞᆷ이[illegible]ᄒᆞ야, 니야기가[illegible]외말이되면, 곳피ᄒᆞ고[illegible]를[illegible]으로, 옴겨셔[illegible]온, 아주아니ᄒᆞᆫ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젼에, 아관을[illegible]ᄒᆞ야잇든「덴스괴」[illegible]수십삼명은, ᄉᆞ관이, 졔시가, 거ᄂᆞ려十四日에, 한강을왕복ᄒᆞᆫ[illegible]을ᄒᆞ고, 인쳔가셔[illegible]ᄒᆞ얏더라

●[illegible]之[illegible] 去三日四日及五日[illegible]의셔, 나왓든젼보를보니, 거긔[illegible]이란지방에, 토비가, 봉긔ᄒᆞ야一時는, 챵궐ᄒᆞ더라ᄒᆞ엿셔도, 일본군뒤가[illegible]ᄒᆞ얏스므로, 다ᄉᆞ방으로[illegible]ᄒᆞ야, 아주, 진졍되기, 일간에잇스리라더라

●[illegible]之[illegible] 歐洲初航之日本郵船[illegible] [illegible]는, 지나간四日에, 스에스(歐洲)를떠나, 일본으로[illegible] ᄒᆞᆫ다고, 본사로, 젼보가나왓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去三日[illegible]에 굴은뒤, 연일장마때문에[illegible]에, 물이[illegible]ᄒᆞ야, 그[illegible]이, 여도군뒤가, [illegible]ᄒᆞ야人[illegible]과[illegible]ᄒᆞ든게, 퍽만고, 젼답을, 엇시든거시, 몃十[illegible]되얏는지, 아직은, 아는슈업다더라

●[illegible]氏의[illegible] 탁지부주사, 모씨의, 면관ᄒᆞᆫ, 일은, 일젼의도, 긔젹ᄒᆞ엿거니와, 지금도, 자셰히, 드르니, 황ᄒᆞ도안악군수, 류긔ᄃᆞ씨가, 상납젼, 일만오쳔냥을, 동씨의게로, 보니여셔, 상납을, 잘바쳐달나, ᄒᆞ엿는뒤, 동씨가, 본뒤, 류긔ᄃᆞ씨와, 졍분이, 잇셔, 류긔ᄃᆞ씨가, 그뒤둔, 잘, 보아달나ᄒᆞ면서, 그수고는, 싱각ᄒᆞ마, ᄒᆞ엿는뒤, 이상납젼을, 동씨가, 상납은안니ᄒᆞ고, 자가가, 먹엇[illegible] 려오고, 또상납지촉이잇슨즉, 이왕[illegible] 보고ᄒᆞ엿는지라, 이에, 그음사가, 한로ᄒᆞ여셔, 국쟝이, 모씨더러그돈을, 바치라ᄒᆞᆫ즉, 모씨가ᄒᆞ는말이, 나는, 류긔ᄃᆞ씨가, 먹으란돈을먹엇노라ᄒᆞ고, 니지아니ᄒᆞ니, 부득이ᄒᆞ여셔, 뒤신의게, 안악보고를밧쳐셔, 면관이되럄헌뒤, 간신이좌수정쵹ᄒᆞ여의원 면관이되엿다ᄒᆞ더라

●[illegible]之[illegible] [illegible]우편[illegible]에, 남힝들을, 벼술을갈고, 다원외랑으로부쳐더니, 그후에, 원외랑도, 폐지되엿더니, 그시에, 혹벼슬에, 못혼사ᄅᆞᆷ도, 잇고, 혹, 외임ᄒᆞ여간, 사ᄅᆞᆷ도, 잇서ᄉᆞ, 지금, 남힝권외랑 수가, 이십구인인데, 셔울잇는, 원외랑이, 연입구명이오, 그남아는, 다시굴잇는뒤, 원외랑들이, 다원굴ᄒᆞ다고, 말이만터니, 지금드르니, 탁지부대신, 심상훈씨가, 쥬션ᄒᆞ여, 이원외랑을, 다구쳐하기로ᄒᆞ엿고, 호반원외랑은, 군부대신이, 구쳐ᄒᆞ가로ᄒᆞ논뒤, 그수효는, 아직알수, 업다ᄒᆞ더라

●[illegible] 경샹도밀양ᄯᅡ에, 논씨ᄒᆞᆫ분이, 사는뒤, 그아ᄒᆡ가, 일쥭, 부모를일코, 그삼촌의게, 의탁ᄒᆞ여자

라는지라, 호협방탕, 아니ᄒᆞ미, 압헤, 잇지 그삼촌이 서, 살인이 항ᄉᆞᄒᆞ여 일변으로 니, 밤이기 직ᄒᆞ던사 셔, 감안이 가셔, 그사 어서, 신례 불을, 무르 니, 그수직 본즉, 불이 셔, 불을[illegible] ᄉᆞ, 문을[illegible] 려ᄉᆞᄅᆞᆷ이, 숑쟝이, 가 지라, 그ᄉᆞ 물쇽으로, 버리고, 져 낫스나[illegible] 그리ᄒᆞᆫ[illegible] 이야, 엇지 의셔, 사[illegible] 에ᄲᅡ져, ᄌᆞ 인ᄒᆞᆫ삼촌 그후에, 크게[illegible] 등하게ᄒᆞᆫ

●[illegible] 엇더ᄒᆞᆫ 왓던지, 이 놀으고, 이 쟝은불과ᄒᆞ 가죡신을[illegible] 논ᄒᆞᆫ치쯤[illegible] 니ᄃᆞ뒤, 사 일곱살이[illegible] 쥭, 굴으뒤 나ᄀᆞᆺ은[illegible] 식나려[illegible] 신인이라 으뒤, 졈을 놀, 돈을쥬 쥬어도, 먹 분이오, 어 라만날[illegible] 안코, 만날

本新報合社

、스예스훈다고라금이되、이益훈頌決ᄒᆞ야펴만고新되얏는주사모노、귀져이、드르뒤씨가、송씨의게쳐달나、귀티씨가、그뒤수고는、전을、동가가먹[illegible]죽、이왕그음사一씨더러가ᄒᆞ는으란、돈ᄒᆞ니、부보고를신이좌다ᄒᆞ더에、남랑으로도、페지、보ᄒᆞᆫ、사롭수가、、다、시원외랑굴ᄒᆞ다나、락지ᄒᆞ여、이엿고、호구쳐、ᄒᆞ알수、、논씨일쥬、부다ᄒᆞ여자

라는지라이아희가、그온이장사요、호협방탕ᄒᆞ여、글읽기를、조아ᄒᆞ지아니ᄒᆞ미、그삼촌이、미워ᄒᆞ여、눈압헤、잇지못게、ᄒᆞ엿더니、하로는그삼촌이、다른사ᄅᆞᆷ과시비를ᄒᆞ여서、살인이、되엿는지라、일동이、다황々ᄒᆞ여서、일변으로、고관ᄒᆞ며、일변으로、그죽은신레를、수직ᄒᆞ더니、밤이깁ᄒᆞ미、손씨아희가、그수직ᄒᆞ던사ᄅᆞᆷ들이、잠을기듸엿보아셔、감안이、그신레잇는、방에드러가셔、그신레를、떠들고、그밋헤누어셔、신레를비우헤、올녀노코、이불을、무릅쓰고、불을쓰고、누엇더니、그수직ᄒᆞ던사ᄅᆞᆷ덜이、잠을세여본즉、불이써젓는지라、방의드러가셔、불을결세、홀연、송장이、일어셔ᄉᆞ、문을박차고、다라나는지라、여러ᄉᆞᄅᆞᆷ이、크게놀나、ᄯᅡ라간즉、그송장이、강문속으로、ᄯᅱ여드러가는지라、그손씨아희는、송장을안고、물속으로、드러가서、송장은、몸에버리고、저는물속으로긔여서、다라낫스나、다른사ᄅᆞᆷ들은、알ᄉᆞ、항상이、그리ᄒᆞᆫ줄알아씨、사ᄅᆞᆷ이、그리ᄒᆞᆫ줄이야、엇지알니요、그잇흔날、관가의셔、사십ᄒᆞ여、결과ᄒᆞ는씨에、물에ᄲᅡ져、죽은양으로결과ᄒᆞ미、그살인ᄒᆞᆫ삼촌은ᄃᆡ사ᄒᆞ기를、면ᄒᆞᆫ지라、그후에、그삼촌이、그일을、알고、크게긔이히너겨、사랑ᄒᆞ기를、심히두ᄒᆞ게ᄒᆞᆫ다ᄒᆞ더라

●保寧妖巫이라　츙쳥도、보령군에、엇더ᄒᆞᆫᄋᆞ희가잇는ᄃᆡ、어ᄃᆡ로조차왓던지、아지못ᄒᆞ고、그어려ᄒᆞᆷ은、놀으고、이마는놉고、눈은깁고、신장은불과ᄒᆞᆫ쟈인ᄃᆡ、모시옷슬입고、가죽신을신고　담비싼지차고、손에논ᄒᆞᆫ치쯤되는　담비ᄃᆡ를、가지고다니ᄃᆡ、사ᄅᆞᆷ덜이、그나흘물은즉、일곱살이라ᄒᆞ고、어ᄃᆡ셔왓너냐ᄒᆞᆫ즉、ᄀᆞᆯᄋᆞᄃᆡ하ᄂᆞᆯ노조차、나려왓스되나ᄀᆞᆺ튼ᄋᆞ희、여덟이팔도에ᄒᆞ나식나려너ᄂᆞᆫ라、ᄯᅩ물으되、그런즉、신인이라、ᄒᆞᆫ날을아느냐ᄒᆞᆫ즉、왈ᄋᆞᄃᆡ、점을치면、대강아노라、ᄒᆞ거놀、돈을주어도、밧지안코、음식을쥬어도、먹지안코、먹는거슨、실과뿐이요、엽어주는것슬、됴하ᄒᆞ더라만님래래이졈치라ᄒᆞ면、되답지안코、만님실과와、담비를쥬고、됴혼말노、눌으면、되답ᄒᆞ되、극히영혐ᄒᆞᆫ지라、본군슈가、뭇고、다러다가、젼을물은즉、되답지안커늘、실과와답비를、만히쥬고、사ᄅᆞᆷ으로ᄒᆞ야금、엽어쥬기를、사흘을ᄒᆞ여도、죵시냥소ᄒᆞ고、되답지아니커늘、히슈가노하야、내쏫찻더니、쥬막에서굿치자든사ᄅᆞᆷ이、밤의감안이본즉、그ᄋᆞ희신장이팔쳐이요、운모가쭈죡ᄒᆞᆫ지라、심히괴이히、너기엿다가、그잇흔날다시본즉、젼파ᄀᆞᆺ치、ᄒᆞᆫ쟈ᄀᆡ라、그말이、젼구ᄒᆞ더니、그ᄋᆞ히가、어ᄃᆡ간지、아지못ᄒᆞᆫ다ᄒᆞ더라

## ●申進士問答記 (四)

대져셰상리치가、사군취원ᄒᆞ면、노이무공이요、또자근이권이라、형뎨친쳑을박ᄒᆞ게너기고、타인을후히되접ᄒᆞ며、넌리향당을、소홀이알고、믄듸사ᄅᆞᆷ을、친근이사귀면、일온바픠례요、픠덕이라、무숨연고로、자기ᄋᆞᆫ뎌를버리고、믄듸사ᄅᆞᆷ을후ᄃᆡᄒᆞ리요、나ᄒᆞᆫ조가、ᄀᆞᆯᄋᆞᄃᆡ、사군취원을、인코자ᄒᆞᆯ진ᄃᆡ、됴션의연경졉계ᄒᆞᆫ나라이、한경도편으로는、아라ᄉᆞ가잇고、평안도편으로는、청국이잇는지라、아라ᄉᆞ도、됴션을、위ᄒᆞ야、보듬고쟈、ᄒᆞ다는、말이잇스며、청국은슈빅쳔년을、나려오면서、친근ᄒᆞ던나라이라、하필보다듬건너서잇는일본을갓갑다ᄒᆞ며、그밧기친근ᄒᆞᆯ것시업는줄노、말숨ᄒᆞ시ᄂᆞ뇨、신진사가、ᄀᆞᆯᄋᆞᄃᆡ、일승일쇠는、번역ᄒᆞ는리치요、ᄃᆞᆼᄃᆞᆼᄒᆞᆫ거시라、청국에이왕친근ᄒᆞ던거시、쇠ᄒᆞ엿스니、그됴졈이、발셔뵈엿고、일본의、젼봇허소확ᄒᆞ던거시、변ᄒᆞ엿스니、그증거를、가히알지라、ᄒᆞ물며、청국은이왕봇허、번속의신됴로、알고、외방에노예로、ᄃᆡ졉ᄒᆞ엿거놀、병ᄌᆞ년의、겁박ᄒᆞ야항복바든、유파、슈빅년업슈이녀기든슈치를、싱각지안코、무엇시못잇처서、다시싱각ᄒᆞ며、ᄯᅩ다시、신션의례로、공례를、밧치던것슬、분ᄒᆞᆫ줄모로나뇨、지어아라ᄉᆞᄒᆞ여서는、디경은、비록연졉ᄒᆞ엿다ᄒᆞ오나、그실샹은、동서가현격ᄒᆞᆫ지라、됴션의、연졉ᄒᆞᆫ양의는、사는사ᄅᆞᆷ도업고、히삼위당에서로、기항ᄒᆞ엿스나、히삼위성은、본ᄃᆡ됴션셩

이여놀、괴춤노써、감안이취ᄒᆞ엿스니、그、연경접계되는것슨、엇지큰환、아니리요、ᄒᆞᆷ믈며그、도압은、뒤셔에、디중히가의잇고、인류는、빅인죵중에도、우극음흉ᄒᆞ야、련하를병탄ᄒᆞᆯ、마음인줄을、우분우부라도、아는비요、일온바호랑지국이라、련하각국이、두려워ᄒᆞ고、실여ᄒᆞ자아는나라이、업거놀、하필됴션이ᄒᆞᆫ자、두려온줄도、아지못ᄒᆞ고、그함유ᄒᆞᄂᆞᆫ뜻슬、세닷지못ᄒᆞ니、이는어리석기가、심ᄒᆞ고、우숨을、련하외셰치ᄂᆞᆫ바이라、엇지붓그럽자아니ᄒᆞ며、엇지분ᄒᆞ지、아니ᄒᆞ리요、도리여그、도와쥰다는말을、고지듯는사ᄅᆞᆷ은、죡히셔말ᄒᆞᆯ것업스며、나즁에큰화란이、아라사좃차셔、나는것슬、오리지아니ᄒᆞ야서、볼거시며이제일본인즉、그인민의、산례를보면、대숑쟝단이、죠션과똑ᄀᆞᆺ고、이부구비에、명낭쳥슈ᄒᆞᆫ것시됴션사ᄅᆞᆷ과、달을거시업스며、그힝동거지를보면、숭품에、강명　고됴리부른[illegible]다졍ᄒᆞᆫ것시、죠션사ᄅᆞᆷ만못ᄒᆞᆯ거시업고、지어문ᄌᆞ언어에도、리치와、믜낙이、서로ᄀᆞᆺᄒᆞ니、이는다름이、아니라、두나라이、한가지로、동방에、잇서서、ᄒᆞᆫ분야속이요、긔후가ᄀᆞᆺᄒᆞᆫ연고이라、만일의복을ᄀᆞᆺ쳐서、복식이ᄀᆞᆺᄒᆞ며、언어를강습ᄒᆞ야、서로이해ᄒᆞᆯ것시업시되면、죠션사ᄅᆞᆷ파일본사ᄅᆞᆷ을、분변치못ᄒᆞᆯ지라、이러케셔로ᄀᆞᆺᄒᆞᆫ나라인ᄃᆡ、죠션을ᄋᆡᄒᆞ야서、인명을허다히、허비ᄒᆞ며、지물을、누어만거의술、얼어서、십비ᄂᆞᆫ、관청국을、석거서물니치고、됴션의、자쥬독닙ᄒᆞᆯ긔초를、엽어쥬시、본국에、인명과、지물허비된것슨、일우지못ᄒᆞᆫ는것만、분히녀기나、그셔러져도치ᄒᆞ야、즁흥ᄒᆞᄂᆞᆫ스업을후히치아니코、죠션이그ᄃᆞᆺ슬밧어후의를감격히녀기지、안는사ᄅᆞᆷ은지견이열니지못ᄒᆞᆷ이요、지어죠를、비호ᄂᆞᆫ것슨、비단사근취원ᄒᆞ면로이무공ᄒᆞᆷ뿐아니라、됴션사ᄅᆞᆷ을위ᄒᆞ야、그비호ᄂᆞᆫ것슬、신독이알고、가라치기를、졍셩으로ᄒᆞ야、히위ᄒᆞᆫ마음이、업기를、일본이졔일이요、ᄯᅩ일본이、뒤셔의、기예를비호기를、그한만ᄒᆞ야、급지아니ᄒᆞᆫ것슨ᄀᆞᆺ처두고、긴요ᄒᆞ고、즁대ᄒᆞᆫ것만、갈여서、비호ᄂᆞᆫ거시니

## 雜報

●國內鐵道規則

뎜이 나라안의、렬도규측에、관ᄒᆞᆫ논、건을 제가ᄒᆞ야、반포케、ᄒᆞ노라

대군쥬 어압 어시

건양원년칠월십오일

내각총리대신윤용선

농샹공부대신됴병직

칙령뎨삼십일호

국내렬도규측

뎨일됴 나라의、인민이、왕래ᄒᆞᄂᆞᆫ것과、물건을운젼ᄒᆞ기에、편이ᄒᆞ믈위ᄒᆞ야、나라안의、각디방에、렬도를、셜치ᄒᆞᆷ

뎨이됴 나라안각디방렬도의、쳑량(尺量)을、ᄒᆞᆫ갈갓치ᄒᆞ야、이갑의화륜거가、뎌갑의도、서로동ᄒᆡᆼᄒᆞ여、걸님이업게ᄒᆞᆷ

뎨삼됴 나라안의、각디방렬도의、광을、외국의셔、젼ᄒᆡᆼᄒᆞᆫ규측을좃차서、쳘션(鐵線)베푸ᄂᆞᆫ、무시를、영국자로、녀자ᄒᆞ야닷치반으로、확뎡ᄒᆞᆷ

뎨사됴 관립ᄒᆞᆫ、렬도화믈거외왕[illegible]ᄂᆞᆫ사ᄅᆞᆷ의[illegible]됴구와[illegible]물건과부[illegible]농상공부[illegible]신청뎡ᄒᆞᆷ

뎨오됴 우ᄒᆞᆫ[illegible]、사ᄅᆞᆷ이나、타국사ᄅᆞᆷ이、렬도회사를、나라안의、비셜ᄒᆞ며에도、이규측을、ᄒᆞᆫ갈갓치준ᄒᆡᆼᄒᆞ고、표차와、물건수운비도、농상공부와、협의ᄒᆞ여서、뎡ᄒᆞᆷ

뎨륙됴 렬도계측은농상공부대신이류후로뎡ᄒᆞᆷ

뎨칠됴 본령은반포ᄒᆞᆫ날노부터시ᄒᆡᆼᄒᆞᆷ

●[illegible] 요시이、장마와、더위가、심ᄒᆞᆫ지라、우심ᄒᆞᆫ남방얼을、변노이신칙ᄒᆞ되ᄂᆞᆫ데、한셩판찰사、유긔환씨가、내부훈령을、바더서、(紙條)ᄒᆞᆫ법과、(道路濟渠)ᄒᆞᆫ법과、(匹隊辦隊)ᄒᆞᆫ법과、(四口辦隊)을찾ᄒᆞᆫ하ᄂᆞᆫ법과、二十一條를열서하여、인민[illegible]의게시하엿다더라

●警務使照會之顚末 경무청은、본리지판쇼와、관계가만이、되ᄂᆞᆫ말인듸、지판소、금사ᄂᆞᆫ、듯님권리가잇넌고로、경무사와、서로죠회련하ᄂᆞᆫ겨식인듸、시경무사니종건씨ᄂᆞᆫ、자긔의자위만싱각하고、죠회를아너밧넌다하야、금사와상지하ᄂᆞᆫ일은、젼호의긔지하엿거니와、오시이ᄂᆞᆫ、니종건씨가、무슨싱각이、서로낫던지、장졍대로、서루죠회런、한다더라

●法部大臣[illegible] 법부대신、한규설씨ᄂᆞᆫ、쟈쵸로、고문관、아린계일씨의게、고문하ᄂᆞᆫ일이업던이、근일은、사무를、심쇼 랴고하여서、고문관의게、의논하여、지판소구셩법을、곳쳐마련하게하고、또고문관이、병이잇다넌말을듯고、챵셔관김교셩을、보나여서、문병도하고、지작일의ᄂᆞᆫ동씨가、친이고문관방으로、가셔、보고、미우친근이ᄒᆞᆫ다더라

●[illegible]이라 근년、농샹공부에서、우체션로를、또다시、확댱ᄒᆞᆯ방침이잇ᄂᆞᆫ대、지금에、이십삼부와、삼항구에ᄂᆞᆫ、대강우체ᄉᆞ를、셜치ᄒᆞ엿ᄉᆞ나、답은각부와각항구에만、샹ᄉᆞᆼᄒᆞ엿고、그다음각군의ᄂᆞᆫ、우체물을젼ᄒᆞᆯ슈업ᄂᆞᆫ고로、요ᄉᆞ이、다시확댱ᄒᆞ야、경영을ᄒᆞᄂᆞᆫ데、미군마다、우쳬ᄅᆞᆯ젼ᄒᆞᄂᆞᆫ、역젼ᄒᆞ엿서、아모곳[illegible]ᄂᆞᆫ、사ᄅᆞᆷ입젼지、우쳬젼ᄒᆞ기와、편도복ᄒᆞᆫ다더라

●見今[illegible] 지금、이십삼부에오관찰사업ᄂᆞᆫ곳이、다섯곳이니、인쳔과、히쥬와、평양과강계와、나쥬오、또디구와、함흥이、갈넌다고、말이잇고、군수와、권ᄂᆞᆫ곳은 산십여군이、남ᄂᆞᆫ다ᄃᆞ라、이여러관찰사와여러군수[illegible]엇진일노、오리나지아니ᄒᆞᄂᆞᆫ지、알수업다ᄒᆞ더라

●[illegible] 그번의、권노공샤、민영환씨가、젼보ᄒᆞᆫ、하엿ᄂᆞᆫ데、글자를살지못、한다ᄂᆞᆫ말은、젼호의、긔지하엿거니와、근일또공셥와、하기던、슈일젼의、젼보가또왓ᄂᆞᆫ데、샤기가엇지되여、그러하던지、글쟈를알슈가업서서、미오온우가되기로、비불반셜ᄒᆞ다닌、공셥이낭자하나、그진가ᄂᆞᆫ아지못하게노라

●[illegible]이라 동씨에、피신ᄒᆞᆫ、젼호의、긔지ᄒᆞ엿더니이제그소식ᄂᆞᆫ져세이들으니、그때의、홍씨가、관사의안젓더니、홀디에비도수비명이、관사으로、드러와서、우현ᄀᆞᆫ강ᄒᆞ고、당세멧젼냥을、내라ᄒᆞ거ᄂᆞᆯ、동씨가、안식은변치안코、졀대히말ᄒᆞ야、되지ᄒᆞ믈못거슬일으되、비도의핍박ᄒᆞᆷ、더욱심ᄒᆞ、막거놀、이에홍씨가수저져굴으ᄃᆡ、중ᄒᆞᆫ왕세를、너의가엇지내게구ᄒᆞ며、내가엇지너의게허락ᄒᆞ리요、여그니돈이、엽전팔빅냥이잇ᄉᆞ니、이것슨내가줄것시니、다시왕셰ᄂᆞᆫ말ᄒᆞ지말나ᄒᆞᆫ즉、비도덜이그팔빅냥돈은받어가지고、또다시、왕셰를달나고、강박ᄒᆞ다가、필경죽여버렷다、ᄒᆞ니차호ㅣ라、홍종헌씨여、급박ᄒᆞᆫ중에도、의를닐나지아니코、ᄉᆞᄉᆞ지물은가븨야이알고、왕셰ᄂᆞᆫ즁히알어서、허락지아니ᄒᆞ고、드듸여몸을죽이기셔지에일으니、엇지아름답지아니ᄒᆞ리요

●[illegible] 근일은、니범진、김홍뉵、양씨가、세불냥입이、되ᄂᆞᆫ지라、외양으로ᄂᆞᆫ、서로죠와하ᄂᆞᆫ듯하나、안마음은、서로불평이녀겨서자연이、분당이되엿더니、지작일에、니범진씨가、미국사힝을、떠난후로ᄂᆞᆫ、김홍뉵씨가、[illegible]을하여、박졍양、니용의、류동근니、군호니학권세가、더욱더단ᄒᆞ다ᄂᆞᆫ、풍셜이、낭자ᄒᆞ다니、그진우가、어ᄃᆡ합넌지오

●[illegible] 뭇거보닌다 [illegible]으로잇서서、위엄이、편하롤진동ᄒᆞ고、[illegible]이되야、쳥국졍부에서[illegible]ᄒᆞᆫ명장이로알든[illegible]ᄂᆞᆫ、도임ᄒᆞᆫ후에、그ᄌᆞ고거동일보[illegible]되야서[illegible]ᄒᆞᆷ의엄명을바닷ᄂᆞᆫ데、아직도、그냥[illegible]ᄒᆞ야잇스므로、물졍이소요ᄒᆞ야지니、[illegible]ᄒᆞ임자민[illegible]씨가、[illegible]ᄒᆞ얏슨즉[illegible]ᄂᆞᆫ、다시、녀쥬더러、슈키、쏫차내라ᄂᆞᆫ 츄명이나렷다더라

●[illegible]이라 평안도、평양군에、한씨라ᄒᆞᄂᆞᆫ자이잇스니、일족이、부모를일코、그일가의집에붓쳐서길너더니、나히장셩ᄒᆞ미、혼넌을ᄒᆞᆯ터인데、그고단ᄒᆞ기로、혼인ᄒᆞ기물、뎌답ᄒᆞᆯ자이업슬가、근심ᄒᆞ야、자가의、친아들이라칭ᄒᆞ고、강셔군에사ᄂᆞᆫ、부자김씨집에、쥴혼ᄒᆞ엿더니、김씨가、셩혼ᄒᆞᆫ、셋슬두엇다가、셜혼은밧셔、부조접먼과、디브러、혼인ᄒᆞ고、못ᄒᆞᆫ셜만、남엇ᄂᆞᆫ데、김사가죡시、한씨의、집의、와서가계와、

낭지를ᄇ기ᄂᆞᆫ줄아셩이、남조혼혼ᄃ、당ᄒᆞᆫ후ᄒᆞ고、곳、한셩이쳐가로、낭의、계보고、그른ᄃᆡ、한형계지비、연유를속고、ᄒᆞ긔왕그러후로ᄂᆞᆫ、ᄒᆞ고몬져히후ᄒᆞᆫ게여ᄋᆡ서、ᄒᆞ야、다게、ᄒᆞ엿의、피차씨의집、의、침방[illegible]갈으되니망ᄒᆞᄂᆞᆫ오라ᄒᆞ니라ᄒᆞ니니고、가비밤의、도오니、그뭇거날、슈모ᄒᆞ더말을、셜져가의、얼그별ᄒᆞ한셩의、게다 른곳쳐할도리지니고、나、근본온、비록스족의사、근봉변시잇더니、동거ᄒᆞ며씨의집이ᄒᆞ기럴、시이、그져의상면ᄒᆞ라

가옴못것슬
더욱심ᄒ
믄이되、막
내게구ᄒ
리요、여
잇스니、이
공쎄는、말
그쌀빗낭
、왕셰를
죽여버렷
근씨여、급
니코、스
공제는중
、드듸여
、엇지아
、니범진
이、되는
과하는듯
이녀겨셔
지작일
르、써난
하여、박
ᄒ니하
[illegible]
증셜이、
합너지

낭지를보고、혼인을앗숩ᄒ니、그쇠
기논줄아야、엇지뜻ᄒ엿스리오、한
셩이、남의조혼의복을、어더입고、
조혼혼구를빌어가지고、혼인날을
、당혼후의、김씨의집이、가셔、셩례
ᄒ고、곳도라왓다가、슈일지닌후의
、한셩이、다시남루ᄒᆫ、웃셜닙고、그
쳐가로、갓더니、김씨의집이셔、신
낭의、폐의과관ᄒ고、오넌모양을、
보고、크게놀ᄂ여서、그연고를무
른ᄃ、한셩이、비로소、부모읍슴과、
형제지빈ᄒ여、일가집의셔、셩장ᄒᆫ
、연유를、ᄌ셰이、말ᄒ니、김씨가、그
속고、혼인ᄒᆫ일연、분하게녀기ᄂ、
긔왕그럿케된일을、웃지ᄒ리오、그
후로는、한셩ᄃ접ᄒ기를、ᄎᄆ갓치
ᄒ고몬저시회들의ᄃ접ᄒ기는、심
히후ᄒ게ᄒ니、한셩이또ᄒᆫ분하게、
여셔、ᄒᆫ게ᄀ됼니여、ᄌ조、ᄂ왕
ᄒ야、다만그쳐의게만、졍이친밀ᄒ
게、ᄒ엿다가、ᄒ로는、한셩이젼신
의、피칠을ᄒ고、밤이깁흔후의、김
씨의집、담을、넘어서、가마니、그쳐
의、침방이로、들어가니、그쳐가놉
[illegible]
갈ᄋ되ᄂ가、살인을、ᄒ고、지금도
망ᄒ는길의、불가불、작별ᄒ엿[illegible]

울、잡고、눈물얼흘니며갈ᄋ되、맙
숨ᄒ즈니、ᄎ마어려고、스위분낫시
웁노라、슈일젼의、우리ᄯᆞᆯ이、쪽결
울어더、죽어서영장ᄒ셔지、ᄒ엿노라
ᄒ니、한셩이갈ᄋ되、그러ᄒ면、불
과숨사셥니갑의、웃지ᄒ여서、흉부
도、아니ᄒ고、장ᄉ를지니엿ᄂ니ᄒ
니、김씨가ᄃ답말이、웁는지라、한
셩이、술푸고、분ᄒᆫ모양으로、말ᄒ
녀、골ᄋ되、박명ᄒᆫ니믐온가난ᄒ여
다시는장가를슈도옵다ᄒ며、그쳐
의、송장을과가지고가라ᄒ니、김씨
가、빅가지로、만집ᄒ여골ᄋ되、돈
이잇스면、가히장가를거시니、ᄂ맛
당이、그ᄃ、장가를부비절、담당ᄒ
여、쥬리라ᄒ니、한셩이、짐짓그쳐
의、송장을파러들면、김씨는빅가
지로방셕ᄒ다가、뭇ᄉ니、한셩의장
가를져물이、우심에ᄎ셔져긔금을、
취ᄒᆫ후의、한셩이、그장인얼여지로
、간권ᄒ야、한씨의집으로、갓치갓
더니、부녀상면이、된지라、김씨가、
긔가막히여서、그셜얼、크게칙망ᄒ
니、그셜이、셜졍이못ᄃ、답ᄒᆫᄃ、김
[illegible]
시는、간란으로며사ᄅᆞᆷ을옵슈이、녀
、그지[illegible]

●延安人、일젼에、평안도박쳔군
쳐에셔、나제、호랑이나와셔、계집
ᄒᆫ명을죽여어고、두명을상ᄒ고ᄎ
두마리을、굴고、어ᄃ로갓다더라

●米價가졈졈올나간다 일젼에도、
시가ᄂ、고등ᄒᆫ것슬、귀지ᄒ엿거니
와、쌀갑시、날마다、올나가는ᄃ、셕
낭일곱돈이、괏밥쌀이오、상미ᄒᆫ、
너냥이더간죡、인심이ᄃ단히、오ᄉ
ᄒ다더라

●[illegible]라 독셤사는、당춘경[illegible]
[illegible]미라ᄒ는사ᄅᆞᆷ은、물을제워삭팔
가로、셩이삼드나、물ᄒᆫ바리가、
잇논ᄃ、심히사ᄒ나워서、사ᄅᆞᆷ을몰
고、차기를잘ᄒ는고로、다른사ᄅᆞᆷ은
아모두、갓가이ᄒ지못ᄒ고、담온
ᄌ인에지취만밧더니、춘경이월젼
의、그물을가지고、권산으로、삭슐
팔너갓다가、도라오는길에、평강군
삼방이란ᄃ을、일온즉、비도십여명
이ᄂ달나서、그물과져물를、쎽고자
ᄒ거놀、당춘경이가、그물을버리고
、도주ᄒ야몸을、감추고보더니、그
물이、흉연이、소리질으며、비도엽
[illegible]
코、크게놀내서、도망ᄒ거놀、그물
에가는자를、쏫눈지라、비도ᄃ열
[illegible]
나간후에당춘경이、나가셔、물
의지구물、슈습ᄒ서、비도가、다른
징인의게、빼슨돈과지물을、만히버
리고간지라、당춘경이가、대강으든
것시、적지아니ᄒ야셔、노리여횡지
를단해ᄒ엿다더라

貝役때
이、편하
야、쳥국
은[illegible]
그거동
공을、바
잇스ᄆ
후임자
、옷차
평양군
일쥬이
못쳐셔
온넌을
인ᄒ기
낭ᄒ야、
강셔군
ᄒ엿더
가、셜
러、혼
、김씨
계와、

라ᄒ니나도한가지로ᄯ라가리라ᄒ
고、가뷔여온보비를만이가지고、그
밤의、도망ᄒ여、한씨에집으로도라
오니、그쳐가、괴이히녀겨셔연고를
뭇거늘、한셩이、웃고、이왕쳐가의、
슈모ᄒ던일이、졀분ᄒ여셔、계교신
말을、셜파ᄒ고、그잇ᄒᆫ날、한셩이、
쳐가의、편지ᄒ여、그쳐ᄃ려올ᄃ맙
열고졀ᄒ엿더니、김씨의집에셔는、
한셩의、계교를、모르고、ᄃ인이、
다른곳스로、도망ᄒ엿다ᄒ여、온
젹합도리가옵셔、집안이、황ᄉᄒ게
지ᄂ고、김씨는、비록형셔는、부ᄌ
ᄂ、근본이、미쳔ᄒᆫ사ᄅᆞᆷ이오、한셩
은、비록형제는、간난ᄒ나、근본이、
ᄉ족의사ᄅᆞᆷ이라、반다시、한셩의게
、근봉변을할줄、짐작ᄒ고、경황을
시잇더니、한셩이、그쳐ᄃ려올날을
、동긔ᄒ엿다가、쳐가의갓더니、김
씨의집이셔、반가이영졉ᄒ며、ᄃ졉
ᄒ기를、신션갓치、ᄒ는지라、한셩
이、그쳐의、침방으로、들어가、ᄂ의
상면ᄒ라ᄒ니、김씨가、한셩의、손

●[illegible]
구만시、셔김시가、본ᄃ속챵이잇고
、인물이、아람다온고로、린리가모
다、충찬ᄒ더니、슈일젼의、밤이깁
흔후의、도젹ᄒᆫ놈이、줄지와、ᄂ사
과잘、안방이로、들어오니、김씨부
인이논나서、소ᄅ진ᄂ、도젹은、부
지ᄉ니、도젹이ᄃ답ᄒ여셔、그부인
의입을막고、져간ᄒ고、곳도쥬ᄒᆫ지
라、그집안이、모다겁ᄂ되고、그부
인은곳ᄌ결ᄒ고ᄒ니、그남편니
씨가、만단으로、이건ᄒ여셔、쥭지
못ᄒ게ᄒ고、각ᄉ쳡소로、나가셔、
자고그잇흔날、얏침의、니씨가、안
방의들어가본즉、인져이、옷슴을、
고이ᄒ게녀거셔、ᄌ셰이、ᄎ쳐본즉
、김씨부인이、목면의가서、ᄌ결ᄒ
엿는지라、그남편이、분ᄒ고、분ᄒ
고、슐잇을、이기지못ᄒ여서、일장
통곡ᄒ고、즉시、경무쳥의、그연유
로、고소ᄒ여서、잡혀가거지、되야셔、
아직도젹은、잡지못ᄒ엿다ᄒ니、그
김씨부인의、졍렬함은、셰상의、[illegible]
상함만ᄒ더라

## 社告

[illegible]君에[illegible]합을
[illegible]으로[illegible]ᄒ
앗더니[illegible]되앗스미
[illegible]에[illegible]
[illegible]을[illegible]이로보
시면[illegible]에보시옵

[illegible]
一[illegible] 一錢三分
一[illegible] 一圓二錢五分
三[illegible] 三圓五錢
六[illegible] 六[illegible]分
[illegible]

[illegible]엿편편[illegible]ᄂ거시三[illegible]
이[illegible]차셔갑
[illegible]고[illegible]도젼[illegible]이
밧ᄉ오옵

雑報

◎國書捧呈式の儀

既記の如く原全權公使は一昨日午後三時半より國分通譯官を從へ國書捧呈の爲め明禮宮に參内せられたるが、大君主陛下は總理大臣[illegible]、外部大臣李完用、外部協辦高永喜氏等を從へ已に同宮に出御同四時に至りて國書捧呈の式を擧行せられ式了りたる後復た同じく公使館に還御あらせられたりと洩れ承りぬ

●野津大尉の謁見　我公使館附武官野津大尉は一昨日原公使國書捧呈の際、大君主陛下より謁見を賜はる

# ●李範晋氏の出發

駐米公使李範晋氏は其の夫人及び本年十歳なる一子を携へ去る一昨日午前七時過ぎ當地を出發して赴任の途に上れり當日朝鮮政府の各大臣、協辦其他の官吏及び氏が知友は麻浦迄見送り氏は同地より陸路下仁せり而して仁川よりは昨日米國軍艦ヨークタウン號に便乘して芝罘に向ひたるが氏は同地より更らに上海に渡航し夫にて便船を待合せ夫より米國に渡航し[illegible]就任、書記生李[illegible]の二氏は未だ出發せず不日便船を待ち仁川より直に上海に渡航し同地にて李公使を待合ふ豫定なる由

●在米公使館參書官更動　在米國公使館附[illegible]氏は一昨日[illegible]に依り本官を免せられ外部參書官[illegible]氏を[illegible]

●國内鐵道規則

昨日勅令第三十一號を以て次の如き鐵道規則を發布せらる

第一條　國内人民の往來と物品出入の便利を謀り國内各地方に鐵道を敷設す

第二條　國内各地方鐵道の尺寸を均一にし以て輪車として彼此互に通行し妨礙無からしむ

第三條　國内各地方鐵道の廣さは外國現行の常規に從ひ軌道の間隔を英尺四尺八寸半と定む

第四條　官設鐵道は汽車の乘車賃及び貨物の運賃は農商工部大臣之を定む

第五條　國内各地方に鐵道を敷設せんとする場合には内外國人を論せず凡べて此規則を遵行し乘車賃及び貨物運賃は農商工部大臣と協議して之を定むべし

第六條　鐵道に關する細則は農商工部大臣追て之を定む

附則

第七條　本令は頒布の日より施行す

●地方制度の勅裁可及實施

地方制度改革案は既に閣議の決する所となり已でに勅裁可を經たりと雖も其後の閣議にては當國の形勢昨今の如くんば如何に制度の改革を爲すも之れを實行する甚だ難きを以て寧ろ明年[illegible]の事務[illegible]と偕に施行して之れを發布せんとに議決したりと傳ふ

●沈相薫氏　は近々北部[illegible]に赴任へるならんとの噂有り一時の用件ありて然る乎然た疑問の點ありて然る乎

●中學校と師範學校　[illegible]

勢及び我朝内治の態度等に關し一種奇風の新聞令を發したりと云ふ該新聞の記する所によれば中學相は生徒の服制として二千年以前一部の支那人が着用せし衣服及び帽子に擬して一種の服制を工夫し又た漢城師範學校長は日下生徒の歴史及地理等は生徒の祖國及帝國列人に對する尊敬の念を減殺するの虞ありとて之が教授を廢止し又た外國品ありとの故、以て服制及び日常の使用を廢したり云々有樣なるべし

●徐氏の惡評　一頃[illegible]事件を以て世人の物笑ひを招きし[illegible]氏及び其の關係者は[illegible]飲泥ふが如きの人之れに對せる名譽拙劣陋僻[illegible]が彼に來泡に關すべきは明白なり徐載弼氏は獨立新聞紙に記して曰く二千円の報酬金予に入りなば擧げて[illegible]公會に寄附すべしと想ふに二千円徐氏に取りては他國の金にあらず而して[illegible]め其收用を公けすべ人誰れか其の公共心に富めるを認めざらん氏も亦た如才なき人なる哉

●一兩百火に過ぎず　徐氏の[illegible]位に現はるゝや世人皆聞く其の評[illegible]必ず有力なる[illegible]あるべしと而して其の[illegible]は開かれ[illegible]は如何らは何んぞ計らん徐氏は[illegible]無く[illegible]公會員を要ふ一兩百火ならんとは

●[illegible]氏　は一昨日濟州府觀察使に任せられたる氏は昨年同時本に留學せし人なり

●[illegible]氏　は内閣記錄局長に任ぜらる

●[illegible]氏　[illegible]

[illegible]入京せり

●リ氏謁見の[illegible]し　宮内府顧問官たるリゼンドル氏の[illegible]入しく聞かざりしが氏は該日宮内部に[illegible]りて大君主陛下に謁見し何事か奏上する所ありしと傳ふるもの[illegible]して真乎

●[illegible]公使と[illegible]部の[illegible]　[illegible]公使が[illegible]部の照會狀を刎ね付けしとの故を以て双方の間に[illegible]を生じ[illegible]を來したるも[illegible]

[illegible]十日の紙上に記せしが[illegible]此[illegible]今[illegible]照會狀を[illegible]

●[illegible]の訓示　[illegible]使[illegible]氏は内部の訓令を奉じ[illegible]及び人民衛生に關する二十一ヶ條の訓示を[illegible]より[illegible]

●宮内府官吏の更動　[illegible]（[illegible]の實父）は[illegible]を以て[illegible]

[illegible]十四日任命ありたり

●[illegible]の[illegible]　[illegible]の一部[illegible]

●頭[illegible]の[illegible]（[illegible]の[illegible]）

甲午（二十七年）より以[illegible]日人[illegible]し我國をして自主の國たらしめ大君主の[illegible]を[illegible]し[illegible]て邦内の事は我國之を決斷して命を他國に聽かざるべきに[illegible]制[illegible]令一に日人は指揮に從ひ[illegible]官任一に日人の附隨に任かせ服色[illegible]に日人の形容に倣ふ是れ[illegible]は本國に於[illegible]及ばずして何ぞ自主をは朝三暮四の術に過ぎざるなり[illegible]如何に拘はらず[illegible]く自ら事を治めて命を他國に聽かざるを自主と謂ふべしと此二論を以て試みに今日を視れば[illegible]主と自主の別辨をるを得たずして自から明かなり我國にして苟くも能く自主の實を完ふし政教法度を更張して上古を祖述せば則ち[illegible]の故、孔孟の道、[illegible]げて用ゆ可からず近古を[illegible]せば則ち[illegible]の典、[illegible]の法、[illegible]らざるを得ず奈何せん日本の[illegible]に倣ひ[illegible]を將作して一國を危險に附し[illegible]を[illegible]に迫つ其の作爲殺伐凶狠の質、政形の本に非らざるはなし[illegible]る[illegible]物成務、化民成俗とは斯の如きものなる[illegible]や[illegible]つて[illegible]公決の[illegible]を知らずんばあらず而して一國公共の[illegible]、我國にては之れを士論と云ひ外國にては之れを民權と云ふ外國の人、民權を重んじ公議を尚ぶを知らば則ち宜しく我國士論の重んずべきを知るべきなり而して公共の議は獨り西部に行ふべきものにして東洋には行ふべからざるものあるか生等兵を郊外に合し少數の同志を作ひ入[illegible]し往在に上疏して[illegible]の事を請ひ各國公使を會して大に陳辨し我國をして自主獨立の邦と爲し以て依附の念を絶ち外國の[illegible]を解き以て萬國平行の權を立て光輝の故、孔孟の道[illegible]

ものなり

伏して願くは[illegible]下別に[illegible]を定めて[illegible]の事を[illegible]し[illegible]をして[illegible]以て入[illegible]せるを得せしめ上[illegible]に[illegible]を[illegible]して[illegible]に[illegible]せしめ安りに一人を殺し安りに一財を取らしめざるべし以上の事項大都に商定して[illegible]四方の兵亦た[illegible]中外をして能安あらしめん伏して[illegible]の[illegible]に於て[illegible]して[illegible]入[illegible]伏して祈る

丙申五月（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の行商　[illegible]地方の狀況前[illegible]の如くなるを以て在仁川の[illegible]は不日同地方へ行商する由而して[illegible]は仁川より[illegible]て夫より[illegible]を[illegible]る[illegible]

●元山に於る外國軍艦　去る二日午後四時[illegible]三隻元山港に入港し翌三日北方に向て去り又九日には[illegible]一隻同港に入港せしが數時間にして何へか向け出港したりと

●道路取擴げ　[illegible]道路取擴げに就き朝鮮政府は[illegible]家屋の一部を[illegible]に付き[illegible]五拾錢、[illegible]は[illegible]の割にて[illegible]し[illegible]代金を夫れ〳〵交付したりと云ふ

●[illegible]

[illegible]氏が[illegible]より去る七日付を以て[illegible]へ寄せたるの一[illegible]は[illegible]る同地方の事情を知るに足るもの有るを以て[illegible]を左に[illegible]す

（前略）當地は目下[illegible]

[illegible]

俳 壇　　正風會寄稿

（承前）

○五　客　　湖 水　　胞 水　　卯 兩　　芳 浪　　千 舍

白雨の晴て夜涼よし我の世
雨くる浮に行む道の便かな
與津より浦見ゆる雨間かな
日や宝に流されし松や綱涼哉
明て行く月の名残や道の宿

○三　才　　好 蝶 庭　　桃 月　　六 和

涼しさや苔は見へも谷清水
見の方へ燈燈の仙く日傘哉
雨の世を避けし雨居や白道

人 地 天　　迎 加　　瑞 廼

逆そつる心と蔭は照から始

廣 告


## 日本郵船株式會社 濟船仁川出張所 廣告

肥後丸　八百七十一噸　七月日出港 同日入港芝罘、太沽、牛莊行 船長 [illegible]

玄海丸　八百七十四噸　七月日出港 同日入港釜山下ノ關 神戸行 船長 茂木翔之

豊島丸　六百八十九噸　七月十八日出港 同十七日入港釜山下ノ關 神戸行 船長 井上孫三郎

薩摩丸　千百五十七噸　七月廿四日入港 同日出港 馬關 香港行 船長 ソンイー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illegible] 船長 [illegible]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會社仁川支店

## 大阪商船會社 濟船仁川出張所 廣告

信濃川丸　七月十九日出帆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隅田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二見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筑後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白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木曾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本支部ハ従來日本領事館構内ニ假事務所ヲ設ケ居候處今般 [illegible] 南山ノ麓公園内ニ移轉致候間此段會員諸君ニ謹告ス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支部　日本共樂園

## 第貳會正風集題

花入ノ句合ニ關シ採點ノ上 [illegible]

秋園瑞穗宗匠撰　判者

寄稿限七月二十日限 [illegible]

投込所　正風會

## 開場廣告

今般揭門及ビ室内射的場ヲ本十八日ヨリ大ニ開場仕候間 [illegible] 御來遊被下度候

七月十八日　中嶋

## 광고

종부쟝츙방강젼관에 창홍스를셜업
ᄒᆞ엿ᄉᆞ니 이회 ᄉᆞ운 군부 과 계국 쳘물
과 셕 탄 등 을 물 진 비ᄒᆞ고 다ᄅᆞᆫ 물 건 도
만이 ᄆᆡᆨ ᄒᆞ ᄂᆞ 다 더 라
건양원년칠월십우일　창홍사 졍

## 瑞西製

最新 チスルスミルク 最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漢城泥峴

旭屋分店

## 廣告

弊館儀今般都合ニ依リ閉店仕リ候ニ付 [illegible] 御中込相成度同日以後ハ一切 [illegible] 廣告

明治廿九年七月十五日　南大門通 [illegible]　大江商店

## 入荷廣告

一皮座蒲團 丸形 角形
一夏麥藁帽子 色々
一日本人向朝鮮向石鹸

右新着廉價販賣仕候條多少に不係御用被仰付度奉願候也

京城泥峴　鈴木大阪堂支店

## パイレート◉金銀各種眼鏡

朝鮮國一手販賣

貞洞辻商店◉泥峴辻支店

◉パイレート捲煙草ハ [illegible] 販賣ヲ相營ミ非常ノ [illegible] 御注文ノ [illegible] 候間續々 [illegible]

◉フレドレスツリーツト、ドレートカツトパイプ、ナルキツサスポイント、ドスボトカブ [illegible]

◉金銀各種ノ眼鏡ハ今般新荷來着仕リ [illegible] 上候

◉此他弊店本業ノ雜貨 [illegible] 御購求奉願

## ◎日本旅館

弊館儀宿泊料之儀左ノ通リ相定メ極メ丁寧親切ニ取扱仕候間御來泊ノ程奉願候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二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　田原旅館

## 一 肥後名產 朝鮮飴

抑モ此ノ朝鮮飴ハ肥後國ノ名產ニシテ北味ノ絕好ナル迎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且ツ幾日ヲ經ルモ腐敗ノ患無ク旅行ノ節ヲ名ヘ [illegible] 一 [illegible] 好品ナリ大方之諸君一箱ヲ購テ試用シ玉ハンコトヲ乞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 旅館 東京館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御料理は衛生を旨とす◉

## 生魚 生肉 に優さる 夏の 衛生 料理

◉飯　章魚
◉あ　ま鯛
◉い　わし
◉さ　け
◉佃　煮
◉松　たけ
◉竹　の子
◉伽　羅ふき

レート捲烟草ノ儀今般東京輸入元木[illegible]店ト特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illegible]ヲ相營ミ非常ノ勉強ヲ以ツテ賣弘メ候々御注文ノ程希望候
此他弊店販賣ノ捲烟草ハ
レスリツナキンドロスリーカスルス
トカツトハオアナトカメホカルク
ヤゾルピインブレスカロリナピンヘツ
ヰトカホフヤングフツシヤ
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ニシテ新荷來着仕リ候ニ付御愛求ノ程希願
弊店本業ノ雜貨深山商會仕リ候ニ付ナ御購求希願候

[illegible]丁東規

◎日用方 試丁用 和漢洋藥廣賣
各位ノ御愛顧ニ依リ増々盛大ニ赴キ[illegible]
一層勉強仕候間不相變多少ニ不拘御注文御用ノ程伏テ希願仕候
日本大坂 東區道修町 [illegible]丁目
成尾安五郎

圓 十錢 十錢 五錢

旅館

本社朝鮮京城生命保險ノ儀ハ自今[illegible]代理店ニ於テ取扱可申候ニ付御地保險ノ申込、御拂込等ハ今後都ベテ同店ヘ御申出可被成下此段廣告仕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區本材木町六番地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店ノ儀自今弊店ニ於テ取扱ヒ可申候ニ付此段廣告仕候也
追テ保險料金ノ儀ハ各保險々面記載ノ期日ニ御拂込ミナキ方ハ本社ノ規則ニ依リ取扱可申候ニ付之レ無様期日ニ御拂込被成下度保險ノ被保險人契約人各位ニ廣告仕置候也
明治廿九年七月 日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京城代理店 和泉商會
織居加一

製造所
應ニシテ此所ニアラズ思無ク然ナ十十トシ最上[illegible]ナ試用シ

館 とす ◎ [illegible]位 便 利 とす

魚 鯛 ー け 煮 け 子 き
のた ふ
◎茄子辛子漬
◎八千代卷
◎時鳥卷
◎時雨紫艸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神漬
◎其他鑵詰各種
京城 泥峴 鶴屋分店

# 地球印藥用ブダウ酒効能書

時ノ古今ナ問ハズ邦ノ東西ニ論ナク酒精劑ノ飲料アクザルハナシ古昔ヨリ傳ヘテ日ク酒ハ百藥ノ長ナリト又云ク酒ハ愁ヲ掃フノ箒ナリト誠ニ理ナキニ非ラズ今ヤ其ノ然ル所以ヲ略説スレバ
第一 之レヲ飲用スレバ能ク消化ヲ補ヒ食慾ヲ増進ス故ニ酸素ノ吸收ヲ盛ンナラシムハナリ以テ食販ノ不足ヲ補フニ足ルベシ
第二 之レヲ飲用スレバ精神ヲ爽快ニシ以テ精神ノ疲勞ヲ醫ス可ク進取ノ氣象ニ富マシムルヲ得ベシ
第三 之レヲ常用スレバ血液ノ循環ヲ迅速ナラシメ以テ筋肉ノ發達ヲ盛ニシ得ベク身体ノ健全ヲ計ルヲ得ベシ
以上擧ゲタルハ皆ナ藥用ブダウ酒ノ効ニアリ卵ノ如クナレバ沈鬱憂悶性ノ人ハ之レヲ用ヒテ能ク其ノ精神ヲ爽快ニシ其思慮ヲ明瞭ニシ其憂愁ヲ除キ其疲勞ヲ去ルヲ得ベキナリ加之既ニ我邦ニ於テ左ノ如キ賞状ヲ受リタリ以ツテ我ガ地球印藥用ブダウ酒ノ良好ナルヲ知ルニ足ルベシ

## 一地球印ブダウ酒

之レヲ檢スルニ品質良味ヲ見ズ且地質適良及ビ夏季旅行ノ飲用トシテ最モ適當ナルモノト認定ス要スルニ今回ノ航路ハ本邦ヲ發シテヨリ始終太陽ノ直下ヲ過キ又熱帶ヲ過ギ又間ニ度ヘリ殊ニ太陽ノ直下ヲ經過スルコト兩度ニ及ビ必ラズ變質多カラントヲ想像セシニ少シモ其ノ跡ヲ見ザルハ品質良好ナルモノト認定スト實ニ今ヤ故ラニ其ノ効能ヲ喋々セザルモ以上ノ賞状證明ニ徴シテ知ルベキナリ
東京市日本橋區[illegible]町[illegible]丁目

發賣元 伊部商店
朝鮮國特約店 京城 隈本商行

獵銃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附屬品
廣告
新荷着
西洋服各種
帽子
靴 履
漢城 石川長 商會

スコット乳劑は大鱈肝油石灰及曹達を配合したるレーフル油にして其の肝油なる事は乳に於る脂肪の味に消化を助け行くものなる故に支炎、瘰癧及咽喉病、肺病、氣管[illegible]に効能あり又虛弱の小兒には滋養食物として効あるはスコット乳劑の名を出るもの多し既に萬國の賞牌を得たれば世に用ひて其實の證すらさるも知り給へ全國到る處の藥舗に販賣されば御需めに應じ[illegible]は下記の特約店へ御問合あれ
紐育製藥舗 スコット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泥峴支店 隈本商行

一草鞋（木綿、麻 井ニ藁製）足代價[illegible]一足以上八十錢ノ割
一日本紙 百枚以上毎枚代價五錢ノ割
一荷車 一輛代價五圓
一新炭 百貫目ニ付代價四圓
一木炭 百貫目ニ付代價六圓
右御買上仕候間御賣求被下度候也
京城學校下
北川醇

新聞定價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參拾五錢
廣告料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六錢但し行數及回數により割引仕候[illegible]
發行兼印刷人 庄林恒人
編輯人 島田種次
發行所 朝鮮國京城南部會賢坊鑄洞頭 漢城新報社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山縣大將及野津氏

아라사皇帝를 참예ᄒᆞ러가사든、일본特派大使山縣大將은、오월이십이일에、도션ᄒᆞ여 경권공ᄉᆞ、민영환씨ᄒᆞ고、갓치 英京(倫敦)그렴린에셔 아라사국 황뎨황후두폐하를 謁見ᄒᆞ시ᄂᆞᆫ디、산현대쟝에게 ᄃᆞᄒᆞ야ᄂᆞᆫ、兩國의 …이 …야 …에、비ᄒᆞᆫ…노라고 …ᄒᆞ엿신 …를 누리셧다 더라、그리ᄒᆞ고、민영환씨ᄂᆞᆫ、북석 온、양복을닙고、도션사모를쓰나、 …와 …(쇼ᄀᆡ)와 …(ᄲᅥᆫ)과、 … 져구리와 … 리ᄂᆞᆫ、도션사모인 … 파、동여관과 … 리ᄅᆞᆯ …、도션 서울에잇든、아라사공ᄉᆞ관참서관 「스뎐」氏가、각별졀외、주션을ᄒᆞ야 잇다더라

●日本新聞一部八人殺

본년이월이십팔일에、일본 … 一甲 … 八人 … 은、영국「답류아 므스도런」會社「일스잇기」所 에셔 … ᄒᆞ얏ᄂᆞᆫ디、그협은 … ᄒᆞ 든대로 만ᄉᆞ법졀이、금직ᄒᆞ、잘되 야셔、그때 … ᄒᆞ든사ᄅᆞᆷ에ᄂᆞᆫ … ᄒᆞᆫ 일본공ᄉᆞ、 … 외여러관원 파、그회사의 社主 아므스도렁氏以下 인디、구경군이、이 … 을보러 … ᄒᆞ ᄂᆞ니가、일만삼ᄉᆞ쳔명이나되야 … 所에、아주ᄎᆞᆺ더라

그八人 … ᄂᆞᆫ、젼년에、그회사에셔 … ᄒᆞ얏든、영국 … 비더리야 … 보담 일쳔구빅 …(일쳔이 … 육십 … 斗) 을、더크고、그 … ᄂᆞᆫ、영국「러야르、 소버시지」 … ᄒᆞ고、 … ᄒᆞ다더라

●井田 …(홍일흠) … 之一 … 미국히

군 … 가、북쪽으로、보고ᄒᆞ얏든、 말솜에、 … ᄋᆞᄃᆡ、일본군ᄉᆞ가、가진 흉은、궁니ᄒᆞ야、민기든사ᄅᆞᆷ의、 일홈을붓쳐 … 이라ᄒᆞᄂᆞᆫ디、내가 天津에잇슬때、 … 之 … 더ᄅᆞᆯ、 알외니 … 가、감독ᄒᆞᄂᆞᆫ … 으로갓ᄂᆞᆫ디

작년겨울에、ᄒᆞᆫ … 의치료ᄒᆞᄂᆞᆫ거ᄉᆞᆯ보니、영국육군 … 「졔므스」氏가、그 … 의총을마 … 을보고、크게감동ᄒᆞ얏더라、그의원의말이、나ᄂᆞᆫ、이번의 … 을、삼ᄉᆞ십명을 … ᄒᆞ되、아직、그ᄋᆞ이 … ᄒᆞ든사ᄅᆞᆷ이、ᄒᆞᆫ번도업고、삼ᄉᆞ … 에 … 로、 … ᄒᆞ든졀환이로되、그 … 가 … ᄒᆞ고、또 그 … ᄀᆞᆺ이、ᄲᅡ녀나가셔 … 에셔 … 치 안코、바로 … ᄒᆞ얏고 … ᄒᆞ야、그 … 들은、다 … ᄒᆞ얏더라、이러ᄒᆞᆫ … 으로、ᄉᆡᆼ각건ᄃᆡ 이젼에총을、마진것 ᄀᆞᆺᄒᆞ면、아홉명은、젼쟝에셔 … ᄒᆞ 얏슬거신디、총이、너무조화셔 그 때문에、사ᄅᆞᆷ든거시라더라

● … 미국공ᄉᆞ의참서관 … 리와 …、 … ᄂᆞᆫ … 가、 … 남이、되지못ᄒᆞ여서、친쳑이、밋쳐 되지못ᄒᆞ고、또ᄒᆞᆫ、공사의친쟝도、미비ᄒᆞᆫ거시만어서、참서관、리씨와 서긔싱、리교서씨、무분이、류후로、공사의치쟝미비ᄒᆞᆫ것마지、다수습 ᄒᆞ여셔、금、이십오일에、출발ᄒᆞᆫ다 ᄒᆞ더라

● … 이라 황ᄒᆞ도、히쥬부、가천방 … 삼파졍사ᄂᆞᆫ、젼감역 에、가옷주 … 씨ᄂᆞᆫ、나ᄒᆞ일 … 을 인ᄃᆡ、쟝병이들어셔、삼사년을、일어나지、못ᄒᆞᄂᆞᆫ디、ᄯᆞᆯ은의ᄋᆞ들을、무어스니、일홈이、리회 …라、경향으로、단이며、명의와、양약을、구ᄒᆞ야、지셩으로、밧들어도、쥭시효험이、업고、젼ᄉᆞ친죵ᄒᆞ더니、지나간 삼월에、어ᄃᆡᆫ로인、ᄒᆞ나히와서、병셰를조셰이、못고、리회더러일너ᄀᆞᆯᄋᆞᄃᆡ、그병환은、사ᄅᆞᆷ고기를、웃어써야、회츈ᄒᆞ시리라、ᄒᆞ거ᄂᆞᆯ、리회가、이말을듯고、그쳐와더브러、인육을、옷을경ᄒᆞᆯ、ᄒᆞ여도、계칙이、업ᄂᆞᆫ지라、두야로、근심ᄒᆞ더라、리회가、ᄋᆞ들이 … 、두엇ᄂᆞᆫ디、닷셧지ᄋᆞ들에、쿠셩이란아ᄒᆡ가、공부ᄒᆞ기로위ᄒᆞ야、구월산 … 년암 … 에들어가셔、상거ᄂᆞᆫ、 … 과삼십리 로ᄃᆡ여러날을돌아 오지안커ᄂᆞᆯ、리회가、그ᄋᆞ들을、보고자ᄒᆞ야、빈년암으로、들어가더니、그ᄋᆞ들이、마쥬나려오ᄂᆞᆫ지라、저의부친의계졀ᄒᆞ고、저의조부병세를、물은후에、저의부친을ᄯᅡ러셔、나려올셩ᄒᆞ더에、너머지거ᄂᆞᆯ、리회가、놀나셔、보드니、ᄋᆞ들은간ᄃᆡ업고、팔ᄒᆞ나만、손에잇ᄂᆞᆫ지라、리회가심히、의심나고、놀나오나、그인육을、으더셔、친환에、쓸날이、깃버셔、그팔을가지고、도라와셔、그부친을、드렷더니、파연즉시쾌ᄎᆞᄒᆞ고、슈일후에、그ᄋᆞ들두셩이가、도라왓ᄂᆞᆫ디、두팔이다 셩이잇고、향일에、죵노와만ᄂᆞ든날을아지못ᄒᆞᄂᆞᆫ지라、심히의심되ᄂᆞᆫ、또그깃분마음을、익의지못ᄒᆞ다라 이ᄂᆞᆫ엇지ᄒᆞᆫ일인고、혹미 … 이 … 면 ᄯᅵ으들노、보이던것시、ᄋᆞ들이、아니요、사ᄅᆞᆷ의팔노알엇던거시、사ᄅᆞᆷ외팔이、아니라、반ᄃᆞ시구월산ᄉᆞ삼이、리회에효심으로、감동ᄒᆞ야、눈 … 어 … 보낸거시나 …

● … 충쳥도홍산 … 山 ᄯᅡ의ᄉᆞᄂᆞᆫ、조셩이란、재잇스니、나히십팔셰라、형제가부요ᄒᆞ여、거졍합게、엽시셩쟝ᄒᆞ더니、조셩의집이、친군이단이ᄂᆞᆫ、눈도ᄉᆞ라ᄂᆞᆫ、ᄌᆞᄂᆞᆫ、본ᄃᆡ피류의사ᄅᆞᆷ이라、무산놀업경영ᄒᆞ여셔、감언으로、조셩을、ᄯᅴ여서、공명을구ᄒᆞ라ᄒᆞ고、갓치서울노올나와셔、옷굴ᄒᆞ관의、쥬인을죵ᄒᆞ고、슈삭을、유식ᄒᆞ다가、일은되지아니ᄒᆞ고、밥갑션、슈빅금이、되야도、갑흘도리가、업ᄂᆞᆫ지라、눈도ᄉᆞ라ᄂᆞᆫᄌᆞᄂᆞᆫ、몰니도쥬ᄒᆞ고、조셩이란ᄌᆞᄂᆞᆫ、쥬인의、졍식채와、몸이젼당이、되야진퇴를、임의로못ᄒᆞ고、잇더니、져거번의、서울ᄉᆞᄂᆞᆫ … 휘병씨가、옹굴을、지나다가、맛참비쇼、만나셔、그여관문간에셔、폐우합시、비가죵일토록굿치지아니ᄒᆞ더니、ᄒᆞᆫ사ᄅᆞᆷ이、문을열고、보다가、방으로들어와셔、쉬여가라ᄒᆞ니、눈씨가、방에들어가셔、그소년을、본즉의복이、심히남누ᄒᆞᆫ지라、그연고를무론ᄃᆡ、조셩이눈도ᄉᆞ의게、속어셔、부모의게、고치아니ᄒᆞ고、올나온날과、서울와셔、고셩ᄒᆞᆫ말을ᄒᆞ고、지금은식채ᄂᆞᆫ만코、슈죵의、ᄒᆞᆫ

푼도리 당되야 젼인을 갑ᄒᆞ라 못되여 이야기 을、가극 ᄒᆞ여ᄀᆞ ᄂᆞ와가 셩을、ᄇᆡ 다리고 고、조셔 셩의어 율다리 의게구

● … 충샤ᄒᆞ … 젹이업 논ᄃᆡ샤 지금이 ᄒᆞ여잇

… 답ᄒᆞ되、ᄂᆞᆫ것시기 솔을쥬 의양부 라외조 손에나 세에의 던술을、지일은 지라、그 업다구、ᄒᆞ니김

● 미국 … 포구에ᄂᆞ … 온산 되、그날 … 가못 에、ᄒᆞᆫ셤 러ᄂᆞᆫ싀、 … ᄒᆞ야、물결이노 그조션ᄉᆞ

● … 에도、기가、삼신

됴,되풀도리ᄂᆞᆫ옵ᄂᆞᆫᄃᆡ 쥬인의게,몸이젼,빈년당되야서,집의도,못가고,또집의,이,마젼인을ᄒᆞ며,돈을갓다가,밥갑셜게,졀갑ᄒᆞ라ᄒᆞ여도,젼인할노비도,변통후에,못되여서,근심ᄒᆞᄂᆞᆫ스졔를,계셔히ᄒᆞ더이야기ᄒᆞ니,슌휘병ᄉᆞ가,그사ᄅᆞᆷ서,뭇울,가궁이,여겨서,여관쥬인을,쳥나만,ᄒᆞ여곰으ᄃᆡ,너집은복부ᄉᆞ동이나 ᄀ심나,나와갓치가서,나를보슈ᄒᆞ고,죠서,쳔싱을,보니라ᄒᆞ며,쥬인과,조싱을 므가지,다리고,ᄌᆞ가집이와서,징거시기더니,고,조싱을,보니엿더니,그후의,조그ᄋᆞ싱의어른이,시채를가지고,죠싱이,다을다리고,ᄌᆞ시을나와서,슌휘병ᄉᆞ든,날의게,구호ᄒᆞ여쥰,은혜를,무슈이,되ᄂᆞ,츙샤ᄒᆞ엿다더라

ᄂᆞ라,●[illegible] 복부,소안동에,로파ᄒᆞ[illegible]나이엿스니,다른ᄌᆞ녀와,일가친이,아쳑이,업고,담은의손녀,ᄒᆞ나만,잇사ᄅᆞᆷᄂᆞᆫᄃᆡ,샤나희도,업시샤ᄂᆞᆫ녀인이라 ᄌᆞ삼,지금이녀인의게,그로파가,의락야,순ᄒᆞ여잇ᄂᆞᆫᄃᆡ,미삭의쏠서말식,싱기[illegible]고을[illegible]

ᄒᆞᆷ이,맘로ᄒᆞᆯ슈업고야단을치고,놉흔ᄃᆡᄂᆞᆫ(難逃)ᄒᆞ얏스므로,다힝으로 人命은상ᄒᆞ지아니ᄒᆞ얏다더라,그러ᄒᆞ나,집물(家具水流失)ᄒᆞ든거슨,수십가잇고(所被)을날은것도,퍽만다더라

## ●申進士問答記

(五)

그지조를,비혼것시,바른줄을,알고쟈ᄒᆞᆯ진ᄃᆡ,그나라이,부ᄒᆞ고군ᄉᆞ가강ᄒᆞᆫ것을,보면,가히,알것시오,그문명홈의,고하를,알고쟈,ᄒᆞᆯ진ᄃᆡ,만인의마옴이,셩공ᄒᆞᄂᆞᆫ것을,보면가히알지라,지금일본에,연야가,엽녀서,농샹이,셩ᄒᆞᆫ것과 기예가,놉어서,빅공이,흥ᄒᆞᆫ것과,샹고가,닙쳐서,지물이,류통ᄒᆞ야셔,일국이,부요ᄒᆞᆫ것을,다말ᄒᆞ면,필경과장이라ᄒᆞᆯ지라,일우말ᄒᆞᆯ슈업거니와,십년운병을,ᄒᆞ여도,구경것시업고,십년훈져가,잇서도,귀한의,군식은,당ᄒᆞᆯ리가,업스니,나라이,부요ᄒᆞᆫ,연고[illegible]

닥거서,남녀간의,샹하귀쳔업시,신ᄒᆞᆫ문이,업ᄂᆞᆫ사ᄅᆞᆷ이,업고,동국셩이와신샹담ᄒᆞᄂᆞᆫ마음으로써,졍월,기다름으서,긴급ᄒᆞᆫ,ᄉᆞ무ᄂᆞᆫ,속ᄒᆞ기로,힘써서,아못조록,ᄐᆞ셔외형졔가,동양으로향ᄒᆞᄂᆞᆫ,조즘은막고쟈ᄒᆞ야,죠션과 쳥국으로,더브러,합게문명ᄒᆞ여서,아졔으를,보젼ᄒᆞ고쟈ᄒᆞᆯ시,국진ᄒᆞᆫ슈고를앗기지아니ᄒᆞ고,그즁에,유도를버리지아니ᄒᆞ며,셔ᄒᆞᆨ을,츄숭치아니ᄒᆞ고인고작금ᄒᆞ야,두가지ᄉᆞ이에,졀즁ᄒᆞ야,긴갑노만갈여서,취ᄒᆞ야,국가와빅셩의게,리롭고,유익ᄒᆞ도록만씨니,이나라를,비ᄒᆞ지안하고,어ᄂᆞᆫ나라를,비ᄒᆞ리요,ᄒᆞᆯ을며갓갑고,편ᄒᆞ야서,다른나라날을비ᄒᆞ기보담,사반공비ᄒᆞᆯ것실가보나,차홈다,세샹사ᄅᆞᆷ을,위ᄒᆞ야,크게한탄ᄒᆞᄂᆞᆫ바ᄂᆞᆫ,ᄐᆞ셔사ᄅᆞᆷ의,음즁을,ᄌᆡ닷지못ᄒᆞᄂᆞᆫ날이로다,ᄐᆞ[illegible]몽ᄌᆡ며,경영이장원ᄒᆞᆫ고로

[illegible]답ᄒᆞ되,박동김판셔되외서,보니시,나ᄂᆞᆫ것시라,김판셔되외서,엇지ᄒᆞ야 거졍,ᄯᆞᆯ을쥬느냐ᄒᆞᆫ즉ᄃᆡ답ᄒᆞ되,김판셔집이의,양부친에,유모ᄂᆞᆫ,우리외죄모ᄉᆞᄂᆞᆫ,라,외조모가,다른ᄌᆞ녀ᄂᆞᆫ업고,의ᄅᆞ경손에나ᄒᆞ나뿐일너니,김판셔가,션미여셰에,의를싱각ᄒᆞ고,우리외조모쥬서울던쏠을내게로,젼ᄒᆞ야서,오날ᄯᅢ울중지일으니아마내싱젼은,잇슬뜻ᄒᆞᆫᄃᆞ되지라,그김본은헤를,일우말ᄒᆞᆯ슈,되업다구,칭찬ᄒᆞ니,김판셔ᄂᆞᆫ누군고눈도ᄒᆞ니,김죵한씨라ᄒᆞ더라

성이 ●大韓國之[illegible]及于米國[illegible]

이젼미국(米國)남쪽에잇ᄂᆞᆫ「산다,굽즈」란오고,포구에ᄂᆞᆫ,지난달십오일의,일본[illegible]관회(北部大[illegible])의여파가,갓다더라,그ᄯᅢ참비온산「러련조」[illegible]인ᄃᆡ,그[illegible]폐우에,ᄒᆞᆫ셤이잇서,그셤에[illegible]이잇서서 니ᄒᆞ[illegible]가못나오게[illegible]을인드러무엇스가,되,그날앗침에,장식들이,일을ᄒᆞᄀ,눈려ᄂᆞᆫ시,의양에셔,산것흔물결이 ᄐᆞ,본[illegible]ᄒᆞ야,곳,그[illegible]으로,나왓코,그연고물결이놉기가九尺쯤이나되얏스되,속그조션쇼ᄂᆞᆫ,샹ᄒᆞ지ᄂᆞᆫ안헛다더라

고,울 ●[illegible] [illegible]

울ᄒᆞ[illegible]에도미러와서,그나온물결의놉의ᄒᆞᆫ기가,상십쳑이넘고,거긔사ᄅᆞᆷ의[illegible]

나라인명슈가,사쳔만구에,남녀를반식갈으면,각각이쳔만명식,가량ᄒᆞ고,남ᄌᆞ이쳔만명즁에,노약만,졔ᄒᆞ고ᄂᆞᆫ,모다군병이되,사ᄅᆞᆷ이,업ᄂᆞᆫ지라,사ᄅᆞᆷ마다,외례군들파,기예를,익혀두엇스니,상비병,후비병압고도,비만군사를,니랴면,ᄒᆞ로아츙닙이요,또ᄒᆞᆫ군긔와,졔구가,부죡ᄒᆞᆫ념녀가,업스니,군사가감ᄒᆞ지,안타ᄒᆞᆯ슈업스니,그비혼바를,가히알것시요,지어나라를위ᄒᆞ야,ᄒᆞᆫ갈ᄀᆞᆺ흔츙셩은,무론남녀노소ᄒᆞ고,다름이,업서서,녀편네부녀라도,은혜를나서귀ᄒᆞ고,사랑ᄒᆞᆯ져의ᄂᆞᆫ,쥭언ᄂᆞᆫ말이,어서밧비쥭어서,나라날의,쥭으라ᄒᆞ고,남ᄌᆞ면인쥭,나라이ᄒᆞ야쥭ᄂᆞᆫ남에ᄂᆞᆫ,ᄒᆞᆫ남의게되집가,겁ᄒᆞ니,일노서보면인민에문명ᄒᆞᆷ을,가히알거라,방금에,남군은,남군에,도리ᄒᆞ며,신하ᄂᆞᆫ신하의,도리ᄒᆞ고,빅관은,빅관의,직분을,다ᄒᆞ며,인민은,인민의,본분을,다ᄒᆞ여서,샹하가,일심으로,자자ᄒᆞᆷ이ᄒᆞ야,쥬야가,업시근고를앗기지,아니ᄒᆞᄂᆞᆫ고로,형졔가,날노써,나아가고,동국에ᄒᆞᆨ교가,편만ᄒᆞ야,남녀가,모다ᄒᆞᆨ업을,

급작키,듀션을,아니ᄒᆞ고,도션을가뵈압게,아니ᄒᆞᄂᆞᆫ고로,장악의,녀흐랴ᄒᆞ며,사ᄅᆞᆷ을,업슈이녀기ᄂᆞᆫ고로 쥭가치아니ᄒᆞ고,속으로ᄂᆞᆫ,소홀이,녀기되,것흐로ᄂᆞᆫ,사랑ᄒᆞᄂᆞᆫ체,ᄒᆞᄂᆞᆫ것시,무비음즁이라,ᄌᆡ닷기가,어렵지아니ᄒᆞ거놀,우미ᄒᆞ고,암약ᄒᆞᆫ[illegible]으로,ᄌᆡ닷지못ᄒᆞ고,[illegible]으로,ᄃᆡ졉ᄒᆞᄂᆞᆫ,일본사ᄅᆞᆷ의,속으로,사랑ᄒᆞ되,것스로ᄂᆞᆫ,경ᄒᆞᆫᄒᆞ야,한ᄒᆞ기를,잘ᄒᆞᄂᆞᆫ고로,싱여ᄒᆞ며,음즁으로,ᄃᆡ졉ᄒᆞᄂᆞᆫ,ᄐᆞ셔사ᄅᆞᆷ의,속으로ᄂᆞᆫ,엽신녀기되,것스로ᄂᆞᆫ,사랑ᄒᆞᄂᆞᆫ체,ᄒᆞᄂᆞᆫ것을,됴타ᄒᆞ니,이엇지분ᄒᆞ지아니ᄒᆞ리요,나ᄒᆞᆫ쟈가,곱으ᄃᆡ,다른말ᄉᆞᆷ은,그러타ᄒᆞ더ᄃᆡ도,일본이,이것치,리로운것슐,휴ᄒᆞ거ᄂᆞᆯ,엇지죠션만,위ᄒᆞ야서,혐을이곳치쓰며,엇지져외나라ᄂᆞᆫ,도라보지,아니ᄒᆞ야,히롤져럿케당ᄒᆞ리오,필경인즉,유심이,큰데잇서서,것츠로ᄂᆞᆫ,죠션을,위ᄒᆞᄂᆞᆫ듯ᄒᆞ고,속으로ᄂᆞᆫ,다른경영이잇숨이라,ᄒᆞᆷ을며,샹거가,갓가운것시,더구나,남녀오,인류와종죡이,대동소이,ᄒᆞᆫ것시,귀ᄒᆞ져ᄌᆡ이로라

## 雜報

●(…)수일젼에 대군주폐하게오서, 군사
엽젼구비량을반ᄒᆞ샤, ᄉᆞᆺ서ᄉᆞᆺ, 군사
ᄒᆞᄂᆞᆫ이명소속과, 병사들노ᄒᆞ여곰,
각ᄉᆞᆺ, 담빗ᄃᆡ, ᄒᆞᆫ거리식, 사가지라
ᄒᆞ시고, 또, 필목도, 만히, 반ᄒᆞᄉᆞ셧
ᄃᆞᄂᆞᆫ, 소문이잇더라

## ●民事訴訟之結果

경진ᄉᆞ가(…)ᄒᆞ든일을ᄃᆡᄒᆞ야, 서지
필씨가, 소지ᄒᆞ얏든二千元과, 박졍양
, 조병직, 니윤용, 안경슈, 김가진(…)
氏가, 소지ᄒᆞ야 一千元씩을(…)
金을, 요구ᄒᆞ든지판을ᄃᆡᄒᆞᄂᆞᆫ민ᄉᆞ
소숑은, 지작일에, 고등지판소에서
(判決宣告)ᄒᆞ얏더라, 그남도, 지판장은
(…)권진형씨가, ᄃᆡ신ᄒᆞ야, 판
소송은(…)니미션의두씨가(…)ᄒᆞ얏
더라, 그리ᄒᆞ고(…)은, 오젼엽ᄒᆞ시
작정이더니, 권고된二人(…)씨가,
그(…)에, 아니나왓스므로, 죵지
(…)가되야, 연으을넘어서, 계우(…)
되야, 서지필씨(…)ᄒᆞᄂᆞᆫ, 션고
을, 언졈ᄒᆞ니, 그大臣ᄂᆞᆫ, 피고졍가ᄂᆞᆫ
권고서지필씨가, 요구ᄒᆞᄂᆞᆫ대로,
무러주게ᄒᆞ니, 그(理由)로, ᄃᆡ심ᄒᆞ얏
든때의(原被告之口供)의말을, 올녀서,
(…)가ᄂᆞᆫ, 권고서가의, 명예를(…)
ᄒᆞ얏든거시라고, (判決)을ᄒᆞ야, 그(…)
으로ᄒᆞ야권고인의게, 그요구ᄒᆞᆫ(…)
二千元을, 무러내ᄂᆞᆫ(…)잇스되, 피고
졍가ᄂᆞᆫ가난ᄒᆞ야, 못무러냄으ᄒᆞᆫ쥭
지판관이, 쳥낭ᄒᆞ야, 그(…)을입
쳔원으로졍ᄒᆞ고, 그남은, 지판소
에서, 차자서(…)로주ᄂᆞ니라ᄒᆞ고,
박졍양씨와, 기타네씨의(…)을ᄃᆡᄒᆞ
야, 션고를ᄒᆞ니, 그大臣ᄂᆞᆫ, 젼과ᄀᆞᆺ고
지판소ᄂᆞᆫ, 권고가, 요구ᄒᆞᄂᆞᆫ대로,
피고에서, 도합오쳔원을차자, (…)
에, 일쳔원식(…)ᄒᆞ게노라ᄒᆞ얏더
라, 이일을다맛츈후에, 권지판장은
피고졍가를(…)로, 옴겨보낸다고
(…)를ᄒᆞ야(…)ᄒᆞ얏더라

●未決囚分 경진샤, 셩우씨가, 상쇼
ᄒᆞᆫ일노, 일젼의, 민사지판에, 된일은
젼호의, 긔지ᄒᆞ엿거니와, 지작일
외, 동씨를형사로, 넘겨서, 쟝찻판
결션고를, ᄒᆞᆯ터인ᄃᆡ, 지판쇼의셔,
의논ᄒᆞ기를, 무고(誣告)죄로, 죠률ᄒᆞ
여서, 즁죄의쳐, ᄒᆞ던거시, 올타ᄒᆞ
기도ᄒᆞ며, 또ᄂᆞᆫ, 샹서샤붐이실(上書)
(誣不以實)죄로, 죠률ᄒᆞ여서, 경죄의,
쳐ᄒᆞᄂᆞᆫ거시, 올타고ᄒᆞ여, 아직판결
이, 되지못ᄒᆞ엿다더라

●獨立門(…)之(…) 독립문을, 세운다
논말은, 젼호의긔지, ᄒᆞ엿거니와
지작일, 오후두시에, 각부대신과,
기타고등관니지졍안경슈, 졔씨가
ᄒᆞᆫ셩관찰부, 관평각의, 다뫼여서,
독닙문, 세울일을, 의논ᄒᆞ엿다더라

●(…)大臣用(…) 향일ᄃᆡ방제도,
미졍ᄒᆞᆫ됴건을, 총리대신, 윤용션,
씨가, 각ᄉᆞᆫᄒᆞᆫ별식을, 각부ᄃᆡ신게,
미면서, ᄒᆞ신말ᄉᆞᆷ이, 졔ᄃᆡ신덜은
, 각ᄉᆞ집의도라가서, 자셰히보고,
자셰히, 싱각ᄒᆞ여서, 일호라도, 소
홀ᄒᆞᆫ, 폐단이업게ᄒᆞ라, 말일, 반포
ᄒᆞᆫ후에, 잘못된거시잇스면, 경치상
에낭패가되리니, 가ᄒᆞᆫ거슨, 가타
ᄒᆞ고, 불가ᄒᆞᆫ거슨, 불가타ᄒᆞ야각
외에, 말ᄒᆞ라고ᄒᆞ엿다더라

●日本帝國大學校(…)
일본(帝國大學校)에서ᄂᆞᆫ, 지나간十日에,
(…)
라, 시방(…)大學校에(…)大學校을졸업
ᄒᆞᆫ사ᄅᆞᆷ은(…)에, 구십칠명이요, (…)
에, 이십칠명이요, (…)에, (…)십이명
이요, (…)에, 오십명이요, (…)에, 십
(…)명이요, (…)에삼십구명이요, 도
합이삼ᄇᆡᆨ십삼명이라, 而ᄒᆞ야, 시방
(學生)은, 일쳔오ᄇᆡᆨ팔십명이요, 시방
그대학(…)에잇ᄂᆞᆫ학상은, 오쳔명
넘ᄂᆞᆫ다더라

●(…) 연ᄒᆞᄂᆞᆫ소문을들으니,
지금각부대신들은(…)젼, 휘학사
들에겸ᄒᆞ여서, 관고의도, 올니게,
되면, 직합도, 미우죠코, 죽은후에,
명졍거리도, 미우죠흐리라고ᄒᆞ며,
각외에외논이잇다ᄒᆞ나, 우리ᄂᆞᆫ그진
위를, 알수업더라

●(…) 츙쳥좌도와, 경남순홍
동지, 비도쳔여명이, 보은군의, 둔
취ᄒᆞ여서, 이십여호를, 충화ᄒᆞ고,
니방의아ᄃᆞᆯ을, 포살ᄒᆞ고, 샤면의,
쇼동되여서, 거민이, 다환산이되
고, 본군슈, 니명직씨ᄂᆞᆫ, 다힝이도
망ᄒᆞ엿시나, 간곳을, 모른다더라

●(…) 각지방의 쳘도를, 셜
치ᄒᆞᄂᆞᆫ조약은, 젼호지상의, 긔지ᄒᆞ
엿거니와, 요ᄉᆞ이, 농샹공부의셔,
역사시작할, 모군을, 만이모집ᄒᆞᄂᆞᆫ
듸, 자원ᄒᆞ여, 드러가ᄂᆞᆫ자도, 만타
ᄒᆞ며, 모군들이ᄂᆞᆫ, 젼녀양식을, 납
뇌ᄒᆞ고한다ᄂᆞᆫ, 풍셜이, 낭자ᄒᆞ나,
우리ᄂᆞᆫ, 일언말을, 다밋지아니ᄒᆞ
노라

●(…)之(…)라 이나라(貿易出物)
즁에, 금직히, 만고(…)ᄒᆞᆫ(…)요,
또, 그품이(…)ᄒᆞ얏스되, 그샹고들
이, 죠고마ᄒᆞᆫ(利)을, 미혹ᄒᆞ야, (…)흘
ᄃᆡ미양(…)를부어서, 그(…)을더ᄒᆞ
고, (…)之利를, 먹으려ᄒᆞᄂᆞᆫ때문에,
풍아언잔게되고, 어던ᄯᅢᄂᆞᆫ, 그물품
이, 썩어서, 갑슬덜밧고, 밋치ᄂᆞᆫ일
이, 죵죵잇더라, 그러ᄒᆞ나, 그샹고
논, 오림이업시, 그갑시(…)ᄒᆞᆫ도
라보지안코(…)만더나게 면, 됴흘
줄아ᄂᆞᆫ것ᄀᆞᆺ트다더라

●(…)之(…) 요ᄉᆞ의, 각디방의
권율, 닐러ᄒᆞᆫᄃᆡ, 작년팔월사변의,
도망ᄒᆞ엿던, 사ᄅᆞᆷ이며, ᄒᆞᆨ상소ᄒᆞᆫ사
ᄅᆞᆷ이며, ᄒᆞᆨ집ᄒᆞ여서, 유보던사ᄅᆞᆷ과,
또작변신일사변후에졉엇던, 사ᄅᆞᆷ
이며, 상소ᄒᆞ거나, 도망ᄒᆞ엿던사ᄅᆞᆷ
(…)
ᄅᆞᆷ과, 공잇ᄂᆞᆫ사ᄅᆞᆷ과, 상소ᄒᆞᆫ, 사ᄅᆞᆷ
들노, 원을닌다ᄒᆞᄂᆞᆫ, 풍셜이잇다더
라

●洪川(…) 강원도영동, 비도슈쳔
명이, 홍쳔군의, 둔취ᄒᆞ여서, 인경
을소동ᄒᆞ고, 포략이무쌍한지라, 본
군슈ᄂᆞᆫ, 도망ᄒᆞ고, 비도즁의, 빈여
명이, 나서ᄉᆞ, 황히도와, 평안도등
지에, 도당을쇼취ᄒᆞ러, 단인다더라

●(…)三人(…) 양근군ᄒᆞᆫ씨아모가,
(…)향곡에서, 무단을ᄒᆞ다가, 엇던빈쳥
ᄒᆞᆫ명을, 잡아다가, 미를미우쳐서,
그빈싱이, 죽엇ᄂᆞᆫ지라, ᄃᆡ문밧게ᄂᆡ
다노은즉, 동리사ᄅᆞᆷ들이, 관가에,
고ᄒᆞ여, 검시ᄒᆞ러나와본니, 송장이
업ᄂᆞᆫ지라, 그ᄒᆞᆫ씨의, ᄒᆞᆫ인들을, 잡
아다가, 문초ᄒᆞᆫ즉, ᄃᆡ려쥭인일이,
분명ᄒᆞ거ᄂᆞᆯ, 송장은비무엽스나, 죵
거가분명ᄒᆞᆫ즉, 송장잇고, 죵거업ᄂᆞ
니버덤, 나흘듯ᄒᆞ여서ᄒᆞᆫ씨를ᄒᆞᆫ죵
신토록, 옥즁에가두어, 구수된민들
더니, ᄒᆞᆫ씨가, 갓친지, 열다섯ᄒᆞᆫ만
외, ᄒᆞᆫ숨을엇으나, 빈발노옹이, 말
되, 오날밤에, 가히, 도당ᄒᆞ라, 옥
쥴이, 잠을깁히들엇ᄂᆞᆫ지라, 남을향
ᄒᆞ여서, ᄒᆞᆫ업시가면, 필경반가온
사ᄅᆞᆷ을마나서, 구ᄎᆞ리라ᄒᆞ거ᄂᆞᆯ, ᄒᆞᆫ
씨가, 담을넘어서, 남으로다러나서

ᄒᆞᆫ일모
쟝에, 자
ᄒᆞᆫ사ᄅᆞᆷ으
여서, 일
일변분ᄉᆞ
관가의,
ᄒᆞ엿다ᄒᆞ
, 유뵈이
변이나,
죄를입
●
지나간
항데폐
동국「빅
를지넘
논사ᄅᆞᆷ
더니,
단을친
그남은
졍ᄒᆞᄂᆞᆫ사
홍그갓ᄒᆞ
고계
(…)
퇴락ᄒᆞᆫ
을ᄒᆞ여,
이센사ᄅᆞ
덜은, 오
일ᄇᆡᆨ삼시
사ᄂᆞᆫ사
사ᄅᆞᆷ뿐이
쳔팔빅
인마의
구십일년
사ᄅᆞᆷ만
에, 그
●(…) 이
경무령으
순이, 무
못ᄒᆞᆫ다더
●(…)
로, 월젼
길가에셔
보ᄂᆞ엿다
모양이, ᄂᆞᆫ
●(…)
「셴도보르
잇셔, 올ᄒᆡ
(…)이요
오, (…)ᄂᆞᆫ
기러지
쓰고잇다

식을、납
ᄉᆞ자ᄒᆞ나、
시아니ᄒᆞ
[illegible]
[illegible]ㅣ요、
그샹고들
야[illegible]홈
[illegible]을더ᄒᆞ
ᄂᆞᆫ때문에、
、크물품
잇치ᄂᆞᆫ일
、그상고
[illegible]、도
면、또울
사디방의
사변의、
상소ᄒᆞᆫ사
사ᄅᆞᆷ과、
단、사ᄅᆞᆷ
잇던사ᄅᆞᆷ
[illegible]
은、사ᄅᆞᆷ
잇다더
도슈쳔
、인경
지라、본
니、빅여
안도등
나다더라
아모가、
션빈영
우쳐서、
박게니
관가에、
송쟝이
들을、잡
인일이、
ᄉᆞ나、중
거업ᄂᆞᆫ、
룬한종
훈민들
션히만
ᄋᆞ이、말
ᄒᆞ라、옥
남을향
반가온
거눈、한
러남서

ᄒᆞᆫ일모ᄒᆞ여서、큰장이잇ᄂᆞᆫᄃᆡ、그
쟝에、사ᄅᆞᆷ이심히만ᄒᆞᆫ지라、우연이
ᄒᆞᆫ사ᄅᆞᆷ을만나보니、당초에ᄯᅥ러죽
여서、일헛던송장이라、일변반갑고
일변분ᄒᆞ여서、그놈을붓들고、그곳
관가의、고ᄒᆞ여서、ᄒᆞᆫ씨가、죄를면
ᄒᆞ엿다허고그사ᄅᆞᆷ온ᄒᆞᆫ씨를미워서
、유뵈이량으로、거줏죽어서、십여
변이나다라낫다가、붓들녀서、도로
죄문입엇다ᄒᆞ더라

●[illegible](死後復生)
지나간오월이십오일은、영국
황메ᄯᅥ하가、하란ᄒᆞ옵시ᄂᆞᆫ날이미、
동국「빅도리아」란곳에서、쟝ᄒᆞᆫ[illegible]
를지낫기로、근쳐의[illegible]에서 [illegible]ᄒᆞ
ᄂᆞᆫ사ᄅᆞᆷ이、편만고、금지히、셩대ᄒᆞ
더니、오후무시쯤에、사ᄅᆞᆷ들이야
단을치ᄂᆞᆫᄃᆡ、구경、무어신고ᄒᆞ니、
그날은너무[illegible]ᄒᆞ야、[illegible]ᄂᆞᆫ、
정ᄒᆞᆫ사ᄅᆞᆷ의에[illegible]을티여三[illegible]가、
ᄒᆞ고갓치「빈도예리스」[illegible]을건너「모
고계[illegible]로가려ᄂᆞᆫ시、금지히、ᄒᆞᆫ
ᄉᆞᄒᆞᆫ[illegible]이로되、그다리가온ᄃᆡ서、
퇴락ᄒᆞ니、그[illegible]ᄂᆞᆫ、무수ᄒᆞᆫ[illegible]
을ᄐᆡ여、그냥[illegible]에、ᄯᅥ러지니、긔운
이센사ᄅᆞᆷ은、겨우사랏스되、[illegible]
덜은、울나가지못ᄒᆞ고[illegible]ᄒᆞ니가、
일ᄇᆡᆨ삼십여명인ᄃᆡ、그안에ᄂᆞᆫ、도루
사ᄂᆞᆫ사ᄅᆞᆷ이잇스되、모도[illegible]을ᄒᆞᆫ든
사ᄅᆞᆷ변이라더라、대져이다리ᄂᆞᆫ、일
쳔팔ᄇᆡᆨ팔십삼년에[illegible]ᄒᆞ야、그져、
인마의[illegible]만ᄒᆞ야잇더니、일쳔팔ᄇᆡᆨ
구십일년브터[illegible]가、[illegible]ᄒᆞ므로、
사ᄅᆞᆷ이다、[illegible]을ᄂᆞᆫᄃᆡ니、이번
에、그[illegible]을갓낫든거시라더라

●[illegible] 일젼에긔셩부[illegible]순、모씨를、
경무령으로、잡아왓다ᄒᆞᄂᆞᆫᄃᆡ、그총
순이、무삼일노잡혀왓ᄂᆞᆫ지、아지
못ᄒᆞᆫ다더라

●[illegible] 미국박물관에、쓰량으
로、엽전에、미국사ᄅᆞᆷ모써가、노둘
길가에셧ᄂᆞᆫ장승을、ᄲᅢ여、미국으로
보내엿다ᄒᆞ나、남그로、민든사ᄅᆞᆷ
모양이、능히수만리를달ᄒᆞᆫ또다

●[illegible]一之[illegible]人 [illegible]「미네소다」[illegible]
「센도보르」[illegible]에「월긴스」란사ᄅᆞᆷ이
잇셔、올히二十二[illegible]로되、몸의킈가八
尺二寸이요、[illegible]이、삼ᄇᆡᆨ팔십육斤이
요、[illegible]ᄂᆞᆫ、장이二十四寸이요、장갑의
기럭지ᄂᆞᆫ十四寸이요、九寸이된[illegible]
쓰고잇다ᄂᆞᆫᄃᆡ、그부모형뎨ᄂᆞᆫ、파하

[illegible]치안코、아비ᄂᆞᆫ、몸의킈가[illegible]
尺六寸이요、어미ᄂᆞᆫ、몸의킈가、五尺
七寸이로되、그사ᄅᆞᆷ을[illegible]ᄒᆞ얏슬
ᄯᅢ에[illegible]아十斤인ᄃᆡ 네살ᄲᅢ지ᄂᆞᆫ、
과히[illegible]치안케뵈더니、십팔셰ᄯᅢ에
자에[illegible]으로되얏고、도몸이
이러케도、크면、지식이젹다든지、
몸에[illegible]ᄒᆞᆫᄃᆡ잇다든지、ᄒᆞᄂᆞᆫ거시
로되、이사ᄅᆞᆷ은[illegible]이、아올나、
겸젼ᄒᆞ야、잡셩엿다ᄒᆞ되、얼골에[illegible]
[illegible]곳이、좀잇스나、허물될거시업고
、그사ᄅᆞᆷ이[illegible]ᄒᆞᆫ바ᄂᆞᆫ[illegible]이요、일
젼브터、이[illegible]로가지고、[illegible]로
법국[illegible]와、독국[illegible]등을단녀서、
오지리국[illegible]으로갓더니、소문이
、금지히못고[illegible]
[illegible]게옵셔도、[illegible]ᄒᆞ옵셧다더라

●日本[illegible] 곳이[illegible]의살
울어고、[illegible]으로、되야서、그러ᄒᆞᆫ[illegible]
요ᄉᆞ이、그[illegible]에서 ᄂᆞᆫ[illegible]이、퍽
만히[illegible]ᄒᆞ야서、엇지나ᄒᆞ면[illegible]을
죽여먹으니、그위험ᄒᆞᆷ이、젹지아니
[illegible]
[illegible]을ᄯᅢ에ᄒᆞ게、나발을주고、사ᄅᆞᆷ집
이업ᄂᆞᆫᄃᆡ에서、그나발을불고、그
[illegible]위ᄒᆞᆯᄯᅢ에ᄒᆞ며、또[illegible]을구ᄒᆞ
게ᄒᆞ얏다더라

●世界[illegible]之[illegible]
일젼브터북미합즁국「모스쥬셋츠」
ᄭᅥ버스돈」셔、계획ᄒᆞ야잇ᄂᆞᆫ[illegible]
[illegible]은、아마、세계상에셔、졔일되ᄂᆞᆫ大
[illegible]인ᄃᆡ、몃년안으로、[illegible]ᄒᆞᆯ터히라、
、시방、그[illegible]ᄂᆞᆫ、번셔、사넛고、
셰구매[illegible]다되얏고、그소ᄇᆡ보상
빅만원이라더라
시방、그[illegible]의모양을말ᄒᆞ오니、十二層
집이로되파히、놉게안뵈고、아주、
벽돌로、집더한층、보기금직ᄒᆞ리라
、그[illegible]은、독국北方에잇ᄂᆞᆫ[illegible]본으
로짓고、그[illegible]를三[illegible]로、구별ᄒᆞ니、
미부에 칠ᄇᆡᆨ간씩인즉、도합이、이
쳔일ᄇᆡᆨ간이라더라、[illegible]ᄉᆞ이에、
칠십尺ᄉᆞ방만ᄒᆞᆫ곳이잇셔、[illegible]은
、집북쪽에[illegible]으로、향ᄒᆞ야잇고、퍽
[illegible]케지여셔、[illegible]ᄒᆞᄂᆞᆫ문이、스믈ᄒᆞᆫ
군ᄃᆡ요、또[illegible]가、둘이잇셔서、ᄒᆞ
나ᄂᆞᆫ、[illegible]ᄒᆞ며、ᄒᆞ나ᄂᆞᆫ、사ᄅᆞᆷ
이、두고[illegible]ᄒᆞᄂᆞᆫ거시니라
또그[illegible]에ᄂᆞᆫ、미국에셔、뎨일되ᄂᆞᆫ
[illegible]과[illegible]도、ᄒᆞ야민들고、
기타[illegible]도민기러셔、[illegible]ᄯᅢ에어

ᄅᆞᆷ을민기러먹게ᄒᆞ며、기다、사ᄅᆞᆷ의
[illegible]을놀납게ᄒᆞᆯ계획이라고「아메리
간」예기스보다」란신문에뵈엿더라

●[illegible] 평양사ᄅᆞᆷ、모모들이、작반
ᄒᆞ여서、서울을、올나올시、동힝ᄒᆞ여、
다니、말을타고、김씨ᄒᆞᆫ분은말이업서
서、거러오ᄂᆞᆫᄃᆡ、그분이、의사가넉
넉ᄒᆞ고、담낙이잇ᄂᆞᆫ지라、여러사ᄅᆞᆷ
이길으ᄃᆡ、우리시키ᄂᆞᆫᄃᆡ로ᄒᆞ면서
울가도록、말을주리라ᄒᆞᆫᄃᆡ、김씨왈
무숨일이요、[illegible]인이왈、저긔、너른
밧、가온ᄃᆡ셔、밧미ᄂᆞᆫ、[illegible]온계집과
졀문계집들이잇ᄂᆞᆫᄃᆡ、그졀문계집
으로、ᄒᆞ여금、말경마를들니라、김
씨가、응낙ᄒᆞ고、우선 말을달나ᄒᆞ
여자가가타고、눈을감고、자견ᄒᆞ
여서、그졀문계집의게로、향ᄒᆞ여가
서、그계집이고히녀겨피ᄒᆞᆫ즉、김씨
가、눈을조금ᄯᅳ고、그계집、가ᄂᆞᆫᄃᆡ
로、ᄯᅡ라가니、그계집이、겁도나고、
고이ᄒᆞ여、길으되、그말이、고이ᄒᆞ다
ᄒᆞ며、피 니、그늙은계집이길으되
、그말란、냥반이 쟝님이라、말이길
을일허 그러ᄒᆞ니、 가련ᄒᆞᆫ지라 ᄒᆞ물
업슬더ᄒᆞ니、그곱비를、ᄭᅳ으러、져、
길ᄭᅡ지、인도ᄒᆞ여、주라ᄒᆞᆫᄃᆡ、졀믄
계집이곱비 을잡고、길노나오ᄂᆞᆫ지
라、여러사ᄅᆞᆷ들은、수풀의、숨어서
엿보더니、김씨가、눈을、번젹ᄯᅳ고、
크게불너갈로되、이만ᄒᆞ면、겸가ᄒᆞ
것아니냐ᄒᆞᆫᄃᆡ、그계집은크게무류
ᄒᆞ여、다라나고、그사ᄅᆞᆷ은、말을주
어서、타고왓다ᄒᆞ더라

## 社告

[illegible]ᄂᆞᆫ地方[illegible]에便利함을
[illegible]ᄒᆞ야[illegible]ᄒᆞ옴을[illegible]ᄒᆞ
앗더니[illegible]에서[illegible]되얏스미
[illegible]에[illegible]은[illegible]一[illegible]一[illegible]二[illegible]五
[illegible]과[illegible]七[illegible]五分을本社에先給으로보
니시면每日에보니옵

新聞紙價

| | | |
|---|---|---|
| 新聞紙一張 | | 一錢三分 |
| 一個月 | 先給 | 一圓二十五分 |
| 三個月 | 先給 | 三圓五十錢 |
| 六個月 | 先給 | 六圓七十五分 |
| 地方郵便料 | | 每月[illegible]七錢五分 |

廣告料 ᄒᆞᆫ줄을ᄒᆞᆫ번내ᄂᆞᆫ거시三錢씩
이요[illegible]回數로곳차서갑
슬덜밧고[illegible]도션급으
밧ᄉᆞ오옴

## 雑報

●原公使の夜會　原公使は新任披露を兼ね來る二十三日數百名の人々を公使館に招待し午後七時より開宴の筈なり

●御遊覧　大君主陛下は此程宮内の各下隷に沓宴を下賜し平生の勞苦を慰ひ給ひしと承はりぬ

●獨立門建設　同事に就き一昨日午後二時各部大臣其他李在正安駉壽等の諸氏政府に會し協議する所ありしと

●尹總理の用意周到　過般地方制度改革の議案成るや總理大臣尹容善氏は之を閣議に提出するの前一本宛各大臣に送附し法の要旨は政府の威信に關する勘からざる今回の改正は最も慎重を要す故に猶ほ熟考ありたしとの主旨を通知したりと云ふ

●軍相罷免に至る　御趣意外三名の明延よりの責任問題に付き延に於て致せし事は前延の上奏を經し下去る十四日及び十八日の本紙上に記せしが如し李軍相は此の訊問を公開するを見るやすかさず之に對し直し其職を解かれ新派の弱兵その一決を誠むべく回答したりと云ふ

●勅令の新式に就て　勅令の新式に「奉承政府大臣」の七字を附加せんとの議内閣に起り居れりと傳ふるもの有り其主旨とする所は附の如くせば名實相副ふにして名を免政に傳へて施行するに足るとか云ふにありとか

## ●民事訴訟落着

郵遞士の彈劾に對し徐載弼氏より要訴せる二千圓及び朴定陽、趙秉稷、李允用、安駉壽、金嘉鎭の五氏より要訴せる一千圓宛の名譽損害賠償に關する民事訴訟は、去る一昨日高等裁判所に於て判決宣告ありたり當日も裁判長は代理判事權在衡氏代理し判事李鍾綺、同李偃の二氏陪席せり開廷は午前十一時の豫定なりしに原告の一人徐載弼氏が豫定の時刻に出廷せざりしを以て暫く之れを待ち十一時半頃に至りて始めて開廷し先づ徐載弼氏の要訴に對する宣告あり其の大意は被告は徐原告の要訴に應ずべきものとし其の理由として對審の際に於ける原被兩告の陳述を聽け被告は原告の名譽を損害したるものなりと判決し其の賠償として被告は原告要求の金額二千圓を支拂ふべき義務あるも被告の財政之れを完濟する能はざるべきを以つて裁判官に於て其の賠償金を一千圓と定め該金額は裁判所に於て取り立て原告に交付すと云ふに在り次で朴定陽氏外四氏の要訴に對する宣告あり其の大意は右と略ぼ同じく裁判所は原告の要求通り被告より都合五千圓を取り立て各原告に一千圓宛を交付すと云ふに在り右終りて權裁判長は郵遞士を刑事に移す旨宣告して閉廷せり

●刑の適用　郵遞士の刑事に移されたること別項記載の如し而して刑事中には之れが刑の適用に就き二論あり一は重きに從ひ國事犯を以てこれに適用し以て彼を死に處せんと云ひ一は輕きに從ひ「不應爲律」に照らさんと云ひ未だ何れとも決せずと云ふ

●李範晋等の出發期　在米公使館附參書官李範晋及び同館書記生李致兌の二氏は來る二十六日當地出發の事に略ぼ内定し居る由

●郵遞線路測量の計畫　從來の改革中最も進捗せしは郵遞事業にて今や漸く全國各所に設置を見ざるなき程に至りて郵遞司の設置を見ざるもの未だ之れが設けなきを以て農商工部に於ては此程米人に郵遞線路を測量して呉るべく依頼し各部に一名宛の測量人を置かんとの計畫を爲し居る由

●商工部中段さる　商工部中段趙熙軒氏は過般同地方各地の爲めに被害せられたりと今其の被害者等の損害を明らかにし一日數百名の人民突然郵衙に闖入し直に洪氏を捕へ百方威嚇を試み徴收したる租税を返濟すべしと迫りたるに氏は顔色自若として毫も恐るゝ色なく斯つて曰く國家の租税汝等何ぞ之れを要求するや我れ固より之れを與ふるの義なく汝等亦私財ありて之れを分給せんや汝等之れを求むるの道なし群衆ひ我れに八百兩の金を取り去るなかれと遂に八百兩の金を取り併せて洪氏を放し併せて印綬をも奪ひ去りたりと

●密賣物件に就て　同政府度支部官員某氏之此程郵務局の手に押收せられたる由なるが何故なるや未だ聞くを得ず

●北米國博物館に寄附　北米國博物館に寄はれんとする長承とは我國路傍に建てある田標なり木を以て作り其上部に一種異樣の彫刻あり其の狀態は鬼面に似人面を彫れり米國人某は之を同國博物館に寄附せんとて此程南大門外約一里なる附近の長承を抜き取り近便にて同國に送る筈なりと聞く

●釜山の開成學校　釜山書信に依れば同地設の下なる開成學校は開立以來日を經る未だ久しからざれども先きの學務官朴琪淙氏等の熱心なる開設と就學生氏等の懇切なる教授とに依り生徒の數は日に増加し學業は著しく進步し本文習熟力の如きは既に日本内地の生徒三年生以上に匹敵し得べき程なり又た今回に至りても此程仲通の用語は頗る優しければ授業にも大抵日本語のみにて教授へなしと云ふ

●兇徒叔父の姪を殺ふ　原州通信　兇徒の叔父の姪を殺ふ事ありて叔父某は平生出で行けがしに虐待するを謀石の賤白小郷を頗る心苦しく思ひ居りたる日の事叔父何事よりか同村の彼る者と激しき口論を起し遂に相手をなぐり殺したるに村民等は人殺し々々と呼はりつゝ數百名となく其場に馳せ來り一方には其の他を捕はして國と共に地方官の役所に訴へ一方には加害者を縛して國に之を因禁し死体には人を付け置きて番を爲せり叔父の出奔を謀られ孫子は母子心にも只管叔父の身の上を心配し平生我行の悪に關ひ之を教ひ出さん策を巡らし一ト方ならぬ苦勞なしたる末叔父の罪を救ひ出さんと思ひ立ちて

深更人目を忍び家を出し夜更けて潜に死体を埋けある家屋に忍び入り番人の皆熟睡せるを窺ひ燈火を吹き滅し死体を取へる夜具の中へ潜び入りシッカと死体を抱きて横臥し居れり程なくして番人等は目を覚まし燈火の滅へ居るを見て何心なく更らに火を點せんとせしに孫子は夜具ぼね除けてムックと起き上り兩く死体を抱きながら悲鳴を發して戸外に走り出で前江に到りて水に投じ死れば水中を抱りて對岸に出で我家に歸り何に喰はぬ顔して居たり死体の番人等は斯くとは知らず死者蘇生して立出したりとて驚きの不思議さは一同狼狽して何れへか駈け出したりと嘘に不思議に其の噂は忽ち村内に擴がり遂には加害者の行方を搜索して前江の水中に死体の浮び居るを發見し當官は之を以て殴打致死にはあらず發狂して溺死したるものなりと斷定し加害者は直ちに無罪放免となりし斯くて救されし孫の叔父は全く甥の計に依りて我身の助かりしことを知りて深く之を謝したりと云ふ

●貿易路の天下　京城貿易品中大宗なる物品に就て

●鐵道工夫　京仁兩鐵道條約には工夫は九分通り朝鮮人を用ゆることとしあるを以て工事は今日共に代ては手も程遠からざる今日其代りにては此れ亦は殆ど無からぬ所路を使ひ居るとの風評ありて役夫が雇人となる者は百人其の役は千人其と云へる者あり

●手帖の中に二通の手形　東大門内某家の巡檢は此程其附近にて一個の手帖を拾ひ上げしに中に額面數百圓なる二通の手形ありたる由而して該巡檢は之を私せず其持主の現はるゝを待ち居るとは感心と云ふべし

●附級物気楽　目下二三の韓人間には城内各戸の器物及び其他の不用物を取り集め之を販賣として買却せんとの計畫ある由評生を廢物利用と一般附級の企てと云ふべし

●別邸路の天下　は京城貿易品中大宗なるものにて品質固めて住民なるが目前の利に迷ひ時き器具の事とて粗出の商は往々濕水を浸り織さて斤量を増し以て不正の利を貪る者ありてこれが爲め品質を惡くして信用を落し時を引き下げしては物品の腐敗せる爲め價格を引き下げら招つて損を爲すこともあり然れども彼等の國なる法も價格に關係なく其状の甚だしきは此上も無き好工夫と思へ居るもの、如しと云ふ

●奇妙命中して大金を得　平安道平壌邸に某氏とて母の實家に養はれる一程生あり齢二十歳を超へても妻を娶るの道絶く一ひとりの身の不幸を嘆ち居りし矢先の郊某は或る事に思ひ出世間には之れを我子と育ひ何らし江西郡の富豪某氏に向つて娶り込めり時に金氏の家には三人の娘あり何れも評判高き美女のみなるが上二人は已に良縁に娶らぬ他の金満家に嫁し殘年十八歳なる末の一女のみ殘り居り國はち此の者と結婚の約首尾善く整ひ翌日に至り其生は叔父の衣服を借りて満身緊き絹綿に着飾りて金氏の家にては好き花婿を取り長き途を歩き迎へて至り當家に来りて近隣の者

家屋に忍び火を吹き消りシツカきして忍び居居るを見てに弟子は夜く屍体を抱走り出で南恐りて對岸てそまし居予死者蘇生とて餘りのき祈居る内北領末を渕江の水中にを以て殴打るものありと罵りし妍奇計に欲りく之を聞き對者にも聯りは工夫は九わるを以つ代筋にては此記事の由十人共と公る者わりてるその風評内内某変吞予帖を拾ひの手形わり其持主の称べし間には娼内り集め之を田蘇生を所べし用付置もあ目前の利に々海水を汲を食る亦わ落し時と引き下げらも彼等の困才を此上もと云ふ

に姿はれるを殴るの鎧りしを群の之れを我子に向つて袖人の娘わり上二人は已昭年十八歳此の者を結生は叔父の着飾り往ては好き化粧て近隣の若

ひ男女共何れも焼けを起さぬ者はなし然るに新婦の蘇生は何故か其婦を其のまゝ實家に預け置きて已れ一人我家に歸へり數日を經て目もあてられぬ醜狀を爲び妻の家に往きぬ妻の親には初めは物狂ひの乞ひかと思ひ之れを逐ひ出さんとせしに近はども如何に己れの娘の新婦にてありしかば其の醜き様ふるに物なし蘇生は之れに向ひ其御陋さは如元なるが實は斯く〳〵然か〳〵の次第なりと包み隠しなく其の身半を語り聞かせしにぞ妻の兩親始め一家の人々始めて其の新婦が親も無き素家贅の一蘇生なることを知り驚かれたりとて恐り慄め己に政府や説諭なく以來共聚人の蘇生に對する路人も斯だならず他の二婦を迎するには特に鄭重懇切なり蘇生は御情を斷りて我に一奇策を校り出し一夜衍を殺して其亂を予足衣服に着り紅淋漓として金氏の家に行き瑞に拙を超へて其の妻の寝室に入る悲惨て其故を問ひしに蘇生はいともわてゝし如き体にて今人を殺害して之れを殺し其地に逃走の絶大如身と別れん爲めに此に忍び來りしなりと之れが一生の決れとなるやも知れずとて涙に咽び別しけり妻は此体を見て其夫に泣き縋り女一たび人に嫁したる上は死生存亡必ず共夏人と共にすべしとて相携へて人知れず家を出でし路娶に明かして其同意を求めしに妻は此らにに如往は何ぞ我家に歸へり已れ此所に居る外之れを永諾せり金氏の家にては翌朝其の娘の在ざるに氣付き何れへか逃亡せりとて一家の騒動大方ならず剰所に人を遣りて其行衛を捜索させしも更らに其の甲斐なく兩親は日夜泣き悲んで生死如何と氣使ひ夫に伴はれて其家に潜み居るとは露聊かも知らざりし蘇生は其の後數日を經て金氏に對面を遂り妻は永らくお世話に成れり明日愈〻我家に引き取る筈なれば念の爲め御通知致すと申述べ金家の兩親は打驚れ家に驚愕の餘わる色々父母の困りながら娘の夜逃げを知らざるとは婿に對して申譯なく世間の手前も甚だ面目なしとよし娘は死去したりと欺き卿するに若かずと相り合ひ翌日蘇生の來るや否や之れを上帝の容體に案内し種々の馳走を持ち出し來近來絶て無き待遇なり蘇生は仕濟ましたりとて心の中に打笑ひ知つて妻の病所に入らんとせしに母親子を遮り涙を流して曰く對に對して面目なし訴らんと欲するも訴り難し實は數日前其の娘非常の急病起し僅に二日を經て病死し四日前已でに埋葬したりと蘇生は意外なりて下が家此地を距る三四里に過ぎず何故に予には一言の通知もせで葬られしやと少しく怒氣を含んで詰りける爺媼は何ぞ默然たり蘇生は眼に涙を浮べ別命なる此身故にして再び妻を娶るの力なしせめては死したる妻の屍なりと掘り出して我家に持ち歸へり埋葬せんと嶋て〳〵わしきなき一生を送らん御許容なかれ妻の墓所まで伴はれよと言ひしにぞ爺は太だく打ち驚き舊斯の埋葬は我れ我何たりとも之れを掘せん程に亡き妻の屍を掘り出さることは見合せ兎れられよと切に頼びを聴き入れず否れ我妻の屍を持ち歸へるに何の故障のあるべきぞと選びて墓所まで同伴せんと迫りしかば翁の困却は一方ならず遂に數百金を取り出し來り此れまで承知し呉れられよと手を合せての懇願に蘇生もヤツトの事にて承諾し先づ兎角此金額時が間愛預り致さんと云ひつゝ懐に收めて立ち歸へれり翁は後にて甘く〳〵騙はれたりと悔みに兼りしを知り殆悩みして苦々しがれども後のや及ばず爾來蘇生は新聞合中して一時に數百の金を得其の富豪なるべからずと稱評判なりまして金を奪ひ婿として往づるとなる世の現象なるよ

●京城居留本邦人戸口　當京城に居留せる我日本人戸口最近調査に依れば左の如し（軍人并屬及其從屬者を算入せず）

| 府縣名 | 士族 男 | 士族 女 | 平民 男 | 平民 女 | 計 |
|---|---|---|---|---|---|
| 北海道 | 一 | 三 | ｜ | ｜ | 四 |
| 東京府 | 一六 | 六 | 三九 | 一三 | 七四 |
| 京都府 | 三 | 二 | 一二 | 一 | 一八 |
| 大阪府 | 三 | 三 | 四五 | 一六 | 六七 |
| 神奈川 | ｜ | ｜ | 八 | 二 | 一〇 |
| 兵庫縣 | 二 | ｜ | 二四 | 八 | 三四 |
| 香川縣 | ｜ | ｜ | 五 | 二 | 七 |
| 奈良縣 | 一 | ｜ | 一 | ｜ | 二 |
| 長崎縣 | 二八 | 四 | 二三九 | 一二八 | 三九九 |
| 新潟縣 | ｜ | ｜ | 二 | ｜ | 二 |
| 埼玉縣 | ｜ | ｜ | 二 | 二 | 四 |
| 富山縣 | ｜ | ｜ | 二 | ｜ | 二 |
| 群馬縣 | ｜ | ｜ | 七 | 一 | 八 |
| 千葉縣 | ｜ | ｜ | 六 | 一 | 七 |
| 茨城縣 | 二 | ｜ | 一 | ｜ | 三 |
| 栃木縣 | ｜ | ｜ | 二 | ｜ | 二 |
| 福井縣 | 一 | ｜ | 六 | 二 | 九 |
| 三重縣 | 一 | 一 | 二 | 二 | 六 |
| 愛知縣 | 三 | 一 | 九 | ｜ | 一三 |
| 靜岡縣 | 一 | ｜ | 五 | 一 | 七 |
| 山梨縣 | ｜ | ｜ | 一 | ｜ | 一 |
| 滋賀縣 | 二 | ｜ | 一二 | 一 | 一四 |
| 岐阜縣 | ｜ | ｜ | 八 | 二 | 一〇 |
| 長野縣 | 一 | ｜ | ｜ | ｜ | 一 |
| 宮城縣 | 一 | ｜ | ｜ | ｜ | 一 |
| 福島縣 | 六 | 三 | 四 | ｜ | 一三 |
| 岩手縣 | ｜ | ｜ | ｜ | ｜ | ｜ |
| 青森縣 | ｜ | ｜ | ｜ | ｜ | ｜ |
| 山形縣 | 二 | 一 | ｜ | ｜ | 三 |
| 秋田縣 | ｜ | ｜ | ｜ | ｜ | ｜ |
| 石川縣 | 四 | 一 | 三 | ｜ | 八 |
| 島根縣 | 一 | 一 | 三 | 二 | 七 |
| 鳥取縣 | ｜ | ｜ | 一 | ｜ | 一 |
| 岡山縣 | 二 | ｜ | 三 | ｜ | 五 |
| 廣島縣 | 二 | ｜ | 二五 | 一四 | 四一 |
| 山口縣 | 一六 | 七 | 一二二 | 一六三 | 三〇八 |
| 和歌山 | 二 | ｜ | 六 | 一 | 九 |
| 徳島縣 | 一 | ｜ | 七 | 三 | 一一 |
| 高知縣 | ｜ | ｜ | ｜ | ｜ | ｜ |
| 愛媛縣 | 三 | 一 | 九 | 四 | 一七 |
| 福岡縣 | 一四 | 三 | 六四 | 二九 | 一一〇 |
| 佐賀縣 | 七 | 四 | 三六 | 一六 | 六三 |
| 大分縣 | 六 | 四 | 一〇七 | 一一 | 一二八 |
| 熊本縣 | 二一 | 六 | 七一 | 三六 | 一三四 |
| 宮崎縣 | ｜ | ｜ | 一 | 一 | 二 |
| 鹿兒島縣 | 一六 | 五 | 一九 | 一〇 | 五〇 |
| 沖縄縣 | ｜ | ｜ | ｜ | ｜ | ｜ |
| 合計 | 一六九 | 九八 | 八七六 | 五七二 | 一、七一五 |

人員合計一千七百十五名（六月末數一千六百五十八人に比し五十七名増）の內男一千〇四十五名（同上九百八十七人に比し五十八名増）女六百七十（同六百七十一名に比し一人減）外に一時滯在者男九十名、女十三名（合せて百〇三名）外國人に雇はれ居る者、英人に女二名、清人に男一名女二名、獨人に男一名女一名、露人に女一名、米人に男一名女一名（合せて十名）

以上總計一千八百二十八名、內男一千百三十八名、女六百九十名

戸數は六百〇八にして六月末調査五百四十七に比し六十一を増加せり外に官衙二、官舍四公舍一、病院一、會社二、病院一、吉屋百十、公立學校一

●三陸海嘯遭難者弔恤金（第三回）

一金壹圓　一金貳圓　一金五拾錢　一金五拾錢　一金五拾錢　一金五拾錢　一金壹圓　一金三圓　一金壹圓　一金拾圓　一金三圓　一金貳圓　一金拾圓　一金壹圓　一金壹圓　一金五拾錢　一金五拾錢　一金壹圓　一金五拾錢　一金拾圓　一金五拾錢　一金五拾錢　一金五拾錢　一金壹圓　一金壹圓　一金拾五圓八拾五錢

日田一盛吉　奈　羅五郎　八島　英　小原　信吉　富田　郁一　小島　源作　平岡虎二郎　岩下　須助　清水　岩吉　岡　篤太郎　松本　卯一　井門要太郎　藤井　利平　牧野　喜吉　渕上　貞助　甲斐生彭館　深田　信吉　伊藤伊三郎　上羽　虎雄　東元　憲雄　能勢　秀　鈴木與三郎　岡井慶太郎　豊崎　ノエ　豊崎　トク　大竹　錢次　荘司　[illegible]　女　人　[illegible]

小計五拾七圓八拾五錢

通計二百八圓三拾五錢

女人講內譯

登東兒　渕上ナカ、富田タケ、日置トキ〇五拾錢兒　牧野レナ、長里ヤス、古賀貞子、中村イセ、山口カメ、上田ツキ〇四拾錢　木島コテ〇三拾錢兒　末松ユイ、國分ヒロ、多田ミキ、小野ナミ、内山ツネ、豊田イハ、和田タツ、藤本ハ、岩下ノブ、古木コケ、國ノブ、田中フヂ、伊藤ミナ、上田ナカ、金子フイ、新庄レカ、藤野タ、藤田リウ、國分コト、後藤タミ〇貳拾錢兒村松コト、宮崎トミ、小松ナカ、林ミユ、江口ソ、日下キク、秋吉アキ、近藤イシ、坪田ナイ、濱野ムレ、大曲ナミ、佐藤トミ、古田フミ、前カメ、上羽キナ、上羽ナカ、西島タキ、小松キヨ濱崎キミ、高瀬ヒメ、馬場タキ、宮田ヤス、二宮スナ、清水ミナ、金澤レナ、栗原タミ、大津スユ、大坂トキ、大塚ツメ、清水ツル、早川ミイ江口ユレ、野田レナ、二宮キミ、藤原トミ、濱尾キナ、中島ハル、中村マカ、松原マカ、世戸内小牧クノ、宮川スヂ、藤田汐見〇拾五錢兒原コテ、平岡ミツ、久保田トミ、寺田ミフ、中村ハツ、寺田ハサ、寺田フキ、藤本ツノ、石田ミ、井門イナ、古賀タフ〇拾錢兒　今永イ勝田コメ、濱野ヤス、矢野猶子、有永ミト、北川ヌイ、宮田トミ、引頭スユ、鈴木タメ、豆崎サ、山本ワサ、古澤ユウ、小浪ミヨ、武田ツ堺ヌイ、池上ヤヌ、藤元ノリ、高島リウ、河内、近藤ムメ、松尾ハル、國山トリ、横山ツ山田ミツ、今村モメ、江口マキ、田川サハ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出帆廣告

●肥後丸　八百七十一噸　七月廿七日出港同廿六日入港　釜山對州長崎馬關神戸行　船長　村井保

●玄海丸　八百七十四噸　七月三十日出港同廿九日入港　芝罘、天津行　船長　茂木爾之

●豊島丸　六百八十九噸　七月卅一日出港同三十日入港　釜山、下ノ關、神戸行　船長　井上猪三郎

●薩摩丸　千百五十七噸　七月廿四日入港同日中出港　馬關、香港行　船長　ソンナー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八月十三日入港同日出港　長崎、釜山、元山、浦塩、行　船長　ウイルソン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株式會社瀛船仁川出帆廣告

●信濃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隅田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二見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筑後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白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木曾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本支部ハ從代理坪内京造ニ假事務所ヲ設ケ當分開業取扱候間此段謹告ス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支部　勸林奬業團

◎第弐會正風集題　入花（四句ニ付拾錢）　判者　豊秋園瑞穗宗匠樂撰

寄限　七月二十日限リ　七月廿一日發表

投込所　漢城新報社　正風會　清水桃月

廣告

京城中部長通坊갓전골에會社를新設ᄒᆞ고軍部器械와綢物과石炭등류를還辨ᄒᆞᄂᆞᆫ商會라各色綢物과石炭등류를買用코져ᄒᆞᄂᆞᆫ이ᄂᆞᆫ이會社로오시요

昌興會社

弓術及ビ空氣銃射的開場廣告

今般弓術及ビ空氣銃射的場ヲ二十八日ヨリ大円以內ニ開場仕候間御遊覽被下度候ナハ本二十日開場式ヲ執行シ御的中ノ方ニハ相當賞品差上度候ナガ御來遊ヲ願候

京城大円以內

七月二十日　中嶋

瑞西製

最新最良ナ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峴　龜屋分店

廣告

弊舖儀今般都合ニ依リ閉店致候ニ付御取引ノ方々ハ本月三十日中ニ御申込相成度以後ハ一切關係不仕候間為念廣告候也

南大門通拾四番

明治廿九年七月二十日　大江商店

本社ハ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事務所ヲ取扱候處今般日本東京ニ於テ代理事務取扱可申ニ付當地保險ノ申込出金等ハ今後都ベテ同店ヘ御申出可被成下此段廣告仕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區檜物町六番地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事務ノ儀自今弊店ニ於テ取扱ヒ可申候ニ付此段廣告仕候也

追テ保險料金ノ儀ハ各保險々面記載ノ期日ニ御拂込ヲナサカハ本社規ノ通リ取計ヒ可申者ニ付之候ニ付自今該期日ニハ必ラズ弊店ヘ御拂込被成下度保險ノ被保險人契約人各位ニ廣告仕置候也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店

和泉商會

明治廿九年七月　日　織居加一

弊店儀今般醤油販賣相始メ候數多少ニ限ラズ御愛求被下度此段伏シテ奉願候也

泥峴第三拾貳號

阿津阪商店

バイレート◉金銀各種眼鏡

朝鮮國一手販賣

貞洞　辻商店◉泥峴　辻支店

●バイレート權理草ノ村商店ト特約ヲ結ビ販賣ヲ相營ミ非常ノ候間續々御注文ノ程

御本此泡弊店販賣

●フレドレスンツナ ドレーートカンド。ハチナルキゲル。イソプレドコスキトカボラ。キン

●金銀各種ノ眼鏡ハ何今般新荷來着仕リ候上候

●此泡弊店本業ノ雜貨外セナ御購求奉願候

◎藥種方和漢洋藥廣賣　醫療工用各位ノ御愛顧ニ依テ諸藥商品ハ一層物品卸仕候品不相變多少ニ不限御注文御用ノ程伏テ希望仕候

日本大阪東區道修町壹丁目

石川商會儀今回都合ニ依リ和泉商會ト改稱仕候間此段謹告仕候

各國時計及ビ火藥類商　和泉

追テ弊店儀今回日本ヨリ新規多荷着仕候

石川商會ᄂᆞᆫ今回更新之便宜로써和泉商會라本社時計及火藥會社販賣營業ᄒᆞ오니

各國時計及火藥類商　和泉

이게廣告ᄒᆞᆸ

而ᄒᆞ야弊店에ᄂᆞᆫ日本에서貨物이數多ᄒᆞ니僉君子ᄂᆞᆫ來購ᄒᆞ심을바라

生魚生肉に優さる夏の衛生料理

●飯章魚　●あま鯛　●いわし　●さけ　●佃煮　●松たけ　●竹の子　●伽羅ふき

●茄　●八　●時　●時　●海　●味　●福　●甘

魚鯛トけ煮け子き

●茄子辛子漬
●八千代卷
●時鳥卷
●時雨紫艸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神漬
●其他鑵詰各種

京城 龜屋分店 泥峴

[illegible]和泉商會ト改稱シ事ヲ擴張[illegible]
出候間此段謹告仕候也

商 和泉商會

[illegible]數多到着[illegible]出候ニ付[illegible]

之便宜로써和泉商會라고改稱ᄒᆞ야
물販賣營業ᄒᆞ오니此事를江湖僉君[illegible]

商 和泉商會

本에서[illegible]數多히 나왓ᄉᆞ오니[illegible]
[illegible]시요

シーレート紙巻煙草ノ儀今般東京輸入元木
村ト特約ヲ結ヒ朝鮮國ニ於ケル一手
賣ヲ相營ミ非常ノ勉強ヲ以ツテ賣弘メ
候間々御注文ノ程奉冀候
此他弊店販賣ノ紙巻煙草
レス。リツチモンド。ストレート。カスル。ス
トカツト。ハチデユーノ。カメオ。カルワ
アル。インプレス。カロリナ。ピンヘツ
トカポウ。キングフツレヤ。
右種ノ販賣ハ何レモ精巧ノ品ニシテ
御荷來着仕リ候ニ付御要求ノ程奉願
弊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リ候ニ付
御購求奉願候

賣捌所
日本大阪
京國泥峴
町壹丁目
成尾安五郎

---

獵銃

荷着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獵銃附屬品

和泉商會
護謨履
長履
西洋服各種
帽子

廣告品

## 地球印藥用ブダウ酒効能書

抑ノ古今ヲ問ハズ邦ノ東西ニ論ナク酒精剤ノ飲料アラザルハナシ古昔ヨリ傳ヘテ曰ク酒ハ百藥ノ長ナリト又云フ酒ハ憂ヲ掃フノ帚ナリト豈ニ又タ理ナキニ非ラズ今マ其ノ[illegible]

第一 之レヲ飲用スレバ胃腸ヲ補健スルヲ以テ飲食ノ消化ヲ盛ンナラシムレハナリ以テ食慾ノ不足ヲ補フニ足ルベシ

第二 之レヲ飲用スレバ精神ヲ興奮シ以テ精神ノ疲勞ヲ醫ス可ク體力ノ氣象ニ富マシムルヲ得ベシ

第三 之レヲ常用スレバ血液ノ循環ヲ迅速ナラシメ以テ筋肉ノ[illegible]身体ノ健全ヲ計ルヲ得ベシ

以上掲ゲタルハ皆ナ藥用ブダウ酒ノ効ニアリ斯ノ如ク[illegible]ハ此時虛弱性ノ人ハ之レヲ用ヒテ僅カ此ノ精神ヲ恢復シ其心志ヲ快適ニシ其疲勞ヲ去ルヲ得ベキナリ加之既ニ我邦ニ於テ[illegible]其ノ如キ實驗ヲ得タリ以ツテ我ガ地球印藥用ブダウ酒ノ良好ナルヲ知ルニ足ルベシ

一地球印ブダウ酒

之レヲ論スルニ[illegible]ヲ見ズ[illegible]及ビ[illegible]ノ[illegible]用トシテ最モ適當ナルモノト認定スルニ今回ノ[illegible]ハ本邦ヲ[illegible]ノ法ヲ述ヒ又同ニ出テ、夏期ニ逗ヘリ殊ニ太陽ノ[illegible]ヲ經過スルヿ兩度ニ及ビ[illegible]ラズ[illegible]多カラント想像セシニ少シモ其ノ[illegible]ヲ見ザルハ品質良好ナルモノト認定ストヘニ今マ故フニ其ノ効能ヲ[illegible]セザルモ以上ノ實狀證明ニ依レテ知ルベキナリ

東京市日本橋區[illegible]町五丁目
發賣元 伊部商店

京城
朝鮮國特約店 陵本商行

一肥後國ノ名産 朝鮮飴
[illegible]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味ノ絶好ナル遠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且ツ數日ヲ經ルト雖モ風味ノ變ズル無ク殊ニ一箱ヲ贈ヘバ[illegible]ノ菓子トシテ最上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ヲ購ヒ試用シ玉ハンコトヲ乞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一皮座蒲團 丸形 角形
一夏麥及帽子 色々
一日本人向朝鮮向石鹸
右新着廉價販賣仕候也
京城泥峴
鈴木大阪堂支店

本館御宿泊料之儀左ノ通リ相定メ候[illegible]
[illegible]

| | |
|---|---|
| 一上等 | 壹圓 |
| 一中等 | 七十錢 |
| 一下等 | 五十錢 |
| 外ニ下等 | 三十五錢 |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三十八號
田原旅館

客室[illegible]
旅館 京城[illegible]
東京館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御料理は[illegible]を旨とす●

購讀定價

| | |
|---|---|
| 一枚 | 貳錢五厘 |
| 一箇月 | 貳拾五錢 |
| 三箇月 | 七拾錢 |
| 六箇月 | 壹圓參拾五錢 |

廣告料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六錢但シ行數及回數により割引仕候[illegible]は必ず前金にて[illegible]

發行兼印刷人 荘林宣人
編輯人 島田穰[illegible]
朝鮮國京城[illegible]
發行所 漢城新報社

(明治廿八年三月六日 遞信省認可) 大日本明治二十九年七月廿二日(水曜日) 第二百五十六號 大韓建陽元年七月二十二日 (建陽元年一月廿二日 農商工部認可) (一)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illegible]公使之夜會 [illegible]公使及同夫人은간밤에홈시붓터、각국ᄉᆞ신과、됴션졍부각대신과、협판등을、쳥ᄒᆞ야、셩대ᄒᆞᆫ[illegible]을、베풀엇더라 當夜公使館에ᄂᆞᆫ、ᄉᆞ면에[illegible]을불켜셔、ᄀᆞ라에자리잇ᄂᆞᆫ것도[illegible]케뵈엿더라

●[illegible] 서울주찰ᄒᆞᆫ一等[illegible]從六位[illegible]공ᄉᆞ관、이등서긔관을、일등서긔관으로、올녀서高等官四等으로[illegible]ᄒᆞ셧더라

●學部之改正規則 學部令第四號

成均館經學科規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셩균관은、ᄎᆞᆨ녕、디인비삼십욕호에依ᄒᆞ야、학셩으로ᄒᆞ야곰、[illegible]을[illegible]ᄒᆞ고、더힝을수식ᄒᆞ야、문명ᄒᆞᆫ진보에 ᄌᆞ의ᄒᆞᆷ을、오지로ᄒᆞᆷ

第二章 學科及程度

第二條 셩균관경학과、학셩의[illegible]ᄒᆞᆯ학과목은、삼경、ᄉᆞ서(幷諺解)ᄉᆞ서(本國史記綱目續綱目明史等) 본국ᄉᆞ、본국지지、만국지지、력ᄉᆞ、작문(作文)산술(算術)로ᄒᆞᆷ

但[illegible]의ᄒᆞ야[illegible]及[illegible]을[illegible]ᄒᆞᆷ도가ᄒᆞᆷ

第三條 학셩슈업년한은、년쯤시험급뎨로[illegible]ᄒᆞᆷ

第四條 학셩은、관등에、류숙ᄒᆞ야、과졍을、근독ᄒᆞᆷ

第五條 [illegible]은、학셩의[illegible]슈ᄒᆞ야、편제ᄒᆞᆷ

第六條 학셩이、타학교레를의ᄒᆞᆫ[illegible]에[illegible]ᄒᆞ되、ᄒᆞᆨ업에[illegible][illegible]ᄏᆞ자ᄒᆞ야、방학을권치아니ᄒᆞᄂᆞᆫ자ᄂᆞᆫ、그긔일의ᄂᆞ이、일년[illegible]ᄒᆞᆷ도가ᄒᆞᆷ

第七條 슈업시간계칙은、관[illegible]장이、낭의ᄒᆞ야졍ᄒᆞᆷ

第三章 入學[illegible]及[illegible]

第八條 입학을원ᄒᆞᄂᆞᆫ자ᄂᆞᆫ、좌에[illegible]이구ᄒᆞᆫ자로、입학시험에、급뎨ᄒᆞᆷ을요ᄒᆞᆷ

但셩균관장이、ᄀᆡ학연과、조항등의우이ᄒᆞᆷ을[illegible]ᄒᆞ면、별노시험을、불ᄒᆞᆷ이가ᄒᆞᆷ

一 年齡은、이십세이샹으로、ᄉᆞ오십세자

一 [illegible]者

一 [illegible]者

一 [illegible]者

一 [illegible]者

第九條 입학시험과목은、별노명ᄒᆞᆷ

입학은、ᄆᆡ학년의초로ᄒᆞ되、부득이ᄒᆞᆫ경우에ᄂᆞᆫ、남시입학을허ᄒᆞᆷ이가ᄒᆞᆷ

但[illegible]ᄂᆞᆫ[illegible]ᄒᆞᆷ

(未完)

●[illegible] 최동에잇ᄂᆞᆫ동학당은、지나간십구일붓허、구졀욕일ᄭᆞ지[illegible]ᄒᆞ얏다더라

●[illegible] 안동우체사를、상쥬군으로권셜([illegible])하고、본년팔월십일노、붓터、우톄물을、미일의、입도식히지방의발송하기로、졍하엿시니、인민들은 다알고、서신([illegible])을부치게 하엿다더라

●[illegible] 이젼의병조판서도、지니고 홍어사도지ᄂᆡ던、민웅식씨ᄂᆞᆫ、려쥬향제의、가잇더니、비도의게가산도、만히、잃어버리고、요시이、부재、다、서울노올나와서、문안권등집의、한세간을고、감집의、흐세간을엇다ᄒᆞ더라

●[illegible] 쥬미공사、니범진씨가、일젼의 ᄋᆞᆼ산서、발ᄒᆞ던말은젼호의、긔지하엿거니와、당일의、젼별하ᄂᆞᆫ사ᄅᆞᆷ들이、연ᄌᆞ와、만이모왓ᄂᆞᆫ듸、동씨가、별노이、궁니디산니지순셔를、뎌하여、ᄭᆞᆨ하고、온군이、밟하기를、니무외무손불착한ᄭᆞ란이잇슬넌지、다시만나기、어렵다하고、눈물노작별하엿다ᄂᆞᆫ만이낭자하더라

●金鴻陸氏[illegible] 김홍륙씨의집의문긔이、만히모하ᄂᆞᆫ디、그수를알수업고、금옥이만히차자가서、문이터지게되ᄆᆡ、동씨ᄂᆞᆫ、오젼사시의、집의나와서、그만혼、손들다보고、오시말미시초의、드러가ᄂᆞᆫ디、동씨가미일、그손보기로、위ᄒᆞ여、나온다ᄒᆞ더라

●[illegible] 근일의、가디방에비도들이、오히려、딘뎡치못ᄒᆞ여、졍부의、근심이되ᄆᆡ、당로ᄒᆞ신제씨들이、후말ᄒᆞ기들、그곳비도둥에거괴로、그곳에、권을시켜시면비도가、진뎡이、될듯ᄒᆞ다ᄒᆞ여서、홍천군수ᄂᆞᆫ누가ᄒᆞ고、지평군수ᄂᆞᆫ누가ᄒᆞ고、홍쥬군수ᄂᆞᆫ、누가、ᄒᆞᆫ다고、소문이、낭자ᄒᆞ다ᄒᆞ되、우리ᄂᆞᆫ명[illegible]

●三角山[illegible] 근일、며염、풍설에、삼각산이、문어졋다ᄒᆞ며、말이만키로、자세히、아라본즉、인왕산의、여우바우란、큰、돌이、져번、큰비게、잣바졋다ᄒᆞ니、지젹의서、말이、와젼ᄒᆞ기도、어무심ᄒᆞ더라

●[illegible] 며항풍셜의、하기를근일외、일본병졍이만이、잣최옹시、진고ᄀᆡ로、드러온다ᄂᆞᆫ、쇼문이낭자하기로、저작일밤의、경무샤니종건씨가、비밀이、별순금어러명을、신칙하여서、미복으로、진고ᄀᆡ근쳐의、무로단이며、일병이왓ᄂᆞᆫ하면、졍샹을졍탐한다ᄂᆞᆫ、풍셜이낭자하다니이갓치、허젼하ᄂᆞᆫ일도디단이、심하도다

●[illegible] 합홍영교에[illegible]ᄂᆞᆫ、본ᄃᆡ다지다릉ᄒᆞᆫ、사롬으로[illegible]외게、심복이되야서、각읍에、다니며서、관공젹이、만흔고로、복관사름은、비필낭망이라ᄒᆞ고、더구ᄂᆞᆫ갑산비셩은、원입견지ᄒᆞ더니、요ᄉᆞ이、감희제가갑산군슈를、ᄒᆞᆫ다ᄂᆞᆫ말이、낭자ᄒᆞ미、삼슈갑산빅셩이、반가이만날가ᄒᆞ야、미우조하ᄒᆞᆫ다더라

●[illegible] 거번의창능、능관으로、농상외、불노ᄒᆞᆫ마닭으로、법부로조율되여、젼라도로、도비가ᄂᆞᆫ김진현씨ᄂᆞᆫ、나히만흔등의、병이디단하、길어서、말이못되ᄆᆡ、집을파라서、교군을타고、비소로가ᄂᆞᆫ디、그경상이、가긍ᄒᆞ다더라

●[illegible] 「도보계 칠십구 싱거서 친은、 안연분 마ᄒᆞᆫ녀 요、몸 로되、셔 일을、금 일에、녀 구이녀 고앙ᄌ

●[illegible] 에、복 초히、 에ᄂᆞᆫ、 [illegible] 논자졍 아제으 잇ᄂᆞᆫ거 [illegible] 아계으 [illegible] 만리되 일잘븨 과、미국 [illegible] ᄂᆞᆫ것도、 서ᄂᆞᆫ지 도에셔 [illegible] 케ᄒᆞ얏 에셔뷔 팔일이 히、복히 ᄂᆞᆫ거시라 쥬、이번 도[illegible] 외세당 곳인쥬、 또이번의 [illegible]三十二 [illegible] [illegible]은、二 보ᄂᆞᆫ것보

●[illegible] [illegible]에ᄂᆞᆫ、 서서、지 [illegible] ᄒᆞᆷ이、(二十

의집의문
룰알수업
문이러지
의、집의
고、오시
、동써가
、나온다
시다방에
못ᄒᆞ며、
ᄒᆞ신졔
도동에
시면비
서、홍
수ᄂᆞᆫ누
ᄒᆞᆫ다고、
리ᄂᆞᆫ녕
、말이、
、큰비
장산의、
말이만
중설에
률군입
[illegible]시、진
낭쟈하
죵건써
、신칙
신져의、
신、졀상
하다니
、심하
[illegible]ᄂᆞᆫ、
李[illegible]氏
다니며
관사ᄅᆞᆷ
ᄂᆞᆫ갑산
교수이、
ᄂᆞᆫ말이、
반가이
더라
ᄒᆞ、농판
으로、법
비가ᄂᆞᆫ
병이더
집을과
가ᄂᆞᆫᄃᆡ、

●救援小之女

「도보졔」란녀편네잇서、일쳔팔바칠십구년에、법국셔울巴里근쳐ᄯᅡ에싱거서、올히、나히십칠셰인ᄃᆡ、양친은、무던ᄒᆞ다ᄒᆞᆫ것마ᄂᆞᆫ、이ᄯᆞᆯ은、어안연분으로、이러ᄒᆞᆫ지、몸이、죠고마ᄒᆞᆫ녀편네요、몸의킈가、一尺六寸이요、몸의重量이十斤八兩重되ᄂᆞᆫ사ᄅᆞᆷ이로되、셩품이活潑ᄒᆞ고舞蹈란춤추ᄂᆞᆫ일을、금지히、못ᄒᆞ게ᄒᆞ며、시죠부르ᄂᆞᆫ일에、변달ᄒᆞ야잇스므로、사ᄅᆞᆷ마당구이녀거서訪問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퍽만타고、양、ᄌᆞ신문에뵈엿더라

●皆旣日蝕 來八月九日午後二時三十分쯤에、북히도에서뵈ᄂᆞᆫ皆旣日蝕을、수츠히、긔지ᄒᆞ얏구나와、觀測ᄒᆞ라ᄂᆞᆫ바에ᄂᆞᆫ、寺尾東京天文臺長、中村中央氣象臺及技師技手등이、북히도로、나가서보ᄂᆞᆫ자졍인ᄃᆡ、이皆旣日蝕은、구라파와아셰아兩洲의북쪽에셔觀測ᄒᆞᄂᆞᆫ슈잇ᄂᆞᆫ거신ᄃᆡ、구라파에서ᄂᆞᆫ瑞典、諾威、俄國의北緯六十度以北된지방이요、아셰아에서ᄂᆞᆫ西伯利亞北部와、그北東部分、[illegible]之沿海이로가ᄂᆞᆫ수만리되ᄂᆞᆫᄯᅡ이로되、그편외ᄒᆞ고、데일、잘뵈ᄂᆞᆫᄯᅡ은、부히도인쥭、영국과、미국과、독국과、법국과、이국의專門學士가、北海道로나와서觀測코자ᄒᆞᄂᆞᆫ것도、이마도이니라、中央氣象臺에서ᄂᆞᆫ、지나간明治二十六年븟터、북히도에서七八月무렵에氣象觀測을ᄒᆞ얏든[illegible]學士ᄒᆞᆫ리로、보니여觀測케ᄒᆞ얏다더라、또그다음에日蝕[illegible]에서뵈ᄂᆞᆫ皆旣日蝕은明治五十一年유입팔일이요 그ᄯᅡ은八丈島근쳐인ᄃᆡ、올히、북히도에서、뵈ᄂᆞᆫ日蝕처름잘뵈ᄂᆞᆫ거시라머라、또東京天文臺의말인쥭、이번日蝕을、잘뵈ᄂᆞᆫ북히도에서도渡島、北見의무ᄯᅡᆼ과、十勝、日高、天鹽외세ᄯᅡᆼ인ᄃᆡ、渡島、北見은、그皆旣되ᄂᆞᆫ곳인쥭、그皆旣ᄒᆞᄂᆞᆫ수이가、퍽길고、ᄯᅩ이번의皆旣蝕ᄒᆞᆷ이、데일긴ᄯᅡᆼ은、東經百三十二度二十分과北緯五十四度四分(西伯利亞北東部우더스괴地域)인ᄃᆡ、그時限은、二分四十七秒미、北見州宗谷에서、보ᄂᆞᆫ것보담十一秒時間을더ᄒᆞᆫ다더라

●英國々會二十二時間之討論 英國々會衆議院에ᄂᆞᆫ、ᄌᆞ주討論이、길게되ᄂᆞᆫ데잇서서、지나간오월、이십일일에印度豫定案을 의논ᄒᆞ얏ᄉᆞᆯ데ᄂᆞᆫ、討論時間ᄒᆞᆷ이、二十二時間半이되얏더라、그討論쥴、시작ᄒᆞᆷ이、스무ᄒᆞ로날、오후세시에、ᄀᆞ시ᄒᆞ야、잇흘날、오후ᄒᆞᆫ시반ᄭᅡ지延續ᄒᆞ야、反對黨을아주、엽ᄉᆡ려고攻擊ᄒᆞ야서、그때의[illegible]을、칠일간을出席停止케ᄒᆞ야、계우、화합되얏더라、이동안을、ᄒᆞᆫ번도退席을아니ᄒᆞ든議員은、「히거도」氏와「문데란」氏와「취스다」氏와、기타수명인쥭、休憩室이뷔든ᄯᅢ업시、새벽도록、연ᄒᆞ야食事를ᄒᆞ얏더라、시방、그국회의英國下院[illegible]之前例를ᄉᆞ제ᄒᆞ여보니、일쳔팔박칠십칠년(이십변젼)ᄯᅢ에議案(지명)[illegible]에ᄯᅡᆫ氏와、기타수명이妨害討論일로잇든날、오후세시四十五分ᄯᅢ에、開會ᄒᆞ야、그翌日오젼일곱시十五分ᄭᅡ지、[illegible]開會ᄒᆞ며、任칠일二十一日오후네시에開會ᄒᆞ야、그翌日오젼여섯시十分ᄭᅡ지、밤을새여討論을ᄒᆞ얏스며、일쳔팔빅팔십년(십칠변젼)ᄯᅢᄂᆞᆫ愛蘭事件에、관ᄒᆞ야팔월이십육일븟터、그翌日에二十一時間을討論ᄒᆞ얏든일이잇고、일쳔팔빅팔십일년(십ᄉᆞ변젼)졍월이십오일、오후다섯시븟터翌日오젼두시ᄭᅡ지투의판론ᄒᆞ얏고「취스다」氏가愛蘭保護法案일로討論ᄒᆞᆫ이、졍월三十一日오후네시에開會ᄒᆞ야、이월잇흔날、오후아홉시반ᄭᅡ지[illegible]로討論ᄒᆞ야四十二時間의、긴時間이되얏더라、이야、영국국회와、데일되ᄂᆞᆫ討論은、[illegible]회의라、그러ᄒᆞ나「가나다」(국명)국회에서百二十九時間을、연속케討論ᄒᆞ얏다ᄂᆞᆫ일로보면、말을ᄒᆞ잘거시업ᄂᆞᆫ자라、또일쳔팔빅팔십이년(십오변젼)ᄯᅢ에、영국ᄉᆞ헌[illegible]에서、다시[illegible]을、의논케ᄒᆞ야、오월삼십일、오후두시븟터翌日오후여ᄃᆞᆯ시ᄭᅡ지[illegible]을ᄒᆞ얏더라、일쳔팔빅구십년에[illegible]ᄂᆞᆫ、일월십ᄉᆞ일、오후세시븟터잇흔날오젼일곱지에되얏고、본년삼월삼십일、오후세시에開會ᄒᆞ고翌日오후네시五十分ᄯᅢ에散會ᄒᆞ얏고、그다음에ᄂᆞᆫ今回二十二時間의討論이라더라

## 官報抄錄

敍任及辭令

[illegible]州府觀察使 李[illegible] [illegible]

免本官

(以上七月十五日)

中樞院主事 金[illegible]

依願免本官 典醫司主事 閔[illegible]

溫陵參奉 金思[illegible]

任宮內府特進官敍勅任官三等 正二品 [illegible]

任中樞院主事敍判任官六等 六品 [illegible]

任典醫司主事敍判任官六等 [illegible]

任溫陵參奉敍判任官八等 [illegible]

(以上七月十六日)

任中樞院一等議官敍勅任官二等 [illegible]府觀察使 李[illegible]

任中樞院三等議官敍奏任官四等 安岳郡守 任[illegible]

任警務官敍奏任官六等 金炳[illegible]

任外部繙譯官敍奏任官四等 九品 朴[illegible]

敍任[illegible]州裁判所判事 [illegible]州府觀察使 閔[illegible]

任元山監理署長敍奏任官六等 四品 金世[illegible]

[illegible]川郡守李[illegible] 草[illegible]郡守申[illegible]

[illegible]郡守李[illegible]

依願免本官 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

免本官 [illegible]仁郡守 金[illegible]

正尉 [illegible]

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 副尉 李[illegible]

命休職

命待命 親衛第五大隊附 副尉 [illegible]

任[illegible]府觀察使敍勅任官三等 正三品 [illegible]

任[illegible]郡守敍奏任官六等 正尉 [illegible]

任高[illegible]郡守敍奏任官六等 副尉 李[illegible]

任[illegible]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洪在英

任[illegible]郡守敍奏任官五等 六品 金[illegible]

任[illegible]川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吳元[illegible]

任[illegible]郡守敍奏任官五等 三品 全[illegible]

任[illegible]郡守敍奏任官五等 四品 李[illegible]

任[illegible]郡守敍奏任官六等 五品 [illegible]

農商工部技手 洪[illegible] 李[illegible]

農商工部技手 徐相[illegible] 尹[illegible] 白[illegible] [illegible]仁

敍判任官四等

敍判任官五等

敍判任官七等 農商工部主事 [illegible]

命[illegible]仁[illegible]事務 農商工部[illegible] 李[illegible]

(以上七月十七日)

命休職 [illegible]地方隊大隊長 參領 元[illegible]

任參領 三品 金[illegible]

補[illegible]地方隊大隊長 參領 金[illegible]

補親衛第一聯隊第三大隊附 參尉 李克[illegible]

任[illegible]司長敍判任官五等 [illegible]技手 [illegible]

任公州[illegible]司長敍判任官五等 [illegible]技手 [illegible]

任[illegible]州[illegible]司長敍判任官五等 [illegible]技手 [illegible]

任大邱[illegible]司長敍判任官五等

(以上七月十八日)

## 論說

### 讀防疫令（上）

防疫之令旣出、予讀而嘆曰、有是哉、[illegible]之事、[illegible]民之[illegible]也、或問曰、是如[illegible]民[illegible]然、子所稱之何也、抑亦古之典乎、曰、月令、仲夏之月、[illegible]壯[illegible]、月令仲夏之月、[illegible]六七月之交也、疫之行、此時為[illegible]、壯[illegible]死者、[illegible]以萬數、今[illegible]令不能[illegible]之[illegible]之、而可立而視其死耶、故防疫之令、則古先哲王所以[illegible]若[illegible]、[illegible]制而[illegible]相之之[illegible]、而[illegible]政之大者也、且夫疫之[illegible]生民、[illegible]洪水猛獸、今夫洪水之禍、[illegible]則[illegible]矣、[illegible]居[illegible]者[illegible]、居於高者不知也、今夫猛獸之[illegible]、[illegible]則[illegible]矣、[illegible]居於山者耳、居於水者不知也、疫之行也、如水之[illegible]物、如火之[illegible]、[illegible]而[illegible]、[illegible]然[illegible]洪水猛獸之禍、或不可以人[illegible]救之、至于疫之禍、[illegible]人事、則莫不可救、是則禍之可以人事救之者、亦莫過於疫也、夫救民之[illegible]、[illegible]在[illegible]天子而[illegible]人[illegible]、則其[illegible]百[illegible]、[illegible]務[illegible]、[illegible]不[illegible]而[illegible]不[illegible]其所、不[illegible]其[illegible]者、以[illegible]明之治、今有生民之禍、其[illegible]也[illegible]、無[illegible]可況、[illegible]又有可以人[illegible]救之之[illegible]、在[illegible]民之[illegible]者、無之[illegible]、天下[illegible]其[illegible]之何、是又[illegible]可[illegible]民而[illegible]之也、知子[illegible]是又不能無[illegible]、[illegible]曰、[illegible]、凡[illegible]有[illegible]君子、欲乃[illegible]、[illegible]乃[illegible]令、令出[illegible]行、[illegible]、[illegible]之未[illegible]、[illegible]其不[illegible]、[illegible]也、[illegible]行之而不[illegible]、令之未出、[illegible]其不[illegible]、[illegible]出也、恐中道而反、有[illegible]法[illegible]令而中[illegible]之、與未作[illegible]、未嘗出、無以[illegible]已、故[illegible]王於[illegible]之初、[illegible]百[illegible]有司、以[illegible]其出令、而又[illegible]之、以[illegible]行[illegible]反也、至[illegible]防疫之令、有[illegible]行者、[illegible]則、無知之民、[illegible]其所[illegible]以[illegible]安、[illegible]一不[illegible]者、則未嘗不[illegible]而[illegible]也、今夫[illegible]、[illegible]水、[illegible]不[illegible]色[illegible]者、[illegible]人之[illegible]也、[illegible]不[illegible]、[illegible]不[illegible]、[illegible]不[illegible]、[illegible]其[illegible]、入於其[illegible]、[illegible]謂、[illegible]迎[illegible]、[illegible]之[illegible]入者、朝鮮人之居也、平素罕沐浴、[illegible]髮[illegible]、方[illegible]之夜、則生[illegible]於外、[illegible]於[illegible]者、朝鮮人之[illegible]身也、此三者、其[illegible]入、因習成俗、民皆[illegible]之、不悟其[illegible]生、[illegible]其[illegible]令之[illegible]之、[illegible]能[illegible]而[illegible]從乎、[illegible]其[illegible]、[illegible]而從[illegible]、[illegible]能不[illegible]息以止乎、而更卒亦身生於于其間、[illegible]于[illegible]俗、未必能[illegible]利[illegible]、[illegible]而[illegible]民[illegible]、而不[illegible]、必不[illegible]有所不至、而令之[illegible]、[illegible]于此矣、故[illegible]者在上者、[illegible]、[illegible]世俗之[illegible][illegible]而不[illegible]、受人民之[illegible]而不[illegible]、日[illegible]、以[illegible]必行、[illegible]之日久、功乃可見、[illegible]不可[illegible]始、而可[illegible]、及其有可見之功、未有不[illegible]然而[illegible]之[illegible]也、若[illegible]、[illegible]也、[illegible]日[illegible]入、[illegible]且[illegible]、[illegible]死者、[illegible]、而無以[illegible]之、則[illegible]于[illegible]、[illegible]水[illegible]也、如是則[illegible]之[illegible]、[illegible]有所[illegible]、而[illegible]何[illegible]乎王[illegible]之下[illegible]也哉、嗚呼、[illegible]之[illegible]、[illegible]見、而[illegible][illegible]、生民[illegible]之不[illegible]、[illegible]之[illegible]、今防疫之令出、[illegible]乎古先哲王之治、復見于今日、予故[illegible]不[illegible]、以[illegible][illegible]焉耳、

## 雜報

●[illegible]　견보공사만녕환씨의、면보가、일젼의또、아관으로、왓다논말은、젼호의긔ᄌᆡ하엿거니와、그사실인즉、아라사정부의셔、보호병과(保護兵)국치(國恥)논허급지아니하고、어느ᄯᅢ셔지던지、아관의어림하신、보호논、극진이할터이고、다른염녀논、업스리라고、하엿다던、증셩이낭자하니、이연보가、그러할뜻하다더라

●[illegible]　[illegible]사、올나왓든김병시씨논、문안을잇논동안에겨우、ᄒᆞᆫ번을인견ᄒᆞ셧슬뿐이요、또시방형셰가、그[illegible]을셰우지못할줄알고、또다시、고향으로退歸ᄒᆞᆫ다더라

●沈度支之辭退　탁지부대신심상훈씨논、일젼에、ᄉᆞ직소를밧쳣스되[illegible]치아니ᄒᆞ옵시논디、지작일에、그곡도다시、ᄉᆞ직소를올녓다더라、그곡절을들으니、그[illegible]은、둘이잇셔、ᄒᆞ나논、근리、탁지부에[illegible]은、고문관「브라온」씨손에、아주쥐여셔、대신은、공연히[illegible]과ᄀᆞᆺ치되얏든일을분히녀기며、ᄒᆞ나논、젼에、박정양씨ᄒᆞ고[illegible]ᄂᆞᆫ지방관을、임명ᄒᆞᄂᆞᆫ일파、기타에일이、근리논、혼ᄒᆞ박졍양씨마음대로、싱ᄒᆡᆼ되야서、심상훈씨가、ᄒᆞᆫ갓[illegible]쳐지못홈을노ᄒᆞ야、그러ᄒᆞ다더라、과연그러홈넌지요

●沈度支[illegible]氏　가、다시ᄉᆞ직소를、내엿다논일은、前報에、긔록ᄒᆞ논거시요、而ᄒᆞ야、씨논、그ᄯᅢ보(日)、집에만잇셔、[illegible]치아니ᄒᆞᆫ다더라、글로말ᄆᆡ아마、농부협판니지경씨논、대신서리를ᄒᆞ얏더라

●[illegible]　농상공부협판니치연씨논、경인철도ᄉᆞ무감독케명ᄒᆞ얏더라、이일로보면 그철도[illegible]역ᄉᆞ논、근근간에시작케뵈엿ᄉᆞ되、그미국상고「모스」[illegible]에서、아직[illegible][illegible]며、기타[illegible]이 나오지도안ᄒᆞᆫ슨즉、그러케급히시작은、아니ᄒᆞ리라ᄒᆞ며、또、ᄒᆞᆫ말에논、[illegible]구[illegible]붓터시작ᄒᆞ리라ᄒᆞ며、또「졔미랄」[illegible]의으을아모리논、향자에、그[illegible]ᄒᆞ얏다더라

●朝鮮銀行　일젼신문지에、긔저ᄒᆞᆫ든대로、이다라銀行條例논、탁지부고문관브라온씨가、ᄲᅡᆨ주여서내지아니홈으로、이ᄯᅢ지、그[illegible]가업논고로、그은ᄒᆡᆼ은[illegible]치아니ᄒᆞ얏다더라、而ᄒᆞ아、그속ᄉᆞ젹을들으니、그묘레논、사방곳반포치아니되일뿐이니라、그「브라온」고문관파、은ᄒᆡᆼ발긔인ᄉᆞ이에、본ᄯᅳᆺ시틀녀셔、그러ᄒᆞᆫ다므로、발긔인속에셔논、ᄎᆞ라리、탁지에[illegible]치안케私立銀行으로ᄒᆞ쟈고、외농을내든사람도잇다더라

●米價[illegible]　요ᄉᆞ이、도셩안의셔、시직이、졈ᄉᆞ고등하난듸、쌀갑시더옥뒤단이、올으논고로、민심이소동되논지라、지작일의、탁지대신심상훈씨가、각젼시민의게、별노이、신칙을하여서、오강의무역하여ᄊᆞ둔쌀을、다문안으로、듸려다ᄊᆞ케ᄒᆞ고、그쌀갑을、올이지못ᄒᆞ게ᄒᆞ고、지금미ᄉᆞᆼ의 녹양돈사식、하논거슬、다시감하여、셕양돈사식、작정하기로、엄칙하여서、민심을、안돈시켠다더라

●[illegible]氏刑事　정진사、셩우씨의민사재판ᄒᆞᆫ、샤건은、뜻논대로、긔지하엿거니와、그ᄉᆞ이경샤로、넝거셔、지작일의、경샤지심(刑事再審)을、한후에、감옥쇼의가두고、샹서샤을[illegible]의[illegible]조판[illegible]ᄒᆞ셔、ᄯᅩ일번、종여삼연의、쳐ᄒᆞ기로、판결이되여서、일간의션고홀、한다더라

## ●仁川府之暴動

去十九日에인쳔ᄉᆞ논金山人三百餘名은、순검최가가金山人李[illegible]이란사롬을、[illegible]ᄒᆞ얏든일로、크게[illegible]ᄒᆞ야、관찰수청으로[illegible]ᄒᆞ니、관찰ᄉᆞ서리「임쳔군수ᄂᆞᆫ、그[illegible]同港日本領事館으로、청ᄒᆞ야오미、일본[illegible]이、ᄀᆡ유를ᄒᆞ야、[illegible]겟더라、이일로또、의부용상국장[illegible]、[illegible]ᄂᆞᆫ、그일을또ᄉᆞ도ᄒᆞ며、폭민을、진유ᄎᆞ로、지작일에、동지로갓더라、이일에[illegible]ᄂᆞᆫ[illegible]에、그록홈

●[illegible]之[illegible]　ᄂᆡ외젹관계[illegible]、[illegible]쳐셔묘샤한다논말은、못논대로、그지하엿거니와、근일ᄂᆞᆫ각[illegible]의、[illegible]의논이봉일하도、아니되ᄀ이되논고로고、엄급도、샤한관계를탁지에 경한다더라

●田[illegible]特賞之[illegible]　[illegible]로임명하사고셩군슈과、낭양등관인듸、비방군슈를이하게ᄒᆞᆫ다더[illegible]

●李[illegible]　(李[illegible]同)이、ᄒᆞ고、노논셩계가、져들며셧시、도리가、아쥬비도를、포살이되ᄀ、남어지쳐디경이라、더라

신진사가、던지、내속의심[illegible][illegible]ᄒᆞᄂᆞᆫ법이、둔중속을、소위인[illegible]인지공이[illegible]위ᄒᆞ야、당[illegible]를、ᄒᆞ셰라ᄒᆞ고、죠[illegible]홍이 목젼금을、져ᄉᆞ너다가논、[illegible]로다、일본[illegible]엿지험을、무엇신고[illegible]롬의、ᄉᆞ업시、졔일[illegible]、ᄒᆞᆫ가지로ᄒᆞ논[illegible]심[illegible]

●中[illegible]

서ᄒᆞ든 부고문 내지아 업ᄂᆞᆫ고 다더라 그됴례、 나라、 말ᄀᆡ인 오다므 、락지 고、외 서、시 시더욱 쇼동되 심상ᄒᆞᆫ 、신칙 쟈둔쌀 ᄒᆞ고、 、지금 술、다 하기로 시권다 우씨의 로、그 、넝거 (畓)을、 서샤불 판、하 저하기 건고를、 動) 對答은、 、룸을、 、관찰 스서리 本館事務 아、ᄀᆡ 오쩌의 그됴ᄂᆞᆫ、 섬유츠 、이일 지둔、ᄀᆡ 며로、긔

논이봉일하다ᄂᆞᆫ듸、아라사의、차관도、아니되고、탁지의유젼도、부족이되ᄂᆞᆫ고로、각부의관원을、감의하고、월급도、쥬려마련ᄒᆞ고、서로죠샤한관제를、죵ᄉᆞ이、반포하여서、탁지에、경비부족한거술、보츙하게한다더라

●田結書之採用 지작일관보중시로임명하신、낭양군슈조관현씨와、고셩군슈니회인씨ᄂᆞᆫ、향일의、강능과、낭양등지에、畓結(田結)하엿던장관인듸、비도를쵸토한공뇌로、히지방군슈를임명ᄒᆞ엿셔、뵈셩을진무하게ᄒᆞᆫ다더라

●[illegible]라 져동사ᄂᆞᆫ、나부동(李國田)이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본ᄃᆡ부요ᄒᆞ고、노ᄂᆞᆫ사ᄅᆞᆷ일러니、근일에ᄂᆞᆫ、싱계가、점점업서지고、그쳐와、의를ᄯᅥ셧시、동거ᄒᆞ엿ᄂᆞᆫ듸、의식ᄒᆞᄂᆞᆫ도리가、아쥬업더니、나부동은、츄쥬비도를ᄯᅡ러갓다가、경병의게、포살이되고、그으ᄃᆞᆯ들은、굶어쥭고、남어지쳐ᄌᆞ권쇽업도、쟝ᄎᆞᆺ아ᄉᆞᄒᆞᆯ디경이라、그졍샹이、심히가긍ᄒᆞ다더라

## ●申進士問答記

(六)

신진사가、골ᄋᆞ듸、대져엇던사ᄅᆞᆷ이던지、나ᄉᆞ이발그면、남을、공연이、외심ᄒᆞᄂᆞᆫ법이、업고、내ᄉᆞ이어두면、남을외심치、아니ᄒᆞᆯ넘에도、외심ᄒᆞᄂᆞᆫ법이니、엇지ᄒᆞ면、죠션의、어둔풍쇽을、ᄒᆞ로밧비、서치게ᄒᆞ고、소위인인셩사라、ᄒᆞᄂᆞᆫ말과、쟈유어인지공이라、ᄒᆞᄂᆞᆫ말이、지금죠션게위ᄒᆞ야、당ᄒᆞᆫ말이요、또ᄒᆞᆫ쟝ᄀᆡ취계를、ᄒᆞᆯ네라、죠션졍부가、님을、바로ᄒᆞ고、죠션인민이、힘을다ᄒᆞ면、즁흥이、목젼의、잇슬것이요、몽미ᄒᆞᆫᄉᆞᆷ을、세지못ᄒᆞ고、혼혼즁으로、지내다가ᄂᆞᆫ、남붓그러운、님이잇스리로다、일본ᄂᆞᆫ들、파연관경영업시야、엇지힘을쓰리요、대져관경영ᄂᆞᆫ쟈、무어신고ᄒᆞ니、쳣지ᄂᆞᆫ、ᄀᆡ명ᄒᆞᆫ사ᄅᆞᆷ의、ᄉᆞ업인죡、남을인도시기ᄂᆞᆫ것시、졔일즁ᄒᆞᆫ님이라、인도ᄒᆞ시거서、ᄒᆞᆫ가지로、ᄀᆡ명ᄒᆞᆫ나라이、되고쟈ᄒᆞᄂᆞᆫ우심이요、둘재ᄂᆞᆫ、동류를앗기ᄂᆞᆫ마음으로、인국으로、더브러친근ᄒᆞ야、동심합녁ᄒᆞ야、이류의게、슈모를、밧지안코쟈ᄒᆞᄂᆞᆫ、경영이요、세지ᄂᆞᆫ、법령과、덕화가、각각온듸로、곳차서、얼니미쳐서、텬하의、놉흔듸졉을、밧고자홈이라、그용심이엇지적다ᄒᆞ리요、호랑지국과、곳치됴ᄃᆡ인민의、감갑ᄒᆞᆫ우심은、두ᄂᆞᆫ것시、아니어ᄂᆞᆯ、몽미ᄒᆞᆫ、죠션사ᄅᆞᆷ은、졉외며운、짜소견으로만、혜ᄋᆡ리고、남의우심이、ᄀᆡ명ᄒᆞᆫ듸、잇ᄂᆞᆫ졉은、아지못ᄒᆞ며남의우심이、감ᄉᆞᄒᆞᆫ듸、잇ᄂᆞᆫ줄ᄂᆞᆫ、외심ᄒᆞᄂᆞ、이ᄂᆞᆫ사ᄅᆞ가、녜와이제가、곳지안코、인심이、어둡고、밝근것시、다른것을、아지못홈이라、만일일본의서、가음써ᄂᆞᆫ것을、깁히알쩐듸、감격지아니ᄒᆞᆯ사ᄅᆞᆷ이업스리로다、이럼으로、데ᄂᆞᆫ일의되、일본이、혼쟈만、리롭고쟈ᄒᆞᄂᆞᆫ게、아니라、죠션과、한가지로、리롭고쟈、ᄒᆞᄂᆞᆫ계요、죠션만、위ᄒᆞᄂᆞᆫ게、아니라、저의나라를、울궈위ᄒᆞᆯᄂᆞᆫ게라ᄒᆞ노라、나ᄒᆞᆫ자가、골ᄋᆞ듸、저긔법령과、덕화가、ᄒᆞᆫ미게、ᄒᆞ고쟈ᄒᆞᄂᆞᆫ것시、엇지다ᄅᆞᆫ연고ᅵ리요、경의말ᄉᆞᆷ과、곳치일본은、이왕ᄀᆡ명ᄒᆞ야、약온나라으로、죠션이、ᄀᆡ명치못ᄒᆞ야어ᄂᆞᆫ것슬보고、다힝이、긔부게알어서、것스로ᄂᆞᆫ、위ᄒᆞᄂᆞᆫ쳐렴ᄒᆞ야서、졍쳑쥬ᄂᆞᆫ쳬ᄒᆞ고、졍국에부호를、옴기져ᄒᆞ고、문란ᄒᆞᆫ디경율、더욱문란케ᄒᆞ고、각도각읍에、제도를、변경케ᄒᆞ야、민심을현창케만ᄒᆞ고、과히보아서、졔상을진압지아니ᄒᆞ니、이ᄂᆞᆫ사ᄅᆞᆷ을、남게오르라ᄒᆞ고、흔들며、사ᄅᆞᆷ을떠며서、다려다놋코、곱시ᄒᆞᄂᆞᆫ것과、곳ᄒᆞᆫ지라、졍녕이、죠션이피폐ᄒᆞ기를、기ᄃᆞ려서、무위이화로、저의것시되기를、ᄇᆞ라ᄂᆞᆫ것시라、데ᄂᆞᆫ외심ᄒᆞ기를、입본의고명ᄒᆞᆫ、우심이、이것심가ᄒᆞ노라、더구나、동샹ᄒᆞᄂᆞᆫ님은、불지경이면각박이심ᄒᆞ야、죠션의진업을、몰가게、쌤어갈모양이니、진업이업스면、쥭지안ᄂᆞᆫ물건이、업ᄂᆞᆫ지라、데ᄂᆞᆫ이것을、두려워ᄒᆞ며、또ᄒᆞᆫ청국사ᄅᆞᆷ인죡、츄ᄒᆞ고누ᄒᆞ야、ᄀᆡ명치못ᄒᆞᆫ고로、일인님이、만흐나、금기죠션을、위ᄒᆞᄂᆞᆫ지경에ᄂᆞᆫ、도저이、위ᄒᆞ아쥬고、지어샹고덜이라도、츙에ᄂᆞᆫ、무섭게샹관ᄒᆞ다가도、사귀여、의쇽ᄒᆞᆫ이면、사랑ᄒᆞ고、위하ᄂᆞᆫ모양이것ᄒᆞ보이고、여간쳔만낭이히의、의리가、상ᄒᆞ지아니ᄒᆞ엿고、관쟝덜이라도、죠션빅셩과、쳥국빅셩이、닷부어송ᄉᆞ를ᄒᆞ면、곡직을、갈여서、공평이다시리고도、저의빅셩을、됴케ᄒᆞ야、됴션을、위ᄒᆞ던고로、죠션인심이、권권불망ᄒᆞ야、쳥국을ᄇᆞ라ᄂᆞᆫ자ㅣ열의아홉이요、일본인죡그럿치아니ᄒᆞ야、각박이심ᄒᆞ고、서로깁히사구여、친숙ᄒᆞᆫ듯ᄒᆞ다가도ᄒᆞᆫ가지조그마ᄒᆞᆫ、허믈이、잇스면아ᄃᆞᆫ졍이、일됴와、업서지고、심지어구타샹살외、일으기를ᄒᆞ며、관쟝외게、호소ᄒᆞᆯ슈도、업게만드럿ᄉᆞ니、이럼으로써、이ᄯᅥ저지일이러도、일본을、됴타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열에ᄒᆞ나도、되지못ᄒᆞ고、동국에인민이、분완ᄒᆞᄂᆞᆫ모양은、형도아마、못고보앗실듯ᄒᆞ도다、신진사가、웃고ᄃᆡ답ᄒᆞ야、골ᄋᆞ듸、데ᄂᆞᆫ써일으되、죠션사ᄅᆞᆷ의、분완ᄒᆞᄂᆞᆫ마음이、저온것시、한이라ᄒᆞ노라、만날、분완ᄒᆞᆫ마음이、긔ᄅᆞᆯ진듼、후문이늘고、사업을일우기가、쇽ᄒᆞ리라、대저양약ᄒᆞ고、나타ᄒᆞᆫ사ᄅᆞᆷ은、분ᄒᆞᆫ님과、겁나ᄂᆞᆫ날노써、격동치아니ᄒᆞ면、흥거ᄒᆞ야、ᄭᆡ닷지못ᄒᆞᄂᆞᆫ법이라、지금에、죠션빅셩이、나타ᄒᆞ고、한만ᄒᆞᆫ모양이、져동치아니ᄒᆞ면、ᄭᆡ여서、진보치못ᄒᆞᆯ것사요、또ᄂᆞᆫ쟈고로、어리져온빅셩온、심모원려ᄂᆞᆫ、모르고、당쟝의됴흔것만、취ᄒᆞ며、ᄀᆡ본리히ᄂᆞᆫ、싱각지아니코、목젼의、젹은、리만、반가워ᄒᆞᄂᆞᆫ고로、구쇽이업ᄂᆞᆫ것만、편케너기고、구쇽이간ᄒᆞᆫ것슨、슬여ᄒᆞᄂᆞᆫ지라、그즁에、일본은급ᄒᆞ고、쳥국온、혹은고로、무지ᄒᆞᆫ빅셩업은、외예이부와ᄒᆞ、ᄒᆞ려나와、쳥인고명ᄒᆞᆫ셕견으로、엇지우미ᄒᆞᆫ、빅셩의말ᄃᆡ답ᄒᆞ여서、이곳ᄒᆞᆫ말ᄉᆞᆷ을、ᄒᆞ시ᄂᆞ뇨、가령친구를사귀ᄂᆞᆫ、도리에도젹한친구를사귀ᄂᆞᆫ것과、비루ᄒᆞᆫ친구를사귀ᄂᆞᆫ것시、어ᄂᆞ게、나으릿고、대강말ᄉᆞᆷ을、ᄒᆞ을거시나、형은살펴여럿의실가、ᄇᆞ라노라

## 雑報

●金弘集氏の退隠　曩きに勅召に依りて入京せし金弘集氏は在京中種々一般の所見を採せしのみにて今日の形勢容易に其意見の行はれ難きを知り又々郷里に退隠せりと云ふ

●沈度支の辞表　度支部大臣沈相薫氏は此程辞表を捧呈せしも聴き届けられざりしが氏は一昨日重ねて辞表を上りしと云ふ其原因なりと云ふを聞くに重もなるもの二あり一は近来度支の実権新任協辨安氏の手に掌握せられ大臣は徒らに虚器を擁するに過ぎざるの感あるを以てなり、一は曩きに朴内部と論争したる地方官の任命及び其他の事近来多くは朴内部の意見通りに実行せられ沈度支の言ふ所行はれざりしを恐るるに在りと果して真乎

●自由に引籠　沈度支の再度の辞表を出だせしことも別項記載の如し而して氏は之れと同時に其の邸に引き籠りて出勤せざるよし右に付き同部協辨李在正氏は大臣署理を命せられたり

●閔駐露使の返電　去月駐露使閔泳煥氏より政府に報じたる電報に延期わり且つ遊覧都合にて意味の補捉し難きものありしとは当時の本紙に記せしが如し其後右に就き政府よりは別合の電報を発し由なるが之に対し此程閔駐露使より返電ありたりと云ふ其大意なりとて伝ふる所に依れば露政府は王城守衛兵及び五百万円の内債を同国より借入るゝことを承諾せず尤も何れの時を問はず大君主陛下にして露国公使館に駐御あらせらるゝに於ては充分に保護し参らせんとの意を表白したりと此の説或は真に近からんか

●朝鮮銀行　過日の本紙に記せし如く朝鮮銀行條例は柏度支部顧問の手に掛り成されしも未だ其発表を見ざるを以つて同銀行は成立に至らず而して其内容を聞けば條例は今直ちに発布さるべくも見へず又た柏度支顧問と銀行発起人との間に意見の衝突せる箇所もあるやにて発起人の中には寧ろ度支の手を離れ私立銀行と為さんとの説を唱へ居るもありとか

●京仁鉄道敷設契約　農商工部協辨李采淵氏は京仁鉄道事務監督を命ぜられたり之れに依て見れば同鉄道起工の期近々にあらんが如くなるも実際米国モース商会よりは未だ技師其の他の事務員も渡来せざる由なればしかく起工の期限前に迫り居るにはあらざるべしと云ふ或は云ふ八九月頃ならんと又たセチヤウル、タイ氏の息某氏は此の鉄道線路の踏査を嘱せし由

●独立協会議員会　は一昨日又た朝鮮銀行楼上に於て之れを開けり去る十八日慶平閣に開きし議員会にては役員任命のことを議し一昨日は独立門の構造設計に就き協議せりと右に関係せる某氏の談に依るに同協会の事業には三段あり一に曰く独立門、二に曰く独立館、三に曰く独立公園なり独立館は現在の慕華館を修繕して之れに充て独立門は迎恩門の跡に建設し独立公園は館と門との間に横はる空地に築かんとするものにして其費用の概算は各事業の設計を了へざる今日未だ算出すべきにあらず而して今日までに有志者の醵出せる金額は一千余円なりと

●沈度支の米価引下げ策　近来米価騰貴し城内細民の困難し居ることは屢ゝ記せしが如し無稽の輩は米価騰貴は日本守備兵が租米を買収するに由るなど論ずるものもありしかど兎に角目下の米価は近来になき高価の由にて一升に付き十七銭内外に上り居る由度支部大臣沈相薫氏は此の細民の困難を察し五江即ち松坡津、漢江津、龍山津、楊花津、西江の民間に貯蔵せる米穀を悉皆鍾路市上に輸送せしめ一升十三銭内外にて販売せしむる旨一昨日城内一般に布達して其米価を引下げん考案ありと云ふ

## ●仁川府暴動

去る十九日の朝より数百名の仁川在留金山人同府庁に押寄せ乱暴狼藉を極めたりとの事あるが今其の顛末を聞くに同地に金山人李通官（日本語通弁を以つて業とす）なる者あり去る十七日某と訴訟を為し其の要を持せるより或は訟を仁川府庁に訴へ出でたるを以つて府庁よりは巡検金敬河の一名現場に出役し李通官に説諭を加へしに彼は之れに服せず却て種々暴言を吐き散らせしより巡検は怒らしめんとて腕力にて縛しより其の首の傷二三ヶ所を殴打し其の疵口を揚げたるが右の打ち方強かりしと見へ通官は其より暫時の間十八日の夕刻に至りて死亡せり然るに同人には三人の弟あり何れも兄通官の惨死を見て憤慨に堪へず彼は日頃知己の金山人を語らひ檄を同地在住の金山人一同に飛ばし情を訴へたるに応ずるもの三百余名に昇り乃ち翌十九日の朝通官の死骸を真先きに押立て一斉に府庁内に押し寄せ忽ち庁内に闖入し矢庭に観察使兼府尹の閔氏を捕へ通官を殺せし巡検を引き渡し然るべき処分をなす事を迫りしが観察使は延期にして詮すべくんば国法に依り相当の処分を為すべしとて取り合はざりしより暴民は益ゝ激昂し観察使に暴行を加へ又た通官の死骸を引き摺り回し或ひは巡検金敬河（巡検の弟にして共に役）務の為め通官の家に出張せし者を捕し観察使の面前に連れ行きて或ひは殴打し或は打擲し為めに其他の巡検、巡検等は何れも逃亡したり依て観察使は到底其の力にて之を鎮撫するの術なきを知り且つ其の身も危険に迫れるより窃かに急使を同地駐在の領事館に送らせて保護を懇請せしかば領事館よりは警部、巡査を派遣して一方には観察使以下を保護せしめ一方には暴徒を説諭して解散せしめたり同夕刻に至り観察使は暴民総代の一手段として李通官を打殺して死に至らしめたる巡検は後に罷し処断すべしとの告示を発せり斯くて漸く事に至り暴民は漸次退散したるが夜に入り再び府庁に侵入し猶火を放ち食料を配布するなど不穏の挙動あり観察使よりは再た保護を領事館に求め同館よりは警部一名巡査五名を派出して一面には暴徒を説諭し一面には観察使をして新く加害巡検を厳重に処分すべきを約せしめ漸く大事に至らずして已むを得たりと而して右加害巡検は数日前より逃亡して行衛不明となり且本邦人某も共に同地方に出張し不在中なりしかば逮捕の為め直に巡検四名を同地方に急派し外に総巡一名は小舟にて海路海州に向へり暴民は此巡検の処刑を見るまでは退かずとか或は此巡検の捕縛に出張せりと云ふは我邦を欺き抑を施べんとするの策にあらずやとか唱へて翌日も又々応集せし者多かりしも然るに其後同地の主立ちたる商人十数名の仲裁に依り決して観察使を逃走せしめずとの保証を得又右巡検の処刑までは十四五名の総代を絶へず観察使の側に詰め切らしむることとし他は悉く引取りたりと云ふ因みに記す李通官の妻は此際巡検と逃亡し居たるも嫌疑あり直に捕へられ審問を受けたりと

●通商局長等の出張　外部通商局長趙秉協、主事玄暎の二氏は今回の仁川暴動顛末取調の為め一昨日同地に出張したり

●慶尚道の暴徒　慶州以外の暴徒、再び集合して再び勢焔を発し居る由は過日の紙上に記せる如くなるが近者の情報に拠れば同州近傍の郡邑にも亦た暴徒蜂起し四郡々守は殆ど悉く逃遁して官兵の命令内に潜み居れり慶州より派遣せし官兵は既に異邦に在せしも未だ攻撃の運びに至らず目下方に解散の準備中なりと云ふ

●地方の暴徒　忠清左道及び慶尚北道等の地方暴徒一千余名隊を結び昇しく慶尚道に向ひ火を民家に放ち郡吏を殺し暴政を掠め、郡守某氏は逃遁し行く所を知らず又た江原道嶺東の暴徒数千名洪川郡に屯拠して掠奪暴動を恣にし郡守は力敵せずして何れへか逃れ去り暴徒中刑罰なる者数百名は安岳平安両道に向ひ頻りに堡壘を構築しつゝありと云ふ

●地方官と頭髪　断髪と共に疑惑地の地方官に任用せば各地方の暴徒自然に鎮静に帰するならんとの事より近一個を慶平郡守に、柳麟錫を忠州郡守に、南宮永を洪州郡守に任用せんとの説ありしが如何に内閣の都合もあり又出髪者を各地の地方官に任用せんとの議もありと云ふ

●原公使の夜会　原公使及び同夫人は昨夜九時より各国使臣及び朝鮮政府の各部大臣、協辨等を招待して盛大なる夜会を開かれたり当夜公使館の庭内には提灯に球灯を吊し其の他の装飾も頗る美麗なりき

●警察署の注意　昨夜原公使の夜会に付き外国使臣代表者諸氏を通行の際宮城も狭き路を例の物見高き韓人の群集して混雑を来さん事も之れ有るべければとて昨夕我警察署よりは特に居留地内各戸に注意を配付して真一に聞へたり

●駐日露公使の逝去　日本駐箚露国全権公使ヒトロボー氏は数週前病の為め露国中故日前療養中に於て急病の為め死去せりと

●京官の昇進　在京城在勤一等領事従六位加藤増雄氏は兼任公使館二等書記官を免ぜられ一等書記官に兼任し高等官四等に叙せらる

うずして 利益は最 人蛇子許 く出我し 後四名を にて海路 見るまで 申出せり るの家に せし者多 る商人十 送せしめ は十四五 からしむ 内外に肥 と 人通雑協 取調の 冤游に の紙上 は河游 守は驍 り慶州 も未だ 偵中な 親等の 部に向 際、邸 た江原 掠奪略 か逃れ 安両道 云ふ の地方 に赴き に、柳 に任用 ものお んとの 使臣及 して服 城内に る英國 に付き も狭き 雑と来 警察署 して高 各国中 外権公 せりと 従六位 総督を 考に叙

●秋月領事の轉任　釜山在勤一等領事秋月左都夫氏は公使館二等書記官に任ぜられ高等官五等に叙せらる

●露國水兵の入京　露國水兵三十五名は士官三名に引率せられ漢江通の露船佳の江丸を借切り之れに搭じて昨日仁川より入京せり冊は北祭大砲一門をも齎らし來りたる由右は多分從來の露公使館護衛兵と交代をなすものならんと云ふ

●関屋机氏の入京　関屋机氏は此程北千忠内外氏と共に北部里漢州より上京し関机氏は江邸の別邸に、内外氏は倒洞の邸に入れり関机氏は往年兵曹判書及び統制使等の顯職に任ぜし人なり

●李範晋氏と李載純氏　二氏は本と交情甚[illegible]李範晋氏出發の當日李載純氏之が爲め別に臨み互に耳語して曰く貴國の往時に見る今後如何なる風説の起らんも知るべからず或は再び相逢ふの期無からんと言ひ終て痛哭之を久ふせりと

●金鶴鎮氏の葬亡　金氏門客日に益々衆く其の數を知らず氏年前十時頃家を出でゝ其の家に迎へり滿堂の賓客を謝絶し午後四時に至りて政府閣部に入る日々斯に此くの如く奔忙此だ夥しと、測り難きは人の榮枯盛衰

●邸巡士の處刑　鄭巡士の所刑ヨ説き曾り判事の刑に處絞二派に分かれ居ることは前號に記せしが今役聞く所によれば右は遂に輕きに從ひ「土地不以寛仰」に照し杖一百懲役三年に處するに略ゝ一決し一兩日中に之が宣告ある筈なりと

●兩府二品　去る十七日正二品府延顯氏は宮内府特進官に任ぜられ正二品洪延熙氏は地方府觀察使に任ぜられ共に勅任官三等に叙せられたり

●中樞院議官の新任　前地方府觀察使李承五氏は中樞院一等議官に、安邊郡守任甲鎬氏は中樞院三等議官に何れも去る十七日任命せられたり

●武官の異動　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中隊長正尉趙敬鳳、親衛第一聯隊第一大隊附副尉李興貨の二氏は去る十七日、内地地方隊大隊長參領元用常氏は去る十八日何れも休職を命ぜられ、親衛第五大隊附副尉[illegible]氏之に去る十七日本職を免ぜられ、三品金樹根氏之に去る十八日參領に任じ同地方隊大隊長に補せられ、參尉李克善氏は同日親衛第一聯隊第二大隊附に補せられたり

●郡守の任免　去る十七日德川郡守李炳永、延豐郡守申從浩、延安郡守朴漢東の三氏は願に依りて本官を免ぜられ、肥仁郡守金教承氏は本官を免ぜられ、正尉趙觀顯氏は咸興郡守に、副尉李源賢氏は高城郡守に、三品洪在奕氏は肅川郡守に、六品金正鉉氏は肥仁郡守に、三品呉元泳氏は德川郡守に、三品金成俊氏は永興郡守に、四品李暎宰氏は延安郡守に、五品洪祐行氏は延安郡守に孰れも任命せられたり、而して右の内、免官となりたる金教承氏は曩きに度支度の爆案者として第六十に處し帶罰一年を没せられたる人にして回陸奈解前の二氏は親衛隊附將校より出で、地方官となりたるなり、

●金川郡　世木氏は去る十七日元山郡巡司長に任ぜらる

●京城學堂　同學堂は去る十九日より向ふ五十日間暑中休業をなせり

●仁川港碇泊の軍艦　米國二等巡洋艦[illegible]昨日午後四時、露國砲艦ケトッア號(噸數千五百、速力一五、五)は一昨日午前九時何れも長崎より入港し米國巡洋艦ヨークタウン號は一昨日午前十時三十五分長崎へ向け出港せり前記號に李範晋氏を便乗せしは米國ヨークタウン號なりし如く記せしが此は佛國巡洋艦バイヤール號の誤りなり

●釜山港に於ける邦人　釜山港日本領事館の調査に據れば六月末に於ける同港居留邦人は[illegible]千〇[illegible]女二千二百八十人、族籍を以て之れを別ては士族五百十二人、平民四千四百六十四人にして戸口數千〇十二戸あり又た全く所屬異なるは兵庫、宮城、沖繩の三縣なり

●職工來着　當地製紙所部所屬工部に使用さるべき大工、塗工方、手傳等十八名昨日當地に來着せり

●在韓禁止　山口縣阿武郡萩町大字吉田町平民吉田政太郎(慶應二年四月生)なる者は開城、行商中亂暴の所動ありたるに依り一昨日當地領事館に於て三年間朝鮮國在留禁止の處分を受けたり

●巡邏強奪　西部夜來盜難頻々としては往夜數多の平服巡校を我防衛地近傍に派し夜中に於ける我守備兵及び一般邦人の行動等に夜中動人間との往返を注意せしめ居れりとの風聞あり例の如く何かの誤解に起かされたるものなるべし

●三角山頭の瓦殿荒廢　漢陽第一の高山と云三角山さへも伐採火之を燒せ近來孰りに樵へ行ふ三角山頭殿も亦廢く此以て國家の凶兆と稱へ今其瓦石を破拾すれば則ち我日大雨何に逢ひし時人王山頂の瓦殿墮落し形を失せし[illegible]の瓦殿の荒廢する所以なり

●孝子の至情鮮に迫す　我國慶尚道晋州府丹川坊三枝亭居民[illegible]所は本年七十二歳の高齡なるが三年前より病氣に罹り老體の事とて中々容易に平癒すべき模樣なし其の子某といへるは至りて孝心深き者なれば如何にもして父の病を癒さんものと思ひ醫師にも謀り人をも頼み看護には日夜も怠らず孝養を盡したるが父の病は日に日に重くなるのみなれば如何せんと千々に思ひ煩ひ[illegible]角も人肉をあらぐは如何にして手に入るべきやと遂に思案もつかざりし程るに[illegible]の子七人ありて第五番目の男子を斗星と稱し學問修業の爲めに我家より三四里を隔つる九月山白巡徒に入り數ケ月間家に返らず一日父の病甚しきを知らせんため自ら九月山に赴きしに途中にて子斗星に遭ひ相伴ふて家路に就きしに如何なしたりけん斗星は了然と一聲呼びしまゝ地に倒れたるにぞ[illegible]は驚きさて之れを抱き起せしに遂に息も如何に其手に抱き上げたるものは僅だ人の片腕のみにて其の子の形は見へざりし[illegible]は驚きと悲みからも日頃の惡夢じ居れる人肉の手に入りたるを喜び馳せ歸へりて其肉とさまざみ他の藥餌に調合して嚴父に進めしに不思議なる哉三ケ年の久しき煩ひ抜けて早や平癒の見込み[illegible]たりと所く[illegible]て子斗星は其後數日を經て家に歸へりしに兩親とも全く變はりて恙も異狀なければ[illegible]は喜び且つ[illegible]父に[illegible]入肉の[illegible]をあらため見しに何んぞ圖らん山[illegible]の[illegible]百年を經たるものにして世に之れを不死の藥と唱へ帝王の設ぎも容易に得難き起死回生の良藥なりと云ふ

●營業種別并増減比較表

| 種別 | 五月中 | 六月中 | | 差引 増● 減○ |
|---|---|---|---|---|
| 銀行 | 二 | 二 | | |
| 會社 | 一 | 一 | 一 | |
| 貿易商 | 三 | 二 | | 一○ |
| 貿易商 | 一八 | 一九 | 六 | 一● |
| 米反物商 | 九 | 八 | 四 | 一○ |
| 雜貨 甲 | 二五 | 二四 | 五 | 一○ |
| 雜貨 乙 | 二三 | 二三 | 七 | |
| 雜貨 丙 | 四八 | 四二 | 五 | 六○ |
| 旅宿 | 八 | 七 | | 一○ |
| 菓組 | 三 | 三 | | |
| 材木 | 四 | 四 | 四 | |
| 菓子 | 二八 | 二四 | 二 | 四○ |
| 仲買 | 五 | 五 | | |
| 寫眞師 | 二 | 二 | | |
| 彫刻師 | 四 | 三 | 二 | 一○ |
| 鍛冶職 | 八 | 八 | 二 | |
| 鍛甲職 | 一 | 一 | | |
| 時計商 | 四 | 四 | 二 | |
| 湯屋 | 六 | 六 | | |
| 牛乳、肉 | 九 | 八 | 一 | 一○ |
| 錻葉細工 | 七 | 六 | | 一○ |
| 支那貨物商 | 八 | 八 | 四 | |
| 洗濯、昭 | 一 | 一 | | |
| 古物雜貨 | 三 | 二 | 一 | 一○ |
| 土木請負 | 一 | 一 | | |
| 鍛冶 | 二 | 三 | | 一● |
| 燐寸製造 | 一 | 一 | | |
| 活版印刷 | 二 | 二 | | |
| 染物業 | 一 | 一 | | |
| 酒醬油業 | 一 | 一 | | |
| 煉瓦製造 | 一 | 一 | | |
| 能、麥酒 | 一 | 一 | | |
| 製革 | 一 | 一 | | |
| 鐵砲彈藥 | 一 | 一 | | |
| 石油雜貨 | 一 | 一 | | |

廣告

# 日本郵船株式會社
## 瀛船仁川出帆廣告

● 肥後丸　八百七十一噸　七月廿七日出港同廿六日入港釜山對州長崎馬關神戶行　船長　村井保
● 玄海丸　八百七十四噸　七月三十日出港同廿九日入港芝罘、天津行　船長　茂木鋼之
● 豐島丸　六百八十九噸　七月卅一日出港同三十日入港釜山下ノ關神戶横濱行　船長　井上治三郞
● 薩摩丸　千百五十七噸　七月廿四日入港四日出港馬關、香港行　船長　ソンナー
●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八月十三日入港四日出港長崎、釜山、元山、浦鹽行　船長　ウイルソン
● 顯益號
● 蒼龍號
●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 大阪商船株式會社瀛船仁川出帆廣告

● 信濃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 隅田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 二見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 筑後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 白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 木曾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本支部總代役場內東室ニ假事務所ヲ設ケ當分開務取扱候間此段御賛成諸君ニ謹告ス

鶴林契親團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支部

## ◎第三會正風集題及選者

入花ノ割合ハ一ヶ詠五錢ニ拾句付而拾五錢以八近組三錢

判者

豐秋園瑞穗宗匠樂撰

寄限　七月卅一日限リ八月一日

新設ニ付當分ハ入花一ヶ月分第三次組五寄進ヲ各次會無入花十句漢城新報五日分與句高ニ依リ撰定翌々日ノ當賣漢城新報ニ掲載ス詠草ハ發送ノ際明記アリ

投込所　漢城新報社 同館設

正風會

清水鶴月

# 帝國醫科大學模範藥局御用
# 甲斐國祝村甲斐産葡萄酒合資會社醸造 第一甲斐產葡萄酒

## ◎第一甲斐產葡萄酒ノ特効

葡萄酒ハ衛生上缺クベカラサル好飲料タルコトハ現大醫皆之レヲ許サヾルナシ然レドモ其ノ酒質ヲ選ムニ精良ナラサレハ却テ人体ヲ害スル所アリ故ニ第一甲斐産葡萄酒ハ特ニ酒質ニ注意ヲ加ヘタレハ衛生上特効アルコト實ニ神ノ如シ人若シ常ニ此第一甲斐産葡萄酒ヲ適宜ニ飲用シ善ク其量ヲ適スルニ於テハ血液ノ循環ヲ善クシ機能ノ調理ヲ得セシメ貧血ヲ補ヒ胃腸ノ営養ヲ助ケ精神ヲ爽快ニシ胃ヲ亦強健ナルヲ得テ消化力ヲ助クル為メ食慾ヲ喚起シ全身自ラ快活ヲ覺ユルコト妙ナリ如ナ適度ノ運動ヲ爲ス人若クハ身体ノ運動ノ乏シキ人若シクハ甲業研究ヲ從スル人ノ如キ常ニ此第一甲斐産葡萄酒ヲ少量宛用ヒテ怠ルコト無レハ其偉効ヲ奏スルコト疑ナシ又第一甲斐産葡萄酒ヲ醫用トスレハ其ク左ノ諸症ニ適ス

第壹　貧血病。其他諸々ノ原因ヨリ來ル貧血症。急性熱病後ノ回復期。英吉利病等ニ用ヒテ奏効アリ

第貳　小兒ノ吐瀉症。虎列剌。赤痢病。大出血病等ニテ心臓ノ機能将サニ過止セントスル危篤ノ症ニ服用セシムレハ特効ヲ奏ス

第參　熱病。脳膜炎病。腸窒扶斯。産褥熱。肺炎病及ヒ熱ノ劇スル肺病。腸胃衰弱等ノ諸病ニ用ヒテ大ニ効能アリ

朝鮮國一手販賣　京城洋酒店 限本商行

## ◎第一甲斐產葡萄酒에特效

이포도주란술이사름의우싱(싱명을호위합)하는게가히업지못할도혼술인즉온모든대방가의언덜이갑히아는바이니만날그술빗존밧탕이좃치아니하면엇지이것호리오도로여히가잇슬것슬말하지아니하여도알것시라이제일甲斐産葡萄酒는가장그빗는지료에정성을드러서그위싱에효험잇는것시신통하니사름이만날제갑비산포도쥬를상히마시되량에모게장복하면긔혈에순창며뇌기가됴흐며긔룡(機能)에됴리하가온전하며젼부보죡혼것슬보하괄슈에영양(榮養)을도으며졍신이기사러상쾌하고비위가또건장하야서식량이늘고졍신이스스로쾌활하기가젼녕하니이럼으로써슈고를파도이하던사름이누날마두겨즈에안젼서힘보를져게하던사름이누평싱에근골을슈고로이하던사름덜이거상에이第一甲斐産葡萄酒를먹으면이우히여러가지병에심히맛당하니후장복을하면그공이크게나기가외심업고또의원덜이今숩을떠러가지병에쓰니그쌔는병을이우리젹노라

第一은　한담병과　졍분부죡호병과　중병후소복과　英吉利病과

第二는　소아(小兒)의토사중과　괴질과　젹졀니질과　하혈중과　장부에병잇서졍신부죡혼병에공효가이하고

第三은　열병과　음회병과　부중과　번졀중과　폐경병과　널중으로폐경노막과　장부노막(腸胃)등병에공효가모다적지아니하오이다

朝鮮國京城　洋酒都賣　限本商行

鑄洞(쥬자골)　一手販賣

旅館

瑞

最新
最
一箱
一打
一個

酒

요혼 향이 하여 그위 마시 리하 이기 활하 즈에 룸얼 하니 러가

과 널중 적지

行

販賣

# 廣告

京城中部 長通坊 갓전골에 合社를 新設ᄒᆞ고 軍部 機器局에 鐵物과 石炭등 뉴를 進排ᄒᆞᄂᆞᆫ 商會라 各色 鐵物과 石炭등 뉴를 買用코져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이 會社로 오시요

昌興會社

# 弓術及ビ室内射的開場廣告

今般弓術及ビ室内射的場ヲ去ル十八日ヨリ大弓俱樂部内ニ開場仕候間御散歩ガテラ御來遊被下度伏シテ奉願候

七月二十日

大弓俱樂部内

中嶋

---

# 瑞西製

最新最良ナ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峴

龜屋分店

---

客室 旅館

京城泥峴

東京館

● 御取扱は親切を旨とす ●

● 御勘定は廉價を旨とす ●

● 位置便利 ●

---

本社朝鮮京城生命保險ノ義ハ自今其筋和泉商會内和居加一ニ於テ代理事務取扱可申候ニ付當地保險ノ申込並ニ掛金拂込等ハ今後都テ同店ヘ御申出可被成下此段廣告仕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區檜物町六番地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事務ノ義自今弊店ニ於テ取扱ヒ可申候ニ付此段廣告仕候也

追テ保險料金ノ義ハ各保險々面記載ノ期日ニ御拂込ミナサル方ハ本社規ノ通リ取計ヒ可申若シ右之候ニ付自今該期日ニハ必ズ弊店ヘ御拂込被成下候様保險ノ被保險人契約人各位ニ廣告仕置候也

京城代理店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和泉商會

織居加一

明治廿九年七月 日

---

# 一 朝鮮飴

肥後名産朝鮮飴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物ヤ比ノ朝鮮飴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味ノ美好ナル遠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且ツ夏日ヲ經ルト雖モ腐敗ノ患ナク殊ニ一箱ヲ贈ヘ置ケバ坐右ノ茶菓子トシ最上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ヲ購ヒ試用レ玉ハンコトヲ乞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

# 金銀各種眼鏡 ◎ パイレート

# 朝鮮國一手販賣

# 貞洞 辻商店 ◎ 泥峴 辻支店

● パイレート煙草ノ儀今般東京岩谷天狗村商店ト特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販賣ヲ相營ミ非常ノ勉强ヲ以ツテ賣弘メ候間續々御注文ノ程奉希望候

● 南ホ比他弊店販賣ノ煙草

マンドレス リンチモンド ヲスリーカス ルビス

トレートカツトハチミカメオカルフ

ナヲルキアルイン ブンスカロリナビンヘッ

ドヲスキトカポブキンゲフンレヤ

● 金銀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ニシテ今般新荷來着仕リ候ニ付御愛求ノ程奉願上候

● 此他弊店本業ノ雜貨澤山所蓄仕リ候ニ付御來臨御求奉願候

---

# 生魚 生肉 に優る 夏の 衛生 料理

● 飯蛸 ● あま鯛 ● いわし ● さ煮 ● 佃た ● 松の ● 竹の子 ● 伽羅ふき

● 茄子辛子漬 ● 八千代卷 ● 時鳥卷 ● 時雨紫蚺 ● 海苔大和煮 ● 味付海苔 ● 福神漬

● 其他罐詰各種

京城泥峴

龜屋分店

---

# 獵銃

西洋新式銃

元込連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附

和泉長漢履

護漢履

西洋服各種

帽子

荷着

廣告

屬品

商會

---

弊館御宿泊料之儀左ノ通リ相定メ極々丁寧親切ニ勉强仕候間倍舊御愛顧奉願候

一 上等 壹圓

一 中等 七十錢

一 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三十八號

田原旅館

---

弊店儀今般當地ニ於テ販賣相始メ候條多少ニ不拘御愛求被下度此段伏シテ奉願候也

泥峴第三拾八號

阿津阪商店


新聞定價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四拾五錢

廣告料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大錢但し行數及回數により割引仕候合は□□前金にて同斷受候事

發行兼印刷人 菊池謙讓

編輯人 島田□□

發行所 朝鮮國京城南部會□坊□□□

漢城新報社

(明治廿八年三月六日遞信省認可) 大日本明治二十九年七月廿四日(金曜日) 第二百五十七號 大朝鮮建陽元年七月廿四日 (明治廿九年一月二日農商工部認可) (一)

# 漢城新報

隔日發刊

## 社告

本社植字生中數名病氣に罹り人手俄かに不足致し候處當地の事とて臨時雇ひ入るべき者もなく更らに紙之本日丈けは不得已全紙二ページの新聞發兌仕候段不惡御諒恕可被下候

七月廿四日 漢城新報社

愛讀者諸君

## 雜報

●原公使外部に赴かる 原公使は國分通譯官を從へ昨日午前十一時頃外部に到り大臣李完用氏に面會し何事か談ずる所ありたり

●原公使の夜會 再昨夜夜會の景況は已に前號に記せしが當夜外國婦人の來會せし者は露公使の夫人(同公使は病氣の爲め欠席)米國公使及同書記官の夫人其他數名にして原公使令夫人には如才なく之を待遇されたるより何れも殊の外の滿足の樣子なりしと又當夜は當地の婦人十數名を呼び朝鮮樂曲を奏し又日本女子の手踊を催す杯中々に賑はしく極めて和氣靄々たる中に一同十二分の歡を盡くし夜半十二時過ぎに至て退散せり

一昨日は午后八時より我守備隊及び其他部の各將校、公使館領事館の各高等官及び其夫人等都合五十餘名を招き之を開かれ[illegible]の物は前夜通りにして門前門內燦爛化の如くに吊るし亦た既報として朝鮮音樂を催さるゝ等餘程の盛會なりし

昨日は午后七時より公使館領事館員、朝鮮政府顧問官、警官、居留民總代、商業會議所議員、同銀行支配人、小學校教員、數名の夫人、並に平壤出張[illegible]都合百餘名を招き又外部顧問にて夜會を開かれ前會の如く朝鮮音樂等ありて非常の盛會を極めたり

●外部大臣の延突 外部大臣李完用氏は此程運動の急を輟めしたりとの噂有り

●沈度支判の一因 宮內府官吏俸給延滯のことは前項記載の如し或は云ふ宮內府今月の俸給中從來は度支部顧問官ブラウン氏の允諾を得ずして前月已に成る都合に支出せしが本月も成規の手續を經ずして支出の事に流用支出せしが本月も成規の手續を經ずして取り立てたるに此大次の俸給支出を請求せしに沈度支は斷然之を拒絕して支出せしむることを承諾せず內府より沈度支に向ひ矢の如くに之れが請求を爲し來るも沈度支は斷めより此の事件を知れるを以つてなか／＼承諾するを承諾せず又外にブラウン氏にも事情を打ち明けて顧問外出[illegible]

[illegible]米取方の間に救援みとなり頗る困難の色ありし由過日來氏が病と稱して引籠るに至りしは抑も右の事情より三十六計の上々策を回らしたるものならんと云ふものあり如何にや

●俸給延滯(宮內府) 當節宮內府官吏は何故にや前月より俸給を受くるを得ず何れも不平たらぐありと

●山林税賦課 の事に就ては曾て記する所ありしが過般六大臣の府大門內[illegible]に命せし度支部大臣沈相薰氏は訓令を發し山林税は一昨年改革以前の例に依つて徵收し之れを三分して一分は度支部に上納し、一分は六大臣の[illegible]に充て、他の一分は徵收の費用に充つべしとの事を指令したりと云ふ

●地方山林税 此山林税賦課のことは前項記載の如くなるが此際之れを地方にも及ぼし各地方の開市場及び港口より山林税を徵收することゝし凡べて一昨年改革以前の如くし[illegible]工部に於て之れを管轄するならんとの噂あり

●[illegible]氏の處刑 [illegible]氏は前號記載の如く[illegible]一時[illegible]に處せられた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氏は[illegible]の人かり始んど日に一丁宛[illegible]を解せるの故を以つて[illegible]せられたるなりとか

●[illegible] 同所は[illegible]中なりしが一昨日にて完結し昨日より休業を爲せり卒業生は三十五名にして內[illegible]生三名は一昨日[illegible]に採用せられ[illegible]ある[illegible]採用せらるべき筈なりと

●江陵の賊 江陵府[illegible]より[illegible]にしたる報告に依れば同地の賊は[illegible]の近づけるを聞き[illegible]に遁逃したる[illegible]

●[illegible] [illegible]の[illegible]數千[illegible]に[illegible]ありて[illegible]を[illegible]し[illegible]の[illegible]めたりと云ふ

●[illegible]山郡守に[illegible] 前府の[illegible]數千[illegible]郡山郡に立籠り[illegible]め[illegible]る山[illegible]に[illegible]りて[illegible]動し居れりと

●[illegible]及[illegible] 谷山[illegible]氏は此程[illegible]の爲めに[illegible]せられ、又た[illegible]所員として[illegible]へて[illegible]に向ひたる內部主事[illegible]氏は[illegible]ぜる[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り先きに[illegible]の[illegible]なり[illegible]一[illegible]を[illegible]して民怨を受くること多かりし由なれば右[illegible]は此等の爲めならんと云ふ

●[illegible] 同[illegible]に昨日[illegible]有[illegible]もありしも[illegible]以つて之れに[illegible]の上[illegible]を[illegible]を行ふ由

●[illegible] 聞く[illegible]に就ては[illegible]と云ひ[illegible]は[illegible]を[illegible]へて大く[illegible]ならざる[illegible]の[illegible]たる所あり

夫れ區々たる一小天地分派反眼同士かめてを嫌ふとは抑も何事ぞ我が同胞諸氏が其の愛すべき故國を離れ波濤萬里を越へ以つて此地に來たりしは亦た抑も何の目的を鈒も紙き兒數を渡せんより一致協和、商務挽回を謀するこそ諸氏今日の急務なれ

●元山港の本邦人戶口 去月末日の調査に依れば元山港在留本邦人の數は男九百一人、女五百十一人、合計千四百十二人、戶數三百五にして之れを前月に比すれば人口に二十三戶數に十七を增せり

●風聲鶴唳 一昨夜狸峴公使館の附近に於て何か砲聲らしき物音したりとかにて當夜附近の町人は上を下へと俄かに大騷動をおこし各處の警兵を配置にし巡兵の數を增し又た露水兵の附近を巡視するものもありし由併し何事もなかりしは幸ひなり

●白晝掠天 去る二十一日の夜、白晝天の南北に亘りしとかにて一部の韓人は必定亂亡の前兆なるべしとて大に恐怖し居る由來月皆既日蝕の當日には其の恐怖如何あるべき

●前[illegible]氏の盜難 去日前の事なりとか十餘名の賊[illegible]工部大臣[illegible]氏の家に忍び入り數多の衣服家財等を盜み去りしと云ふ

●小兒の毆盜 此程稻田助之十年なる者南大門通りなる某婦人旅店に投宿中所持の銀貨若干紛失せしより先づ旅店の家族に就て吟味せしに其家の小童(十五歲)の所爲なりしこと判明せしを以つて其旨我が領事館に屆け出で領事館にては右の小童を召喚し所取したる金員を稻田に返戾せしめ小童のことも人へ渡ちに之れか放免したりと云ふ

●除雨三十六日 本年の梅雨は去月七日より降り始めて去る十九日に至る四十三日の永きに亘り其間晴天は七日間快晴は[illegible]日有りしに過ぎず曇天若くは雨天の日を算すれば正に三十六日あり

●衞生に注意すべし 永かりし雨天の後引續き此の暑さにて梅雨中の[illegible]と[illegible]に多少の病人あり從て[illegible]も時候病治療の[illegible]に衞生に注意あらまほし

●正誤 前々號[illegible]記載[illegible]中の[illegible]の[illegible]を脫せり

## 官報抄錄

敍任及辭令

依願免本官 光陽郡守 尹一求

任光陽郡守敍判任官八等 迎日郡守 黃鍾秀

任[illegible]郡守敍判任官八等 [illegible]郡守 金[illegible]

任[illegible]郡守敍判任官八等 [illegible]郡守 李[illegible]用

任[illegible]郡守敍判任官八等 成[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以上七月十七日 內部主事 金明遠 丁[illegible]

敍判任官五等

以上七月十八日

命大臣官房事務 度支部主事 李在正

任內部 主事 李[illegible]

補度支部第一課第一大隊附 主事 李[illegible]

[illegible]第五大隊附 參尉 林[illegible]相

以上七月二十日

任外國語學校副校官敍判任官六等 [illegible]

給三級俸 內[illegible]局長 李[illegible]

以上七月廿一日

社告 本社植字生이 [illegible] 장식이 도업스 紙二면로 [illegible] 주시믈 七月 愛[illegible]

● 일본공[illegible] 일스시 용씨를 을ᄒᆞ셧 [illegible]

● 지나간 호에、[illegible] 나오셧 부인과 인、기타 인은、극 악을ᄒᆞ [illegible] 다가 [illegible]

● 일은、오 [illegible]、전신부 [illegible]、그부인 베풀고、 됴션정부 타 紳商等 지닉더 [illegible] 之事 는、[illegible]

●沈度支[illegible] 훈말에、 고문관 고、지난 에돈으로 [illegible] ᄒᆞ든돈으 봉급이、 궁니부 써、궁니 구、그돈 로、심대 아니간 수정을 [illegible] 내여달 시다니、 ᄒᆞ논임은 [illegible]

同士のめに お我の没す つて此地に の紙を見数 と詳すると この調査に 百一人、 戸数三百 に二十三

の附近に にて放度 報をおし し又た錯 由併し何 白叙天の 迩定錯乱 由来月皆 べき りとか十 の家又忍 しと云ふ る済南大 の銀貨若 と外来せ しことを判 け川で翻 たる金員 ばらに之

月七日よ 三日の木 りしに過 には正に の報句取 頃ふる多 民稍油斯 [illegible]

尹一求 姜益秀 金錫鉉 朴義用 成周綱 李重夏 金永鎬 丁志鉉 李在正 李龍演 李龍演 林演相 韓昌鎬 李鳳春

# 社告

本社排字生속에서、수명이病이나서、장식이부족ᄒᆞᆫᄃᆡ、님시에雇入ᄒᆞᆯ슈도업스므로、부득이ᄒᆞ야、본일만은紙二頁로ᄒᆞ오니、아모ᄶᅩ록、용서ᄒᆞ야주시믈ᄇᆞ라압

七月二十四日 漢城新報社

愛讀者諸君

## 雜報

●駐韓日本公使外部 일본공ᄉᆞ논國分象역관을다리고、작일ᄉᆞ시쯤에、외부로가서、대신니완용씨를친면ᄒᆞ야、무ᄉᆞᆫ일인지、외논을ᄒᆞ셧다더라

●日館之夜會 지나간이십일일밤에 [illegible]은、전호에、긔지ᄒᆞ얏거니와、그날밤에、나오셧다논부인은、아라사공ᄉᆞ의부인과 미국공ᄉᆞ、급참서관의낭부인、기타수명이신ᄃᆡ、일본공ᄉᆞ의부인은、극진히、잘ᄃᆡ졉ᄒᆞ야、죠션풍악을ᄒᆞ며、또인본[illegible]을、붓니셔춤츄여[illegible]으로ᄒᆞ니、손님네가、잘、노다가[illegible]쯤에[illegible]ᄒᆞ셧더라、또지작일은、오후여덜시붓터、일본슈비ᄃᆡ、진신부의[illegible]와[illegible]외고등관과、그부인오십여명을청ᄒᆞ야、[illegible]을베풀고、작일밤은、공령ᄉᆞ관권파、됴션정부고문관과、[illegible]파、기라[illegible]을、빈여명을、청ᄒᆞ야、[illegible]을지닛더라

●政府顧問[illegible]之一因 [illegible]之事논、범항에、긔록ᄒᆞ논더로、또、ᄒᆞᆫ말에、궁니부[illegible]一萬元은、그「고문관브라운」氏의[illegible]을엇지못ᄒᆞ고、지난달에、ᄒᆞᆫ논슈업시、예산외에돈으로、지급ᄒᆞ얏논ᄃᆡ、본월도[illegible]ᄒᆞᆫ그일이、몃칠안남고、이[illegible]ᄒᆞ든돈을쓸기논길이업서서、이달봉급이、나논ᄃᆡ업서、그러ᄒᆞᆫ다니、궁니부[illegible]에부족되엿다논일로써、궁니부에서논、심대신더러、찻구、그돈을지촉ᄒᆞ야、[illegible]ᄒᆞ러오므로、심대신은、아이붓허、이ᄉᆞ경을아니간을다시「브라운」氏더러、이ᄉᆞ졍을외논ᄒᆞ야、예산외에돈으로、내여달랄슈업고、진퇴유곡ᄒᆞ야계시다니、항일리로氏가、청병ᄒᆞ야[illegible]ᄒᆞ논일은、아마、이러ᄒᆞᆫᄉᆞ졈으로써

三十六外에、싱각ᄒᆞ든[illegible]이리라ᄒᆞ논사ᄅᆞᆷ이잇스되、엇더ᄒᆞᆫ넌지요

●宮內府[illegible] 먼졋달에도、궁니부의서、월급을、엇던、사ᄅᆞᆷ이건물ᄒᆞ고、다라나서、그리ᄒᆞᆫ다구、ᄒᆞ고、돈이、밋쳐、되지못ᄒᆞ여、그리ᄒᆞᆫ다ᄒᆞ나、월급을、제ᄯᅢ에、타지못ᄒᆞ엿다ᄒᆞ더니、이번에 도드르니、궁니부월급이、필경、셔에 믹지、못할듯ᄒᆞ여서、미우염녀가、만타ᄒᆞ더라

●仁川府暴動之顚末

지나간십구일에、仁川사논[illegible]人이、수빅명이、거긔[illegible]으로[illegible]ᄒᆞ야[illegible]ᄒᆞ얏다논일은、젼호지상에、긔지ᄒᆞ얏논ᄃᆡ、시방、그[illegible]이란말을、조셰히、그ᄌᆞ지니、[illegible]에사논、부산인[illegible](일본사ᄅᆞᆷ)、상업으로ᄒᆞᆷ)이란사ᄅᆞᆷ이잇서、지나간십칠일에、부부ㅣ가、싸홈을ᄒᆞ야、그[illegible]을박ᄃᆡᄒᆞᆷ으로、그[illegible]가、인쳔영문으로、[illegible]ᄒᆞ얏스ᄆᆡ、[illegible]에서、순검[illegible]、[illegible]의두명이가서、니범인을、귀유ᄒᆞᆫᄃᆡ、니가가、ᄭᅩᆺ안[illegible]분아니라、오히려[illegible]을니며、욕을ᄒᆞ기로、순검최가가[illegible]케ᄒᆞ자고[illegible]으로、니범언의[illegible]、ᄯᅡ려서、그냥갓더니、그[illegible]ᄒᆞᆷ이、너무、심ᄒᆞ든ᄯᅢ문에、니가가、크게상ᄒᆞ야、고상히아러[illegible]저녁ᄯᅢ에죽엇더라、이러ᄒᆞᆫᄃᆡ、니가논、으우가、세시잇서셔、형의[illegible]ᄒᆞᆫ거슬、ᄎᆞ마[illegible]치못ᄒᆞ야、친ᄒᆞᆫ부산사ᄅᆞᆷ더러、이외논을ᄒᆞ야[illegible]、거긔사논부산인더러뵈니、응ᄒᆞ야오느니、삼ᄇᆡᆨ여명이뫼야[illegible]구일아춤에、니범언외[illegible]들에고[illegible]으로가서、[illegible]로[illegible]야、곳、관찰ᄉᆞ서리[illegible]을잡아、이니범언을죽이든、순검최가를내여、우리보논압ᄯᅴ셔、맛당히、쳐벌을ᄒᆞ라고、야단을치논ᄃᆡ、서리관찰ᄉᆞ임가가ᄒᆞ논말이、순검을、쳐벌ᄒᆞ기논국법으로、상당히、쳐분ᄒᆞᆯ거시라고、[illegible]어주지아니ᄒᆞ므로、그ᄶᅩᆨ민은、크게[illegible]ᄒᆞ야、관찰ᄉᆞ게[illegible]을ᄒᆞ며、또순검김경하(순검최가의ᄋᆞ우ㅣ오、처음에최가ᄒᆞ고、ᄒᆞᆷ게、니범언집에갓든사ᄅᆞᆷ)을잡어、관찰ᄉᆞ[illegible]으로、ᄭᅳᆯ어와서、[illegible]ᄒᆞ며、또[illegible]ᄒᆞ야[illegible]케ᄒᆞ니、다른춍순이나

순검들은、다 도망ᄒᆞ야버리고、서리관찰ᄉᆞ논、도제에、힘이당ᄒᆞᆯ슈업고、진무ᄒᆞᆯ길이업고、또자긔몸도위티ᄒᆞᆫ지경으로、되얏스므로、그만하[illegible]를、일본녕ᄉᆞ관으로、보니여、그보호를[illegible]ᄒᆞ더니、日館의서[illegible]와、순사를보니여、ᄒᆞᆫ편은、관찰ᄉᆞ[illegible]를、보호ᄒᆞ며、ᄒᆞᆫ편은、폭민을、기유ᄒᆞ야[illegible]케ᄒᆞ다、그날저녁ᄯᅢ에、시서라관찰ᄉᆞ논、폭민을[illegible]ᄒᆞ야[illegible]되、니범언을[illegible]ᄒᆞ야죽이든、순검최순호논、[illegible]ᄒᆞ야、쳐단ᄒᆞ리라、고[illegible]을내엿스ᄆᆡ、계우、폭민들은、점ᄎᆞ로[illegible]ᄒᆞ얏논ᄃᆡ、또그날밤에、[illegible]으로[illegible]ᄒᆞ야、송화불ᄯᅥ[illegible]을가저가서[illegible]ᄒᆞᆫ모양이잇슨즉、서라관찰ᄉᆞ가、또다시、그보호ᄒᆞᆷ을、일본녕ᄉᆞ관으로청ᄒᆞ미、日館의서、[illegible]一名[illegible]을내여、폭민을기유도ᄒᆞ며、ᄯᅩ서리관찰ᄉᆞ게논、[illegible]을、엄히[illegible]ᄒᆞ게노라고、언약케ᄒᆞ야、[illegible]일로되지안ᄒᆞ엿더라[illegible]ᄒᆞ야、그[illegible]논、젼에、황히도로가서、부지거처뫼、일인[illegible]을찻게、일본순ᄉᆞᄒᆞ고갓치、동지방으로、갓슨즉、그최가를[illegible]로、순검네명을、동지방으로[illegible]ᄒᆞ고、다른、총순ᄒᆞᆫ명을、비ᄒᆞ여、슈로로、히쥬로보닛더라、이러ᄒᆞᆫᄃᆡ、폭민은、순검최가의[illegible]을보논ᄯᅢ셔지、이[illegible]에류ᄒᆞ야잇노라ᄒᆞ며、또그최가가、황히도로갓다논말은、우리을속기자논말이라고ᄒᆞ야、그[illegible]에도、또다시[illegible]ᄒᆞ얏다더니、거긔상고가、십수명이、구ᄉᆞ에계실엇서、관찰ᄉᆞ를[illegible]안ᄒᆞ겟다고[illegible]을ᄒᆞ며、또최가를、쳐벌ᄒᆞ며셔지[illegible]일에、십오륙명씩[illegible]을、서리관찰ᄉᆞ[illegible]、내여두게쥬선을ᄒᆞ야、다른사ᄅᆞᆷ들은다[illegible]게되얏다더라、[illegible]ᄒᆞ니、니범언의[illegible]논、순검최순호고[illegible]ᄒᆞ야잇셧다논일로、잡혀[illegible]을ᄒᆞ여잇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니부쥬ᄉᆞ、염셔하([illegible])씨가、[illegible]지 출위 젼의로、나려갈시、[illegible]인들、을다리고강능셩의일이러더니、[illegible]사ᄅᆞᆷ이、합게비도외게、화를당ᄒᆞ엿다、ᄒᆞ논ᄃᆡ、그본은、본리강원도、원쥬경나([illegible])로、십이년을、임도게권세를부리기로、미움밧은다가、만혼고로、우히 엿다더라

## 雜報

●總理大臣辭退之說 일젼에、총리대신、윤용션씨가、대군쥬폐하씌、부득불、환어ᄒᆞ셔야、국ᄉᆞ가、된다고、연쥬ᄒᆞ엿다ᄒᆞ는ᄃᆡ、이말이、올흔지、죵셜인지、아지못ᄒᆞᆸ니라

●恩施 쥬미공사、니범진씨、츌발ᄒᆞᆯᄯᅢ에、아관에셔하직、ᄒᆞ는ᄃᆡ、대군쥬폐하게셔、ᄃᆡ단이창연히、녀기샤、슈만리히상와、왕ᄂᆡᄒᆞ는、고ᄅᆞᆯ위로ᄒᆞ시는、쳐분이、지극히、관곡ᄒᆞ샤、너ᄊᆡ가곡읍ᄒᆞ며샤、온ᄒᆞ는ᄃᆡ、시립ᄒᆞᆫ사람들이、아니비감ᄒᆞ여ᄒᆞ나니읍는지라、동ᄊᆡ가、결연이하직ᄒᆞ고、나와ᄊᆡ나、이러ᄒᆞᆫ은춍은세상의드믈다더라

●獨立協會議會 去十九日에 다시 獨立館樓上에셔、미외ᄒᆞ얏더라、지나간십팔일에、한평각에셔、의논ᄒᆞ얏슴으며는、獨立協會입을의논ᄒᆞ얏고、十九日은、독립문을짓는일로、의논ᄒᆞ얏다는ᄃᆡ、그일을관계ᄒᆞᆫ에합을들으니、同協會가ᄒᆞ는事業에、세가지잇셔、一曰獨立館二曰獨立園三曰獨立門인ᄃᆡ、독립관은、ᄉᆞ방의모화관을、슈리ᄒᆞ야ᄉᆞ고、독립원은、그집과、그문ᄉᆞ이에나무를다가셔ᄒᆞ자는ᄃᆡ、그소비에 은、그일의設計도아니되엿는ᄃᆡ、미리아는슈업다더라、而ᄒᆞ야、오늘ᄭᆞ지에、유지자가、捐出ᄒᆞ얏든돈이、일쳔여원이라더라

●俄館驚動 지작일밤즁의、아관근쳐의셔、쥴지에총쇼리가、나던지라、아관즁이、일시에경동이、되여셔、아병을신칙ᄒᆞ여환위를、시키고、병졍을단속ᄒᆞ여、각쳐문의、파슈를엄졀이시키고、밤을지ᄂᆡ엿다더라

●慶州匪徒之暴擾 경쥬비도의폭요가、홍히로모와셔、다시일을ᄒᆞᆫ잔다는말은、일젼신문지에、긔지ᄒᆞ얏거니와、갓다온긔별을들으니、에도、또폭도가붓긔ᄒᆞ야、그무읍의군슈가、다도망ᄒᆞ여官兵이잇는영문에숨어잇고、경쥬에셔、쫏ᄎᆞ오든관병은、임외홍히로드러와셔、아직 ᄒᆞ마련이못되고、시방장챳그죠치를ᄒᆞ야잇다더라

●茂朱郡報 슈일젼의、무쥬군슈가、군부의、보고를ᄒᆞ엿는ᄃᆡ、영남비도근만명이、본군경셩산셩의、둔취ᄒᆞ여셔、군쳐의포략이、무쌍ᄒᆞ고、흉쥰ᄒᆞᆫ군ᄉᆞ와、공거ᄒᆞ여셔、져당ᄒᆞᆯ、군ᄉᆞ이엄는고로、경병을、쳥ᄒᆞ엿다더라

●谷山郡守之被害 곡산군슈에、니민하(李民夏)씨가、비도의게、화를당ᄒᆞ엿다더라

●仁川港軍艦之出入 米國二等巡洋艦데도레도號(二千噸、砲十六門)는、지작일오후네시에、들러오고、아라사국軍艦오도와조니號(千五百噸、砲十五門)는、지작일오젼아홉시에、드러오고、미국軍艦요그다운號는、지작일오젼열시반에、일본장긔로、향ᄒᆞ야떠나고、또船上에、니범진씨가乘便ᄒᆞ든병션은、미국병션요그다운號라ᄒᆞ든말은、비아르號에乘便이니라

##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仁川出張所 廣告

●肥後丸 七月廿七日出港同廿六日入港 釜山對州長崎馬關神戶行 八百六十一噸 船長 村井保

●玄海丸 七月三十日出港同廿九日入港 芝罘、天津行 八百七十四噸 船長 茂木關之

●豐島丸 七月卅一日出港同三十日入港 釜山、下ノ關、神戶行 六百八十九噸 船長 井上辨三郎

●薩摩丸 七月廿四日入港同日出港 馬關、香港行 千四百五十七噸 船長 ソンナー

●長門丸 八月十三日入港同日出港 長崎、釜山、元山、浦鹽行 千四百四十九噸 船長 ウイルソン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株式會社 仁川出張所廣告

●信濃川丸 七月 日入港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隅田川丸 七月 日入港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二見丸 七月 日入港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筑後川丸 七月 日入港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白川丸 七月 日入港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木曾川丸 七月 日入港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廣告

京城中部長通坊갓젼골에會社를新設ᄒᆞ고京畿綿紬各部에物과石炭등뉴를進排ᄒᆞ는商會라各色物과石炭등뉴를貿用코져ᄒᆞ는이는이會社로오시요

昌興會社

本社朝鮮京城生命保險ノ義ハ自今長崎和泉商會內織居加一ニ於テ代理事務取扱可申候ニ付當地保險ノ申込、保險料拂込等ハ今後都ヘテ同店ヘ御申出可被成下此段廣告仕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

日本東京日本橋區檜物町六番地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事務ノ義自今弊店ニ於テ取扱ヒ可申候ニ付此段廣告仕候也

追テ保險料金ノ義ハ各保險々面記載ノ期日ニ御拂込ミナキ方ハ本社規ノ通リ取計ヒ可申筈ニ付之候ニ付自今該期日ニハ必ラス弊店ヘ御拂込被成下候樣被保險人契約人各位ニ廣告仕置候也

明治廿九年七月 日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代理店 和泉商會 織居加一

一草鞋(木綿、麻)(井ニ藁製)一萬足以上ハ每百足代價 百足以上每足代價五錢ノ割

一日本笠 百枚以上每枚代價五錢ノ割

一荷車 每輛代價五圓

一薪 百貫目ニ付代價四圓

一木炭 百貫目ニ付代價六圓

右御入用ノ方ハ御買求被下度候也

京城學校下 北川醇

揚弓及ビ室內射的 開場廣告

今般揚弓及ビ室內射的場ヲ去ル十八日ヨリ大弓俱樂部內ニ開場仕候間御遊步旁御來臨被下度伏シテ奉願候

七月二十日 韓洲大弓俱樂部內 中嶋

旅館 京城 東京館

●御座敷は廣闊を旨とす● 客室清潔

●御料理は高尚を旨とす● 設備便利

瑞 最新最良 一箱 一打 一個

一肥後名產朝 …

◎第二入花豐秋園 …

投込所

スコッレー …

支炎 虚弱 …

經育製 及バ 日本 朝鮮京 …

取扱所

會社

會社

加一

醇

告

嶋

館

●位置便利●

---

一　朝鮮飴

一 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名声朝鮮飴ハ肥後國ノ名産ニアラズ抑モ此ノ朝鮮飴ハ肥後國ノ及ブ所ニアラズ味ノ美好ナル退ク能ハズ且ツ幾日ヲ經ルト雖モ腐敗ノ患無ク殊ニ一箱ヲ以テ坐右ノ茶菓子トシ最上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ヲ購ヒ試用アランコトヲ翼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

瑞西製

最新
最良ナ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　拾　錢

京城泥峴

龜屋分店

---

◎第三會正風集題

入花（拾句壹組五錢但シ八錢組三錢）判者

豐秋園瑞穗宗匠樂撰

漢城新報二ヶ月分掲載全一ヶ月分第三回組五ヶ月分新報各六合無入花十錢漢城新報五日分迄何時ニ依リ寄限七月卅一日限八月一日ノ増役撰定

漢城新報ハ明治廿九年八月一日ヨリ漢城新報ニ掲載通知可致候

投込所

漢城新報社編輯局
主任　清水鳴月

正風會

---

◎漢洋方
和漢洋藥廣賣

各位ノ御愛顧ニ依テ諸藥品増シ漢洋西藥局
調劑一切勉強仕候間不拘多少ニ不限
御注文御用ノ程伏テ希望仕候

日本大坂
高麗橋通り
町壹丁目

成尾安五郎

---

スコット乳剤ハ肝油ト亜燐酸石灰及ソーダヲ配合シタル
レーフル油ニシテ肝油ノ牛乳ニ勝ル如キ効能ヲ有ス滋養物ニシテ其ノ効驗ノ勝ルハ衆人ノ知ル所ナリ
支炎、瘰癧及喉咽病、肺病、氣管
虚弱の小兒等ニハ殊ニ効驗アリ
化ヲ助ケ行クモノナリ
スコット乳剤の右ニ出ルモノナシ既ニ高名ナル醫家モ實驗ヲ經テ之ヲ賞用シタル處ナレバ必ズ御用ヒアランコトヲ
全國到ル處ノ藥舗ニテ發賣ス御注文ノ節ハ下記ノ特約販賣所ヘ御問合アレ

紐育製藥舗　スコット

日本特約販賣店
及バウン敬白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泥峴本商行

---

パイレート◎金銀各種眼鏡

朝鮮國一手販賣

貞洞　辻商店◎泥峴　辻支店

◎パイレート煙草ノ儀今般東京村井兄弟商會ヨリ輸入元木村商店ト特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販賣ヲ相營ミ非常ノ勉強ヲ以ツテ賣弘メ候間續々御注文ノ程奉希望候

附而此他弊店販賣ノ煙草

◎フレンドレスクリンチモンドヂスリーカスルヅス
トレートカットヘチフミーガメオクカルフ
ナフルキャヴルビーインブレスクロリナピンヘン
ドクスキドカボタキングブッツシャ

◎金銀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ニシテ今般特別格安ニ仕リ候ニ付御愛求ノ程奉願上候

◎此他弊店本業ノ雜貨洋山折着仕リ候ニ付御願求ノ程奉願候

---

生魚
生肉
に優
さる
夏の
衛生
料理

●飯章魚
●あま鯛
●いわし
●さけ
●佃煮
●松たけ
●竹の子
●伽羅ふき

●茄子辛子漬
●八千代巻
●時鳥巻
●時雨紫艸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神漬
●其他鑵詰各種

京城泥峴
龜屋分店

---

獵銃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附屬品

廣告

荷着

獵銃

和漢履
長履

泉商會

西洋服各種
帽子

---

弊館御宿泊料之儀左ノ通リ相定メ候々丁寧親切ヲ旨トシ御待遇可致候間陸續御愛顧奉希候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三十八號

田原旅館

---

弊店儀今般當地ヘ支店開設ヲ相始メ候ニ付多少ニ限ラズ御愛求被下度此段伏テ奉願候也

泥峴第三拾貳號

阿津阪商店

---


新聞定價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四拾五錢

廣告料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六錢但シ行數及回數ニヨリ割引仕候ニ付御問合ニ可申候事

發行兼印刷人　荏林僅人
編輯人　島田雄人

朝鮮國京城南部會賢坊銅峴

發行所　漢城新報社

明治廿八年三月六日 遞信省認可
大日本明治二十九年七月廿六日（日曜日） 第二百五十八號 大朝鮮開國五百五年七月廿六日 （建陽元年一月廿二日 農商工部認可） （一）

# 漢城新報

隔日發刊

不從前布告第一號にて頒行せる地方制度官制を一部…二府の外…[illegible]…漢城、仁川、…[illegible]…、公州、全州、…[illegible]…州、…[illegible]

## 告愛讀者諸君

本社職工生數名の病氣未だ快癒不致候に付當分は本日より不得已全紙二ページの頭の發行仕候段不惡御諒恕可被下候

七月廿六日 漢城新報社

## 雜報

●[illegible]に付ての御慰問

大君主陛下には我邦三陸大海嘯の狀况を聞こし召され當時駐日公使李夏榮氏を經て畏みなる御慰問狀を送り給ひ我天皇陛下には深く其御厚意に感じ給ひしと洩れ承りぬ

●今昔の感 想ふ昔し大院君が閔の族類を誅殺して再たび天下の政柄を掌握せんと欲し五千餘名の叛兵を煽動し闕を犯し閔氏の邸を攻め下都監を圍み我が公使館を襲ひしは過ぐる明治十五年七月二十三日にして即ち今年の今月の出來事なり當時の我が日本公使花房義質氏は身を以て免れ遂ひに彼我兩國際上の一大葛藤を生じ今日の我が公使[illegible]氏は當夜[illegible]の大任を有ふせんとて[illegible]をして[illegible]今日の[illegible]を化す時勢の變遷[illegible]あらずや

●電信線引き渡し 過ぐる明治二十七年日清戰爭起りし時より朝鮮政府と協商の上我日本軍隊にて取り扱ひ居りし京城義州間及び京城元山間の電信線は今般我兵站部撤去と共に朝鮮政府へ引き渡すこととなり居りしが去る十七日に至り我公使[illegible]文を以て愈々該二線の引き渡しを了せり

●地方制度頒布 [illegible]十三府[illegible]大臣協辨等は[illegible]く內部に會し地方制度頒布[illegible]の事に就き協議する所ありし由尤も[illegible]日に[illegible]

●[illegible]百出し決定を見ざりしと云ふ

●[illegible]氏 去月渡來し仁川[illegible]に滯在中なりし[illegible]氏は數日前入京せしが二三日間滯在の後[illegible]に下仁せりと云ふ氏は一時[illegible]の爲め渡韓したる者なり[illegible]されありたるも在京中は[illegible]に[illegible]したることもなかりし由

●[illegible] 久しく[illegible]たる[illegible]は[illegible]にや一[illegible]より[illegible]し小[illegible]を[illegible]し居れり又此[illegible]

●[illegible]を求む [illegible]は[illegible]江原道各地方[illegible]の中心と稱せられ[illegible]せられ居るを以て[illegible]へんと欲する[illegible]は[illegible]て[illegible]部は同地方の人民に對し[illegible]は四百餘名[illegible]へ[illegible]

その[illegible]せし由

●公州附近の賊 [illegible]より[illegible]だしき[illegible]の[illegible]て去月來[illegible]の間一時[illegible]の影を[illegible]し地方の[illegible]は[illegible]に於ける[illegible]の如く久々我の[illegible]今の[illegible]と我に[illegible]の勢を[illegible]し[illegible]の[illegible]如し別項に記せる[illegible]下の如き又た公州附近即ち忠清、全羅、慶尚三道の[illegible]地方の如き皆な[illegible]り公州[illegible]の[illegible]に依れば[illegible]下の[illegible]は今や[illegible]の[illegible]し[illegible]、[illegible]、[illegible]殺[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び、居るに[illegible]なく[illegible]に[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居ると以つて[illegible]一[illegible]の[illegible]此等の地方へ派遣せりと云ふ

●[illegible]の賊 [illegible]下の[illegible]は此頃に至り[illegible]を[illegible]し又[illegible]の[illegible]を[illegible]たる[illegible]の良人を[illegible]し[illegible]らざるなき[illegible]たりと云ふ[illegible]下に[illegible]を[illegible]しに[illegible]一[illegible]の[illegible]に[illegible]

●[illegible]せらる [illegible]

●[illegible]の入港 [illegible]

[illegible]

本社職工生數名…[illegible]…紙二頁로…[illegible]…

七月二十[illegible]

愛讀[illegible]

[illegible]

●內部命令 [illegible]

●政府更迭 [illegible]

●各地方[illegible] [illegible]

# 社告

本社[illegible]에서, 수명이 [illegible]나셔, 쟝셕이부족ᄒᆞᆫᄃᆡ, 남시에[illegible]ᄒᆞᄂᆞᆫ슈도업스므로, 부득이ᄒᆞ야, 본일도 紙二頁로ᄒᆞ오니, 아모쥬록용셔ᄒᆞ야 주사믈ᄇᆞ라압

七月二十六日 漢城新報社

愛讀者諸君

雜報

●大君主陛下之御慰問

[illegible]ᄒᆞ자에, 일본에 [illegible]에잇서, [illegible] 다는일이죽고, 그[illegible]이, 국기[illegible]ᄒᆞᆫ일을 대군쥬폐하가 [illegible]ᄒᆞ옵사, 진보로, 일본주찰ᄒᆞᆫ 젼권공ᄉᆞ, 니하연씨ᄅᆞᆯ, 경ᄒᆞ야, 일본 [illegible]에게 [illegible]ᄒᆞ옵시더니, 곳일본 텬황폐하ᄭᅴ옵사ᄂᆞᆫ 대군쥬폐하가 [illegible]ᄒᆞ시든일을 [illegible]ᄒᆞ사 [illegible]이, 친밀되기를ᄇᆞ란노라 고 [illegible]ᄒᆞ오셧다더라

●[illegible]

갑오년ᄇᆞ터, 일쳥교젼이나ᄂᆞᆫ후에, 됴션졍부ᄒᆞ고, 샹의ᄒᆞ야, 일본교[illegible]가, 가지든[illegible]을, 올봄에, 일본[illegible]ᄒᆞᄂᆞᆫᄃᆡ에, 됴션졍부로, 교부ᄒᆞ게작졍되야 잇셧더니, 지나간십칠일에, 일본공ᄉᆞ가 公文을내여셔, 그[illegible]을 아쥬, 교부ᄒᆞ얏더라

●內部會議 이달스무잇흔날오후에, 각부ᄃᆡ신과, 기타협판과, 여러분이, 니부의, 모듸여셔, 각지방졔도, 됴샤ᄒᆞᆫ거ᄉᆞᆯ 반포ᄒᆞ기로, 의논ᄒᆞ엿ᄂᆞᆫᄃᆡ, 져간의, 무슨사단이, 잇던지, 반포ᄒᆞ여, 시ᄒᆡᆼᄒᆞᆯ일이, 아직확졍이, 되지못ᄒᆞ엿다더라

●政府更迭之風說 근일풍셜의, ᄒᆞ기를, 군부ᄃᆡ신니윤용씨가, 평양관찰샤ᄅᆞᆯᄒᆞ여, 나가기를, 쟈구ᄒᆞᆫ다ᄒᆞ고, 또탁지ᄃᆡ신과, 한셩관찰사가, 경질이된다ᄂᆞᆫᄃᆡ, 탁지ᄃᆡ신은, 민영쥰씨가되고, 한셩관찰사ᄂᆞᆫ, 슈원으로, 이셜ᄒᆞ여셔, 졍낙용씨가, ᄒᆞᆫ다던 쇼문이, 낭쟈ᄒᆞ다더라

●各地方收稅[illegible]之風說 각지방의, 여러가지슈셰ᄂᆞᆫ, 작연봄의, 일졀다, 혁파ᄒᆞ엿더니, 근일은농샹공부의셔, 다시죠리[illegible]ᄒᆞᆫ다ᄂᆞᆫ, 의논이나셔, 각지방쟝시와, 각포구에, 슈셰ᄅᆞᆯ, 젼ᄃᆡ로복셜ᄒᆞ고, 도셩안의도, 미젼[illegible]도고[illegible]셜시ᄒᆞ여셔, 슈세ᄅᆞᆯ바더, 보폐ᄒᆞᆫ다ᄂᆞᆫ, 풍셜이, 낭쟈ᄒᆞ기로, 민심이, 더욱안졉이되지, 못ᄒᆞᆫ다더라

●[illegible]之說 향인의, 탁지ᄃᆡ신, 심샹훈씨ᄂᆞᆫ, 남분안, 신혜령와, 가셔, 각젼, 시민들을, 다보니다가, 세우고, 분부ᄒᆞ거든, 나의, 시졍비ᄅᆞᆯ이, 갑오년, 이젼ᄃᆡ로, 젼듀의, 세측을바다셔, 삼분에일분은, 탁지부로, 밧치고일분은 너의, 도듕에, 경비ᄅᆞᆯ, 보티고, 일분은, 그본, 밧ᄂᆞᆫ사ᄅᆞᆷ이, 먹게ᄒᆞ라, ᄒᆞ엿다ᄒᆞ니, 그말이, 올흔지알수업더라

●[illegible] [illegible]젼에[illegible]을 [illegible]이셔[illegible]ᄂᆞᆫ, 지된기러갓든, 일본[illegible], 나간, 이십일인에, 쳥국우ᄒᆞ위에셔, 인쳔으로도러왓더라, 이병셥은, 본월그믐게, 인쳔떠나셔, 부산, 원산을경ᄒᆞ야, ᄒᆡ샹위로, 갈터ᄒᆞ라더라

●[illegible] 아라사[illegible]삼명과, [illegible]오십명이 [illegible]가지고, 지나간, 이십일일에 [illegible]ᄒᆞ얏든[illegible]ᄒᆞ고, 교체ᄒᆞ야, 용산에셔, 한강을왕ᄂᆡᄒᆞ던[illegible]ᄒᆞ고 인쳔나려갓더라

●仁川府民[illegible] [illegible]가, 거긔경무셔에셔, 심문ᄒᆞ얏던말은, 긔ᄌᆡᄒᆞ얏거니와, 그[illegible]말이, 쳐음에ᄂᆞᆫ, 그ᄃᆡ가죽은거ᄂᆞᆫ, 순검최가가 打殺ᄒᆞ든게아니라 졔가[illegible]을먹고, 죽엇든거시라고, 챡구그리ᄒᆞ얏스되, [illegible]을맛나셔, 그실졍을말ᄒᆞ야, [illegible]이든거시라고 白狀ᄒᆞ얏고, 또니부대신과, 션유ᄉᆞ로나갓든[illegible]이, 거긔[illegible]더러 진무방을, 붓쳣다더라

●[illegible] 젼라도, 무쥬군, 젹셩산셩의, 비도가, 둔치, ᄒᆞ엿다던말은, 뭇ᄂᆞᆫᄃᆡ로, 긔ᄌᆡᄒᆞ엿거니와, 젹세가더욱, 챵궐ᄒᆞ여셔, 히군슈도병유씨ᄅᆞᆯ, 살ᄒᆡᄒᆞ고, 읍촌으로, 노략이ᄃᆡ단ᄒᆞ기로, 인민덜이, 다환산이되고, 인근읍가지, 쇼동이, 낭다더라

●[illegible] 군부협판, 윤웅열씨가, 슈일젼의, 샤직샹쇼ᄅᆞᆯ, ᄒᆞ엿ᄂᆞᆫᄃᆡ, 회의무슨사단이, 잇던지 [illegible]각의셔, 허체셔지되고, 우비ᄅᆞᆯ, 나리셔셔, 허믈, 아니ᄒᆞ셧다더라

●[illegible]之[illegible] 宮內府[illegible]ᄂᆞᆫ, 더란[illegible]샤롬ᄒᆞ고갓치, 수일젼에, 일본갓다더라

●[illegible] 지난달에, 드러와셔 인쳔[illegible]에, 류ᄒᆞ야잇ᄂᆞᆫ[illegible]氏ᄂᆞᆫ, 수일젼에, 입경ᄒᆞ얏다가, 이삼일을, 유ᄒᆞ야, 국인쳔갓다더라, 此ᄂᆞᆫ, 쳥국과됴션[illegible]코져ᄒᆞ야 나왓든거시라ᄂᆞᆫ 소문이잇셧스되 [illegible]ᄒᆞ야ᄂᆞᆫ, 그러ᄒᆞᆫ모양도업고, 또 의부관편 고, 왕복ᄒᆞ얏든일도업셧다더라

●[illegible] 져즘게, 함경도셔, 올나온아라사, 말잘ᄒᆞᄂᆞᆫ사ᄅᆞᆷ이, 칠팔인이라ᄒᆞᄂᆞᆫᄃᆡ, 그듕에, 김셕규씨가 ᄃᆡ일, 잘ᄒᆞᆫ다ᄒᆞ니, 소ᄆᆡ가길면, 총추기ᄅᆞᆯ잘ᄒᆞ고, 돈이만흐면, 쟝ᄉᆞᄅᆞᆯ, 잘ᄒᆞᆫ다ᄒᆞ여시니, 필경동씨가가히크게진[illegible], ᄒᆞᆯ듯ᄒᆞ더라

## 官報抄錄

敍任及辭令

[illegible]院侍[illegible] 李秀龍

仝 李[illegible]

典[illegible]司主事 金[illegible]

[illegible]院主事 [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

依願免本官 尹[illegible]

任[illegible]院侍[illegible]叙判任官四等

任[illegible]叙判任官五等 五品 [illegible]

王太子宮侍[illegible] 朴台[illegible]

任[illegible]叙判任官四等 九品 [illegible]

任 王太子宮侍[illegible]叙判任官六等 [illegible]院主事 金[illegible]

任典[illegible]司主事叙判任官六等 五品 金[illegible]

任[illegible]院主事叙判任官四等 主殿司主事 李相[illegible]

任主殿司主事叙判任官四等 五品 李[illegible]

任會計院主事叙判任官七等 五品 [illegible]

任[illegible]叙判任官八等 仁川府[illegible] [illegible]

以上七月二十二日

依願免本官 仁川[illegible] [illegible]

依願免本官 中[illegible]院一等[illegible] 李[illegible]

任仁川[illegible]叙[illegible]任官六等 六品 金[illegible]

[illegible]任[illegible]叙判所判事 [illegible] [illegible]

任[illegible]官叙[illegible]六等 [illegible] [illegible]

以上七月二十三日

●[illegible] 오래동안[閉鎖]ᄒᆞ얏든 남동리스부는, 어인일인지, 이삼일젼부터開門ᄒᆞ고, 슈리도ᄒᆞ며, 쓰러치며, 또일젼셕지, 거러두든현판은, 還[掛]ᄒᆞ얏더라

●[illegible] 향일, 아라사공관근쳐에[illegible]이, 잇셧다므로, 됴션졍부는, 셩문[illegible]로, 巡檢兵을派送ᄒᆞ얏더라

●[illegible] 향자의경무령의셔, 평민은, 말을, 타지못ᄒᆞ게, ᄒᆞᆫ단말은, 이왕, 그지, ᄒᆞ엿거니와, 요시에, 소문을들으니, 따원양반만, 말을타고, 양반이라도, 션비와, 십지업ᄂᆞᆫ사ᄅᆞᆷ은, 변노히, 말탄이를, 보지못ᄒᆞ엿고, 지어, 오강말군ᄭᆞ지, 말을타지못ᄒᆞ게ᄒᆞ여서, 혹말군아회들이라도, 말을타면, 순검이쏘차가시, 금ᄒᆞᆫ다ᄒᆞ니, 이젼의말군업이, 동신압헤도, 말을타고, 인ᄒᆞ중에도횡치ᄒᆞ더니, 지금은, 그리못ᄒᆞᆫ다더라

●[illegible] 슈일젼의, 도적슈십명이, 밤중의, 농상공부대신, 됴병직씨의, 집을드러가서, 의복과, 금은등속, 만여금어치를, 소탕ᄒᆞ여갓다ᄂᆞᆫ되, 다힝이, 사ᄅᆞᆷ은아니, 상ᄒᆞ엿다더라

●[illegible] 이달스무이튼날밤의, 다방골사ᄂᆞᆫ, 니은지씨가, 삼쳥동형제우물을, 어그러가다가, 인히중의, 앙너ᄒᆞ다가, 찻던안경이, ᄯᅥ러진걸, 몰ᄂᆞᆺ더니, 안동사ᄂᆞᆫ김중현씨가, 그안경을쥬어가지고, 크게부르며, 안경임자ᄂᆞᆫ, 찻ᄂᆞᆫ지라, 니씨가ᄭᆡ닷고, 차셔왓다ᄒᆞ니, 김중현씨가치, 염직ᄒᆞᆫ사ᄅᆞᆷ은, 뉘아니칭찬ᄒᆞ리오

●[illegible] 향일에, 징신셔씨가, 동노제물[illegible]의, 사판할ᄯᅢ이에, 능관중의, 목근을, 범작ᄒᆞᆫ것과, 능상슈보ᄒᆞᆯᄯᅢ이에, 부비를남봇ᄒᆞᆫ사건으로, 지금법부의셔, 다잡이셔, 조사[illegible]ᄒᆞ넌되, 범지ᄒᆞᆫ, 능관덜이, 혹시럿도잇고, 혹군슈임명, ᄒᆞ니도잇ᄂᆞᆫ고로, 지경ᄒᆞ여잇넌, 능관을, 먼져감금ᄒᆞ기, 어렵다ᄒᆞ여서, 지의ᄒᆞ여잇ᄂᆞᆫ, 능관덜이, 다올나와서, 갓치감셔ᄒᆞ기젼, 아직밧그로보방을, ᄒᆞ엿다더라

●[illegible] 슈인젼의, 시골사ᄂᆞᆫ, 빅셩하나이, 법부안을, 돈입ᄒᆞ여셔, [illegible]들, 보교[illegible]단이, 포갑ᄒᆞ며, 말ᄒᆞ기를, 니가, 하방의사ᄂᆞᆫ빅셩으로, 송사할, 일이잇셔셔, 더ᄂᆞᆫ등지판소, 압회와셔잇신자가, 슈삼여일이나되고, 또피고도셔울잇데, 날마다, 재판ᄒᆞ기를, 쳥ᄒᆞᆫ즉번번이, 미루기만ᄒᆞ고, 지금ᄭᆞ지, 판결을, 아니ᄒᆞ여주워서, 각지에엇지할길업스니, 뒤신압회셔, 지판을ᄒᆞ셋노라ᄒᆞᆫ즉, 협판권지쳥과, 참셔관김교셩, 양씨가, 니다려호령ᄒᆞ며, 모러니라ᄒᆞ거ᄂᆞᆯ, ᄒᆞ인이달여드러, 얼미를, 집허셔문밧그로, ᄯᅩ쳐니니, 그빅셩이, 호원을ᄒᆞ며, 우ᄂᆞᆫ소리가, 가로상의, 요란ᄒᆞ더라

●[illegible] 남대문안뒤평동사ᄂᆞᆫ, 니침봉이란, 사ᄅᆞᆷ이, 지작일에, 순검의게, 잡혀가ᄂᆞᆫᄃᆡ, 동ᄊᆡ가의복도, 잘입고, 신슈도, 조혼데, 포승으로, 결박ᄭᆞ지, ᄒᆞ여, 경무령으로, 가ᄂᆞᆫᄃᆡ, 그사ᄅᆞᆷ의, 죄상은, ᄃᆡ강드르니, 우숨, 말, 잘못ᄒᆞᆫ, 죄라ᄒᆞ니, 더, 희싀ᄒᆞᆫ, 정히ᄒᆞ고, 말을숨가ᄂᆞᆫ것슨, 명쳘보신ᄒᆞᄂᆞᆫ, 도ㅣ라일을지라

●[illegible] 저작일밤삼경의, 북셔순검ᄒᆞ나이, 젼동가로상의셔, 순찰을ᄒᆞ더니, 불의에, 한사ᄅᆞᆷ이, 인젹을ᄂᆞᆫ거슬, 살펴보고, 담을넘어서, 황망이가거늘, 순검이, 쪼쳐가서, 붓잡고, 몸을뒤여보니, 금가락지와, 은젼등속, 여러천냥어치를, 가졋ᄂᆞᆫ지라, 물건은, 다쥬인, 을차저셔니여쥬고, 도적ᄒᆞᆫ은, 경무쳥으로, 보니엿다더라


廣告

日本郵船會社 瀨船仁川 廣告

●肥後丸 七月廿七日[illegible]
●玄海丸 七月三十日[illegible]
●豐島丸 七月卅一日[illegible]
●薩摩丸 七月[illegible]
●長門丸 八月十三日[illegible]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會社瀨船仁川出張所廣告

●信濃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隅田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二見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筑後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白川丸 七月 日入港 同 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木曾川丸 七月廿五日入港 同廿六日出港 釜山 馬關 神戶 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廣告

[illegible]各國[illegible]交通切갓전관에 會社를設立ᄒᆞ고 [illegible]物件과石炭등뉴를進排ᄒᆞ논[illegible]라 各色物件과石炭등뉴를買用코져ᄒᆞᄂᆞᆫ이ᄂᆞᆫ이會社로오시오

昌興會社

特別廉價販賣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竄葡萄酒
●生葡萄酒
●平野礦泉
●白砂糖數品
外ニ ●ブランデー ●ウヰスキー ●ヘルモット ●利休酒 ●洋菓子 ●果物、罐詰 ●野菜 ●香料 ●上等香水、香油 ●化粧品 ●和洋小間物 ●和洋雜貨類 ●食器類數品

[illegible] 屋

東京館

第三 入花 投込所

瑞 最新 最良 一箱金 一打金 一個金

スコッ レーフ 支炎 虚弱 組育製 及バウ 日本特 朝鮮 京

川支店
廣告

取扱所

會社

賣ルル酒泉品
屋

館



一 朝鮮國一手販賣

小林菓子製造所



瑞西製

最新最良 ネ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峴
龜屋分店



◎第三會正風集題

入花

撰者 秋園 宗匠

寄限 八月一日

投込所

正風會



◎和漢洋藥

日本大坂

成尾安五郎



スコット乳 レーフル油

支炎、瘰癧及咽喉病、肺病、氣管、虛弱の小兒

紐育製藥舗 スコット

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 服本商行



生魚 生肉に優さる夏の衛生料理

飯 章魚 あまわけ 鯛 いわし さけ 佃煮 松たけ 竹の子 伽羅ふき

茄子辛子漬 八千代巻 時鳥巻 時雨紫岬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神漬 其他罐詰各種

京城泥峴
龜屋分店



パイレート ◎ 金銀各種眼鏡

朝鮮國一手販賣

貞洞 辻商店 ◎ 泥峴 辻支店

◎パイレート煙草ノ儀今般米國輸入元本付商店ト特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販賣ヲ相營ヒ非常ノ勉強ヲ以ツテ賣捌ノ候間續々御注文ノ程奉希候

◎ソレドレスクリーノナモンドスリーカスルス
トレートカントハアニーカノオッカルフ
ナルヘナンコイング、スッカロイナヒンヘーブ
ドコストウカシャングファノシヤ

◎金銀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ニシテ今般新着荷致候ニ付御愛求ノ程奉願上候

◎此他弊店本業ノ雜貨類山積致候ニ付御來駕奉願候



獵銃

獵銃

銃 和漢洋履

荷着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附

泉商會

西洋服各種
帽子

廣告品



阿津阪商店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三十八號

田原旅館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參拾五錢

發行所 漢城新報社

# 漢城新報

隔日發刊

## 雜報

●祀典復舊

묘사전궁(廟社殿宮)에제ᄉᆞᄒᆞᆷ이 예전 음녁으로 쓰게다ᄂᆞᆫ말이 잇기로 이왕신문에도 긔ᄌᆡᄒᆞ엿더니 지금 관보를 본즉 과연 이날이 잇스니 알칠월이 십사일에 궁니부대신 니재순이 주ᄒᆞ되 유국사전이 막엄막경ᄒᆞ옵거ᄂᆞᆯ 져적의 니각녁신덜이 명을 집ᄒᆞ고 자의로 지감ᄒᆞ엿ᄉᆞ오니 극히 ᄒᆞ박ᄒᆞ온되 또 신구력에 일ᄌᆞ가 권리ᄎᆞ등이 되오니 셩신ᄒᆞᄂᆞᆫ 도리의 더욱미안ᄒᆞ온지라 지금으로 붓터 大廟와 [illegible]과 [illegible]과 각 [illegible]과 [illegible]에 제향은 일균구식ᄒᆞ야 각기 뎨소제사 일ᄌᆞᄂᆞᆫ 음력으로 쓰기로 봉 뎡ᄒᆞ온지라 빈뎐 삭망 면[illegible] 구력 륙시 십오일 보 와 시ᄒᆞᆫ 와 미원 삭망일 기친ᄒᆞ오되 ᄉᆞ망과 속절 제뎐 ᄒᆞᆸ씨에 비관이 의례비제 ᄒᆞ온즉으로 군상 쥬ᄒᆞ여 봉지 고 주호되 이우갓ᄯᅢ 국사연이 막업ᄒᆞ고 막경ᄒᆞᆫ대 니각의 이신들이 진명사의 여ᄌᆞ간 ᄒᆞᆫ거시 임의 [illegible]ᄒᆞ고 [illegible]며 또 신력 구력 일ᄌᆞ가 [illegible] 어그니 그 셩신ᄒᆞᄂᆞᆫ 도에 더욱 [illegible]히 미안ᄒᆞ오니 자금으로 大廟와 [illegible]과 [illegible]과 각 [illegible]과 [illegible]의 제향은 일균구식ᄒᆞ여 무릇 되등 소 제사 ᄒᆞᄂᆞᆫ 날은 다 구력으로 쓰기로 봉 릭ᄒᆞ온지라 [illegible]와 [illegible]과 각 [illegible]과 [illegible]과 각 [illegible]과 [illegible]의 분향을 구력 륙월 십오일 우시ᄒᆞ와 미원 삭망일에 거힝ᄒᆞ올뜻으로 군상주ᄒᆞ와 봉지ᄒᆞ고 또 주ᄒᆞ되 제사ᄒᆞᄂᆞᆫ 범뎐은 임의 복구ᄒᆞ여 사오니 가히 고유ᄒᆞᄂᆞᆫ 졀ᄎᆞ가 이ᄉᆞᆸ수 어사와 되신을 보니어 셥힝호되 고유분은 갓당히 ᄎᆡ히지어나 릴인노 [illegible] 되ᄒᆞ온지라 [illegible]와 [illegible]과 [illegible] 고유분은 구라ᄒᆞ엿십오의대신 ᄒᆞ오되 [illegible]의 고유ᄂᆞᆫ 동일망면에 [illegible]ᄒᆞ여 곳ᄒᆞ온뜻으로 군상주ᄒᆞ여 봉지

●[illegible]이라 묘사전궁에 제ᄉᆞᄅᆞᆯ 예전음녁으로 쓰ᄂᆞᆫ날을 지나간ᄉᆞ무닷ᄉᆡ날에 종묘의 고유ᄒᆞᄂᆞᆫ되 그제관인즉 니부대신 [illegible]씨와 농상공부대신 [illegible]씨 두분이라 ᄒᆞ더라

●[illegible]

짐이 젼보ᄉᆞ관제를 지가ᄒᆞ야 반포케ᄒᆞ노라

대군쥬어압어서

건양원년칠월이십삼일

니각총리대신 윤용션

농상공부대신 됴병직

츄녕대삼십이호

젼보ᄉᆞ관제

뎨일죠 젼보ᄉᆞᄂᆞᆫ 농상공부대신의관리에 쇽ᄒᆞ야 젼보에 관ᄒᆞᆫ 일졀ᄉᆞ어의 [illegible]ᄒᆞᆷ을 장ᄒᆞᆷ

뎨이죠 젼보ᄉᆞᄂᆞᆫ 일이등으로 분ᄒᆞ야 그지ᄒᆞᄂᆞᆫ 구역은 좌와 이ᄒᆞᆷ

일등ᄉᆞ

한셩 인쳔 원산 부산 의쥬

경셩 경쥬 회령

이등ᄉᆞ

츙쥬 공쥬 젼쥬 남원

나쥬 제쥬 진쥬 고셩

대구 안동 강능 츈쳔 기셩

히쥬 평양 강계 함흥 갑산

뎨삼죠 젼보ᄉᆞ에 좌기ᄒᆞᆫ 직원을 치ᄒᆞᆷ

ᄉᆞ장

쥬ᄉᆞ

뎨ᄉᆞ죠 ᄉᆞ장은 쥬임이니 농상공부대신 [illegible]판의 명을 승ᄒᆞ고 [illegible]신국장의 지휘감독을 슈ᄒᆞ야 ᄉᆞ니일졀ᄉᆞ무를 쟝리ᄒᆞ고 젼기[illegible] ᄉᆞ관ᄒᆞᆫ긔슈에 쥬ᄉᆞᄒᆞᆷ

뎨오죠 쥬ᄉᆞᄂᆞᆫ 판임이니 상관의 지휘ᄅᆞᆯ 승ᄒᆞ야 ᄉᆞ니ᄉᆞ무와 젼긔[illegible] 소관ᄒᆞᆫ긔산에 쥬ᄉᆞᄒᆞᆷ

뎨육죠 ᄉᆞ장은 미ᄉᆞ에 [illegible]인[illegible]ᄒᆞ니 그 [illegible]의 [illegible] ᄒᆞᆫ원으로 [illegible]ᄒᆞᆷ

뎨칠죠 쥬ᄉᆞᄂᆞᆫ 한셩ᄉᆞ에ᄂᆞᆫ 셰인이하오 기타 구의 [illegible]ᄉᆞ에ᄂᆞᆫ 이인 삼인이하오 각지방ᄉᆞ에ᄂᆞᆫ 이인으로 경 [illegible] 젼무ᄒᆞᆫ [illegible]원으로 쥬ᄒᆞᆷ

단지젼이 유ᄒᆞᆫ 처에ᄂᆞᆫ 션쥬([illegible])ᄅᆞᆯ 슈ᄒᆞ야 관권을 [illegible]일이 원가치ᄒᆞᆷ을 득ᄒᆞᆷ

부칙

뎨팔죠 젼보ᄉᆞ셰칙은 농상공부대신이 부령으로 졍ᄒᆞᆷ

뎨구죠 구이ᄒᆞᆫ 각지방에 젼보ᄉᆞᄅᆞᆯ [illegible]로 셜치ᄒᆞ시ᄂᆞᆫ 농상공부대신이 부령으로 시힝일긔ᄅᆞᆯ 뎡ᄒᆞᆷ

뎨십죠 본녕은 반포일노붓터 시힝ᄒᆞᆷ

●[illegible] 져거번의 뎐신사무 각디방의 셜치ᄒᆞ되 일등 이등으로 ᄒᆞ고 주ᄉᆞ의 월급은 삼십원식인데 우톄사의셔도 뎐신사와 기시ᄒᆞᆫ 이로ᄒᆞᆫ되 [illegible] 뎐신사와 갓치ᄂᆞᆫ 못ᄒᆞ고 등수ᄂᆞᆫ 마련ᄒᆞ되 주사원급은 이십오원이나 하자ᄒᆞ고 [illegible]은 삼십원식 갓치ᄒᆞ자ᄒᆞᆫ 여복슈다ᄒᆞᄂᆞᆫ 밀경샹신원이 되리라 [illegible]주ᄯᅥ러더라

●[illegible] 우톄셔 [illegible] 착장ᄒᆞᆫ다ᄂᆞᆫ 말은 [illegible]의 젼인의 긔록ᄒᆞ여거니와 지금들으니 강능부에도 일간 우톄관원을 보니여 우톄사를 실시ᄒᆞ되 츈쳔으로 거쳐가지아니ᄒᆞ고 바로 강능으로 [illegible]신이 되다ᄒᆞ더라

●[illegible] 지금 우톄관원을 ᄒᆞᆫ 신셜명더 날터ᄒᆞᆫ데 이져우헤사견습셩도ᄂᆞᆫ 불수히 구쳐가 되여서 다시업ᄂᆞᆫ고로 이번셜명 더ᄂᆞᆫ데ᄂᆞᆫ 밀경의 견습아니ᄒᆞᆫ 이라도 ᄂᆞᆫ다ᄒᆞ더라

●[illegible] 일젼에 니시 우 [illegible]씨가 시폐상소ᄅᆞᆯ ᄒᆞ엿ᄂᆞᆫ되 그 상소쥬의 ᄂᆞᆫ 티강들으니 ᄒᆞᆫ기ᄅᆞᆯ 무론엇던 나라이던지 도셩안의 타국샹민의 거류니 [illegible] ᄂᆞᆫ법도업고 도셩안에 타국병뎡 두ᄂᆞᆫ법이 업ᄉᆞᆫ죽 자근위시ᄒᆞ여ᄂᆞᆫ 각국공ᄉᆞ와 [illegible]ᄒᆞ야 각국샹민과 병뎡을 비보[illegible] 국시 [illegible]ᄒᆞ야셔 인[illegible] 시기[illegible] 바[illegible]

각의셔 ᄒᆞ엿다 ●[illegible] ᄂᆞᆫ안에 셜명이 오명은 쳥국기 소문이 나왓ᄂᆞᆫ 쳥국샹 ᄒᆞ려고 안에셔 ᄒᆞ니다 갓슬때 리ᄉᆞ부

●[illegible] 고다니 팔원식 고 칠의 ᄂᆞᆫ이 일제히 여 나가 [illegible] [illegible] 낭[illegible] 여복슈 쥬ᄯᅥ러

●[illegible] 자면이 조이 [illegible] 셔 경[illegible] 차ᄉᆞ도 [illegible] 우미ᄒᆞᆫ ᄂᆞᆫ것슨 빅셩의 또샹고 샹고덜 법이어 잔ᄒᆞᄂᆞᆫ 날이여 손셔로 너기ᄂᆞᆫ 죠션[illegible] 파히ᄒᆞ 앗기고 것시 [illegible] [illegible]되 [illegible] 가[illegible]되

로돌송ᄒᆞ、 ᄂᆞ、셔인 ᄉᆞ에도、 도、이인 ᄆᆞ으로중 슈[illegible] 이원、가 一 、 상공부 젼보ᄉᆞ 상공부 기믈명 、 쳐、시 면신사 、이등 삼십원 관사와、 단신사 마면ᄒᆞ 、하자 ᄒᆞ쟈ᄒᆞᆫ 리라ᄒᆞ 장ᄒᆞᆫ다 ᄒᆞ여거 도、일 례사들、 지애나 、되다 군권을、 、저、우 ᄒᆞ셔가、 십여명 아니ᄒᆞᆫ 에、니시 ᄒᆞᆫ데、그 무기를、 성안의、 법도업 조빅이、 ᄒᆞ、공ᄉᆞ ᄇᆡ명을、 서、인ᄒᆞ

각의서、도로환송ᄒᆞ고、밧지아니ᄒᆞ엿다더라

●[illegible] 일젼에、[illegible]씨가、ᄒᆞᆫ안에ᄯᅥ러왓ᄉᆞᆫ데、쳥국ᄉᆞᆷ사가、샹서명이、피류ᄒᆞ야、넙걸ᄒᆞ니、십오명은、슈표ᄃᆞ리근처요、십오명은、쳥국리ᄉᆞ부근처에、류ᄒᆞ얏다는、소문이잇더라 이는、무어슬ᄒᆞ러、나왓는지、ᄌᆞ셰치못ᄒᆞ나、ᄀᆞ만히、쳥국샹고를、보호도ᄒᆞ며、[illegible]을ᄒᆞ려고、그러ᄒᆞᆫ지、일젼에、남대문안에서、쳥인이、무어명이、싸홈ᄒᆞᆫᄒᆞ니、당소의씨가、그압으로、지나갓슌데、갓치ᄉᆞ라잇ᄂᆞᆫ슌ᄉᆞ식ᄒᆞ며、리ᄉᆞ부로[illegible]케ᄒᆞ얏다더라

●郵遞夫失策 우톄사의 편지、가지고다니는、톄뎐부의、월급이、본ᄃᆡ、팔원식이더니、일젼에、일원을、감ᄒᆞ고、칠원식을 명ᄒᆞ엿더니、톄뎐부들이、원통ᄒᆞ다ᄒᆞ고、톄뎐부들이、일제히、공의ᄒᆞ고、일제히、가넘ᄒᆞ여、나가니、관원들이、급시、다른사름들、각ᄉᆞ、쥬션ᄒᆞ야、쳔거ᄒᆞ여、톄뎐부ᄉᆞᆫ데、나、본ᄃᆡ나가던、톄뎐부들이、남편되여서、도로혀、이것ᄒᆞ여서、여복슈ᄒᆞ고、그무부들、수인은、아주ᄆᆡ러젓다ᄒᆞ더라

●[illegible] 근일여영의、잡기ᄒᆞᆫ는자던이、성힝하여、경가파산、하는자이、만이잇다던ᄃᆡ、각셔슌금막의셔、경찰을、쥬의치、아니하는고로、차ᄎᆞ도적이、만이나것다더라

## ●申進士問答記 (上)

우미ᄒᆞᆫ자의、지혼사ᄅᆞᆷ은、슐타ᄒᆞ는것슨、자고로、그런법이라、엇지빅셩의、슐타ᄒᆞ는것슬、취신ᄒᆞ며、또샹고덤에、이심각박ᄒᆞᆫ것슨、저은상고덤외줏시요、큰샹고덤은、그런법이、업스며、경한ᄒᆞ야、닷투기를、잔ᄒᆞ는짓도、소년비、아리사ᄅᆞᆷ들에、넘이여와、대저닷투기、잔ᄒᆞ는것슨、셔무항헝ᄒᆞ는、마음이지、엇신너기는게、아니며、일본죠뎡의서、죠선ᄇᆡ셩을、여견입진년의、상ᄒᆞᆫ일、과히ᄒᆞᆫ것슬、후회ᄒᆞ야、더욱기히、앗기고자、ᄒᆞ는마음을、알기가쉬운것시、죠선즁슈이、위신을、ᄢᅦᄒᆞ며、[illegible]되기가、쉽고、은의를[illegible]변、갈치되기가、[illegible]단것을、모르며

아니연가는、기여이은의를、써가파몸시기랴ᄒᆞ니、이넘을보면、그ᄯᅳᆺ슨、알기시요、이져진압지、아니ᄒᆞ는것슨、혀세의、션조가잇스며、사긔에、계슈이잇스니、우리가최다ᄒᆞᆫ베、아니요、공상에、죵이은、ᄢᅦ여간다는、말슴은、죠선인민이、장교밧치에、공미ᄒᆞᆫ쥭、괴이치아니ᄒᆞᆫ、말ᄉᆞ이로다、지금은、일본이、진의을아나ᄢᅦ여가면、쳥국인과、ᄯᅡ셔인이、ᄢᅦ여간러인ᄉᆞ、차라리일본인이、ᄢᅦ여가는게、나흔터이요、이다음에 죠션인민도 샹고를、힘쓰면、자연이관계치、아닐ᄲᅮᆫ더러、지금도、서로편리ᄒᆞᆫ것사、잇스며、쳥국을、싱각ᄒᆞ고、일본을、믈죠타ᄒᆞ는것슨、파연죠선의、인심이、갹독ᄒᆞ고、공슈이아름다워서、이왕쳥국에、슈모되는것슬、모르고、슈비넘、셤겨서、친슈히、위왕ᄒᆞ던、넘만싱각ᄒᆞ는고로、항모ᄒᆞ는、마음이잇서서、미사를죠게보던ᄯᅢ이요、일본은、임진이후로、샹봉이업서、슌여ᄒᆞ는마음이잇는고로、미사ᄒᆞᆫ、그르게보는ᄯᅢ다이라자인이、샹ᄒᆞᆫ기ᄒᆞᆫ、오리ᄒᆞ고、차차미명ᄒᆞ여서、인본ᄌᆞ슈은、앏면쳥국에、ᄒᆞᆫ모ᄒᆞ든것보다、나을듯ᄒᆞ도다、나ᄒᆞᆫ자ㅣ골ᄋᆞᄃᆡ、형의말슴과、ᄀᆞᆺ치ᄒᆞ야、일본을、본밧고、일본을、비ᄒᆞ고、인본을、친ᄒᆞ고、인본을、밋엇다가、나죵에、크게속는디경이면、쟝찻엇지ᄒᆞ리요、신진사、ᄀᆞᆯᄋᆞᄃᆡ、형에맙ᄉᆞᆷ이、크게속는가、ᄒᆞ시는것슨、무엇슬、일염셤이뇨、국가교제의、크게속는가、의신을ᄒᆞᆫ넘은、토디인민을、ᄲᅢᆨ한ᄒᆞ넌것과、변속신뇨로、ᄃᆡ졉ᄒᆞ는、두가지ᄲᅮᆫ인ᄃᆡ、예젼임진의、ᄀᆞᆫ하가、ᄀᆡ명치、못ᄒᆞ엿슬적의、일본이죠션을、처서、거의세서가지고도、나죵에는、도리여낭피ᄅᆞᆯ、ᄒᆞ엿거ᄂᆞᆯ、지금은、동양셔양이、서로ᄉᆞᆼᄉᆞ야、조금아치라도、경게ᄒᆞᄂᆞᆫ년은、흠슈가업ᄂᆞᆫᄃᆡ、겸ᄒᆞ야、일본도、ᄀᆡ명ᄒᆞ야、텬하대세ᄅᆞᆯ、ᄀᆞ히알고、죠선즁긔가、션ᄒᆡ후강ᄒᆞ야서、인심이아이나면、ᄒᆞᆷᄇᆡᆨ지、못홀쥴을、명녕이、알거ᄂᆞᆯ、엇지혯ᄒᆞᆫ싱각을、ᄯᅥ리치가잇스리요、일본이죠국이치도새긱을、ᄭᅥ리가여스니、인노밋우어성각ᄒᆞ면、가히알것시 [illegible]

것슨、아가도、미가발ᄒᆞ엿거니와、본ᄃᆡ죠션이、쳥국다유에는、ᄐᆡᆫ하각국보다、먼져분명ᄒᆞᆫ나라이여、ᄯᅳᆯ지금에、도리여나의뒤ᄯᅥ져잇스니 이는지지아니ᄒᆞ면、슈치라、이리ᄒᆞ나라흔、기명시기며、방가위큰샤업이、될것시요、또죠선이、일본과쳥국ᄉᆞ이의、겨ᄌᆞ가되고、일본과아라ᄉᆞ서이의、인후가되야서、나라은、비록적으나、디구샹의、머리요、텬하의유오쳐라、방금졔졍에는、세계의、관계가적지、아니ᄒᆞᆫ나라인쥭、등한이버려두지못ᄒᆞᆯ나라이요、일본이、감안이두더라도、다른나라이、죠차、가안이둘리가、업고、일본이국녁히、보아쥬면 다른나라도、ᄯᅩ리셔、보아쥴터이라、이럼으로、써일본이、크게힘을、나여서、남보담압서서、죠션을、곡진이、위ᄒᆞ야、쥬거ᄂᆞᆯ、그후의ᄯᅳᆺ、아지못ᄒᆞ고、도리여、의심ᄒᆞ는사ᄅᆞᆷ은、엇지우숩지、아니ᄒᆞ리요、셜령일본이、죠선을、잠식병탄ᄒᆞ고시분、싱각이、엇지안터리도、비단죠션인민에게、마음만、항복밧기어려온ᄲᅮᆫ、아니라、텬하만국에、공논이、잇서서、감안이두지、아니할ᄃᆡ이니、이거슨、우부우부라도、일너말ᄒᆞ기젼의、알바이요、ᄯᅩ셜령일본이、죠선을、번속ᄀᆞᆺ치、ᄒᆞ야서、신뇨로、ᄃᆡ졉ᄒᆞ기ᄂᆞᆫ、예젼의、쳥국이、죠션ᄃᆡ졉ᄒᆞ던것과、ᄀᆞᆺ치ᄒᆞ고쟈、ᄒᆞᆫ다ᄒᆞ여도、어불셩설이라、일본이、죠선을、붓드러셔、쟈쥬독립ᄒᆞ는나라ᄒᆞᆫ、만드러노코、다시엇지、번디ᄒᆞ리요、법인도、신을일치、못ᄒᆞ거든、ᄒᆞ믈며、나라이며、예젼의、ᄀᆡ명치、아니ᄒᆞ엿슬적의도、그른일이、어렵거든、ᄒᆞ믈며、지금에련하만국이、변ᄒᆞ엿ᄂᆞᆫ세상의、엇지그른일을、ᄒᆞ리요、이ᄂᆞᆫ다름이、아니라、공이ᄀᆡ명치、못ᄒᆞ엿서、지금에、시계와、텬하의、대긔를、아지못ᄒᆞᄂᆞᆫ연고라、이럼으로、써ᄒᆞ되、나라이ᄀᆡ명되기가、ᄒᆞ루가、밧부다、ᄒᆞ노라、니ᄒᆞᆫ자ㅣ골ᄋᆞᄃᆡ、ᄀᆡ명이라、문명이라、ᄒᆞᄂᆞᆫ것슨、ᄭᅮᆷ갓치ᄯᅳᆺ스로、써볼지면이면、신ᄋᆞᆼ의예야법도를、닥거서빈ᄀᆡᄂᆞᆫ것션ᄒᆞᄂᆞᆫ、고ᄅᆞᆫ、요ᄉᆞ이、소위ᄀᆡ명이라、분명이라、ᄒᆞᄂᆞᆫ것슨、외국을、교셥ᄒᆞ며、셔양ᄉᆞᆨ、효빈ᄒᆞᄂᆞᆫ것슨、업으니、뎨는그연유를、아지못ᄒᆞ노라

## 雜報

●[illegible] 전에、여러골관찰가지고、문안에올나왓든김배시씨가、자기에무음대로、못되논줄을、세드라셔、가평에[illegible]ᄒᆞ얏단말을、일전신문에、긔지ᄒᆞ얏더라、그리ᄒᆞ고、그김씨ᄒᆞ고、갓치[illegible]을、[illegible]코져ᄒᆞ고、올나왓든、조병세씨도、일전에、내엿든[illegible](지나간십스일의신문지로、올니든상소)를、윤납치아니ᄒᆞ시므로、퇴원ᄒᆞ고、또경범조씨며、기타三[illegible]도、그러ᄒᆞ다더라

●[illegible] 시방、경긔도교하에셔、한가히、지내여잇논민영달씨논、근일리에、문안으로올나오겟다더라、또、호남에논、동씨[illegible]로、아모리[illegible]、보냇다고도ᄒᆞ더라

●[illegible] 인시반[illegible]되려든、제도복구지스논、각[illegible]가、퇴움ᄒᆞ얏스므로、지방제도의에논、오스이아주、아무소문도업셔졋더라

●地方[illegible] 근일의、지방조사가、다되엿다논말은、못논되、그지ᄒᆞ엿거니와、그반포ᄒᆞᆫ일논、연차회의가、되엿시되、[illegible]이、티지못ᄒᆞ엿논지라、요셔이비교가、계시기로、금명간의、다시가의[illegible]ᄒᆞ여셔、쪽시반포ᄒᆞᆫ다더라

●[illegible]之二段 [illegible]에、디지찬[illegible]지방제도가、반포되게드면、군부대신니윤용씨논、전봇터、브라든데로、평양관찰스로나가고、군부대신에논、법부대신한규설씨가ᄒᆞ니、경무스니종건씨가、법부대신으로되고、또농상공부대신조병직씨논、슈원관찰스(지방제도가기정되면、한셩부에논、관찰부、쇼윤을두니、한셩관찰스를、슈원으로옴기여서、된다논소문이낭조ᄒᆞ더라

●[illegible] 수일전의、두번이、다기디신의게、치녕을、나리셔셔、갑오년이후로、상납건세된、수렴열운、다연관운시키고、다시출뎌준、나라신셔분이、결엄하니ᄒᆞ므로、지탁일녀하지디신심상호씨가、[illegible]사[illegible]ᄒᆞ여、각외참예운、하다더라

●[illegible] 군[illegible]의、사무논다、상유[illegible]、경한후에야、사청이되논되지판소의셔、형스로、휴가논형벌과、종역시키논、형벌등건은、일입이상유[illegible]하여셔、[illegible]을、무론ᄒᆞ고에야、지[illegible]하게하고、만일지하로、천편이하[illegible]인이、이시[illegible]되단이입지못나라신다더라

●日[illegible] 일본[illegible]선반셩호논、지나간스문사[illegible]、부산으로나왓다더라

●[illegible] 임전에、인천나와잇든、일본[illegible]금강호논、지작일오전아홉시에、부산으로、향ᄒᆞ야、갓더라

●[illegible] 오래도록、한셩부ᄒᆞ고、일본인[illegible]、[illegible]스이에、[illegible]운이잇든、[illegible]가、비러스든집의소유권일운、지나간십인일에、락지부회게국장되리、경비과장한진창씨되리、략지부보좌관[illegible]씨가、그삼씨분피고로ᄒᆞ야、일본녕스관의로、징을뵈일관에셔、[illegible]피낭고ᄒᆞᆫ나[illegible]케티니、피고논、그판논에、[illegible]이、[illegible]게ᄒᆞ자고、[illegible]스되[illegible]ᄒᆞ고[illegible]、[illegible]ᄒᆞᆫ일이아니요、[illegible]ᄒᆞ야[illegible]

●[illegible] 잉판에、피고논、원고가、청원ᄒᆞ논대로、그집을비여주거시라고、선고ᄒᆞ얏더라

●[illegible] 젓[illegible]당소의[illegible]씨가、경셩의、둘어왓슴적의、조병직[illegible]씨가、당소의씨운、한번、맛나고자히셔、사놈으로、하여금、당소의에게、맛나기면、청[illegible]、당시가갑아되、지나간일운、시작ᄒᆞ면、니가、조씨분낫시、슈는지라、니가、우리나라의、갓다가、다시온후의、서로보아도눗지안타、고、갓하니、보지아니ᄒᆞ엿다더라

●[illegible] 정진사셩우씨논、시작입게、선고ᄒᆞ、하엿난되、상셔시[illegible]의[illegible]에조하여위입[illegible]사년의、[illegible]하고、다시상유[illegible]하여서、무지[illegible]、무론후에、

●[illegible] 전군슈、한양라씨논、지자일가의에、옥쳔군슈로、임명하엿다논되、동씨난、부터부터신박경영씨의、압지으로、자년십월의、임최슈동、잡[illegible]의、마찰、임씨와가치안져서、술을먹다가、함긔잡펴가셔、가셧다가、권여만의、나온사름이라더라

●[illegible] 오래도록、히삼위로、나가잇든권동슈논、일전에、문안으로、도라와셔잇다논소문이잇더라

●[illegible] 향일리로、폭도진무조로、셩천과샹원으로、나가잇든진위병졍숙에셔、상원으로、나가잇든병졍오십명은、스빅여명된폭도를、아주업시고、[illegible]명을살녀잡어셔、지나간십팔일브도라왓더라、그천명ᄒᆞ에서、세명은、샹병이고、계명은、그죄가[illegible]ᄒᆞ야、그러ᄒᆞ지、그[illegible]이[illegible]ᄒᆞ야、남문밧긔서、총살ᄒᆞᆫ잇든날에、관찰ᄉᆞ와、기타여러관원얏더라、또샹원에서[illegible]ᄒᆞ얏든폭도논、다시디천서모와잇다논그변이나왓스므로、진위병졍숙신명이、십구일에、치러가더라、그리ᄒᆞ고、국도논、솔[illegible]、이경[illegible]가져이다[illegible]

●[illegible] 금년은자츈이후로、우순샹조ᄒᆞ여서、[illegible]의년풍이、고루다잘되고、답비와、무실가지라도、하셔실이、되엿다논되、다만비도가、이러나셔、재폐한지방의논、빈셩이다、환산이되여셔、류란이나、실산ᄒᆞ엿다더라

●[illegible] (承前)

第十[illegible]條 입학원원ᄒᆞ논자논、데일호서식의、입학[illegible]의학이니여서로、[illegible]이가홈

([illegible])

第十[illegible]條 입학성도논、본부대신협판、국각국장、과장、관장、교슈가[illegible]홈

第十[illegible]條 입학허가를득ᄒᆞᆫ자논[illegible]、데삼호서식의[illegible]、[illegible]이가홈[illegible]

第十[illegible]條 입학ᄒᆞᆫ자논[illegible]에、퇴학을원ᄒᆞ[illegible]이ᄒᆞᆫ스고ᅵ잇서

第十四條 자논 로써

第十五條 년[illegible]

第十六條 만、시 [illegible]

第十七條 로[illegible] 월니 ᄉᆞ도[illegible] 작문[illegible]

第十八條 [illegible]

第十九條 [illegible] 하도[illegible] 흠[illegible]

第二十條 이[illegible]흠 [illegible] 의[illegible] 히[illegible]

第二十一條 서논[illegible] 명[illegible] 니각[illegible] 、츄[illegible]

第二十二條 [illegible]은、과、스[illegible] 이가[illegible]

第二十三條 [illegible]

한씨논、
、입명하
부터신박
월의、임
남씨와가
기잡펴가
나온사롬
지삼위로
가、문안
단이잇더
、폭도진
가잇든
一、나가
명된후
녀잡어
더다、그
이고、계
호지、그
러관원
졸살ᄒ
돈폭도
기변이
영이、십
ᄒ고、폭
이야며
국、우순
고루다
이도야
이도가、
빅셩이
、실샹
(完)
대일호
의학
、대신협
、교슈
드一週以
、한、졀
회할을
一잇서

[illegible] 셔분후에、퇴학[illegible]
자논、[illegible]홈이가홈

第十四條 [illegible]에입학、호수항에 허당
ᄒ자ᅵ잇스면、셩균관쟝의[illegible]으
로써、퇴학을명홈이가홈

一 조회에불슈ᄒ며[illegible]ᄒ되、
회오치아니ᄒ논자

一 학업이불진ᄒ며、혹년수ᄒ야
、이학거학ᄒ논자、

一 [illegible]이、인국원이샹에、급
ᄒ논자

第十五款 試驗

第十五條 시험은분ᄒ야、일과、월과、
년죵시三으로홈

第十六條 일과논、독서、작문[illegible]
만、시험ᄒ되(독서과[illegible]도[illegible]오[illegible]
[illegible]치아니홈)독서논
[illegible]ᄒ고[illegible]ᄒ야[illegible]의
문[illegible]ᄒ고、작문도[illegible]홈

第十七條 월과논、미구려[illegible]에、일
월니소독서를、[illegible]논ᄒ고、력ᄉ산
술도[illegible]ᄒ야[illegible]ᄒ고、
작문도[illegible]ᄒ야、[illegible]一月에
[illegible]ᄒ야[illegible]ᄒ고[illegible]
[illegible]、관쟝이、당의ᄒ야、샹벌을
[illegible]홈

第十八條 년죵시험은、미구려[illegible]에
、대시험을ᄒ、기[illegible]ᄒ고、
동계일[illegible]ᄒ야[illegible]ᄒ야、
하도[illegible]三分之一로、우등[illegible]을、취
홈(以[illegible]人則取十人、八十人則取八人)

第十九條 년죵시험에、낙데ᄒ자와、
년죵시[illegible]자논[illegible]에[illegible]홈
이可홈
[illegible]과、혹、부득이ᄒᄉ고ᅵ로
、시험을不[illegible]ᄒ자논、셩균관쟝
의[illegible]에의ᄒ야、다시、시험을
치홈도가홈

第二十條 년죵시에、급데ᄒ자의죵
셔논[illegible]에、대셔ᄒ야、급여홈

第二十一條 년죵시에、[illegible]대ᄒ자의셩
명을、본부에[illegible]ᄒ고、공니부와、
니각각부에[illegible]ᄒ야、샹당[illegible]으로
、츠데[illegible]홈을、요구홈이가홈

第二十二條 년죵시급데인[illegible]에、학도
[illegible]은、각부고등학교셩도주등인
과、ᄉ범학교급이도로、[illegible]홈
이가홈

第六款

第二十三條 휴업일은、좌ᄀ차졍홈

一 [illegible]ᄉ고에의ᄒ야[illegible]
[illegible]홈

一 미국긔원졀 칠월[illegible]육일

一 대군쥬탄신 칠월이십오일

一 [illegible] [illegible]원[illegible]식박일
지친[illegible]이십일
조신이원이십[illegible]일

一 冬至 지영월십오일

一 [illegible]假日

一 日曜日

(完)

⊙ [illegible] 쳥도고마수영의、호사
롬이、잇스니、셩명은류씨오、그논곰
모친이、잇고、과거ᄒ、형수가、잇논
데、류씨가、위연이、병이、들어셔、
죽을지경의、이르미 그모친과、형
수도、겨졍이、디단ᄒ더니와、그안
히、양씨가、지셩으로、구료ᄒ되 [illegible]
현이、업스미、밤낫으로、하늘게、[illegible]
수ᄒ며、의원의게、뭇더니 사논이、
밥ᄒ기를、사롬의、고기를、먹으면、
나흐리라ᄒ니、양씨가、그허벅다리
쌀베어셔、미음의셕거、고아셔、그
가장을메기니、그일은、아모도、모
로고、그시어미만、아논지라、류씨
가、미음을、먹은세마다、ᄒ논말이、
미음이、잇지、이런게、비린니가、이
샹ᄒ노ᄒ니、그모친이가모되、그거
사、아모고긴데、병의、유익ᄒ다、ᄒ
니、만히먹어라ᄒ며、그실졍은、말
ᄒ지아니、ᄒ엿더라、그양씨의、열
졀논、다리의고기로、녀러셰운에기
되、병이낫지못ᄒ고、죽으니、가위
련도가무심이라、집안에、잇논사롬
이、세낫파부와、어린아희뿐、밧게
、업논지라、세파부가、먹을거시、업
고、입을거시、업셔셔、엇지할수업
논지라、그졍수가양씨를권ᄒ여가
로되、나논、이왕、나도만코、또한、
조식이、여러시오、또노모가、게시니
、엇지할수、업거니와、그뒤논、나히
쳥춘이오、조식도업고、노모논니가
잇스니、부양할터히오、수졀도다
、국졍이、잇논거시니、쳥춘을、허송
지말고、샹을관치시、니두궁、평
안케ᄒ라ᄒ며、양씨쳐음에논、크게
꾸며、뭇지아니ᄒ더니、또모친이、
자구히권ᄒ고、형수도무수히、권ᄒ
니、양씨가、할일업셔、지가ᄒ야、사
논뒤、그젼、시어머니와동서를、죵
죵와서보고、지셩으로자뇌논뒤、그
사나히가、또ᄒ、귀독히、녀겨셔、그
집을、만히、구조ᄒ여、준다ᄒ니、양
씨의쳐음에、다리버히던、일노볼진
디、엇지마음을、동ᄒ리오만은、간
론[illegible]일노、그、렬졀을곤친나、동지
[illegible]지라、간[illegible]ᄒ여

⊙ [illegible] 지작일에、젼동길가
의사논、니씨동이가、그안의를、무
단이구타ᄒ여셔、다샹ᄒ고、유혈이
낭자ᄒ여、인리가소동이、되더니、
마침순검이、지나다보고、니가를、
잡어셔경무쳥으로、보니엿다더라

⊙ [illegible] 북부자아골、김가진、씨
집의게집ᄒ인이、엇던사롬의게、맛
흔물건을、소듕ᄒ죄로、일작일에、
경무쳥으로、잡혀와논뒤、그물건미
길세에、궤에너흔거시기로、열쇠차
지미[illegible]거던 거시라더라

⊙ [illegible]이 라 지작일밤의、
사동、창의쟝ᄉᄒ사롬이、적삼옷
숨、버셔덥고、길에자다가、도적이、
의복을、가져가논거또、아지못ᄒ엿
다더라

## 社告

[illegible] 이[illegible]합을
[illegible]ᄒ야[illegible]으로[illegible]홈
얏디니[illegible]에 셔[illegible]되얏스미
[illegible]에[illegible]은[illegible]一圓二錢五
[illegible]과[illegible]七錢五分은[illegible]에[illegible]으로보
니시면[illegible]에보니옵

| | | |
|---|---|---|
| [?] | | 一錢三分 |
| 一[?] | [?] | 一圓二錢五分 |
| 三[?] | [?] | 三圓五錢 |
| 六[?] | [?] | 六圓七錢五分 |
| [?] | | [?]七錢五分 |

[illegible] 혼주을혼번내논거시三錢式
이요[illegible]로곳차서갑
슬던밧고[illegible]도션금으
밧ᄉ오옵

## 雜報

●祀典の復舊　曩に記せしが如く朝鮮政府は數月前より宮中の祭祀に太陰暦を用ゐ居りしが今回愈よ太廟、殿、宮、各壇、廟の祭享一切舊式に遵ひ其の月日は何れも陰暦を用ゆることゝなり昨日の官報は之れに關して左の詔勅を公けにせり

有國祀典、以曆爲敬、而伊時內閣之逆臣輒命、造成改曆、已極無謂、況又新曆頒行日子、原自在此、其在遵依之道、尤極未安、自今太廟、殿、宮、各殿、園壇享、一遵舊式、凡大中小祀月日、幷用舊曆、

建陽元年七月二十四日　宮內府大臣　李載純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圜丘、社稷、諸山川、諸殿享祀、其令宮內府大臣、掌禮卿、奉常司長、掌禮署正、亦令掌禮院、奉常寺行、

建陽元年七月二十四日　宮內府大臣　李載純　內閣總理大臣　尹容善　內部大臣　朴定陽　學部大臣　申箕善

祀典既已復舊、不可無告由之禮、宮內府大臣設行、告文祭祝撰以下爲、

建陽元年七月二十四日　宮內府大臣　李載純

●告由と祭官　別項に記せるが如く大小の祀典凡べて舊式に復したるに付き去る二十五日を以て此事を宗廟に告由せり而して其の祭官には內部大臣朴定陽、農商工部大臣趙秉稷の二氏之れに當りたりと

●露公使の病氣　聞く露公使ウエーバー氏は頃來病んで臥床に呻吟すと側聞す將勢近かころ如何氏や此邦を扶掖し其の勢力を張らんとせず其の爲め殆んど[illegible]しきのみに因せん予後は氏の爲めに怨む北漢の山漢江の水其の清き其の深きと未だ氏の健康を保つに足らざるを以て何くも氏の病狀に堪へんとすと予輩は此好報を得たると祝し氏の專心自愛以て健康かに平常の健康に復せんことを祈る

●諸元老の引退　我きに幾多の經綸を抱ひて入京したる金炳始氏が入京後自己の意見行はれ難きか破して復た仰平の北に退隱したることは過日の紙上に記せしが如し而して金氏と相提携して共に國務を救濟せんことを自期したる鄭範朝氏も夫の十五ヶ條の獻議（去る十四日の本紙參照）終ひに容れられず且つ金氏の退隱せるを見て亦た全たく手を引き鄭範朝氏及び其の他一二の元老も亦た傍りと聞く

●閔泳煥氏　目下京畿道交河に閑日月を送し居れる同氏は近々或ひは入京するならんと云ふ一説によれは氏召喚の使者は此の程政府より發せられたりと

●制度復舊の施行　一時今にも發表されん如く傳へられし制度復舊の事も諸元老の退隱と共に地方制度を除く外は昨今全たく沙汰止みとなれるものゝ如しと云ふ

●地方制度發布の期　去る二十二日各部大臣及び協辦が內部に會し復舊地方制度發表のことに就き協議せしは前號に記せしが爾後聞く所によれば同件に就ては爾後殆んど每日の如く引續き會議を爲せし由なるも猶ほ小田原評議に流れて更らに決定せず然るに此の始末遂ひに　叡聞に達し是き迄より斯くては果てしなければ成急何れにか決定して上奏せよと旨仰せ出されたるやにて內閣にては終ひに今明日中に綱領を定め御裁可を仰ぐに決せし由なるも其の具體は固より門外漢の知り得べき所にあらざるも現に復舊制度の發表を見んは近きにあるが如し而して所謂復舊地方制度とは去月二十八日の本紙に報せしものと大異なかるべしと云ふ

●內閣小更迭の噂　別項記載の復舊地方制度にして發表せらるゝの暁には現外部大臣李完用氏は轉じて新設道の觀察使となり學部大臣には[illegible]部大臣申箕善氏轉任し法部には警務使李[illegible]氏入りて大臣となり又た農商工部大臣趙秉稷氏は水原觀察使（制度改正の上は漢城府には判尹、小尹を置き觀察使は水原に移す筈）に轉ずるならんとの噂あり

●大小の官吏俸　去月末頃より各部共俄かに官吏の出勤を督勵するに至りし由は曩に聞く所なりしが右は從來官吏の俸給は年俸若しくは月俸なりしに本月より大小官吏の俸給凡べて出勤日數に應じ日割にて支給することゝなりし爲めなりと云ふ

●公刑罰の處分　一兩年以前公刑を施行せる地方の郡守は悉皆之れを免黜することゝなりしやに傳ふるものあり

●金剛艦釜山に向ふ　過般來仁川港に碇泊中なりし帝國軍艦金剛は一昨日午前九時釜山に向け同港を出帆せり

●電線竣工（京城、義州間電線）　過般我が政府が京城、義州間に通ずる兩國の電線を朝鮮政府に讓與せしことは夙に紙上に記せしが如し而して聞く所に據れば其の後朝鮮政府は兩線を合して一線とするの計畫にて百餘名の工夫を派遣して之れが修理に着手し一線の修理を終へて他線の撤去を爲し居りしが十數日前に至り全線の工事全たく竣成したり而して之れに要せし日子は前後凡そ二ヶ月にして工夫の給料等は總べて之れを沿線各地方に賦課したる由

●郵遞司の昇級　今回新定の電報司官制は吏員の俸給等從來の郵遞司と權衡を得ざるの觀あるにわらざるが故に郵遞當局者に於ても此邊に注意し近々郵遞司官制を改正し電報司官制に倣ひて郵遞司を其所在地の狀況により一等二等の二種に分ち從來の俸給をも增額せんとし目下取調中なりと云ふ而して一等司長の俸給は三十圓に爲さんと云ふものと二十五圓にて可ならんと云ふものとの二說ありて未だ何れとも決せざる由

●郵遞司新設の計畫　通信局に於ては近々江原道江陵府に郵遞司を設置せんとし目下其の準備中なりと

●國本權氏と商務局長　商務局長の過般入京し居りたることは前號に記せしが農商工部大臣趙秉稷氏は前外部協辦たりしことあり

て永き田氏と相知れるを以て其の入京を聞くや人を遣りて田氏に面會を申込みし由なるが田氏は之れを謝絕して云へる樣は昨年を追想すれば自れ彼た君を見るの顏なし今まで我れ一たび鄕園を去るも明日更に再び來たるの日あらん此時を待ち徐かに膝を接へて舊交を溫むも亦た未だ晩からずと終ひに見へざりしとか

●閔泳駿氏の歸來　久しく前鎭撫使に在りし夫の閔泳駿氏は此程帝地に歸來せりと云ふ而して同氏は兩三年來露公使館に避難せし由なるが何故か兒弟に加付けられ遂ひに仁川に去りたる由

●李前郡守の上疏　前郡守李[illegible]氏は去る二十四日一篇の疏文を上りしと今其の大要を聞くに城內に外國兵民の在りとて居住し及び外國兵丁の駐屯するは大に不可なり宜しく速かに退去せしめ而して後ち畿邦及び故國府國事の大典を擧げさせ給ふべしと云ふにありと而して內閣は之れを却下せし由

●家屋所有權の決定　久しく韓政府と本邦人平野茂夫、三宅宗英、今永國純三氏の間に一問題となり居りし夫の岡本柳之助氏の借宅所有權に就ては去廿一日度支部會計局長代理度支部協辦佐官黃田氏より右三氏を相手取りて漢城裁判所に出訴し家屋明渡し請求の訴訟を起せしにより同廿三日裁判所に於て原告被告の辯論ありし被告は辯論中岡本氏を本件訴訟に參加せしめんとの請求をなせしも許されず更らに之に對し長崎地方裁判所に抗告せんとも申立てしも本件の如き事件に對する決定は終審にして抗告を許すべき性質のものにわらざるを以て亦た許されず二十四日被告は原告の請求通り家屋を明渡すべき旨宣告せられたり

●黃田、木村二氏　度支部協辦佐官たりし黃田淸氏は一昨日歸朝の途に就けり又た農商工部通信局協辦佐官木村綱太郞氏は本月にて契約滿期となりたるを以て明日京城を出發し歸朝せん筈なり因みに記す農商工部內の我が顧問、協辦佐官及び京城電報局の我が雇人等は再昨日氏を大和亭に招待して送別の宴を張りたり

●仁川府京城に引致せらる　仁川府住釜山人李顯竹を毆打死に致したりとの嫌疑を受けし巡檢李[illegible]は去る二十四日京城の出張地より京城の警務廳に引致せられたり

●當府總代事務取扱　當府總代淵上貞助氏は歸國以來已に三ヶ月を經過せしを以て居留民會議員及び總代の資格を失ひ因つて和田氏の淵上氏不在中の總代代理も自然に消滅せしを以て後任者選擧確定に至るまでは總代代理の職務として臨時總代事務を取扱はしむべき旨領事館より達せられたり

●大倉組の分離　我が大倉組と數名の朝鮮紳商とにて組織し鐵砲、警務廳等の用達を爲し居りたる株式會社は過般半季決算を爲し相當の利益もありたる由なるが今回右の決算を期とし雙方協議の上大倉組は全たく手を引き同組より出し居りたる資本は更らに朝鮮人中にて承繼することゝなりしと云ふ但し右は京城出張員にわらず會社の代理人松尾氏過般同組大阪支店に遣はさるべき總會の席上に於て出でたるに朝鮮斯くは相談纏まりしと松尾氏は已に歸任せり

●本月の商務會　[illegible]に於て開會せり常[illegible]る談話わりたる

●贋造銀貨　清國商人李鍾波同地我が郵便局[illegible]る模範中一葉の[illegible]より同局は彼れ外註意らに之れの取調を請求せしによれば同贋銀は[illegible]なるものより選[illegible]に同人を召喚し[illegible]日前在仁川の清[illegible]立たるにより更[illegible]べしに同議へは[illegible]々持參するもの[illegible]ず其證に受取り[illegible]りと而して其關[illegible]使したるが形跡[illegible]之れを沒收し關[illegible]は右贋造銀貨は[illegible]技術は頗る精巧[illegible]使用され居たる[illegible]注意をなすにわ[illegible]なりしと聞より[illegible]れ居るべければ

●支那巡查來る　[illegible]と殆んど相前後[illegible]平服にて入京し[illegible]近に其の他は清[illegible]りとの事わり其[illegible]かならざる時[illegible]りと期するもの[illegible]二三の支那人參[illegible]の前を通りかゝ[illegible]る平服巡查とし[illegible]引致せしめたり

●遞傳夫の仕損　[illegible]給は從來八圓な[illegible]圓に減じたる由[illegible]の餘一同協議の[illegible]如くに增さしめ[illegible]でしに郵遞司に[illegible]便物の集配に差[illegible]甚さ加減にわし[illegible]る候補者を搜索[illegible]選き居け斯くの[illegible]たりと是に於て[illegible]認したるに期望[illegible]運動を試みしも

●畏老異病　[illegible]るものわり本と[illegible]移住せりと云、[illegible]出で氷水を以て[illegible]に向て出し開手[illegible]ふ其狀況がら

八の入京をらし由ある往事を追想·ま我れ一るの日あらくを温むるしとか約に在りこりと云ふに推參せ逐ひに仁氏は去る其の大要因商民のに不可な而して後げさせ給之れを却所と本邦氏の雨に氏の借宅會計局及佐官武田部に出張より同中り彼はんとの請し此時地と此奇のて抗停をれ許され被害民をたりし武支商十にて契約出張し好の我が顧者は再昨去りたり所住釜山疑を受けの出張地代理上京しと以つひ強つて自然に消るまでは商議代表り逃せら名の朝鮮用途を議を爲し相の決算を手を引き朝鮮人中しけは深松尾氏道

牧同組大阪支店長に榮轉せしに拾かも之が後任者たるべき適當の人物なしと云ふより株主總會の席上に於て松尾氏より分離のことを申出でたるに朝鮮株主も余儀なく之れを承諾し斯くは相談纏まりしものありと聞く因みに記す松尾氏は已に數日前當地を出發せり

●本月の商話會　は一昨夜日韓貿易商社に於て開會せり當夜は加藤領事の商業上有益なる談話ありたる由

●贋造紙幣　去る十八日仁川居住清商同順泰へ韓人李某なるもの郵便切手買入の爲め同地我が郵便局に來たりし同人が差出したる紙幣中一葉の贋造日本銀行兌換券ありたるより同局は彼れを我が領事館に送り領事館又は更らに之れを同地英國領事館に護送し其の取調を請求せし由なるが英領事館の取調によれば同順泰は右紙幣を取引に朝鮮人金鎭木なるものより領收したりと云ふを以つて更らに同人を召喚して訊問せしに右金鎭木は四三日前在仁川の清商某號より受取りたる旨申立たるにより更らに又た某號を召喚して取調べしに同號へは從來右の如き贋造兌換券を持ち持參するものありしも此節度之れを發見せず其度に受取りて之れを行使したる旨申立たりと而して此の關係者は何れも惡意を以つて行使したるの形迹なかりし由にて右贋造紙幣は之れを沒收し關係人は一切放免したりとぞ因は右贋造紙幣は極巧なる石版なるも印刷の技術は稍々精巧ならずして且つ二三年前より已に使用され居たるもの、如く紙質に損し多少の汚染をなすにあらざれば眞贋を判別し難き程なりしと因より此種の贋物類は他にも行使されて居るべければ取引の際注意をすべきことなり

●支那巡査來る　過般夫の周知銓氏の入京と殆んど相前後して三十名ばかりの支那巡査平服にて入京し中十五名ばかりは水標橋の附近に其の他は清國商理衙門附近に宿泊し居れりとの噂あり其の何の爲めに渡來せしやは詳かならざるも蓋し清國商民の保護若くは取締りを期するものにや此の頃南大門通りに於て二三の支那人相鬪し居たるに兩三名の巡査其の前を通りかゝり此の体を見るや割て入りたる平服巡査として以上の支那人を取押へ所に引致せしめたりと

●郵便夫の仕損じ　京城郵便局の郵遞人の月給は從來八圓なりしに此頃同局にては之を七圓に減じたる由なるが是より郵遞人等は不平の餘一同協議の末解雇願を爲して俸給を從前の如くに增さしめんとの魂膽より總辭職を願出でしに郵便局にては少くも其れと見て取り到底物の集配に差支へなきよう一方には此等を諭さ加減にあしらひ置き他の一方には相當なる候補者を搜索し一人を得れば一人の辭職を許し斯くの如くして遂に此過半を入れ代へたりと是に於て他の者共は旣に此目論見の畫餅したるに屆き早く復職を求めて留職の運動を試みしも多かりしとは近來の一笑話

●水老異術　京畿道廣州郡松坡面に水老なるものあり本と洪州の人にて少壯の時當地に移住せりと云ふ水老異術の術、每日時刻を出て冷水を以て頭を灌し太陽の昇るを俟ち東方に向て坐し兩手を以つて日光を掬ふて之を吸ふ此術は研究から有形物を攝るが如し此の術は、故を宣は支那人も亦た之を知るもなかし、相率ゐ松坡本と市場なし其の之れある水老が五十餘歳の時、市民を命令し日を定めて市を開きしと稱せると、而して開市の年より今日までは既に百餘年を經過せり之れを以つて旅せば水老は寂し二百歲近くの人なるべし頭髮黃白相ひ交はり顔子の色を帶び林間に頑健今尚は仲買商を爲し日々市場を馳せ回はり居れり、斯くて其の名四方に傳播し併せ其老として雖鼓せざるなく此路來往の大小官吏の如きは必ず路を枉げて此水老を訪ふと云ふ戰ふに水老の術、我邦の長生教と全然相ひ同じ者といふべし、然に仙術か、將た將仙か

●朝鮮被衆毛　平壤の少年一日作を終んで上洛す、一行數人、皆な馬に乘る、中に金某と呼べる一少年獨り馬を背せず徒歩して後へに從ふ者より急用あるにもあらざれに印諸乙諸所世話しに打ち興し交話種々なく至りて存氣に歩行せり斯く殊を開てたる路側の畑中に優しき婦あり一行近に耳語きつゝ其しく樹間より窺ひしに茶に邊は十七八の少婦、老那と共に耕作し居れり爲替の一人乃ち手綱を纏げて金を顧みて曰く彼の少婦に此手綱を執らせ得ば僕は此の馬を君に提與すべしと金曰く承して然るか日好、金曰く然らば其の馬を僕に與へよと爲未だ辦了一行皆な路傍に狂れて金の爲すところを觀ふ、金乃ち其の馬に乘り畑中より躍せ出で、少婦の居る所に近づくや否や、關帳を開ち馬を畑中に入れ直に少婦の前に往く、婦、身を側ひけて之を避く金少し歩を開き少婦の行く路を塞ひ頭に馬頭を向けて其の家に至る如覺け金且ひ馬の畑中に迫はし少婦驚愕して曰く亦た奇怪なる馬なら耳やと老婦之を見て少婦に告げて曰く此れ馬出けよと少婦之れに從ひ手綱を執り求ひて之上の人實目なるが故のみ然く斯に之を路上にれを投上に出だすや乃ち大呼して曰く斯君何を金公の手際を見ざると劉禍以少年一時與しく此哭し小婦は大に慚ち顏を抵げて走り去り金は意氣揚々鞭を揚げて京路を辿る

●鄭居跋を説く　鐵島の農夫に鄭某なるものあり好んで博奕を爲す此の所作の爲め財尤も甚だしく人を見れば假ら咬む從人數へて近づくものなしと云ふ此の相類は例の通り貸物を耽して元山府に赴き國境平安道の山間を過過せる際義州數十名突然として現はれ出で與を要して馬匹及貨物を奪はんとす與之れと見て大ひに驚愕し朝鮮馬を棄てゝ跨走せしが與が手を離れたる鄭馬は忽ち從來の惡癖を現はし一目散に敵の群中に馳け込み當ると幸ひ或ひは咬み或ひは蹴りしが何かは以つて耐ゆべき忽ち十數名の馬賊は皆逃げ出し總徒に此の無勢に辟易しけん反りて許多の所持物を遺棄して四方に散走せり賊林の間に潜匿し居たりし與は此の體たらくを見て直ぐ匿れ出で來り馬匹を收捨し剰さへ賊馬の遺利品の内若干圓を收めて懐中不意に暖かに數日間潤澤せりと云ふ

●詐計を以て窮民家を陷れむとす　平壤に住む李名は洪某と云へる者あり家貧しけれども頗る奸智に富み一日一計を案出し同地の資産家某の亡父が已れの亡父に寄せたる借金あると探し出し自ら其筆跡に倣ふて之に一通の借用證書を僞造し且つ資産家某の家に往て金一千圓を借りたる旨相談せしく若は洪者が貧しき窮困なるを知るもへ俟さば返されものと思ひ折敢を設けて体よく之を謝絶しけり洪者は冷笑しつゝ去つて官へ訴へ證據を借れば利息を附じて返へすの義務ある故に金を借ることは予の好まざる所なれども予が貧困に相談せしは貴殿の亡父が予の亡父より生前一千金を借りたることありしを以て今之を返済を督促するのみ故に貴殿より何の理由も無く金を借らんと欲するにはあらずと某は頗る疑惑の体にて予の家は世前より多少の資格あり存父何ぞ苦んで金を他家に借らん夫れとも何かの事情ありて急に金を予が父に借りたるとせば双方存命の時に何かの沙汰を聞くべき筈なるに予に於ては曾て斯る事のありしを聞かずと洪者は憤然として怒り然らば吾方より官に訴へて曲直を決せんのみと言ひ放ち去る亦た之と前せり斯くて洪者は直に之を官府に訴法廷よりの招喚状は原告と被告とに下り期日に及んで原被兩造相伴ふて官衙に到りしも彼に關らん門前十數名の爲護わりて洪者を取り圍み汝は證書を僞造して人の金を奪はんと欲するかと言ひも訖はらず他の數十名下卒ひに之を地上に突き倒して其の儘入れ居りたる作んの證件を奪ひ取り何れも你自後に逃げ去りたり洪者は滿面血に染みて官衙に捉せ入り訴りし次第を訴へたるまで訴ふる身の是れかへつて原告洪僞は訴答なりと露知らざり、法官等は被告が金力を頼んで無法を働かし證書を奪ふて已れの非を掩はんとするものなりと斷定し直ち原告の請求せる一千金と之れ、對する利息外に負傷療治代として金三百圓を原告に渡すべき旨被告に申し渡したり被告は當場みして其意を恐れさも法官の命令には背き難く命の如く金を原告に渡し爾原告洪某は數日を経て被告の家に往き大聲にも一伍一什已れの計略を打明かして其非を謝し恐く其金を返却しければ某は大に之を喜び又た洪者の智略の甚だ恐るべくも且つ頗るべきを知り是れより頗れる交は宛ら兄弟の如く此前の會度何たりとも何ぞ惜し気もなく之れに恵與するに至りしと云ふ

---

雜錄　　正風會寄稿

第弐會正風兼夏季俳句合評撰選百有餘篇之内
男外接花四拾有五季上選遊續如何

水無月なかば
　　肯右　　□秋園近人

○弐拾句

打水に狎はし薄けく心かな　　湖月

仁川

水盤を離れて消し過ぎのそこ　　寂々史
朝顔の鉢ろ宵の後ろや蚊の声　　鶴水
興近く夜て夜かへけり蚊帳水　　靜月
川涸に牛のわらくやまの影　　不及
野に出て見えて彩なし月涼し　　江風
流れにも燈籠ある涼さかな　　浮月
早起の客そら低きや句ふ蓮　　梯翁
所縁や明けては音へる曉哉　　萩子
心して掛けかし弟子の團扇　　暁月

（未完）

日本郵船株式會社
瀬船仁川出帆廣告

●肥後丸　八百七十一噸　七月日入港　日出帆　同　釜山、對州、長崎、馬關、神戸行　船長　村井保

●玄海丸　八百七十四噸　七月三十日入港　同卅九日出帆　芝罘、天津行　船長　茂木鉚之

●豐島丸　六百八十九噸　七月廿一日出帆　同三十日入港　釜山、下ノ關、神戸行　船長　井上佐三郎

●長門丸　千百四十九噸　八月十三日入港　同四日出帆　長崎、釜山、元山、浦鹽行　船長　グイルソン

●薩摩丸　千百五十七噸　七月日入港　同日出帆　馬關、香港行　船長　ソンマー

●顯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會社　瀬船仁川出帆廣告

●木曾川丸　七月廿七日入港　同廿八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信濃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隅田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筑後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白川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二見丸　七月日入港　同日出港　釜山　馬關　神戸　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第三會正風集題

入花者（…）
判者
秋闌瑞穗宗匠　樂撰
（…）
寄限　七月卅一日限
八月一日
撰定
投込所　漢城（…）　正風會

◎和漢洋藥賣　（…）
各位ノ御愛顧ヲ蒙リ（…）
一層勉強仕候間不拘多少ニ不限御注文
（…）

日本人居留地　成尾安五郎

特別販賣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竄葡萄酒
●生葡萄酒
●平野礦泉
●白砂糖數品
外ニ●ブランデー●ウヰスキー●ベルモット●和洋酒●罐詰類●果物、鮭、鱒●洋菓子●香水●和洋小間物●諸道具●雜貨●食器類數品

泥峴　龜屋

廣告

（…）

呂興會社

瑞西製
最新最良チ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峴　龜屋分店

スコット乳（…）
レーフル油（…）
支炎、瘰癧、及喉咽病、肺病、氣管
虚弱の小兒（…）
（…）

紐育製藥舖　スコット
及バウン敬白

日本特約販賣店　小西儀助

朝鮮國一手販賣
京城泥峴　服本商行

地球印藥用ブダウ酒
時ノ古今ヲ問ハズ邦ノ東西ニ論ナク酒精剤ノ飲料アニ
酒ハ百薬ノ長ナリト又云フ酒ハ愁ヲ掃フノ箒ナリト然
然ル所以ヲ略陳スレバ
第一　之レヲ飲用スレバ体温ヲ増進シ醗素ノ
（…）
第二　之レヲ飲用スレバ精神ヲ興奮シ以テ精神ノ
シハルヲ得ベシ
第三　之レヲ常用スレバ血液ノ循環ヲ迅速ナラシ
身体ノ健全ヲ計ルヲ得ベシ
以上掲ゲタル八皆ナ薬用ブダウ酒ノ効ニアリ斯ノ如
用ヒテ能ク其ノ精神ヲ興奮シ其ノ思慮ヲ増進シ其ノ（…）
加之既ニ我邦（…）ヨリ左ノ如キ賞状ヲ授リタリ以ッ
ナルヲ知ルニ足ルベシ

一地球印ブダウ酒
之レヲ（…）スルニ（…）ヲ見ズ（…）
ナルモノト認定ス要スルニ今回ノ（…）ハ本邦
夏期ニ出デ、夏期ニ逗ヘ（…）ノ正下ヲ
多カランヿ想像セシニ少シモ其ノ（…）ヲ見ザ
トス實ニ今ヤ政ワハ其ノ効能ヲ（…）以上ノ賞

東京市日（…）

發賣元　東京（…）

朝鮮國特約店

石川商會ハ今回都合ニヨリ和泉商會ト
及ビ火藥販賣ノ營業仕候間此段廣告仕
各國時計
眼鏡及火藥　商
追テ弊店儀今回日本ヨリ（…）數多着
次ノ（…）

和利

石川商會と今回와泉商會로（…）
時計眼鏡及火藥을販賣營業（…）
各國時計
眼鏡及火藥　商
에게設立하옴
和（…）
本商會에서日本에서（…）
購求하시오

●客旅館ニ（…）
旅　京城（…）
館　東京館

一皮座蒲團丸形角形夏
帽子日本向朝鮮向石鹸
右新着廉價販賣仕候也
京城泥峴　鈴木大阪堂支店

一（…）

## 用ブダウ酒効能書

ナク酒精剤ノ飲料アラザルハナシ古昔ヨリ称ヘテ曰ク
愁テ掃フノ箒ナリト雖シ又タ理ナキニ非ラズ今ヤ其ノ
チ滋進ス盛シ健康ノ消費ヲ要シナガラシムレバナリ以テ
ヲ発育シ以テ精神ノ疲労ヲ医ス可ク過度ノ気象ニ造テ
ノ循環ヲ迅速ナラシメ以テ筋肉ノ営養ヲ益セシ得ベク
酒ノ効ニアリ斯ノ如クナレバ沈鬱憂悶性ノ人ハ之レヲ
意ヲ愉進シ其悲哀ヲ除キ其疲労ヲ去ルヲ得ベキナリ
状ヲ察リタリ以ツテ我ガ地球用適用ブダウ酒ノ至妙

## 酒

ヲ見ズ遠地運送及ビ遠洋航海ノ船舶用トシテ最モ適当
ニ今回ノ航路ハ本邦ヲ発シテロリ始終太陽ノ近テ過ヒ
殊ニ太陽ノ正下ヲ経過スルコ両度ニ及ビ必ラズ変質
モ其ノ醸酒ヲ見ザルハ品質良好ナルモノト認定ス
セザルモ以上ノ状態証明ニ依レテ知ルベキナリ

東京市日本橋區小舟町弐丁目

伊部商店

京城

隈本商行

日ニ日リ和泉商會ト改称シ益々特別販売
仕候間此段広告仕候也

### 和泉商會

日本ヨリ鳩校数多着荷仕候ニ付倍々御注文

以上便利로 서 和泉商會라고 改称흐야
物品販賣業을흐오니 此本會江御請求

### 和泉商會

日本에서 鳥銃이 数多히 나왓스니 請求흐시오

## 館

とす
とす

## 一肥い朝鮮飴

名産朝鮮飴ハ肥後國ノ名産ニシテ其
抑モ北ノ朝鮮飴ハ肥後國ノ及ブ所ニアラズ
味ノ美好ナル実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
且ツ幾日ヲ經ルト雖モ品数ノ悪質ク粘ナ
一両ヲ溶ヘ國ケハ出荷ノ菓子トレ最上
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ヲ購テ試用レ
玉ハンコトヲ請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用形夏
両石験
仕候也
泉支店

今般獨乃及ビ鉄内料約ヲ去ル十八日ヨリ大
弓仮楽部内ニ販出仕候間御賑々御来遊被下
度伏シテ奉願候

京城大弓
倶楽部内

中嶋

---

## 銃 獵銃

荷着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獵銃附屬品

廣告

和泉商會

護漢履
長履
西洋服各種
帽子

---

生魚
生肉に優
さる夏の
衛生料理

● 飯章魚
● あまし鯛
● いわけ
● さ
● 佃煮
● 松たけ
● 竹の子
● 伽羅ふき

● 茄子辛子漬
● 八千代巻
● 時鳥巻
● 時雨紫蚰
● 海苔大和煮
● 味付海苔
● 福神漬
● 其他鑵詰各種

京城 泥峴

龜屋分店

---

パイレート ◉ 金銀各種眼鏡
朝鮮國一手販賣
貞洞 辻商店 ◉ 泥峴 辻支店

● パイレート煙草ノ儀今般東京岩谷商會ヨリ輸入元木
村商店ト特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
販売ヲ相始ミ非常ノ勉強ヲ以ツテ賣弘メ
候間倍々御注文ノ程希望候

尚ホ此他各商販賣ノ煙草ハ

● フレドレスクリンナモンドコスリーカスルコス
レードカイトコバチデユーリカメルガルフ
ナルキゾルロイノプレスコカロウナロビソヘツ
ドコスネトカ[illegible]ンキングフツシヤコ

● 金銀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ニシテ
今般新規着荷仕リ候ニ付御愛求ノ程奉願
上候

● 此他弊店本業ノ雑貨陳山取揃仕リ候ニ付
御引立ノ程奉願候

弊館御宿泊料之儀左ノ通リ相定ノ置々丁寧親
切ニ御待遇仕候間倍々御愛顧奉願候

| | |
|---|---|
| 一上等 | 壹圓 |
| 一中等 | 七十錢 |
| 一下等 | 五十錢 |
| 外二下等 | 三十五錢 |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三十八號

田原旅館

---

弊店儀今般営業更張ニ付價額多少ニ限ラズ
御愛求被下度此段伏シテ奉願候也

泥峴第三拾八號

阿津阪商店

新聞定價

| | |
|---|---|
| 一枚 | 弐錢五厘 |
| 一個月 | 弐拾五錢 |
| 三個月 | 七拾錢 |
| 六個月 | 壹圓參拾五錢 |

廣告料
二號活字弐拾字詰壹行壹回金六
錢但し行数及回数により割引仕
候合は[illegible]可申受候事

發行兼印刷人 林 [illegible]
編輯人 島田 [illegible]

朝鮮國京城南部會賢坊[illegible]

發行所、漢城新報社

# 漢城新報

隔日發刊

## 社告

本社活字生命에서、수명이得疾나셔、장삭이부족호ᄃ、남시에雇入ᄒᆞᄂᆞᆫ수도업스므로、부득이ᄒᆞ야、본일도全紙二面로ᄒᆞ오니、아모쥬록、용서ᄒᆞ야주시물브라압

七月二十六日　漢城新報社

愛讀者諸君

## 社說

### 說防疫令 (中)

今人有山居而患猛獸者、則必剪其深棘、而外設陷穽以防之、又從而戒其家人勿敢夜出于外、水居而患洪水者、則必築其堤址、而內起高樓以備之、又從而令其人日戒水之至而勿敢忽、此爲夫患禍之所及、不待敎令而後能也、若山居而不畏猛獸、水居而不虞洪水、則人皆笑以爲病風喪心之人矣、何則、天下之人、自非病風喪心者、無不欲生而惡死、則其於可以害生致死者、固將畏而防之、必竭其力而後止也、洪水猛獸之可以害人之生、亦已明矣、公然居之、而不知爲之防、是固非人之常情也、笑之以爲病風喪心之人也宜、今也之於疫、則反忽焉、遠其亦政矣、疫之猛、不減於洪水猛獸、而其所及、則有過大國不測者、是天下之可以害人之生者莫甚於疫者也、洪水猛獸之害人之生、固防之猶不足、則其於疫也、所以防之之術、豈有尤甚者、然而瓜也、水也、肉之色惡也、魚之臭惡也、足以致之也、而衣之不服、不愼沐浴也、寢臥於外也、足以迪之也、而居之不潔、飮食之不節也、足以召之也、而畏之不改、不知不防之、而反招致之益也、畏其之源在也、其國之成群也、足以、而愚夫愚婦能及之、今雖知之人或不及、難不待敎令而爲之、今雖反覆告戒而不爲、笑以爲病風喪心、今身處之而不爲異、其異於洪水猛獸、而其明於洪水猛獸而從之疫、洪水猛獸、抑其明於洪水猛獸而從之疫疾、爲人處而短於爲己謀哉、將爲疫之害生不及於、蓋亦安所習而不欲改而已矣、天下之禍、莫大乎安所習而不欲改、將爲其大之、安所習而不欲改者、之死不救、將爲害、將先覺而明之、將可及救之、其與禍也有間矣、且今經濟兩後、炎熱如燬、人人不中暑則苦之、中暑與否、故之爲也、近乃有一二疾於疫者、將爲傳火於枯草之原、傾傾炎炎、不可遏而圖也、今又遲而以防之爲、是其不免其國焉、其士、絕其宗祀則不止也、嗚呼、其加不改乎哉、大人常無不改之乎、安生而惡死、則其所以生之、

以不爲、今也疫所以甲生而就所以促死、雖欲生也、其亦因欲生而惡死、欲生而惡死、乃就所以促死、而不改所習、則是所習之而欲、其於生之可欲耶、其死之可惡耶、風喪心、

## 雜報

●英公使拜外部　영공ᄉᆞᄂᆞᆫ、지작일에 因分事 여관을다리고、외부를、방문ᄒᆞ야、대신니완용씨를、친면ᄒᆞ고、무ᄉᆞᆫ일인지、상의ᄒᆞ시ᄃᆞᆫ일이잇고、작일에도、오젼열호시쯤에、외부를、방문ᄒᆞ셧더라

●俄使卒逝　권노공사、민영환씨ᄂᆞᆫ、이등노국황제、ᄃᆡ관예식후에、일등훈장을사급ᄒᆞ고、슈권운치호씨ᄂᆞᆫ、이등훈장을、사급ᄒᆞ엿다더라

●閔泳煥氏家族拔移于門外　遣俄公使민영환씨의 가쇽은、민영체씨가다리고、수일젼에、서쇼문밧그로、옮마나갓다ᄂᆞᆫᄃᆡ、이ᄂᆞᆫ、아라사에잇ᄂᆞᆫ민영환씨가、편지ᄒᆞ기ᄅᆞᆯ、使命을셩공치못ᄒᆞ엿스므로、귀국ᄒᆞ게드면、분박그셔 得罪치아니치못ᄒᆞ겟노라고ᄒᆞ엿스므로、그러ᄒᆞ다고、말을ᄒᆞᄂᆞᆫ사ᄅᆞᆷ도잇더라

●公使派遣之消息　젼군부대신됴희연씨ᄂᆞᆫ、니준용씨ᄒᆞ고갓치、본월오일에 宋秉에셔、대판으로가셔 小泉집에서류ᄒᆞ다가、십일에、서경가셔、남마당 若宮旅館에 住接구경ᄒᆞ야잇고、또 須磨에계신　의화궁젼하ᄂᆞᆫ、지나간십삼일에、박영효씨등을、다리시고、대판에도러가시다가、곳셔경으로가셧다더라

●李範晉氏一行出發　쥬미공사、니범진씨와、출발한일은、젼호외기지、하엿거니와、참셔관니외담、셔기싱니교석、양씨ᄂᆞᆫ、낙후ᄒᆞ여잇다가、지작일외출발ᄒᆞ여、인쳔셔연ᄃᆡ로가ᄂᆞᆫ、비를ᄐᆞ고、상히로가셔、니범진씨와、갓치비를ᄐᆞ고、미국으로향한다더라

●官吏月給延滯　궁ᄂᆡ부、관리들이、월급이、되지、못할가、미리、염녀、혼단、말은、이왕、신문에、긔록ᄒᆞ엿거니와、지금、들으니、궁ᄂᆡ부、익명소속의、월급은、주고、관원들에、월급은、아직、되지못ᄒᆞ엿다ᄒᆞ니、과연、그러ᄒᆞᆫ지、우리ᄂᆞᆫ、풍셜을、긔록ᄒᆞ노라

●內部月給尙未撥　져거번에、셔로이ᄂᆡ부참서관ᄒᆞᆫ、홍진익씨ᄂᆞᆫ、김홍륙씨의、긴호문긔인ᄃᆡ、벼슬ᄒᆞᆫ지、여러날이、되여시되、ᄉᆞ진도、호번、아니ᄒᆞ엿ᄂᆞᆫ지라、지나간、시무닷ᄉᆡ날、ᄂᆡ부의서、월급을、달나고、탁지부로、청급명녕서를、보ᄂᆡ더니、탁지부、고문관이、월급을、아니보ᄂᆡ고、하ᄂᆞᆫ말이、ᄂᆡ부에서、요ᄉᆞ에、무숨、긴급ᄒᆞᆫ、사무가、만어셔、춍셔관을、셔로、ᄂᆡ엿ᄂᆞ뇨、그사ᄅᆞᆷ을、ᄂᆡ부디신이、셔로ᄂᆡ엿시니、그월급은、ᄂᆡ부디신월급등에서、갑ᄒᆞ게되면、ᄂᆡ부월급을、다보ᄂᆡ깃노라ᄒᆞ고、아니보ᄂᆡ여서、ᄂᆡ부관원들은、지금ᄭᆞ지、월급을、타지못ᄒᆞ엿다ᄒᆞ니、과연그러ᄒᆞ면、홍씨의모양도、남의수치요、대신의모양도、죠치못할듯ᄒᆞ나、이말이、여항풍셜이미、참、말인지、거즌말인지

●保護巡檢之稱傳　엇던、사ᄅᆞᆷ의、ᄒᆞᄂᆞᆫ말을、들으니、탁지부、고문관이、ᄒᆞᄂᆞᆫ말ᄉᆞᆷ이、보호ᄒᆞᆫ다ᄂᆞᆫ、것슨、무론누구던지、자가몸을、위ᄒᆞ여、보호ᄒᆞᄂᆞᆫ거신ᄃᆡ、지금、각부디신과、협판들이、두야로、순검을보호로、다리고、다니면서、경무쳥의서ᄂᆞᆫ、순검이、ᄯᅢ여서、거졍ᄒᆞᄂᆞᆫ일이、ᄉᆡᆼ기지아니ᄒᆞ니、자금위시ᄒᆞ여、각부디신협판의、보호순검의、월급은、각기그ᄃᆡ신의、월급등으로、ᄃᆡ급ᄒᆞ게ᄒᆞ이、가ᄒᆞ다고、ᄒᆞ더라말ᄒᆞ니、과연그러ᄒᆞᆫ지오、못ᄒᆞᆫ지로、긔록ᄒᆞᄂᆞᆫ고로긔록ᄒᆞ노라

●北關人民之上京 咸鏡도、함흥、경평、북쳥、경흥경성의인민들이、춍대스물명은、올녀보ᄂᆡᆫᄃᆡ、그이십명의위원은、일젼에、입경ᄒᆞ야、쳔히、ᄂᆡ부대신박졍양씨를맛나셔、이각처지방은、그지방관이잘못ᄒᆞ야서、인민들이、도탄、고상ᄒᆞᆫ다ᄂᆞᆫ스졍을상소ᄒᆞ고、그지방관을골녀달나고、ᄒᆞ엿다더라

●理由法律未奏送　그사이、법부의서긔초ᄒᆞᆫ법률을、지작일봇허、법률긔초위원권유섭씨가、영어으로번

[illegible]

、의뎡 / 에、원 / 니、과 / 는、기록 / 시로이 / 、김홍 / 훈지、 / 호번、 / 수닷싯 / 、학지 / 니、학 / 니보너 / 에、무 / 즘셔관 / 디부 / 군은、 / 되면、 / 고、아 / 지금새 / 나、과 / 납의수 / 얼못하 / 、말인 / 의면 / 고문관 / 것은、 / 하여、 / 되신과 / 一호로、 / 는、순 / 성각 / 각부터 / 은、각 / 급하게 / 나、과 / 유하는 / 옹、경 / 이、[illegible] / 이십명 / 、친히、 / 、이각 / 오야서、 / 는스경 / 달나고 / 부의서 / 、법을 / 으로번

여하기를、시작하여는데、번역되는
더로의부고문관、구레씨의게、고
문을、하다더라
●[illegible] 사오일젼부터、군부의
서、병뎡의、군안을、교정하여서、
어젼의、간한다、하는데、이동되부
더、지금거의、교졍이、되는데、그군
안、교정하여、쓰기는、글씨잘、쓰는
、사람으로、사울주고、고임하여、등
서하는데、병명의、거두성명과、기
와、용모파기를、다、기록하고、나히
얼마믄、다쓴는데、그고린된、사룸
들은、다、법률、양성소、졸업성도를
이라하더라

●[illegible] 온、본히、청국졍부가
[illegible]하든것과、일청교전때、일본군
디가[illegible]하든것과、두가지이셧스되
、일본슈비디가、나가든후에는、됴
션사[illegible]이、산어서집어가며、홈쳐
가서、쓰는슈업더니、일젼에、일본
졍부가、그二[illegible]을、됴션졍부로、교부
하는후에、됴션졍부는、그역군[illegible]
여명드려서、서울과의주사이에、젼
션슈리를、시작하니、젼의二[illegible]일
션으로하니、아니호건션졀노써서、
[illegible]어저부쟉하든디를、이여서、계우
、일젼에、아주성공하얏더라、그리
하고、그역군의사젼은、그길마의군
슈나、관찰스가、내벗다더라

●[illegible] 본월십일일의、영
국륜돈(서운)에서、나온、젼보를보
니、이태리국에각은、소직하얏더라
([illegible])가[illegible]、[illegible]、너각은「르지
니」[illegible]에너각인데、올봄、「그리
스비」[illegible]가、우비시니으국하고、싸
홈하는일로、신졍하야、소직하든
뒤를바다서、세우든、너각인데、
시방、이귀별을、쳡하얏스되、그
곡졀을、자세히알슈업스니、다시
긔별을어더서、긔지하는비잇스
리라

●[illegible] 일젼에、파사국
넌금을[illegible]가、죽엇스므로、그세지
으를되시니가、일젼에
[illegible]위한옵시든일은、그대、우리신문
에、긔지하얏거니와、시방、법국국
리(서울) 지난달、이십팔일에、젼
브븐보니、「데혜란」이란곳에서、
그[illegible]
[illegible]을、암살하려더니、그
넌금은、관계치안헛고、그[illegible]
잡혓더라

# 社告

本社[illegible]字[illegible]今回[illegible]人手[illegible]かに不足致し候故不得已本日は全紙二[illegible]の[illegible]化候段不悪御諒恕可被下候

七月二十日

漢城新報社

愛讀者諸君

## 雜報

●[illegible]公使外部を訪ふ [illegible]公使は一昨日[illegible]書記官を從がへ外部を訪問し大臣[illegible]用氏に面會して何事か談せらるゝ所ありしが昨日も亦午前十一時頃より同部を訪問せられたり

●米國提督の謁見 目下仁川に碇泊中なる米國軍艦「デトロイト」艦長ハウレイ氏及び隨員アノメ氏は此の程入京し去る廿五日米公使シル氏と共に參內に謁り 大君主陛下に拜謁せし由而して一昨日は右二氏共に仁川に歸任せり

●秋月書記官と加藤領事の夫人 新任公使館書記官秋月左都夫氏は加藤領事の夫人と同伴し昨日午前四時前任地釜山を出發し來任の途に就きし[illegible]に碇泊あり[illegible]

●[illegible]使以下勳章を受く [illegible]氏は公使[illegible]人[illegible]一等[illegible]と[illegible]氏は同二等[illegible]を何れも[illegible]京師より下賜せられ 大君主陛下には之を受領し及び使用することを許し給ひしとぞ

●閔泳[illegible]氏の[illegible]門外に移る [illegible]公使[illegible]泳[illegible]氏の家族は同氏の[illegible]泳[illegible]氏之を引[illegible]日[illegible]小門外に移住せし由右は此程在[illegible]の[illegible]氏より使者を派し移ざりしに付き昨朝八十[illegible]上は先づ門外に於て待昇せざるべからずとのことを通じ[illegible]せしに由るものなりと傳ふるものあり

●宮內官吏の件 昨日の紙上に記せし如く宮內府の[illegible]一萬[illegible]の大[illegible]を生ぜしため[illegible]一昨日は[illegible]くに小使等の外は大小の官吏[illegible]

●內部も亦[illegible] 洪在[illegible]氏[illegible]內部[illegible]に任せられしが[illegible]て出勤せずるに去る二十五日[illegible]り內部より本月分の俸給[illegible]を[illegible]部に[illegible]せし[illegible]は[illegible]氏の[illegible]は內部に於て[illegible]不用の官吏を任用したるものなりとし之れが俸給支拂を拒み又[illegible]中より之を除き去るにおらざれば全部の支出を[illegible]と力味居るやにて宮內府[illegible]內部官吏も亦た[illegible]本月分の俸給を受くるを得ずと云ふ

●京城に於ける[illegible] 前[illegible]部大臣[illegible]氏は[illegible]氏と共に[illegible]より大坂に入り[illegible]に宿して日々[illegible]し同十日を以て[illegible]に赴き日々[illegible]利[illegible]と[illegible]れり[illegible]十三日[illegible]を[illegible]へて上坂せられ直に[illegible]かる

●北部人民の[illegible] [illegible]北[illegible]、[illegible]人民の[illegible]二十[illegible]上[illegible]し[illegible]大臣[illegible]の各地何れも地方[illegible]人を[illegible]人民[illegible]に苦しみ居れりとて[illegible]し地方官吏氏の[illegible]を[illegible]せりと云ふ

●新法律[illegible] [illegible]氏は昨昨二十七日より愈々グレートハウス氏の[illegible]を受くべき新法律の[illegible]に着手せり

●[illegible]の[illegible] 京仁鐵道[illegible]李[illegible]氏は目下[illegible]中の[illegible]を待ち線路の[illegible]を[illegible]すべしと云ふ

●京仁鐵道工夫 は過日の紙上にも記せし如く條約面により九分通りは朝鮮人を用ひ[illegible]役者として十人長、百人長、千人長を[illegible]鮮人中より採用し千人長は外國語に通ずるものを採み又[illegible]用の木材並に石材は悉く大の朝鮮人にて[illegible]せる[illegible]用[illegible]にて引受くることとなるべしと云ふ尤も同工事中朝鮮人の手にて成功の見込みなきものは支那人の手に[illegible]し工匠及び人夫も幾分は支那人を雇入るゝならんと聞く

●露兵の野外演習 去る廿六日露國水兵二十七名は一名の士官に引率せられ西大門外アツパクリ(京城より約一里)に至り野外演習を爲し同日七時[illegible]せり

●紀念郵便切手の發行 明治廿七八年の役[illegible]中にて[illegible]去らせられたる故有栖川宮、北白川宮兩殿下の紀念として新に調製せられたる郵便切手は[illegible]の通り愈々來る八月一日より發行することとなり[illegible]地郵便局出張所に於ても同日より賣下げらるゝ由因みに記す該切手は二錢切手、五錢切手各々二種にして都合四種なり

●中樞院官の新任 從一品金[illegible]、從一品[illegible]、正二品[illegible]、從二品[illegible]、從二品[illegible]、從二品[illegible]、從二品[illegible]の七氏は中樞院一等議官に、三品[illegible]氏は同三等議官に何れも去る二十六日任命せらる

●大隊長[illegible] 過日[illegible]第五大隊長[illegible]氏が[illegible]として出征せし以後同大隊長の事務は[illegible]第四大隊長[illegible]氏之を兼[illegible]たりしが出征[illegible]の[illegible]日に於て[illegible]すべからざる者あり一人にして未[illegible]廿四日第五大隊中隊長[illegible]氏に第五大隊長[illegible]を命ぜられたり

●郡守[illegible]に[illegible] [illegible]郡守李[illegible]氏は地方の[illegible]に明かならずして[illegible]に[illegible][illegible]官[illegible]氏を[illegible]すべき旨去る廿五日[illegible]より命ぜられたりと云ふ

●[illegible] 李大[illegible]氏は去る廿四日[illegible]五大隊の[illegible]を[illegible]せられたり

●[illegible]の出發 米國在[illegible]を命ぜられたる公使館[illegible]李[illegible]、[illegible]李[illegible]の二氏は「明二十八日午後[illegible]を發して仁川に向へり二氏は[illegible]に[illegible]李公使[illegible]と[illegible]し共に[illegible]の途に就く筈なりと云ふ

●日本留學生の歸國 日本留學朝鮮學生中の十六名は昨日の木曾川丸便にて歸國せし

●[illegible] [illegible]の同[illegible]生は悉皆[illegible]に[illegible]用[illegible]となりしを以て更らに十名の[illegible]生を[illegible]くこととなりし近々[illegible]すと云ふ

●兵士の不平 [illegible]兵士の[illegible]は[illegible]なりしが[illegible]は一[illegible]一ヶ月[illegible]にて用[illegible]人の手に[illegible]しこととなせしに[illegible]なりとて兵士は何れも不平たらぐなりとか

## 雜報

●波斯新王狙撃の陰謀　此の程波斯の首府テーランにては又々新波斯王をも狙せんと謀りし者あり、或は幸に難に罹らず犯人は就縛したりと

●伊太利内閣　近着のルーター電報は報じて曰く伊太利内閣は又々總辭職せりと

●公使館員の歸京　命明政府の為め下仁中なりし公使館附渡邊、前前の兩少佐、加藤外交官補は昨日歸京

●家屋明渡請求に關する判決書

前號に記せし彼の原告代理人武田尚氏より平野茂夫、三宅恭英、今泉開輔の三氏を相手取り我領事館に出訴したる南學公廨明渡請求に關する判決書左の如し

判決書

（原被告姓名等略す）

原告代理人武田尚申立ての要領左の如し

被告平野外二名は度支部所管南學の公廨に故なく居住せるを以つて速く明渡しの督促に及びたるも其の命に應せず抑々該公廨は朝鮮政府の所有なることは元と京城を五部に分ち部毎に一の學校を建つることゝなり南學公廨は其の一なることよりて明かなり朝鮮政府は此の公廨を岡本柳之助に賃貸期間在職中を期限として貸與せり已に岡本が退職したる後は同人が居住することを得ざるは勿論同人より借り受けたりと稱する被告も居住するの權利なきは明かなり又た被告は該家屋が過去朝鮮政府の所有たりしに止まらず現に其の所有に屬し居る旨を証明せよと云ふが岡本柳之助が被告に貸へたる書面に依れば岡本は朝鮮政府より該家屋を借り受けたりとあり以つて所有權の朝鮮政府に在ることを証するに足る以上の理由あるを以て速かに退去を命ぜられんことを乞ふと云ふにあり

（以下次號）

●國内電報規則

一昨日勅令第三十四號を以つて國内電報規則を發布せらる之れに依れば電報は要急、同文、受信、送信報知、照返、別急の九類に分つ○取扱時間は三月より十月までは午前七時より午後九時まで、十一月より二月までは午前八時より午後十時迄とす（要急電報は此限りにあらず）○電報料は内國を通じ諺文は拾字銅二錢、漢文は拾字銅五錢、英文は拾字銅十錢、要急私報は右の三倍なり字數の計算は漢文電報は電報所制定せる所の數字四個を一字、英文電報は一ト綴りを一字とす

●補助貨の濫鑄と觀察使の訓令（釜山）　釜山港にては頃日來朝鮮補助貨（白銅、銅貨、黄銅貨）頗に信用を失ひ其の取引自然に杜絶せんとするの傾あり為めに今般上下般民恐慌を惹起したる由なるが東萊府觀察使池錫永氏は去る二十日管下人民に向ふて本國の貨幣にして政府の條例に依りて發行したる貨幣は何も之れを疎隔せずして流通なく行使すべき旨の訓令を發せり

●京城株式會社の利益　同會社は創立の時より昨年の決算期に至るまで二萬七千餘圓の純益ありたりと云ふ既に加へ此の外大倉組の一部の合資に加入せしは其目的全く朝鮮拔植の一端にもとづく義侠心より出でたるものなる由にて其効果今や朝鮮人のみ獨立して此種の事業を經營し得るまでに進歩したるにより前號に記載せし如き事情も有り勿々手を引くに至りしものなりとされば今回決算の際にも大倉組は近らに利益の配當を受けざりし由

●淡汎會正風集　勿募者以無餘白掲載次號

## 特別廣告

●三陸海嘯遭難者弔恤金（第四回）

一金五拾銭　木島辰五郎
一金五拾銭　小松力二郎
一金壹圓五拾銭　宮崎庄吉
一金壹圓　二宮常造
一金四圓　岩佐敬輔
一金壹圓　山川石藏
一金五拾銭　井本與吉
一金壹圓　野田忍治
一金五拾銭　清水猪太郎
一金貳圓　森脇太
一金五拾銭　京野常吉
一金五拾銭　坪田久種
一金五拾銭　原田於一
一金五拾銭（南大門庄井出張所々員）遠藤貞山
一金五拾銭　全　姓人　[illegible]
一金壹圓　中島岡助之助
一金壹圓　村上定作
一金壹圓　岩根平太
一金五拾銭　國上七左衛門
一金三拾銭　田中タ[illegible]
一金貳拾銭　末原米助
一金五拾銭（南大門通○天府員）濱田政吉
一金五拾銭　全　内野防三郎
一金壹圓　井山商店京城支店
一金壹圓　中川駿造
一金五拾銭　古賀忍太郎
一金壹圓　西河通徹
一金[illegible]　佐藤岡叙
一金壹圓五拾銭　[illegible]支村

小計金貳拾七圓三拾銭
通計金貳百三拾七圓六拾五銭也

## 廣告

**日本郵船株式會社 瀛船仁川出張廣告**

●肥後丸　七月　日入　日出帆同　八百七十一噸　釜山、對州、長崎、馬關、神戸行　船長　村井保

●玄海丸　七月三十日出帆、同廿九日入港　八百七十四噸　芝罘、天津行　船長　茂木鋼之

●薩摩丸　八月二日出帆（同日入港）　千百五十七噸　釜山、馬關、神戸、大阪行　船長　ソンデー

●豐島丸　八月三日出帆（二日入港）　六百八十九噸　釜山、下ノ關、神戸行　船長　井上悦三郎

●長門丸　八月十三日入港仝日出帆　千百四十九噸　長崎、仁川、元山、浦鹽行　船長　ヴィルソン

●緬益號

●蒼龍號

●海龍號

**日本郵船株式會社仁川支店**

**大阪商船株式會社瀛船仁川出帆廣告**

●木曾川丸　八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信濃川丸　八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筑後川丸　八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白川丸　八月　日入港　同日出港　釜山、馬關、神戸、大阪行

大阪商船會社　仁川荷客取扱所

●第三會正風集題　夏季題　句調正風

入花　金拾銭　[illegible]
秋　題　秋園　宗匠　[illegible]
判者

寄限　[illegible]
撰定　[illegible]

投込所　淡汎社　正風會

## 廣告

弘共往返朝鮮人ト合資ヲ以ツテ京城株式會社ヲ設立シ営業罷在候處今般都合ニ依リ双方熟談ノ上営業ノ全部ヲ挙ケテ朝鮮人ニ譲渡シ弘共ハ退社致シ候ニ付自今同會社ニ對シ従弘及其他共一切關係無之候間此段廣告候也

明治二十九年七月二十九日

大倉喜八郎代理
松尾平治郎
松尾平治郎

●旅館　東京館　京城泥峴
御宿泊は萬事御便利を旨とす

一皮座蒲團丸形角形夏帽子日本向朝鮮向石鹸
右新着廉價販賣仕候也
京城泥峴　鈴木大阪堂支店

瑞　最新　最良　一箱金　一打金　一個金

廣告　京城中部長通　[illegible]
고 [illegible] 
호ᄂᆞᆫ 朋合라
크 저 호ᄂᆞᆫ 이

●新着 [illegible]　●キ　●ア　●ア　●蜂印　●白
外ニ　●デ　[illegible]
野菜　油　[illegible]

新着　[illegible]

各位ノ御愛顧 [illegible]
一層勉強仕 [illegible]
御用ノ程伏 [illegible]
日本大坂
東區道修
町壹丁目

一 肥後名產 朝 [illegible]
抑モ此ノ朝 [illegible]
味ノ美好ナ [illegible]
且ツ疫ヲ [illegible]
一箱ヲ [illegible]
ノ好品ナリ [illegible]
玉ハンコト [illegible]

今般當 [illegible]
弘ク販賣 [illegible]
依テ [illegible]

川支店 廣告

取扱所

判者

薬撰

風會

治郎

治郎

館

夏形用

石鹸

候也

支店

---

新荷到着 特別廉價販賣

●キリンビール

●アサヒビール

●アサダビール

●蜂印香竄葡萄酒

●（舶來名酒 純良藥用）生葡萄酒

●（夏季唯一飲料）平野礦泉

●白砂糖數品

外ニ

●ブランデー●ウヰスキー●ベルモット●利休酒●西洋菓子●果物、鮭魚、野菜罐詰各種●佛國製販上等香水●油、男女綿絹帽子●和洋小間物雜貨●和洋煙草●洋食器類數品

泥峴 龜屋

---

廣告

京城中部長通坊갓전골에會社를新設ᄒ고西部鐵器局에鐵物과石炭等뉴를進排ᄒ는商會라各色鐵物과石炭等뉴를買用ᄒ고져ᄒ는이는이會社로오시요

昌興會社

---

瑞西製

最新最良ネスルスミルク

一箱金拾三圓五拾錢

一打金三圓五拾錢

一個金三拾錢

京城泥峴

龜屋分店

---

◎藥局方調劑工用 和漢洋藥廣賣

各位ノ御愛顧ニ依テ於ゝ益販賣相廣メ候間不相變多少ニ不限御注文御用ノ程伏テ希望仕候

日本大坂 京城泥峴 町壹丁目

成尾安五郎

---

一肥後名産 朝鮮飴

抑モ此ノ朝鮮飴ハ肥後國ノ名産ニレテ其味ノ美好ナル遠ク他品ノ及ブ所ニアラズ且ツ夜日ヲ經ルト雖モ腐敗ノ患ナク殊ニ一箱ヲ添ヘ贈ケバ坐右ノ茶菓子トシ最上ノ好品ナリ大方之諸彦一箱ヲ購ヲ試用レ玉ハンコトヲ乞フ

朝鮮國京城泥峴

小林菓子製造所

---

今般揚弓及ビ室内射的場ヲ去ル十八日ヨリ大弓ハ泉部内ニ開場仕候間御散歩旁御來遊被下度伏シテ奉願候

泥峴大弓 御泉部内

中嶋

---

獵銃荷着廣告

西洋新式銃

元込銃

二連銃

日本村田式銃

獵銃附屬品

和漢履

護謨長履

泉商會

西洋服各種

帽子

---

生魚生肉に優さる夏の衛生料理

●飯章魚 ●あま鯛 ●いわし ●さけ ●佃煮 ●松たけ ●竹の子 ●伽羅ふき

●茄子辛子漬 ●八千代卷 ●時鳥卷 ●時雨紫艸 ●海苔大和煮 ●味付海苔 ●福神漬 ●其他鑵詰各種

京城泥峴 龜屋分店

---

パイレート ◎ 金銀各種眼鏡

朝鮮國一手販賣

貞洞 辻商店 ◎ 泥峴 辻支店

●パイレート煙草ノ儀今般東京輸入元木村商店ト特約ヲ結ビ朝鮮國ニ於ケル一手販賣ヲ相營ミ非常ノ勉強ヲ以ツテ賣弘メ候間續々御注文ノ程奉希望候

尚ホ此他弊店販賣ノ煙草ハ

●フレドレス。ツンチモンド。スリーカスル。ストレートカント。ハチデユーカ。メオ。カルワナル。キアル。インプレス。カロリナ。ピンヘフドース。ヰトカホ。ウヰンダフッシヤ。

●金銀各種ノ眼鏡ハ何レモ精巧ノ品ニシテ今般新荷來着仕リ候ニ付御愛求ノ程奉願上候

●此他弊店本業ノ雜貨澤山新着仕リ候ニ付併セテ御購求奉願候

---

弊館御宿泊料之義左ノ通リ相定メ極々丁寧親切ニ勉强仕候間倍舊御愛顧奉願候、

一上等 壹圓

一中等 七十錢

一下等 五十錢

外ニ下等 三十五錢

明治二十九年七月

京城泥峴 三十八號

田原旅館

---

弊店儀今般當油類買相始メ候條多少ニ限ラズ御愛求被下度此段伏シテ奉願候也

泥峴第三拾弐號

阿津阪商店

---

新聞定價

一枚 貳錢五厘

一個月 貳拾五錢

三個月 七拾錢

六個月 壹圓參拾五錢

廣告料

五號活字貳拾字詰壹行壹回金六錢但し行數及回數により割引仕候代金は必ず前金にて可申受候事

發行兼印刷人 在林但人

編輯人 島田隆雄

朝鮮國京城南部會賢坊鑄洞

發行所 漢城新報社